

향토문화자료 10

백고장 龍仁

人物總覽

白眼看他世上人
小墟齋
應洲

龍仁文化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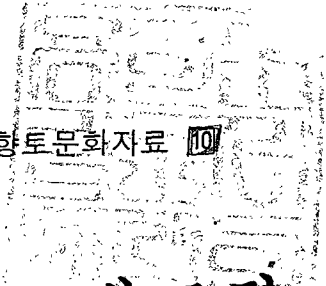


여

백

R
911.59

향토문화자료 10



내고장 龍仁

人物總覽

용인군립도서관
서

龍仁文化院

여

백

일 러 두 기

1. 이 책에 수록된 인물은 용인에서 출생·성장·우거하였거나 분묘 기타 역사적 사실과 문헌·기록 등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망라하였다.
2. 인물의 편집·기술상 참고된 문헌과 이를 집필 조사 연구한 집필자의 이름을 본문 말미에 명기하였다.
3. 인명은 가나다순으로 편집하여 찾아보기 쉽도록 하였다.
4. 이 책에 수록된 인물은 용인에 업적을 남긴 최근의 인물까지 기술하였으나 생존자는 제외하였다.
5. 이 책에 누락된 인물에 대하여는 계속 조사 연구하여 추록 또는 증보판을 발행할 때 추가하기로 하였다.
6. 시대는 왕조와 연호를 먼저 쓰고 연대는 괄호 내서하였다.
7. 인물 기술의 앞 또는 말미에 용인과 관련있는 내용(성장·출생·묘·생거·기타 의병, 효자등)을 표기하였다.
8. 이해의 도움을 위하여 관직명·성명·자·호·지명 기타 상용되지 않는 고자·고어는 한자를 괄호 내서하였다.

여

백

원문누락

원문누락

원문누락

원문누락

이천기.....	253	임희원.....	270	정유성.....	294
이충운.....	254	자 초.....	270	정윤복.....	294
이취영.....	254	장만영.....	270	정응규.....	295
이치교.....	255	장우한.....	273	정의현.....	296
이치상.....	255	장옥진.....	274	정일영.....	296
이치옥.....	255	전 씨.....	275	정재위.....	297
이치원.....	256	전월순.....	275	정주원.....	298
이 탁.....	256	전 임.....	276	정 준.....	299
이필구.....	256	전필순.....	279	정철화.....	300
이하경.....	257	전혜린.....	280	정충전.....	301
이하윤.....	257	전홍교.....	282	정 탁.....	302
이한웅.....	259	정계주.....	282	정한영.....	302
이 핵.....	261	정규동.....	282	정 호.....	302
이현보.....	262	정규복.....	284	정호선.....	303
이 혼.....	262	정기인.....	284	조광보.....	304
이홍간.....	262	정도장.....	284	조 언.....	305
이홍광.....	263	정택장.....	285	조광조.....	306
이홍운.....	265	정도채.....	285	조광조 문인.....	308
이효득.....	265	정리옥.....	285	조광좌.....	310
이효륜.....	265	정몽주.....	286	조구행.....	310
이희동.....	265	정 보.....	290	조규승.....	311
이희조.....	266	정 상.....	291	조덕공.....	311
임갑성.....	266	정세규.....	292	조복양.....	311
임 관.....	267	정승빈.....	292	조 사.....	312
임옥여.....	267	정 씨.....	292	조 씨.....	312
임 정.....	268	정 엽.....	293	조 씨.....	313
임창수.....	269	정 우.....	293	조영복.....	313
임허옥.....	269	정원경.....	293	조영석.....	316

조윤봉.....	318	최사립.....	334	한진계.....	348
조 익.....	318	최사용.....	335	한진교.....	348
조인영.....	319	최사위.....	336	허 균.....	349
조정희.....	319	최상근.....	337	허 봉.....	350
조종우.....	320	최석두.....	337	허 성.....	350
조중회.....	320	최선민.....	337	허 엽.....	352
조지정.....	321	최 씨.....	338	허 적.....	353
조진관.....	321	최언영.....	338	허 형.....	354
주석환.....	321	최영철.....	338	현인복.....	355
주영환.....	322	최옥명.....	341	홍계희.....	355
주향도.....	322	최옥순.....	341	홍금만.....	356
지인중.....	322	최옥호.....	341	홍 돈.....	356
진 화.....	323	최유경.....	341	홍명운.....	356
채민석.....	325	최 조.....	343	홍명하.....	357
채유찬.....	325	최진립.....	343	홍백진.....	357
채제공.....	325	최창부.....	344	홍사용.....	357
천정근.....	329	최춘봉.....	344	홍순복.....	359
추 적.....	329	최 향.....	344	홍 씨.....	360
최국만.....	330	최 호.....	345	홍중엽.....	360
최규서.....	330	한 구.....	345	홍중옥.....	360
최노침.....	332	한명운.....	346	홍중보.....	361
최내길.....	332	한 씨.....	346	홍직필.....	361
최덕린.....	332	홍 씨.....	346	황경준.....	361
최덕순.....	333	황 씨.....	347	황 립.....	362
최만상.....	333	한영규.....	347	황효원.....	363
최사강.....	333	한용구.....	348		

강 급(姜 玦)

양지현감(陽智縣監), 현종 원년(1660) 도입한 현감으로 현종4년 2월까지 재직하다가 영능(英陵)의 제사에 쓸 제수의 수급에 차질을 빚게 한 죄로 파직되었다. 영능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昭憲王后)를 모신 합장능이며, 세종대왕은 세종32년(1450) 2월 17일 승하하였고, 동년 6월 6일에 발인하여 6월 12일 안장(安葬)되었는데 양지관내에는 각 능원복(陵園復)이 일백결(一百結) 80부(負)가 있었는데 양지현감 강급은 여기서 영능제사에 필요한 물종의 수급을 소홀히 한 나머지 제사에 차질을 빚게 한 사유로 파직된 것이다.

〈참고 : 시사연표, 양지읍지, 세종문화유적총람〉, 금병윤

강춘선(姜春善)

항일의병, 구 한국군 퇴역(강제해산) 군인으로 용인군 용천곡(현 의사면 용천리)에 거주하였다.

“나라의 형세가 위미(委靡)하고 국권이 기울어 가니 국민된 자로 잠잠히 보아 넘길 수 없다”고 하여 시위대(侍衛隊)에서 해산당한 김재선(金在善), 송주상(宋柱祥), 김태동(金泰東)등과 함께 고향인 용천곡(龍泉谷)에서 의병장 남상목(南相穆) 휘하로 들어가 융희1년(1907) 7월, 50여명으로 의병대를 결성하고 그 후군장(後軍長)이 되었다.

그후 의병활동을 전개하던 중 음성에서 일본군과 교전하다가 패전하여 흩어진 후 종적을 감추었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참고문헌 : 융희2년(1908) 7월 13일 형 제46호 재판기록 참조〉, 이인영

경종지(慶宗智)

충근정랑갈성효절협척호성공신(忠勤貞亮竭誠效節協策扈聖功臣)묘, 남사면 복리 삼인동 본관은 청주 무과급제 후 봉정대부(奉正大夫)로 임실현감을 지냄. 임진왜란중 선조대왕을 모시고 의주까지 호종(扈從)한 공으로 선조 37년(1604) 호성공신(扈誠功臣) 3등으로 특선(錄選)되고 자헌대부(資憲大夫) 공조판서(工曹判書)에 증직되었으며 양성군(琅城君)에 피봉되었고, 배위(配位) 순흥 안씨에게도 정경부인의 첩자가 내려졌다.

묘는 원형 쌍분으로 묘비가 있다. 10여년 전에 묘역을 수축하고 상석등의 석물을 설치하였다. 묘하에 양성군충인사(琅城君忠仁祠)라 제액한 사묘를 설치하였다. 묘비 후면에는 호성공신으로 책록한 공신교서(功臣敎書:錄卷) 원문을 새겼다.

(참고문헌: 비문, 국사대사전, 한국고사전고), 이인영

慶宗智功臣錄卷敎書

王若日君臣大義固同得於彝倫爵賞殊恩豈有間於存歿予惟嘉乃何以報之頃在壬辰之鞠誦猝彼封豕之荐食土崩瓦解鋒遽逼於都城時危事難行伏遠向於關塞誠看奔竄擇棲之際孰是間關衛國之人惟爾確乎孤忠藐焉禁旅徒步入行在既自忘家而忘私尺劍從儲君寧知我勞而我勩造次顛沛之於是矚一死向上之心艱險阻之備嘗如萬折必束之水但循性而盡節豈感恩而効忠及茲還都之初卑爾專城之命將錄奉天之追扈大賞重耳之從亡茅土未遑嗟朝露之不得泉原永隔愍歲星之屢移尙忠魂之有知歟龍章之載舉肆策勳爲扈聖功臣三等超一階爵其父母妻子亦超一階無則甥姪女婿加階嫡長世襲不失其祿有及永世仍賜女婢七口田之十結銀子五兩表裏一段內厩馬一匹至可領也於廬山河百世庶見爾後之永休夷險一心庸示具僚之共勤故茲敎示想宣知悉。

萬歷三十二年十月 日,

고주현(高周鉉)

용인군수.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용인군수가 된 인물로서 1948년 1월 1일 도임하였다가 이듬해 1949년 3월 1일까지 만14개월간 재직한 후 이임하였다.

(참고: 용인군지, 시사연표), 노승식

공서린(孔瑞麟)

〈출생〉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원(昌原)이며 자는 희성(希聖), 호는 휴암(休巖)이다.

1483년 의달(義達)의 아들로 태어나 24세되던 1507년 생원이 되고 같은 해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중종4년인 1509년 좌랑으로서 정전예연(正殿禮宴)에서 여악(女樂)을 쓰지 말 것을 건의하였고, 사전체제(祀典體制)를 정비할 때 강경서(康景紱)·김안국(金安國)과 더불어

기신재(忌晨齋)혁파에 힘썼다.

1511년 사간원정언을 거쳐 홍문관부수찬·수찬·사헌부장령을 역임하기도 했다.

1516년 장령으로 경연(經筵)에 참석하여 노산군(魯山君)과 연산군의 입후문제(立後問題)를 제기하였고, 이듬해 시강관(侍講官)으로 경연에 참석하여 언로(言路)의 확장을 주장하였다.

1518년 《성리대전》의 감독능력이 있는 인물로 선발되었으나 승지로서 대간을 논박했다는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물러났다.

1519년 좌승지로 다시 서용되었지만 김굉필(金宏弼)의 문하에서부터 친교가 있었던 조광조(趙光祖)등 사림파 인물과 함께 기묘사화(己卯士禍)에 연루, 투옥되었다가 곧 석방되었다.

1524년 남곤(南袞)의 주청으로 공조참의가 되었고, 그후 파주목사·황해도관찰·대사헌·동지중추부사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성품이 자상하고 온화하였으며 사림파의 무죄를 상소하다 누차 관직을 삭탈당하는 수난을 겪었다.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박상돈

공윤항(孔胤恒)

〈출생〉,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사홍(士弘)으로 후에 성지(星之)로 고쳤다. 본관은 곡부(曲阜)로 대사헌(大司憲) 서린(瑞麟)의 9대손이며 원인(源仁)의 아들이다. 용인출신으로 가세가 빈곤하였으나 학업에 정진하여 왕의 명령으로 성균관에 들어가 정조 16년(1792) 초계문신친시(抄啓文臣親試)에 장원으로 뽑히고 정조 18년(1794) 춘당대알성(春塘臺謁聖)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정조 20년 사간원의 정언(正言)이 되고 병조좌랑(兵曹佐郎)에 이르렀다.

〈참고 : 한국고사대전, 용인군지〉, 이웅준

곽원진(郭元振)

묘, 외사면 박곡리. 고려시대의 문신 호는 석천(石川), 시호는 문헌(文獻), 본관은 현 풍, 예부상서 돈효(敦孝)의 아들. 문과에 급제하고 충렬왕 22년(1296) 정동행성(征東行省)에 의하여 원나라에 성절사(聖節使)로 파견되었다.

충선왕 2년(1310)에는 좌대언(左代言)을 지냈다. 명신록(名臣錄)에는 성리학(性理學)을 연구하여 육경(六經)을 주석(註釋)했다고 한다. 또 충숙왕 때에는 충효(忠孝)로 정려(旌閭)되었다. 기록을 보면 여지승람에는 성균관 채주로, 대동운옥(大東韻玉)에는 집현전제학으로, 동사보감(東史寶鑑)에는 진현관대제학(進賢館大提學)을 역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후에 포산군(苞山君)에 피봉되었다.

유원총보(類苑叢寶)에 전하기를 선생은 의협심이 강하며, 가난한 사람의 구휼에 힘썼는데 태학(太學)에 있을 때 어떤 가난한 선비가 찾아와서 조부(祖父)의 장례비 구하기를 청하니, 이를 동정하여 필요한 물건을 주고, 선비의 성도 묻지 않았다고 한다.

학문이 도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같은 덕행으로 세간의 칭송을 들었고 관직도 현귀(顯貴)하였던 인물이다.

그의 묘소는 당초 방형분(方形墳)으로 고려시대의 양식을 고스란히 유존하고 있어 우리나라 묘제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손들이 본래의 분묘 규모가 조선시대 분묘와 상이하다 하여 개장(開葬)한 후 유골을 이장(移葬), 원형분(圓形墳)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본래의 분묘 형태를 별도로 유지시켜 온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며 14세기 즉, 고려 후기의 고분문화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묘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인명대사전〉, 이인영

권대운(權大胤)

용인현령(龍仁縣令). 현종 12년(1671) 7월 용인현령에 임명되었으나 공교롭게 부임 도중 친상(親喪)을 당하여 도임하지 못하고 사임하였다. 이로써 역대 용인현령 중 최단명 현령으로 기록을 남겼다.

〈참고: 용인군사사연표〉, 노승식

권 만(權 轡)

양지현감(陽智縣監). 선조 19년(1586년) 5월 부임하였다가 그해 9월, 재난 복구를 태만히 하여 민원을 샅음으로 도임 3개월만에 파면된 수령으로 기록을 남겼다.

〈참고: 용인군시사연표, 용인군지〉, 노승식

권상하(權尙夏)

〈문헌〉 인조 19(1641)~경종 1(1721). 조선 문신 학자. 자는 치도(致道), 호는 수암(遂庵), 본관은 안동. 현종 1년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송시열과 송준길을 스승으로 삼아 학문에 전심하였으며 특히 송시열의 수제자가 되었다.

송시열이 기사환국으로 제주도에 안치되고 사사(賜死)당하게 되자 달려가서 이별을 고하고 스승의 의복과 책을 유품으로 받았다. 후에 숙종의 총애를 받아 우의정과 좌의정에 임명되었으나 끝내 모두 사양하였다.

글씨에도 뛰어났으며 기호학파의 일원으로서 이간의 학설을 지지하였다. 이 여의 뒤를 이어 1701(신사)년으로 부터 1721년(신축) 하세할 때까지 20년간 제20대 총렬서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참고: 총렬서원 원장록〉, 금병윤

권 적(權 楫)

〈문헌〉 숙종(1675)~영조 31(1755). 조선 문신. 자는 경하, 호는 창백헌(蒼白軒), 본관은 안동. 숙종 36년(1710) 생원이 되고 1713년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후 호조참판, 경기도 관찰사를 지냈다.

1746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서 함경도 시관(試官)으로 내려갔고, 한성부 판윤, 형조판서, 좌참찬, 예조판서를 거쳐 1751년 우빈객(右賓客)등 여러 요직을 역임한 후 1754년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평소 효성이 지극했던 인물로 경오(1750)년 부터 갑술(1754)년 까지 제27대 총렬서원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참고: 총렬서원 원장록〉, 노승식

권중수(權鍾洙)

〈생거·급제〉 영조 6년(1730~?). 자는 사문(士文), 본관은 안동(安東). 중덕(重德)의 아들. 영조 29년(1753) 계유식년문과(癸酉式年文科)에 갑과(甲科)로 응시하여 과거에 급제한 후 관직에 나갔으나 도사(都事)에 그쳤다.

〈참고 : 고사대사전, 용인군지〉, 박상돈

권 씨(權 氏)

〈효부·정려문〉 본관은 안동, 통덕랑 권재응(權裁應)의 딸. 영조 정해(1767)년에 출생하였고 의성 김씨 문중의 유성(維城)에게 출가하였다. 그는 시아버지가 환우로 위독할 때 그 남편과 더불어 3일 3야동안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였다.

시절이 마침 동짓달 이었는데 환우 중인 시아버지가 송이버섯이 먹고싶다고 하였으므로 다시 3일야를 기도하였더니 적봉산 소나무 밑에 송이버섯 3개가 돌아나왔다. 그후 꿩 두마리가 날아들었고 공중에서 배 세개가 떨어지니 이 모두가 이들의 지극한 효행이 가상하여 천우신조한 것이라 하였다.

마침내 시아버지의 환우가 치유되었고 이와같이 기이한 효행이 널리 알려져 세인의 귀감이 되었음은 물론 상(上)계서 들으시고 효부 정려문을 내렸으며 영인(令人)의 직위를 내렸다.

철종 경신년(1860)의 일이니 이로서 완장리 매능동에는 효자 김치복 이후 연속 4대의 열려 효부의 정문이 중복되었다.

〈참고 : 삼강행실록, 내고장의 얼〉, 이용준

금성정덕(金城貞德)

용인군수(龍仁郡守). 1942년 1월 도입 1945년 8·15 해방 전까지 일제식민지 통치하에서 임명된 최후의 용인군수이다. 금성정덕(金城貞德)은 한국인이 창씨개명한 이름이다.

〈참고 : 일제시대 관리직원록, 시사연표〉, 박상돈

김 경(金 敬)

〈출생〉 ~ ? 효자. 천성이 지극히 온후하고 효심이 두터웠기로 향당이 고을 원에게 품신하여 조세와 부역을 면제받았다.

〈참고: 읍지〉, 박상돈

김경현(金璟鉉)

〈생거·급제〉 고종 6년(1874~ ?) 본관은 광산(光山), 재주(在周)의 아들로 양지현(陽智縣)에서 출생. 고종 28년(1891). 신묘 3차정시문과(辛卯三次庭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참고: 한국고사대전, 용인군지〉, 박상돈

김구식(金九植)

기흥읍 하갈리 사람이다. 1919년 3월 30일 기흥면 신갈리 만세운동사건의 배후 인물로, 일본 사람들이 선심공세로 나누어 준 일본제품을 수거 폐기할 일이 있다. 이때문에 사기횡령등의 죄목으로 기소된 바 있었고 3월 30일 하갈리 하천변에서 수십명의 군중을 이끌고 시위운동을 벌였다.

이로 인하여 5월 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1년 6월의 징역형을 언도받고 6월 4일 경성복심법원에 항고하였으나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재판판결문(1919. 5. 12), 수원지방법원 독립운동사 2권, 용인군 의병항쟁 및 독립운동사〉, 이인영

김근수(金根洙)

독립지사, 낙양지구 선전공작 총책. 용인군 구성면 보정리 연원마을에서 거주하였고 임종하였다.

선생은 한일합병이 된지 3년후인 1912년 경남 진주에서 출생. 진주 정촌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 대판의 관서중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그곳 급우들로부터 〈조센징〉이라는 소리를 듣고 어린 나이지만 나라를 잃을 민족으로써 그 비분함이 마음속에 자라고 있었다.

처음에는 이를 악물고 학업에 열중하였으나 2학년에 이르렀을 때 문제가 생겼다.

「당연히 우리나라 말을 〈국어〉라 해야하고, 저들의 왜말을 일본어라 함이 옳았음으로 소위 국어(일본어)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질문을 받고 〈일본어〉라고 칭하고 〈조선어〉를 국어라 하였다」는 이유로 호된 기압을 받았고, 또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강요받았을 때 「나는 조선 사람으로써 당연히 조선어를 국어라 함이 옳다고 생각하며, 일본국가에서는 일본어를 국가라함이 옳다」는 논리로 의당한 주장을 했으나 결국은 사상불순자로 낙인 찍혀 퇴학을 당하고 말았다.

그때의 절망은 일본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돌변하였고, 또한 나라잃은 민족의 설움이 뼈에 사무쳤다.

그는 조국에 돌아가 보았자 불순분자의 꼬리표가 붙어 발붙일 곳이 없다고 생각했음으로 1935년 1월 어린나이에 중국 남경으로 망명길에 나섰다.

나라잃은 민족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이 한몸 조국광복에 바쳐 해방이 된다면 백 번이라도 죽으리라고 마음먹고 단신 황량한 만주벌판에 당도했으나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었다.

다시 찾아간 곳은 남경(南京)의 조선의열단이였다. 그러나 허우단신 찾아간 그 의열단에서는 선뜻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

그때 용인 출신의 오광선(吳光鮮) 동지는 이세주, 이석중 등 세 동지와 연명으로 하여 동년 5월 의열단원으로 정식 입단할 수 있게 되었다.

거기있는 동안 그는 국사와 사회과학 가치론을 수련하고 나서 이름을 왕석(王石)으로 바꾼 후 북경과 화북지방 애국지사와의 연락 임무를 띠고 활약하면서 일본의 대외 정세, 군사, 조선내부의 움직임 등에 관한 첩보와 일본군의 이동상황, 기타 군사기밀 등의 탐지의무를 수행하였다.

그후 1939년 8월 낙양의 조선의용대 제2지구대내 선전공작 총책의 임무를 띠고 활약하였는 바 그당시 낙양지방의 교포 또는 한인 사회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민족주의 등으로 분파되고 사분오열되어 민족의 역량을 결집해야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념을 초월하여 오직 항일투쟁에 전념토록 조정하는 막중한 임무수행

을 명령받고 활약하였다.

이때 그는 다시 왕진(王震)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장소나 지역에 따라 왕석(王石), 왕석(王碩)등의 가명으로 활동하던 중 1941년 3월 1일에는 낙양방송국을 통하여 3·1절 애국애족정신을 기리며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국내외 모든 동포들에게 쫓기할 것을 호소하는 방송을 단독 2시간동안 실시하였다고 회고하였다.

그해 같은 달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로 편입되어 잠시 도서실과 취사장의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다음해인 1943년 하남성 누하지방에서 대 일본군 심리전을 전개하는 한편, 적 정탐지, 선전선동 공작활동을 하다가 1944년 4월에 중경으로 가서 임무를 수행하였고 동년 7월에는 광복군 제1지대 만주지구 파견 공작원으로써 지하공작과 공작비 운반, 애국동지의 포섭 활동으로 조직망을 구축하여 광복군의 모집, 공작임무에 심혈을 기울였다.

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창군되었다. 창군당시는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의 6단계 부대로 편제하고 2년내에 3개사단 규모로 확장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응모자가 부족하여 지대를 편성하고 각기의 3개 구대를 두며 이를 다시 각 3개의 분대로 나누었는데 광복군 모집요원들의 눈부신 활약에도 불구하고 병력수가 부족하여 각 지대 정원 277명에 크게 미달되는 실정이었다.

그는 주로 첩보공작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4년 6월에는 전후 공작의견서를 작성하여 미국대사관 무관처에 제출하고, 동년 7월에는 미국 무관처에서 공작비를 인수받아 국내 및 만주지방의 독립운동가 연락대표책으로써 중경을 출발, 9월 만주 심양에서 윤원장(尹元章)등과 접선, 활동을 전제하였으며, 고윤원(高允源) 동지를 국내에 밀파하는 한편, 김언수(金彦洙), 김세원(金世元) 등을 만주 및 화북지방으로 밀파하여 애국지사와의 연락과 첩보공작에 헌신토록 하였다.

이로인하여 광복군 및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국내의 실정과 적정을 상세히 알게되었음으로 그 조직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내외 동포들에게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활약상을 소개함으로써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동포애를 발휘하여 한민족이 용기를 잃지않고 살아가는데 용기를 갖도록 하는 일에도 온 힘을 기울였다.

「오로지 민족해방을 위하여 젊음을 걸었다. 나라를 찾기 위해서라면 고생과 고충도

달게 여겼다. 그러던 중 1945년 6월 고유원 동지에게 내 임무를 맡기고 그간의 활동(정보)을 종합보고한 후 중경에 가서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고 활동하면서 8·15를 맞았다. 나는 첩보와 정보수집의 전문가였으니까 일본이 망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갑자기 그게 현실로 나타날 줄은 생각지 못했어. 차라리 어이가 없었지. 무절려야 할 적이 갑자기 사라진거야. 그렇게 어둡고 요원하게만 생각되던 조국광복이, 민족해방이 하루 아침에 모두 현실로 나타난거야.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기쁨, 감회, 허탈감에 우리들은 만세를 불렀고 그냥 많이 울었어. 중학교 2학년 시절 만주 망명길에 올랐을 때 한번 울었고, 그후로 그때 진짜 실컷 울었어. 바로 귀국했지. 태어난 곳은 진주지만 그동안 호적도 없어서 귀국후 만들었지. 어디 고향이 따로 있는가? 망명시절에는 조선 땅 한 귀퉁이라도 마음놓고 밟고 살았으면 하는게 소원이었으니까 나는 조국이 고향이지, 고향이 따로 없는 사람이야……」

선생이 보정리 자택에서 만년의 투병생활을 하면서 필자에게 들려주던 이야기이다.

한 나라를 찾으려던 지사의 안목은 지역 감정(당시 3김 정치구도에서의)과 같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 한심스럽게 보일 뿐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한때 서울에 있을 때는 공화당 마포구 대책위원장과 고문을 맡아본 일도 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이후 오광선 동지의 출생지인 이곳 용인을 찾아 낙향하여 정착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1992년 1월 30일 구성면 보정리 자택에서 서거하였다.

〈참고: 독립군전투사(하)〉, 이인영

김달상(金達祥)

〈묘〉 출생년도 미상. 선생은 고려말기의 공신으로서 본관은 전주(善州)이며, 한림학사 신함(愼緘)의 손자이자 직제학(直提學) 우류(右鏐)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고려 충목왕 3년 2월에 정치도감으로 출사하셨고, 공민왕 6년(1357년) 경상도 체찰사, 이어 추밀원(樞密院) 좌부승선 등 중책을 역임하였으며, 공민왕 10년인 1361년 신축에 10만의 홍건적이 삭주(朔州), 이성(泥城)에 침입하였고, 이어 경성이 점령되고 왕이 남천할 때 좌대언(左代言)으로 있던 선생은 공민왕 및 태후, 공주 등 비빈종실을 모시고 임진강을 건너 남행하여 수종한 공으로 선생은 신축호종(辛丑扈從) 1등공신으로 책

록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민왕이 흥건적의 침입으로 복주(福州)와 청주(淸州)로 피난하였다가 난이 진압되자 환도하여 흥왕사(興王寺)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 때 왕의 신임이 두터웠던 김용(金鏞)이 역심을 품고 무리들과 함께 이 절에 침입하여 시위병을 죽이고 왕까지 시해하려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는 왕을 온전히 호종하여 신변을 보호하였으므로 이 해에 또다시 부시피난(扶侍避難) 1등공신에 책봉된 인물이다.

그러나, 1364년 밀직부사(密直副使)로서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으므로 이를 시기한 무리들로부터 친척을 추천하여 관작을 범람했다는 모함을 받아 옥주(沃州)로 유배되었으나 곧 사면되어 한양윤(漢陽尹)에 제수되었으며, 1365년 양광도(楊廣道) 도순문사(都巡問使)를 역임한 후 화의군(和義君)에 봉군되었다.

1366년에는 동지밀직사사(中2품)로서 첨서밀직사사 목은 이색과 함께 요승 역승인 신돈의 형포로 탄핵상소한 좌사의대부 정추, 우정언 이존오를 국문하면서 왕명인 극형을 면하게 하고 관직강등으로 끝나게 하였다. 이후 금위제조관, 지밀직사사로 승진되었으나 1368년 신돈의 만행으로 나라를 망칠 것을 우려한 서녕군 유숙선생과 여러 충신의 논의가 발각되어 신돈의 흉악과략에 의해 유숙 선생과 함께 살육당했다.

신돈은 요승, 간승으로서 왕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왕의 근친과 모든 충신을 격리 간략으로 유배시키고 살육의 만행을 거듭하면서 마침내 왕을 살해하려다 발각되어 1371년에 처형되고 동년 7월 27일 대역 신돈에 의해 피화된 충신은 물론 연루인에게 대사면의 은전으로 복권되었다.

(참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고려사절요), 이인영

김달환(金達桓)

용인 사람이다. 1925년 무렵 재일한인 노동단체로 조직된 대판조선노동조합(大阪朝鮮勞動組合)을 어파(魚波) 송장복(宋章福), 지건홍(池建弘) 등과 함께 주도, 한인노동자의 권리옹호와 민족의식 고양에 앞장섰고 1927년 12월에는 김수현(金守縣), 신재용(辛載鎔) 등과 함께 신간회(新幹會) 대판지회(大阪支會)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1930년 10월 1일에는 신간회 계시지회(堺市支會)의 중심 간부들인 황보 윤(皇甫潤), 송웅갑(宋雄甲), 이운금(李雲金) 등과 함께 재일 한인을 규합하여 천주(泉州) 일반노동

조합(一般勞動組合)을 결성. 조합운동의 진정한 목적이 한국독립에 있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은 이러한 활동을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하에서 조직의 확대를 도모하고 민족의식고취에 진력하였다.

1931년 4월에 들어서는 일본 노동조합 총평의회(總評議會) 지지를 선언하고, 이어 조합활동을 표기하며, 기독교 단체에 관계하면서 신간회, 계지회 이래 민족운동의 노선을 견지해 왔다.

이와 같이 노동운동을 통해 민족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다가 1935년 10월 초일경에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으로 반신불수가 된 채 결국 출옥하였으나 3년만인 1938년 3월 19일 서거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명치백년총서(金正明) 독립운동자료집(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 노승식

김대건(金大建)

〈*은거, 시성인(諡聖人)〉 김대건은 1821년(순조 21년) 8월 21일 충청남도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에서 부친 재준(濟俊)과 모친 장흥 고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神父)이다.

본관은 김해, 아명은 재복(再福), 보명(譜名)은 지식(芝植), 관명(冠名)은 대건(大建)이다.

김대건의 집안이 천주교에 입문한 것은 그의 증조부(曾祖父)인 진후(震厚)때 부터이다. 그는 유학은 물론 불교에 까지 통달하여 널리 알려진 선비로 공주(公州) 감영의 관헌(官憲)으로 있었으나, 그 당시 당쟁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하자 벼슬을 버리고 초야에 묻혀 산수를 벗삼아 은거하던 부호(富豪)였다. 남인과 학자들과 가까이 지냈던 증조부는 실학파들의 선진외국·문물을 받아들여 연구하던중 교리서인 천주실의(天主實義)를 비롯한 많은 교회서적을 탐독하고 그 심오한 진리에 감화를 받아 「비오」라는 세례명으로 나이 50에 입교하게 되었다. 어렵게 영세한지 3년도 못되어 전라도 진산땅에 살던 남인파에 속하는 윤지충(尹持充) 「바오로」라는 교우가 모친의 상을 당해 위패를 모시지

* 시성(諡聖) 천주교에서 죽은후에 성인품(聖人品)으로 올리는 일

않고 제사를 다른 모양으로 지내자 벽파의 거두 홍락안(洪樂安)이 남인파를 몰아낼 구실로 천주교를 말살하자는 상소문을 올려 윤허(允許)받기에 이르렀고 그로인해 윤지충은 사학적인으로 처형되고 박해가 전국으로 파급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진후도 그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르게 되었다. 그 후 10년간의 옥고후에 해미옥(海美獄)에서 1814년 12월 20일 사망하였다.

천주교의 박해속에 15년간의 옥바라지를 해온 김대건의 집안은 친척과 이웃들의 조소를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김대건의 나이 6세때 부모를 따라 천주교도들이 모여사는 지금의 용인군 내사면 남곡리인 “골배마실”로 이사를 왔다. 천성이 어질고 총명하였던 김대건은 이미 15세에 사서삼경과 천주교리에 통달하였으나 선교사로부터 직접 세례를 받고자 미루고 있던중 프랑스의 모방 신부(PP Maubant)가 용인의 골배마실에 3일간 머무르게 되자 “안드리아”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

모방신부는 성직자 양성을 위해 인재를 찾던중 김대건과 시흥사람 “최도마”, 충청도 사람 “최방지거”등 세사람을 1836년 12월 2일 중국 광동의 마카오로 유학을 보내 그곳에서 7년간 신학을 공부한 김대건은 부사제(副司祭)의 품위를 받았고 한 때 필리핀으로 가 마닐라에서 공부하기도 하였다.

1842년 8월 아편전쟁이 끝난 후 프랑스의 극동함대 사령관 “세실제독”에 의해 통역관으로 채용된 후 중불강화조약에 참석 통역에 기여한 후 상해로 남겨진 김대건은 그 해 10월 만주로 건너와 우리나라로 들어오려 하였으나 국경에서의 감시가 심하여 3년간을 만주에서 머물면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나들던 끝에 1845년(현종 7년) 1월에 얼음을 타고 압록강을 건너 서울로 들어왔다. 그러나 당시는 천주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심한터라 그때의 정세와 천주교도들의 상황만을 파악하고 다시 상해로 빠져나갔다.

1845년 8월 17일 금가항에 위치한 만당신학교(萬堂神學校) 교회에서 페레올(Ferréol, J.J.J.B) 주교의 집전하에 사제서품(司祭敍品)을 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가 되었다. 이때 그의 나이 25세였다. 같은 해 8월 31일 페레올 주교, 다블뤼(Daveluy, M.N.A)신부와 길이가 25척, 폭 9척의 작은 목선을 타고 서울로의 귀경을 시도하였으나 제주도를 거쳐 42일이 지나서야 겨우 충청도 금강 하류에 있는 강경(江景)나루에 도착하였다. 이때가 1845년 10월 12일이었다. 이 후 서울로 몰래 잠입하여 천주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페레올 주교는 천주교도들이 많이 모여사는 용인 골배실을 본당으로 정하고 김대

건을 이곳에 파견하였다. 김대건은 어머니를 만난 후 이근 마을을 돌며 몰래 성사(聖事)를 주고 전교하였다. 이 때 주로 전교차 방문한 마을이 용인관내의 ‘은이’, ‘삼박골’, ‘은석골’, ‘한터’, ‘별미’, ‘사리치’, ‘떡뱅이’, ‘검은정’, ‘고추골’, ‘문시랭이’, ‘용바위’, ‘송골’과 안성의 ‘미리내’, 이천의 ‘단내’, 광주의 ‘시어골’, ‘덧골’등이다. 낮에는 주로 교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밤에는 교우촌을 찾아다니며 성무집행을 하였는데 당시 교우들은 몇 차례의 박해로 인해 몰락된 가문의 후예들로서 옛시절을 동경하였고, 친지나 이웃들의 멸시와 감시의 눈초리 그리고, 언제 당할지 모르는 박해에 대한 공포심으로 지쳐있었고 가난한 살림살이로 허탈감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교우들을 돌보기 겨우 6개월 페레를 주교의 부름을 받고 만주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메스트르(Moistre)신부와 양업 부사제에게 소식을 전하고자 1846년 5월 14일 마포를 떠나 백령도 근해로 나가 중국인 교포 어부를 만나 서신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순위도(巡威島)에서 군졸들에게 잡혀 신분이 드러나고 말았다. 1846년 6월 5일 김대건은 황해도 해주 감영으로 송치되었고, 다시 서울로 압송되어 의금부에서 국문(鞫問)하였다. 이곳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심문하였는데 그는 굴하지 않고 천주교 진리를 설명하고, 쇠국정책의 부당함과 문호개방으로 선진국의 문명을 받아들여 국가증흥을 이룩해야 한다고 역설하여 심문관인 포도대장은 물론 재상들까지도 그의 논리에 감화되기에 이르렀고 그의 영웅적 기백과 모험적 용기, 박학한 식견에 놀라 그를 회유시켜 국가동량으로 쓰자는 주장으로 헌종대왕까지도 그를 살리라고 말씀하신 바 있었으나 일부 완고하기 그지없는 원로대신과 한직에 있는 벼슬아치들이 반대하고 일어섰다. 이 때 프랑스 극동함대 사령관 “세실”이 인천항에 군함을 정박하고 위협하여 1839년 기해년에 프랑스 선교사 세명을 처형한 연유를 물으며 답변을 요구한 사건이 일어나자 어전회의에서 헌종은 「김대건사건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단말이요(金大建之事可以處之則萬好耶)」라고 자문하시니 자연 강경파의 주장이 채택되어 군문효수(軍門梟首)로 처형하라는 어명을 내리게 되었다.

1846년 6월 16일 용산의 한강변 모래사장 ‘새남터’에서 어명대로 참수형을 당하니 김대건의 나이 불과 26세였다. 그는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님이시여 가련한 이땅 조선을 버리지 마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저지르는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소서’하고 빌은 다음 군중들을 향해 ‘여러분도 영원한 복락을 누리려 하거든 천주교를

믿으시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을 영원한 광명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라고 한 후 다시 '이제 곧 광명의 시대가 열리거니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으려거든 천주님을 믿으시오'라고 말씀하신 후 '이제 나도 준비가 다 되었으니 내 목을 쳐라' '내목을 치기에 어찌 하면 너희가 편하겠느냐'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긴채 「희광이의 여덟번째 칼날아래 뜨거운 선혈을 백사장에 뿌리고 강열히 최후를 마쳤다. 그후 그의 시신은 군졸들의 감시하에 40여일이나 새남터에 남겨져 있었다.

그때 교우들은 시신을 옮겨놓 의논만 할 뿐 나서는 이가 없자 이동면 목리 검은정에 살고있던 이민식(李敏植)이라는 청년이 단신으로 가 군졸들의 경계가 소홀한 틈을 타 시신을 빼내어 3일만에 지금의 미리내 성지까지 도착하여 골배마을의 교도들과 함께 그(이민식)의 선산인 미리내에 안장하였다.

김대건의 순교는 세계에 알려져 1925년 7월 5일 교황 비오11세의 집전으로 시복식이 거행되었고 이날을 첨예일(瞻禮日)로 정하고, 김대건을 한국의 주보(主保)로 추대하였다. 1984년 5월 6일에는 한국천주교 100주년 기념식을 맞이하여 김대건을 비롯한 103명의 교도를 시성(성인)으로 선포하였다. 그는 옥중에서 정부의 요청을 받아 세계지리의 개략을 편술하였고, 영국에서 발간된 세계지도를 번역 색도화(色圖化)해서 정부에 제출하였다.

〈참고문헌: 憲宗實錄, 聖雄 金大建傳, 朝鮮殉教者傳(카톨릭출판사, 1961)〉, 최희면

김동현(金東鉉)

〈효자비〉 본관은 전주이고 자는 옥진(玉振), 고종 경신생(1880)이다. 상촌(桑村)에서 자수성가 하였으며 평소 사친효행(事親孝行)이 지극하였다. 경인동란(6·25)때는 모든 사람이 피난중이었으나 동현은 부친때문에 고향을 떠나지 못하였다가 적기가 폭격을 하매 그 부친을 등에 업고 산으로 들로 이를 피하여 화를 면하였다. 심한 폭격으로 전 마을이 불에 탔으나 동현의 집만은 폭격을 맞지 않았으니 이를 보고 모든 사람이 효행의 소치라하였다. 그후 부친의 상을 당하매 조석으로 곡묘(哭墓)하기를 삼년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았고 거상중에는 슬픔이 극에 달하였다. 사림(士林)이 찬양하여 비를 세웠는데 용인읍 유방리 버드실에 전한다.

그의 비에 기록되기를

양친에게 효도함은

백행의 으뜸이라

세상모두 부러워 칭송하니

천추에 모범일세

事親之孝 百行之道

舉世稱羨 千秋模範

(참고: 경주김씨새보, 효자비), 이응준

김 령(金 玲)

〈생거·급제〉 인조 25년(1647~?). 조선 문신. 자는 재원(載元). 본관은 삼척(三陟). 두찬(斗燦)의 아들. 숙종 8년(1682) 용인에 거주하면서 그해 임술증광과(壬戌增廣科)에 병과(丙科)에 응시하였고 병조좌랑(兵曹佐郎)을 거쳐 현감(縣監)을 지냈다.

(참고: 한국고사대전, 용인군지), 박상돈

김만제(金萬濟)

독립지사. 1879년 11월 20일 지금의 용인읍 김량장리 122번지에서 출생하였다.

본관은 경주, 호는 우송(友松) 또는 만송(萬松)이며 부친 김상언의 3남으로 한학을 수학(修學)하였다.

후에 서울 종로구 누하동(樓下洞)에서 금은방을 경영하던 두 형 밑에서 일을 보다가 융희 원년(1907) 6월 〈헤이그〉밀사 사건때 처가의 도움으로 여비를 구하여 동년 10월, 원산을 거쳐 배편으로 해삼위(블라디보스톡)로 망명하였다.

그곳에서 한인촌 애국지사들과 교우하였고 다시 생계를 위하여 〈하바로스크〉로 이주, 그곳 금광에 종사하다가 돈을 모아 다시 〈이콜리스크〉로 이주하여 금은방을 경영, 많은 돈을 벌었다.

당시 연해주 일대에는 의암(毅菴) 유인석(柳麟錫) 의병장을 중심으로 한인촌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김만제는 의암과 사제(師弟)간의 의를 맺고 있었다.

한편 그의 딸 김옥진자(金玉振子)는 안중근 선생의 딸인 안현생(安賢生)과 동창이며 동년배(同年輩)로써 안의사가 여순에서 거사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들의 생계를 돌보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융희 4년(1910) 8월 22일 본야(本野) 주 러시아 일본공사는 한국합병에 관한 일본정부의 훈령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전달하였고 <모스크바>에서 방송된 이 뉴스가 <블라디보스톡>의 <우크라이나> 신문사에 들어온 것은 23일 오후 4시로 이 소식은 삼시간에 우리 동포들에게 전해졌다.

이 비보(悲報)를 접한 성명회(聲明會)는 비통에 넘치는 격문 1천매를 즉각 인쇄하여 동포들에게 배포하고 결사 항쟁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 1910년 8월 29일의 국치일(國恥日)을 당하며 일본의 한국 강점(소위 한일합방)에 대한 부당성을 열강에 호소하는 성명회선언서(聲明會宣言書)를 발표하고, 선생은 이 선언서의 연서자(連書者)의 일원으로 서명(署名)하였다.

성명서의 선언문은 이상설(李相高)이 초안하였고 유인석(柳麟錫)이 수정하여 러시아어·불어·중국어 등으로 번역, 세계열강에 보냈다.

이 선언문에 서명한 사람은 서명록 1매당 77명씩 총 8,624명에 이르는 방대한 문서였다.

전 문(電 文)

<일본이 한국을 침범한 것은 세세로 원주일 뿐만이 아니라 조약을 체결한 누래로 누차 약속을 어기고 그 공법에 어긋나고 정의를 모멸한 것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지금 또 합방을 여러나라에 공포하는 것은 사실인 즉 우리 한인의 소원하는 바가 아 니고 그들이 스스로 외친것이다.

만약 일본이 과연 합방을 강행, 동양대국의 평화의 희망은 장차 영원히 무너지고 말 것이며,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무궁한 화가 끊어질 날이 없으리라.

귀 정부에 바라는 바는 이 사정을 잘 살피서 일본이 한국을 합방한다는 일본의 선언을 우리의 옛 우호를 생각하고 우리의 세계평화에 힘쓰는 것을 생각하여 승인을 하지 말아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대한일반인민총대(大韓一般人民總代)

유인석(柳麟錫))

선생은 1017년 12월 재 러시아 한민족회 중앙회 재정 책임을 맡았고 한편으로는 사재를 털어 〈니콜리스크〉에 사범학교를 설립하여 인재양성에 힘썼으며 국내에서 기미년 독립선언과 항일 시위가 전개될 때에는 지지시위를 개최하였고 라자구(羅子構)에 군사교육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군자금을 모집하여 지원하였으며, 청년들이 훈련할 때에는 많은 사재를 털어 제공하기도 하였다.

1933년 〈하얼빈〉으로 옮겨 한국독립당에 입당, 활약하였으며 1936년부터는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때때로 만주 각지의 동포들을 방문하여 민족사상을 고취하는 한편, 중국인과의 친선 및 우의를 증진하는데 힘썼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조국의 광복을 맞이하자 이듬해인 1946년 장남인 김동문(金東旻)의 가족을 따라 귀국하던 중 함격북도 청진에서 별세하였다.

선생은 해외에서 의병으로 활약하던 의암 유인석 선생의 문인으로서 유일한 용인 사람이며 일생을 해외에서 한민족의 지위 향상과 2세교육, 독립정신 고취 및 항일운동에 일생을 바쳤다.

〈참고: 독립운동사 5권, 용구문화 16호〉, 금병윤

김명화(金明化)

항일의병. 용인군 모현면 부계리(현:초부리)에 거주하였다. 일경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라고 하였으나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이익삼(李益三) 휘하의 의병으로 투신하여 융희 3년(1909) 3월 이래 포곡면 상동리, 상동면(현:이동면) 덕성리 등지에서 의병 활동 자금과 군용물자의 조달활동중 이동면 덕성리에서 체포되었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자료집 별책〉, 이인영

김병덕(金炳德)

항일독립지사. 용인군 구성면 상하리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밀파한 독립투사로 전라남도과 경상북도에 침투할 목적으로 입국을 기도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루었다.

그가 체되었을 때 경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불온문서 휴대와 입선자(入鮮者) 발견의 건

성명 : 김병덕(金炳德), 당년 22세

본적 : 경기도 용인군 읍삼면(지금의 구청면) 상하리

주소 : 상해 프랑스 조계 보창로 보강리 182번지

위는 지난달(1914년 10월 25일) 오전 안동현으로부터 조선에 들어가려고 철교를 통과할 무렵에 철교근무의 경찰에 의하여 불심검문중 휴대품의 대형 베게(枕)속에서 다음과 같은 불온문서를 적발하였으며, 또 목제 트렁크형 나무상자 속에서도 다수의 문서를 은닉하고 있음을 발견하여, 목하 신의주 경찰서에서 취조중이나 본인은 지난달 18일 경 상해 가정부(假政府 : 임시정부) 사무실에서 여운형(呂運亨 : 경기도 사람으로 원래 경성 기독교청년회 운동부장으로 있었으며 김병덕과는 10여년 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함)의 소개로 성명 미상의 가 정부원(임시정부 공무원)으로부터 전기불온문서 및 여비로써 일금 60원을 교부받고 이를 전라남도 및 경상북도에 배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자백하였다.

김병덕 소지품 베게 및 목함에 은닉된 불온문서

1. 포고 제1호 「남녀 학생에게」 100매
2. 포고 제2호 「상업에 종사하는 남녀 동포에게」 100매
3. 적의 관리인 동포에게 500매
4. 불온문서를 발송해야할 전라북도 및 경상남북도의 선인, 관공리인 학교직원의 주소, 성명표 2부
5. 김병덕에 대한 사령서(이동녕으로부터 전라남북도 및 경상남북도의 독립운동 준비 실행원을 임명한 것) 1매
6. 내무부 제142호(별지) 2부(1부는 목포예수교 각위, 1부는 목포 천도교회, 각위라고 한 것)

위의 1, 2, 3은 대정 8년(1919) 10월 28일 고경 제30110호 보고사항과 같다.

-대정 8년 11월 6일 고경 제31419호-

〈참고 : 독립운동사 자료집(9)〉, 이인영

김병호(金炳豪)

임시정부 공작요원. 용인군 포곡면 전대리 312번지에서 출생하였다.

1931년 1월 중국 상해로 망명할 당시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7-70번지로 되어 있으나 이 주소지는 그의 후손이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지의 주소이다.

그는 중국 국민당(國民黨)에서 활약하였으며 1943년 6월 상해 임시정부 요원으로 발탁되었다.

일본 나가사키(長崎) 형무소장의 재감 증명서를 첨부, 보훈처에 제출된 공적사항을 보면 그는 임시정부로 부터 특별사명을 띠고 상해에 도착하여 상해(上海), 남경(南京)을 중심으로 한국유학생 포섭, 남경 예비사관생도 초모(招募), 일반 민간인의 귀순 등을 위해 활약하다가 일본경찰에게 체포되어 1944년 8월 15일 재 상해 일본총영사관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6년형을 언도받고 나가사키 형무소에 복역하던 중 8·15광복으로 1945년 10월 10일 출옥하였다.

건국포장을 받았다.

(참고: 독립운동사, 보훈천(6), 한국독립사, 김승학(하)), 노승식

김사근(金士根)

항일의병. 경기도 양지군 주서면(현 용인읍 운학리 어득운 마을) 거주하였다.

당시 연령 25세의 청년으로, 융희 3년 령 제23호의 판결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융희 원년(1907) 음력 9월경 당시 정변으로 변혁된 정부의 새 정사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서, 그것을 변경할 목적으로 여러곳에서 봉기한 의병단체에 가담하여, 두령 임오교(林五敎)의 지휘하에서 동지 수백명과 함께 무장하고 죽산, 광주등지에서 활약하였다. 그 후 용인출신 의병장 정주원의 휘하로 이속하여 융희 2년(1908) 음력 2월 정주원의 휘하에서 수십명의 동지와 함께 용인군 내 여본구리(역북리) 부근에서 일본수비대와 교전하는 등 역전하다가 체포되어 융희 3년(1909) 3월 26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참고문헌: 융희 3년 령 제23호 재판기록참조), 이인영

김사목(金思穆)

출생 1740~1829.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백심(伯深)이고 호는 운소(雲巢)이다. 본관은 경주로 형조판서 효대(孝大)의 아들이다. 처음 음보(蔭補)로 기용된 뒤 여러차례 특지(特旨)로 김계군주가 되었다. 1772년(영조 48년)에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홍문관 부교리 보덕·승정원동부승지를 거쳐, 1774년에는 승지가 되었다. 정조 7년(1772년)에 대사간을 거쳐 다음해 영조의 즉위 주갑(周甲)을 맞아 경은가(慶恩家)로 인정받아 병조참판에 승진되었다. 1784년 경기도 관찰사를 거쳐 이듬해 대사헌·총융사를 지낸 뒤 이듬해 9월에는 형조참판이 되어 상왕대비의 호를 여러 대신들과 의논하였다. 1788년 황해도 관찰사로 재직중에 우택(雨澤)에 대한 장계를 늦게 올려 파직되었다. 1789년 재기용되어 대사간이 되고 1790년 형조판서, 비변사 유사당상이 되었다. 동년 경기도 관찰사로 재직할 당시 도사(都事) 송익효(宋翼孝)가 경기도의 서리가 조그만 잘못을 저질렀다 하여 곤장을 치는 남형을 행사하자 왕에게 장계를 올려 그를 파직시켰다. 그 뒤 전라우수사, 경기감사, 총융사를 역임한 뒤 이조판서에 제수되었다. 1800년 순조가 즉위한 뒤 병조판서·예조판서·한성부판윤·판의금부사를 거쳐 1808년 우의정, 1819년 좌의정에 올랐다. 그후 왕세자에게 글을 가르치기도 했으며 1828년에는 영증추부사겸 군자감 도제조를 역임하였다. 그는 묘당(廟堂)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제약(制約)과 법헌(法憲)을 스스로 준수하므로써 그 임무를 다하였다. 또 검약을 생활신조로 삼아 생활했다. 그는 90평생동안 삼조(三朝: 영조·정조·순조)에 걸쳐 신하가 되어 국가의 원로가 되었으며 회방(回榜: 登科回甲)으로 궤장(几杖)을 하사받기도 하였다. 은퇴후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에는 왕이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다. 항상 안일한 생활에 안주하지 않는 교훈을 실천에 옮기면서 귀감으로 '무구실'(無求室)이라는 글자를 써서 걸어놓고 교훈으로 삼았다. 시호는 경헌(敬獻)이며 용인에 묘소가 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純祖實錄〉, 최희면

김상술(金相述)

호자, 김상술(金相述)은 편모슬하에서 몹시 가난하게 살았으나 효행이 특출하여 늘 노모에게 고기국을 끓여들이기 위하여 나무와 솥을 지고 장에 나와 늦도록 팔지 못하

다가 저녁때가 다 되어서 겨우 팔았다. 상술은 서둘러서 고기 한 근을 사가지고 지게 꼭지에 매단 후 부지런히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마침 내를 건너 숲원리의 산 모퉁이를 돌아설 무렵 난데없이 커다란 솔개 한마리가 지게꼭지에 매단 고기를 나꿔채 가버렸다. 그날 저녁 노모에게 꿩여들일 고기를 빼앗긴 상술은 크게 낙담한 채 할 수 없이 집에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집에 다달아 마당을 보니 아까 솔개가 낚아챈 고기덩이가 거기 떨어져 있지 않겠는가! 상술은 희색이 만연하여 고기국을 끓이는 일을 거르지 않게 되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남달리 깊은 그의 효성때문에 솔개도 날고기를 탐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여 칭송이 자자하였다.

그 후에도 노모가 먹고싶다는 감을 얻기 위해 눈속에서 감나무를 찾아 헤매고 있을 때, 호랑이가 감이 있는 곳까지 업어다 주어 감을 구할 수 있었다. 그의 효행이 날로 도 타워서 향당이 이를 찬양하여 용인군 내사면 대대리 동리입구에 비를 세웠다.

(참고: 향토유적총람), 이용준

김상익(金相益)

〈출생, 효자비〉 용인군 내사면 제일리 산매동에 살았으며 글방을 차려 훈장을 하면서 후학을 양성하는 한편 좌수의 직을 맡아 향치를 돌보았다.

평소 효심이 두터웠기로 향민의 사표가 되었다.

그의 부친이 득병하여 자리에 눕자 궁집시탕(몸소 약을 끓여 간병하는 것)하였고 천수를 다하여 숨을 거둠에 멸성지정(滅性之情)으로 애도하였다. 예에 어긋남이 없이 장례를 마친 후 3년의 거상중에 하루도 빠짐없이 삼시 곡묘하기를 비롯 풍우설한 중 일지라도 그치지 아니하였다.

모든 언행이 일세에 사표가 되었으므로 향당이 찬양하여 마을 입구에 효자비를 세웠다. 비문에

효는 하늘이 내리나
인도의 근원이니라
하늘있고 이름 있음에
하늘과 더불어 그 이름 빛나리

孝出于天 源於人道

天存名存 興天岡墜라 적혀있다.

〈참고 : 삼강행실록, 효자비〉, 이웅준

김성남(金性男)

생몰 1897. 1. 15~1953. 6. 26

용인 원삼면 사람이다.

1919년 3월 21일 용인군 원삼면에서 황경준(黃敬俊), 김은수(金殷秀), 최상근(崔相根)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여 2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원삼면 사무소 앞에서 미리 준비한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일경과 헌병의 무차별한 총격에도 굴하지 않고 시위를 하던 중 체포되었다.

이해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언도받아 상고하였으나 7월 1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고 9월 22일 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199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1919. 5. 9 경성지방법원 판결문.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독립유공자 공훈록(국가보훈처)〉, 이인영

김 새(金 璽)

〈출생〉 증중 39(1544~ ?) 자는 이옥(爾玉), 호는 경호(耕湖), 본관은 상산(商山). 통훈대부(通訓大夫)로 용인현령을 지냈다. 부친의 상(喪)을 당하자 묘막을 짓고 살며 슬어함이 형언할 수 없었다. 효성이 지극하였기로 제사지낼 음식이 떨어졌을 때에는 핍이 스스로 부엌으로 날아 들어왔고 사슴 한마리가 묘 옆에 자면서도 사람을 보고 놀라지 아니하였는데 상기(喪期)를 마친 뒤 사슴은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다. 이 일이 〈읍지〉와 〈삼강행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참고 : 내고장의 얼 인물편〉, 노승식

김석주(金錫胄)

〈문헌〉 인조 12(1634)~숙종 10(1684), 조선 문신 자는 사백(斯百), 호는 식암(息庵), 본관은 청풍, 영의정 육(堉)의 손자. 효종 8년(1657) 진사가 되었고 현종 2년(1661) 왕이 직접 성균관에 나와 실시한 시험에서 성적이 우수하여 곧바로 전시(殿試)에 응시할 수 있는 특전을 받았다.

이듬해 증광문과에 장원후에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현종 14(1674)년 충렬서원 원장으로 일시 재직하였다.

〈참고: 충렬서원 선생안〉, 금병윤

김세영(金世瑛)

〈생거, 급제〉 인조 27년(1649~?). 자는 여수(汝秀), 본관은 광주(廣州), 호(灑)의 아들로 양지에서 출생. 숙종 22년(1696) 병자식년문과(丙子式年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였다. 관위(官位)는 병조좌랑(兵曹佐郎)에 이르렀다.

〈참고: 용인군지, 고사대전〉, 노승식

김세필(金世弼)

〈묘〉 김세필(金世弼)은 조선 중기의 문신 학자 본관은 경주로 아버지는 첨정 훈(薰)이고 어머니는 여산송씨(礪山宋氏)로 학(齋)의 딸이다.

자는 공석(公碩)이고 호는 십청헌(十淸軒) 또는 지비옹(知非翁)이라 하였다.

1473년(성종 4년)에 태어나 1495년(연산군 1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이 해에 식년문과(式年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했다. 홍문관의 정자와 박사를 거쳐 수찬이 되고 이어서 사헌부 지평(持平)에 올랐다.

1504년 갑자사화(甲子士禍)에 연루되어 거제도도 유배되었다가 1506년(중종 1년)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풀려나 홍문관 응교(應敎)로 기용된 뒤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다. 그 후 전한(典翰)과 부제학(副提學), 형조참판을 지내고 광주목사(廣州牧使)와 전라도 관찰사등을 역임하였다. 이어서 대사헌, 이조참판(吏曹參判)을 지냈다.

1519년(중종 14년)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의 북경에 다녀왔으며 같은해 겨울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나서 조광조(趙光祖)를 사사(賜死)한 중종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규탄하다가 유춘역(留春驛)으로 장배(杖配)되었다.

1522년 풀려난 뒤에 다시는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십청헌을 짓고 후진을 양성하였다. 뒤에 그의 이러한 공로를 인정하여 이조판서에 추증(追贈)되었고 충주에 있는 팔봉서원(八峰書院)에 제향(祭享)되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며 저서로는 십청헌집(十淸軒集) 4권이 있다. 현재 용인군 수지면 죽전리에 묘소가 있다.

〈참고문헌 : 國朝人物考, 中宗實錄, 十淸軒集〉, 최희면

김소사(金召史)

〈열녀〉 ~ ? 용인 현리(縣吏) 최재관(崔在寬)의 처이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 하나를 두었다. 그러나 남편이 일찍 죽자 그 딸을 정성스럽게 키워 출가시킨 다음 그 날밤 극약을 먹고 남편의 뒤를 따라 죽었다.

이 일이 임금에게 전해져 마침내 정려의 은전이 내려지고 열녀로 명정(命旌)되었다. 소사(召史)는 과부의 높임말이다.

〈참고 : 읍지〉, 노승식

김순승(金淳承)

〈사건, 유래〉 ? ~1896. 6. 21. 구한국시대 용인군수를 역임. 고종의 아관파천 당시 친일 개화파인 김홍집 내각이 붕괴되어 탁지부대신 어윤중(魚允中)이 고향인 보은으로 도망하는 것을 당시 용인군수 김순승은 주민 정원로 등과 함께 지금의 이동면 어비리에서 그를 붙잡아 타살하였다.

그런데 김순승은 단발령 강제시행등으로 불만을 품고 있던 의병들에 의하여 1896년 6월 21일 용인 관아에서 피살되었다.

〈참고 : 용인군 시사연표, 구한말과 일제시대 용인군 관리직원록〉, 금병윤

김약항(金若恒)

〈유허비 단〉 고려말에서 조선초 사이에 살다간 문신이며 청백리로 본관은 광산(光山)이고 자는 구경(久卿), 호는 척약재(楊若齋)이다. 고려말 대내외적으로 국운이 어지럽게 되기 시작할 무렵인 1353년(공민왕 2년)에 고려 보리공신 대광광성군(大匡光仙君) 김정(金鼎)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남달리 영명하여 16세때인 1368(공민왕 18년)에 병신진사시(丙申進士試)에 합격하였고, 3년뒤인 1371년(공민왕 20년)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였다. 김약항이 처음 벼슬한 것은 전교시(典校時)에서 주부(注簿)로 차츰 승진하여 예의사(禮儀司) 총랑(摠郎)이 되었다가 1390년(공양왕 2년) 사헌부 장령(掌令)으로 재직하면서 강직한 직언(直言)으로 항상 조정의 귀를 거슬러 오던 중 임금의 뜻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외직(外職)으로 전보되어 황해도 지곡주(知谷州)의 군사(郡事:郡守)로 좌천되는 징계를 당하였다.

1390년 10월 강원도 염문계목사(廉問計默使)가 되었다가 1392년에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가 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정씨는 고려의 왕조는 서산마루에 걸친 해처럼 기울어 가고 위화도 회군을 단행한 이성계(李成桂)가 천하를 장악하자, 김약항은 극력 혁명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중과부적을 절감하고 두문동(杜門洞)으로 들어가 고려 충신으로서의 절의를 지키려 하였으나 태조 이성계의 수차에 걸친 부탁(온나라의 선배중 제일이라고 대접하며)으로 출사(出仕)하여 간의대부(諫議大夫)를 하고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城)을 역임한 후 판전교시사(判典校時事)가 되었다.

1395년(태조 4년) 명나라에 들어가 억류된 사절 유순(柳珣)등을 송환시키는데 성공하였으나, 명나라에 보내는 표전문(表箋文:길흉의 일이 있을때 아뢰는 四六體의 글)을 다른 중추원의 학사들과 함께 지은 바 그 내용이 불손하다는 이유로 명나라에서는 글 지은 이들을 압송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건이 생겼다. 이에 다른 학사들은 화를 모면키 위해 피신하였으나 김약항은 모든 학사들의 책임을 지고 국가사직의 위난을 모면하기 위해 자진하여 명나라로 압송되어 갔다. 이때가 1395년 2월 15일이었다. 김약항은 명경(明京)에 가서도 온갖 위협과 유혹, 악형과 고초에도 굽히지 않고 조국이 자주독립국가임을 강조하고 국가의 체면과 위신을 위하여 조금도 굴함이 없었으며, 마침내는 항변과

설득으로 일관한 나머지 그들을 감복케 하여 무사하기에 이르러 국가의 위기(動兵說)를 해소케 하였다. 이 때에 현지에서 조선 조정으로 부터 광산군(光山君)으로 봉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귀국치 못하고 다른 일로 다시 양자강(揚子江)유역으로 유배되어 조국을 그리며 신음하다가 1397년 유배지에서 쓸쓸히 세상을 하직하여 이역의 고향이 되었다.

김약항의 애국독립정신은 마침내 국내에까지 알려져 정종은 후부(厚賻)를 내리고 남은 옷으로 예장(禮葬)을 치르도록 명을 내리는 한편, 태종때에는 권양촌(權陽村)의 건의로 정포은(鄭圃隱)과 동일자로 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를 내리고 곧이어 청백리(淸白吏)로 뽑혀 자손에게 수록령(收錄令)을 내리는 특전이 베풀어 졌다. 그의 묘소는 현재 용인군 모현면 일산리에 소개해 있다.

그가 남긴 시 중 명나라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 평안북도 안주의 객관에서 국가홍망을 걱정하며 지은시 1수를 소개한다.

〈安州客館吟〉

旅館何寥
 落豊烟野外昏
 客中壤抱惡
 枕匕夢魂翻
 地僻居民少
 日斜飛鳥喧
 異鄉春寂寂
 百慮獨憑軒

여관이 어찌 그리 쓸쓸한가
 바람결과 연시 빛은 저 들밖에 컴컴하구나
 만리타국에 가는 객증인지라
 심정도 몹시 좋지 못하고 피곤하여 잠깐 누웠더니
 침상의 꿈의 혼도 깜짝 놀래지도다

땅이 궁벽하니 살고 있는 주민들도 얼마 안되고
일기가 저물어 가니 날으는 새들만 지저귀누나
아무리 봄이 다시 돌아왔을지라도 타향이므로 짝이 없어
백가지 생각하면서 홀로 마루난간에 기대어 있노라

〈참고문헌: 高麗史節要, 高麗史, 王朝實錄〉, 최희면

김양봉(金陽鳳)

양지현감(陽智縣監). 조선 선조 23년(1590) 1월 도임하였다가 이듬해인 1591년 10월 암행어사의 잠행감찰에 의하여 봉고파직되었다. 이로써 용인의 역대 현감, 현령중 어사의 감찰에 의하여 봉고파직된 최초의 현감이 되었다.

〈참고: 용인군사사연표, 용인군지〉, 박상돈

김영달(金永達)

생몰 1901. 4. 8~1967. 12. 22

용인군 원삼면 사람이다. 1919년 3월 21일 원삼면에서 황경준(黃敬俊), 최상근(崔相根) 등과 같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여하여 2백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원삼면 사무소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일경과 헌병의 무차별 총격에도 굴하지 않고 시위를 전개하다가 3월 25일 피체되었다.

이해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언도받고 항소하였으나 7월 11일 경성복심법원과 9월 22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 고인의 공을 기려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1919. 5. 9. 경성지방법원 판결문,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노승식

김영희(金永喜)

〈효자, 정려문〉 자는 석녀(錫汝), 호는 연농(研農),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순조(純祖) 병술(1826) 10월 4일 노담(魯臈)의 아들로 광주 야곡(冶谷)에서 출생하였다.

15세되던 해인 현종 경자(1840)에 용인현 수여면 남동(지금의 용인읍 남리)으로 이사 하였으나 가세가 몹시 곤궁하였고 또 몹시 수척하였으나 양친의 부양에 갈력하여 입에 맞는 음식이 끊이지 않게 하였다.

접하는 물질이 비록 충분치는 못했을망정 조금도 탐욕치 않았으며, 스스로 검약하였고 또 순화로운 지기가 늘 넘쳤으므로 현우(賢愚)와 귀천(貴賤)의 구별이 없이 환심을 기울였다.

34세 되던 해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여 성균관 생원(生員)이 되었으나 그해 모친이 천수를 다하매 방인이 보기에 딱할만큼 애절 애통하였다.

3년의 상을 마칠때까지 생강이 든 음식과 계피가 든 음식 일체를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이는 곧 소식으로만 연명하였음을 말함이며 하루도 상복을 벗지 않았다. 3년을 하루같이 풍우한서를 가리지 않고 10리가 넘는 곳을 찾아가 곡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험준한 산길을 내려오다가 실족하여 고초를 당하고 탈진하여 있을 때 홀연 한 사람이 나타나 부축하여 집까지 데려다 주었으나 집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부축해 준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았으니 이는 분명 귀신이 그 효성에 감복하여 도와준 것이라고 하였다. 세상이 뛰어난 효자도 많겠으나 어찌 이에 비할바가 되겠으며 그 행적을 다 적을 것인가?

방인이 흠경하고 원근의 사표가 되었으며 이 일을 마침내 성상이 전문하시고 조봉대부(朝奉大夫)의 작위를 내렸다. 병술(1886) 7월 18일 향년 6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 매 동몽교관에 증직하고 효자 정문을 내리니 고종 28년 신묘년 8월의 일이었다. 남리에 정문이 전한다.

(참고: 삼강행실록, 내고장의 일), 이용준

김완규(金完圭)

민족대표 33인중의 1인. 천도교인, 호는 송암(松岩), 송석(松石), 고종 14년(1877) 용인에서 출생.

한학을 수업한 후 구 한국말에 여수(麗水) 통신주사(通信主事)와 한성부주사(漢城府主事)를 역임하였다.

그후 천도교(天道敎)에 들어가 도사(道師) 법암장(法菴長)이 되었고 1919년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중 1인으로 체포되어 2년간 복역하였다.

출옥한 뒤 천도교 서무과장에 피임되었고 8·15광복후 국민회 서울시 위원장과 재무부장을 겸임하였으며, 33인유족회 회장을 지냈다.

1949년 서거하였고 1962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복장(復章)을 받았다.

(참고: 3·1독립운동실록), 이인영

김원립(金元立)

생거. 비. 기흥읍 구갈리. 자는 사탁(士卓), 호는 갈천(葛川). 본관은 경주이며 계림군군(稭)의 후손, 선조 23년(1590) 8월초 2일 증참판(贈參判) 성진의 아들로 출생. 어려서부터 기국이 크고 호매하였으며 문사(文辭)가 뛰어나 세인으로 부터 칭송을 들었다.

24세때인 광해군 5년(1613)에 등과하였고 을묘년(1615)에는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폐위코자 하는 폐륜지변에 이르자 홍무적(洪茂績)등과 함께 이의 부당함을 극간하였으나 혼미한 광해주가 이를 깨닫지 못하였고 또 이를 항의하는 글을 지어 입궐하려 하였으나 문지기로 하여금 이를막고 체포하여 관직을 삭탈하고 가두었다.

마침내 인조가 반정함으로 연유하여 다시 직장(直長)으로 천거되었고, 대과(大科)를 거쳐 능주목사로 나아가 선치하였다.

인조 14년(1636) 12월 병자호란이 일어나 청나라 오랑캐가 한성을 침공하자 인조 임금의 대가가 남한산성으로 파천하였을 때 이를 애통히 여겨 임금의 교지를 받들어 즉시 사병을 초모하기 위해 곧바로 전주로 내려가 그의 형 원중과 함께 동당(同堂)의 제현이 병사를 합하여 명년(1637) 정축년 파천에 진을 머물면서 많은 무리를 베이고 잡아 들었다.

때에 주변에서 이를 살피던 독전어사가 그들 삼종제의 일들을 상감계 전달하여 권면하였다. 인조가 청에 항복하였다는 사실을 성 아래에서 듣고 혈맹의 형제와 이를 따르던 제병들은 서로 통분함을 금치 못하였으나 병사를 파하였다.

후에 이공으로 원종공신에록선되고, 예조판서 양관 대제학에 증직되었다. 후에 낙향하여 용인의 갈천에 살았으므로 세인이 갈천선생이라 칭하였다.

(참고자료: 갈천문집, 기적비), 이인영

김원행(金元行)

〈문헌〉 숙종 28(1702)~영조 48(1772). 조선 학자. 문신. 자는 백춘(伯春), 호는 미호(美湖), 본관은 안동, 김창협(金昌協)의 손자. 1719년 진사가 되었으나 신임사화에 종조(從祖)인 창집(昌集)이 노론 4대신의 한 사람으로 사사되고 일가가 모두 유배되자 어머니의 배소(配所)에 따라가 있으면서 맹자와 이이, 송시열의 저서를 탐독하였다.

후에 부(父), 조(祖)가 모두 신원된 뒤에도 시골에 파묻혀 학문에만 힘썼다.

1759년 왕세손이 책봉되자 세손을 교육할 적임자로서 영조의 부름을 받았으나 소를 올려 사퇴하였다.

당시 성리학계에서 인간의 낙론을 지지하였다.

무자년(1768)부터 임진년(1772)까지 총렬서원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참고: 총렬서원 원장록, 한국인명대사전〉, 노승식

김 유(金 瑜)

〈효자〉 ~? 도적들이 밤에 칼을 들고 집안에 들어와 그 어머니를 찌르려 할 때 김유는 맨 몸으로 도적들에게 달려들어 대신 죽었다.

그의 아내와 딸 역시도 그 뒤를 이어 계속 따라 죽었으나 어머니는 상처하나 입지 않았다.

이 일이 임금님께 전해지자 효·열 3개의 정려문이 내려졌다고 전하고 있으나 전해지지 않는다.

〈참고: 읍지〉, 금병윤

김 욱(金 埴)

〈문헌〉 조선문신. 학자. 본관은 청풍. 경제정책에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었으며, 충청도 관찰사 재직중 수탈의 방법이었던 공물법(貢物法)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고, 서양의 새로운 역법 신력효식(新曆曉式)을 시행하였고, 수레를 제작. 당시 말(馬)로만 사람이거나 물건을 운반하던 불편을 제거하였고 상평통보의 주조를 건의 유통케 했으며, 병자호란으로 소실된 많은 활자를 새로히 제작 많은 서적을 간행케 했다.

그의 경제학은 실학의 원조인 유형원에게 영향을 끼쳐 실학의 선구적 역할을 하게 하였으며, 성리학을 비롯하여 천문, 지리, 병략, 복서, 율력에 정통하였다.

말년에 백현 이정석에 이어 5대째 총렬서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참고 : 총렬서원 선생안〉, 노승식

김윤후(金允侯)

〈전사. 유래〉 고려 고종때의 승장(僧將). 일찌기 중이되어 용인현 남쪽 40리 떨어진 백현원(白峴院), 즉 지금의 평택군 진위현 암자에 있다가 고려 고종 19년(1232) 몽고 제2차 침입시 적장(살리타이)가 한성을 지나고 수주를 거쳐 중원경인 충주로 향하는 길목인 처인현(지금의 남용인군 남사면 아곡리)에 이르자 김윤후는 승병과 천민등의 병을 이끌고 처인성에서 원정군 사령관격인 〈살리타이〉를 사살하였다. 이로써 몽고는 더 남하하지 못하였고, 부장 〈테게〉는 부라부라 〈살리타이〉의 시신을 수습 한반도에서 철수하였다. 김윤후는 이 공으로 상장군(上將軍)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였다. 그러나 몽고가 재차 침입하자 섭랑장(攝郎將)을 제수 받고 충주사성(忠州山城) 방호별감(防護別監)이 되어,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몽고군을 맞아 70여일간의 전투 끝에 이를 격퇴하였다.

이 공으로 감문위 상장군(監門衛上將軍)이 되었고 뒤에 동북면병마사(東北面兵馬使)에 임명되었으나 그때 동북면은 이미 몽고의 수중에 들어갔으므로 부임하지 못하였다. 원종 때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를 거쳐, 수사공·우복야(守司空右僕射)로 치사(致仕)하였다. 지금도 남사면 아곡리 처인성 북쪽면 들녘을 ‘사장터’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그곳이 몽고장수 살리타이가 전사한 곳이라고 한다.

〈참고 : 신증동국여지승람, 인명대사전, 고려사절요〉, 이인영

김은수(金殷秀)

생몰 : 1884. 4. 17 ~ 1960. 1. 5

용인군 원삼면 사람이다.

사암리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3·1독립운동에 호응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3월 21일 원삼면 좌항리에서 마을사람 200여명과 함께 원삼면사무소에 모여 독립만세 시위를 벌이던 중 주동자로 체포되어 같은 해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고 항소하였으나 7월 11일 기각되었고, 9월 22일 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9, 1919. 7. 1, 1919. 9. 22) 독립운동사 2권
: 의병항쟁 및 독립운동사, 보훈처 : 독립유공자 공훈록), 금병운

김이안(金履安)

〈문헌〉 경종 2년(1722)~정조 15년(1791). 정조 문신. 학자. 자는 원례(元禮), 호는 삼산재(三山齋), 본관은 안동. 원행(元行)의 아들. 1762년 학행으로 천거받아 경연관에 기용되고 1781년 충주목사를 지냈다.

1784년 지평(持平), 보덕(輔德), 찬선(撰善)등을 거쳐 1786년 제주(祭酒)가 되었다.

당시 북학파의 학자로 홍대용(洪大容), 박제가(朴齊家)와 교우하며 실학을 연구하였다. 갑진(1784)년부터 신해(1791)년까지 유언집의 뒤를 이어 충렬서원 원장으로 직함을 남겼다.

(참고 : 충렬서원 선생안), 금병운

김일손(金駟孫)

〈은거, 유래〉 세조 10(1464)~연산군 4(1498) 조선초기 학자. 문신. 지금은 관광지가 되었지만 자연농원 〈패밀리랜드〉에 연해 있는 서북쪽의 산 등성을 탁영봉(濯纓峰)이라 하였으며 그 중간 양지바른쪽을 한림대(翰林臺)라 하였다.

단종 계유년(1454)에 진사시에 합격한 후 세조 갑자년(1456)에 문과에 급제한 한 후 한림학사(翰林學士)를 거쳐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 공조정랑을 지낸바 있는 금산 김구(金龜)가 만년에 탁영(濯纓) 김일손(金駟孫)과 더불어 이곳에 은거하면서 학문을 논하고 후학을 가르치던 곳이었다.

탁영 김일손은 김종직 문하에 들어가 정여창(鄭汝昌), 강혼(姜渾)등과 같이 교우하였으며 홍문관 수찬(修撰)을 거쳐 이조정랑등을 지냈는데 여러차례 걸쳐 사가독서(賜暇

讀書)하여 학문과 깊이를 더하였다. 그리고 주로 언관에 재직하면서 문종의 비인 현덕 왕후 소릉(昭陵)을 복위하라는 과감한 주장을 하였을 뿐 아니라 훈구파의 불의 부패 및 권귀화(權貴化)를 공격하는 반면 사림파의 중앙정계 진출을 적극적으로 주선하였다.

그 결과 1498년(연산군 4)에 유자광(柳子光), 이극돈(李克墩)등 훈구파가 일으킨 무오사화에서 조의제문(弔義帝文)의 사초화(史草化) 및 소릉복위등 일견의 사실로 말미암아 능지처참형을 받았으며 중종반정 때 복관된 인물이다.

한림대는 바로 한림학사를 지낸 김구가 은거하던 곳이라는데서 비롯된 것이고 탁영봉은 김일손의 호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이 두분은 생전의 여가중에 은인자중 담소하면서 시회를 즐겼던 옛 한림대와 탁영봉은 관광명소로 바뀌어 거의 옛 모습을 알 수 없게 되었듯이 인걸에서 유래된 지명을 기억하는 사람도 또한 없을 것이다.

(참고: 해동삼강실록), 노승식

김자수(金自粹)

〈유래〉 고려시대의 문신으로 자는 순중(純仲), 호는 상촌(桑村), 본관은 경주이다. 본래 안동태생으로 고향에 효자비가 있다.

공민왕 23년(1374), 문과에 장원하여 덕령부주부(德寧府主簿)가 되었다.

우왕때 왜적 격퇴의 전공으로 포상을 받은 경상도 도순문사(都巡問使) 조민수(趙敏修)의 사은 편지에 대하여 왕으로 부터 회교(回教)를 내리는 글(答信)을 작성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김자수는 조민수가 전날 김해에 침입한 왜구를 겁내어 많은 사졸을 죽게 하였고 또 패하여 돌아났던 사실을 들어 왕의 명령을 거절하였다.

그는 왕명을 거절한 죄로 전라도 돌산으로 유배되었으나 후에 다시 등용되어 전교부령(典校副令)을 거쳐 판사재시사(判司宰寺事)에 이르고 공양왕때 대사성(大司成), 세자좌보덕(世子左輔德)이 되었다.

고려가 망하고 이태조가 등극하자 그는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안동에 내려가 은거하였으나 전부터 그의 인물됨을 잘 알고 있던 이태조가 그를 불러 대사헌(大司憲)에 등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병을 칭하고 누워 있으면서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후에 방원(태종)이 왕위에 오르자 다시 형조판서로 등용코자 하여 그를 불렀다.

조정관원으로 부터 이의 전갈을 받은 그는 곧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 자기집 사당으로 나아가 조상에게 절하며 엎드려 영결(永訣)을 고하고 나서 그의 아들을 불렀다.

「듣거라, 지금 곧 내 수의 한벌을 장만하고 관을 준비하되 일이 끝나면 곧 고하라」고 명령하였다.

영문을 알지 못하는 그의 아들은 부친이 분부한 대로 관곽과 수의 한벌을 급히 마련한 후 준비되었다고 고하자 그날로 길을 떠나 용인경계인 광주 추령에 이르자 그는 그 아들에게 이르기를

「바로 이 땅이 내가 죽을 곳이다. 비록 여자로서도 오히려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아니 하거든 하물며 남의 신하(고려)가 되어 어찌 두성(조선)의 임금을 섬길 수가 있겠느냐?

내 뜻을 이미 결정되었다. 나 죽은후에 너는 반드시 이 부근에 나를 매장하되 절대로 비를 세우지 말고 초목과 함께 썩게 하라」고 말한 후 〈내 평생토록 충성하고 효도하는 뜻을 오늘에 와서 그 누가 알리 있으리요〉라는 절명사(絶命詞) 두 귀절을 남기고 드디어 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열려실기술에 기록되기를 선생이 자결한 추령은 포은 정몽주를 장사한 땅이라 하였으나 동국여지승람에는 추령이 광주부로부터 남쪽 50리지점이라 기록되었고 남한지(南漢誌)에는 오포면의 용인 경계에 있다고 기록되었으나 선생의 묘가 실존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참고 : 한국인명대사전, 열려실기술〉, 이인영

김장옥(金長玉)

항일의병. 용인군 모현면 갈월리에서 출생하였다. 농업에 종사하던 그는 당시 나이 35세에 의병대장 정기인의 휘하에 가담하여 의병활동을 하던 중, 융희 2년(1908) 5월 15일 동지 일행과 함께 충기를 가지고 용인군 하동면 삼배울(현:이동 시미리) 목경운(睦敬雲)의 집에 들어가 군자금 20원을 조달하였다.

그 후 체포되어 강도죄의 죄목으로 경성지방재판소에서 2년형을 언도받고 복역하였다.

〈참고문헌 : 경성지방재판소 재판기록 참조〉, 금병윤

김재선(金在先)

용인군 수여면 호동(현, 용인읍 호리 속칭 범앙골)에 거주하였다.

농업에 종사하던 차, 융희 원년(1907) 10월 15일 의병부대에 입대하여 전국 각지에서 활약하다가 소속 부대가 해산되자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늘 압박하고 있던 헌병대에게 체포되어 수원 경찰서에서 취조를 받던 중 자원 가담이 아니었다는 진술과 같은 마을 이장 이선용(李先用), 유지 박노찬(朴魯燦) 등의 적극적인 구명운동과 진정등이 참작되어 방면되었다.

이중 박노찬은 후일 용인 김량장 3·1만세사건에 극렬 참여자로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참고문헌: 경수(警收) 제493호 문서참조 및 심진섭 노인(사망)증언, 이인영

김재천(金在天)

용인군 포곡면 유실에 거주하였다. 당시 나이 29세였던 그는 의병장 이익삼의 휘하에 들어가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명치 41년(1908) 11월 20일 정기인, 김장옥 등과 함께 군수물자의 조달을 위하여 포곡면 두계월리 조종선(趙鍾先)의 집에 들어가 군수자금을 징취하였다.

그후 체포되어 강도 죄목을 적용받아 경성지방재판소에서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참고문헌: 경성지방재판소 재판기록, 노승식

김 저(金 礎)

〈묘〉 중종 7(1512)~명종 2(1547).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경주, 자는 학광(學光), 부친은 이조참판 세필(世弼)이다.

중종 34(1539)년 유학으로서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고 그뒤 검열이 되었다.

1542년에 심한 흉년이 들자 경상도와 충청도에 어사로 파견되어 이를 진휼하였고 인조 초기에는 시독관으로서 경연에 참여하였으며 곧, 교리, 지평이 되었다. 명종 즉위년인 1545년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관직을 삭탈당하고 삼주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관직

을 삭탈당하고 가산과 처자도 적몰되었는데 이때 그의 나이 35세였다.

그가 귀양을 떠날 때 어머니 이씨는 동문까지 나와서 끌어안고 통곡했는데 저가 하직하고 말에 오른 뒤에도 모친이 울부짖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 때문에 며칠 동안 길을 가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옷자락을 뿌리치고 통곡을 하면서 갔으니, 옛사람들이 옷자락을 끊어버린 사실과 비슷하다 하였으며 아마도 꼭 죽을줄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의 둘째 형인 참봉 구(權)에게 영결하는 글을 지어서 보냈는데 글의 내용은 이렇다.

〈병오년 8월 10일 아우는 형님과 멀리 하직합니다. 서쪽과 남쪽은 천리길이어서 양쪽이 모두 연락할 길이 없으니 생사간에 뒷일을 부탁해야 되겠습니다. 장가는 지 벌써 스물 두해인데도 자식이라고는 남녀간에 하나도 없으니 외로운 몸입니다.

형님은 아들 넷이 있어 모두 쓸만하운데 둘째가 벌써 자랐기로 속으로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물거리며 아직까지 결정을 짓지 못하였음은 아직도 후일에 희망을 걸었던 때문입니다.

둘째로 나의 양자를 삼아 달라는 것이 떠나는 심정으로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은 아니고 벌써부터 마음속에 정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 살지, 또는 오래 갈지 곧 오게 될지 모르오니 이 글을 두고 나 본듯이 여기소서. 갈 길이 바빠 여러 말 할 수 없고 글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몽당붓끝 가는 대로 써 올립니다. 떠나는 아우 저.)라 하였다.

일찌기 저가 밤중에 유인숙에 갔을 때 패랭이 쓴 자 두어놈이 얘기하는 것을 엿듣고 있더니 그 때문에 죄를 입었는데 죄가 왕실에 관한 것이니 나식(羅湜)과 다름없다며 사사(賜死)하였는데 삼사(三司)의 소관을 사사한 것은 예로부터 없던바였다.

그를 사사하였을 때에 모부인(母夫人)이 그의 부친 세필(世弼)이 기묘사화때 옥중에서 입던 피물은 옷을 가지고 와서 통곡하며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는 화를 당하여도 오히려 위에 성군이 제셨기 때문에 다행히 살게 되었지만 지금 임금께서는 나이가 겨우 10여살이고 간신들이 꼭 너를 죽이려하니 내가 어찌 죽음을 면할 것이냐?〉고 하였다.

선조 초년 경오년(1570)에 직첩을 도로 주고 적몰되었던 것을 풀어주었으며 이조판서로 추증하는 환편 충민공(忠敏公)의 시호를 내렸으며 양자 여경(餘慶)에게 전설별제

(典設別提)의 관직을 내렸으나 사은(謝恩)만 하고 일생동안 과거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의 묘소는 수지면 죽전리 대지마을 산록으로 부친 세필의 묘하에 전하고 있다.

〈참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열려실기술, 심청헌집〉, 이인영

김정석(金正錫)

항일의병. 용인군 수여면 동진리(현 용인읍 남리)에 거주하였다.

당시 나이 35세로 농업과 상업을 겸하여 살아가던 중 융희 3년(1909) 3월, 역시 용인을 거점으로 활약하던 이덕경(李德京) 의병장의 휘하에 투신하여 의병활동을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동년 6월 이덕경과 함께 상동면(현 이동면), 염대동에서 군자금 1원 80전을 징취한 것을 비롯, 9월에는 죽산군 고등리(高登里)에서 광목을 비롯한 군품을 징취하였다. 또 11월에는 친일적인 인사로 지목된 용인의 모 인사집에 들어가 명주 두필 등의 물품을 징취하였다.

그후 체포되어 전기 사항에 대한 자백을 강요받고 강도죄가 적용되어 1910년 3월 4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3년형을 언도받고 복역하였다.

〈참고문헌: 경성지방재판소 재판기록참조〉, 금병윤

김정용(金廷龍)

〈생거급제〉 생물 미상. 자는 사위(士威), 본관은 강릉(江陵), 성언(聖彦)의 아들. 정조 2년(1778) 무술정시(戊戌庭試), 병과(丙科)에 장원급제한 후 관(官)은 호조좌랑(戶曹佐郎)에 그쳤다.

〈참고: 고사대전, 용인군지〉, 박상돈

김종남(金鍾男)

〈출생, 묘〉 1908~1967. 사순(思淳)의 아들. 용인읍 운학리에서 출생. 6·25사변이 일어나자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보전하기 위하여 모두 피난하였으며 연일 피아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자 당시 용인면 사무소 직원들도 각종 장부와 문서 집기등을 버려둔 채 뿔뿔히 흩어졌다.

낮에는 유엔군 비행기가 폭격하고 밤에는 적군의 난상총격에 마음 놓을 수 없는 긴박한 상황속에서 운학리에서 농사를 짓던 김종남과 그의 아우 종창형제와 마을 친구인 이석준등 3인은 관내 모든 주민의 인적사항과 신상기록이 담겨진 호적등본 원장이 면사무소에 방치된 것을 알고 두대의 마차를 끌고 가서 실어다가 6km나 떨어진 자기집 헛간에 구덩이를 파고 묻어 두었다가 난이 끝난 속에 고스란히 반납했다. 이로써 족보나 다름없는 귀중한 문건의 멸실을 방지하였을 뿐 아니라 신상기록이 적군에 넘어가 많은 유지와 인사들의 신변에 위협이 되는것을 사전 차단하게 되어 면민의 생명과 신분을 지켰다는 점에서 큰 공을 세운 인물이 되었다.

〈참고 : 김종남, 제적등본, 1995. 5. 25일자 성산신문〉, 노승식

김주원(金胄元)

생몰 1872. 4. 12~1948. 1. 25. 이명 동만(東萬)

용인군 원삼면 문촌리에서 출생하였다. 본래 양반으로 군부 경리국 제1과장 3등감독(육군참령 상당)을 역임하였고 황해도 연안군과 전라남도 옥과군수(玉果郡守) 정3품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등을 봉직하다가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자 이를 통한하던 나머지 서간도로 망명한 후 만주에서 신한혁명당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한구(漢口)지부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1915년 4월 봉천에서 성낙형을 만나 평안북도 철산군 부서면 안평리 유지 정병준과 협의, 중한의방조약(中韓諒邦條約)의 체결을 위한 사명을 띠고 국내에 잠입, 성낙형은 성우선으로 김주원은 김동만으로 변성명하고, 경성부 화동 130번지에 살고 있던 동생인 김승원(金昇元)의 집에 투숙하면서 광무황제와의 접선을 꾀하던중 소위 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되어 1915년 10월 3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언도받고 복역하였다.

신한혁명당(新韓革命堂)은 중국에 망명하여 있던 애국지사들을 규합하고 독립운동 방침으로서 중국 청나라 원세개가 황제로 즉위할 때를 기다려 한국과 의방조약(諒邦條約)을 체결한 후 구라파의 전쟁이 독일의 승리로 끝날 것을 예상, 그 후에는 국제정세는 일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구주권에서 '승리한 독일과 중국이 연합전선을 형성, 일본을 공격하게 되면, 이때를 틈타 조선의 독립을 회복한다는 전제하에 이태왕의 밀지를 받아 이 조약을 성사시키려던 비밀조직의 일원으로 활약하였다.

이 조직은 점조적으로서 성낙형은 이 단체의 외교부장이 되어 국내외에 산재한 동지를 규합, 군자금의 모금, 무기의 구입 비치등을 위해 활약하였고, 김주원은 이 단체의 한구(漢口)지부장으로 선임되었다.

국내에 잠입한 선생은 변석봉에게 취지를 서명한 후 적극 가담할 것을 승낙받고 기타 본 취지를 격려 전파할 목적으로 경각서(警覺書)를 작성 배포하였고 한중의방조약의 체결을 위해 광무황제와의 접선을 꾀하던중 일경에 체포되었다.

1915년 10월 3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의 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90년 건국훈장에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명치백년총서 제1권, 독립유공자공훈록(국가보훈처)), 이인영

김준룡(金俊龍)

〈전사(戰史)〉 ? ~인조 19(1641) 조선 무신. 자는 수부(秀夫), 본관은 원주(原州),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두남(斗南)의 아들. 선조 41년(1608) 무과(武科)에 급제. 선전관(宣傳官)을 거쳐 황해도, 경상도, 함경도의 병영에 근무하였다.

인조 14년(1636) 전라도 병마절도사가 되었고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관할군사를 이끌고 직산(稷山)을 경유 용인의 광고산(수지면 신봉리 소재)에서 진을 치고 청태조(淸太祖)의 사위인 양고라(羊高羅) 장군을 포함한 많은 적병을 사살하여 병자호란 중 가장 큰 전공을 세웠다. 시호는 충양(忠襄)이다.

(참고: 한국인물대사전, 국사대관), 금병윤

김 집(金 鑣)

〈효자: 정려문〉 본관은 김해, 자는 수보(受輔)이고 숙종 병신생(1716)이다.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부모를 섬겨야 하였기 때문에 벼슬길을 택하지 않고 지성을 다하여 봉양하였다.

가세가 빈한하였으나 가친에게는 추위를 알지 못하게 하였고 또 먹을것에 주림이 없도록 하였다.

모친의 변환이 중한 때에는 매일 변을 맛보아 병세를 검증하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 이를 떠나게 하였다. 모친이 꿩고기 먹기를 원했을 때 그날 꿩이 개집으로 스스로 날아 들었고 또 부친의 환우중에는 어름을 깨고 잉어를 얻어내어 공양하니 이 모든것이 지극한 효성의 탓이었다.

부모의 상을 당하여서는 풍우와 설한을 피하지 않고 조석으로 곡묘하기를 3년이 한결같았으니 나라에서 정려의 은전을 내렸으며 현종 경자년(1840)에는 동몽교관에 증직되고 조봉대부(朝奉大夫)로 녹봉되고 명정되어 정려문을 세웠다.

포곡면 전대리에 정려문이 있다.

(참고 : 삼강행실록), 이용준

김 찬(金 瓚)

조선중기(1543~1599)의 문신으로 본관은 안동이고 자는 숙진(叔珍), 호는 놀암(訥菴)이다. 아버지는 형조참의 언침(彦沈)이다. 1567년(명종 22)에 진사가 되고, 1568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들어갔다.

1570년에 검열이 되고, 이후 대교·봉교·전적·형조정랑·검상·사인·이조정랑등의 관직과 지평·집의·정언·헌납·사간·수찬·교리·응교 등 삼사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특히, 1573년 평안 삼도사로나가 군적(軍籍)을 정리하였으매 이듬해에는 평안도 순무어사로 활약하였다. 1584년 이후 전한·직제학·승지·좌참찬·동지중추부사·대사헌·대사간·대사성·경기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임금의 파천을 반대하였으며, 임금일행이 개경에 이르자 동인(東人) 이산해(李山海)의 실책을 탄핵하여 영의정에서 파직시키고,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있던 김공량(金公諒)을 공격하였다.

그 후 정철(鄭澈) 밑에서 체찰부사(體察副使)를 역임하고, 양호조도사(兩湖調度使)로 전쟁의 뒷바라지를 하였고, 접반사(接伴使)로서 명나라와의 외교에도 일조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 때부터 예조판서·지의금부사·대사헌·이조판서를 연이어 지냈고, 지돈녕부사를 거쳐 우참찬까지 승진하였다. 그는 문장가로도 이름이 높았으며, 경제문제에 밝고 외교적 수완이 능숙한 명신이었다. 임진왜란 뒤 전쟁의 수습과정에서 죽자 선조는 조회를 정지하여 추모의 뜻을 표했다. 시호는 효헌(孝獻)이다.

(참고문헌 : 國朝續目, 國朝人物考, 宣祖實錄), 최희면

김창연(金昌淵)

생몰 1881. 9. 10~1941. 5. 13. 용인군 원삼면 사람이다. 1919년 3월 21일 원삼면에서 황경준, 최상근 등과 같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여 200여명의 시위군중을 규합하고 원삼면 사무소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한편, 일경과 헌병의 충격에도 굴하지 않고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같은 해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언도받고 공소하였으나 7월 11일 경성복심법원과 9월 22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9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1919. 5. 9. 경성지방법원 판결문, 3·1운동실록(이용락),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이인영

김천일(金千鎰)

〈전공·유래〉 증종 32(1537)~선조 26(1593). 조선 의병장(義兵將). 자는 사중(士重), 호는 건재(健齋), 본관은 언양(彦陽), 나주 흥룡동(興龍洞)에서 부친 김언침(金彦琛)과 모친 이씨 사이에서 외아들로 출생하였다. 그가 출생한 다음날 모친상을 당했고 다시 5개월 후에는 부친상을 당하여 외가에서 성장하였다.

18세 되던 해인 1554년 평북 위연군수 김효량의 딸과 혼인하였으며 이항(李恒)의 문하에서 수업하였으며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1573년 군기시주부(軍器寺主簿)가 되었으며 1578년 임실현감(任實縣監)을 지냈다.

1589년 한성부 서윤에 임명되고 수원부사에 부임하여 민익(民益)을 위하여 특권층의 탈세 문제점을 바로잡고 부세균일(賦稅均一)의 원칙을 시행하므로서 권력층의 비방과 탄핵을 받아 파직 귀향하여 나주에 있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5월 16일 나주에서 기병하여 6월 23일 수원의 독산산성(禿山山城)을 점거하고 민심을 수습한 다음 용인의 금령(金嶺) 전투에서 일시에 왜적 15급을 베면서 전마(戰馬), 갑주(甲冑), 창검(槍劍)등을 노획하는 큰 전과를 올렸는데 이 싸움이 창의병으로 기의(起義)한 첫번째 승리였다.

이어 왜군의 앞잡이가 된 자들을 찾아내어 처벌하니 민심이 수습되고 매일 김천일 의병장의 휘하에 1백여명의 군민(軍民)이 모여드니 혼란했던 기내가 안정되었다. 당시 최초 승리를 거둔 금령력은 지금의 용인읍 역북지구이며 군립도서관 경내에 김천일 장군 전공지임을 밝히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참고 : 견재집, 임란의병장 김천일 연구((趙潑來))), 노승식

김충수(金忠守)

〈충신·출생〉 본관은 서흥, 호는 창죽헌(蒼竹軒). 증중 20년(1525) 양지현 월노동(月老洞)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타고난 풍모가 크고 우뚝했으며 평소 충과 효를 중하게 여겨 이를 생활신조로 하였다. 임진왜란을 당하여 포의한사(布衣寒士)로 의병을 규합하여 죽산의 청룡산(지금의 용인군 원삼면 옥신리 경계)에 둔적한 왜적을 크게 무찔렀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힘이 다하고 화살이 다할때까지 싸우다가 마침내 적에게 잡히는 바 되었다. 그러나 당황하거나 굴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로 왜적을 꾸짖었다.

그때 그의 아들 함(涵)이 사로잡힌 아버지를 구하고자 칼을 휘두르며 적에게 돌입, 왜적 몇을 격살했으나 잡히는 바 되어 같은 날 부자가 함께 순사(殉死)하니 선조 25년(1592) 임진년 10월 19일의 일이다.

이로서 아버지는 죽어 충신이 되었고 아들은 죽음으로 효를 다하였다. 이때 김충수 나이 44세이고 아들의 나이는 25세였다.

이곳에서 김충수 의병부대에게 일격을 맞은 왜적은 한성(서울)로 부터 동래(부산)에 이르는 전략 노선의 유지와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우끼다 히데이에〉충수의 산하 좌경진으로 하여금 용인의 수비를 더욱 강화하였으나 왜적의 사기를 크게 위축시켰다.

숙종 경인년(1700) 그의 증손의 상소로 인하여 충신으로 정려되고 봉정대부(奉正大夫)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으로 증직되었다.

〈참고 : 삼강행실록, 내고장의 얼〉, 이용준

김치복(金致福)

〈효자·정려문〉 본관은 의성 자는 수지(綬之), 호는 줄암(拙菴). 숙종 을묘생(1675)이며 관은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使)에 이르렀다.

어려서부터 사친지도(事親之道)를 능히 알고 시행하였으며 극진하고 성실하게 부모를 공경하였다.

부친의 와병중에는 백방으로 간병하였으나 말 그대로 백약이 무효이므로 절망지중에 장탄식으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였다.

어느날 탁발승이 나타나 비방을 알려주었는데 이는 참으로 구하기 힘든 약이었다. 전전궁궁 애태우던 중 부인이 그 이유를 묻자 “아버지의 병환에는 15세 난 동자의 머리를 구하여 삶아 드려야 하오”라면서 고민을 털어 놓았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부인은 “자식은 또 낳으면 되는 일이나 부모님은 한번 가시면 돌이킬 수 없으니 우리 예를 죽여서라도 구원합시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의논하고 서당에 다녀오는 아들을 고개마루에서 기다렸다가 비수로 찢은 후 그 목을 베어 가마솥에 끓였는데 솔뚜껑을 열어본 즉, 아이의 머리는 없어졌고 커다란 인삼뿌리가 나왔다.

이는 산신령이 그의 효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산삼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보이게 했던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그 부친이 천수를 다하며 지극히 슬퍼하고 도에 지나치니 그 효행이 특이하므로 모든 사람들이 쟁침하여 조정에 상소하였으므로 순조 신미년(1811)에 효자정문이 내려졌다. 그 정려문은 남사면 완장리에 전하고 있다.

〈참고: 의성김씨 족보, 내교장의 열(이인영)〉, 이용준

김치인(金致仁)

용인현령(龍仁縣令). 영조 28년(1752) 7월 25일 당일 도입하였다. 대개 지방수령으로 발령이 나면 보통 3~4일 아니면 한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특보로 당일 도입”이란 기록이 있는 것을 보아 시급히 지방행정을 처결해야 하는 중대사안이 있었던 것 같다.

현행 임명직 군수는 발령 즉시 늦어도 다음날은 부임되지만 오늘의 현실과 비교한다면 매우 이례적인 사안이다.

〈참고: 시사연표〉, 박상돈

김치원(金致元)

양지군 치재동(治載洞)에서 살았다.

농업에 종사하던 그는 융희 원년(1907) 7월 쇠미해가는 국운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의병에 투신하였다.

이 당시 봉기했던 오인수등 의병의 휘하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여겨지며 이들의 활동 무대였던 양지·죽산·안성·양성 등지를 전전하다가 11월 19일 고향집에 잠시 들렀다가 이튿날 일경 잠복조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그후 11월 11일 죽산 헌병분견소의 일본군에 의하여 참살당하므로써 재판한번 받아 보지 못한 채 일제의 만행에 희생되었다.

〈참고문헌: 활동사래, 수경비수 1737호〉, 이인영

김택수(金宅洙)

〈생거, 급제〉 숙종 40년(1714~?) 자는 도원(道源), 본관은 의성(義城), 주령(舟令)의 아들로 양지(陽智)에서 출생. 영조 35년(1759) 기묘정시문과(己卯庭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한 후 관(官)은 도총관(都摠管)에 이르렀다.

〈참고: 고사대전, 용인군지〉, 금병윤

김한윤(金翰允)

용인경찰서장. 1971년 8월 18일 부임 1973년 6월 27일까지 재임 하였다. 김한윤은 용인경찰서가 2급서(二級署)에서 1급지(一級地) 경찰서로 승격됨에 따라 종래 경정에서 총경으로 직급이 상향된 후 최초의 서장이 되었다.

〈참고: 용인군지〉, 박상돈

김 함(金 涵)

〈출생〉 선조 원년(1568) 양지현 월로동(지금의 안성군 고삼면 월향리)에서 출생. 본관은 서흥, 자는 경현(敬賢), 호는 면재(綿齋)이다. 엄격한 부친의 교훈을 받아 몸가짐이 반듯하였고 효성이 지극함을 천성으로 태어났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부친을 따라나서 의병가운데 있었는데 부친 충수(忠守)가 적진에서 고군분투 위급을 맞이함에 함은 칼을 휘두르며 단신 돌입하여 왜적 몇을 격살한 후 부친을 끌어안은 채 순사(殉死)하니 부자의 충효함이 실로 가상하였다.

숙종 경신년(1680)에 와서 효자로 표정되고 영조 경신년(1740)에 사헌부 지평(持平)에 증직되었다.

〈참고: 삼강행실록, 향토문화와 전통〉, 이웅준

김 혁(金 赫)

독립지사, 대한제국(大韓帝國) 육군정위(陸軍正慰) 김혁(金赫). 그는 고종 12년 10월 16일 용인군 기흥읍 농서리에서 출생하였으며 호는 오석(烏石), 이명(異名)은 학소(學詔)라 하였다.

그가 24세가 되었을 때인 1899년 대한제국에서는 근세 군사제도를 도입하여 원수부(元帥部)를 설치하고 산하에 육조무관학교를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자 선생은 보병과 속성과정을 수료한 후 육군정위로 임관되어 경성시위보병대(京城侍衛保兵隊)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율희 원년(1907) 8월 1일 군대가 해산되자 이에 비분하여 항일투쟁을 결심하고 낙향, 고향에서 기회를 기다리던 중 1919년 3월 30일 기흥지구 만세항쟁시위를 주동한 후 일본경찰의 눈을 피하여 만주로 망명하였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20년 선생은 민족의 자활능력과 항일 무력투쟁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백두산 서남쪽 무송현(撫松縣)에 흥업단(興業團)을 조직한 후 김호(金虎)를 단장으로 추대하고 부단장으로써 백두산하 화룡현(和龍縣)에 있던 대종교(국조 단군을 신봉하는 교) 총본사(總本司)와 백두산 동북쪽 왕청현에 있던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흥업단, 본단의 조직강화, 항일전력자원의 군사훈련단과 지단(支團)조직을 강화하고 동포사회의 안녕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공헌하였을 뿐 아니라 병농겸행(兵農兼行)의 시책을 취하여 농·군 일체의 조직으로 발전시켰다.

한편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의 총재 서일(徐一)과 경리담당인 계화(桂和)가 계속 병력 증강에 힘써 백초구(百草構) 기타 각지에서 약 3백명의 장정을 모으고 또 이성규(李成圭)를 국내로 보내어 대한제국시대의 육군장교로 활약하던 김규식(金圭植), 홍충희

(洪忠憲), 김찬수(金燦洙), 박형식(朴亨植)등을 동반하여 올 때 그도 유우석(柳佑錫)과 함께 무송현(撫松縣)으로 부터 와서 북로군정서에 참가하여 대일항쟁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조국해방을 위한 군사적 힘의 결집이 요청되고 있었으므로 만주지역에 흩어져 있는 각 독립투쟁 조직과 소수단체들을 규합, 명실상부하는 기구의 출현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 하고 1922년 8월 20일 환인현(桓仁縣) 남구(南區) 마권자(馬圈子)에서

서로군정서 대표 백광운, 김성풍외 7인

대한독립단 대표 이용해, 이영식의 21인

한교회 대표 이형갑의 4인

대한광복단군영 대표 변창근, 이영신

대한정의군영 대표 박정석

대한광복군총영 대표 백남준, 김창의외 3인

평북독판부 대표 신언갑, 김영준외 9인

통군부 대표등 8개단체 71명이 참석하고 1백여명의 동포가 방청하는 가운데 통의부를 결성하는 총장 김동삼(金東三)을 위시하여 각 부장을 임명하였을 때 김혁(金赫)은 군사부장이 되어 군사부장 양규열, 사령장 김창환 등과 함께 항일투쟁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러나 만주사변후 노령지역으로 갔다가 또다시 자유시의 참변을 겪고 총재 서일(徐一)이 자결하는 등의 비운을 겪으면서 군사와 진용이 흩어지는 갖가지 악조건을 무릅쓰고 1924년초 다시 북간지역으로 돌아와 현천목(玄天默), 나중소(羅仲昭)와 함께 선생은 남은 군사를 수습하여 그해 3월 대한독립군정서(大韓獨立軍政署)의 진용을 새로 정비, 현천목을 총재로 추대하는 한편, 조성환, 나중소, 김규식, 이장령, 김필, 권영중과 함께 선생은 참모로써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길림성(吉林省) 동북부 북만(北滿)지역에는 일제의 강점이후 노동에 종사하던 동포 또는 국내와 남만주 혹은 연해주 방면에서 유리하던 동포들이 목단강(牡丹江) 유역에 벼 농사가 잘된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왔거나 3·1만세항쟁 이후 망명처를 찾아 온 독립운동지사 또는 그 연고자들 그리고 노령 자유시에서 참변을 겪은 독립군 잔여부대와 청산리대첩 이후의 독립군 등이 몰려들어 이곳에 교포사회가 형성되었고 독

립군 활동의 새로운 거점으로 활기를 띄기 시작 하였으며 한인 교포들이 모이는 곳에는 예외없이 독립투쟁단체가 조직되었는 바, 여기서는 민족주의 독립운동단체인 신민부(新民府)가 태동되었다.

1925년 3월 10일부터 영안(寧安)에서 김혁이 이끄는 대한독립군정서 외에 김좌진이 이끄는 대한독립군단 등 국내의 21개 독립단체들이 모여 몇일동안 총의를 개최한 끝에 신민부를 결성하였고 이때 김혁은 중앙집행위원장에 피선되어 단체를 이끌게 되었는데 이때의 진용은 다음과 같다.

중 앙 집 행	위 원 장	김	혁
민 사 부	위 원 장	최	호
군 사 부	위 원 장	김	좌 진
참 조 부	위 원 장	나	중 소
외 교 부	위 원 장	조	성 환
법 무 부	위 원 장	박	성 태
경 리 부	위 원 장	유	정 근
교 육 부	원 장	허	빈
선 전 부	위 원 장	허	성 목
연 락 부	위 원 장	정	선
실 업 부	위 원 장	이	일 새
심 판 원	위 원 장	김	돈
총 사 령 관		김	좌 진

이상과 같이 중앙의 부서 조직을 완료한 신민부의 본부는 처음에 주하현(珠河縣) 소량자(小亮子)에 두었으나 그후 본부를 몇차례 이동하였고 또 본부에 속하는 중요 기관은 분산하기도 하였다.

만주의 독립운동단체는 모두 독립전쟁을 제1차 목표로 하여 독립군의 양성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목릉현 소추풍(小秋風)에 성동사관학교(城東士官學校)를 설립하고 연 2기의 속성 군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5백여명의 생도를 배출한 바 선생은 이 학교의 교장직을 맡아 신민부 군인을 양성하였다.

당시 성동사관학교의 교원은 다음과 같다

교 장 김혁
부교장 김좌진
교 관 박두희, 박종열, 오상세의 5인
교 문 이범윤, 조성환

그러나 신민부가 설치되어 북만주에서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자 일제의 하얼빈 영사관 경찰은 목단강 중동선일대 신민부 활동지역으로 손을 뻗칠 기회를 엿보고 있던중 1927년 3월 당시 신민부 본부가 있던 석두하자(石頭河子) 흥룡진(興隆鎮)을 습격당하였을 때 중앙집행위원장 김혁을 비롯한 경리부 위원장 유정조의에 본부직원 김윤희, 박경순, 한경춘, 남중희, 이종순, 이정화, 남극등 모두 12명이 체포되었고, 김혁은 1929년 6월 14일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루었다.

형무소에서 갇은 옥고를 치르면서 병을 얻어 출옥후 고향에 돌아와서 결국 병사하니 이해가 1939년 4월 23일이였다.

1962년 건국훈장이 추서되었고, 용인에 있던 그의 유해는 후에 국립묘지에 옮겨졌다.

〈참고 : 독립유공자 공훈록, 독립운동사 5권, 독립운동자 공격조서, 서훈자 독립유공 공훈록(경기교위)〉, 이인영

김현수(金顯秀)

항일의병. 용인군 모현면 부계리(초부리)에서 살았다.

의병장 이익삼(李益三)의 휘하에 자원 투신하여 활동하던 중 융희 3년(1909) 음력 3월 10일 용인군 포곡면 소운동(현 유운리) 이재봉(李在鳳)의 집에 들어가 군자금을 징취하려 하였으나 완강히 거절하자, 동군 고석동(高石洞) 덕현(德峴)으로 대동하여 협조를 요구한 끝에 5원을 헌납받았다.

그후 이익삼과 더불어 용인군 상동면(土洞面) 금현(현 이동면) 김종옥(金鍾玉)의 집에 들어가 백미 3석, 마태(馬太) 2석, 벼 19석의 물자를 징발 의병활동을 위한 군수물자로 조달하였다.

그후 체포되어 강도 및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어 경성지방재판소에서 5년형을 언도받

고 복역하였다.

〈참고: 명치 42년 령 제3호 재판기록〉, 노승식

김형일(金衡一)

〈생거급제〉 숙종 31(1705~?) 자는 평숙(平叔), 본관은 안동 정구(鼎九)의 아들. 영조 11년(1735) 을묘식년과(乙卯式年科) 병과에 급제하여 같은 과종(科鍾)에 용인의 정승빈(鄭升賓)과 함께 급제하였다.

관위는 찰방(察訪)에 이르렀다.

〈참고: 고사대전, 용인군지〉, 박상돈

김홍집(金弘集)

〈불망비〉 구성면 마북리, 개화당의 거두 1894년 동학란이 일어나자 개화당이 득세로 영의정이 되었고 급진적인 개혁정치를 시도하기 위해 갑오경장을 단행하였으나 고종의 아관파천후 친로파에 잡혀 참살당한 인물이다.

비(碑)에 관찰사 김공홍집 영세 불망비(觀察使 金公弘集永世不忘碑)라 새기고 「먹은 마음은 공사(公事)에 이르고/정치는 인정으로 베풀었네(秉心至公 爲政以仁)」이라 적었다.

이로보아 그가 관찰사의 관위에 있을때 용인고을에 베푼 영향에 대해 고을관장이 추천했거나 백성들이 이를 감사히 여겨 불망비를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자료: 국사대사전 불망비〉, 이용준

김 환(金 緩)

〈생거급제〉 효종원년(1650)~영조 19(1743). 조선문신. 자는 자중(子中), 호는 락애(樂涯), 본관은 안동(安東), 효건(孝建)의 아들. 숙종 17년(1691) 신미증광문과(辛未增廣文科) 갑과(甲科)에 응시하여 송래백(宋來栢)에 이어 2위로 급제하였다.

관위(官位)는 지사(知事)에 이르렀는데 부자(父子)의 나이를 합치면 160세가 되므로 왕이 시를 내려 말하기를 국조(國朝)이래 삼백년에 이르렀는데 경의 부자가 반에 호한다(國朝三百年來也 今卿父子半乎哉)라 하였다.

〈참고: 고사대사전, 용인군지〉, 금병윤

나혜석(羅蕙錫)

〈생장〉 1896~1948. 우리나라 최초 여류 서양화가. 본관은 나주(羅州), 초명은 아지(兒只), 호는 정월(晶月). 수여면(용인읍) 소학동 11통 8호에서 거주하였다.

그가 19세 되던 해인 1914년 3월 17일 부친 나기정은 수원군 수원면 신평리(新風里 : 지금의 신평동) 291번지로 이사하였으나 나혜석은 이때 서울의 진명여고를 마치고, 그의 부친이 수원으로 이사하기 이미 1년 전인 1913년에 새로운 미술분야였던 양화를 전공하기 위하여 동경의 여자미술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나혜석이 동경여자미술학교에 다니면서 1915년 4월에는 유학생 김정화(金貞和)등과 함께 〈조선여자 친목회〉를 발기하고 재 동경 조선여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며, 지식계발 및 국내 여성 지도계층에 앞장서기로 하였는데, 창립 당시에는 전영택(全榮澤), 이광수(李光洙) 두사람이 고문으로 있으면서, 이 친목회는 1918년까지 지속되었다. 이들은 부대사업으로 〈여자계〉를 발행하여 기금을 모으는 한편, 1919년 2·8운동이 전개되자 동 회의의 명의로 활동자금을 기탁하는 등 많은 후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23세 되는 해인 1918년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돌아와 정신학교 미술교사를 지내고 있었으며, 이듬해 1919년 3·1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어 경성부 종로통 기독교청년회관 간사 이일(李一)등 45명과 함께 1919년 8월 4일 경성지방법원 예심계, 총독부 판사 일본인 영도웅장(永島雄藏)으로부터 출판법 위반 및 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다가 예심판결에서 출소되었다.

이때 나혜석은 경성부 종로 5정목 방태영(方台榮) 집에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이들은 “1919년 2월부터 3월에 걸쳐 손병희외 32인이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조선은 독립국임과 조선민족은 자유민임을 누누히 강조기술한 불온문서를 인쇄 배포하여 조선인을 선동함에 있어 많은 사람과 같이 이에 가담,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동을 하므로서 치안을 방해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65조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나혜석과 함께 투옥되었던 상당수의 학생들은 태형 90도에 처해졌거나 많게는 25일간의 구류처분을 받았다.

또 1919년 3월 2일에는 평양태생의 황애시덕(黃愛施德)과 만나 예수교에서 경영하는 이화학당에서 박인덕, 김활란(金活蘭)등 이화학당 교사, 손정순 이화학당 학생, 안숙자 육군중위의 처, 안병숙 예수교 중앙예배당 교사등과 함께 비밀회동을 갖고 ① 독립운동에는 부인회활동을 가장 필요로 하므로 부인단체를 조직하여 남자와 제휴활동할 것. ② 전항의 목적을 완전히 수행하기 위하여 부인단에 감사를 둘 것. ③ 독립운동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각 학교 학생은 전부 휴교를 단행할 것 등을 결의하고 나혜석은 김마리아, 황애시덕, 박인덕과 함께 감사를 수락하고, 정신학교, 신명여학교를 위시하여 각 여학교 학생들이 결의된 사항에 동참해 줄것을 권유 격려하다가 모두 체포되어 결국 이들 여성 애국 독립투사들은 형사소송으로 옥고를 치렀다.

나혜석은 출옥한 후 1920년 5월 9일 정통예배당에서 남녀 학생 8백여명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조선학생대회에 여성계 대표인사로 참석하여 학생운동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후에 그녀는 재판중에 변론을 맡았던 김우영(金雨榮)과 1920년 5월 28일 결혼식을 올리고 경기도 경성부 인사동 36번지에서 신접살이를 시작하였다.

그후 1921년 경성일보사 내청각에서 첫 유화 개인전을 가졌으며 1922년부터 조선미술전람회 서양화부에 해마다 작품을 출품하여 창작활동에 몰입, 수상과 특선을 거듭하였으며, 1931년에는 동경의 국제미술원 전람회에 입선하기도 하였다.

1927년에는 만주 안동현 부영사의 외교관 신분이 된 남편 김우영과 함께 세계일주여행에 올라 파리에서 약 8개월간 머무르면서 그곳 미술연구소에서 수업한 후 유럽 각국의 미술관을 순례하면서 예술가로서의 안목을 넓혔다.

귀국후 1935년 서울에서의 소품전을 마지막으로 미술활동을 중단하였으며, 또 최린과의 관계로 결혼생활에 파경을 맞고 끝내는 반신불수 정신장애를 일으켜 행여자로 유리하다가 생애를 마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 “여류 서양화가, 페미니스트, 문필가, 독립운동가”등 여러가지 타이틀을 지닌 걸출한 인물이면서 시대의 변혁과 격동기를 살다간 분방한 예술가로서 혜성처럼 용인을 빛낸 한 인물이다.

그동안 수원 사람으로만 알려져 왔던 그는 향토사학가 이승언씨의 고증으로 처음 용

인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1995년 4월 19일자 중부일보 김우영기자에 의하여 이의 사실이 발표되었다.

〈참고문헌: 나혜석 제적원부, 독립운동자료집 5권 13권, 독립운동사 3, 8, 9권, 일제시대 관리직원록(용인군), 내고장 용인 지지총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5. 4. 19일자 중부일보〉, 노승식

남계우(南啓宇)

〈출생:묘) 순조 11(1811)~고종 25(1888). 조선 말기의 화가. 초명(初名)은 영시(永詩), 자는 일소(逸少), 호는 일호(一濠). 본관은 의령(宜寧), 영의정을 지낸 남구만의 5대손. 부사(府使) 진화(進和)의 아들. 벼슬은 도정(都正)을 지냈고 특히 나비를 잘 그려 일명 남나비, 남호접(南蝴蝶)등으로 통했던 인물이다.

〈서화집〉에 “호접을 잘 하였는데 신묘(神妙)에 들었다”고 평하였고 〈조선미술사〉에서는 “일호는 화접에 능하였고 착색(着色)이 농염(濃艷) 사실(寫實)의 묘를 득하였다”고 평하고 있다. 사대부(士大夫) 출신의 화가로써 왜 나비만을 전문으로 그렸는지, 그 동기는 확실치 않으나 나비의 여성적인 동작, 그리고 아름다운 꽃과 짝을 이루어 생명력을 불어 넣는다는 오묘한 생태계의 이치가 그의 관찰력을 이끌어 내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병풍에 그려놓은 나비가 날아갔다든지, 당시대의 나비에 관한 생물도감으로 참고되고 있다는 등의 갖가지 일화는 그의 작품 세계를 미화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개자도서전(介子圖書傳)의 “초충화법”을 참고 해 보면 대강 짐작이 간다.

〈벌과 나비에는 반드시 크고 작은 네개의 날개가 있고 대개의 곤충에는 길고 짧은 6개의 발이 있다. 나비 날개의 형과 색은 여러가지이지만 호분(胡粉: 백색도료)과 묵(墨), 황(黃)의 3색을 정식의 것으로 한다. 색의 변화는 수다(數多)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다. 검은나비(黑蝶)는 날개(翅)가 크고 뒤에는 긴 꼬리가 있다. 봄 꽃에 그림 높은 날개가 부드럽고 배때기가 크고 날개의 꼬리가 통통한 놈이 좋으니 이는 새로 태어난 때문이고 가을 꽃에 그림 높은 날개가 뾰뾰하고 배때기가 야위고 날개의 꼬리가 긴 놈이 좋다. 이는 늙은 나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봄 꽃과 가을 꽃의 구분에 맞는 나비의 선택은 자연의 조화와 법칙까지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나비의그림에서 젊은 놈과 늙은 놈의 차이가 존

중되었는지 까지 짚어볼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일호의 그림에서는 치밀한 화풍으로 나비의 모든것을 그려내고 있다. 그의 나비 그림들은 곱고 화려한 채색과 정교한 공필(工筆)을 사용하였으며 정확한 세필의 사실적 묘사에서 뛰어난 관찰력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가 호접도 화제(畫題)에 남긴 칠언절구(七言絕句)에

쓰르라미와 귀뚜라미는	
가히 불쌍한 벌레라	螻蛄蟋蟀可憐虫
처량하고 춥고 매마르고	
또한 바람을 겁내더라	淒冷稿枯又慙風
가장 이에 번성하고 화려한것	
오직 나비 뿐	最是繁花惟蛺蝶
일생을 진시황의 아방궁같은	
꽃 속에서 사네	一生花底似秦宮

라고 적어 나비그림 사상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초충화 뿐만 아니라 전각(篆刻)에도 일가견을 이루고 있는데 그가 남긴 도서기(圖書記)에는 모두 106방의 관지(款識)가 수록되어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그의 관지는 불과 5~6방에 불과하였음이 오세창(吳世昌)이 펴낸 근역인수에 나타나고 있는데 전문가의 감식결과 일호당 도서기는 전각가의 대가인 완당 허미수, 강표암, 정학교 오세창, 김태석 등과 비견될 만한 수준높은 전각 기술과 독창성이 돋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어 남계우는 이 방면에도 탁월한 기량을 지닌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그의 산수인물도 1폭은 남종화 계통의 화풍을 담고 있는데 일호산인 시필(一濠散人試筆)이라는 명문을 담고 있다. 이는 그의 생전에 단 한점 남긴 유작이며 종가에 전해지고 있어 전각 인보와 함께 일호를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일호는 또 그가 살던 파담 마을을 시로 적어 전하고 있는데 파담8영(琶潭八詠)의 장

시는 매우 서정적이며 격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파담팔영(琶潭八詠) 其一

파담청류(琶潭清流)

파담에 물 맑고	
푸른 물결 깊은지라	清流琶潭碧波深
창문여니 시냇물 소리	
안석으로 스며드네	推窓溪聲几案侵
갈매와 백로가 서로 친하니	
속인의 뜻을 초월하고	鷗鷺相親超俗態
물고기와 새우가 피하지 않음은	
부처의 마음같아 기쁘다	魚蝦不避喜禪心
수신에게 이백이 왕소군에게 바친	
노래소리(음탄곡)을 들려주고	水神彈送昭君曲
계녀에겐 백거이가 읊은	
장한가를 노래하여 전하니	溪女歌傳自傳吟
맑을때는 갓을 씻고	
궁할때는 빨래를 한다지만	清可濯纓寒可漱
시인이 주관하고 차지하니	
이겨낼 수 없노라	詩人管領取無禁

화악청람(華嶽晴嵐)

소라상투 높아질 수록	
미인생각에 괴로워 하다가	螺髻高撐翠黛愁

엷든 연기같은 약간의 희망으로
편지쓰려 글방문을 잡는다. 輕烟一抹把書樓

옛성왕(聖王)이 말과 소를 풀어준
뜻을 본받고 當年歸馬牛王化

어느날 나귀탄 처사를 만나
사귀어 벗어나 何日騎驢處土遊

하늘에 닿을듯한 물 빛
지척에 있음을 이에 살피고 咫尺已看天色近

홍수진 큰 물을 구천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누가 하였을까 洪濛誰說海波流

천년이 가도 미인의 소식이
없는데 千秋毛女無消息

오직 부담이 있는지
부처머리 나타나네 惟有浮曇現佛頭

계산만풍(鷄山晚楓)

첫 굽이는 병풍친 듯
푸르른 화악의 서쪽으로 一曲蒼屏華嶽西

부슬비 내리는 침침한 산 경치
쓸쓸하고 가련하구나 空濛山色正淒淒

이곳은 수목이 깊어 그윽하고
한적하게 통하였고 境深樹木通幽寂

길은 봉만을 돌아 시내와

계곡을 에워 싸았네

路轉峯巒繞澗谿

아름다운 구추의 물든 잎을

삼취하여 살펴보라

好是九秋看葉醉

이월의 피고리 우는

소리보다 나으리라

勝於二月聽鶯啼

옥통소 소리 끊어지고

초나라 노래 흩어지니

玉簫響斷楚聲散

다만 나막신이나 지팡이 끌고

놀러나온 사람인가 보이네

但見遊人筇携携

응봉귀운(鷹峯歸雲)

구름따라 독수리 날으니

깃과 털이 저절로이고

飛從靈鷲羽毛生

백리나 갔는지 추호와 같이

멀리 바라보는 심정이야 작게보여

百里秋毫遠望情

풀집을 지키는 것과 같이

겉에 고개가 이루어졌고

看似廬峯側成嶺

꽃피뿌리 에워 싸이듯

밟은곳이 성이로다

繞如華嶽踐爲城

하늘 가운데로 이미 흰구름

들려 보내고

半天已送歸雲白

가까운 곳에 물은 먼저

낙조를 머금었네

近水先含落照明

명주비단같이 산바람에 날려

푸르름 속에 머무는데

嵐織輕絲靑入戶

은반소라 눈썹같은 조각 달을 바라보니

비스듬히 기울었네

銀盤螺黛一看橫

사장설월(沙場雪月)

한무리에 숨었던 백로가

달 가운데를 나르는데

一群藏鷺月中飛

그림자만 보이고

달 흔적은 없으나 깃옷은 맑다

見影無痕冷羽衣

시심이 얼마나 맑고 좋은지

백주(白酒)의 맛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요

詩慟至清禁白妙

매화 꽃이 얼마나 하얀데

꽃이 작다고 미워하라

梅嫌太素着花稀

한가지 밝음을 만나 샅피려 하매

돌아보고 서로 비치고

同明端合還相照

다른 색으로 나누기 어려워

서로 마주보고 빛내네

殊色難分互映輝

가람밭에 사랑을 싣고

가히 헤아림이 남과 달라서

種玉藍田差可擬

탐애편하고 서로 바라보다가

문득 집에 돌아갈 것을 잊었네

貪看欄立却忘歸

표암사양(漂巖斜陽)

산비탈 서성이다가 곧게 엮어져
한 못에 떨어지니

盤陀直壓一潭斜

산색 경치를 안은채로
제한된 거울속에서 보니

山色坐看鏡裏遮

후면에 노는 물고기는
백설같이 흰 물거품 불어내는데

水面遊魚吹浪雪

한가한 손이 여울머리에서
그물거품을 헤아리네

磯頭間客數泡花

늦게야 빨래소리 거두고
마을 아낙은 돌아가고

晚收泔聲歸村女

어둠이 시내와 뉘뉘리에 드니
저물게 가마귀 흩어지네

暝入溪荅散暮鴉

바람탄 연기 눈에 가득하여
한없이 경치가 좋은데

滿眼風烟無限好

숲끝 몇채의 인가에
저녁 햇빛 비치네

林端夕照幾人家

부곡촌락(芙谷村落)

화산의 아름다운 경치가
바라보는 눈에 새롭게 드는데

華山之色入望新

갈로 깎아낸듯한 예쁜 연꽃
한그루가 봄을 자랑하네

削出芙蕖一朵春

산과 삼수 중간에
마을 집이 솟아 있으니
苔霽中間多小屋

그림같이 좋은 지경에
자주 사람들이 오가네
畫圖境界往來人

느티·살구나무가 마을에 연이어
거듭 저자거리에 이르고
蒼連棍杏仍分陌

잡목과 가시 울이 문끼리 마주 대하니
스스로 이웃을 지었네
門對柴荊自作鄰

땅은 넓고 푸르게 떨어졌지만
멀지않음을 알것같아
地隔茫蒼知不遠

지팡이 나뭇싹으로 소요하며
천진스럽게 즐기노라
消遙筇屐樂天真

한평전야(寒坪田野)

십리나 되는 계산이
긴 마을을 에워 쌓았는데
溪山十里抱村長

교외와 넓은 들이 한가지 색으로
저녁 햇빛을 즐기네
一色郊原饒夕陽

누런 송아지는 저물도록
연우질은 경계의 땅을 갈고
黃犢暮耕烟雨界

봄에 푸른모를 수운어린시골에
모내기들 하는구나
綠秧春插水雲鄉

시정은 별장에서

비로소 눈이 열리고	詩情別墅初開眼
그리고 싶은 생각은 먼뫼뿌리의 좋은 조망에서 들어오네	畫意遙峯好入望
하늘은 멀고 나무는 낮음으로서 들 넓음을 알겠고	天遠樹低知野濶
늦도록 청량함 보고 좋은 풍광 다시 깨달네	風光更覺晚淸涼

과담팔영(琵琶潭八詠) 基二

소엽연돌(掃葉煙埃)

떨어진 나무잎이 둔덕과 도랑에 가득히 언덕을 이루었기에	飄葉成堆滿隴溝
쓸어다 볼때니 굴뚝연기 검게 타올라 어둡기도 하여라	掃熏烟埃趣多幽
불뎀 방에 찬기운 거뒀 도리어 밤이 마땅하고	窓收冷氣還宜夜
장막안에 따스한 바람들으니 가을같지가 않구나	帳納暄風不似秋
나무꾼이 어찌 손가락 끝을 탄식하며	樵客寧爲窮指歎
시인들이 다시 붓 나무할 염려없도다	詩人無復呵毫愁
산간엔 이미 추위물리칠	

방술이 족하니

山家已足消寒術

어느때고 봄 오기를 기다려

농토에 소 몰고 나가리

何待迎春出土牛

반리단호(攀籬斷壺)

팔월날 엄한 바람이

뜰과 문을 흔들더니

八月霜風撼戶庭

울타리에 떨어진 푸른박

하나를 따왔네

斷來籬落壺青

호로병을 그리려 하면

반드시 실물 그대로 그려야 하고

葫蘆畫必依眞樣

산천초목의 시를 지으려하면

종교 많은 형상을 알아야 하지

草木詩多識善形

채전의 아욱으로 국끓이려면

바야흐로 새벽에 꺾어야 하고

烹似圃葵方曉折

뒷동산에 밤은 털지않아도

스스로 가을이면 떨어지니

收非園栗自秋零

가히 귀여운 박 넝쿨이

무작정 하늘로 치솟더니

可憐天上攀無計

긴 넝쿨에 줄박이 열리어

별들을 보고 작다고 비웃네

長繫匏瓜哂小星

소구외독(小厩畏犢)

도전(刀錢)으로 새로 촌목등을

사서 들여서

賣刀新買牧童村

몰래 놓은 토끼올무를

閑放花蹄踏中根

풀속에서 찾아 없앤다

반드시 소먹이고자 벼슬과

未必飯牛忘爵祿

녹을 잊은것은 아니지만

송아지 키우는 것도 싫지않아

不嫌佩犢樂田園

전원생활을 즐겼네

콩깍지로 죽을 쑤어

豆穡煮粥饌晨夕

새벽 저녁으로 먹이고

벗짚이나 풀을 퍼갈아주니

禾稟鋪薪臥夜昏

어두운 밤에 누웠네

귀여운 젓먹이를 돌봄같이

還似嬰兒期茁壯

빨리 크고 살찌기를 바라지만

빨나는 흔적이 밤알만큼부르터

堪憐藟粟角生痕

얼마나 아플까 가련하구나

후정쇄견(後庭曬藟)

새로 딴 고치를 밭에 가득하게

耀眼新藟滿一簾

말리는데 눈에 빛나고

둥글둥글한 형체에 색은

團團形色雪霜兼

눈과 서리와 같이 희구나

목화꽃 핀 것보다도 더

勝如吉貝開花白

하얀것 같고

납거미가 엮힌 농자(弄姿)보다
섬세하니 능히 기쁘구나
堪笑壁錢弄絡織

비가 싫어 다시 따듯한
굴뚝에 피서 말리고
嫌雨更憐鋪煙煖

해가 기울면 연돌기슭에
햇빛을 살피네
向陽時看曬烟籤

고치속에서 누에나비가 나와
기이하고 절묘한 것이 많으니
繅生蛾化多奇絕

이러한 기쁨이 전가에
경물을 더함이더라
喜是田家景物添

괴음타맥(槐陰打麥)

이 늙은이 집 옆에 누렇게 익은
저 보리를 보소
指點黃雲野老家

물결같이 천(千)이랑에 번뜩이니
흐르는 모래물결 같지요
浪翻千頃似淘沙

보리이삭 쭉 솟아 보리밥짓는
연기를 곧 보게 될 때
炊飯將看烟起穗

삼 대 같이 마당을 쓰는 비가
어찌 한탄되랴
漂庭寧歎雨如麻

벼 베는 뜻은 향냄새 풍기는
쌀밥을 의식하며 수확하고
穫稻意思香粒散

주위를 둘러친 형세에서

큰 도리깨를 잡아 타작한다

打團形勢竹枷斜

산창에 해가 한나절이라

山窓日午槐陰淨

느티나무 그늘도 맑더니

타작하는 보리먼지가 분분하게

風外紛紛送土花

지상의 꽃되어 바람밖으로 흩어지내

우중이양(雨中移秧)

모심기전에 아득히 멀리

漠漠水田一望空

막힘없이 트였더니

어느결에 사람들이 모를심어

綠秧頃刻就人功

푸르렀네

농부의 노래소리 능하여

農家堪和輕烟外

가벼운 연기밖애 곡조 더하고

화려한 들 경치는 다시

野色更憐細雨中

가는 빗속에 애련하구나

발 걷어붙인 사람들을

卷足人疑窺鷺白

백로가 엿보는 것 같고

치마올린 여인네가

農裳女似採蓮紅

붉은 연꽃 따는것 같다.

아이들보고 모를 작게 심으라고

兒童莫說如針小

말하지 마소

농사 잘 되라고 이미

己占豐登擊壤翁

격양가를 불렀다오

남무오엽(南畝午飮)

생애에 성세를 만나니
전원에 살기가 좋구나
生逢聖世好田居

아내는 점심을 내오고 지아비는
논을 갈으니 그 즐거움 남음이 있으리
새벽비 지나가니 향긋한 뱃논에
호미질 하기 좋고
妻饋夫耕樂有餘
香稻可鋤曉雨過

낮안개 멀어지니 누런
벼 곡식이 처음으로 익어가네
黃梁初熟午烟疎

빈 들녘 밖에 때에 이르니
할미새가 따라오고
幽郊屆節方聽鷓

주나라 들녘에 풍년들것이라
물고기도 싱싱하구나
周牧占豐已夢魚

아해는 술통을 지고
아가씨는 안석을 들고
兒負酒壺娘舉案

그림같은 들 경치속에
새참 맛이 좋구나
可餐野色畫圖如

서사야옹(西舍夜舂)

잠깐 저녁밥 지으니
벌써 날이 저무는데
纔罷夕炊欲暮天

함께 먹으려 이웃집여인
치마폭 이끄네
招招隣女裙相牽

쌀을 가볍게 까부르니
그 먼지 바람에 이르고

米塵輕簸臨風外

광술불 희미하게
눈 앞을 비치네

松火微明照眼前

약 쟁는 소리들으며
산새들이 지저귀고

搗藥時聽山鳥語

서리오스 밤 방앗소리를
벗하며 미인이 즐고있네

杵霜夜伴月娥眼

일찌기 관에 세금을 내고도
양곡이 족하니

早輸官稅農糧足

이와같이 넉넉함이 전가에
즐거움이요 호연함이라

最足田家樂浩然

〈松岡 金保鉉 解釋〉, 이인영

남구만(南九萬)

〈생거〉 남구만은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조선조 개국공신인 남재(南在)의 후손인 현령(縣令) 일성(一星)의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의령(宜寧) 자는 운로(雲露) 호는 약천(藥泉)·미재(美齋) 시호는 문충공(文忠公)이다.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의 문하에서 글을 배웠으며, 23세 되던해인 1651년(효종 2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656년에는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가주서·전적·사서·문학을 거쳐 다음해인 1657년에 정언이 되었다.

1659년에는 홍문록에 오르고 이어 교리에 임명되었다. 32세 되던 해인 1660년(현종 1년) 이에 이조정랑이 되었고, 이어 집의·응교·사인·승지·대사간·이조참의·대사성을 거쳐 1668년에는 안변부사와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하였고 1674년에는 함경도관찰사로서 유학(儒學)을 크게 보급 발전시키는 한편 북쪽 변경의 수비를 견고히 하는 등 수많은

치적을 남겼다. 1679년(숙종 5년)에 좌윤이 되었고 이해에 윤휴(尹鑄), 허견(許堅) 등의 방자함을 탄핵하다 남해(南海)로 유배되었다. 이듬해인 1680년(숙종 6년) 이른바 『삼복(三福)의 옥(獄)』으로 남인이 서인에 의해 축출되자 도승지·부제학·대사간 등을 역임하고 이어 대제학의 자리에 올랐다. 1683년 병조판서가 되어 폐한 북방의 4군(四郡)을 다시 설치할 것을 주장해 무창(茂昌), 자성(慈城)의 어지러움을 지적해 개선하였다. 이해 4월부터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자 소론의 편에 섰다. 이후 관직상 가장 우위에 있던 남구만은 소론의 영도자가 되어 송시열 등의 노론에 대항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계속 승진하여 1684년 우의정, 1685년 좌의정, 1687년에는 영의정에 올랐다. 1689년(숙종 15) 희빈(禧嬪) 장(張)씨의 소생 세자책봉 문제로 인해 기사환국(己巳換局)이 일어나자 남인이 득세하면서 강릉으로 유배되었다. 이듬해 유배에서 풀려나고 이후 1694년(숙종 20)에는 소론을 탄핵하려던 남인 출신의 우의정 민암(閔黯)이 숙종의 미움을 사 사사(賜死)되고 남인이 실각하는 갑술옥사(甲戌獄死)로 다시 영의정에 복귀하고, 1696년 영중추부사가 되었다. 이로 남구만이 이끄는 소론이 관직의 상부에 포열(布列)하여 노론에 맞설 굳건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1701년(숙종 27) 장희빈의 처벌문제에 대하여 노론의 김춘택(金春澤), 항중혁(韓重爨) 등이 중형(重刑)을 주장하자 이에 맞서 경형(輕刑)을 주장하다가 숙종 스스로 장희빈의 사사(賜死)를 결정하자 사직하고 낙향하였다.

그뒤 여러차례 삭직·유배 등 파란을 겪다가 서용(敍用)되었으나 1707년(숙종 33) 관직에서 물러나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1711년(숙종 37)에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마치자 숙종은 문충공(文忠公)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종묘에 배향케 했으며 강릉의 신석서원(申石書院), 종성의 종산서원(鐘山書院), 무산의 향사(鄉祠)에 배향되었다.

남구만은 당시 정치의 중심인물로 정치·경제·행정·군정·인재등용·의례 등 국정전반에 걸쳐 경륜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문사(文詞)와 서화(書畵)에도 뛰어나 책문(冊文)·반교문(頒敎文)·묘지명(墓地名) 등을 많이 썼으며, 청구영언에 전해오는 시조 〈동창이 밝았느냐〉는 널리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작품이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치는 아해는 상기아니 일었느냐

재념어 사래 긴발 언제 갈려 하느니”

당시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와같은 목가적인 작품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을 보면 문학적 자질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저서로는 <약천집(藥泉集)>과 <주역참동계주(周易參同契註)>가 전하고 있으며, 글씨로는 남지(南智)의 비(碑)와 찬성장현광비(贊成張顯光碑)가 남아있고, 액자로는 개심사(開心寺), 양화루(兩花樓), 영송루(迎送樓) 등이 있다. 그의 묘소는 현재 모현면 갈담리에 있고, 후손의 집안에 영정2점이 전해져 오고 있으며, 사당 또한 있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朝鮮金石總覽, 내고장의 일>, 최희면

남궁씨(南宮氏)

<열려·정려문> 안재복의 처. 14세때 안씨문중으로 출가하여 지성으로 시부모를 공경 하였고 길쌈과 방적으로 가세를 일으켰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게 부군이 득병하여 자리에 눕게되자 지어미된 도리를 다하여 시탕간병 하였으나 남편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었다.

남편을 사별하고 난 남궁씨는 거상중에 하루도 빠짐없이 조식 상식으로 애통하더니 마지막 탈상 파제사를 마친 후에는 한 모금의 물도 입에 대지 않고 곡기를 끊어 마침내 남편의 뒤를 따랐다.

이 애절한 남궁씨의 열행이 일세에 자자하더니 향당이 다투어 조정에 천거하였으므로 열려문이 내려졌다.

이로써 안기명(安基命) 집안에는 효자와 열려문이 중복되어 이웃에서 효열의 중함이 본보기로 교훈되었다.

열려정문은 원삼면 맹리 향군마을에 전해온다.

<참고: 삼강행실록, 내고장의 일>, 이응준

남사고(南師古)

<야화유래> 조선 중기의 학자. 역학, 풍수, 천문, 복서 관상의 비결에 도통하여 예언이 꼭 들어 맞았다고 한다. 1575년의 동서분당(東西分黨)과 1592년의 임진왜란 등을 명중

말기에 이미 예언하였고 들어 맞았다. 그에 앞서 1564년에 내년에는 태산(泰山)을 봉하게 되리라고 예언했는데 과연 이듬해엔 문정왕후(文定王后)가 별세하여 태릉(泰陵)에 장사지냈다.

특히 풍수학에 조예가 깊어 전국의 명산을 찾아 다니며 많은 일화를 남겼는데 당시의 고승인 보우(普雨)화상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는 이미 용인의 산사에서 신승을 만나 비전을 전수받았다고 전한다.

(참고: 남사고 비결), 금병운

남 은(南 閔)

(묘) 조선개국1등공신(朝鮮開國一等功臣) 묘. 남사면 창리 화곡, 본관은 의령, 시호는 강무(剛武), 고려조에서 시중(侍中)을 지낸 을번(乙蕃)의 아들. 개국공신으로 영의정을 지낸 재(在)의 아우.

(동국여지승람)을 보면 “치인현 동쪽 6리 지점에 남은의 묘가 있다”는 기록이 있다.

남은은 평소 성품이 호기롭고 뛰어나 어떤 일이나 주저하지 않았고, 어려서부터 기묘한 계책을 좋아했다고 전한다. 고려 우왕시절 사직단직(社稷壇直)으로 있을 때 삼척지역으로 왜적이 크게 침입하여 양민을 괴롭혔다. 삼척군은 성능이 작고 위험하여 나라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웠는데, 남은이 지군사(知軍事: 郡守)가 되기를 자청하여 삼척군에 부임하였다. 이때 갑자기 왜적이 들이닥쳤으나 남은은 당황하지 않고 기병 10명으로써 성문을 열고 돌격하니 적들이 그의 용맹을 보고 패하여 달아났다는 일화가 있다. 삼척지역의 왜구를 퇴치하고 돌아오자 조정에서는 그 공으로 사복정(司僕正)을 제수했다.

고려말년에 우왕이 요동을 칠 때 이성계를 따라 위화도까지 가서 조인옥과 함께 군사를 돌릴것을 진언했으며 이 공으로 밀직부사의 관직을 받았는데 공양왕때에 내간들이 모의하여 정도전을 죽이기로 하고 투옥시키자 남은은 이를 구하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일시 벼슬을 떠난 일도 있었다. 후에 남은은 정도전 등 52명과 함께 이성계를 추대하여 개국일등공신이 되었는데 태조 7년(1398) 방원의 난(무인사화)때 정도전과 함께 왕자 방석의 편을 들고 「강씨(신덕왕후)가 반드시 자기의 소생을 세우려고 하는데 방변은 광패하고 그 동생이 조금 낫다」하여 임금에 아뢰기를 모든 왕자를 지방의 왕으로 봉하는 중국의 예에 의하면 각도로 나누어 보내기를 청하는 한

편, 그해 가을 태조의 병증이 위독하자 정도전 등이 거처를 옮길 의논을 하겠다는 핑계를 삼아 모든 왕자들을 불러모아 일시에 제거하기로 모의했으나 이무(李茂)가 그 계획을 태종에게 누설하여 죽음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제1차 왕자의 난으로, 태조말년에 동요에 이르기를 「남산에 돌을 때려해도 정(釘)이 남음이 없다」고 했는데 정이란 것은 돌을 쪼개는 기구로서 돌을 쪼으려 해도 정(釘)이 남은것이 없다는 말이다. 정(釘) 남음(餘)은 정남은(鄭南閔)과 음이 같았는데 두어 해가 되어 정도전과 남은이 죽음을 당했다 《패관잡기》고 한다. 예로부터 항간에 동요가 일어남은 처음에는 의미없이 무심하게 생겼으므로 인위적인 협잡이라 할 수 없고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것이 감통(感通)되어 참응(讖應: 前定)에 틀리지 않았다.

그가 죽은 후에 태종이 유정현에게 이르기를 「태조께서 개국할 때 남은은 밖에서 제창하고 이재(李濟)는 안에서 호응하여 대업을 이루었으므로 이들의 공훈이 막대하니 그 공을 폐하여서는 안된다」하고 시호를 내리고 태조의 묘정에 배향하였다.

묘표는 방손 구만(九萬)이 영의정이던 당시인 1698경에 세웠으며 비문은 남구만이 짓고 글씨는 예조판서를 지낸 남용익이 썼다.

(참고: 열려실기술, 읍지), 노승식

남 이(南 怡)

〈출생·일화〉 세종 23(1441)~예종즉위년(1468). 조선전기의 무신. 본관은 의령,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재(在)의 손자. 휘(暉)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태종의 4녀인 정선공주(貞善公主)이다. 세조 3년(1457) 무과에 장원급제하고 세조의 총애를 받으면서 여러 무관직을 역임하였다.

1467년 포천, 영평(永平)등지에서 도적을 토벌하였고 이시애(李施愛)가 반란을 일으키자 대장이 되어 군성군(龜城君) 준(浚), 조석문(曹錫文), 허종(許琮), 강순(康純), 어유소(魚有沼) 등과 토벌에 참가하였으며, 이시애의 난을 토벌한 공으로 적개공신1등(敵愾功臣一等)에 책록되고 의산군(宜山君)에 봉해졌다. 이서 서북면 건위주의 여진을 토벌하자 우상대장(右廂大將)이 되어 주장 강순, 좌상대장 어유소와 함께 만포(滿浦)로부터 피저강(波狙江)을 공격하여 이만주(李滿住)를 참살하였다.

남이 장군은 용인태생으로 어렸을 때의 일이다. 서울 외가집에 놀러가서 동리 아이들과 어울리고 있을 때 장옷으로 얼굴을 가린 젊은 처자가 붉은 보자기에 무엇을 싸서 머리에 이고 가는데 자세히 보니 분바른 요귀 하나가 보따리 위에 올라 앉아 있었다. 다른 애들은 아무것도 안보인다고 하였지만 남이의 눈에는 분명히 요귀가 보였으므로 기이하게 여겨 그 여자의 뒤를 따라가 보니 어느 대가집으로 들어갔다. 남의 집 내당까지 쫓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밖에서 동정을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안에서 곡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남이는 <이크, 분명히 그 요귀의 짓이로구나> 생각하고 즉시 사람을 불렀다.

「이 사람은 남이라고 하는 서생이요, 이 집안에 무슨 변괴가 있는 듯 한데 무슨 일이 생겼으니까?」하고 물으니 그 때 따님이 방금 숨을 거뒀다는 것이다. 남이가 급히 내당에 들어가 보니 아나나 다를까 그 분바른 요귀가 이 때 젊은 아가씨의 목을 조르고 있지 않은가. 남이는 큰 소리로 「이 요망한것아 그 손을 썩 놓지 못하겠느냐」고 호통을 치자 요귀는 놀라 달아났다. 그러자 죽어 있던 아가씨가 깨어났다. 남이가 살려 준 처녀는 다름아닌 권람의 딸인데 세조 때 정승을 지낸 사람이다.

퇴궐하여 집에 온 권람은 그날 있었던 기이한 사건의 전말을 듣고 딸의 목숨을 사려 준 인물이니 아마도 천생연분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음날 점쟁이를 불러다가 남이의 사주를 짚어 보라고 하였다. 점쟁이는 남이의 사주를 본 뒤 <제명대로 살기가 어려운 인물>이라고 말하자 그가 살려낸 딸의 사주도 짚어 보라고 하였다. 점쟁이는 「말씀 여쭙기 황공하오나 따님의 명운은 매우 짧은 듯 하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도 두시지 못할 것이오니 그 복만 누리고 화는 보지 않을터 인즉 사위로 맞으셔도 좋을 듯 합니다」라고 점괘를 풀이하였다.

그후 남이는 권람의 사위가 되었고 야인 토벌에 위맹을 떨치고 마침내는 약관에 병조판서의 위치에 오르니 평소 남이의 재능과 명성과 벼슬이 자기 위에 있는 것을 시기한 유자광은 남이가 대궐에서 숙직을 할때 때마침 나타난 혜성을 보고 <혜성이 나타나면 묵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포치(布置)하는 형상이다>라고 말한것을 엿듣고 <남이가 반역을 꾀한다>고 고변하여 남이의 옥사가 일어나고 전에 지은 시 즉 <백두산 석 칼 갈아 없애고/두만강 물 말먹여 없애리라/남아 이십에 나라 평정 못하면/누가 후세에 대

장부라 이르리요)라고 읊었던 웅시(雄詩)중 〈미평국(未平國)〉을 〈미득국(未得國)〉이라고 둘러대었으므로 화를 면키가 더욱 어려웠으니 이때 그의 나이 28세였다.

남이는 심한 고문을 당하여 다리가 부러졌다. 임금은 남이를 보고 「누가 너와 공모를 하였느냐!」고 물었다. 이때 영의정 강순이 옆에 있었는데 남이는 강순을 가르키며 「저기 있는 영상이 나를 시켰습니다」하였다. 이 말에 강순은 황급히 엎드려 「전하 신은 본래 평민으로서 밝으신 임금을 만나 벼슬이 정승에 까지 이르렀는데 그 이상 무엇을 바라고 남이와 역모를 꾀하겠습니까?」하니 임금은 그의 말을 옳게 여기려 하자 남이는 「전하께서 그의 거짓말을 믿으시여 죄를 묻지 아니 하신다면 어찌 죄인을 찾아 내시려 하옵니까?」하였다.

이 말을 듣고 임금은 강순도 국문케 하니 그의 나이 80이었다.

「남이야 네가 나에게 무슨 원한이 있어 나를 모함하느냐?」고 강순이 묻자 남이는 꺾꺾 웃으며

「원통한 것은 나와 네가 마찬가지로 네가 영의정 자리에 앉아서 나의 원통한 것을 알면서도 구원하지 않으니 원통하게 죽는것은 당연하다. 지금까지 내가 자복하지 않은 것은 훗날에 나라를 위하여 더욱 일하려 한 것이었으나 이제 다리가 부러져 병신된 몸이 되었으니 살아 있을들 또한 무엇하겠느냐? 나같은 젊은 자도 오히려 죽음앞에 태연하게 버티기가 허영게 쉰 늙은 놈은 죽는것이 실로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저승가는 길동무나 삼으려고 끌어낸 것이다. 하하하」 말하자면 임금을 바로 보필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요괴로 인하여 한때 권람의 사위가 되었던 남이는 점쟁이의 말처럼 명대로 살지 못했으며 그의 부인 역시 이 옥사가 있기 이미 수년전에 먼저 죽었으므로 권람은 무사하였다고 한다.

그위 1818년(순조 18) 우의정 남공철(南公轍)의 주청으로 강순과 함께 신원되었는데 역적으로 몰려 죽으면 그 시신이 선영(高嶺)으로 돌아오지 못하므로 그의 묘는 화성군 비봉면 남전리에 전한다.

(참고: 내고장 용인(이인영), 연려실기술,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용인군지), 금병윤

남이성(南二星)

〈묘〉 남사면 창리 화곡. 자는 중휘(仲輝), 호는 의졸(宜拙), 시호는 장간(章簡), 본관은 의령, 인조 을축(1625)년 4월 14일 평강현감 식(燾)의 아들로 출생. 33세때인 효정 8년(1657) 진사시에 합격하고 현종 원년(1660) 내시교관(內侍敎官)으로 벼슬길을 시작 현종 3년(1662) 임인정시문과(壬寅庭試文科) 을과에 급제한 후 현종 15(1695)년 예조참의를 거쳐 대사간에 올랐다. 이때 자의대비(茲懿大妃) 복상문제(服喪問題)로 영의정 김수항이 중도 부처되자 남이성이 이의 불가함을 들어 남인 권대운(權大運)을 규탄하고 김수항을 변호하다가 진도로 부처되었고 후에 배천(白川)으로 이배되었다. 무오년(1678)에 석방되어 다시 등용된 후 좌부승지(左副承旨)에 이어 대사성이 되었다. 이때 대동법의 폐단을 지적하는 소를 올렸다. 또 홍문관 부제학(副提學)을 거쳐 예조참판에 재직하면서 동지겸사은사(冬至兼謝恩使)가 되어 청나라 연경에 다녀 온 후로 예조판서를 지냈다.

조정에서 국사를 의논할 때는 항상 관대하고 공평했으며 시비와 사정(邪正)을 변론할 때는 의연한 태도를 취하였다. 일찍부터 문장과 담론에 능했으므로 왕명을 받들어 퇴계(退溪)의 제자가 해석했던 송나라의 어록(語錄)을 고교(考校)하여 동춘당 송준길의 산정(刪定)을 거친 어록해(語錄解)를 만들어 현종에게 바치기도 하였다.

숙종 9년(1683), 12월 13일 별세하여 처인면(현, 남사면) 화곡산(花谷山) 축좌지원(丑坐之原)에 배위 정부인(貞夫人) 청송심씨와 합폄(合窆)되었다.

〈참고문헌: 국사대사전, 인명사전, 고사대전, 열려실기술, 민족문화대백과, 묘표〉, 이인영

남정각(南廷珪)

〈독립지사〉 생몰 1897. 12. 12~1967. 1. 29. 호는 오산(午山), 이명은 영득(英得, 寧得). 1913년 3월까지 용인군 모현면 초부리에서 한학을 수업한 후서울 기독교청년회 공업과에 입학하였다가 그 이듬해인 1914년 중퇴하였다.

1919년 3·1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수원에서 만세시위운동에 참가하는 한편 수원, 안성, 용인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독립신문을 비밀리에 배부하고 독립사상을 고취하여 만세시위운동에 나설것을 권유하였다.

1920년 3월 중국 북경으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중국청년 어학과(語學科)에서 수학하다가 동년 12월에 중퇴하고 장춘(長春), 천진(天津), 상해(上海) 등지를 순력하여 독립지사들을 찾아 독립운동의 방략을 모색하던 중, 1921년 겨울 북경에서 의열단장(義烈團長) 김원봉(金元鳳)과 만나고, 1922년 6월 최용덕(崔用德), 이종암(李鍾岩)의 소개로 의열단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최용덕·이종암이 그에게 서울에 있는 김한(金翰)이 폭탄을 국내에 들여와 투척할 성의가 있는가를 확실히 파악할 것을 부탁하므로 그는 동월 그믐께 서울에 들어와 시내 수창동 모 여관에서 김한과 면담하고 김한의 의향을 타진하니 그는 폭탄을 안동현(安東縣)까지만 운반해 오면 이를 자기의 부하로 하여금 국내에 들여다가 조선총독부, 조선은행, 전기회사, 동약척식회사 등을 파괴하겠으니 잠복할 장소 물색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곧 상해로 돌아가서 영조계(英租界) 신려사(新旅社)에서 김원봉, 최용덕을 만나서 김한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복명한 뒤 김원봉으로부터 자금 2천원을 받아 동년 8월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그는 가지고 온 자금을 김한에게 준 다음 폭탄을 국내에 반입하려면 안동현에 중계소를 둘 필요가 있으니 자신이 중계인이 되겠다고 말하고 약장수로 가장하여 안동현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적당한 장소가 없으므로 중계소 설치계획을 중단하고 다시 입국하여 김한과 폭탄반입에 대한 협의를 한 뒤 천진을 거쳐 상해에 가서 김원봉과 협의하고 때를 기다리면서 국내의 김한과 수차 회합하여 그 방법을 논의하였다. 동년 12월 28일경 동지 이현준(李賢俊)과 같이 서울에 도착하여 시내 운니동 박완명(朴完明)의 집에 투숙하면서 폭탄의 도착을 기다렸으나 자금의 미비로 도착되지 못하자 그 자신이 이에 필요한 운동자금을 국내에서 모집하기로 결심하고 동년 4월 14일 시내 황금정(黃金町) 2정목(현 을지로 부근) 정목여관(正木旅館)에서 동지 권동산(權東山, 일명 正彌), 유병하(柳秉夏), 유시태(柳時泰)등과 의논하고 그들에게 권총을 주며 내자동 이인회(李麟會)에게 자금을 요청하기로 하고 동년 2월 21일 그는 상해에서 온 임시정부 군무총장 정(丁) 아무개라 가칭하고 유시태와 함께 이인회의 집에 가서 5천원을 요구하였다가 그의 고발로 일경에 체포되고 말았다.

그후 동지들도 모두 피체되어 동년 8월 7일 의열단원 12명의 공판이 경성지방법원에서 일본인 삼시(三矢) 재판장과 평산(平山)검사의 입회로 개정되어 연일 계속되다가 동월 12일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분기충천한 태도로 『나는 의열단원이요, 검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을 직업적이라 하나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소, 나는 경술국치에 불평과 불만을 품고 의열단에 가입한 후 조국을 위하여 생명을 바쳤으이다. 나는 군자금을 모집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의열단은 군자금을 모집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우리 민족에게 각성을 주기 위하여 오늘날까지 살았은 즉, 나의 형벌에 대하여는 사형도 좋소이다. 이제 더 말하지 않겠소』하며 자리에 앉았다.

그는 8월 2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8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9년 출감하자 그는 시 중국 천진으로 망명하여 지하운동을 하는 한편 천진교민회(天津僑民會)를 조직하고 활약하다가 광복을 맞이하였다. 이때 그는 귀국하는 교포들의 여비 및 기타 비용을 조달코자 일본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배편을 이용하여 많은 교포를 무사히 귀국시키는데 전력하였으며, 귀국후에는 고려동지회(高麗同志會)에 가입하고 건국사업에 협력하여 동지들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 건국훈장독립장을 수여하였다. 1991년 용인향토사학회와 의령남씨 문중에서 그가 출생한 모현면 초부리에 의열기적비를 건립하였다.

(참고문헌: 1923. 8. 21. 경성지방법원 판결문 고등경찰요사, 김병학한국독립사(하), 독립운동사 자료집(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국가보훈처), 이인영

남현수(南顯秀)

항일의병. 용인에서 출생하였다.

당년 32세때 의병에 투신. 의병장 이익삼(李益三)의 휘하에서 활약하였다.

융희 3년 음력 3월 10일 의병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기 위하여 용인군 포곡면 소운동 이재봉(李在鳳)의 집에서 5원을 징취한 것을 비롯, 이등면 금현 김종옥(金鍾玉)의 집 등에서 군량미를 조달하는 등 활약하다가 체포되어 1909년 11월 12일 경성지방법관소에서 5년 형을 언도받고 복역하였다.

(참고: 독립운동자료집 별책, 이하경 재판기록참조), 노승식

테스텐스

미 군정(軍政)소속 육군 소위.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 후 이북에는 8월 22일 소련군이 평양에 진주하여 군정을 실시하였고 미 육군은 하지 중장의 지휘하에 9월 8일 인천에 상륙, 당일 서울에 입성하여 재한국 일본군으로 부터 역사적 항복식을 갖음으로서 일본통치는 완전히 끝났다.

미군정이 시작되자 용인에서는 9월 25일 테스텐스 미육군 소위가 일본인 경찰서장 축지도웅(築地踏雄)으로 부터 용인경찰서를 접수하여 치안을 확보하였다.

일본이 항복한 후 최초 용인의 치안을 담당했던 테스텐스는 10월 21일, 한국인 경찰서장이 임명될 때까지 용인의 치안을 유지하다가 인계하였다.

〈참고 : 용인군지, 용인군사사연표〉, 박상돈

도 선(道 詵)

〈유래〉 신라 흥덕왕 2(827)~효공왕 2(898). 신라말의 승려, 풍수설의 대가, 속성은 김씨(金氏), 영암에서 출생. 15세에 출가하여 월유산 화엄사에서 중이 되었다. 846년(문성왕 8년)에 곡성 동리산(桐裏山)의 혜철(惠徹)을 찾아가서 무설설(無說說), 무법법(無法法)의 법문을 듣고 오묘한 이치를 깨닫고 구족계(具足戒)를 받은 뒤, 전남 광양의 옥룡사에서 후학들을 지도하였다.

도선은 승려로서 보다는 풍수설의 대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 풍수지리학의 역사가 신라말까지 올라가는 것은 도선의 생존연대가 그때였기 때문이다. 현강왕 1년(875)에 도선은 지금부터 2년 뒤에 반드시 고귀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였는데 송악에서 고려 태조가 태어났다. 그후 고려왕들은 〈도선비기〉의 참위설과 불교신앙에서 오는 가호의 힘을 의지할 만큼 영향력이 있었다. 도선은 일찌기 내가 순역을 점쳐서 정한 곳 이외에 함부로 사원을 세우면 지덕(地德)을 손상하여 국운이 길하지 못하리라 하였다. 도선이 산천의 지세를 점쳐서 결정한 탑을 비보사탑(裨補寺塔)이라 하였다. 이동면 용덕사에는 일찌기 도선이 조성했다고 전하는 3층 석탑제가 있으며, 또 철인삼위(三位)를 조성하여 봉안하였다는 약사의 기록이 전해지는데 철인 3위중 1위는 없어지고 현재 2위만 전해진다.

〈참고 : 민족문화대백과, 내고장의 열, 유물유적편〉, 노승식

맹철호(孟喆鎬)

〈독립지사〉 독립단 증안, 환인, 총지단장, 1889년 3월 15일 용인군 수여면(지금의 용인읍)에서 출생하였다. 호는 해사(海史), 별명 또는 이명(異名)으로는 맹공유(孟公有)라고 했거나 맹성호(孟性浩)등으로 불리웠다.

1919년 3월 20일 고향인 용인에서 3·1독립운동에 참여한 후 망명하여 만주로 건너간 후 독립단에 입단하고 독립활동에 전력하였으며 동지들과 협력하여 독립건국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군대의 모집, 무기 구입, 자금 모금 등 독립 혈전에 필요한 제반 준비작업에 관여하였다.

그 중에는 구한국 말기 의병항쟁에 종사하다가 압록강을 건너가서 일면 생계, 일면 독립정신을 고취하며 광복역량을 길러오던 박장호(朴長浩), 조맹선(趙孟善), 백삼규(白三圭), 전덕원(全德元), 박양섭(朴陽燮)등 보약사(保約社), 향약계(鄉約契), 포수단(砲手團), 대표 5백여명은 국내 지역에서 3·1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한지 1개월이 지난 기미년(1919) 4월 13일부터 남만주 유하현 삼원보(三源堡) 서구(西構) 대화사(大花斜)에 모여 3일간에 걸친 진지한 토의끝에 4월 15일 분립하였던 각 단체를 해체하고 독립쟁취를 위한 단일기관으로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을 결성하였을 때 이에 참여하고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조국의 독립을 기필코 쟁취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이 독립단의 도총재(都總裁)는 박장호였고, 총단장은 조맹선이 었는바 각 지단장은 다음과 같다.

관동지단장	오인선(吳仁善)
본계호지단장	박수양(朴守陽)
증북(輯北)지단장	천중민(千鍾敏)
증서(輯西)지단장	최석순(崔錫淳)
증안, 환인 총지단장	맹철호(孟喆鎬)
흥서(興西)지단장	이의준(李義俊)

대한독립단에서는 국내외의 동포들에게 호소하여 청장년의 모집, 군자금의 모집등 항일 전쟁 준비를 서둘렀으며, 이때 각 지단장이 눈부신 활동으로 각 현에서 많은 사람들

이 일시에 호응하여 많은 전력자원과 군자금 이 모금되었다.

조선독립을 위해 좌충우돌 혼신을 다하던 선생은 1920년 5월에는 죽안현 일대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지위향상과 생계유지를 위해 죽안현지사(輯安縣知事)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 교민들의 생활보장과 지위향상책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1921년에는 죽안현에서 무장독립군을 조직하고 부하 200명을 무장시켜 압록강 중류와 하류지역을 전전하면서 일본군과 교전하는 한편 수차 국내진입을 시도하였다.

오로지 조국해방을 위한 독립활동을 그 업으로 알고 혼신을 다하다가 한족회(韓族會), 독립단(獨立團), 광한단(光韓團), 대한민족단, 청년연합회, 광복군 총연 등의 단체가 환인현에서 통합하고 1922년 이를 통의부(統義府)로 개칭하여 위원제로 직제를 개편하였을 때 선생은 군수국장을 맡아 남만부 전역과 국내에서 일본기관 및 일제주구(日帝走拘)의 토벌에 큰 공을 세우는데 기여하는 한편, 무장항일 투쟁을 계속하여 부하를 평북일대에 파견. 국내지단 조직과 군자금 모금활동을 전개하다가 강계에서는 그의 부하 김신애(金信愛)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그후 1925년 1월 길림성(吉林省)에서 남북만주의 독립운동 단체인 통의부, 의금부 등 10여개 단체 대표 25명이 모여 정의부(正義府)를 창단하였을 때 그는 이진산(李震山), 최명수(崔明洙)등과 함께 자치분과 위원으로써 재만 동포를 위하여 헌신하였다.

1931년에 이르렀을 때 그해 9월 18일 일본군은 만철 폭파사건을 조작하여 이를 구실로 하여 만주 일대를 무력으로 점령한 후, 청조 최후의 황제 부의(溥儀)를 옹립하여 만주국이란 괴로정권을 수립하고 만주일대를 일본침략의 병참지화했던 소위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만주지역의 독립항쟁 단체들은 치명적인 희생을 당하였다. 그 활동범위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이때 선생은 주령현(朱寧縣)의 산간지방으로 피신하여 영농생활을 하며 은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생을 독립항쟁과 조국광복을 위해 투신했던 그는 8·15해방 후 귀국하였고 1959년 2월 17일 서거하였으며, 1977년에 이르러서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참고: 독립운동사 5권, 독립유공자 공훈록〉, 금병윤

목원규(睦原逵)

〈효자: 정려문〉 본관은 사천(泗川), 자는 문유(文有), 부친 우석(禹錫)의 장남. 순조 28년 무자(1828) 2월 14일 출생. 고종 10년 계유(1873) 3월 24일 타계할 때까지 효제(孝悌)의 사표로서 칭송을 들었다.

그의 부친이 허환으로 자리에 눕자 백방으로 약을 구하여 간병하였으나 효험이 없었다. 어느 날 의원이 진맥하더니 고기를 먹어야 낫을 병이라고 하였다. 원규는 거울에 개울가로 나아가 얼음을 깨어내 물속의 굴을 판 즉 흙문완(가물치)이 있어 그중 7마리를 잡아 시탕하여 드렸더니 신기하게도 부친의 환우가 쾌유되었다.

이에 마을 사람이 놀라며 하늘이 그 효성에 감동하여 늙은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였다고 칭송하였다.

그의 모친이 또 자리에 눕자 정성껏 약을 달여 드리고 변을 맛보아 병증을 가늠하였다.

이와같이 지극한 효성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친상을 당하니, 그 슬퍼함이 극에 달하였다. 예를 다하여 장사를 모신후에는 10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눈이오나 비가오나 삼년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곡묘하였고 거상 중엔 술과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종질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으므로 그의 행동을 본 마을 사람들은 군자에 버금가는 일이라고 칭송하였다.

향리의 유림들이 죽산부사에게 탄원하기를 그의 밝고 착한 효행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 귀감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였다.

마침내 상께서 들으시고 정려문을 내려 표정하고 동몽교관 조봉대부(朝奉大夫)로, 그의 아내 경주이씨는 영인(令人)으로 표절하였다. 원삼면 두창리에 효자각이 전한다.

〈참고: 효자정효기, 삼강행실록, 내고장의 얼〉, 이응준

목조수(睦祖洙)

〈생거급제〉 영조 2년(1726)~?. 자는 경노(景魯), 본관은 사천(泗川), 회경(會敬)의 아들. 영조 37년(1761), 35세때에 신사정시문과(辛巳庭試文科), 병과(丙科)에 급제하였다. 관위는 사직령(社稷令)에 그쳤다.

〈참고: 고사대사전, 용인군지〉, 박상돈

무작금(無作金)

〈충노·유래〉 생물 미상. 용인군 외사면 조비산 아래 장평리 외초동(外草洞) 마을에 진사를 지낸 정시익(鄭時翼)이 살았다. 그가 여덟살 나던 해에 역질이 돌아 부모가 일시에 죽으니 천애고아가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역질로 죽은 집 아이를 돌보기조차 꺼렸음은 물론이려니와 비복들도 모두 도망치고 말았다.

그런데 선대로부터 시익의 집에 살아온 종 무작금은 목천(木川)에 살고있는 시익의 외삼촌 덕에 부음을 알리고 딱한 처지를 말하였으므로 그 외삼촌이 장례비를 마련해주어 겨우 장사를 치를 수 있었다. 무작금은 제구(祭具)를 마련하고 모든 정성을 다하여 삼년 상을 마치도록 돌보았다. 또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무작금은 어린 시익을 등에 업고 산과 들에 피난하여 갖가지 고생을 겪으면서 무사히 보호하였다. 또한 지필묵을 마련하여다가 글씨를 배우고 익히도록 하였으며 시익을 업고 다니며 서당의 훈장에게 글을 배우도록 했다. 그러나 나이 어린 시익은 글 읽기를 게을리 하고 때로는 악동과 어울려 말썽을 일으키는 일도 있었다. 이를 보고 마음 아파하던 무작금은 시익을 끌고 사당에 들어가 시익의 부모 신위앞에 꿇어 앉게 하고서 영전에 고하기를 종이 주인을 때리는 일이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오나 주인 양주가 세상을 떠나 도련님 훈도를 못하는 것은 어찌 마음아픈 일이 아니겠느냐? 혼령이 계시거던 이 종놈의 손을 빌어 도련님을 훈도하기 바란다고 한 후 시익을 매질하였다. 그런 다음 도련님께서 성년하시거던 이놈에게 벌을 내리시라고 말하고 대성통곡하였다. 비록 나이 어린 시익이기는 하였으나 어찌 감동하는 바가 없으리요, 학문을 닦아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고 현현장부가 되었다. 또 장가를 들어 가장이 되었고 왜란을 겪으면서 잃었던 부친의 모든 땅을 되찾아가문을 일으켰다. 이 모든것이 무작금의 성충근독(誠忠勤篤)한 정성에서 비롯되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임금께서는 충노 무작금에게 정려의 은전을 내렸다. 후사가 없는 무작금이 세상을 떠나자 그 손에서 자란 시익은 종의 은혜를 잊지않고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 주었다. 그후 정시익의 후손들은 대를 이어 무작금의 사당을 수호하여 내려왔으며, 문헌에는 폐지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으나 지금은 한낱 전설적인 얘기로 전해온다.

(참고: 삼강행실록, 내고장 전설), 금병윤

민경식(閔庚植)

제헌(制憲) 국회의원. 1948년 5월 10일 최초의 총선거에서 초대 국회의원에 피선되었다. 전국에서 198명이 의원이 당선되어 5월 31일 역사적인 개원식을 거행하였고 7월 12일 헌법이 완전 가결되어 이들 대한민국 초대 국회의원을 제헌 국회의원이라 하였다. 민경식은 국민당으로 2대 국회의원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참고 : 용인군지, 시사연표〉, 박상돈

민승호(閔升鎬)

〈묘〉 순조 30(1830)~고종 11(1874). 조선말기의 척신. 본관은 여흥, 자는 복경(復卿), 치구(致久)의 아들로 치록(致祿)에게 입양되었으며 명성왕후(明成王后)의 오빠이다. 고종 1년(1864) 증광시 병과에 급제하였다. 1866년 여동생이 왕비로 책봉되자 중용되어 그해 8월에 이조참의 1867년 1월에 호조참판에 임명되었다. 1872년 형조판서가 되고 1873년 병조판서에 올랐다.

이무렵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의 국교요청이 흥선대원군에 의하여 국서수리거부정책으로 나타나자 이에 반대하여 국서를 거부할 경우 일본의 분노를 사게된다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것과 양국이 서로 제휴하여 문명개화 할 수도 없을 것임을 통한한 나머지 박정양(朴定陽)을 부산에 파견하여 당시의 형세를 관찰케 하였다. 1873년 이후 명성황후의 배후 인물로 암약하여 대원군이 실각하자 국정전반에 참여하였으나 다음해인 1874년 폭탄이 장착된 소포를 열다가 폭발하여 일가와 함께 폭사하였다.

그의 묘소는 구성면 산하리 민재궁에 있으며 비문은 민영환이 썼다.

〈참고 : 한국인물대사전, 민족문화대백과〉, 이인영

민영준(閔泳駿)

불망비. 구성면 마북리. 생전에 일시 용인에 거주. 고종때의 민씨세도의 거두였으며 동학란이 일어났을때 선혜당상(宣惠堂上) 및 통위사(統衛使)가 되었던 인물

비에 선혜당상 민공영준 영세 불망비(宣惠堂上 閔公永世 不忘碑)라 새겨 그가 선혜당상의 관위에 있을 당시 용인고을에 어떤 혜택이나 영향력을 끼쳐 이를 기념하기 위

해 비를 세운것으로 「나라를 돕는 도타움에 백성들이 힘입었네(悲篤於國 賴及于民)」라고 적은 글이 있다.

〈참고자료 : 국사대사전, 불망비〉, 이응준

민영환(閔泳煥)

〈묘〉 용인군 구성면 마북리에 있다. 1862년(철종 12년) 7월 25일 서울 전동에서 민겸호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본관은 여흥이고 자는 문약(文若), 호는 계정(桂庭)이다.

광무 8년(1904) 11월의 노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고 한양으로 진주한 일본군은 1905년 11월 소위 을사늑약을 확정시켰다.

이 조약이 체결될 당시 고종황제는 몇번이나 그를 찾았으나 그때 그는 선향인 용인에서 두문불출 하였으므로 이러한 소동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후 선생은 가평에서 상경한 조병세와 시국을 의논한 끝에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상소하고 5적대신을 파면하도록 간청하는 한편, 각국 공관에도 부당한 일본의 처사를 통고하였고 백관을 이끌고 대한문 밖에 꿇어앉아 연좌농성을 계속하였다.

일본 헌병들은 이들을 구속하고 울분에 찬 백성들을 강제 해산시키는 무력행위를 자행하였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선생은 다시한번 상소문을 올렸고 죄인임을 자처하고 백관을 인솔, 평리원문밖에서 대적하고 있었다.

근신조치가 내려진 후 그는 죄인의 몸이라 하여 집으로 가지 못하고 가인(家人) 황씨의 처가에서 몸을 쉬고 있었다. 비록 매국 5조약이 체결되었으나 동지를 이끌고 해외에서 일본의 부당함을 알려 국제여론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을것이라 생각하였으나 결국 사세는 이 나라의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서자 동년 11월 1일 아침, 유서를 쓰기 시작하였다.

「슬프도다, 국치와 민욕이 드디어 이에 이르러 우리 인민은 장차 생존경쟁 속에서 멸망하게 되었다.

무릇 살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죽기를 기하여 일어서는 자는 반드시 살리니 모든 사람이 어찌 이를 알지 못하겠는가.

영환은 다만 일사(一死)를 맺음으로서 우러러 황은에 보답하고 2천만 형제에게 사죄하나니 영환은 죽었다해도 죽지 아니하며 여러분을 구천에서 나와 기필코 도울 것이니

다행히 동포, 형제는 천만분려 배가하여 뜻과 기운을 굳게 하고 학문에 힘쓰며 결심유력하여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한다면 죽은자 마땅히 명명한 속에서도 즐겨 웃으리니 슬프다 하여 조금도 실망하지 말지어다.

우리 대한 2천만 동포에게 마지막 이별을 고하노라」

유서를 마친 선생은 각국 공관에 보낸 유서와 함께 조심스럽게 옷깃을 여미고 늘 소지했던 패도를 꺼내어 목을 절러 자결하니 때는 을사 음력 11월 4일 오전 6시였다.

이때 그의 나이 45세였으며, 시종무관의 관직에 올라 있을 때였다. 그의 자결소식을 전해들은 고종은 정일품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錄大夫) 의정부대신의 관직을 추증하고 문충공(文忠公)이란 시호(諡號)를 내렸다.

기울어져 가는 국운을 바로 잡으려던 선생의 의지는 결국 대세에 눌려 바로 세울 수는 없었을지라도 그의 순사보국(殉死輔國)하는 유법은 애국지사들에게 효시가 되어 조병세, 이병준, 이한웅 등이 그 뒤를 따랐고 구세안민의 민족저항 정신을 뿌리내리게 하였다.

〈참고: 향토문화와 전통, 용인군〉, 박상돈

민우수(閔遇洙)

〈문헌〉 숙종 20(1694)~영조 32(1756). 조선 문신. 자는 사원(士元), 호는 섬촌(蟾村), 본관은 여흥, 대사간 진후(鎭厚)의 아들. 김창집의 문인, 신임사화 이후 벼슬을 단념하고 여강(驪江)가에서 학문에 전심하였다.

영조때 음보로 관직에 올라 1747년(영조 23) 집의가 되고 이어 사복시정. 원손 보양관(元孫輔養官)을 거쳐 1752년 내사헌에 특진. 후에 공조참판 등을 역임했으며 글씨를 잘 쓴 인물로 갑술(1754)년부터 병자(1756)년까지 권적에 이어 제28대 총렬서원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참고: 총렬서원 원장 선생안, 국사대사전〉, 노승식

민응수(閔應洙)

〈문헌〉 숙종 10년(1684)~영조 26(1750). 조선 문신. 자는 성보, 호는 오현(梧軒), 본관은 여흥. 이조판서 진주(鎭周)의 아들. 1710년 사마시에 합격, 1715년 주부, 정랑에 올랐고 신임사화때 사직하였다.

1724년 영조가 즉위하자 다시 정량이 되고 이듬해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예조정랑, 정언 등을 거쳐 1726년 교리 헌납, 이어 사간, 이듬해 교리가 되었으나 정미환국으로 파직되었다.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자 호서 암행어사 김재노의 종사관으로 나가 군기를 엄정히 하는 등 공을 세워 동래부사가 되었고 후에 여러 관직을 거쳐 우의정에 이르렀다.

박필주의 뒤를 이어 무진(1748)년부터 경오(1750)년까지 제26대 충청서원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참고: 한국인명대사전, 충청서원 선생안〉, 금병윤

민정중(閔鼎重)

〈문헌〉 인조 6(1628)~숙종 18(1692). 조선 문신. 자는 대수(大受), 호는 노봉(老峯), 본관은 여흥, 송시열의 문인. 인조 27(1649)년에 정시문과에 장원한 후 벼슬에 나아간 후 좌의정에 올랐다.

충렬서원 선생안(先生案)에 신유(1681)년부터 임신(1692)년까지 제15대 충청서원 원장에 재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참고: 충청서원선생안〉, 박상돈

민진원(閔鎭遠)

〈문헌〉 현종 5(1664)~영조 12(1736). 조선 문신. 노론의 영수. 자는 성유, 호는 단암, 여양부원군 유중(維重)의 아들이며 숙종비 인현왕후의 동생. 1691년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으나 당시 인현왕후가 유폐되어 있었기 때문에 등용되지 못하고 있다가 갑술옥사로 장희빈이 몰락하고 인현왕후가 복위되자 등용된 후 여러 관직을 거쳐 좌의정에 이르렀다.

숙종 29(1703)년에는 서원의 남설로 지방 관청재정 소모가 심하고 당쟁의 원인이 된다고 상소하여 서원 건립을 줄이게 하였고 경종 1년(1721)에는 숙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1730년 영조의 간곡한 부탁으로 소론의 영수 이광좌(李光佐)와 탕평을 기약하였으나 끝까지 소론에 대한 반격을 멈추지 않고 노론의 선봉으로 활약하였다. 1925(영조원년)

부터 말년인 1736까지 12년간 총렬서원 원장으로 직을 두었다.

〈참고 : 총렬서원선생안〉, 이인영

민진장(閔鎭長)

〈문헌〉 인조 27(1649)~숙종 26(1700). 조선 문신. 자는 치구(稚久), 본관은 여흥, 좌의정을 지낸 민정중의 아들. 송시열의 문인으로 현종 10년(1669) 사마시를 거쳐 숙종 12년인 1686년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장원. 당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모두가 장원하여 삼세문장(三世文壯)이라 불리웠다.

숙종 26년(1700)에 우의정에 이르렀다. 부친 정중(15대 총렬서원 원장)에 이어 18대 총렬서원 원장으로 1698년(무인)부터 1700년(경진)년 까지 3년간 총렬서원 원장으로 재직했다는 기록이 있다.

〈참고 : 총렬서원선생안〉, 노승식

민치헌(閔致憲)

〈출생〉 조선말기(1744~1903)의 문신으로 본관은 여흥(驪興)이고 태현(泰顯)의 아들이다. 음직(陰職)으로 청하현감(淸河縣監) 등을 역임하다가 1885년(고종 22) 9월 증광별시 문과에 병과로 등제한 뒤 그해 10월 홍문과부수찬이 되었다. 이듬해에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이 되었으며, 1887년 9월 사간원 대사간에 임명되었다. 사간원 재임시 여러 차례 직간을 올리고 대사간을 사임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1888년 4월 이조참의로 발탁되고 그해 8월 성균관 대사성에 올랐으며, 이듬해에 승정원 우승지에 제수되었으며, 1892년 동지동녕부사가 되었다. 1894년 고부에서 동학농민군이 봉기하여 전국적인 농민전쟁으로 비화될 즈음 지방관인 경주부윤의 외직에 있었다. 그리하여 동학농민 전쟁의 발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민씨척족들이 유배형을 받게 될 때 그도 그해 6월 홍원현(洪原縣)에 유배되었다가 그해 9월 풀려났다. 1896년 증추원 1등의관에 임명되고 칙임관 2등에 서임되었으며, 1899년 궁내부 특진관이 되었다. 1900년 4월의 의정부 찬정이 되고 이어 칙임관 1등에 올랐다. 동년 7월 회계원령, 이듬해 다시 궁내부 특진관과 칙임관 1등에 이르렀다. 시호는 효헌(孝憲)이다.

〈참고문헌 : 高宗實錄, 承政院日記, 國朝榜目〉, 최희면

박거명(朴居明)

용인현(龍仁縣) 최초의 현령. 조선 태종 13년(1413) 용구와 처인을 합쳐 용인현이라 하였으므로 이해 부터 현령이 임명되었을 것은 확실하겠지만 문헌의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용인현이 개설된지 47년 후인 세조 6년(1460)에 도입한 박거명이 기록상으로는 첫번째의 현령이다. 그로부터 두번째 현령으로 기록된 사람은 1447년에 도입한 김우(金祐)로 나타나는데, 박거명으로 부터 김우까지는 37년이란 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이 사이의 현령에 대한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 용인군사사연보, 군지), 이인영

박경업(朴慶業)

(묘) 선조 원년(1568)~?. 조선 문신. 초명(初名)은 승업(承業), 자는 응휴(應休), 호는 암수(岩叟)·추탄(秋灘), 본관은 고령(高靈), 박은(朴閔)의 증손. 선조 2년(1594)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장령(掌令), 정언(正言)등을 거쳐 광해군 14년(1622) 청주목사(淸州牧使)를 지내고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使)에 올랐다. 대간에 재직중 부정한 관리를 엄중히 탄핵하기로 유명하여 하루에 10여명을 삭직(削職)시키게 하였으나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때 지난날 그에 의하여 삭직되었던 공신들의 탄핵으로 유배되었다. 그의 묘는 내사면 석금리에 있다.

(참고: 내고장의 일 인물편), 박상돈

박 고(朴 翱)

(묘) 순성보조공신(純誠補祚功臣). 외사면 옥산리 산 48번지.

고려 공민왕 16(1367) 출생. 호는 회헌(晦軒), 원종공신(原從功臣), 한성부사(漢城府事), 영충(永忠)의 아들. 영의정 원형(元亨)의 부(父). 태종의 갑계(甲契)에 들어갔고 병조참의, 지제교(知製敎)를 역임하였다. 조선 태종 15년(1415) 순성보조공신으로 연흥군(延興君)에 피봉되고 좌의정에 추증되었다.

지조가 강직하고 천성적인 자질이 영민하여 간쟁을 일삼아 신풍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묘는 조선 초기의 방형분으로 본래부터 있었던 문관석 2기를 제외한 석조물(기

단석, 지대석, 상석, 망주석, 양마석등)은 모두 신조하였다. 묘 우측에 「左議政延興君竹山朴公翱之墓 配貞敬夫人陽城李氏祔左」라고 쓴 묘표가 있다. 음기는 이가원(李家源) 찬(撰) 전액(篆額)은 19세손 한조(漢朝)가 썼으며 그의 후손들이 비를 세웠다.

〈참고:묘비〉, 금병윤

박덕삼(朴德三)

항일의병. 용인군 하동면(下東面) 시묵동(時默洞:현 이동면 시미리)에서 출생했으며 살았다. 국운이 기울어지자 당년 24세로써 융희 2년(1908) 음력 2월에 의병장 정주원(鄭周源)의 휘하에 들어가 의병이 된 후 체포될때까지 눈부신 활약을 하였다. 왜경은 공소장에서 박덕삼이 동 의병대 70여명과 더불어 죽산군내 명칭 미상의 가옥에 침입하였으나 재물을 얻지 못하였다는 애매한 죄상과 융희 3년(1909) 11월 양지군 주서면(현:내사면 주북리) 강정옥(姜定玉) 집에 들어가 돈 30전을 강취했다는 죄목을 씌워 기소되었으나 강정옥의 집 강도사건에 관한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여타 죄목을 씌워 1909년 5월 23일 경성지방법판소에서 2년형을 언도받고 복역하였다.

〈참고:경성지방법판소 재판기록〉, 노승식

박세구(朴世九)

〈생거, 급제〉 고종원년(1864)~?. 본관은 고령(高靈), 과승(過昇)의 아들로 용인에서 출생. 고종 28년(1891) 신묘증광문과(辛卯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참고:용인군지, 고사대전〉, 이인영

박세성(朴世成)

〈묘〉 광해군 13년(1621)~현종 12(1671). 조선 문신. 자는 만기(萬基), 본관은 반남이며 박환의 아들. 어려서부터 침착하고 영리하였다. 제주 역시 뛰어나 글을 잘하였다. 인조 26년(1648)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효종 2년(1651) 알성문과(調聖文科)에 을과로 급

제. 사관(史官)을 지내고 홍문관 정자(正字), 봉교(奉敎)등을 역임했다. 부모를 부양키 위해 삭령군수를 자처하여 나아가서 선치하였고 1653년 설서(說書), 정언(正言)으로 평안도 암행어사로 나아갔고 1656년 장령, 이듬해 필선(弼善), 1660년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윤선도(尹善道)와 함께 서인과 권력투쟁을 하다가 문외출송(門外黜送)되었다가 1665년 판결사(判決事)로 등용. 형조참의(刑曹參議)를 거쳐 우부승지(右副承旨)에 올랐다. 자상한 반면 결단력과 의리도 있었으며 평생 청렴하여 가난으로 만족하였다.

〈참고 : 내고장의 일, 유물유적편, 한국인명대사전〉, 이인영

박세채(朴世采)

〈문헌〉 인조 9(1631)~숙종 21(1695). 조선 문신학자. 자는 화숙, 호는 현석(玄石), 본관은 반남. 김상헌의 문하에서 성리학을 연구하고 송시열과도 학문교류를 하였다.

28세때 천거로서 익위사 세마가 되고 1680년 경술 대출척 이후 동부승지를 거쳤고 소론이 집권하자 좌의정에 올랐다.

당대의 유종(儒宗)으로서 특히 예학에 밝았다.

많은 저술외에도 70여권의 문집을 남겼으며 글씨에도 능했다. 충렬서원 선생안에 민정중의 뒤를 이어 경오년부터 을해년(1690~1695)까지 제16대 충렬서원 원장으로 재직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참고 : 충렬서원 선생안〉, 노승식

박순재(朴舜載)

항일의병. 용인 사람으로 의병대에 투신한 후 양지·양성등지에서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참고 : 독립운동사 1권〉, 이인영

박 씨(朴 氏)

〈열부·정문〉 본관은 함양, 박장춘(朴長春)의 딸로 세종 병진년(1436) 11월 16일 출생하였다. 14세에 이르러 한씨 문주의 용주에게 출가하여 일삭(一朔)이 넘지 않았는데 지아버가 우연히 득병하여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였다.

온갖 정성을 다하여 간병하였으나 효험이 없었다.

이듬해 정월, 부군이 위독하여 사경에 이르자 단지 수혈하여 요행이 남편의 생명을 회생시켰으나 많은 출혈로 인하여 목숨을 잃으니 기사(1449)년 정월 9일의 일이었다.

세조 을유년(1465)에 와서 향당과 그의 후손들은 박씨의 열행(烈行)을 기려 열려문을 세웠다.

원삼면 독성리 중대마을에 한씨 문중의 효자 한구의 정려각에 함께 전하며 이러한 행적은 도의한국지(道義韓國誌)에 전한다.

〈참고 : 삼강행실록, 족보, 내고장의 얼〉, 이용준

박 씨(朴 氏)

〈효부·비〉 차성태의 부인. 본관은 밀양. 시부모 섬기기에 극진지효하여 일세의 귀감이 되었기로 1934년 6월 용인기로친목회(龍仁耆老親睦會)에서 효부비를 세웠다. 비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홀용하도다 효부여	捨歎孝婦
병든 시아버지 공양하기를	善養病舅
끼니마다 수저 들어 올리고	食又匙之
거동 때 마다 곁에서 도우며	坐必夫矣
옷가지 항상 깨끗하고	衣絹常潔
청소 세탁 쉬임이 없었네	掃濯不息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함이	克誠克敬
날이 갈수록 더욱 도타우니	愈久愈篤
이 모두 천성에서 나온 것	出自天性
배워서 아는 일 아니더라	非由學識
힘써 있는 정성 다하기를	靡不用極
20년 세월을 하루 같이 하였네	貳載一日

용인읍 김량장리 복구에 비가 전한다.

〈참고 : 효부비〉, 이용준

박원형(朴元亨)

〈출생·묘〉 태종 11(1411)~예종(1469) 조선 문신. 본관은 죽산, 자는 지구(之衢), 호는 만절당(晩節堂), 병조참의 고(翱)의 아들. 세종 16(1434)년 알성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1444년 사복시판관이 되었고 1453년 계유정난에 수양대군(首陽大君)을 도와 좌·우승지를 지내고 세조즉위에 적극 협력한 공으로 좌익공신(佐翼功臣)에 책록되어 연성부원군(延城府元君)에 봉해졌다.

그는 평소 검소한 것으로 몸을 규율하였고 공명심이 높았다. 55세가 되던 해인 성종 9년(1466)에 정승이 되어 영의정에 이르렀고 오랫동안 대제학을 역임하던 중 예종 원년(1469)에 별세하니 수 54세였다. 그가 죽은 후 문헌공(文憲公)으로 시호가 내렸다.

원형은 특히 사체(事體)에 명달하였고 또한 전고(典故)에 밝았다. 벼슬이 정승에 이르렀으나 극히 청렴하고 검소하였는데 그의 아들 안성(安成)이 찬성으로 있을 때 생인을 맞아 술상을 차려 올리니 원형은 기쁘게 받아 마시고 밤이 깊어지자 안성을 불러 앉히고 시한수를 지어 주었는데 〈今夜燈前酒數巡/汝年三十二青春/吾家舊物惟清白/好把相傳無限人〉이라 하였다.

즉 오늘 〈밤 등불 앞에 두어 순배 술을 들며/네 나이 헤어보매 서른 둘 청춘이구나/우리집의 구물은 오직 청백뿐이니/이것을 잘 지켜서 오래토록 전해다오〉하는 뜻이었다.

〈사제척언〉에는 이 부분을 〈집안 잔치에도 유탕한 놀음이 없이 경계하고 교훈하는 뜻이 있었으니 가히 자제를 가르치는 법도이다〉라고 적고 있다.

세종16년의 알성친시방에는 최항이 장원을 했고 2등(榜眼)은 조석문, 3등(探花)에는 박원형이 되었고 구치관이 병과(丙科) 3등이 되었는데 세조때에 와서 이들 네사람이 연달아 정승에 올라 고금에 없던 일이라 하여 우러러 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명나라 영종(英宗)이 즉위하자 중국 사신 진감, 고윤, 장령등이 와서 등극한 조서를 반포하였다. 이때 원형이 원접사(遠接使)가 되어 이들을 맞이하고 교제하기를 능숙하게 하므로 진감이 말하기를 〈그대같은 재주는 춘추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마땅히 숙향(叔向:춘추시대 진나라의 羊舌彥)과 자산(子產:춘추시대 정(鄭)나라 대부 公孫僑)에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극찬하고 이들이 돌아갈 때 국경까지 전송을 나가니 진감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옛 사람이 천리밖의 사람과 정신적으로 사귄 사람도 있는데

나와 귀하는 몇 달을 두고 함께 사귀었음에라”하고 서로 시를 주고 받았다.

연회 석상에서 진감이 연꽃의 그림을 보고 시를 읊었다.

〈쌍쌍의 백로는 서로 친한 것 같고/물 위로 나온 연꽃은 참(斬) 연꽃 같구나/객이 있어 이름이 송성(頌聲)하는 글에까지 퍼지니/연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애련설(愛蓮說)을 모른다 하겠는가/멀리서 바라봐도 더위를 잊겠고/나란히 서 있으면 어찌 속진(俗塵)에 물들리요/그림으로도 이런 뜻을 알겠구나〉, 이에 박원형이 차운하기를

〈수향(水鄉)의 화조는 멀어서 친하기 어려운데/붓으로 옮겨오니 교묘함이 참(생화)를 빼앗았구나/갓 피어오른 연꽃이 말하고자 하고/한가롭게 서 있는 백로가 사람을 두려워 하지 않는구나/진흙속에서 났으나 오히려 깨끗하여 물들지 않았으며/빙설같은 몸매는 멀리 속진을 벗었구나/옥서(홍문관)에 노는 신선이 보기를 싫어하지 않음은/맑은 몸매와 향기로운 덕이 닮았기 때문인가)하였다.

진감이 이를 보고 크게 칭찬하여 “동방의 문사는 중국과 다름 없다”고 경탄하였다.

이렇듯 서로 교우하기를 죽마고우 같이 하면서 이들의 시를 모아 족자로 만들어서 이별의 선물로 삼았는데 이로써 박원형의 명성은 중국에 까지 널리 알려졌다고 전한다. 또 유구국(琉球國)의 사신이 왔을 때 세조가 별궁에서 접견하게 되었는데 박원형이 이들을 접대하고 교제함이 빈틈이 없음을 보고 좌우의 모든 관원이 박원형은 참으로 관대를 매고 조정에서 빈객과 이야기할 만한 인물이라고 극찬하였다.

어느 날 중추부사 어효침이 입술이 두터웠음을 보고 세조가 희롱하기를 “어효침 순후(淳厚)”하였다. 순후는 그의 자(字)로서 순후(唇厚 : 입술이 두터움을 이름)와 같은 의미였다. 좌중이 박장대소를 하고 있을 때 그 중 의정 윤사분(尹士芬)의 불에 흠이 있는 것을 보고 박원형이 “윤사분 시험(猜險)”하니 시험은 그의 자로서 시험(臆險 : 불에 흥터가 있음을 이름)과 같은 뜻이므로 세조가 또한 크게 웃었다는 일화가 있다.

그의 묘소는 용인군 의사면 옥산리 하산마을 48번지에 있으며 묘소 윗쪽으로는 부친 고의 묘가 있고 아래에는 아들 안성의 묘가 있다. 묘앞의 신도비는 성화 7년(성종 2년 1471) 8월 20일에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참고 : 한국인명대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열려실기술, 내고장 용인〉, 이용준

박응중(朴應鍾)

불망비. 구성면 마북리. 박응중은 1883년(고종 20) 5월 4일 도입하여 1885년 12월 15일까지 용인현령으로 재임하였다.

비에 행현령 박공응중 영세 불망비(行縣令 朴公應鍾 永世不忘碑)라고 쓰고 「만금을 풀어헤쳐/천구의 주린백성을 살렸네(蕩捕萬金 活餓千口)」라 적었다.

비음(碑陰)에 갑신 4월이라는 연기가 있어 1884년에 건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이인영, 용인군시사연표, 불망비), 이응준

박인영(朴仁永)

〈효자·정문〉 본관은 죽산(竹山), 자는 여안(汝安). 영조 26년(1750) 향리인 죽산(지금의 용인군 외사면 옥산리)에서 민흥(閔興)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행의(行義)가 단정하였을 뿐 아니라 효성이 지극하였다. 또한 재덕(才德)을 겸비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인물이라고 하였다. 그의 부모는 항상 자식을 믿고 즐거워 하였는데 약관에 과거에 나가 랑관(郎官)으로 재직중이었다.

영조 47년 신묘(1771)에 모친인 여흥민씨의 환후가 위중함에 이의 급보를 접한 인영은 관직을 사퇴하고 귀향하여 성효(誠孝)로써 시탕갈력 하였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마침내 모친이 운명의 시각을 맞이하여 손가락을 세번 잘라 선혈로서 모친의 입에 흘려 넣어 수일간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끝내 세상을 하직하니 지극히 애통하면서 상례범절의 일체를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손수하여 장례를 마친 후 홀로된 부친을 마음 상하지 않고 심신이 편하도록 극진히 봉양하기 위하여 다시는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 부친 역시 노환으로 와석하게 되니 시탕(侍湯)하는 일은 일체 남에게 맡기지않고 손수 하면서 매일 부친의 변을 맛보아 병세를 징험하였다. 그러나 종당에는 운명의 시각을 맞이하며 인영은 황황망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모친의 운명시에 단지 수혈했던 흉터에서 저절로 선혈이 유출되어 운명 직전에서 수명을 수일 더 연장케 하였으므로 좌우에서 이구동성으로 감탄하였다.

마침내는 수 73세를 일기로 하세하자 그의 애통함은 극에 달하였고 3년간 풍우한설

을 피하지 않고 성묘하였다.

그후 부친과 동갑이던 외숙 이민기(李敏器)의 와병 중에도 친부와 같이 변을 맛보아가며 시탕갈려하니 범인이 따를 수 없는 일이라 하였다.

이러한 그의 행적은 근천지효(根天之孝)이며 격천지성(格天之誠)이라 하였고 세인을 능히 경탄케 하였으므로 향리의 사림(士林)이 그의 효행지절을 숭앙, 연명 상소하여 순조 19(1819)년에 정려문이 내려졌다. 용인군 외사면 고안리에 그의 묘소와 정려문이 전한다.

(참고: 삼강행실록, 죽산박씨세보, 내고장의 일), 이응준

박 은(朴 闇)

〈묘〉 박은은 조선조의 천재시인으로 고령 용담촌(龍潭村)에서 한성부 판관 답손(聃孫)과 경주이씨 사이에 1남 3녀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고령이고 자는 중열(中說), 호는 읍취현(挹翠軒)이다. 그는 어려서 부터 범상치 않았으며 신골(神骨)이 투철하여 눈썹과 눈이 매우 아름다워 속세에 사는 사람같지 않았으며, 4세에 책을 읽을 줄 알았으며 8세 때에는 대의(大義)를 알았다. 15세에는 문장에 능통하여 널리 이름이 났으며, 그 당시 대제학이었던 신용개(愼用溉)가 이를 알고 사위로 삼았다. 1495년(연산군 1년) 17세가 되던해에 진사가 되었고 다음 해에는 식년문과(式年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같은 해 12월 조정에서 실시한 사가독서자(賜暇讀書者) 선발에 뽑혀 장인인 신용개와 김일손(金駟孫), 남곤(南袞)등 14명과 사가독서하였다. 그 뒤 승문원권지(承文院權知)를 받고 홍문관에 선택되어 정자(正字)가 되고 수찬(修撰)에 있으면서 경연관(經筵官)을 지냈다.

평소 직언(直言)을 잘하기로 이름난 그는 1498년(연산군 4년) 20세의 나이로 유자광(柳子光)의 간사함과 성준(成俊)이 유자광에게 아첨함을 탄원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에 성준등이 크게 노하여 연산군에게 고하여 '사사부실(詐似不實)'이라는 죄명으로 파직시켰다. 이때가 1501년 23세 되던해였다. 이후 그는 더이상 속인들에게 스스로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오직 자연속에서 시와 술로써 세월을 보내기로 다짐했다. 1503년(연산군 9년) 3월 16일 아내 신씨가 백일도 안된 아들 동숙(同叔)을 낳긴채 2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 재앙을 맞이했다.

1504년 봄 다시 지제교(知製敎)로 임명되었다. 갑자년에 이르러 유자광등 간신들과 연산군의 횡포가 더욱 심하여 지자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3월 2일 동래로 유배되었다. 백일후 서울로 압송되어 의금부에 투옥된 후에도 그의 기개가 꺾이지 않자 군기시(軍器寺)앞 거리에서 효수(梟首)하고 〈詐忠自安 新進侮長官〉이라는 죄명으로 목에 걸게 하였다. 사형당한 이때의 나이 26세였다. 3년이 지난 후 증종이 즉위한 후 그의 죄가 신원되고 도승지로 추증되었다. 그는 16세기 중엽 용재(容齋), 이행(李荇)과 함께 거벽으로 추송된 천재시인이며, 해동강서파(海東江西派)의 대표적 시인이었다.

그의 문집인 읍취현유고는 그의 친구였던 이행이 모아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속동문선(續東文選)》에도 63편이 수록되어 있다.

그의 묘소는 용인군 내사면 식금리에 위치해 있으며, 그의 묘소 마을입구에는 1984년 6월 10일 전국시가비 건립동호회에서 설립한 읍취현시비(挹翠軒詩碑)가 세워져 있다.

(참고문헌: 國朝人物考, 中宗實錄, 朴闇研究), 최희면

박제우(朴濟禹)

항일의병. 죽산군 근삼면(近三面) 백암리(白岩里: 지금의 용이군 외사면)에 거주하였다.

을미의병의 한 사람으로, 민비시행사건이 일어나자 박제우는 1895년(을미) 12월 20일 원주에 머물면서 통문을 보내 백암에서 거병할 것을 계획하였고 1896년 2월 1일 백암리에서 거병할 계획이었으나 그날은 흥흥한 인심으로 인하여 장이 서지 않았을 뿐 아니라 통문을 보고 참여한 사람들이 불과 20여인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들을 인솔하여 잠적한 후 의병으로 활약했다.

이 당시 측량을 하고 있던 일본인 측량수 기라가와(北川)의 통신 문에서 박제우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보면

〈양((兩)) 3일 전부터 이곳 지방의 소문에 의하면 당군 백암리(白岩里)에 거주하는 박제우(朴濟禹)라는 자가 15~16일전 부터 폭도의 초청에 의하여 강원도에 갔다가 이제 20여인의 장정을 이끌고 귀촌하는 것을 보았다는 자가 있다.

원래 박은 본군 관내에서도 굴지의 악도(惡徒)로써 종래의 군수, 군리(郡吏)들에게 불평을 토하는 두령이다.

지난번 원주에 체재하고 있는 동안 죽산 각 동에 격문을 보내었고 마을로 돌아와서 도 수십통의 격문을 띄어 우민(愚民)을 선동하여, 드디어 돌아오는 2월 1일 각 동의 유지 총대등에게 백암리에 집합토록 하였다.

이날은 백암리의 장날인데 인심이 불온하여 출화자(出貨者)가 적어 드디어 장이 서지 아니하였다.

당 읍내 인민도 두려워 설레는 형편이었고 군수, 심의국(沈宜國)은 3~4일 심통(心通)한 일이 있어 우울한 표정이었고 그 다음날 여장을 정리하여 경성에 올라갔는데 짐작컨대 폭도의 장(將)이 관내에 봉기함을 자신이 진압할 능력이 없을 뿐더러 화가 자신에게 미칠것을 두려워 상경을 핑계로 도주한 것으로 사료된다.

폭도 주모자 박제우는 어제 백암리에 많은 사람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외로 집합자가 적어 불과20명이 안되는 무퇴한(無賴漢) 뿐이었다.

그래서 성사가 안될것을 알고 동소에 끌고 온 포군체류비(砲軍滯留費)도 동촌(同村) 각호에서 4원, 2원, 50전등 몇 등급으로 나누어 거둔 돈을 주머니에 넣고 어디론가 도주하였다.

폭도 호집(呼集)은 대 사건으로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도로편에 전달된 바에 의하면 지평(지금의 여주)에 수천명의 의병이 회합 하였다고 한다)

1896년 2월 2일 北川

박제우(朴濟禹) 통문(通文)

모후(母后: 민비를 말함)를 몰래 시해한 것은 온 나라를 주벌(誅伐)한 셈이요, 사람의 두발을 자르는(단발령) 일은 오랑캐가 아니고서는 차마 못할 일이다.

비록 초야에 묻힌 어리석은 백성일지라도 떼땀하게 다투려는 정성으로 이에 투쟁할 일이어늘 하물며 의장지족(衣掌之族—구태어 법이 없어도 인의와 덕성으로 살 수 있는 민족)의 밝고 의리있는 사나이에 있어서라……

뜻밖에 지난 밤 원주 창외소로부터 사람을 보내와서 초치(招致)하기를 본 읍의 일을 위임하니 얇은 식견으로 어찌 감히 이와 같은 큰 일을 당할 수 있으리오마는 군령이 존엄한 상황아래서 사편하고 피할 수 없고 봉(棒)을 빌어서라도 이달 18일에 군(軍)이 봉읍의 경내에 들어와서 통문이 이르는 날로 각 동의 집강(執綱)과 더불어 유지 여러분이

모여서 숙의하기를 바라노라

먼저 포군과 더불어 창군(槍軍)으로 하여금 저번에 의논한 계획대로 한사람도 빠지지 말기를 바란다.

만약 병기가 없는 곳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주물로 총을 만들고 대군의 수용에 대비하고 병정이 있는곳에 갖추어 신능군(信陵軍) 고사(故事-위의 초왕(昭王)의 아들 창객(倉客)이 살(殺) 천명(千名)이었으며, 제(諸)가 현명하기로 유명하였음)와 같이 동지 만나 뽐힌 정예의 장정 몇 사람씩 준비하여 추호도 감히 해가 없도록 합시다.

위와 같은 통문을 보지 못하더라도 속히 지휘하는대로 일제히 소리를 맞추어 큰 일을 완수한다면 이는 다만 한 읍만이 다행일 뿐 아니라 실로 국가 만세의 영광이 될지로다. 망설임 없이 시행하기를 천만바란다.

이 통문은 처음 본 동리에서 차차 나는듯이 전하여서 일동(一洞) 일민(一民)이 모르는 폐단이 없이하며 이번 18일에 군기(軍器)를 준비하여 속히 백암리로 모이도록

이 유시대로 만약 순종치 않는 자는 군율대로 시행하리니 각 동(洞)에서는 그리 알기를 바란다.

을미(1895) 12월 2일

박제우(朴濟禹) 원주에 머물면서

〈참고: 용구문화, 이진호교수, 일제측략침략사, 박제우격문-원창식 번역문〉, 금병윤

박천봉(朴千鳳)

1898년 2월 16일 안성에서 출생하였다. 이명(異名)은 순칠(順七). 1914년 4월 1일 최은식, 홍창섭, 이유석 등이 주동이 되어 전개한 양성, 원곡면 일대 독립만세 시위에 참여하였다.

그는 이날 저녁에 동리에서 독립만세를 외친 뒤 이희봉, 손정봉등과 양성면으로 행진하여 오후 9시경 동향리에 있는 경찰 주재소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1천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를 벌이고 해산하여 돌아가던 중 원곡면장을 선두에 세우고 횃불을 들고 향진해 오는 1천여명의 시위군중과 합세하여 다시 주재소로 행진하였다.

오후 10시경 주재소에 도착하여 태극기를 휘두르며 독립만세를 외치고 주재소와 숙직실을 파괴 방화하였다.

다시 시위군중과 함께 양성 우편소로 가서 그곳의 기물과 건물을 파괴, 방화하였고 일본인이 경영하는 잡화점과 일본인 고리대금업자의 집을 파괴하였다.

다음은 양성면사무소로 가서 서류와 기물을 파괴, 방화하고 시위군중과 함께 인근의 뒷산으로 올라가 독립만세를 외친뒤 해산하는 등 격렬한 독립만세 시위를 전개하고 체포되었다. 1921년 1월 2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건조물 소훼, 소요혐의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1977년 대통령표창 애국장을 받았다.

그후 용인 이동면 덕성리 247번지로 이전 그의 후손이 살고 있다.

(참고: 독립운동공훈록 제2권), 박상돈

박철원(朴哲遠)

학생독립운동가. 선생은 1918년 용인에서 출생하였고 일제의 압정을 피하여 망명하는 부친을 따라 중국 남경으로 갔다.

선생이 25세때인 1943년 남경중앙대학 농학원(農學院) 농학계(農學系) 3학년에 재학하고 있었다.

이 당시 남경 중앙대학에는 선생을 포함하여 한국인 학생 12명이 재학하고 있었는데 본 대학에서 중국문학을 전공하던 3학년 송지영(宋志英)은 독립운동에 관여하면서, 중경(重慶)에 있던 한국임시정부와 은밀히 연락을 취하여 지하공작을 전개하였다.

그는 그곳 한국인 교포에 대한 항일투쟁의 공작활동은 물론 동대학에 재학중인 박철원 선생 등과 더불어 조국광복에 대한 토론과 애국 애족 독립정신을 고양하여 유사시에는 즉각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한다는 태세를 정비해 나가고 있었다.

그렇스음 1943년 6월 용인 출신 김병호(김병호:일명 중민) 지사가 중경 임시정부로부터 밀파되어 남경 유학생들과 접촉하던 중 상해 일본 영사관 경찰에 의하여 체포됨으로써 송지영도 임시정부의 공작요원이라는 사실이 탄로되었다.

이로써 남경 중앙대학에 재학중이던 모든 학생들의 숙소를 수색함으로써 학생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도피하여 독립투쟁에 뛰어들게 되었다.

박철원 선생은 학우들과 한족동맹회와 한교전지공작대(韓僑戰地工作隊)를 창설하고

적극적인 항일투쟁을 해온 바, 송지영이 체포됨으로써 선생의 정체가 들어날 위험에 직면했음으로 항주(杭州)로 도피하였고 거기서 동창생인 김용(金龍)의 협조를 받아 제3전구(第三戰區)로 단독 탈출한 후, 충의구국군(忠義救國軍)에 입대하고 한국 광복군 징모삼분처(徵募三分處) 절서분실장(浙西分室長)으로, 남경과 상해지구 초모공작(招募工作)을 맡아 활약하였다.

〈참고: 독립운동사(9), 김승하, 한국독립사(하)〉, 노승식

박춘식(朴春植)

항일의병. 용인군에 거주하였다. 그는 당년 38세로 융희 1년(1907) 7월 의병장 김봉기(金奉基) 휘하에 들어가 의병 200명과 함께 광주·지평(여주) 가평, 춘천, 화천, 양구 등 경기 충북부지방과 강원도 일대를 누비면서 일본군과 교전하였으며, 의병을 모집, 가평 실운리(室雲里), 명례궁(明禮宮) 사음집등 궁가(宮家), 부호(副豪), 기타 친일(親日)적인 인사의 집을 습격하여 군량미와 의병자금을 징취하였다.

그후 광주군(廣州郡) 전지리(前枝里)의 벼슬아치 서낭청(徐郎廳)의 집에서 금전과 전곡등을 징발, 징취하다가 미리 잠복해 있던 일경에 의하여 체포된 후 내란죄로 기소되어 융희 2년(1908) 6월 17일 경기지방재판소에서 종신형을 언도받고 복역하였다.

그는 법정에서 〈의병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판사의 심리에 〈의병의 목적은 일본군과 접전하여 이기는 것이며 신체를 보존하여 머리를 깎지 않게 하는 것(단발령 거부)이며,…… 개화인을 축출하여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려는 데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참고: 독립운동자료집 별책이 재판기록〉, 이인영

박 포(朴 苞)

〈출생·유래비〉 조선 초기의 무신으로 태어난 연도는 확실치 않다.

조선 건국시 대장군으로서의 공이 있어 개국공신 2등에 책봉되고, 태조 7년인 1398년 제1차왕자의 난 평정에 공을 세워 지중추원사가 되었으나, 자기는 논공(論功)에서 2등이 되고, 이무(李茂)는 정사공신(定社功臣) 1등에 책봉될 것을 비방하였다가 도리어 죽주(竹州)에 유배되었으나 얼마후에 소환되었다.

여전히 불만이 남은 그는 다시 제2차왕자의 난에 간여하였다.

그가 회안군(懷安君) 방간(芳幹)의 집에서 장기를 두는데 마침 우박이 오며 하늘에 붉은 빛의 상서롭지 못한 기운이 나타났다.

그는 방간에게 겨울비가 오고 하늘에 묘사한 기운이 있음을 들어 근신한 것을 청하자 방간이 그 처신 방법을 물었다.

그는 방간에게 군사를 말지 말며 출입을 삼가고 의관을 정제하여 신중히 행동하기를 마치 고려조 자손인 여러 왕씨의 예와 같이 하는 것이 상책이라 일렀다.

이에 방간이 그러한 방책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차선책을 요구하자 “주(周)나라가 태왕에게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중 막내아들인 왕계(王季)에게 왕위를 전할 뜻이 있으므로, 왕계의 두 형인 태백(泰伯)과 중옹(仲雍)이 형만(荊蠻)으로 도망하던 것과 같이 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그러나 방간이 또 다른 방책을 요구하자 “정안국(靖安君)은 군사가 강하여 많은 무리가 붙어 있고, 방간의 군사는 약하며 위태함이 아침이슬과 같으므로 먼저 선수를 써서 쳐부수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

방간이 이 말을 들어 군사를 일으켰으나 이때 공신중에는 다만 박포와 장사길(張思吉)만이 따르고, 그 나머지는 모두 후일 태종(太宗)인 방원(芳遠)의 뒤를 쫓았다.

방간의 군사가 크게 패하자 방간은 토산(兎山)으로 귀양을 보내고 박포는 방간을 피어 난을 일으킨 죄목으로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것이 곧 제2차왕자의 난이다.

외사면 백암리에 그의 허묘(虛墓)가 있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박상돈

박필주(朴弼周)

(문헌) 현종(1665)~영조 24(1748). 조선 문신. 자는 상보, 호는 여호(黎湖), 본관은 반남, 절에서 스승도 없이 학문을 닦아 이름을 떨쳤다.

숙종 43년(1717) 재상 송상기(宋相琪)의 천거로 시강원자의(侍講院諮議)가 된 후 지평, 장령, 진선, 집의 등을 역임한 후 후에 이조판서, 우찬성등을 지냈다.

말년인 영조 23(1747)부터 이듬해 무진년(1748)년까지 총렬서원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참고: 한국인명대사전, 총렬서원원장록), 금병윤

박 환(朴 煥)

〈묘〉 선조 17년(1584)~현종 12(1671) 조선 문신. 자는 여술(汝述), 수우(守愚), 본관은 반남(潘南) 참봉 동민(東民)의 아들. 김장생(金長生)의 문인.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政)에 참여하여 장예원(掌隸院) 사평(司評)에 올랐다.

인조 4년(1626) 인제현감(麟蹄縣監)이 되어 이듬해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여러 고을의 군사를 모아 크게 활약한 뒤 군자감 주부, 장흥고 주부, 지평현감이 되었다. 인조 16년(1638) 왕을 호종한 공으로 금구현령(金溝縣令)이 되고 인조 23년(1645) 사삼시주부를 거쳐 양천현령(陽川縣令)에 선임되었다.

효종 원년 단천군수를 거쳐 현종 4년 당상관인 첨지중추부사에 올랐으며, 현종 9년(1668)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가는 곳마다 선정을 베풀어 백성의 칭송을 들었다. 묘는 이동면 서리에 있다.

〈참고 : 국조인물고, 한국인명대사전, 용인군지, 내고장의 일, 금병운

배석지(裵釋之)

양지현감(陽智縣監). 조선 선조 14년(1581) 1월에 도입하였다가 선조 16년(1583)년 6월에 파직되었다.

〈참고 : 시사연표, 용인군지, 박상돈

백광언(白光彦)

〈전사((戰死))〉 ? ~선조 52(1592). 조선 무관. 호는 풍암(楓岩), 본관은 해미(海美). 선조 22년 북청판관(北靑判官)을 지내고 1592년 모친상(母親喪)을 당하여 집에 있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공주에 달려가 군대를 해산하려는 이광(李洸)의 마음을 돌이켜 그와 함께 전주(全州)에 가서 군대를 재정비하고 6월 5일 용인현성의 북쪽 문소산의 적루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적군은 아군의 강성함을 보고 선불리 싸우려 들지 않고 묘시(오전 6시)부터 사시(오후 10시)까지 소극적인 방어에만 치중하면서 용원군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고 왜군은 아군의 경계가 소홀해지고 좌·우 종대의 전열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기 책문(柵門)을 열어 젖뜨리고 반격을 가하였다.

이에 놀란 선봉장 이지시와 백광언등 두 장수가 아군을 질타하면서 분투하였으나 전사하였다. 후에 병조판서에 추증되었고 충민(忠愍)이란 시호를 내렸다.

(참고: 내고장 용인, 임진왜란 편, 한국인물대백과), 노승식

살리타이

몽고 장수. 고려 고종 19년(1232) 9월, 10만의 대군을 몰아 제2차로 고려를 침공하였다.

몽골 제국의 원정군 사령관이던 살리타이는 강화로 피신한 고종의 출육을 계속 요구하면서 개경과 남경을 지나 수주에 이르렀다가 진로를 증원경(청주)으로 잡고 남하하던중 용인의 처인성에 이르렀다.

이때 일찌기 중이 되어 백현원에 있던 승장 김윤후가 승병들을 이끌고 처인성에 있다가 그가 쏜 화살에 맞아 고종 12년인 1232년 12월 16일 전사하였다.

이로써 대몽고 원정군 사령관은 일개 승장이 쏜 화살한대를 맞고 죽어 몽고 제2차 침공은 용인에서 끝장이 났다.

이에 앞서 몽고군에게 잡혀있던 고려관원 설신은 살리타이가 남하진공을 계속 하려 하자 「이국 대관으로서 남강(지금의 한강)을 건너는 자는 불길하다」고 더 이상 남공(南攻)을 하지 못하도록 말렸으나 마침내 그가 전사하자 부장 철가(태계)는 그를 매우 식견있는 사람이라 하여 석방한 후 퇴각하였다.

(참고: 고려사 동국여지승람), 금병윤

서리수(徐理修)

양지현감(陽智縣監). 정조 17년(1793) 6월, 진봉현감에서 용인현령으로 도임하여 승진되었는데 이듬해인 1794년 4월 22일 다시 포천현감으로 전출되었다.

현령이 현감으로 전보된 것은 응당 좌천인사라 하겠으나 노부모를 부양하기 위해서 고관이 하관의 직위를 맡아 임명되는 경우(行職)도 종종 있었으므로 오늘날과 같은 인사 척도에서 이해될 일은 아닐것이다.

(참고: 시사연표), 이인영

서직수(徐直秀)

양지현감(陽智縣監). 정조 7년(1783) 9월 도입하였다가 이듬해 5월 29일 용인현령으로 승진되어 부임하였고 정조 10년(1786) 2월 13일 공산판관으로 영전되어 이임하였다.

양지현감이 이웃고을인 용인현령으로 도입하여 판관으로 영전한 경우는 극히 드문이었다.

(참고: 시사연표, 선생안), 노승식

송광우(宋匡祐)

단(壇) 생물 미상. 본관은 진천(鎭川). 소(瑠)의 아들. 고려 문신의 가문에서 출생. 어려서부터 착실하고 인품이 출중하였다. 부모를 섬기되 힘을 다하고 벗과 사귀어 신의가 있었으며, 학문에 재주가 있었다.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사랑(寺郎)이 되었고 고려 충정왕 2년(1350) 봉익대부(奉翊大夫) 호조전서(戶曹典書)를 지냈다.

오랜동안 관직에 몸 담았으나 청렴결백하여 칭송을 들었다. 원삼면 맹리 수정산에 단이 있다.

(참고: 진천송씨 문헌록), 박상돈

송계후(宋啓後)

〈묘〉. 생물 미상. 본관은 진천(鎭川). 경주부윤(慶州府尹) 기(箕)의 아들. 천성이 인후(仁厚)하고 재질이 출중하였고 효성이 지극하였다. 어려서 부터 학업에 정진하더니 학행(學行)이 뛰어나 음사(陰仕)로 벼슬길에 올라 이조좌랑(吏曹佐郎) 내자시직장(內資寺直長) 소윤(少尹)을 역임하였다. 그의 묘소는 원삼면 맹리 수정산 남쪽에 있다.

(참고: 진천송씨 문헌록), 박상돈

송교원(宋敎源)

항일의병 양지군(陽智郡) 고서면(古西面: 현 고삼면) 창리 1통 6호에 거주하였다.

당시 32세의 청년으로서 의병장 정주원(鄭周源)의 휘하에 투신하여 활동하였다.

그는 경기도 중북부 지방에서 활동하다가 융희 2년(1908) 음력 4월 2일 죽산군 서삼

면 풍정리 조용군의 집에서 군자금을 징취한 것을 비롯, 같은 달 10일 밤에는 서삼면(西三面) 하가암(下加岩)마을 이건두(李建斗) 집에서 의병활동 목적의 금품을 징취하였다.

그후 체포되어 위와 같은 죄목으로 융희 3년(1909) 3월 29일 경성지방재판소 인천지부에서 강도 죄목으로 기소되어 3년형을 언도받고 복역하였다.

〈참고 : 경성공소원 형사부 재판기록〉, 이인영

송 기(宋 箕)

〈묘〉 생물 미상. 본관은 진천(鎭川). 호조전서(戶曹典書) 광(匡)의 아들. 고려 공양왕 때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의 직위에 있을 때 이성계(李成桂)의 위하도에서 회군하는 것을 보고 목은(牧隱), 야은(冶隱)등 고려 명신등과 함께 벼슬을 버리고 초야에 묻혀 살았다는 사실로 하여 호를 대은(大隱)이라 하였다.

원삼면 맹리에 묘가 있다.

〈참고 : 진천송씨 문헌록 묘감〉, 금병윤

송덕중(宋德中)

〈생거 급제〉 숙종 38년(1712~?) 자는 용경(龍卿). 본관은 여산(礪山), 식(熄)의 아들. 영조 16년(1740) 경신증광문과(庚申增光文科), 병과(丙科)에 응시하여 급제한 후 사간원(司諫院) 사예를 거쳐 승지(承旨)에 이르렀다.

〈참고 : 고사대사전, 용인군지〉, 노승식

송명연(宋明淵)

양지현감(陽智縣監). 숙종 41년(1715) 3월 도입하였으나 당시 경기관찰사(京畿觀察事) 최석항(崔錫恒)과의 상피(相避)로 사임귀향하였다. 상피란 경관직(京官職)이나 지방관직(地方官職)에서 관원과 친척 관계가 있는 자가 함께 벼슬 하는 것을 피하는 것으로 용인, 양지관아의 령·감중 상피로 사임한 사람으로서는 최초의 기록을 남겼다.

〈참고 : 용인군 시사연표, 경국대전〉, 박상돈

송명천(宋命天)

〈출생〉 ~ ? 효자. 효성이 지극하여 향당의 칭송 이 자자하였으므로 경기 순상에 게 품신하여 조세와 부역을 면제받았다. 아들에게도 그와 같은 혜택이 이어져 세인의 귀감이 되게 하였다.

〈참고: 읍지〉, 이응준

송 선(宋 宣)

〈묘〉 생몰 미상. 본관은 진천(鎭川). 이조좌랑(吏曹佐郎) 계후(啓後)의 아들. 어려서부터 글 공부를 잘 하였고 효로서 아버지를 섬겼으며 형제와 우애가 돈독하였다. 통훈대부(通訓大夫)의 관위(官位)에 올랐으며 송화현감(松禾縣監)을 지냈다.

묘는 용인군 원삼면 맹리에 있다.

〈참고: 진천송씨 문헌록〉, 노승식

송시열(宋時烈)

〈필적, 문헌〉 선조 40(1607)~숙종 15(1689). 조선 문신, 학자, 노론의 영수(領袖). 자는 영보(英步), 호는 우암(尤庵). 김장생, 김집 부자의 문인. 봉림대군(孝宗)의 사부가 되고 병자호란에 왕을 남한산성에 호종하였다.

일생을 주자학 연구에 몰두한 거유(巨儒)로 이이의 학통을 계승 기호학파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예론에 밝았다.

성격이 과격하여 많은 정적을 가졌으나 뛰어난 학식으로 많은 학자를 길렀다. 글씨는 대자(大字)를 잘 썼는데 용인에는 〈포은선생영당〉과 〈영모제〉라 쓴 선생의 육필 현판 2점이 포은 종가에 전한다.

충렬서원 선생안에 경신년(1680)부터 기사년(1689)까지 원장으로 재직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참고: 충렬서원 선생안〉, 금병윤

송 입(宋 兪)

〈묘〉 선조 15년(1582)~현종 8(1667). 조선 무신. 자는 입지(立之), 본관은 진천(鎭川), 백순(伯純)의 아들. 광해군 8년 무과에 급제하였고 선전관(宣傳官)이 되었다.

그가 11세 되던해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그의 부친 백순이 의병을 모집하여 적을 치다가 순절하였다. 부친의 시신을 찾아나선 그는 그의 형과 함께 적에게 잡혀 광에 감금되었으나 밤새 송곳으로 벽을 뚫고 탈출한 후 마침내 부친의 시신을 찾아 업하고 예로서 장자를 치루었다. 광해조에서 무과에 급제. 선전관에 제수되었는데 새로 임명되는 관원에 대한 면신례(신고식)가 있어서 신참 관원을 때리고 곤욕을 주었는데, 그는 이것을 수치로 여겨 벼슬길에 나자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해 재차 선전관에 임명되었음에도 불응하자 동료들이 그를 굽히게 할 수 없음을 알고 면신례를 면제하여 주었다.

광해군 10년(1618), 명나라 사신을 수행하여 무사히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그 공로로 절충장군에 올라 오위장(吳衛將)이 되었고 고령첨사에 이어 덕원부사가 되었다. 인조원년(1623), 이괄(李适)이 평안병사(平安兵使)가 되었을 때에 조정에 계(啓)를 올려 자기의 보좌가 되게 해줄것을 청하자 그는 병을 청탁하며 그의 수하로 들어 가는것을 꺼렸다. 그러자 이괄은 크게 노하여 군율로 다스리겠다고 억압하자 하는 수 없이 그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괄은 마음속으로 항상 그를 꺼리다가 자산 땅으로 근무지를 지정하여 주면서 그곳에서 군대의 양식을 조달케 하였는데 마침내 이괄이 난을 일으키자 자산군수는 송입을 의심하고 그를 죽이려 하매 그는 하는 수 없이 밤에 말을 타고 성을 빠져 나왔다. 그러나 이미 그는 이괄수하의 막장이었으므로 조정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스스로 결백함을 입증할 방법이 없게 되자 차라리 이괄에게 돌아가 마땅한 방법을 택하여 나라에 보답함만 같지 못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마침내 이괄의 장종을 찾아 갔다. 그를 보자 괘은 크게 기뻐하면서 “나의 일이 성공하는구나”라고 하였다. 그는 항상 칼을 차고 다니면서 괘을 배어버리려 하였으나 그 좌우에는 항상 장수가 많아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괘을 피어서 선봉이 되기를 청하고 삼천의 병마를 이끌고 이른 아침 토산에 이르러 장만(張晩)의 관군 진영에 투항하였으나 장만은 그를 의심하고 맞아 들이려 하지 않자 갑옷을 벗고 군영밖에서 통곡을 하자 그제서야 그를 맞아

주었다. 그런다음 송입은 누차 장만에게 역적들이 침경(侵京)치 못하게 하고자 역적을 치자고 현책하였으나 장만은 이를 번번히 묵살하며 송입은 그를 힐책하기를 “원수께선 역적이 임금께 누를 끼치게 하기를 바라는가”라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는 장만의 비월 크게 거스르는 바가 되었고 이괄의 난이 평정된 뒤 책분할 때에 원종공신(등의공신)에 그쳤다.

광해군 때에 광해군이 총애하는 김씨의 여동생이 첩실로 있었는데 김씨는 언니의 후광으로 송입을 출세시키려 하였으나 그는 강력히 사양하였던 관계로 광해군 말까지 현달하지 못하였다.

광해군이 폐위되고 귀양을 가게 되었을 때 조정에서는 송입을 감리장(監籬將)을 삼으려 하매 그는 상소를 올려 광해와는 동서간의 혐의가 있다고 사양하였다. 이에 인조는 전지를 내려 『공은 충의의 선비이니 내 어찌 의심할 바가 있으리요. 속히 임지에 가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는 임지에 이르러 광해군을 너그럽게 보살피며 예절로 대하니 사대부들의 칭송이 그치지 않았다. 병자호란 때에는 죽산부사로서 임금을 호종하였고 남한산성을 굳게 방비하였다. 그 공으로 난이 평정된 후에는 재령군수(載寧郡守)가 되었으며 이때 승려를 동원하여 장수산성(長壽山城)을 구축하였고 한성부 우윤,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지냈다. 임금께서 춘당대에서 군대를 사열할 때 그는 81세의 나이로 말 타고 활쏘기를 청한 후 다섯발을 쏘아 모두 맞추니 임금께서 하교하기를 <송립은 근력이 대단하여 마원(馬援)에 비하여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의 묘소는 원삼면 맹리에 있다.

<참고 : 한국인명대사전, 전천송씨 문헌집, 이인영>

송재삼(宋在三)

<생거, 급제> 생몰 미상. 본관은 진천(鎭川). 문길(文吉)의 아들로 양지현(陽智縣)에서 출생. 고종 25년 무자식년문과(戊子式年文科)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참고 : 한국고사대전, 용인군지, 박상돈>

송지겸(宋之謙)

〈효자정문〉 본관은 야성(冶城), 자는 희주(希周). 영조 45년 기축(1769) 11월 27일 송표(宋杓)의 아들이며 9대독자로 용인에서 출생.

부친으로 부터 전수받은 의술로 명의라는 이름을 남겼는데 언젠가는 궁중에 초치되어 왕의 진맥을 보았다. 그리고 곧 퇴궐하여 급히 당제를 마련, 입궐하였더니 임금께서는 이미 붕어하셨기로 왕의 환우를 치유치 못했다는 불충죄를 면할 수 있었다는 일화도 있다.

부친의 생존시에는 조석으로 문안하고 겨울에는 행여 방이 찰세라 군불을 지펴 따뜻하게 하였으며 하인을 시키지 않고 반드시 손수하였다. 또 부친의 환우중에는 험한 고개를 넘어 20여리나 되는 타동에 피접처를 정한 후 시탕 간병하였는데 늦은 밤에는 범이 나타나서 길을 밝혀주었다.

친상을 당했을 때에는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였으며 거상중에는 소식을 하고 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의 효행은 부친의 생존시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으므로 사림과 향당이 모두 흠경하여 조정에 상소하였으므로 정조 즉위 15년(1791)에 효자로 표정(表旌)되었다. 순조 을유년(1825)에 세상을 마치니 수 53세였다.

〈참고: 야성송씨 족보, 삼강행실록, 내고장의 일〉, 이용준

신길원(申吉元)

〈출생〉 ~ ? 충신으로 벼슬은 승지(承旨)에 이르렀다. 임진왜란 때 순절(殉節)하였다. 이 일이 임금에게 알려져 충신으로 명정되었다.

〈참고: 읍지〉, 박상돈

신석구(申錫壽)

양지현감(陽智縣監), 순조 5년(1805) 11월 도임하였다가 순조 10년(1810) 6월까지 5년여간 재직하였으나 조정에서 송환하여 파직하였다.

역대 현감중 조정에 송환되어 파직된 예로는 그가 처음의 인물이 되었다.

〈참고: 용인군 시사연표〉, 박상돈

신순용(申順用)

항일의병. 용인군 모현면 하밀동에서 출생. 농업에 종사하던 농민이었다.

당년 31세로써 정기인, 정원경등과 함께 의병장 이익삼의 휘하에 가담.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융희 2년(1908) 1월 2일 의병장 이익삼(李益三)의 휘하에 가담하여 의병활동에 전력하였다.

융희 2년(1908) 1월 2일 의병장 이익삼과 함께 총기를 휴대하고 용인군 모현면 능동 원촌에 잠입하여 구장 이병기(李秉基)로부터 광복 2필을 공여받은 바 있다.

그후 체포되어 강도죄목으로 2년형을 언도받고 복역하였다.

〈참고 : 경성지방재판소 재판기록〉, 이인영

신태정(申泰貞)

구휼비(救恤碑). 남사면 봉명리 수세마을에 살았다. 춘궁기 질량농가에 굶주리는 이웃을 구제하여 마을사람들이 이를 칭송하는 비를 세웠다.

비양(碑陽)에 신공 태정 출의 구휼비(申公泰貞出義 救恤碑)라 쓰고 『정신년 봄 춘궁기에/의를내어 가련함을 구제하니/공의 자애로운 은혜에 힘입어/한 마을이 편안하였네(庚申春躬 出義救恤 賴公慈惠 一里安堵)』라 적었다.

〈참고 : 비명〉, 이용준

신현구(申鉉九)

항일의병. 죽산군 원삼면 분촌(현 용인군 원삼면)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다.

당시 나이 24세의 청년으로서 융희 8년(1908) 1월, 원삼면 하사 마을에서 봉기한 정주원(鄭周源)의 휘하에서 활약하였다.

같은 해 3월, 정주원의 지휘하에서 동지 수십명과 함께 죽산군 근삼면 백암리(현 외사면)에 잠입하여 이 마을 거주 백윤삼(白允三)의 집에 들어가 군수물자와 군자금(軍資金)을 조달하였다.

그러던 중 1908년 4월 16일 오전 2시경, 죽산군 서삼면 시암리(是峇里) 지내 김운선

(金雲先)이 경영하는 여인숙에 들어가 그곳에 숙박중이던 일본이 중원방길(中源房吉)과 미기의시(尾寄義市)등 3명을 총대와 곤봉으로 구타 처단하였다.

그후 체포되어 융희 3년(1909) 8월 17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교수형을 언도받고 항소하였으나 1909년 9월 13일 교수형을 받았다.

〈참고: 경성공소원 형사부 재판기록〉, 노승식

신현정(申鉉鼎)

〈출생, 묘〉 고종 19년(1882), 이동면 천리에서 출생. 호는 심죽(心竹), 본관은 평산(平山), 5세때 부터 한학을 수업하다가 광무 7년(1903) 관립사범학교(官立師範學校)를 졸업하였다. 융희 원년(1907) 학부편수관(學部編修官), 1910년 경성교육연구회장을 겸임하면서 학사운영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후 일본의 농촌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농촌의 후진성을 개탄한 나머지 고향으로 낙향하여 천리(泉里)에 적동(笛洞)학원(지금의 용천국민학교)을 설립하는 한편 농촌 계몽운동에 앞장섰다. 그러다가 1938년 이동면장(二東面長)에 이어 용인면장(龍仁面長)에 추대되어 일제 식민통치 아래에서도 민족주의 정신을 발양, 수탈을 억제하고 굶주리는 주민들의 구난(救難)과 구휼(救恤)에 힘써 면민들이 덕을 칭송하여 비를 세웠다. 광복후에는 지역사회의 교육기반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 교육자의 위치로 물러나 태성학원(泰成學園)을 맡아 초대 교장을 역임하였다. 본래 명문세가(名門世家)의 선비로서 곧고 바른 성품을 타고 났으며 세간의 명리(名利)를 초탈(超脫)하고 오직 향리동민을 위해 스스로 밑거름이 된 향토의 인물이다.

〈참고: 심죽선생 송덕비〉, 이인영

심관섭(沈寬燮)

독립지사. 1888년 6월 26일 용인군 이동면 화산리 373번지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민족주의자(民族主義者)로써 1917년 중국으로 망명하여 만주 길림성(吉林省) 휘춘현(揮春縣) 동문내(東門內) 천합교회(天合高會)로 건너가 길림주민회(吉林住民會) 주선으로 정착. 이에 속하여 독립활동을 하다가 1925년 1월 통의부(統義府) 길림주민회(吉林住民會) 광정단(匡正團)등을 통합, 정의부(正義府)를 조직하였을 때, 정의부 일원으로 적극 가담, 활약하였으며 이 단체는 황무지를 개척하여 독립운동 가족들을 안주케

하는 한편, 압록강을 건너 평안북도 각지의 일경(日警) 주재소를 습격하여 위세를 떨치기도 하였다.

그가 만주에서 활동했을 때에는 연갑(琀甲)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1940년 11월 2일 별세하였다. 유족으로는 재승(載昇), 재만(載晩), 재숙(載淑)이었으나 모두 용인을 떠나 서울 등지에 살고 있다고 하나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참고: 용구문화, 용인문화원〉, 금병윤

심규로(沈奎魯)

〈생거급제〉 영조 37년(1761~?) 자는 화오(華五), 본관은 청송(靑松)의 이(楫)의 아들. 정조 6년(1782) 21세때 임인정시문과(壬寅庭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으나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참고: 고사대전, 용인군지〉, 박상돈

심 대(沈 垚)

〈묘, 사당〉 심대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송(靑松)이고 자는 공망(公望)이며 호는 서둔(西墩)이다. 세종대왕의 장인인 안효공(安孝公), 심온(沈溫)의 5대손으로 1546년(명종 1년) 의겸(義儉)의 아들로 태어났다.

1572년(선조 5년) 친시문과(親試文科) 을과(乙科)에 급제하여 사인(金人) 검상(檢詳)을 역임하고 정자·박사·수찬을 지낸후 1584년 지평에 이르렀다. 이때 동서의 봉당이 생기려 하자 언관으로서 봉당의 폐단을 논하였으며, 이어서 사인·사간등을 역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오세자궁(五世子宮) 보덕(輔德)으로 재임하면서 근왕병 모집에 힘썼다.

1592년 4월 27일 왜적이 도성에 까지 육박하자 선조는 성도(松都)로 옮기게 되어 심대는 선조를 송도까지 호종(扈從)하게 되었다. 이때 벽제(碧蹄)에 이르러 뒤를 따르던 신하 수명이 도망하여 자신의 목숨만을 구하려 하자 이들을 꾸짖어 깨우친 다음 다시 봉행(奉行)케 하였다. 송도에 이르러서는 임금에게 계(啓)를 올려 아뢰기를 “적의 세력을 보건대, 질풍과 같이 영남을 거쳐 왕도를 침범한듯 하므로 호남·호서에는 적의 세력이 미치지 못할 것이며, 두 지방에서 근왕(勤王)의 군사가 흥기하였다 할지라도 적이

원로(援路)를 차단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임금이 가시는 바를 듣지 못하면 근왕의 군사가 해산하게 되어 수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급히 사신을 파견하여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병사들을 모아 돌아와서 호위하게 하여 훗날 다시 회복되기를 도모하여야 될 것이며, 원병이 후방에서 진을 치고 있음을 적이 알면 감히 북상(北上)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호남·호서지방에 파견되기를 자청하여 윤허를 받은 다음 두 지방에 이르러 방백(方伯)과 수령에게 교지를 전달하고 나서 직접 병사들에게 호소하여 수만의 병사들을 그의 휘하에 따르게 하였다. 이후 심대가 평양에 도착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복명하자 선조는 그의 처사를 칭찬하며 승지 겸 오위장첨지 판결사(承旨兼五衛將僉知判決事)를 제수하였다.

왜군의 기세가 심해지면서 선조를 호종하여 평양에서 다시 의주로 수행하였다. 같은 해 9월 선조가 용만(龍灣)에 이르렀을 때 도성이 함락되고 왜적이 점거하게 되자 경기감사 권징(權徵)이 도망하였다. 권징의 후임으로 심대가 가선대부 경기감사(嘉善大夫京畿監司)로 제수되었으며, 부임도중 안주(安州)에서 유성룡을 만나 그의 장수 2명을 지원받았다. 또 의병 수천명을 규합하면서 남행하던중 연천(漣川)의 증파진(證波津)에서 왜적을 만나 격전끝에 이들을 크게 무찔렀다. 그러나 철원 방면의 왜적들이 몰래 강물을 건너 기습하여 오편로 삭령(削寧)으로 진을 옮긴 후 병사를 모집하여 증강시키고, 윤경원(尹敬元), 강수남(姜壽男), 양지(梁誌) 등 세 사람을 종사관으로 삼았다. 이때 의병장 우성전(禹性傳)이 강화에 주둔하면서 수차 함께 방어하기를 요청하여 왔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전략상 삭령을 고수하면서 강화의 군사들과 손잡고 도성을 수복하고자 고을을 순회하며 충의(忠義)를 역설하고 근왕의 병사가 되어줄 것을 간청하였다. 그의 뜻을 따르는 자가 속출하여 군사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되었다. 심대는 장차 날짜를 정하여 협공할 것을 계획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하고 있던중 그의 진영(陣營)에서 고생하며 피로를 겪은 병사 성여해(成汝諧)가 견디지 못하고 왜적과 내통하게 되었다. 적의 첩자가 된 성여해는 척후병을 살해하고 왜적으로 하여금 야간을 틈타 기습해 오도록 하였다. 적의 기습으로 심대의 진영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대패하게 되었다. 얼마되지 않는 병사와 함께 분전하던 심대는 이 전투에서 장렬하게 죽고 말았다. 이때가 1592년 10월 18일로 그의 나이 47세였다.

그가 전사하자 심대의 조카인 심대관(沈大觀)이 그의 시신을 삭령군 뒷산에 평장(平

葬)하여 왜적의 도굴을 막으려 하였으나 발각되어 왜적들은 백성들을 위협하고자 심대의 목을 잘라 종루(鐘樓)거리에 60일간이나 매달았으나 심대의 노한 눈동자나 얼굴은 살아있는 사람과 같았으므로 백성들은 오히려 그를 두려워하기는 커녕 그의 충절을 애도하며 뒤를 따르고자 하였다. 심대의 목은 양주목사(楊州牧使) 고언백(高彦伯)의 비상 수단으로 함에 넣어져 강화로 보내졌다가 왜란이 평정된 후 그의 시신과 함께 남양으로 옮겨져서 안장되었다. 선조대왕은 심대를 이조판서로 추증하고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도록 명하였다.

1604년 호성공신(扈聖功臣) 1등으로 좌찬성(左贊成)을 추증하고 청원군(靑原君)으로 봉하였다. 그 후 1610년에는 선무원종(宣武原從) 1등공신으로 영의정을 추증, 청원부원군(靑原府院君)의 작호와 ‘국난을 당하여 나라를 잊지 않고 전쟁터에서 싸우다 장렬히 죽었다(臨患不忘國 死于原野)’라는 뜻에서 충장공(忠壯公)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그의 묘소는 지방기념물 제3호로 용인군 남사면 완장리에 위치해 있으며 정려를 내려 후손들은 사당을 짓고 제사를 봉하고 있다.

〈참고문헌: 宣祖實錄, 國朝人物志, 韓國系統譜, 國朝榜目〉, 최희면

심사명(沈泗溟)

용인현령(龍仁懸令). 인조 원년(1523) 11월 도입하였으나 신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사임하였다. 이로서 용인, 양지 두 현에서 신병으로 사임한 최초의 현령으로 기록을 남겼다.

〈참고: 용인군 시사연표〉, 박상돈

심사정(沈師正)

〈묘〉 이동면 서리 상덕. 본관은 청송, 자는 사숙(師叔)·이숙(頤叔), 호는 현재(玄齋), 묵선(墨禪).

1707년(숙종 33) 정해 7월 25일, 포도를 잘 그렸던 정주(廷胄)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고 1769년(영조 45), 기축 5월 15일 타계 향년 63세의 수를 누렸다.

그는 명망있는 선비 화가였던 부친의 영향을 받았음은 물론이려니와 또한 포도와 인

물을 잘 그렸던 정유승(鄭維升)의 외손자로서 친가와 외가 모두가 서화를 잘 했으므로 그가 처한 환경과 타고난 소질이 그를 있게 하였다고 여겨진다.

심익운(沈翼雲)이 찬(撰)한 묘지에 「현재거사는 청송심씨이다. 세세훈덕이 높았고 우리 만사부군(晩沙府君: 심지원)에 이르러 크게 창현(昌顯)되었는데 거사(居士)는 그의 증손이다. 거사는 생후 수 세에 스스로 물의 형상을 알고 모나고 둥근 상(狀)을 작하였다. 소시에 정원백(鄭元伯: 겸재 정선)에게 사사(師事)하여 수묵산수를 그렸다고 한 기록을 보면 현재는 영의정을 지낸 익창의 증손으로써 명망있는 사대부 가문에서 출생하였고 조선조 유명화사의 한 사람인 겸재 정선에게서 화법을 익힌 화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는 이렇듯 명문의 사대부 출신이면서도 오직 그림 그리는데만 전심하여 벼슬에는 뜻을 두지 않았는데 〈서화징〉에 의하면 “현재 거사는 어릴 때로부터 늙을때까지 50여 년간 비록 우환실락(憂患佚樂)일 지라도 필을 들지 않은 날이 없었고 춥고 굶주리며 궁천한 고(苦)를 알지 못함이 이와 같았다”라 하였으니 오직 그림에만 몰입하여 일생을 바친 인물이었음을 말해 줌으로써 오늘날까지 그의 작품은 많은 양이 전해진다고 여겨진다.

또 현재화첩에 의하면 “현재는 그림에 있어서 무소불능이었으며 화훼초충(花卉草虫)을 가장 잘 하였고 그 다음은 영모(翎毛)이며 그 다음이 산수라고 하였으나 산수화에 더욱 용공(用工)하였던 것으로 보아 산수화 작품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를 평가할 때는 산수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는 18세기 화단에서 유행하던 진경산수(眞景山水)보단 중국화풍에 심취하여 남종화풍을 수용하였고 당대 화단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다.

그의 작품은 중국에도 널리 알려져 연경(북경) 사신으로 갔다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연경에서도 현재 거사의 그림값이 매우 높았다고 하였다.

그의 화풍은 최북, 이방운, 이인문 등에게 영향을 끼쳤고, 중년에 이르러서는 전형적인 북종화법(北宗畫法)도 즐겨 사용하였다. 그의 아호를 현재(玄齋)라 한 것은 명나라 말기의 남종화가(南宗畫家)인 동기창(董其昌)의 아호인 현재(玄宰)를 따른 것이다.

그가 남긴 그림들은 대담활달한 담묵과 농묵(濃墨)에서 정교한 세필에 이르기까지

수묵(水墨)과 담채(淡彩)를 다양하게 구사하였다. 그가 겸재 정선으로부터 화법을 사사하였다고는 하나 40대 이후의 작품들은 정선의 화풍과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가 만 40세때인 정묘년(1747)에 그린 강산야박도(江山夜泊圖)는 구도나 필묵법 수법(樹法)등이 중국 남종화풍을 바탕으로 이미 뚜렷이 개성화되어 있다.

이점은 조선 후기의 작품들에서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전통적인 것이다.

근경의 낮은 언덕에 몇 그루의 나무들이 서있는 모습은 원말(元末) 4대가(四大家)의 한 사람인 예찬(倪瓚)과 명대(明代) 오파(五派)의 화가들이 애용하였던 화풍으로 남종 화풍의 농도질은 수용을 보여 줌으로써 정선의 진경산수와 큰 차이를 나타낸다.

영조 화원의 감독관 격인 감동(監董)의 벼슬을 지냈다.

그의 묘는 본래 파주에 있었으나 1918년 이곳으로 천묘하였다. 묘 배위는 배천(白川)의 조씨이며 옥진(郁鎭)을 양자로 하였다. 분묘우측에 묘비가 있고 묘에는 망주석과 상석등의 석조들이 있으며 묘 우측에 부친인 정주(廷胄)의 묘가 있다.

〈참고문헌: 신구문화사, 한국인명대사전, 안휘준·한국회화사, 김영윤·서화인명사서,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현재 묘비비문〉, 이인영

심운탁(沈雲倬)

불망비(不忘碑), 이동면 시미리 마을앞에 있다. 일제 강점기간중 베풀기를 즐겨하여 어려운 이웃을 많이 구하였으므로 동민들이 이를 칭송하여 불망비를 세웠다.

비양(碑陽)에 전 참봉 심공 운탁 영세불망비(前 參奉沈公雲倬永世 不忘碑)라 쓰고 그의 이름자를 운으로 하여 「저 크신 심공/선을 좋아하고 베풀기를 즐겨하니/그 소리 운한에 달하며/못 물 흐르기를 만년이라(倬彼沈公 好善樂施 聲達雲漢 澤流萬年)」적었다.

비는 1928년에 세웠다.

〈참고: 비명〉, 이웅준

* 안휘군(한국회화), p263.

심정주(沈廷胄)

〈묘〉 용인군 이동면 서리, 상덕, 본관은 청송. 조선 18세기의 선비화가. 자는 명중(明仲), 호는 죽창(竹窓) 또는 청부(靑鳧), 영의정을 지낸 지원(之源)의 손자이고 성천도호부사(成川都護府事)를 지낸 익창(益昌)의 아들이며 화사(華師) 사정의 아버지이다.

1678년(숙종 4) 무오년에 출생했으며 1750년(영조 26)까지 73세의 수를 누렸다.

그는 사간을 지낸 선비 화가 취은(醉隱) 정유점(鄭維漸)의 사위이기도 한데, 부친이 과거 부정사건과 역모에 가담한 죄로 처형되었기 때문에 벼슬이 막혀 출사하지 못했다.

그는 대개 포도 그림을 많이 남겼는데 조선 중기 이 분야에 대가였던 황집중(黃執中), 이제호(李繼祐)의 화풍을 계승하면서 농염법을 구사하여 짜임새있는 구도로 목포도를 그렸다.

포도 그림은 대개 다산과 풍요, 다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송천필담(宋泉筆談)에 〈당시 유덕장(柳德章)의 목죽과 더불어 그의 목포도가 세상을 휩쓸었다〉고 하였듯이 조선 후기 포도화의 대표적 화가로 평가된다.

그의 묘는 아들 사정 묘 우측에 자리잡고 있으며, 묘표와 상석등의 석물이 있다.

상석 앞면에 (正五品 通德郎 靑松沈公廷胄之墓, 配 恭仁 河東鄭氏 附左)라 새긴 명문이 있다.

벼슬을 한 일이 없으므로 후에 증직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영윤, 서화인명사전, 노승식

심주택(沈周澤)

〈생거·급제〉 고종 4년(1867~?) 본관은 청송(靑松), 의윤(宜允)의 아들. 고종 28년 신묘정시문과(辛卯庭試文科)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참고: 고사대전, 용인군지〉, 박상돈

심지원(沈之源)

〈문헌〉 조선 선조~효종때의 문신. 본관은 청송, 1620년(광해군 12) 정시문과에 급제. 이이첨의 심복(心腹)이었으나 대북정책에 가담하지 않고 낙향 은거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 때 강화도를 수비하다가 성이 함락되자 남한산성에서 왕을 호종하였고, 조익, 윤계 등과 함께 의병을 모집하였으나 청나라와 화의가 성립되자 이를 해산하였다.

1657년 동지점 청나라 사은사로 다녀왔고 이듬해 영의정에 올랐다.

글씨에도 능했던 인물로서 말년에 김육에 이어 제6대 총렬서원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참고 : 총렬서원 선생안, 금병윤

심환지(沈煥之)

〈문헌〉 영조 6(1730)~순조 2(1802) 조선 문신. 벽파의 영수 자는 휘언(輝元), 호는 만포(晩圃), 본관은 청송. 진(鎭)의 아들. 1771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교리, 호서 암행어사, 대사간, 대사성을 역임. 1792년 형조참판으로 김희채(金熙采)의 탄핵을 받아 한 때 금감도에 위리안치 되었다가 복직, 이조판서 등을 거쳐 1795년 우의정, 이듬해에 좌의정, 이어 우참찬 등을 역임하였다.

1800년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으로 벽파가 득세하자 영의정에 올라 이듬해의 신유박해(辛酉迫害)때 시파(時派)의 천주교인에게 무자비한 박해와 살육을 감행하였다.

영조말에 영조 비 정순왕후의 오빠인 김귀주와 같은 벽파로 홍국영에 대한 공격에 선봉으로 활약한 인물로 기미(1799)년부터 신유(1801)년까지 제36대 총렬서원 원장으로 직함을 남겼다.

〈참고 : 총렬서원 선생안, 한국인명대사전, 박상돈

안기명(安基命)

〈효자·정려문〉 본관은 순흥, 현종원년(1835) 을미, 함안군수 안익(安翼)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천성이 지효(至孝)하여 지성으로 부모를 부양하였다. 유년에는 과천에 기거하였는데 부친이 득병 와석(臥席)하자 궁집시탕으로 간병하기에 온 정성을 다 하였다. 쇠월(12월) 엄동지절에 부친의 보신을 위해 한강까지 매일 나가서 얼음을 깨고 잉어를 낚아올려 봉양하였고 한밤중에 목욕제계 산천에 기도할제 호랑이가 그를 보호하였으니 지극한 효성에 감응한 때문이라 하였다. 부친 3년 거상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묘곡배하니 세인의 귀감이 되었다.

이러한 효행은 만인이 우러러 보고 마침내는 사람이 숭앙하여 조정에 상소하였기로 고종 경오(1870)에 정려의 은전이 내려졌다. 원삼면 맹리 행군마을에 정려각이 있다.

〈참고: 삼강행실록, 내고장의 일〉, 이응준

안덕경(安德敬)

항일의병. 용인사람이다. 의병에 투신한 후 용인 양지, 안성 등지에서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참고: 독립운동사(1)〉, 이인영

안 막

〈출생〉 최승희의 남편. 1910년 4월 18일생으로 원삼면 문촌리 417번지에 본적을 두고 있다. 본명은 안필승(安弼承)이며 기선(琦善)의 2남으로 1931년 7월 15일 창선(昌善)의 사후에 양자하여 양모 오옥경(吳玉卿)에게 입적(入籍)하였다. 1931년 6월 3일, 일제 때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쳤던 무용가 최승희(崔承喜)와 결혼, 1932년 8월 24일 원삼면 문촌리에서 장녀 승자(勝子)를 낳았다.

최승희는 당시 경성부 서대문정 일정목 22번지에서 최준현(崔濬鉉)의 둘째 딸로 태어났으며 1926년 일본으로 건너가 당시 일본 최고의 무용가 〈이시이바구〉의 문하생으로 무용을 배우고 아시아는 물론, 미국, 유럽, 중남미까지 명성을 떨쳤다. 3백50여종의 춤을 개발한 최승희의 춤을 본 사람이면 결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라는 표현이 그의 경지를 말해준다. 해방 후 안막이 월북했을 때 자신의 사상과는 관계 없이 남편을 따라 갔다가 안막이 숙청당한 후 1967년 딸과 사위와 함께 중국으로 도망하던 중 체포되어 역시 숙청당한 것으로 전해지며, 아직 생사는 밝혀지지 않는다.

안막의 경력에 대하여 밝혀진 자료가 없으나 당시에 문화예술계에 몸 담았던 사람으로 보인다.

〈참고: 제적원부, 1905년 5월 15일자 문화일보〉, 노승식

안병춘(安炳春)

독립지사. 1910년 6월 10일 용인군 내사면 식금리 108번지에서 안성식(安性植)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만주로 망명하였을 때 독립운동에 관계하던 중 공작위원회(工作委員會)에 가담 활동하였다.

일제때 국내로 귀국하여 향리에 살다가 광복을 맞이하였고 6·25동란 중인 1951년 12월 10일에 별세하였다.

(참고: 홍구문화, 용인문화원), 이인영

안 씨(安 氏)

〈효열부·정려문〉 순흥 안씨는 조선 순조 갑오(1834)년에 안정록(安筵祿)의 딸로 출생하였고 안동권씨 문중의 석기(錫器)에게 출가하여 시할머니 한분을 비롯한 시부모의 공경에 몸이 부서지는 것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지성을 다하였다.

그러나 워낙 가세가 빈하하여 샷바늘질과 길쌈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극진 성실하게도 봉양지도(奉養之道)를 다하였다.

안씨가 21세 되던 해에 상부하여 청상이 되었는데 무위무탁한 시부모와 강보에 쌓인 어린 자식들 때문에 남편을 따라 죽을 독심을 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삼종지도란 여자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를 따르고 자라서 남편을 따르며 나중에 자식을 따름이나 지아비를 잃었음에 이를 따라 죽으려는 마음은 도리에 합당한지라도 반드시 그럴수 만은 없는 처지였다.

안씨는 마음을 세워 근검절약, 치산하고 시할머니를 받들고 시부모를 공경하여 어린 자식들을 엄히 성장시켜 권씨 가문을 창성케 하고 그 성세를 백세나 튼튼하게 하니 향당이 찬양하여 칭송이 드높았다.

나라에서 이를 알고 효열부의 정려문을 내리니 임신(1872)년 3월 3일이었으며 남산동에 정려문을 세우니 지금의 남사면 아곡리 마을 입구에 전한다.

(참고: 삼강행실록, 내고장의 열), 이용준

안정배(安正培)

항일의병. 양지군 박곡면(현 외사면 박곡리) 청계리에 거주하였다.

농업에 종사하던중 의병활동에 가담하였다가 용희 2년(1908) 3월 백암 분건소에 귀순하였다.

〈참고: 용희 2년 3월 3일 경관발(京觀發) 제277호 경기관찰사 이규항(李圭恒)보고〉, 이인영

안종각(安鍾珪)

항일만세주동자. 생몰 1888. 9. 25~1919. 3. 30, 용인군 수지면 사람이다. 1919년 수지면 고기리 이장 이덕균(李德均)과 독립만세 시위를 계획하였다. 이튿날인 3월 29일 마을사람 1백여명을 규합하여 독립만세 시위 진행중 인근 동천리 마을 주민 1백여명과 합세한 후 계속하여 독립만세 시위를 선도하였다.

오후 2시경에는 수지면 사무소 광장에서 면민 6백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였다. 그런뒤에 기흥읍 소재 일본인 마을을 습격코자 행진하던 중 구성면 근처 물레방앗간 부근에서 왜병의 무차별한 총격을 받고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86년에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3·1운동실록, 3·1운동비사,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독립운동자료집(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금병윤

안홍국(安弘國)

〈출생. 묘〉 안홍국 그는 왜적과 싸우다가 앓은 채 산화했다. 대의를 위해 소아(小我)를 버리고 일신을 던져 국난을 막는 방패가 되었던 것이다.

열화같은 구국의 집념으로, 임진왜란 중 충무공 이순신의 휘하에서 전함을 휘몰아 제해권을 장악함으로써 국난의 위기를 역전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다.

그는 용인에서 조선 명종 10년(1555) 호조참판으로 증직된 언필(彦弼)의 둘째 아들로 출생했으며 자는 진경(盡卿), 시호는 충현(忠顯), 선조 16년(1583), 24세때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다.

그가 33세 되던 해인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전관이 되어 의주로 임금을 호

종(扈從)하던 중 영흥지방에 머물러 있던 임해군에게 임금의 명을 전하고 행재소(行在所)에 돌아와서 호종 1등공신에 책록되었다.

때마침 삼남지방이 고립되어 조정과의 연락이 단절됨으로서 그간의 전황과 백성들의 안위를 알 수 없게 되자 안홍국은 갖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을 돌파하여 삼남지방의 수령과 방백등을 찾아 다니며 임금의 밀지를 전하고 근왕병을 격려하는 일방 지방의 정세와 사정등을 파악 임금께 낱낱이 보고하였다.

그런 다음 보성군수를 제수받아 보성을 방어하다가 전라좌수사 이순신의 휘하에 들어가 군기에 임하고, 군사의 조련과 대적에 치밀하여 군계 신임을 받음으로써 이순신 장군의 직무를 대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봉이 되어 공을 세우기도 하면서 이순신의 참모 역할을 충실하게 하였다.

이때 전란초에 경상우수사 원균(元均)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휘하 군졸 만여명을 해산시킨 다음 육지로 상륙하여 피난하려고 했을 때 영등포 만호 유치적이 만류하면서 호남수군의 지원을 요청받아 양호(兩湖)를 지키자고 하였다.

때마침 이순신은 관할 구역내의 함장들을 여수 앞바다에 집결시키고 임전태세를 갖추면서 왜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원균이 보낸 급사 이 영남으로 부터 원군 지원을 요청받자 막료들의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이순신 장군은 원균의 요청에 응하여 전격을 결행하자 이때 안홍국은 이순신 장군의 휘하에 들어가 함께 싸웠다.

5월 7일에는 목포 앞바다의 해전에서 왜적 30여척을 발견하고 이를 모조리 격파하는 전과가 있었던 바, 이는 개전 후 일본과의 전쟁에서의 첫번째 승리였다.

또 6월 1일에는 남포에 이르러 왜선단과 맞닥뜨려 닥치는 대로 무찔러 크게 승리하였고, 그밖에 울포 등지의 해전에도 참여하여 이순신 장군의 빛나는 해전사에 공헌한 바가 적지 않았다.

이로써 임진왜란 중의 이순신이 제해권을 장악하자 당시 용인의 수비를 맡고 있던 <와끼자까 야쓰하루>를 비롯한 일지(一枝)의 군사가 해전에서 보강되었으나 이의 해전에서 안홍국 선단에 참패하므로써 안홍국에게 있어서는 고향 용인을 유린한 왜적에게 철저한 응징을 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1597년, 전쟁을 치루는 와중에서 삼도수군 통제사로 승진했던 이순신이 모함에 의하여 투옥되고 원균이 통제사가 되었으며, 조(朝), 명(明), 왜(倭) 3국에서는 화(和), 전(戰)

을 가능하는 막후 접촉의 왕래가 빈번한 가운데에도 안홍국 장군은 전과 다름없이 원군 휘하에서 중군장(中軍將)으로 승진되어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하던 중 정유재란을 맞게 된다.

그해 6월 19일 권을장군이 보낸 종사관 남이공(南以恭)으로 부터 출진 독촉을 받아 원군휘하의 전함 90여척은 한산도를 떠나 안골포로 진군하였다.

그러자 왜군은 해변에 잠복하기도 하고 또는 암석사이에 숨어서 포를 쏘기도 하다가 쫓아 나왔다.

명산만호 김축과 함께 선봉에 섰던 홍국은 정예 선단을 이끌고 북을 치며 돌진하여 안골포와 가덕도 해전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던 중 다시 적의 함대를 만나게 되는데 그의 행장록에는 정유년 6월 적을 당하여 통영 중군(中軍), 주수(舟帥)로서 격적3전3승(擊賊三戰三勝)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이와 일치하는 문헌의 기록도 있거니와, 이 두 장수가 이끄는 선봉의 정예함대 30척이 질풍같이 돌격하자 적도 정예선단을 추려 측면에서 협공 반격하므로 일시에 아군의 전세가 불리해 지면서 장군휘하의 선단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형세가 위급해지자 병사들은 마구 후퇴하면서 중군장 안홍국을 향하여 후퇴할 것을 권고했으나 장군은 말을 듣지않을뿐 아니라 「적을 보고 후퇴하면 언제 결판을 낼것이냐 하물며 원군장군이 가까이 계시니 어찌 우리를 구하지 않으랴 너희들은 죽는것을 두려워 하지 말라」면서 기를 흔들어 구원병선의 출전을 요청했으나 본진에서는 원군이 급파되지 않았다.

중군장 안홍국은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직감하고 비장의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안장군은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것이 병법에 있느니라>고 생각하고 <평소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바로 오늘에 있느니라. 장군이 우리를 구하지 않으니 어찌 죽음으로써 나라에 보답치 않으리……>고 이를 악물고 분투하며 적의 포위망을 맹렬히 공격하자 적선은 크게 무너졌다.

「우현의 적선을 따라잡고 현자포(玄字砲)를 쏘아라!」

도망치는 적을 쫓으면서 독전하다가 마침내 적의 유탄을 맞아 돛대 옆에 앉은채 전사하니, 이때 장군의 나이 38세였다.

이미 전사한 후에도 생시와 같이 눈을 부릅뜨고 성난표정대로 었음에 수하 장졸이

옆에 있으면서도 그가 숨을 거둔 사실을 모른채 도망치는 적을 쫓아 케멸시키던 중에 겨우 장군이 숨을 거둔 사실을 알았다.

적은 후퇴하고 전함은 무사히 돌아왔으나 이 해전에서 두 장군을 잃게 되었다.

장군은 원래 무관의 육장(陸將)으로서 수군에 편성되어 승선할 때 평소 입던 천력을 벗어 애마의 잔등에 매어주면서 「말아 이제 네 신세는 지지 않아도 되었으니 이 길로나 대신 고향 용인으로 가라. 이 유품을 내 집에 꼭 전하기 바란다」면서 사람에게 말하듯 몇번이나 말갈기를 쓰다듬으며 작별을 고했다.

이 말이 혼자서 천리길을 달려 이동면 어비리 장군의 본가(지금의 어비리 저수지. 수몰지역이 됨)에 이르러 지쳐서 죽었다. 가족들은 말 안장에 묶여있는 장군의 천력을 보고 공이 전사했음을 알았으나 장군의 시신은 수장하였기 때문에 말이 가져온 천력을 수습하여 장사를 지냈다고 전하며, 그의 무덤은 이동면 묘봉리산 26번지에 현존하고 있다.

또한 장군의 무덤 서쪽의 양지쪽에 아직도 애마의 것이라고 하는 무덤이 남아 있었다. 난이 평정된 후 같은 해 조정에서는 공의 전임지 보성에 사당을 세워 위패를 봉안했으며, 인조 8년(1630)에는 충민사(忠愍祠)란 현판이 사액(賜額)되었고 1642년에는 인조가 작설지전(綽楔之典)을 베풀어 그의 고향인 용인에 충신정려문(旌閭門)을 세우게 하였다.

좀더 후인 1668(현종 9) 정월 2일에는 병마절제사로 증직되고 충현공(忠顯公)이란 시호가 내려졌고 그의 부인 전주이씨에게도 정경부인의 첩지가 내려졌다.

후에 장군의 6대손 석광(錫光)은 1795년 정조에게 상소를 올렸다.

〈용인 유학 신의 6대조 안홍국이 역전(歷戰)으로 사(死)했는바, 윤행림, 유득공이 지은 충무공전서에 안골포 가덕도 해전에서 원균과 함께 싸우다가 패한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억울하옵고, 이는 잘못된 것이오니 고치도록 해주소서)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또 보성군에 살고 있던 유학 박성(朴性)을 가진 선비도 이의 잘못된 점을 시정해 줄 것을 상소한 바가 있었다. 이에 정조는 〈잘못된 곳이 있으면 의당 고치라〉고 했다는 것이 충민공 행장기에 기록되어 있다.

〔참고 : 충민공행장기, 순홍안씨(14대손 안응수) 가문구전, 이선근편 대한국사, 한국인명대사전, 충현공 안홍국 시호교지), 이인영

안희묵(安羲默)

〈효자·출생〉 정조 20(1796)~고종 18(1881). 본관은 순흥 자는 문약(文若). 어려서 부터 글읽기를 즐겼으며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부모의 뜻에 조금도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

부친의 병환 때에는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흘려 입에 넣어서 효험을 보았다. 거상 중에는 너무나 애통하고 상심하여 예를 넘었으며, 3년동안 결대(結帶)를 풀지 않았다.

일찌기 부모의 산소를 구하기 위하여는 밤을 가리지 않고 애썼는데 어느 때에는 범이 나타나 따라 다니기도 하였다. 장례를 모시고 여막에서 상기(喪期)를 마친 후에도 한달에 두 차례 성묘하는데 거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효성에 탄복하고 앞다투어 산소의 풀을 베어주고 눈을 쓸어주며 말하기를 〈효자가 성묘하는 길이다〉라고 하였다.

한번은 그가 먼길을 떠났더니 부친의 기일이 임박하였으나 강물이 넘쳐 올 수가 없게 되자 제사에 참여치 못함을 애통히 여겨 강가에서 통곡하다가 옷을 벗고 물에 뛰어들었다.

이때 신이 도왔는지 맞은 편 강에 도착하니 함께 건너지 못한 사람들이 모두 경탄하며 이를 효성이 지극한 연유때문이라 하였다.

아우 주묵(周默)은 일찍 타계하여 대를 잇지 못하자 항상 애처롭게 여겼다. 사람과 사귀되 언제나 덤덤했으며 경(敬)자로 마음을 지켰다.

조석으로 경재잠(敬齋箴)을 외워 스스로 경계하였다. 책을 읽고 일에 응하는 것을 놓곤 반드시 단정히 앉아서 마음과 사태를 점검하여 집안의 법도를 엄숙히 세우고 윤리를 바로 잡았으며 자손을 가르치는 데도 법도를 잊지 않았다.

고종 원년(1864)에 진사시에 합격한 후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고 고종 10년(1881)에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라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가 되었다.

고종 18년(1881)에 6월 이르러 스스로 쇠하여짐을 알고 자손들을 불러 시 한귀를 읊었으니 〈부모 계실때에 수고하신 은덕을 갚기 어려우니 한을 펴지 못하였다(有父母劬勞思難報恨未伸之)〉라고 하고 〈효우근검〉 네 글자를 써서 말하기를 이 글자를 명심하고

가업(家業)을 바꾸지 말라고 당부한 뒤 6월 29일 별세하니 수 86세였다.

(참고: 순흥안씨 문헌록, 삼강행실록), 이용준

안희중(安禧重)

(효자정문) 영조 4(1728)~정조 24(1802). 효자, 조선 문신, 자는 여중(汝中), 본관은 순흥(順興) 안유(安裕)의 21대손. 어릴때부터 부모옆에서 언제나 상냥하게 재롱을 피워 그의 부모들은 항상 기특하게 여겼다.

영조 19년(1743) 6월 그믐날 밤에 심한 우뢰를 동반한 폭우로 인하여 사당이 무너져 내리는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때 희중의 부모는 병중에 있었으므로 겨우 16세 밖에 안된 희중은 혼자서 위험을 무릎쓰고 사당안에 뛰어 들어가서 기둥과 들보가 부러지려는 찰라 들보를 떠 받들고 하늘을 우러러 호소하였더니 뇌성이 멈추고 폭우가 그쳤으므로 무사히 신주(神主)를 받들고 나와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 이는 조상을 숭모하는 지성에 신명이 감동한 까닭이라고 사람들은 찬탄하였다.

그는 성장할 수록 지성으로 부모를 봉양하여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으며 특히 부모님의 마음을 편케하여 드리는 것으로 생활의 규범으로 삼았다. 영조 26년 할아버지가 병환이 위독하였을 때 그는 가산을 돌보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하여 구환하였다. 그러나 병중에 차도가 없자 자기 집을 떠나서 치료받는 것이 좋다는 피접풍속에 따라 양지 암실촌 정씨네 방을 빌려 조부를 옮겨놓고 반년동안 간호하면서 지성을 다 하였으나 병환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러자 그는 매일 환자의 변을 맛보아 병세를 진단하면서 시탕하였다. 그러던 중 어느날 피로하여 잠시 졸았을 때 꿈에 도인이 나타나서 북두칠성에 기원하면 영험이 있을 것이라고 선몽하였다. 꿈에서 깨어난 희중은 신기한 생각에 점복 집을 찾아가 문의해 보자 역시 꿈에 이른대로 해보라고 하였다. 때마침 몹시 추운 겨울이었으나 매일 밤 목욕재계하고 자신의 몸으로 조부의 병을 대신하여 달라고 기도하였는데 기도할 때면 의례히 큰 호랑이가 나타나서 호위하듯 머물러 있다가 기도가 끝나면 사라졌다. 이러기를 한 달여 만에 신기하게도 조부의 병환이 쾌차되었다. 건강을 되찾게 된 조부는 여생을 마칠때까지 건강을 유지하였다. 그러던 중 영조 41년(1765) 6월에 희중의 할머니가 화장실에 갔다가 갑자기 달려든 광견에게 팔꿈치를 물려 그 독성으로 인하여 기절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주변 사람들은 광견에게 물린 자국은 속 뜸을

하면 좋다고 권하였으나 희중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40여일간 독을 입으로 빨아내어 끝내 완쾌되도록 하였다.

일찌기 백부(伯父)를 비롯하여 고모, 삼촌등 3남매가 일찍 죽었으므로 조부모의 슬픔은 극에 달하여 마음을 상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틈만 있으면 위안을 드리고 건강을 위하여 슬픔을 거두도록 간곡히 호소하여 끝내 조부모의 마음을 돌려 먹고 자위하게 되니 이 모든것이 그의 지극한 효심때문이었다. 영조 44(1768)년에는 조부가 돌아갔고, 또 영조 48년에는 조모 김씨가 노환으로 숨지자 장례를 치루고 차자임에도 장조카에게는 조금도 부담을 주지 않고 봉제사에 쓰일 제수비용은 자신이 부담하였으며, 기일(忌日)이 다가오면 미리부터 몸을 조심하고 기일에는 목욕재계하고 슬픔에 잠겨 종일을 숙연히 보냈다.

노쇠한 만년에는 뜰 안의 행보마저 어려운 데도 한서(寒暑)나 비바람을 피하지 않고 매일같이 성묘하기를 부모 생전에 조석문안하듯 하면서 오히려 늙어만 가는 세월 속에 성묘할 수 있는 날이 줄어감을 아쉬워 하였다.

정조 18년(1794년)에 그의 덕행과 고령을 포장하여 조정에서 2품의 관직을 내리고 양노의 은자(恩資)를 내린 후 3대를 추증하니 이 모든것이 그의 지극한 효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조 24년(1802) 8월 5일 오시에 하세하니 수 74세였다.

외사면 박곡리에 효자 정문을 세웠으며 지금도 전해온다.

(참고: 삼강행실록, 안희중행장기, 내고장의 일), 이용준

양 원(梁 瑗)

양지현감 1468년~1473년까지 양지현감을 지냈다. 양지현(陽智顯)은 세종때까지 광주진(廣州鎭)의 관할구역으로 계속 되었는데 방면(坊面)이 겨우 6방(六坊:元面)에 불과하여 매우 협소하였다.

1470년 현감 양원이 이러한 사실을 조정에 장계(狀啓)하여 방면을 늘려줄 것을 호소하자 죽주의 고안(高安: 지금의 외사면 고안리 지역), 대곡(大谷: 지금의 외사면 박곡리 일대), 목악(木岳: 지금의 원삼면 목신리 일원) 제촌(蹄村: 지금의 외사면 옥산리 일대)등 4부곡(四部曲)을 활양하여 양지현(陽智縣)으로 편입케 하였고 동시에 충청도에

서 경기도로 이속시켰다.

협소하기 짝이없는 작은 고을의 일개 현감이 장계 하나를 올려 현세(縣勢)를 두배로 확장 시켰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당시 양지현감 양 원의 부친은 막강한 실세로 영의정의 지위에 있던 양성지(梁誠之)였다.

남원군(南原君) 양성지는, 그의 선친은 양지에 장사하고 또 모친은 강원도 횡성(橫城)에 장사하였는데 부모 살아 생전에 녹봉으로 봉양하지 못한 것을 매우 슬프게 생각하여 오다가 그후 벼슬과 명망이 드러나게 되자 조정에 청하여 만아들 원(瑗)은 양지현감(陽智縣監)이 되게 하고 둘째 아들 수(琇)는 횡성현감(橫城縣監)이 되게 하여 부모 묘소가 고을에 있게하고 제사를 받드니 영화와 효도에 있어서 유감스러움이 없었다 하겠다는 내용이 열려실기술 정효(旌孝)편에 기술되어 있다.

이로보아 양성지와 그의 아들 양원은 양지현세를 확장시켜 우리에게 물려준 공로자들이며 그 공으로 오늘의 용인군 경역이 있게 되었으나 63년도에 고삼면을 안성군에 이관한 것은 섭섭한 일이다.

양성지는 양지현령으로서는 6년간이란 최장수 재임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참고: 용인군 행정연혁과 유래, 연려실기술〉, 노승식

어사랑(魚史郎)

〈효자·정려문〉 본관은 함중. 자는 선보(善甫)이고 효자 어진혁의 아들. 영조 무신(1728)생이다. 어린시절인 8세때부터 사친지도(事親之道)를 능히 알았고 소학(小學)일부를 평생의 근본으로 삼았으며 옛 학문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겨 행함의 신조로 하였다.

양친의 부양하는 일에 전심하였기에 과거까지 폐하였다. 부친이 득병하여 자리에 누우매 간병 6년동안에는 말도 삼가하고 웃음도 웃지 아니하였으며 전전공공 어름위를 견뎌 마음을 조렸다.

마침내 친상을 당하며 시묘 3년후 피눈물로 탈상하니 사림이 이를 흠경하고 조정에 품신하여 정려의 은전이 내려지고 통덕랑에 표절되었다. 이동면 송전리 안어고개 좌현에 효자정문이 전한다.

〈참고: 삼강행실록, 내고장의 일〉, 이응준

어사주(魚史周)

용인현령(龍仁縣令). 본관은 함중, 숙종 26년(1700) 8월 도입하여 숙종 36년인 1710년 까지 무려 9년 9개월간 용인 현령으로 재직하였다. 역대 용인현령중 최장수 재임기록을 남긴 현령으로서 어사주 이후 그의 재임 기록을 갱신한 수령은 고금을 통하여 아직은 관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참고: 용인군 시사연표), 박상돈

어사필(魚史弼)

(생거급제) 숙종 37년(1711~?). 본관은 함중(感從). 용인현 하동촌면(下東村面)에 살았으며 효자 어진혁(魚震赫)의 아들로 출생. 영조 20년(1744)에 춘당대정시문과(春塘台庭試文科) 병과(丙科)에 급제하였으며 관위(官位)로는 별제(別提)에 이르렀다.

(참고: 고사대사전, 용인군지), 금병윤

어운해(魚運海)

(효자·정려문) 본관은 함중, 자는 공소(孔昭). 효자 어사량의 아들. 영조 경오(1750)년에 출생하였다. 승습세효(承襲世孝)하여 부모 섬기기에 진충갈려했다.

부친 어사량이 등장을 앓았을 때는 입으로 종기를 빨아내어 효성으로 치유케 하였다. 또 모친의 간병시에는 황작이 남아 들었고 설중에 생 대추를 얻어내니 이를 두고 감천지성(感天之誠)의 표본이라 하였다.

모친의 병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매일 변을 받아 맛을 보았고 탕제를 끓이는 일은 반드시 궁행(躬行)하였으며 모든 음식은 먼저 맛을 보아 모친의 구미에 맞을 것인지를 검증하여 올리니 3대를 이은 이의 효행을 보고 사림이 앞을 다투어 조정에 상소하여 마침내 정려문이 내려지고 통덕랑(通德郎)에 표절되었다.

이로써 용인의 송전동 어현(지금의 이동면 송전리 안어고개)에는 3대의 효자 정문이 중복되어 정려각이 서게 되니 이 또한 만고에 드문일 이라고 하였다.

(참고: 삼강행실록, 내고장의 얼), 이응준

어윤중(魚允中)

〈유래〉 현종 14(1848)~건양(1896). 조선 문신. 자는 성집(聖執), 호는 일재(一齋), 본관은 함중 약우(若愚)의 아들. 고종 6년 정시문과에 급제 후 양산군수(梁山郡守), 전라 압행어사 등을 역임했다. 고종 18(1881)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의 한 사람으로 박정양(朴定陽)등과 함께 일본의 문물제도를 시찰한 후에 특명으로 일본에서 상해로 건너가 청나라를 시찰한 후에 천진(天津)에서 이홍장(李鴻章)을 만나고 돌아왔다.

임오군란(壬午軍亂)이 일어나자 청군을 따라 귀국, 그후 외교분야에서 청나라와의 무역장정의 체결, 회령 통상장정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뒤 승지, 참관을 지내고 1893년 양호순무사(兩湖巡撫使)가 되어 보은(報恩)의 동학교도(東學敎徒)들을 해산시켰고 고종 31년(1894) 김홍집(金弘集) 내각의 탁지부대신(度支部大臣)이 되었다. 1896년 아관파천(俄館播遷)때 고향인 보은으로 도망가던 중 당시 용인군수 김순승, 주민 정원로등에게 용인의 어비울(지금의 이동면 어비리)에서 타살되었다.

1910년 규장각대제학(奎章閣大提學)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참고: 한국사대사전, 한국인명대사전〉, 박상돈

어진혁(魚震赫)

〈효자·정려문〉 본관은 함중(咸從). 자는 경백(驚百). 숙종 갑자(1684)생이며, 양숙공(襄肅公) 어세공(魚世恭)의 후손으로 호조참판에 증직되었다.

천성이 지효하여 몸과 마음으로 양친을 봉양하였고 항상 순종하여 한번도 부모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었다.

부친이 득병하여 위중함에 얼음을 깨고 목욕재계한 후 삼일동안 기도를 하는 중에 잉어가 스스로 뛰어올라 이를 잡아 봉양하니 효험이 있어 수 10년을 연장하였다.

부친이 갑년을 맞으매 진혁은 미의를 입고 춤을 추어 양친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노친(老親)의 봉양지절이 갈수록 도타웠음에 그 효행이 일세에 자자하였다. 마침내 상께서 들으시고 정려문을 내리시며 가선대부 호조참판으로 록봉하는 은전이 베풀어졌다.

고종 갑자년(1864)에 송전동 어현(魚峴)에 정려각을 세우니 지금의 이동면 송전리 속 청 안어고개에 전한다.

(참고: 삼강행실록, 내고장의 일), 이용준

여 준(呂 準)

(독립지사) 1862년 용인군 원삼면 죽능리에서 출생하였다. 호는 시당(時堂)이며 이명(異名)은 조현(祖鉉) 또는 조현(肇鉉)이다.

일찌기 신학문을 수학한 그는 일제에 의하여 국권이 찬탈되고 힘없는 민족의 비참함에 통한한 나머지 청소년 교육에 진력하여 오던 중 오산학교 교원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가난과 혈벗음으로 시달림을 받다가 지쳐버린 주민들을 대할때 마다 약소민족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기울어 가는 국운에 통분하면서도 민족의 정신만이라도 굳건히 지켜야겠다는 일념으로 사재를 털어 고향 죽능리에 조그마한 학교를 건립하고 다시 인재양성의 길을 택하였다.

그리고 쌍령산, 구봉산, 문수산의 품안에 있는 이 학교의 명칭을 삼악(三岳)학원이라 명명하였는 바, 이는 태백의 정기를 이어 온 이 산들의 우뚝한 기개와 같이 장차 나라를 건질 동량과 인재를 기르자는 뜻을 담고 있었다.

이 학교에서 오광선을 졸업시킨 후에 장지영(張志映) 선생에게 천거하여 항일 독립투사의 거봉으로 이끌어 낸 것도 바로 여준선생의 힘이었다.

을사늑약 이후 통감부가 설치되고 주한 각국 공사관이 철수되었으며, 일본의 한국주차군 사령부가 설치되는 등 일제의 마각이 구체화 되어가자 그는 이상설, 정순만, 이동영, 박정서, 김우용, 황날영 등과 함께 북간도 용정(龍井)에 서전사숙(瑞甸書塾)을 설립하여 교포 자녀들에게 항일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는 특히 화란 해아(헤이그)에서 제2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하라는 러시아 황제의 비밀 초청장을 받은 광무황제(光武皇帝)는 이 회의에 파견할 밀사로, 만주간도의 용정촌에 망명하여 있던 전 참찬 이상설(李相高)을 정사(正使)로 하고 서울에 있던 전 평리원 겸사 이준과 주 러시아 공사관의 참사관 이위중(李瑋鍾)을 부사(副使)로 임명하고 이준

에게 러시아 황제에게 보내는 친서와 신임장을 주어 장도에 오르게 하였다.

1907년 4월 20일 그는 이준을 안내하여 간도에서 이상설을 만나게 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는 이를 계기로 독립운동에 몸담게 되었으며, 1911년에는 다시 간도로 건너가서 동흥학교(東興學校)를 설립하여 교포자녀의 교육에 진력하였고, 1912년 가을 통화현 합리화 유하현(柳河縣)에서 이상용(李相龍)등이 주동이 되어 부민단(扶民團)을 조직하고 이주 동포의 자치 활동과 독립지의 거점을 확보코자 할 때 그는 이주민 자녀교육을 맡았고 한편으로는 신흥학교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이탁(李鐸)등과 함께 신흥학교 유지회를 조직하고 지속적인 독립군의 양성을 시도하였다.

그 후 1913년에는 신흥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하였고 교감 윤기섭, 학감 이광조 등과 함께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학교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1918년 2월에는 정안립, 박성태, 박찬익, 정신, 유동렬, 신판균, 김동삼, 손일민, 김동평, 김좌진, 서일 등 39인과 함께 〈무오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이어 1919년에는 남만주 교포들의 명의로 된 〈한국독립선언서〉를 중국 중앙정부를 통해 만국평화회의에 제출하였으며, 박찬익 등과 함께 길림성(吉林省)에서 길림 군사독판부를 조직하여 단장으로서 대일항쟁에 적극 나서는 한편 그해 11월 상해에 통합 정부가 성립되고 새 각원들이 정식으로 취임, 시무하게 되면서 부터 서간도 방면의 군정부를 상해임시정부 관할하의 서간도지구 군사기관인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로 개편하였을 때, 선생은 독판부(督辦府) 부독판(副督辦)으로서 활약하는 한편, 이청천, 신판균 등이 교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농촌청년들에게 군사교육훈련을 지도하기 위하여 교관을 파견해 주기도 하였다.

1920년 12월 4일에는 임시정부 간서 총판부를 설치하고 총판에 선임되어 활동하는 한편, 1921년 재만 학생 교과서 편찬위원회 위원장에 피선되었고 동년 5월에는 이탁(李洸), 김동삼(金東三), 곽문(郭文), 이진산(李震山) 등과 함께 역목(額穆) 지방에서 시국에 대한 토의를 하고 그들의 연서로 결의서를 작성 상해임시정부 군무차관 윤기섭(尹琪燮) 앞으로 발송하였는 바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결 의 문

1. 현재 간서대의원(間西代議員)을 소개하여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에 정부 개정의 필요를 제의케 할 것.
2. 위임 통치를 청원한 사실이 확실한 이상 그 주창자를 물러나게 할 것.
3. 의정원에 제출한 개조의안이 채택되지 않을 때는 간서의원을 소환할 것.
4. 위 의안이 결정되기 전에 본 기관 대표명으로 정부를 파괴코자 하는 제3단체를 허용치 말것
5. 두가지 제의 및 권고가 무효로 될 때에는 간서는 간서 자체를 보장하여 자퇴할 것.
6. 위 조항의 실행을 희망하여 이진산을 특파하니 자세한 조항에 대하여는 특파원의 구술에 위임한다.

한편 그는 1922년 액목현(額穆縣) 황지강자(黃池崗子)에 검성중학교(儉成中學校)를 설립하고 교장으로써 인재양성에 전력하였다.

그후 1924년 3월 25일 당시 사상계를 혼란케하여 통일전선을 저해하는 공산주의자를 배격하며, 민족진영의 단결을 끈게 하자는 취지로 이동엽, 안창호, 이시영 등이 한국독립당(韓國獨立堂)을 결성하고 기본강령으로

1. 국가의 독립을 보위하며 민족의 문화를 발양할 것.
2. 계획경제를 확립하여 균등사회의 복된 생활을 보장할 것.
3. 전 민족의 정치기구를 세워서 민주공화국의 국가체제를 완성할 것.
4. 주비교역 시설을 완비하여 기본지식과 필요기능을 보급할 것.
5. 평등 호조를 원칙으로한 세계일가를 실현토록 할 것 등을 내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주변정세와 여건이 여의치 못하여 담보상태에 있을 때 그는 1930년 1월 상해로 가서 김구, 이동엽, 안창호, 이탁, 이청천 등과 함께 한국독립당을 재 결성하여 3균주의(三均主義)를 표방하는 강력한 항일투쟁을 전개토록 하였다.

1931년 만주사변이 발생하였을 때 후퇴하는 중공군과 충돌, 크게 부상한 후 장백산에 은거하던 중 1932년 서거하였고 1963년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다.

(참고: 독립유공자 공훈록, 독립운동사(4)(5)권, 서훈자독립운동 공훈내용(경기교위)

독립운동자 공적조서 1745호), 금병윤

오광선(吳光鮮)

〈항일독립지사〉 그는 1896년 5월 14일 용인군 원삼면 죽능리 어현(於峴)에서 의병장 오인수(吳寅秀)와 어머니 이씨 사이에서 맏아들로 태어났다. 본명은 성묵(性默)으로, 광선(光鮮)이란 이름은 “조선을 광복시키고 말겠다”는 굳은 의지에서 〈광선〉으로 개명, 사용한 이래 일생을 마칠때까지 계속 사용하였다.

그가 11세때 부친이 의병장으로 활약하던 끝에 의병 토벌대장 송변준의 아들 송중헌에게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는 동안 여준(呂準)선생이 설립한 삼악(三岳)소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서울로 올라와 청년학원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그가 3학년이 되었을 때 이 학교는 강제 폐교되었고 배움의 터전을 잃은 광선은 은사 장지영(張志映) 선생에게 「국외로 나가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말하자 잘한 생각이라면서 여비를 마련해 주어 1915년 21세때 압록강을 건너게 되었다.

그런 후 만주로 이주하여 신흥무관학교에 입학, 1918년 12월 동교를 졸업하고 동흥(東興)고등학교 군사 교관으로 있을 때 여준선생의 주선으로 의하여 부친과 일가족이 재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능한 교관이 필요했던 신흥무관학교의 부름을 받아 다시 이 학교의 교관으로 근무하였다.

이때 일본 육사 26기 출신인 이청천(李青天)은 육군 중위의 몸으로 탈출하여 신흥무관학교 교육훈련대장에 취임하자 선생은 선후배 동지로서 혈맹의 지우지기를 맺는 계기가 되었다.

이청천이 대한독립 부사령관·정의부 군사위원장·고려군관학교 교장, 임시혁명의회 군사위원, 한국독립당 군사위원을 지내며 무장 독립투쟁을 지휘할 때 선생은 항시 예하 단위부대장 아니면 고급 참모로 행동을 함께 하였으며, 이청천이 사지에 빠졌을 때 극적으로 구출한 일도 있었다.

또 오광선은 신흥무관학교 교관을 역임한 후 이어서 서로군정서(西路軍政書) 별동대장을 거쳐 경비대장으로 활약하였다.

그후 1920년 국민회군(國民會軍)의 홍범도(洪範圖), 서로군정서의 이청천, 청산리대첩의 영웅 김좌진(金佐鎭)등이 밀산(密山)에서 독립군을 통일하여 대한독립군단(大韓獨

立軍團)을 조직하였을 때 선생은 명 지휘관으로서 조동식(趙東植) 등과 함께 중대장에 임명되었으며, 이 연합군단은 노령(露嶺) 자유시(自由市)로 이전하였으나 그해 겨울에 흑해사변(黑海事變)에 봉착하는 일대 수난을 겪었다. 나라없는 민족의 설움과 천대는 이 흑해사변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청산리대첩 이후 만주 전역에서 일본군의 보복작전으로 말미암아 재만 한국독립군 10개 부대는 대한독립군단으로 통합하고, 레닌 정권의 양해아래 노령에서 실력을 양성하여 일본군에 대항하고 있었으나 혁명 후 국력이 쇠약해진 레닌정권은 일본의 압력을 받아 한국독립군의 무장해체를 요구하였고, 독립군은 소련의 부당한 처사를 강력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소련군은 이에 독립군을 이중 3중으로 포위하고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독립군은 이에 굴하지 않고 최후의 일인까지 민족 절의를 위해 싸우겠다는 처절한 결의로 분전하여 272명의 전사자 917명에 이르는 포로, 행방불명 250명, 익사자 31명이라는 통한의 피해를 당하고 흑룡강을 건너 만주로 돌아와야 하는 피로움을 당했을 때 오광선도 생사를 넘나드는 수난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선생은 용기를 잃지않고 싸우는 길만이 민족의 생존권 쟁취를 위하여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1930년에는 다시 한민족회와 생육사(生育社)를 모체로 한 한국독립당 결성에 참여하여 일제의 만주침략에 대비하였고 선생은 의용군 중대장으로서 총사령관 이청천, 부사령관 남대관(南大觀), 참모관 신숙(申肅) 등과 함께 무장 항일투쟁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종래 소규모로 분립하여 유격전을 전개하는 방식만으로는 일만연합군을 격파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청천, 최악(崔岳), 심만호(沈萬浩) 등과 함께 중국 호로군(護路軍) 사령관 겸 길림성(吉林省) 자위군 총지휘관 정초(丁超)의 부대와 연합군을 구성하고 공동의 적인 일본군과의 항전을 계속하였다.

그러던 중 1933년 7월 초에는 수분하(綏芬河) 대전자(大甸子)에서 일본군 대부대를 궤멸시키는 대승을 거두고 한·중연합군의 실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동녕현(東寧縣)의 일본군을 계속 추격하다가 실패로 끝나자 한·중 연합군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 이청천이 구속됨으로 자연히 독립군은 흩어지게 되었다.

이청천이 석방되자 오광선은 임시정부의 요청에 따라 광복군 중추장교를 양성할 책

임자로 발탁되어 20여년간 피흘려 항쟁하던 동삼성(東三省)을 뒤로 하고 황학수(黃學秀), 김관오(金官五), 김학규(金學圭)등과 이청천을 대동하고 산해관(山海關)으로 이동하였다.

1933년 김구 선생이 남경 중앙군관학교에서 장개석과 면담, 이 자리에서 낙양(洛陽) 군관학교 내에 한국독립군을 위한 군 간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여건이 허락되자, 총책임자 이청천을 위시하여 이범석(李範錫), 조경한(趙擎韓)·윤경천(尹敬天)등과 함께 광복군양성에 전력을 다하게 되었다.

그러나 낙양군관학교 한인반은 2기생을 배출한 것으로 막을 내렸다. 이는 일본 정부가 장개석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였기 때문이다.

낙양군관학교 한인반이 폐쇄되자 김구 주석은 오광선에게 군관학교 졸업생들로 하여금 남경과 북경에 비밀 거점을 마련하고 만주, 일본, 국내에 지하 조직망을 구축하여 항일사상 고취, 비밀정보 수집, 군자금 모집, 일본군 장성 암살등을 수행하라는 특수임무를 부여받고 그 총사령관으로서 많은 공작원들을 활동지역에 밀파하였다.

그러던 중 1936년 일본 관동군 참모장 토비원(土肥原)중장을 암살하라는 지령에 따라 그 임무수행을 위해 잠행하던 중 국내에 침투했던 다른 공작원이 일본경찰에게 체포됨으로써 선생의 북경 근거지가 노출되었고 1937년 1월 2일 체포되어 신의주 형무소로 압송되었다.

그러나 일본경찰의 갖은 고문끝에 자신이 항일투사의 거물임을 숨기고 오원(吳愿)이라는 가명으로 버티 3년형의 옥고를 치른 후 1941년 11월 중순 출옥하였다.

그후 재차 만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8·15광복으로 귀국한 후에는 광복구 국내지대 사령관을 지냈으며, 육군대령으로 임관되었다가 육군 준장으로 예편되었다.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받았으며, 1967년 5월 3일 서거하였으나 독립투쟁에 일생을 바친 선생이 물려준 자산은 오직 연금증서 1통이었다.

〈참고 : 독립운동사 4~7권, 경향신문 87. 5. 27자, 독립유공자 공훈록 7권, 신동아 7·8권, 1971. 2월호, 한국독립사 하권〉, 이인영

오달제(吳達濟)

(출생:대남비) 조선시대 3학사의 한 사람으로 광해군 원년인 1609년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해주(海州)이다.

자는 계휘(季輝), 호는 추담(秋潭)이라 불렀으며 용인 원삼에서 오윤해(吳允諧)의 아들로 태어났다.

19세 되던 해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한 바 있으며 1634년(인조 12년) 26세로 별시문과에 장원급제하였다.

전적·병조좌랑·시강원사서·정언·지평수찬을 거쳐 1636년 부교리(副校理)가 되었다.

이무렵 후금의 세력이 날로 강대해져 칭제건원하고 국호를 청으로 고쳐 조선을 위협하니 국운(國運)은 바람앞의 등불이었다.

명나라 장수 모문룡(毛文龍)이 평안도 칠산에서 진을 치고 후금의 후방을 견제하였으나 이미 그 세력이 약화하였으며, 후금은 조선이 은연중 명나라를 지원하면서도 사절의 내왕조차 없다는 구실로 1627년 침공을 감행해오니 이것이 곧 정묘호란(丁卯胡亂)이다.

그 후 후금은 명나라를 공략하는 한편 조선에게는 식량과 병선등 많은 물자를 요구하니 주화파(主和波)와 척화파(斥和波)가 대두되게 되었다.

1636년 국호를 청으로 고친 태종은 척화론자를 압송해 보낼 것을 요구하였고, 조선이 이를 듣지않자 10만대군을 이끌어 재차 침공해왔다.

병자호란이 일어나니 인조는 세자빈, 원손, 봉림대군, 인평대군등을 강화도로 피난시키고, 자신은 남한산성으로 거처를 옮겼다.

청군에게 남한사성을 겹겹이 포위당하자 강화론과 주전론이 맞서 논쟁을 거듭하였으나 성내에 식량이 떨어지자 결국 강화를 청하기로 하였다.

이 때 청태종은 인조가 친히 나와 항복할 것과 함께 척화론의 주모자 2~3명을 묶어 보내라 하니 인조는 피치못하여 적진의 삼전도(三田渡)에 나아가 군신의 예를 다한다는 조건으로 강화를 성립시켰다.

청태종은 강화도에서 잡은 포로를 송환한 다음 그들의 진중에 억류하였던 세자, 세자빈과 봉림대군을 인질로 하고 척화론의 주모자 오달제와 윤집을 잡아 심양으로 둘

아갔다.

적장 용골대(龍骨大)는 오달제의 기개와 뜻을 꺾기 위하여 처자를 거느리고 청나라에 와 살것을 권유하며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였지만 그는 죽음보다 두려운 것은 불의(不義)라 주장하면서 저들의 말을 좃으면 오랑캐가 되고 마는 것이라 하여 끝내 굽히지 않았다.

마침내 심양성 서문밖에서 윤집, 홍익한과 함께 처형을 당하니 세상에서는 이들을 삼학사(三學士)라 부르며 그 절개와 충성심을 높이 기리게 되었다.

오달제가 심양에서 처형당하자 기이하게도 그가 태어난 원삼면 학일리(學日里) 마을에는 모든 풀들이 말랐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지금도 마을 이름을 고초골(枯草谷)이라 부른다.

그는 묵매화(墨梅畫)에도 뛰어났는데 어몽룡(魚夢龍), 조속(趙速), 허목(許穆)의 화풍을 따르면서도 명나라 화풍의 영향을 받아 구도가 조금은 번잡한 감을 준다고 한다.

그의 그림으로 《묵매도(墨梅圖)》2점이 전하며 이러한 구도의 묵매화는 뒷 날 조지운(趙之耘), 홍수주(洪受疇), 박동진(朴東晉), 조희룡(趙熙龍), 이공우(李公遇)등의 그림에 영향을 주었다.

삼학사의 절개와 충의는 효종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포상되었는데 좌승지·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충렬(忠烈)이라는 시호가 내려지고, 광주(廣州)의 절현사(節顯祠), 평택의 포의사우(褒義祠宇), 홍산(鴻山)의 창렬서원(彰烈書院), 영주의 장암서원(壯巖書院), 고령의 운천서원(雲川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충렬공유고(忠烈公遺稿)》가 있고 현재 모현면 오산의 양촌마을에 자리한 그의 묘소에는 평소 착용하던 요대만 묻혀 있으며 그 앞 좌우에는 부인 의령(宜寧) 남씨와 고령(高靈) 신씨의 묘가 있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박상돈

오달천(吳達天)

〈묘〉 모현면 오산리. 자는 백원(伯源), 희문(希文)의 손자. 추탄(秋灘) 윤겸의 아들.

선조 31(1598)년 5월 1일 한성 숭교방(崇教坊)에서 출생하였다. 나면서 부터 용모가 단정하고 매사에 치밀하였으며 학문 또한 깊었으나 과거(科擧)에 연연하지 않고 고금

사(古今史)에 통달하였다.

광해군 12년(1620) 모친상을 당하여 3년상을 마친 다음 비로소 사산현역(四山縣役)이 되었다. 이때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 임금을 공주로 호종(扈從)하였으며 이의 공으로 익위사(翊衛司), 위솔(衛率)로 승차되었고 이듬해 과천현령이 되었다가 인조 6년(1628) 형조좌랑에 이어 은진현감을 역임하였다. 이때 선치하여 다시 김포현령이 되었다가 인조 14(1636)년 병자호란중에 부친 상을 당하였으며 3년상을 마친 다음, 고양군수로 배명(拜命)받았으나 부임하지 않았으며, 그해 가을에 다시 함흥판관에 임명되어 도임하였다. 그런데 이 고을에는 담비가죽(貂皮)과 인삼이 유명한 특산물이었음으로 백성의 곡식을 거두어 이를 구입, 조정의 권신에게 진상하는 폐습이 있어 공은 도임 즉시 시정하여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니 모두 기뻐하고 칭송했다. 과만(임기)이 되자 돌아온 후 면천군수(沔川郡守)로 나갔다가 인조 26년(1648) 정월 초7일 향년 51세로 별세하여 이곳에 장례하였다. 후세 사람들은 벼슬은 숨은 재주에 알맞지 않았고 수는 그의 덕에 차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배위는 능성구씨이며, 후에 이조판서로 추증되었다.

묘는 부친 묘소 좌측 기좌해향(己坐亥向)이며, 묘전에는 문관석, 동자석, 묘비석, 상석, 망주석 등의 묘전석이 있다.

(참고 : 해주오씨 족보, 묘갈), 노승식

오도일(吳道一)

〈출생·영정〉 인조 23(1645)~숙종 29(1703) 조선중기의 문신,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관지(貫之), 호는 서파(西坡), 영의정 윤겸의 손자. 종친부 전참(典職) 달천(達天)의 아들. 현종 14(1673)년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 숙종 6년(1680) 부수찬, 지제교(知製教)를 거쳐 1687년 승지가 되었다. 1700년 대제학, 한성부판윤 등을 역임하고 병조판서에 이르렀다. 그는 당대의 문장가로 세칭 동인삼학사(東人三學士)라 칭하였으며 애주가로도 유명하였다.

특히 지조가 곧고 강직하기로 이름이 높았다. 그가 타계하였을 때 숙종대왕은 사제문(賜祭文)에서 〈지조는 빙벽(氷壁)보다 기운 차다 계수나무는 늙을수록 더욱 맵고, 난초는 죽어도 오히려 꽃 답다〉고 하여 그의 성격을 표현하였다.

이와같이 고결하고 추상같은 성격과 풍채를 가졌음에도 일면 호탕하고 소박한 운치

가 깃들여 있음이 그의 한 시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봄이와도 봄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병이 봄과 함께 더해가 벼개에 엎드려 있는 것이 잦으네
오늘 우연히 촌 늙은이를 이끌고 나오니
들 꽃과 강 버들이 십분이나 봄이로세
春來不省春消息/病與春添伏枕頻
今日偶携村叟出/野花江柳十分春

라고 하여 봄 기분에 절로 젖어드는 감을 느끼게 한다.

그의 자품은 총명하여 말을 배우기도 전에 글자를 해독하였다고 하며 4~5세에 시를 지어 사람들이 경탄하였다고 한다. 그가 네살때 부친을 여의고 편모슬하에서 자랐다.

그는 성강(星江) 조견소(趙見素)를 좇아 글을 배웠는데 스승이 아직 등과치 않은 포의한사로 있음을 민망히 여긴 나머지 동문서생들이 스승을 천거하여 유학생들을 교도하는 직책에 임명해 주기를 예조에 청하였다. 이때 남선(南銑)이 예조판서로 있었는데 이 글을 받아보고 의아히 여겨 묻기를 “이것은 너희들의글이 아니다. 누가 대신 써 주었느냐?”고 물었다. “도일이 나서서 이것은 소생이 지은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으나 판서는 믿지않고 “그러면 이 앞에 나와서 그 글을 한번 읽어 보아라”하니 그는 그 글을 읽고 나서 “대감께서는 어찌 그리 의심이 많으십니까”라고 하였다. 이 말에 남판서는 깜짝 놀라면서 “이런 아이를 가르치고 있으니 그 스승을 짐작할 수 있다”하고 그의 스승을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임명하였다. 그의 학문과 덕행으로 숙종과 지우(知遇)가 깊었는데 오도일 역시 성의를 기울여 충실히 임금을 보좌하고 나라일에 힘을 다하였다. 그는 오랫동안 경연(經筵)에 있으면서 성인의 가르침을 강론하였는데 또한 장문의 소(疎)를 올려서 왕자(王者)의 할 일과 정치의 요체를 진언한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또 성품이 지나치게 강직하여 바른 말을 서슴치 않았으므로 정적이나 소인배의 무함을 받아 파란을 겪기도 하였지만 언제나 기강을 바로 잡아서 세도(世道)에 기여한 것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럴때마다 그는 소를 올려 사직코자 하였으나 숙종은 “신하를 아는 자는 임금만 한 이가 없다”고 하면서 윤택하지 않았다.

그는 일생 동안 항상 청렴결백을 신조로 하여 봉직하였고 외직에 나아가서는 먼저 백성의 폐단이 되는 것을 제거하여 백성을 위한 정치를 베풀었고 백성을 교화하고 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가는 곳 마다 선정을 기리는 칭송이 높았는데 심지어 울진같은 곳에서는 생사당(生祠堂)을 지어 제사를 받들기까지 하였다는 일화를 남기고 있다. 그는 또 문관을 전선(銓選)하는 이조참판의 중직과 무관을 골라 뽑는 병조판서의 직책에 있었으나 언제나 인물본위로 사람을 임명하여 인사에 공정을 기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원로대신을 지냈거나 친분이 두터운 사람의 청탁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또한 정리(情理)에 넘치는 물건은 일호도 받아 들이지 않았으므로 그의 문전은 마치 한사(寒士)의 집과 같았다. 때문에 30여년을 관직에 몸 담았으나 집 한칸, 땅 한 두럭이 없으므로 이를 두고 청백리의 표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업동(業同)의 옥사가 일어났을 때에 옥사를 다스리던 대신(大臣) 남구만(南九萬)의 일을 무사하게 만들려는 생각으로 그에게 동조했다고 하여 탄핵을 받고 숙종 28년 임천(林川)으로 귀양갔다가 다시 장성으로 옮겨진 후 숙종 29년(1703) 2월 초4일 적소에서 임종하였다.

생전에 술을 너무 좋아해서 그의 인물을 아끼던 숙종의 간곡한 타이름으로 한 때 술을 끊은적도 있었으나 사헌부의 관리가 와서 장성으로 귀양가게 되었다고 귀뜸을 해주자 그는 거기도 술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관리가 술이 어딘들 없겠느냐고 하자 술이 있는 곳이면 어디건 다 좋다고 하였다는 일화를 남기고 있다. 장성에 적거(謫居)한지 1년도 채 못되었는데 그동안에 그를 흠모하고 숭앙하는사람들이 적소에 찾아와서 배우는 자가 수 없이 많았고 적소에는 생을 마치자 반장(返葬)하는 날에는 스스로 상복을 입는 자가 10여명에 이르렀으며 고을의 백성들이 고을경계에 까지 따라나와 전송하는 자가 수백명을 헤아렸다고 한다. 그의 생전의 모습을 담은 초상화 1점이 모현면 오산리 종가집에 전해오고 있는데 이 초상은 그가 명나라에 다녀와서 그려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가 한때 울진의 수령을 지낸 일로 하여 사후에 울진의 고산서원에 배향되었다가 고종 갑자년(1864) 철향되어 용인 가묘의 영당안에 제장되었던 유작품이다.

완산(完山) 최석정이 쓴 발문이 초상상단에 적혀있으니

들면 왕의 지모이며/나면 백성의 어른이다/오직 강직 청렴하여/세속에 물들지 않았으니/백성이 부모처럼/오로지 잊지 않았네/나라에 들어선 공신이나/영당에는 공의 유

상 뿐이네라고 적었다.(入而謀王 出而長民 惟剛惟清 不緇不磷 民曰父母 婢也可忘 公歸于朝 人像在堂)

(참고 :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파집, 오도일 초상, 내고장 용인 유물유적편), 이인영

오명항(吳命恒)

자는 사상(士常) 본관은 해주(海州)이며 현종 14년(1673)에 용인에서 수량(遂良)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문무(文武)의 재략(才略)이 뛰어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는 “이 아이는 반드시 나라의 동량재가 될 것이다” 칭찬하며 부러워하였다 한다. 일찌기 부친을 여윈 오명항은 홀로된 어머니 여씨(呂氏)를 지성으로 모시었는데 물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티끌만한 불편도 끼치지 않았다.

오명항은 숙종 31년(1705)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한 이후 교리(校理)·설서(說書)·사서(司書)등을 지내고, 이듬해 부수찬(副修撰)을 맡았다. 뒤에 필선(弼善)의 직책까지 겸하였다. 숙종 41년(1715) 이조좌랑(吏曹左郎)을 비롯하여 승지, 경상도와 강원도, 평안도의 관찰사를 역임하였던 오명항은 다시 사직(司直)의 자리에 있다가, 영조 즉위년(1724)에 소론(少論)이 실각하자 벼슬에서 물러나 있었다. 그후 정미환국(丁未換局)때 소론이 등용하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다시 기용되었으며, 이조·병조판서를 지냈다. 이듬해에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오명항은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겸 사도도순무사(四道都巡撫使)에 임명되어 난을 진압하는데 앞장섰다. 이인좌의 난을 진압하고 공은 세운 오명항은 분무공신(奮無功臣)으로 책정되고, 해은부원군(海恩府院君)으로 봉하여졌다. 이때 그의 지략과 용맹에 감동한 영조는 친히 남대문의 누대에 올라가 개선하는 오명항을 맞이하였다 한다.

본래부터 풍모가 크고 인품이 뛰어났던 오명항은 저절로 위엄이 나타나 보였으며, 춘추 전국시대의 용맹으로 이름난 맹분(孟賁)과 하육(夏育)에 견주어지곤 하였다. 그리고 나라의 일을 처리함에선 의연하고 부동한 자세로 임해 감히 다른 사람이 그를 헐뜯지 못하였다. 또한 그는 생각함이 깊고 원대하여 모든 일에 착오가 없었는데, 남궁(南宮)과 서궁(西宮)을 세울 때는 미리 비축해 놓은 금과 쌀로 그 경비를 쓰게 하여 아무런 부담 없이 순조롭게 그 일을 마치게 하였다. 이를 본 주변의 대신들도 그의 깊은 생각에는

도저히 따를 수가 없다고 감탄하였다.

또한 오명항은 우리나라 역대의 재상 중에서도 효행이 뛰어나 영조대왕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은전(恩典)을 받은 바 있다. 그가 50세때 모친 여씨가 세상을 마쳤는데, 이때 그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어린아이처럼 텅굴며 몹시 애통해 하였다 한다. 그리고 시묘(侍墓)를 함에 있어서도 항상 상례에 따라 하여 조금도 게을리함이 없었으며, 아침저녁으로 성묘하고 죽만을 먹으며 3년상을 마쳤다. 이같은 효행이 영조에게까지 알려져 조정대신으로 하여금 살펴서 효자 정려의 은전을 내리게 하였던 것이다.

오명항은 해운부원군으로 봉해진 후 다시 우찬성(右贊成)으로 승진되었으나, 자신도 이인좌와 같은 소론이었다는 자책에서 사퇴하고 자하였다. 그러나 그의 충정을 익히 아는 영조는 허락치 않고 오히려 같은 해 6월에 우의정으로 발탁하였다. 이에 오명항은 신병을 구실로 다시 사퇴를 상소하고 물러나 있다가 영조 4년(1728) 9월 9월 동호 교사(東湖橋舍)에서 세상을 마쳤다. 그의 효성과 충정을 기리기 위하여 조정에서는 그에게 충효공(忠孝公)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훗날 영조가 그의 묘소 부근을 지나다 그에 대한 생각을 하며 곁에 있던 대신들에게 말하기를 “공은 가정에서는 효자요, 나라에서는 충신으로 실로 얻기 어려운 현신(賢臣)이었다”고 하였다 한다.

그의 묘소는 현재 용인군 모현면 양촌리 선산에 자리잡고 있다.

(참고: 한국인물대사전, 경기인물지, 국사대사전), 박상돈

오 씨(吳 氏)

〈효부비〉 본관은 해주. 고종 병자생(1876)이며 강릉유씨 문중 봉학에게 출가하였으나 가세가 몹시도 빈한하였다. 불행이도 일찌기 청상이 되었으나 시부모를 극진히 봉양하여 이웃의 칭송을 들었다. 낮에는 밭을 메고 밤에는 길쌈으로 끼니를 여의고 근근히 얻은 돈으로 와병중인 시아버의 탕제를 구하여 간병하기를 처음이나 나중에 다르지 않게 하였다. 이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시아버의 상을 당하여 애절함이 지극하니 이근이 모두 감동하였고 향당이 그의 행적을 찬양하여 역북리 구성동에 효부비를 세웠다.

비문에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시아비의 오랜 환우

媿父長病

세번이나 병상위에 맡겼음에도	三載委床
몸과 마음으로 봉양하기를	體志奉養
처음과 나중이 다르지 않았다	終如如一
향촌에서 듣는 이 마다	鄉有聲聞
그 효행을 드높여 칭송하니	褒揚其行
비록 우순이라 할지라도	感此至大
크게 감동하여 칭송하리라	可頌虞舜

〈참고 : 효부비, 내고장의 일〉, 이용준

오여창(吳與昌)

양지현감(陽智縣監). 경종 2년(1722) 6월 도입하였다. 그는 동년 11월에 도입한 용인현령 유호징(柳虎徵)이 이듬해 11월 파직되고 뒤이어 1724년 1월 이사철(李思澈)이 현령으로 도입하였으나 직무수행에 공백이 있었던 관계로 동년 6월 양지현감 오여창이 용인현령으로 겸직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현감이 이웃고을 현령을 겸직한 최초의 현감으로 기록되고 있다.

〈참고 : 시사연표〉, 금병윤

오유선(吳有善)

〈생거·급제〉 순조 31년(1831~?) 본관은 동복(同福), 현묵(顯默)의 아들로 양지현(陽智縣)에서 출생. 고종 20년(1883) 계미별시문과(癸未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장원 급제한 후 여러 관직을 거쳐 당상관(堂上官)의 관위(官位)에 올랐다.

〈참고 : 한국고사대전, 용인군지〉, 박상돈

오윤겸(吳允謙)

〈묘〉 경기도 기념물 제104호. 모현면 오산리. 조선 문신, 자는 여익(汝益), 호는 추탄(秋灘) 또는 토당(土塘)이라 했으며 본관은 해주, 선공감역(繕工監役) 희문(希文)의 아들로 명종 14(1559) 10월 12일 한성 숭교방(崇教坊 : 현 종로구 명륜동)에서 출생했다.

모친인 이씨가 선생을 잉태했을 때 이곳 현아(縣衙)의 남쪽 작은 봉우리에 삼태성(三台星)이 내려졌다가 품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 또 당시 문친의 현령이던 외조부는 〈이 아이는 삼태성의 정기를 타고 태어날 것인즉 반드시 정승자리에 오르리라〉고 말하였다. 그후 모친의 꿈에 용이 하늘로 오르는 것을 보았으므로 초명을 성룡(星龍)이라고 하였다.

선생이 8세되던 해인 명종 21년(1566)에는 병중이던 모친이 유자(由子)를 먹고 싶어 하심을 보고 이웃 고을 이상사(上舍: 생원이나 진사)댁에 유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곧 장 달러가 간곡히 유자를 청하자 이 상사는 어린 아이의 가룩한 마음씨를 기특하게 여겨 유자 몇 알을 선뜻 내어 주었다.

15세때인 선조 6년(1573)에는 외삼촌을 따라 용인에 내려와서 시전(詩典)을 읽었으며 22세 되던 해인 선조 13년(1580) 군기시(軍器寺) 이응화의 따님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23세때 우계(성혼)의 문하생이 되었으며 선조 15년(1582) 사마시에 합격한 뒤 음보(陰補)로 영능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선조 22년(1589) 전장에서 장원하여 봉선전참봉(奉先殿參奉)등을 역임하였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양호체찰사(兩湖體察使) 정철의 종사관으로 발탁되었으며, 시직(侍直)을 거쳐 평강현감으로 5년간 봉직하면서 선조 30년(1597) 별시문과에 급제한 후 사서 수찬을 거쳐 이조좌랑에 올랐다. 선조 35년(1600) 스승 우계가 모함을 받아 곤경에 처하였을 때 이를 적극 변론하다가 시론(時論)의 배척을 받아 경성판관으로 좌천되었다.

그후 6~7년간 안주목사로 있으면서 안주성을 축조하기도 하였으며, 함경도의 민폐를 조사 시정하기도 하였다.

광해군 2년(1610) 비로소 내직에 돌아와 호조참의, 우부승지, 좌부승지 등을 역임하였으며 당시의 권신인 정인홍, 이언적과 이황의 문묘종사 반대, 사림과 대립하자 이를 탄핵했다가 왕의 뜻을 거슬른바 되어 강원도 관찰사로 좌천되었다. 1년 남짓 관찰사로 재임하는 동안 기아에서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하고 한편으로는 영월에 있는 단종의 묘를 수축하고, 각 고을로 부더의 제수마련 법식을 제정하여 이를 준용케 하였다. 다시 중앙으로 돌아와 첨지중추부사가 되었으나 집권세력인 복인의 발호로 계속옥사가 일어나는 등 정계가 혼란해지자 늙은 아버지의 구실로 광주목사를 자원하였다. 광해군 9년(1617) 첨지중추부사가 되어 회답겸 쇄환사 정사로서 일본에 건너가서 임진왜란때 잡

혀갔던 150여명의 포로를 데리고 돌아왔으며, 이때부터 일본과의 수교가 정상화되었다. 1618년 폐모론이 복인들에 의하여 제기되자 이를 반대하여 탄핵을 받아 벼슬을 그만두고 광주 선영하 토당(土塘)(현: 모현면 오산리)에 몰려나 있다가 광해 14(1622)년에 용인현의 기곡촌(현, 기흥)으로 옮겨 거처하고 있었다.

이때 명나라에서는 신종황제가 죽고 희종이 즉위하여 이를 축하하는 사절을 보내게 되었을 때 하극사(賀極使)가 되어 바다를 건너 명나라로 향하였으니 이때가 4월 초3일이었다. 8월에 북경을 떠나 등주에 와서 다시 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다. 도중에 석성도에 이르렀을 때 풍랑을 만나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지경에 처했을 때 선생은 조복을 갈아입고 칙서를 품속에 간직한 다음 <한번 죽음은 이미 정해진 일/이에 이르러 또 무엇을 의심하라>면서 죽음을 기다렸다. 그러자 곧 풍랑이 멎어 일행이 무사히 귀국하였다. 인조 2년(1624)에는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왕을 공주까지 호종하였고 1626년에는 우의정에 올랐다. 이듬해 정묘호란이 발생하자 왕명을 받고 자전과 증전을 봉행하여 먼저 강화도로 피난하였으며, 환도뒤에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니 이때 나이 70세였다.

이때 노서·소서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해지자 이의 중재에 힘썼으며 특히 경연에서 정치혁신을 위한 왕의 각성과 성리학의 전념을 촉구하였다. 이듬해 인조의 생부인 정원군(定遠君)을 원종(元宗)으로 추숭하고 또 부묘(府廟)하려는 논의가 일어나자 이의 반대로 영돈녕부사로 물러났다가 1633년 좌의정에 재임되고 기로소에 들었다. 78세인 인조 14년(1636) 인렬왕후(仁祖妃)의 총호사(摠護使)로 파로한 나머지 득병하자 임금께서는 승지를 보내시고 하루에 세번씩 환관을 보내어 문병하니 이 또한 전례에 볼 수 없었던 일이다. 이즈음 선생이 자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거룩한 임금을 만났으나 세상을 바른길로 이끌지 못했으니 몸에는 덕이 없고 나라에 대해서는 공로가 없다. 무덤에 세우는 비석이나 청시(請諡: 시호를 청하는 일)에 있어 분수에 지나치게 찬양하는 일은 하지 말라. 그리고 치상을 검박하게 하여 상여 등속을 화려하게 하지 말라」고 유언하였다.

이때 마침 방밖에 있는 나무위에서 까치가 울었다. 그러자 선생은 얼른 자제에게 명하여 시한수를 받아 쓰게 하였다.

뜰에 있는 나무가지에 까치가 울어
 소리가 벼개말에 이르니 내마음 슬퍼지네
 작은 정성 아침 경연에서 다하려 하였건만
 오늘 저녁 영 이별함이 괴롭구나

마침내 선생은 신시에 운명하였으니 때는 1636년 정월 19일 밤이었다. 4월에 모현촌 사좌해향에 장사지내니 곧 지금의 오산리 문수산 서편이다.

선생은 평강현과 경성부의 민폐를 다스려 선치수령으로 명성을 얻었고 10여년간 재상으로 있을 때 백성의 편의를 위하여 연해공물(沿海貢物)의 작미(作米)와 대동법을 시행하고 서얼의 등용을 주장하였으며 또한 사림을 아끼고 보호하여 어진 재상이라 불리웠다. 운명 직전 유언으로 조정에 시호를 청하지 말것과 신도비를 세우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지금의 묘역에는 신도비가전하지 않으며 다만 묘갈만이 서 있을 뿐이다.

〈참고문헌 : 추탄문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경기금석문집(3), 경기인물지, 용인군지, 서울6백년사 인물편), 이인영

오윤해(吳允諧)

〈묘〉 명종 17(1562~?) 조선시대 문신. 자는 여화(汝和), 호는 만운(晩雲), 본관은 해주(海州), 선공감역(繕工監役) 희문(希文)의 아들로 희인(希仁)에게 입양되었는데 영의정(領議政)을 지낸 윤겸(允謙)의 아우이며 병자호란 때 삼학사의 한 사람인 오달재(吳達濟)의 부친이다.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고 부술(副率)로서 광해군 2년(1610) 별시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정자(正字)와 돈령부도정(敦寧府都正)을 거쳐 여주목사(驪州牧使)에 이르렀다.

저서로 만운집(晩雲集)이 있다. 묘는 오현면 오산리 해주오씨 묘원에 있다.

〈참고 : 한국인명대사전〉, 박상돈

오의선(吳義善)

독립지사. 1889년 12월 8일. 용인군 원삼면 죽능리 669번지에서 출생하였고, 이명(異名)은 희선(義善)이다.

항학열에 불탔던 그는 동경에 유학, 명치대학(明治大學)에 재학중 1919년 2월 8일 2·8대한독립단대회에 참여한 후 귀국, 부모와 친인척들에게 하직인사겸 고향에 들렀다가 3월 21일 원삼지역 독립만세 시위에 참여한 후 이봉헌과 함께 몸을 피하였다가 상해로 망명. 동년 4월 13일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이에 투신하였다.

당시 상해지역은 국제적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임시정부가 불란서 조계(租界)내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영사관 경찰의 마수가 크게 번치지 못했으므로 많은 독립운동 지사들이 몰려들어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투쟁 매카가 되었다.

여기서 민주주의적 방법에 의하여 임시 의정원을 구성하고 각 지방의 대표자를 선출하였다.

이때 임시 의정원법 제1장 제2조에 의하여 오의선 지사는 초대 의원이 되었으며, 입법활동을 통하여 임시정부의 진로를 모색하게 되었는데 바 당시 경기지역 대표의원은 다음과 같다.

신석우(申錫雨) 서울출신 26세

정대호(鄭大鎬) 서울출신 28세

오의선(吳義善) 용인출신 27세

이기룡(李起龍) 서울출신 35세

의정원 의원이 된 오의선은 동년 4월 30일 부터 5월 13일에 이르는 15일간의 회기중 임시의정원법 제21조에 의하여 손정도를 의장으로 신정을 부의장으로 선출한 다음 선생은 홍진(洪鎭), 손두환(孫斗煥), 이춘숙(李春塾)과 함께 의정원 세칙제정의원으로 활약하는 한편 6월에 제5차 임시의정원 회의에서는 모두 9개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였는데 바 오의선은 예산결산위원장에 선임되어 이사 유정근(柳正根), 위원 백남규(白南奎)와 함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1919년 5월 20일 제4회의에서는 임시의정원 의장이 재정문제의 타결을 개진할 때 의선은 대표의원 홍진(洪鎭), 김동형, 박용각(朴容珪), 장도정(張道政), 이원익, 손두환, 조정등과 같이 내외 공채(公債)의 발부, 의연금의 수합, 세금의 징수등을 그 주요 재원으로 확보, 운영케 하되, 이에 불복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강제규정을 두어 처리하자는 강경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동년 7월 7일부터 19일까지 장안리 거류민단 사무소에서 개최된 제5차 의정원 회의에서는 그동안 부족했던 각 도 대표의원의 보충선임이 있었다.

이 2대의 경기도 대표의원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대표의원

오의선(吳義善), 신익희(申翼熙), 이기룡(李起龍), 최창식(崔昌植), 최근우(崔勤愚), 조완구(趙完九)

그러나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8월 18일부터 있는 제6차 회기중에는 다시 경기도의 신익희, 최창식, 이기룡의원이 해임되었고 제6차 회기 최종일인 8월 17일 현재의 지방별 의원 현황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경기도 대표의원

오의선, 조완구, 장봉, 여유행, 최근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선생은 의정원 경기지구 대표로써 민주주의적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대동시키는 산파역으로 역량을 발휘하므로서 상해의 임시의정원, 임시정부는 노령 국내와는 다르게 우리민족의 집중 지원은 물론, 중국 및 구미 열강들의 주의와 관심을 모아가며 발전하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선생은 1919년 7월에 조직된 대한적십자회의 상의원(常議員)에 선출되어 활약한 바도 있었으며 1921년에 최윤동이 북경에서 박용만(朴容萬)의 부하 김복(金復)과 흥화실업은행(興華實業銀行) 주식모집을 방자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였는데 이때, 선생은 그 방법등을 제시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경북 안동에서 일본 경찰 갑비(甲斐)를 총살한 의거활동의 배후자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이후 국내에 잠입하여 시대일보(時代日報) 기자로 합법적 신문을 취득, 위장하고 직접 군자금 모집하였는데, 독립운동의 방편으로 모퉁, 책임자로 활동하다가 1931년 3월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동년 4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일제의 갖은 고문과 악행의 여독으로 동년 5월 6일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1980년에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다.

(참고: 독립운동사 4권, 독립유공자공훈록 5권,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1,800호), 노승식

오인수(吳寅秀)

의병장. 용인출생 자는 경수(敬秀), 본관은 해주이다.

병자호란때 척화파로 끝끝내 항쟁을 주장하다가 청나라에 잡혀가 순절한 추담 오달제 선생의 후손이기도 한 그는 광무 9년(1905) 일본과의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을 때 의병장 정원욱(鄭元郁)에 적극 호응하여 중군장(中軍將)으로써 용인·안성·죽산·여주등 지역에서 활발하게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본래 선생은 지금의 원삼면 죽능리 어동(於洞)에 살면서 부인 이씨와의 사이에서 4남매를 둔 가장으로써 용인, 죽산, 안성, 여주등지에서는 그의 숨씨를 따를 수 없는 명포수였다.

그는 조상으로 부터 물려받은 10여마지기의 농사는 아내 이씨에게 맡겨두고 여름철에는 강원도까지 원정하면서 사냥을 하였다.

18세부터 사냥을 했던 그는 매년 한번씩 포수들이 모여서 숨씨를 자랑하는 화포계(火砲契)에 참여하였고 이때마다 선생은 늘 일등을 차지하였다.

그는 평생을 손에서 놓아본 일이 없는 엽총과 열한살이나 된 사냥개와 더불어 백발백중의 사격숨씨를 발휘하여 양지, 죽산, 안성 등지의 현병대, 경찰주재소를 습격하여 일본현병과 경찰관을 사살하였다.

한편 같은 시기에 활동중이던 의병장 정철화(鄭哲和) 의병진과 합세하여 중군장으로 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그는 안성군 매봉재 전투에서 일본군 1개 대대와 일주야(一晝夜)를 대전하다가 정규전의 최신 장비로 무장된 일본군 수비대와 장기전을 치를 수 없게 되자 결국 후퇴하였다.

우선 의병들에게는 식량이 부족하였고 총기와 실탄이 부족하였으며, 굶주림 때문에 흩어질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의병의 주 세력이 속속 기세를 잃어가고 있을 때이며, 조지력이 약화되어 가는 대세에 따라 의병들은 흩어질 수 밖에 없었다.

병력이 없어진 오인수 중군장은 탄약이 떨어진 빈 총을 메고 에건과 더불어 산야를 헤메며 노숙하다가 아픈 다리를 이끌고 야음을 틈타 죽능리 어동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일본군과 현병들은 신출귀몰하는 의병장 오인수를 체포하기 위한 포위망을 거미줄같이 몇겹으로 쳐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를 잡으려는 한인 밀정이 눈에 불을 켜고 그의 집 주변에 잠복하고 있다가 집에 돌아온 그를 발견하고 밀고함으로써 일진회장(一進會長) 송병준(宋秉駿)의 아들 송종헌(宋宗憲)이 이끌고 온 토벌대(討伐隊)들이 그의 집을 포위했다가 일제히 달려들었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오인수 대장은 총개머리를 휘두르면서 포위망을 뚫고 돌진하였고 그의 충견(忠犬)은 이들을 물어 뜯으면서 주인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난타를 당하여 마침내 의병장 오인수는 쓰러졌고 그의 애견 역시 토벌대의 칼에 찔려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였다.

그의 아들 광선(光鮮)은 회고록에서 「토벌대는 아버님을 체포하기 전에 아버님의 반려나 다름없는 애견부터 죽였다. 당시 11살이던 나는 붙잡혀 가시는 아버님을 등구뺏까지 배웅하고 돌아온 후 죽은 애견을 묻으면서 한없이 울었다. 아버님은 8년 징역형을 받으시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지나긴 영어생활에 들어가셨다」고 적고 있다.

선생은 출옥 후 1920년 12월 만주 통화현 합니하(合泥河) 신흥무관학교에 다니던 아들 광선과 합류하고 거기서 조국의 광복만을 기다리다가 67세로 서거하였다.

그 아들 광선(본명: 성묵)은 남만주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후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 제1대장을 시발로 해방될 때까지 독립투쟁을 계속했으며 광선의 아내, 딸 희영과 희옥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항일 독립투쟁에 이바지해 온 장한 업적을 남겼다.

(참고: 이홍식국사대사전, 김승학한국독립사(하), 의병항쟁사, 경향신문 1987. 5. 27자, 신동아 제78호(1971. 2월 1일자), 금병윤

오조영(吳祖泳)

연통. 용인군 조사위원. 임시정부가 국민국가로서 국내를 지휘 감독하기 위한 기본 조직으로 1919년 7월 10일 임시정부 국무원령 제1호로 연통제(聯通制)의 실시를 공포하였다.

연통제는 그 본부를 상해에 두고 국내외 민족간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조국광복을 완성하기 위한 비밀 행정조직이었다.

연통부는 감독부, 총감부, 사감부를 두고

- 정부에서 발하는 법령과 기타 공문전표
- 독립 시위운동 계속 진행

- 장차 외지에서 전쟁을 개시할 때 군인, 군속, 군수품의 징발, 수송
- 구국금 백원이상 각출 구국재정단 모집
- 장차 정부에서 공채를 발행할 때는 공채발매
- 통신에 관한 것
- 기타 상부로 부터의 임시명령에 관한 것 등의 임무를 추진하였다.

그는 연통 용인군 조사원으로 임명되어 구국활동을 전개하였는 바, 주요 임무 수행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독립사업 전개, 순의 순국자의 인적사항 확인
- 독립운동시 부상당한 자의 인적사항 상처 및 부상정도
- 독립운동을 하고 처형된 자의 인적사항, 형기, 형량, 처형사유 및 일자
- 독립운동 주동자의 공적사항과 운동의 개요
- 백원이상 독립기금을 낸 의연자의 인적사항 납부단체
- 군사상 지식, 경험을 가진 자의 주소성명
- 독립운동에 관한 민심의 경향
- 일본군의 계엄 정도와 유혹수단, 방법 기타 관내의 유력자, 재산가 종교등을 조사하였다.

〈참고: 독립운동사〉, 노승식

오희문(吳希文)

〈묘〉 모현면 오산리. 용인군 향토유적 제34호. 자(字)는 비연(斐然), 본관은 해주, 경민(景閔)의 아들로 중종(中宗) 기해(1539)년 출생. 일찌기 유학에 심취하여 문필이 훌륭하고 행실이 돈독하며 해박한 식견을 지녔으나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다. 다만 만년에 아들 윤겸의 주선으로 선공감(繕工監) 감역을 지냈을 뿐이나 아들 윤겸은 인조때 영의정을 지냈으며, 그의 손자 달계(達濟)는 병자호란때의 척화신(斥和臣)으로 청나라에 끌려가 순절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임진왜란을 직접 체험하면서 쇄미록(瑣尾錄)을 남겼다. 이 일기(日記)는 선조 24년(1591)부터 34년(1601) 2월까지 9년 3개월간 총 7책의 기록이다.

이중 임진년의 일기는 어느 임진년의 기록보다 완전하여 그가 남긴 수고본(手稿本)

은 보물 제1096호로 지정되었다. 광해군 5년(1613) 별세한 후 이곳 선영(부친)의 묘하에 안장되었다.

봉분 좌측으로 세운 묘표의 비양에는 <선공감 감역 봉훈즉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령경연관상감사 오희문지묘(繕工監 監役 奉訓卽 大匡補國 崇錄大夫 議政府 領議政 領徑筵 觀象監事 吳希文之墓 贈貞敬夫人 延安李氏附葬)>라 비명(碑銘)되어 있고 비음(碑陰)에는 계사월일립(癸巳月日立)이란 년기(年記)가 있어 이 비는 선생이 별세한지 36년 후에 세운것임을 알 수 있다.

봉분 좌우로 동자석(童子石), 문인석, 망주석과 상석등 묘전석이 있다.

(참고 : 한국인물사, 묘갈), 이인영

오희영(吳姬英)

독립군. 1924년 4월 23일 독립투사 오광선(吳光鮮)의 맏딸로 출생하였다.

그의 조부는 용인에서 의병장으로 기의(起義)하였던 오인수(吳寅秀)이며, 그의 남편은 평남 안주 태생의 광복군 참령(參領) 신송식(申松植)이다.

조부로 부터 여사에 이르기 까지 독립투쟁으로 3대를 이었고 남편과는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독립투쟁으로 여생을 마쳐 국립묘지에 함께 잠들고 있다.

그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와의 화의를 반대하다가 윤집, 홍익한 등과 함께 적국 심양으로 끌려가 갖가지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다가 순절한 추담 오달제(吳達濟) 선생의 후예이며, 이들 모두가 원삼지역 해주오씨의 가문에서 배출된 장한 인물들이다.

물론 우리나라 여러 가문에서 많은 충신, 열사, 애국지사, 의사, 투사들이 배출되었으나 이처럼 3대를 이어 독립혈사를 배출한 가문이 몇이나 될 것인가? 이 또한 놀라운 사실이며, 광복이후 반백년이 지나도록 이런 위업이 선양되지 못했음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독립 유공자로 포상된 후에야 비로서 이의 사실을 기록하는 필자의 감회는 오직 송구한 마음뿐임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고장 출신의 모든 독립지사들의 빛나는 충절과 애국심의 발양은 오직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았던 무한의 희생전신에서만 가능했던 것임을 감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상해지역의 정세를 살펴보면 1932년 4월 윤봉길 의사가 홍구공원에서 일본 천황 생일인 천장절(天長節)을 겸한 상해사변 전승기념식에 참석한 상해 일본인 거류민 단장 <가와바타(河端)>와 상해 파견군 사령관 <시라가와(白川義則)>를 투폭(投爆) 살상시킨 사건 이후로 프랑스 조계에 있던 임시정부와 요인들을 탐문 수색함으로써 독립투쟁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급기야는 유주(柳州)로 옮겨가게 된다.

이 시련기를 거친 1930년대 후반, 한민족 청년들로 구성된 한국청년 전지공작대(韓國靑年戰地工作隊)에 입대한 오희영 여사는 1939년 4월부터 서안을 본거지로 하여 서북방면에서 적의 기밀을 탐지하고 많은 동포청년을 초모(招募)하여 백여명의 전투부대를 이루게 하였고 1940년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자 오광심(吳光心), 김효숙(金孝淑)등과 함께 정식 여군으로 입대하여 광복군 제3지대 징모(徵募) 6분처 소속 간부로 활약하였다.

이때의 편제를 보면

주임위원 김학규(金學圭), 간부 오광심(吳光心), 신송식(申松植: 후에 노희영의 부군이 된다), 신규섭(申奎燮), 김광산(金光山), 오희영(吳熙英), 이복영(李復榮)등이다.

이들 제3지대 대원들은 1942년 대장 김학규의 인솔하에 일본군의 점령지를 돌파하여 중국의 유격부대가 자리잡고 있는 안휘성(安徽省) 부양(阜陽)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을 근거로 하여 강소성(江蘇省) 산둥성(山東省) 일부를 주무대로 공작임무를 수행하다가 1944년 한국광복군 1기 졸업생인 윤경빈(尹慶彬), 선우진(鮮于鎭), 신현창(申鉉昌), 김중섭(金仲涉), 김중호(金仲浩), 장준하(張俊河)등 50여명을 교관 신송식과 함께 인솔하고 광복군 총사령부가 있는 중경(重慶)으로 간 후 한국독립당에 가입하여 적극적인 독립투쟁을 전개하던 중, 그곳에서 광복을 맞이하여 귀국하였으나 두살된 딸을 두고 파란 많은 일생을 마치게 된다.

오희영 여사의 남편인 신송식은 1914년 3월 4일 평안남도 안주(安州)에서 출생하였고 1936년 중국 육군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독립당 재건을 위하여 활약하였으며, 이듬해 4월부터 중국 중앙포병 제51단 소위로 임관하여 항일전쟁에 참여하였으며, 1941년에는 민족혁명단원으로 조선의용대에 가입, 제1지대에 편성되었다가 한국광복군 제3지대에 전입되어 희영과 함께 서안에서 활동하였다.

1944년 중국 중앙육군학교 제10분교 간부 훈련반 병설로 설치된 한광반(韓光班)의 교관으로 광복군 양성에 주력하였고 1945년 6월에는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참모처 제1

과에 소속되어 광복군 참령으로 복무했던 인물이다.

정부에서는 1963년 8월 15일 부군 신송식 지사에게 건국훈장 국민장을, 부인 오희영에게는 대통령표창을 추서하고 국립묘지에 합장하였다.

(참고: 김승학 한국독립사, 김국보 한국독립사, 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5권, 독립운동사 4권, 6권), 금병윤

오희옥(吳姬玉)

독립군 생몰: 1926. 5. 7~ ?

용인군 원삼면에서 출생하였다. 독립운동가 오광선 장군의 차녀이다.

1939년 중국 유주(柳州)에서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韓國光復陳繕靑年工作隊)에 입대하여 일본군의 정보수집, 일본군·중·한국인 사병에 대한 초모와 연극 무용등을 통한 대원의 위안사업에 종사하면서 1941년 1월 1일 광복군 제5지대로 편입될 때까지 활동하였다.

1944년 한국독립당 당원으로 활약하였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일제침략하 한국35년, 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박상돈

왕종린(王宗璘)

〈탑비〉 고려 명종조 국사(國師). 법명(法名)은 현오(玄悟), 자는 중지(重之). 15세때 불일사(佛日寺)에서 수계(受戒)하고 고려 의종(毅宗) 원년인 1147년 수좌(首座)가 되었다. 그후 부석사(浮石寺) 주지로 있었으며 명종(明宗) 8년인 1178년 53세의 나이로 시멸(示滅)하였다. 국왕을 강학(講學)했다고 전하는 서봉사지(瑞峯寺址)에는 고려명종 을사년(1185)에 그 문인들이 세운 현오국사 묘탑비 1좌가 전하며 보물 제9호로 지정되었다.

(참고: 현오국사비명), 이인영

우덕순(禹德順)

항일의병. 용인군 수여명 어매동(漁梅洞: 현, 포곡면 금어리) 4통 1호에 거주하였다.

농업을 하면서 동장(洞長)의 일을 보고있던 사람으로 당시 나이는 60세였다.

우덕순은 의병장 김순일의 활동을 은밀히 지원,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여 용희원년

(1907) 음력 11월 성금 16원을 거출하여 의병활동 성금으로 지원한 것을 비롯, 융희 2년 7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3백냥의 군자금을 모아 의병을 지원하다가 일경 밀정에 의하여 고발 체포되어 융희 2년(1908) 10월 6일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참고: 융희 2년 령 제241호 재판기록〉, 노승식

우수안(禹守安)

항일의병. 용인군 수여면 어매동(지금의 포곡면 금어리)에 거주한 당년 20세의 청년이었다.

일제의 한국 강점정책이 압박하여 한국군을 강제 해산하게 되자 일제를 추방해야겠다는 젊은 의기 하나로써 용인지역에서 활약중이던 의병장 김순일(金順日) 휘하에 들어가 그 부하가 되었다.

우수안은 광주, 용인, 양지, 죽산등 인접군을 무대로 의병활동을 벌이다가 체포되어 융희 2년(1908) 10월 6일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참고: 융희 2년 령 제242호 재판기록〉, 이인영

원 연(元 堧)

〈전사유래〉 본관은 원주. 경사우수사 원균의 아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금령(金嶺: 지금의 용인읍, 삼가리, 역북리 지구)역에 주둔해 있던 왜적을 공격하였다가 패하였다.

원년이 왜적을 공격한 것은 11월경이다. 원주원씨 가문에 전해오는 일설에는 용인읍의 해골에서 전투를 벌여 크게 승리하였던 것으로 〈해골〉이란 지명도 본래는 〈화약골〉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원년이 왜적을 이 골짜기로 유인하여 화약과 염초로 화공을 감행하여 적을 크게 무찔렀으므로 후에 사람들은 이곳을 〈화약골〉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변하여 해골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구전적인 얘기지만 당시 진사(進士)의 신분으로 있던 그가 용인에서 왜적과 조우하여 일전을 벌였다는 것은 난중잡록편에도 기술되어 있다.

〈참고: 난중잡록, 용구문화〉, 박상돈

원후진(元厚鎭)

용인현령(龍仁縣令). 영조 31년(1764) 7월 6일 용인현령에 도입하였다가 이듬해 영조 4년 12월 20일 평양 중군(中軍)으로 전출되었다. 문관 벼슬에서 중군의 무관직으로 전출된 예로서는 역대 현령중 그가 최초이다.

〈참고: 용인군 시사연표〉, 이인영

유경양(柳敬養)

〈출생〉 ~ ? 효자. 유경양은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그의 부친이 병이 들자 매양 똥, 오줌을 돌봐드리며 하늘을 향하여 자신이 그 고통을 대신하게 해달라고 기원하였다.

부친이 죽자 극진하게 상례(喪禮)를 마치고 자신도 효를 다하지 못했음을 통감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부친의 뒤를 따랐다. 이 일이 임금에게 전해지자 지평(持平)을 추증하고 그의 효를 높여 명정(命旌)하였으나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참고: 읍지, 내고장의 일, 인물편〉, 이용준

유 근(柳 瑾)

〈출생·묘〉 〈전일 이등(伊藤) 후(候)가 우리 한국에 오니 어리석은 우리 백성이 서로 서로 일러 말하기를 후(候)는 평일 동양 삼국이 정립(鼎立)하여 안녕하게 지내는 일로 자임(自任) 주선하던 사람이다.

오늘 한국에 오는것은 반드시 “우리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부식(扶植)할 방략(方略)을 권고하리라”하여 항구(港口)에서 서울에 이르는 거리에 관민 상하가 환영함은 마치 않았는데 천하의 일이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많다.

천만 꿈밖에도 5조약 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제출되었는가? 이 조건은 비단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동양 3국의 분열하는 조짐을 빚어내는 것이니 이등 후의 예초 주의(主意)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 태황제 폐하께서 성의(聖意)로 끝내 거절하셨으니 그 조약이 성립되지 못한것은 생각하건데 이등 후 자신도 알고 있을 것이다.

아아! 저 돼지, 개만도 못한 소위 정부대신이란 자들이 영리(榮利)를 노리고 공갈을 겁내서 움찔움찔 물러서고 움추러 떨면서 매국의 적이 되어 3천리 강토와 5백년 종사(宗社)를 남에게 바치고 2천만 생명을 다른 사람의 노예로 몰아내도다.

저들 돼지, 개만도 못한 외부대신(外部大臣) 박제순(朴齊純) 및 여러 대신은 깊이 책망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명색 참정대신이라는 자는 정부의 수상으로서 다만 ‘부(否)’자 쓰는 것으로 문책을 방지하고 이름이나 대는 밀천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인가?

김청음(金淸陰, 尙憲)의 화친하는 글을 찢고 통곡하는 일은 못하고 정동계(鄭桐溪, 蘊)의 칼로 배 가르는데도 못하면서 뻔뻔스럽게 살아서 이 세상에 있으니 무슨 면목으로 강경하신 황제폐하를 다시 뵈오며, 무슨 면목으로 2천만 동포를 다시 대할 것인가?

아아! 슬픈 일이요, 아아! 분한 일이로다. 우리 2천만! 남의 노예가 되는 동포들이여 -사는 것인가? 죽는 것인가? 단군·기자 이래 4천년 군민(君民)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멸망하고 마는 것인가? 애통하고 애통한 일이로다 동포여! 동포여!-)

이 글은 광무 9년(1905) 11월 20일자 황성신보에 게재되었던 사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의 전문(全文)이다.

이 글은 본래 장지연(張志淵)이 발표하였으나 용인 출생의 선각 언론인 류근(柳勤)이 초고(初稿)했던 것으로 전하고 있다.

그는 철종 12년(1861) 수여면 금령(지금의 용인읍, 김량장리)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려서부터 한학과 문장에 능한 재사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한학에 전념하면서 성년기를 보낸 그는 39세 때인 광무 9년 장지연, 남궁억등과 함께 황성신문을 창간하였다. 그리고 동년 9월 5일 대한 황성신문을 인수하고 한국신문사상 최초의 고금제(주식회사)로 운영을 시도하였다.

이 신문은 국한문을 혼용하였고,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중립적 논조를 취하고 있던 중 매국적인 을사 5조약이 체결되어 3천리 강토가 아등(伊藤)의 손에 넘겨지고 황실은 이름뿐인 빈 껍데기가 되어가매, 그러한 중대한 사실을 정확히 보도로 한 글자. 반 글구를 지나치지 않고 그 자세한 경위와 내용을 보도하여 국내외의 모든 국민에게 일체의 간악한 침략 행위의 진상을 폭로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저 유명한 “이날에 방성대곡한다”는 사설을 게재하여 2천만 동포가다

함께 올면서 읽었다.

이 글로 인하여 장지연은 옥고를 치렀고 황성신문은 인쇄기재를 빼앗긴 채 정간되고 말았다.

이듬해인 1906년 2월에 복간되었으며 이때 장지연은 물러나갔고 유근이 대신 사장에 취임하여 거국적인 논조로 민심을 이끌어 나갔고 매일신보와 함께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면서 일제식민지화에 대항했던 것이다.

그러던 중 1910년 10월 4일, 일제통감부의 압력으로 황성신문을 떠나게 되자 오로지 교육, 문화활동에 앞장섰다가 1920년 동아일보가 창간될 때 편집고문으로 참여, 그 창간호에 “아집(我執)의 본분과 참여” 제하의논설을 발표하였다.

또한 동년 6월에는 이상재, 한규설, 유성준, 최두선, 오궁선, 김명로 등과 함께 조선교육회를 발족, 2세 교육사업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각종 사회단체에도 적극 참여 민족의 자존, 자극, 독립의 의지를 일깨우는데 앞장섰다.

당대의 선각 언론인으로서 격랑의 한 세대를 살았던 유근 선생은 1922년, 향년 61세를 일기로 서거, 고향인 용인 노고봉 산록 동편에 영민하고 있다.

(참고: 독립운동사 제7권, 용인군, 향토문화와 전통), 이인영

유근영(柳根永)

〈독립지사〉 1897년 1월 3일 용인군 모현면 일산리에서 출생. 경성고등보통학교 4학년 재학 중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참여하였고 3월 5일에는 지도급 학생단 중심으로 제2차 독립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날 시위는 전날 4일 배제고보 기숙사에서 각 전문학교 학생대표와 중등학교 대표들이 모여 연석회의를 갖고 투쟁계획을 사전 협의한 끝에 3·5운동의 최고 지도자로써 강기석과 김원벽을 추대하였다. 물론 유근영도 이 모임에 참석하여 남대문 역전 시위를 위한 군중 동원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날의 학생단 시위 계획은 주효하여 아침 9시경부터 많은 군중이 모였고 “조선독립만세”라고 쓴 깃발을 앞세운 후 학생단체 대표 강기석, 김원벽이 체포되자 시위 주축이 무너졌고 주동학생들은 창덕궁, 대한문, 남대문 부근으로 분산, 시위를 전개하는 한편, 민족자결주의와 조선의 독립을 게재한 〈조선독립신문〉을 뿌리기도 하였다.

그런 후 이튿날 3월 6일에는 시내 각처, 헌병의 수사로 주동학생 43명이 전원 체포되었다.

일경(日警)은 이 사건을 이른바 윤익선등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재판에 회부하여 유근영은 당년 23세 나이로 실형을 받았다.

3·5학생운동은 경성고보가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친일이나 하는 집안 애들이 다니는 학교라는 인식을 빠구어 놓기도 하였다.

〈참고 : 독립운동사〉, 금병윤

유당근(柳唐根)

〈묘·생거〉 본관은 전주(全州). 조선 문신. 순조 18년(1818)년 9월 2일 은(崑)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임진왜란 때 전주에서 순절한 목계(墨溪), 복립(復立)의 후손으로 일찌기 관위에 올라 여러 관직을 거친 후 용인에 낙향하여 은거하였다.

본시 청렴으로 대를 이어온 순신(順臣)으로서 당상관의 관위에 있을 때 많은 요직을 거쳤음에도 말년에는 삼간초옥에서 청빈낙도 하였다.

고종 23년(1886) 12월 24일 68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이의 부음을 들은 임금께서는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겸 오위장(五衛將)으로 증직하였다.

그의 묘는 용인을 남리 함박산 동쪽에 있다.

〈참고 : 전주유씨 족보〉, 이인영

유복립(柳復立)

〈출생·묘·정려문〉 명종 13(1558)~선조 26(1593). 임진왜란때의 의병장.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군서(軍瑞), 호는 목계(默溪). 부제학 윤덕(潤德)의 손자. 명종 무오년 용인에서 출생하였고 관은 음직으로 종부시주부(宗簿寺主簿)를 지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외삼촌인 경상우도 관찰사 학봉(鶴峰) 김성일(金誠一) 휘하에서 전주성(晋州城)을 지킬 때 유복립을 부르며 지체없이 출진하여 여러 전투에서 적을 크게 무찔렀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김성일이 임종하면서 성을 사수하라는 유언에 따라 창의사 김천일(金千鎰) 복수장(復讐將) 고종후(高從厚), 병마절도사 황진(黃進)등과 힘을 합쳐 왜적과 싸우다가 성이 함락되자 김천일 등과 함께 자결하니. 선조

26년(1593) 6월 29일이었다.

공이 죽은 지 백여년 후에 5세손 규석(奎錫)이 비로소 전하는 이야기를 적극 수집하다가 그의 조카 우잠(友潛)을 찾았으며 축석루 밑에 부친과 함께 추제(追祭)하였다.

숙종 기해년(1719)에 이조참의(吏曹參議)로 추증되고 진주 영열사(影烈祠)에 배향되었으며 영조 기유년(1729)에 충신으로 명정(命旌)되어 정문을 세웠다.

내사면 송문리에 도암선생이 쓴 정려기가 있고 송동 뒷산에 재실과 묘가 있다.

(참고: 용인군지, 내고장의 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응준

유석망(柳碩望)

용인현령(龍仁縣令). 효종 4년(1653) 5월 용인현령에 부임하였으나 이듬해인 1654년 관내 송사(訟事)에서 오판으로 엉뚱한 사람을 옥사케 하여 파직되었다. 이로써 용인의 역대 현령중 관장이 송사처리를 그르친 현령으로서 최초가 되었다.

(참고: 용인군 시사연표), 박상돈

유성린(柳成麟)

(생거급제) 철종 12년(1860)~? 본관은 진주(晉州), 성소(聖昭)의 아들. 27세때인 고종 24년(1887) 정해정시문과(丁亥庭試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참고: 한국고사대전), 박상돈

유순정(柳順汀)

(영정) 세조 5(1459)~중종 7(1512). 조선 문신. 자는 지옹(智翁), 본관은 진주, 목사 양(壤)의 아들. 김종직(金宗直)의 문인. 어려서부터 학업에 열중하면서도 무예에도 능하여 활을 잘 쏘았으므로 무인 중에서도 그와 비교할 자가 드물었다.

성종 18년(1487) 진사로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전적을 제수받았다. 그뒤 훈련 원정으로서 전라도 지방에 침투한 왜적을 수색, 포획하는데 힘썼고 1491년 함경도평사로서 도원수 허종(許琮)의 막료가 된 뒤 평안도사를 역임하였다. 연산군이 즉위하자 사헌부 헌납으로서 임사홍의 잔학함을 논박하고 평안도 절도사 전임(田霖)의 권력 남용을 추궁하는 한편 야인문제에 대한 대책을 진언하기도 하였다.

그뒤 홍문관 교리가 되었는데 문신으로서의 활 솜씨로 특별히 부응교에 배수되었다.

이어 사헌부 집의를 거쳐 의주 목사로 나아가 압록강 연안의 야인 정벌때 도원수의 종사관으로 적정 탐지에 큰 공을 세웠다. 아울러 군사확보와 성곽수축등 군비강화에 힘썼다. 1503년에는 공조판서로 하정사(賀正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이듬해에 평안도 관찰사가 되었다. 이때에 연산군의 밤 사냥이 불편함을 진언하였다가 임사홍의 모략으로 추국당하였다.

1506년 이조판서로서 박원종(朴元宗), 성희안(成希顔) 등과 함께 중종반정을 모의 거사하여 그 공으로 정국공신(靖國功臣) 1등에 착록되고 청천부원군(菁川府院君)에 봉하여졌으며 승정대부(崇政大夫)에 올랐다. 이어 병조판서로서 영경연사(領經筵事)를 겸하여 폐지된 경연부활에 앞장섰다.

얼마뒤 우의정으로서 승진하고 병조판서를 겸하였는데 1507년 이과(李顥)등이 견성군(甄城君)을 추대하고 역모를 꾸미자 이를 처리한 공으로 정난공신(定難功臣) 1등에 다시 책록되었다. 이듬해 평안도 인산(麟山) 강계에 둔전(屯田)을 설치하여 군사(軍資)를 강화했으며, 이어 좌의정이 되어 당시 경기도 인천, 김포, 통진 일대에 강도를 체포토록 하였고 1510년 경오, 왜변이 일어나자 도체찰사가 되어 병사를 총괄하였으며 다시 도원수로서 현지 출동하여 삼포(三浦)의 난을 평정하고 각 포의 비왜방략(備倭方略)을 마련하였다.

이때 대간들로 부터 식화(殖貨)의 탄핵을 받았으나 오히려 군공을 치하받아 영의정에 올랐다. 2개월후 병사하자 시호를 무안(武安)으로 내려졌다가 문성공(文成公)으로 고쳐졌다.

용인군 모현면 일산리에 전신교의좌상(全身交椅坐像)의 초상화 1점이 전한다.

〈참고 : 한국인명대사전, 열려실기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내고장의 얼〉, 금병윤

유양기(柳養琪)

〈생거〉 1914. 5. 23~?.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2호, 군포(軍浦) 당정옥로주(唐井玉路酒) 제조 기능보유자로 1993년 10월 30일 지정되었다. 본래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塔里) 707번지 출생으로서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433-7번지에 거주하면서 전통민속

주인 옥로주(玉路酒)를 제조 재현하여 무형문화재 명칭이 〈당정 옥로주〉가 되었다. 그러다가 1994년 용인군 외사면 박곡리 169번지로 이주하였고 1994년 81세의 나이로 타계하여 지금은 그의 장녀인 유민자(柳敏子, 52)와 외손자 정재식(鄭宰植)이 그 기능을 전수받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주(燒酒)가 제조되기 시작한 연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중국으로 부터 전래되어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말기에 성행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주는 북쪽지방에서는 주로 옥수수나 수수등을 주 원료로 하여 제조하였으며, 남쪽 지방에서는 쌀이나 보리를 사용하여 가문주(家門酒) 형태로 제조하여 왔다. 문헌에 의하면 조선조 말기, 서울의 만리현(萬里峴)에 살던 이성년이라는 사람이 동판(銅板)을 이용하여 동고리(銅古里)를 일년에 약 30개 정도씩 제조하여 소주를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팔았다는 기록이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이렇듯 소주의 제조가 서울에서 부터 시작되어 차츰 남쪽으로 전래되면서 유씨 가문에서도 이무렵에 소주를 제조하게 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체로 그 연대를 1880년 경으로 보고 있다. 군포 당정 옥로주 기능 보자인 유양기 옹(당년 80세)의 고증에 따르면 유옹의 부친 유행용(1852~1932)이 젊은 시절에 전북 남원 산동에서 쌀과 잡곡을 원료로 하여 곡주(穀酒)를 빚고 토고리(土古里)로 증류하여 옥로주를 제조하였다 고 전한다.

1918년 유행용은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탐리로 이사하였으며 계속하여 가양주로 소주를 제조하였다고 이때 집 주변에 울무를 많이 재배하여 쌀과 울무를 소주의 원료로 하였고 누룩에 약 쑥을 첨가하여 술을 빚었는데 그 아들인 유양기가 그 기법을 군포에서 재현하였고 그것이 전통 민속주로 인정되어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다. 그가 타계한 후 지금은 외사면 박곡리에서 그의 큰 딸이 제조기능을 전수받아 제조하고 있다.

〈참고 : 문화재지정보고서, 경기도〉, 이인영

유언집(兪彦鑠)

〈문헌〉 숙종 40(1714)~정조 7(1783). 조선 문신. 자는 사호(士鎬), 호는 대재(大齋), 본관은 기계, 도암 이재의 문인,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세자시강원자의(世子侍講院諮議)가 되고 1778년 경연관(經筵官)을 거쳐 1783년 돈령부도정(敦寧府都正)으로 원자(元子)

를 보도(輔導),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이르러 치사(致仕)한 인물로 조중회에 이어 1782(임인)년 부터 다음 해인 계묘년 까지 제33대 총렬서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참고 : 총렬서원선생안), 박상돈

유인상(柳寅相)

제5대 용인군수. 1050년 12월 25일 부임하여 1953년 1월 15일까지 재직하였다. 이 기간 유인상은 당시 태성학원에 교편을 잡고 있던 유달영교수(5·16혁명 후 재건운동 본부장 역임)에게 의뢰하여 용인 애향가 노랫말을 짓게하고 음악교사 조승저에게 작곡을 의뢰하여 용인애향가를 만들었다. 이 기간은 한국전쟁이 한참 전개되고 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사랑 기풍을 진작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유군수는 애향운동에 선구자적 정신을 간직했던 인물로 평가된다.

(참고 : 내고장 용인 시사연표), 노승식

유 정(柳 玟)

〈생거·급제〉 고종 11년(1874~ ?) 본관은 전주. 무근(茂根)의 아들로 양지현(陽智縣)에서 출생. 고종 30년(1893) 계사정시문과(癸巳庭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참고 : 고사대사전, 용인군지), 박상돈

유진삼(俞鎭三)

〈생거·급제〉 고종 6년(1869~ ?) 본관은 천녕(川寧) 봉재(鳳在)의 아들. 고종 20년(1883) 계미식년문과(癸未式年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참고 : 용인군지, 고사대전), 박상돈

유척기(俞拓基)

〈문헌〉 숙종 17(1691)~영조 43(1767). 조선 문신. 자는 전보(展甫), 호는 지수재(知守齋), 본관은 기계, 대사헌 권철의 손자. 숙종 40년(1714)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이조참의(吏曹參議), 대사간 등을 역임하고 1758년 영의정이 되었으나 사직하였고,

1760년 다시 등용되어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가 되고 이어 봉조하(奉朝賀)가 되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간 인물로 당대의 명필로 손 꼽혔다.

말년에 민우수의 뒤를 이어 갑술(1754)년 부터 정해(1767)년까지 제29대 총렬서원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참고 : 총렬서원 선생안, 인물대사전〉, 노승식

유탁연(柳卓然)

용인현령(龍仁縣令) 현종 2년(1661) 11월에 도입하였으나 현종 4년인 1664년 균전사에 의하여 파직되었다. 균전사(均田使)는 민정을 살피고 농지의 등급을 재정하기 위하여 사(御史)로 자기가 맡은 도(道)의 수령에 대한 범죄를 문초할 때 수령이 당하관(堂下官)이면 스스로 결정하였고 당상관(堂上官)이면 왕에게 보고하여 처단하도록 하였다. 균전사에 의하여 파직된 용인현령 유탁연은 당하관(종3품) 이하이므로 균전사의 직권에 의하여 파직된 최초의 인물로 기록을 남겼다.

〈참고 : 용인군 시사연표, 용인군지〉, 금병윤

유태수(劉泰秀)

항일의병. 용인군(이하 불명)에 거주하였다.

농업에 종사하던 양민으로 당시 연령 41세였다.

용인지역에서 의병활동을 벌이다가 체포되어 의병의 목적이 무엇이나는 법정 질문에 〈일본병과 전선하여 사발한 사람을 제거하여 보국안민(保國安民)하는 것이 의병의 목적이다〉라고 재판정에서 한인 판사서리의 물음에 답하였다. 처자가 있을 불혹의 나이, 한참 사는 재미를 보고 있어야 할 착한 백성들이었다.

그는 한국 군대가 해산되고 단발령이 내려진 국운쇠망의 기운에 의분하여 의병활동에 투신하고 박춘식(朴春植)이 이끄는 의병대에 합류하여 총기를 들고 성산, 마가실등 존위(存位)집을 습격, 군사금 9백냥을 징취하였으며, 광주의 서낭청에 출동하였다가 일경(日警)에게 체포되어 융희 2년(1908) 6월 17일 10년형을 언도받고 복역하였다.

〈참고 : 독립투쟁사 별책(1), 재판기록〉, 이인영

유형원(柳馨遠)

〈묘〉 광해군 14(1622)~효종 14(1673). 조선 학자. 자는 덕부(德夫), 호는 반계(磻溪), 본관은 문화, 흙(欽)의 아들.

날때부터 북두칠성 모양의 검은 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며, 눈은 셋별처럼 빛났고 어려서 부터 산수에 능하였다.

다섯살 때부터 글 공부를 시작하여 일곱살 때에는 서경(書經)을 읽었고, 아홉살 때에는 주역(周易)에 통달했으며, 열살에 이르서는 경서의 역사책을 비롯하여 역대 명인의 문장에 이르기까지 독파하지 않은것이 없었다.

천성이 인자하고 기개가 있었으며, 담대하여 여러가지 일화를 남기고 있다. 그가 병자호란을 피하여 조부와 어머니, 고모를 모시고 원주를 가는길에 강도를 만났다. 15세 밖에 앓던 그는 길에서 도둑을 만났으나 조금도 겁내지 않고 태연하게 그들 앞에 나아가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부모가 없으리요, 너희들은 우리 부모를 놀라게 하지말고 어서 이 물건들을 마음대로 가져가거라」하니 이와같은 유형원의 태도에 감동된 도둑들은 그냥 돌아갔다.

21세때 자경사잡(自警四箴)을 지었는데 그 중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며, 관(冠)을 바르게 하고 어버이를 높히 우러르며, 어버이를 섬기되 화기에 찬 얼굴로 하고 집에 있음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귀절에 항상 부족함을 느껴, 스스로 책하고 있었다. 그는 한때 부안현 우반동에 살았는데 생선과 게가 많이 산출되는 곳이므로그는 밥상을 대할 때마다 〈……전에 가세가 빈한하여 어버이에게 좋은 음식을 올리지 못한 때가 많았는데 지금 이것이 있으나 누구에게 드리랴……〉하고 돌아가신 부모생각을 하며 눈물을 흘린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

그는 또 사람들이 미신을 따름에 썩 언짢게 여겨 무당, 판수는 집안에 들지 못하게 하고 집안 사람들을 단속하였을 뿐 아니라 이웃의 고목밑에 허름한 신사(神祠)가 있어 사람들이 많이 모여 들었음으로 그 사당을 헐어버리고 고목을 베어 버림으로서 미신타파에 앞장섰다.

또한 그는 몹시 산수를 사랑하여 우반동 근처의 아름다운 산과 들을 거닐기를 좋아했고 때로는 사슴이 노는 것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겨 천리(天理)를 숭상하였다. 그의

사상은 이와같은 조용한 환경과 초야에 묻혀 사는 서민적 생활속에서 몸소 느끼고 체험한데서 싹튼것으로 여겨진다.

유형원이 사회물정을 알게 된 17세기 중엽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기다난한 시대였다.

임진왜란(1592~1598)의 전화가 씻겨지기도 전에 병자호란(1636~1637)이 일어나 조선조의 집권체제 유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전란을 겪는 동안 많은 인명이 살상되었고 농민들의 이농(離農)현상으로 많은 토지가 황폐되었다.

토지제도는 문란해졌고 권문세가는 이 틈을 타서 부렴(賦斂)을 과중히 하여 백성을 수탈하는 반면 국가의 세곡은 줄고 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난국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야(朝野)의 당론은 격렬해 지기만 하고 관계(官界)는 부패하여 수뢰가 성행하였으며, 포교(捕校)는 백성을 침학(侵虐)하여 악행을 가하고 부윤(府尹)은 백성을 죽이는 등 국가기강이 땅에 떨어져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허덕이고 있었다.

유형원은 이러한 사회세정에서 영향을 받아 반계수록(磻溪隋錄) 집필에 뜻을 두고 제세구민(濟世救民)의 개혁론을 주장한 것이다.

유형원은 사대부(士大夫) 가문에서 태어났어도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평생을 독서와 저술로 보냈다.

30세 되던 해에는 조부의 명을 어길 수 없어 감시(監試)에 응했으며, 33세 때에는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이것은 그 당시의 사회사정이 너무나 어지러워서 관료에 염증을 느끼게 된 것이 하나의 이유였겠지만 그 보다도 그의 성품이 벼슬보다는 초야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즐기는 서민적인 기질타이였다고 하겠다. 그는 우반동에 은거하면서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그중 26권의 반계수록은 불후의 명저로 전해진다.

〈반계수록〉은 그것을 〈수득록지(隋得錄之)〉라 하여 느끼는 대로 적은 책이라고는 하지만 그 내용이 고금의 서적을 널리 인용하여 열거한 점이라든지 그의 논술이 국정(國政) 전반에 걸쳐 자세히 논증된 점으로 보아 그의 온 정력을 기울여 쓴 역작인 만큼, 단 시일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 시일에 걸쳐 편술(編述)되었다는 것이 확실하다.

유형원은 비록 관계(官界)에 나가 그의 뜻하는 바를 실천에 옮길 생각은 없었으나 그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바를,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알려 제도를 개혁하고 올바르게 이끌어 국가질서를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참뜻이 있었음은 사실이다.

숙종 4년(1678)에 그의 벗 배상유(裴尙瑜)가 반계수록 중의 7개조를 들어 그 실시를 논한 일이 있었으나 채택되지 못하였고 숙종 20년(1694)에는 노사효(盧思孝)등의 유생들이 상소문과 함께 〈반계수록〉초본 일부를 왕에게 올렸으나 아무런 환심도 사지 못하였다.

그후 영조 17년(1741)에 승지 양득중(梁得中)에 의하여 이 책이 진정되어 왕의 이목을 끌게 되고 영조 45(1769)년에는 유신(儒臣) 홍계희에 명하여 이를 간행케 하였으니, 이는 유형원이 죽은지 거의 1세기가 지난 뒤의 일이었다.

유형원이 배움에 힘쓰며 우반동에서 집필에 전념한 17세기 중엽은 조선사회에서도 새로운 조류가 움트기 시작한 때였다.

그는 이원진(李元鎭)과 김세겸(金世兼)의 두 스승에게 직접 훈도를 받았으나 그들로부터 받은 교육은 전통적인 사대부 가문의 교육이었으므로 유형원의 신사조(新思潮)형성에는 크게 도움이 된것 같지는 않다.

유형원은 저서 중에서 〈이기총론(理氣總論)〉, 〈논학물리(論學物理)〉, 〈경설문답(經說問答)〉, 〈주자찬요(朱子纂要)〉등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그의스승으로 부터받은 교육의 결정이라 하겠다.

유형원이 이룩한 새로운 사상적 기초는 주로 그가 우반동에 있을 때 탐독한 당대 평론가 들의 서적과 또 농촌에서의 농민들과의 생활속에서 짚튼 것이며, 그의 사상에 큰 영향을 준 당대의 사조로서는 청나라에서 들어온 고증학과 선조 이래에 소개된 서구의 과학적 사상들이었다고 보고 있다.

그의 저술로 알려진 〈동사강목조례(東史綱目條例)〉, 〈역사동국가고(歷史東國可攷)〉, 〈지리군서(地理群書)〉 및 〈반계수록(磻溪隋錄)〉등은 새로운 학풍의 소산인 것이다.

유형원의 사상은 오히려 그 뒤의 후계자들에게 의하여 더욱 발전을 보았는데 성호(星湖) 이익과 다산 정약용은 유형원의 학통을 계승하고 실학(實學)을 하나의 학파에 까지 크게 이끌어 성공시킨 학자들이었다.

유형원의 행장(行狀) 및 문헌에는 전북 부안군 우반동 은둔지에서 별세한 후 7개월 후에 죽산 용천리(湧川里 : 지금의 외사면 석천리) 정배산 선영 아래로 이장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한때 실전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부친 흙(欽)이 묘 옆에 고총으로 전해오다가 1971년 다시 발견되어 경기 기념물 제32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참고 : 반계선생 연보, 유교연원(장지연), 반계 유형원 연구(천관우), 내고장의 일, 이인영

유 홍(柳 泓)

〈초상〉 성종 14년(1483)~영종 6년(1551) 조선 무신. 자는 자연(子淵), 본관은 진주(晉州), 영의정 순정(順汀)의 아들. 1506년 중종반정때 부친이 큰 공을 세우자 원훈(元勳)의 아들로써 정국공신(靖國功臣) 3등에 책록되어 사복시주부(司僕寺主簿)가 되었다. 이듬해에 형조와 공조의 좌랑(佐郎)을 거쳐 중종 5년(1510) 군기시 첨정(軍器寺僉正)에 오르고 중종 6년 무과에 급제하여 사복시부정(司僕寺副正)으로 승진되었다.

중종 10년(1515)에 훈련원 부정(副正)에서 당상관에 올라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겸 오위장(五衛將)을 거쳐 중종 14년(1519) 원주목사(原州牧使)가 되었다. 중종 21년(1526) 훈련원도정(訓練院都正)으로 승진하였고, 중종 23년 충청도 병마절도사(忠淸道兵馬節度使), 중종 28년 경상도병마절도사, 중종 31년 광주목사 등을 거쳐 중종 34년 가의대부(嘉義大夫)로 승진되었고, 다시 회령부사(會寧府使)에 임명되었다. 중종 39년 진산군(晉山君)에 봉해지고 명종 원년(1546)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이르렀으며,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다.

묘는 부평부 수담리에서 원삼면 맵리로 이장하였다. 모현면 진주유씨 종가에 반영의 초상이 전한다.

〈참고 : 진주유씨 세보, 용인군지, 내고장의 일, 노승식

유 희(柳 僖)

〈출생〉 영조 49(1773)~현종 3(1837). 조선 후기 실학과에 속하는 유학자이며 음운학자. 본관은 진주(晉州), 초명은 경(敬), 자는 계중(戒仲), 호는 서파(西坡), 방편자(方便子), 남악(南嶽), 정국공신(靖國功臣) 유순정(柳順汀)의 11대손이며 부친은 역산(曆算)

과 율여(律呂)에 조예가 깊었던 현감 한규(漢奎)이고 모친은 통덕랑 이창식(李昌植)의 딸로 경사에 능통하여 태교신기(胎教新記)를 저술한 전주이씨 사주당(師朱堂)이다.

용인군 모현면 매산리에서 태어난 그는 태어난지 열달 남짓한 초여름 방안에서 실을 감기에 열중하던 사주당 이씨가 아들에게 젓먹이는 것을 감박 잊고 있었는데 어린 아들 희가 모친 곁으로 와서 젓을 찾았다.

그때 무심히 <아가 저기 실 감긴 꼬리미를 가져오면 젓을 주마>라고 하였는데 아기는 놀랍게도 말귀를 알아듣고 실꾸리미를 입에 물고 모친 이씨 앞으로 기어왔다.

이때부터 집안 식구들은 아기가 가지고 놀던것이 없어도 아기에게 조용히 묻고 했는데 이때마다 잊은 물건을 찾아와서 그 신기함이 남다른 바 있었다.

어느날 이씨가 젓을 먹이면서 보던 책 가운데 일자(一字)를 가르키며 <이것이 한일자>라고 하면서 자리에 누었다.

이때 유희는 건너방으로 기어가 책상위의 책을 입에 물고와 한일자를 모조리 읽어 보였다는 일화도 있다.

그의 나이 11세때에 이르러 부친을 잃었는데 나면서부터 특출하여 13세에 이미 시부(時賦)를 지으며, 구장산법(九章算法)을 이해하고 15세에 역리복서(易理卜書)를 꿰뚫었으며 18세때에 향시(鄉試)에 합격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 과거에 나가지 않고 37세에 충북 단양으로 옮겨 농사를 짓다가 10년이 지난 48세에 고향인 용인에 돌아왔으며 이듬해에 모친의 상을 당하였다.

53세에 누나의 권유로 과거에 세번 응시하여 생원시에, 57세에 황감제(黃柑製)에 3등 3석으로 입격(入格)하는 것으로 그쳤다.

이는 모친 생전의 훈계에서 「너의 천성이 속류에 합하지 아니하니 비록 과거에 오르더라도 용납될 수가 없다. 그러니 과거 보다는 명산에 들어가 너의 천진함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하였으므로 과거에 나가려 하지 않고 천문에서 조류에 이르기까지 정통하지 않은것이 없을 정도로 그의 학문은 깊이와 넓이를 날로 더해갔다.

특히 경학에 감심하여 성리학을 주로하고 춘추대의(春秋大義)를 본으로 삼아 경서의 주석에 전념하였다.

그의 유고로서 방대한 문통(文通) 100권이 초고로 남겨져 있었으나 지금은 행방을

알지 못한다.

그의 학문은 천문, 지리, 의약, 복서, 종수(種樹), 농정, 풍수, 충어(蟲魚), 조류등에 두루 통하였고, 특히 그 중에서도 따로 전하는 시물명고(詩物名考) 물명유고(物名類考) 언문지(彦文志)는 국어학적 시료로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찌기 실학자이며, 정음학자인 정동유(鄭東愈)를 직접 사사하여 당대의 문자 음운학에 일가견을 가지게 되었다. 30세 전후에 저술한 〈언문지〉의 원고를 분실하고 20여년이 지난 1824년 52세에 다시 저술한 것이 지금에 전한다.

이 책은 그가 일생을 통하여 할 수 있는 학문연구에서 가장 원숙한 경지에 들어갔을 때 지은 것이므로 그의 해박한 학식과 연구는 다른 사람이 전혀 생각조차 못했던 것을 파헤친 것이었다.

한편 그의 〈물명유고〉는 당시의 다양한 국어어휘 7천여 물명을 수록하여 해박하게 주석한 물보류(物譜類)로서 그 주석에 쓰인 우리 어휘는 무려 1,600이 넘는다.

〈물명유고〉는 그 섬세한 기술과 희귀한 어휘등으로 보아 가히 그의 대표적 저술로 손꼽을 수 있으며, 이로써 그를 어휘학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 한국인명대사전, 김홍식 국사대사전, 향토문화와 전통(용인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박상돈

윤 계(尹 槩)

〈충신정려문·사당〉 선조 16(1583)~인조 14(1636). 조선 문신. 자는 신백(信白), 호는 신흠(薪谷)·임호(林湖), 본관은 남원(南原), 시호는 충간(忠簡)이며 의인으로 불리웠던 윤섬(尹暹)의 손자이며 삼학사중 일인인 윤집(尹集)의 형으로 척화를 주장한 인물이다. 인조 2년(1624)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승문원 권지부정자(承文院權知副正字)·전적(典籍), 홍문관 교리(校理)를 거쳐 남양부사(南陽府使)로 있던 중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근왕병(勤王兵)을 모집하여 남한산성으로 들어 가려다가 포로가 되었고 난도질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이해 12월 충청감사 정세규(鄭世規)가 수만의 군사를 이끌고 용인의 협천(지금의 수지면 동천리)과 과천에 진을 치고 있었다.

청병의 척후병 4~5명이 와서 진의 형세가 허약한 것을 엿보고 돌아간 후 적군이 일

시에 들격해 왔다. 아군은 힘을 다하여 싸웠으나 중과부적으로 좌우진영과 중군마저 무너져 내리니 정세규는 겨우 죽음을 면하여 퇴각하고 말았다. 이때 남양부사 윤계가 흩어진 군사를 다시 소집하여 남한사성에 포위되어 있는 임금을 구하고자 하였으나 오랑캐에게 항복한 박이치(朴以致)라고 하는 자가 적과 내통하여 불의에 습격하여 왔으므로 결국 사로 잡히는 바 되었다. 그는 뜰 아래에 두개의 기(旗)를 마주 세워 놓고 대청에 팔장을 끼고 태산과도 같이 앉아 있었다. 적병이 달려들어 그를 붙잡아 강제로 무릎을 꿇기를 협박하였으나 그는 적병들을 꾸짖기를 “내 머리는 꿇을 수 있을지언정 무릎은 꿇릴 수 없다”하니 적이 매를 치고 끌고 가려 하였다. 이에 윤계는 다시 꾸짖기를 “죽어도 네 놈들을 따르지 않을 것인데 어찌서 나를 속히 죽이지 않느냐”고 말하니 적이 더욱 노하여 함부로 칼을 휘둘러 몸에는 한점의 살점도 남지 않았으며 적을 꾸짖는 말은 더욱 끊기지 않았다. 적은 그의 혀를 끊어 버리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였다. 가복(家僕)으로 살아 남은자가 이행진(李行進)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고하니 행진은 다른 사람을 시켜 그의 시신을 거두어 염습을 해서 매장하니 이때 그의 나이 53세였다. 묘갈에 <슬프다! 공과 같은 분을 두고 하늘이 쓸만한 인재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세상에 지우(知遇)를 만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미리 위험한 날에 대비할 방책과 공사간에 지치고 “쇠하여진 경우를 혼자 도맡아 처리하였다고 할만한데도 재화(災禍)와 환란(患難)은 박두하고 사세는 급하여 기세는 빼앗기고 힘은 꺾여 끝내 무(武)를 떨치고 영기를 드날려 흉악한 것을 제거하고 환란을 구제할 수 없게되어 다만 자신의 한 몸으로 의리와 분수를 다해 신명(身命)을 칼날 아래 버려 그 시신을 들판에 나뒹굴게 하였다. 하지만 입조하여서는 임금이 그 재능을 알아 주는바 있어서도 그 기백을 드러내지 못하였으니 하늘의 도리나 사람의 하는 일이 어찌그리 잘못될 수 있으랴”하였다.

효종원년에 이행진(李行進)이란 사람이 승지가 되어 자신이 보고 기억하는 윤계에 관한 사실을 임금에게 자세히 아뢰었더니 임금은 “나도 역시 들었노라. 옛날 당나라 안고경(顏果卿)이 적을 꾸짖어 이르기를 “이 버린내 나는 개같은 놈들아 어찌서 나를 속히 죽이지 않느냐”하였더니 “윤계도 그러하였다”하시고 다시 한 집안에 세사람의 충신(윤섬, 윤계, 윤집)이 난다는 것은 더욱 귀한 일이라 하였다. 1645년 충신의 정려문에 내렸고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용원군(龍原君)에 봉해졌다. 그의 위패를 안치한 사당이

구성면 청덕리에 있고 충신 정려문이 남원윤씨 종가에 함께 전한다.

(참고: 내고장의 일(이인영), 대방세가언행록, 연려실기술), 이웅준

윤병하(尹秉夏)

용인군수. 1973년 5월 7일 제22대 용인군수로 부임. 1976년 8월 4일까지 3년 3개월간 재임하였다. 이로써 윤병하는 정부수립 이후 임명직 군수로서는 최장수 재임기록을 남겼다.

군수의 재임기간은 평균 1년 4개월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참고: 시사연표, 군지), 박상돈

윤 심(尹 暹)

(사당·정려문) 자는 여진(汝進), 호는 과재(果齋), 본관은 남원이며 조선 명종 16(1561)년에 지사(地事) 윤우신(尹又新)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선조 16년(1583)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사헌부 지평을 거쳐 선조 20년(1587) 서장관(書狀官)으로 뽑혀 개정보전(改正寶典)을 나누어 받은 공으로 광국공신(光國功臣)에 책록된 인물이다.

그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박호(朴虎), 김경류(金慶流)등과 함께 이일 장군의 종사관으로 출전하여 상주(尙州) 싸움에서 전사하였다.

임진왜란의 급보를 접한 조정은 이일(李鎰)을 순변사로 임명하여 왜적을 막도록 하였다.

대명을 받은 이일은 병조에서 골라 놓은 병정들을 점검하고 보니 군사훈련이라고는 전혀 받아 본 일이 없는 백도서리(白徒胥吏)의 유생들 뿐이었다.

이들은 서로 병역을 면하고자 갖가지 핑계를 대는가 하면 개중에는 피병을 하는 자, 천치 불구를 가장하는 자 따위들이 뜰에 꼭차서 가관을 이루었다.

이일 장군은 쓸만한 인재를 고르다가 그 중에서 윤섬의 이웃 친구 한사람을 뽑았다. 그러나 그 사람은 3대독자의 외아들로써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근근히 사는 사람이었다.

이의 사실을 알게 된 윤섬은 이일 장군을 찾아가서 「그 사람은 노모 한분을 모시고

사는 외로운 사람인데다가 그 어머니가 밤 낮으로 울고 계시며, 또한 형제도 없는 외아들이니 공께서 살피주셔야 겠습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하였다.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니고 오직 친구의 딱한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으므로 스스로 그 입장을 애써 진정했던 것이다.

이일 장군은 난감해 하면서 「국가의 존망이 장차 여기에서 결판지어질 것이므로 종사관은 아주 잘 골라야 하겠는데 지금 모인 병정들의 사기와 정신력 또한 우려되는 바이고 사람마다 전투에 다다르기도 전에 서로 살기만을 꾀하니 어찌 난감치 않으리요. 그중 쓸만한 인재를 골랐는가 했으나 또한 사정이 그러하다면 참으로 딱한 일이다」라면서 탄식하였다.

이에 윤섬은 「장군께서 제 친구를 방면하신다면 시생이 그를 대신해서 장군의 수족이 되겠습니다.」라고 간청하여 허락을 받았다.

윤섬은 즉시 집으로 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하직인사를 드렸다.

이 소리를 들은 윤섬의 모친은 「너는 어찌서 우리들은 생각지 않고 스스로 죽을 땅으로 가느냐?」고 목놓아 울면서 만류하였다.

어느 부모인들 자식이 죽을 곳에 가려는 것을 보고 만류하지 않을 것이며, 늙은 부모와 처자식을 두고 떠나려는 자식인들 어찌 마음 아프지 않겠는가마는 친구 또한 귀중하므로 의리와 나라의 소명앞에 자신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윤섬의 마음은 살을 저미는 듯 아프지 않을 수 없었다.

윤섬은 노모의 무릎에 머리를 박고 고하기를 「이미 나라에 바친 몸이 되었사오니 부모의 은혜와 나라에 대한 의를 한꺼번에 행 할수는 없사옵니다. 또한 집에는 동생이 있어서 어머니를 잘 모실것이오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는 둘 중에서 하나를 잃으신다 해도 또 하나가 남겠으나 그 친구의 어머니는 하나마저 잃는다면 절손멸문으로 그 비통함이 어찌 어머니에게 비할 바 되겠습니까? 싸움터에 간다고 다 죽는것도 아니오니 기꺼이 보내 주십시오」라고 위로를 드렸다.

이를 보고 있던 아우 탕(湯)은 형의 손을 잡고 울면서 「형은 친구 어머니만 생각하고 어찌 우리 부모는 잊으려 하오」하면서 만류하였다.

섬(暹)은 뭇가짐을 바로 고치고 나서 동생의 손을 잡고 이른다.

「탕아, 그 친구의 사정을 네나 나나 한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처지이다. 형제도 없이

참으로 형편이 가궁하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집은 내가 있을뿐 아니라 나라가 위급한 때를 당하여 어찌 사사로운 정을 돌아볼 수 있겠느냐? 내가 없더라도 부모님을 각별히 보살피 드려야 할 줄 안다. 또한 내가 있음으로 조카들도 마음이 놓이는 것이니 이 형이 나라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하여다오」라고 타일렀다. 부모와 처자, 형제를 각별한 섬은 군문에 들어가 이일장군의 종사관으로서 모든 일에 충실히 보필하였다.

윤섬이 상주에 이르렀을 때 왜적이 불시에 기습해 옴으로 관군은 패하여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일은 종사관 윤섬에게 긴급 후퇴하여 후일을 도모하라고 명령하였으나 섬이 말을 듣지 않자, 「헛되게 죽기만 하는 것은 쓸데 없으니 나를 따르라」고 거듭 명령하였으나 섬은 「장차 임금을 어찌 뵈올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면서 박호, 이경류와 함께 최후까지 싸우면서 군사(軍師)가 후퇴할 수 있도록 적을 막다가 끝내는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이를 두고 후세 사람들은 삼종사(三從事)라고 하였으며, 윤섬을 두고 의인(義人)이라 하였다.

나라에서는 그의 행적을 가상히 여겨 인조 을유년(1645)에 충신정려문을 내리고 용양부원군(龍陽府院君)의 작위를 내렸으며 문렬공(文烈公)으로 시호를 내렸다.

그의 충신정려문은 구성면 청덕리 31번지에 거주하는 종가(宗家)에 전하며 가묘에는 이들 삼종사의 신위가 함께 배향되어 있다.

친구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희생한 윤섬의 이름은 이토록 청사에 빛나고 있다.

〈참고 : 열려실기술, 대방세가 언행록, 국사대사전〉, 노승식

윤여징(尹汝徵)

〈생거·급제〉 선조 29년(1596~?) 자는 기지(起之), 본관은 덕풍(德豐), 양지현에서 집(鑣)의 아들로 출생. 인조 5년(1627) 정묘식년문과(丁卯式年文科) 병과(丙科)에 응시하여 차하(次下)로 급제하였다. 관위는 부사(府使)에 이르렀다.

〈참고 : 고사대전, 군지〉, 박상돈

윤취은(尹就殷)

〈생거·급제〉 숙종 5년(1679~?) 조선 문신. 본관은 남원(南原), 택(擇)의 아들. 숙종 31년(1705) 을유식년시(乙酉式年試) 병과(丙科)에 응시하여 윤동하(尹東夏)에 이어 32명중 병과 2위에 급제하였다. 관위(官位)는 찰방(察訪)에 이르렀다.

〈참고: 고사대사전, 용인군지〉, 박상돈

윤행엄(尹行儼)

〈묘〉 자는 경보(敬甫), 호는 수묵당(守默堂), 본관은 남원(南原). 영조 임오년(1762) 사마시를 거쳐 여러차례 도읍을 다스렸고 벼슬은 목사(牧使)에 그쳤다. 그는 자태가 훌륭하고 정신과 풍채가 찬연하였다. 총명이 또한 비할데 없이 뛰어나 그의 글은 관현악에 실릴만큼 훌륭하였으며 한번 읽은 것은 외우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하루는 어두운 밤에 혼자 빈집에 들어 갔는데 귀신이 등뒤에서 왜 물러가지 않느냐는 소리를 세번씩이나 외쳤으나 놀래는 기색도없이 의연하게 서 있었다.

젊어서 향교에서 공부할 때 송준길(宋俊吉)과 송시열(宋時烈) 두 선생을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할 것을 청하는 글을 올렸다.

일찌기 배를 타고 놀이를 할 때 김진상(金鎭商), 이기진(李箕鎭), 민우수(閔遇洙), 유척기(兪拓基) 등을 따라 시문(詩文)으로 서로 응수하며 즐기니 그들은 행엄을 나라안에서 큰 선비로 허여(許與)하였다. 갑신년(1764) 영조께서 황단(皇壇: 천지에 제사지내던 단)에 제사지낼 때 특명을 내려 조두(俎豆)를 맡아 제관이 되게 하였고 1766년에는 관직을 내리고 을미년(1775)에 정5품에 기용되었다. 임금은 문열공 윤섬(尹暹)의 공훈을 생각하여 통정대부의 위계(位階)에 뛰어 오르게 하였다. 이때 대신들이 말하기를 윤모는 문학으로는 명성이 있지만 문과급제한 사람이 아닌데 곧바로 삼품의 위계로 올리는 것은 국가의 체통에 매우 애석한 일이라 하여 임금은 결국 통정계(通政階)로 뛰어 오르게 한 명(命)을 거두었다.

임금께서 조적책(糶糶策)을 발표하고 신하들의 의견을 물어 보았다. 이때 근 8조목(八條目)의 대책을 진언(進言)하였는데 그 말이 수천언에 이르렀으며 아주 적절하고 그 시대의 폐습을 바로 잡는데 꼭 알맞았다. 그래서 임금은 내구마(內廐馬)를 하사하여 은

총으로 대우함을 표하였다. 1764년 영조조에 이르러 성품과 의지가 더욱 높고 강개하되 언제나 허심탄회하고 한계를 두지 않았다.

한가하게 집에 있을 때나 공청(公廳)에 있을 때에는 기이한 언동은 없었다. 그는 일찌기 제갈량과 도연명을 흠모하여 그 초상을 보면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시를 보면 때때로 노래를 불렀다.

자신이 세상을 잘못 만나 평정치 못한 것을 애석하게 생각했지만 높은 지조와 절개를 세워 드러내려고 하였다. 또 식감(識鑑)을 자부하여 자신의 뜻에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일이 있으면 비록 권위가 있는 고관대작이라 할지라도 침을 뱉고 돌아보지 않았다.

세상에 아첨하는 무리를 보면 이를 바로 잡아 주고 나쁜 버릇은 씻어줄 생각을 갖고 있었다. 문장을 지을 때는 걸치레 하는 잔재주는 부리지 않고 한결같이 천품대로 하였다.

올바른 운(韻)과 성율(聲律)의 품격은 담담하면서도 호방하고 순박하여 위나라가 진나라로의 여러 군자들과 견줄만 하지만 기발하고 고아(古雅)하여 굳건한 기상은 이백과 두보와도 견줄만 하였다.

시(詩) 칠백편이 있는데 후세인들에게 법도가 될만하다. 여러차례 큰 고을을 맡아 다스렸으며 정당치 못한 금품으로 누를 만들지 않았고 도성 서쪽에 있는 고옥(古屋)이 비록 퇴락했지만 수리하지도 않았다.

산과 물을 좋아하여 말에 안장 없어 동쪽으로 유람할 때 강원도의 옛날 예맥 땅에 남아있는 폐허도 돌아보고 금강에 들렀다가 다시 바닷가를 따라 해돋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호남에서 영남까지 유람하고 서쪽으로는 평안도의 단군, 기자의 고적을 살펴보고 산수에서 뱃놀이 하고 묘향산에 올랐다.

일찍이 중국이 오랑캐의 청나라가 된 것을 한스럽게 여겨 누군가가 의병을 일으켜 북쪽 정벌을 하는 사람이 있을것 같으면 방패와 창을 잡고 앞장서리라 하였다. 그리하여 연경에서 오는 사람을 만나면 문득 민심의 향배를 물어보았고 밤이면 천문을 우러러보며 장탄식을 한지가 오래였다.

1738년에는 모친상을 당하여 백발에 상복을 하고 예통해 함이 좌우에 있는 사람들마저 감동할 정도였다.

끝내는 이듬해 정월 계유일(26)에 별세하니 남들은 말하기를 칠십이세의 고령이기에 삼년상을 마치지 못하였으니 이런 일은 천고(千古)를 더듬어 보아도 오직 행엄뿐 이라

고 하였다.

그가 임종한 때 말하기를 “어머님의 상도 마치지 못하고 임금님의 은혜도 보답치 못하였으니 나는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하였으나 사사로운 가정일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참고: 대방세가 언행록), 이인영

윤행임(尹行恁)

〈묘〉 영조 38(1762)~순조 1(1801). 조선 문신. 자는 성보(聖甫), 호는 석재(石齋)·방시한재(方是閑齋), 초명은 행임(行任). 용안군(龍安君) 종주(宗柱)의 손자. 용은군(龍恩君) 염(琰)의 막내 아들. 본관은 남원(南原) 정조 6(1728)년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홍문관 벼슬에 등용되고 한림(翰林) 대교(待敎)를 거쳐 문형(文衡)을 지냈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특이하여 이십도 안된 나이에 벌써 저술(著述)이 책상에 가득하였다. 그의 부친은 “우리 가문을 크게 빛낼 사람은 반드시 이 아이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열살에 부친이 별세한 후 모친의 엄격한 학문의 독려를 받고 자랐다. 그가 선산부사로 있는 장인을 문안하였을 때 그곳에서는 옛부터 도깨비가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행임이 글을 지어 잡귀가 물러 가기를 빌었더니 괴변이 끊기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일화를 남기고 있다.

1788년에 승정원 예속(隸屬)들이 싸운일이 있었는데 이때 임금은 하속들을 단속하지 못한 탓이라하고 그 책임을 전에 주서(注書)로 있던 사람에게도 있다 하여 그를 성환역(成歡驛)으로 귀양보내도록 하고 화공에게 명하여 그가 귀양길에 떠나는 모습을 그려 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마침 기호지방에 열병이 유행하여 임금은 즉시 그의 귀양을 풀도록 하여 규장각 직각(直閣)으로 복직되었다.

무오년(1798)에 모친이 별세하였다. 그가 10세에 부친을 여의고 교도(敎導)함을 받아 성취한 것은 모두 모친의 가르침이었음에 임금께서도 그의 모친의 현숙(賢淑)하심을 생각하고 특별히 거마(車馬)로 부의(賻儀)를 내리는 한편, 어필(御筆)로 묘지(墓誌)를 쓰기를 〈현숙태부인지장(賢淑太夫人之藏)〉이라 하였다.

그의 기질은 맑고 순수하며 온화하고 자상하여 언제나 기쁜 모습을 간직하였다. 남의

과실은 그것으로 해서 그 사람이 비난을 받을까 덮어 주었고 남의 착한 행실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지나칠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착한 행실을 선양(宣揚)하고 의(義)와 이(利)를 반드시 분별하였다. 평생을 춘추시대(春秋時代) 노(魯)나라의 맹지반(孟之反)이 자신의 공을 자랑하지 않은 것과 송나라 사양좌(謝良佐)가 자만심을 버리라고 한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잊지 않았다.

유고(遺稿)로 8책 16편과 동삼고(東三攷) 8권은 신라·백제·고구려의 유사(遺事)를 모아서 완성하는 한편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 이충민공실기(李忠愍公實記) 등은 왕명(王命)을 받들어 편찬하였다. 그는 경전(經典)을 교정(校訂)하면서 그 보이는 바 뜻을 같이 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자신이 승복하고 승복하지 못할 것을 논한 것이 무려 10책 21편이나 되었다. 이를 통틀어서 신희수필(薪湖隨筆)이라 하였는데 훈고(訓詁)나 명(名義)에 있어서도 정(程), 주(朱)의 설을 준수하였고 채씨상서(蔡氏尙書)와 진순(陳淳)의 예기 및 제가(諸家)의 주해(註解)는 그 오류를 분별하여 바로 잡아서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하였다. 이치(理致)를 설명하고 밝히는데도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견해가 많아 때로는 근세 중국인과 경전을 이야기할 때 그 본래의 뜻이 우연히 합치하게 될지라도 그것을 자기 수양의 도정(道程)으로 돌렸으며, 남이 보지않는 혼자만이 있을 때라도 자기 몸가짐에 신중을 기한다는 신독(慎獨)에 충실하였으니 신독이란 바로 자기자신을 기만하지 않는 것으로 부터 시작된다고 하면서 이르기를 ‘나같은 소자(小子)가 성현의 글을 읽고 그것을 깊이 체득해 본받고 실천하지 못하니 참으로 자포자기하는 것이라 하겠다고 하였고, 알면서 배우지 않는것도 기만이요, 배우고도 힘써 행하지 않는것도 기만이다. 누구를 기만하는 것이냐 하면 마음을 기만하고, 하늘을 기만하여, 선왕을 기만하는 것이다’ 하였으며 남을 속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불기현(弗欺軒)이라 당호(堂號)하고 또 좌우명(座右銘)을 지어 스스로 경계하였다.

1794년 정리사(整理事)가 되고 1800년 정조가 죽자 제술관(製述官)으로서 왕의 시장(諡狀)을 썼다. 이해 순조가 즉위하자 이조판서에 올랐고 이어 양관대제학(兩館大提學)이 되었다. 이해에 정순왕후가 시파를 추방하기 위하여 일으킨 신유박해(辛酉迫害)로 강진현 신지도(薪智島)에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나와 전라도 관찰사에 기용되었으나 척신 김조순의 상소로 투옥되어 참형을 당했다. 그의 묘소는 구성면 창덕리에 있다.

<참고 : 한국인물대사전, 대방세가언행록, 금병운

이관영(李寬永)

양지현감(陽智縣監). 헌종3년(1837) 8월 도입하였다가 현종 7년(1841) 아산군수(牙山郡守)로 승진하였다.

역대현감중 군수로 승진한 예로서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

〈참고: 용인군 시사년표〉, 박상돈

이 계(李 啓)

〈묘〉 증중 23(1528)~선조 16(1583). 조선 문신, 자는 경담(景臈), 본관은 연안, 천성이 총명하여 말을 배우기 전에 글자를 해득하였다. 선조가 즉위하였을 때 기묘사화에 화를 당한 제현을 포증(褒贈)하기를 청하여 이 일이 허락되자 기묘록에 기록되었다. 임진왜란 때에는 선조 임금의 서순하차 도보로 행재소(行在所)에 이르러 삼등현령(三登縣令)을 임명받아 군사를 다스리고 양곡을 조발(調發)함에 적당히 하고 백성을 무마하여 일경(一境)이 안연(安然)하였다. 묘는 묘현면 능원리에 있다.

〈참고: 연안이씨 세보〉, 금병윤

이경민(李景閔)

〈생거급제〉 숙종 26(1700)~?. 조선 문신, 자는 효백(孝伯), 본관은 연안(延安), 만림(萬林)의 아들. 영조 23년(1747) 식년문과(式年文科)에 병과(丙科)에 응시하여 급제한 후 병조좌랑(兵曹佐郎)을 거쳐 찰방(察訪)을 역임하였다.

〈참고: 고사대사전, 용인읍지〉, 이인영

이경석(李景奭)

〈문헌〉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 자는 상보, 호는 백헌(白軒), 덕천군의 6대손이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인조를 호종하여 남한산성에 들어갔다. 인조가 항복하고 산성을 나온 뒤 도승지에 발탁되고, 예문관제학을 겸임, 삼전도(三田渡) 비문을 찬진하였다.

1646년 효종의 북벌정책이 청나라에 탄로되자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 극형에 처하게 되었으나 국왕의 간청으로 목숨을 부지하였고 판교의 석문에 은거하였다.

평생을 소학과 논어를 거울삼아 수양하였는데 문장과 글씨에도 뛰어나 칭송을 들었다.

조익에 이어 제4대 총렬서원 원장을 지냈는데 이 시기는 판교에서 은둔할 시기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참고: 총렬서원 선생안〉, 노승식

이경선(李慶善)

〈출생〉 생몰미상. 인조 14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감포현감(藍浦縣監)이 되어 차사원(差使員)으로 식량을 운반하다가 험천(險川: 지금의 수지면 동천리 머내)에서 전사하였다.

예조참의(禮曹參議)에 추증되고 영조 6년(1730) 충신으로 표정(表旌)되었다.

〈참고: 용인읍지〉, 박상돈

이경장(李敬長)

〈묘〉 성종 13(1482)~명종 16(1561). 조선문신, 자는 흥중(欽仲), 본관은 연안, 혼(渾)의 아들. 어려서부터 학문을 독실히 하여 중종 14(1519)년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중종 29(1534)년에 문과에 발탁되어 성균관 전적(典籍)을 거쳐 형조좌랑과 사관(史官)의 직무를 겸하였다. 그후 예조(禮曹)에 전임되었다가 호조좌랑(戶曹左郎)으로 승차되어 어사직함을 가지고 명나라에 갔다가 돌아와서 강원도사(江原都事), 승문원 교감, 사예를 역임하다가 평해군수(平海郡守)에 나아갔으나 병으로 사퇴하였다가 종부시검정(宗簿寺僉正), 성균관사성(成均館司成), 청송부사(靑松府使) 등을 역임한 후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오위장(五衛將)을 겸하였다. 명종 16년 졸하니 향년 80이었다. 묘는 모현면 능원리에 있다.

〈참고: 연안읍지 세보, 연이선적고〉, 금병윤

이경재(李景在)

〈문헌〉 정조 24(1800)~고종 10(1873) 조선 문신. 자는 계행(季行), 호는 송서(松西), 소은(紹隱), 본관은 한산, 순조 22(1822)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규장각 직각(直閣), 예문관 제학(提學), 이조참의 등을 역임. 현종때 대사간, 이조참판, 부제학 등을 지내고 대사헌이 되었다.

1849년 철종이 즉위하자 사은사(謝恩使)로 청나라에 다녀왔고, 후에 영의정에 오른 후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경신(1860)년부터 임신(1872)년까지 제43대 충렬서원 원장의 직함을 남겼다.

〈참고 : 충렬서원 선생안〉, 박상돈

이경증(李景曾)

〈출생·묘〉 선조 28(1595)~인조 26(1648) 조선 문신. 자는 여성(汝省), 호는 송음(松陰), 본관은 덕수(德水)로 절도사 원(苑)의 증손이며 군수 통(通)의 아들. 이조참판(吏曹參判) 경헌(景憲)의 아우이며 권필(權鞭)의 문인으로 광해군 5년(1613) 진사가 되었으나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 낙향하여 두문불출하였다.

인조반정(仁祖反政)후 재량(齋諒)으로 천거되었으나 사환하지 않고 인조 2년(1624) 알성시(謁聖試)에 장원급제하여 전직에 제수되었다. 후에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 사헌부 지평(持平)을 지내고 수찬(修選), 장령(掌令), 교리(校理), 사간(司諫) 등을 거쳐 인조 13년(1635) 의정부 사인(舍人)이 되었다.

이듬해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남한산성으로 왕을 호종하고 병방승지(兵房承旨)로 공을 세워 인조 15년(1637) 도승지에 오르고, 이어 병조참판(兵曹參判), 대사간(大司諫)에 승진되었다. 인조 18년(1640) 병조판서를 거쳐 이듬해 지중추부사(知中樞府使), 예조판서(禮曹判書)에 오르고 인조 22년(1644) 이조판서가 되었다. 인조 24년(1646) 시관이 되어 출제한 시제(詩題)가 시회(時諱)에 저촉된다 하여 삭직되고 문외출송(門外黜送)당하여 강교(江郊)에서 은거하다가 죽었다. 효종 즉위년(1649) 신원되었고 묘는 기흥읍 영덕리에 있다.

〈참고 : 용인군지, 경기인물지〉, 최희면

이경호(李景祐)

〈출생·묘〉 자는 효석(孝錫), 초명은 경조(景祚)이다. 본관은 용인(龍仁)으로 1705(순종 31)년에 좌의정 보혁(普赫)의 아들로 태어나 1779(정조 3)년에 세상을 떠났다. 1735(영조 11)년에 생원으로 뽑혀 충주목사에 오르고, 1753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1762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인양군(仁陽君)으로 습봉(襲封)되고, 경기도 관찰사로 나갔다가 호조, 예조, 병조판서, 좌참찬(左參贊), 판의금부사(判義金府事)를 역임하고, 70세에 이르러 아들 재협(在協)의 영귀로 승록대부(崇祿大夫)의 품계에 오르고 기사(耆社)에 들어갔으며, 보국승록대부(輔國崇祿大夫),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영조가 그를 평하여 [화려함이 없고 사무에 능통하다]고 하니 그는 이것을 영광으로 여겨 거처하는 방에 [무화(無華)]라는 액자를 만들어 걸었다.

〈참고: 한국인물사〉, 이용준

이경환(李瓊煥)

〈출생·묘〉 1924~1989. 호는 내천(乃天), 본관은 안성(安城), 우국지사(憂國志士) 덕순(德淳)의 아들로 1924년 11월 15일 용인읍 김량장리 194번지에서 출생하였다. “매사에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덕을 쌓으라. 무슨 일이던 반드시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忍之爲德 事必歸正)”는 것으로 평생의 좌우명을 삼았다. 그는 용인이 낳은 준재(俊才)로서 서울 경복공립중학교를 거쳐 1944년 4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본과를 졸업하였고 1945년 5월 일본 〈구마모토〉 육군사관학교 재학중 해방을 맞은 뒤 귀국하여 1950년 5월 다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를 졸업하였다. 그는 화려한 학력과 명석한 두뇌, 명문거유(名門巨儒)의 후손인 사회적 신분 등으로 마음만 먹었다면 중앙의 정(政), 재(財), 학계(學界)에 얼마든지 진출하여 일신의 영달과 출세의 길로 나설 수 있는 역량과 여건이 주어져 있었음에도, 1950년 태성중학교 평교사의 길을 택하여 젊은 시절의 넘치는 포부를 버리고 그의 높은 학식을 오직 향리 2세 교육의 밑거름으로 바쳤다는 사실은 용인 지역사회에서 높이 평가하고 사표로서 만들어 기억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 되었다.

그 당시 용인의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하였다. 특히 중등교육기관으로서 유일했던 사립 태성학원은 운영, 발전, 모든 단계가 고난과 역경의 점철이었다. 특히 신분보장이 되

어있지 않은 교육환경에서도 그 길을 떠나지 못했던 것은 오직 농촌에서 자라는 청소년 교육진작과 지역사회 교육발전을 위한 오직 하나의 사명감 때문이었으니 그는 진정 이 고장을 위해서 살다간 상록수였으며, 애향의 선구자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후, 평교사를 거쳐 10년 후인 1962년 3월 태성중고등학교 교장에 취임한 후, 25년간 그 직에 머물렀으며, 1985년 12월 공로 퇴임때까지 1대로부터 6대에 이르는 용인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용인라이온스클럽 회장, 용인군 협동장학회 위원장겸 용인군 교육회장, 용인군 사회정화추진협의회회장 등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1968년 우수교장 표창 수상, 1974년 국가유공 국민장(國民章) 훈장을 받았고, 1989년 11월 16일 타계, 용인군 수지면 신봉리 선영에 안장되었다. 그는 항일독립지사의 아들로 태어나 선친의 유지와 충정을 받들어 투철한 민주이념으로 사학협동체제 확립과 범국민적 교육수준 평준화와 의식개혁에 사표가 된 국가유공인사중의 한사람으로도 기록을 남겼다.

〈참고: 제적부, 한국인물사〉, 이인영

이귀령(李貴齡)

〈묘〉 고려 충목왕 1(1345)~세종 21(1439).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 자는 수지(修之), 호는 계은(桂隱), 본관은 연안(延安), 전공판서(典工判書) 원발(元發)의 아들, 호조판서 귀산(貴山)의 형이다.

고려말에 판선공시사(判繕工寺事)와 청주 등지의 관군만호(官軍萬戶)를 지냈다. 1392년 태조가 조선을 개국하고 즉위하자 잡저 때의 공으로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이 되었다. 1394년 중군사마(中軍司馬)를 거쳐 형조와 예조의 전서(典書)를 지냈고 지방으로 나아가 길주도안무찰리사(吉州道按撫察理使)와 동북면 도순문병마절제사(都巡問兵馬節制使)를 지냈다.

태종 때에는 원종공신으로 두번이나 명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왔으며, 태종 16년(1416) 좌의정에 올랐다가 사직한 후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세종 21(1439)년 6월 6일에 하세하니 향년 94세였다. 그의 부음을 전해들은 임금은 친히 명을 내려 예장(禮葬)케 하고 강호(康胡)라는 시호(諡號)를 내렸다.

그의 성망(盛望)은 일세에 빛났으나 말년에는 용인에 퇴거하여 하동촌(下東村) 내곡(內谷)에 은둔하면서 한사(寒士)로서 자적하며 쌍괴목(雙槐木)을 심고 누후에

은거하니 사람들이 그 나무를 상공괴(相公槐)라 하였는데 그때의 지명은 이동면 덕성리 “쌍괴”마을에 아직도 전하고 있다.

그의 묘는 부친 원발의 묘 서쪽 해좌(亥坐)에 있다.

(참고: 국조인물고, 한국인명대사전, 경기금석문집 제5집), 이용준

이규연(李圭淵)

〈출생·묘〉 1881~1950. 본관은 경주(慶州), 추영(秋榮)의 아들. 용인군 구성면 마북리에서 출생, 천성이 영민(英敏)하였고 재능이 있어 주위의 칭송을 들었다.

유년시절에 이미 효경사서(孝經四書)를 완독하였고, 제자백가(諸子百家)에 모르는 바가 없었다. 관(官)은 내부사상선(內府事尙膳)을 지냈다. 또한 효우(孝友)가 극진하여 이웃과 근동에서 칭송을 들었다. 평소 의협심이 강하고 공익심(公益心)이 돈독하여 어려운 이웃을 구휼하는데 힘썼고 검소 절용하여 치산(治産)하였다. 경술국치 이후 향리에 퇴거하여 은둔하면서도 망국의 한을 풀 길이 없자, 2세 국민의 영재교육이 국력배양의 첩경이라는 신념아래 구성에 학교를 설립키로 결심하고 혼연히 사재를 털어 1935년 구성보통학교를 설립하였다.

그의 덕을 칭송하는 기념비(記念碑)가 있으니 명(銘)에 〈칭년 제자(弟子)를 위하여 상서(庠序)인 학교를 설립하였네/옛 성인들이 그런 일을 하였는데/공(公) 또한 그런 일을 하셨도다/모두의 소리를 모아 함께 칭송하는 소리를 한조각 돌 위에 뜻을 붙였네/덕을 세우고 이름을 천추(天秋)에 있게 하니 그 명예는 영원히 전하리리다〉라고 하였다. 1950년 10월 16일 향리에서 수를 마치니 향년 71세였다. 묘는 구성면 마북리 뒷산에 있다.

(참고: 묘갈), 이인영

이규헌(李奎獻)

〈효자: 정려문〉 본관은 전주, 조선 정종의 10째 아들 덕천군(德天君)의 10세손이며, 현종 기유년(1669) 좌승지 진하(鎭夏)의 아들로 출생했다. 성균관 진사를 거쳐 37세되던 해인 숙종 을유년(1705) 사마시(司馬試)에 응시하여 급제하였다.

그러나, 이 해에 부친이 득병하여 자리에 눕게 되자 규헌은 벼슬을 버리고 곧 낙향하

여 부친의 환우를 돌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우들은 중년 급제로 벼슬길에 오른 백형의 낙향을 반대하면서 부모를 돌보는 일은 형제들이 서로 도와 할 터이니 집안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말도록 당부하였으나, 규현은 이를 물리치면서 비록 입신양명이 중하다 할지라도 장자의 도리를 저버릴 수 없다 하여 끝내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해 겨울 부친의 병세가 더욱 깊어감에 몸소 시탕 간병하고 부친이 원하는 모든 음식을 어떻게든 구하여 상에 올렸다. 하루는 그의 부친이 잉어찜이나 한번 먹고 싶다는 말을 하였으므로 10리나 떨어진 청미천으로 나아가기는 하였으나 때마침 얼음이 뒤덮여 도저히 이를 구할 방도가 없었다. 다시 10리길을 맨발로 뛰어가 큰 내에 이르러서 얼음을 깨어내니 큰 잉어가 튀어 나왔으므로 부친의 원하는 바를 행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부친이 운명하자 슬퍼함이 어린 아이와 같았으며 거상에는 3년동안 여막에서 시묘하였고, 함부로 말하거나 웃는 일은 하지 않았다. 부친의 간병에 벼슬도 초개처럼 생각한 그의 효심에 감동하여 이를 칭송하는 소리가 일세에 자자하였다.

영조 신해년(1731) 63세를 일기로 하세하여 모리(慕里) 갑자좌(甲子坐)에 장사하였으나 그의 뛰어난 효행을 흠경하여 사림이 주청하였으므로 조정에서는 영조 계해(1743)년 그의 고향에 효자 정려문을 내리고 작설지전을 베풀어 사헌부 지평(持平)으로 증직하였다.

용인군 외사면 옥산리 상산마을에 효자 정려문이 전한다.

(참고: 전주이씨 족보, 삼강행실록, 내고장의 일), 이용준

이금만(李今萬)

용인군(이하불명)에 거주하였다.

항일의병 당년 23세의 청년으로 의병 윤성필(尹性弼)의 휘하에서 활약하던중 1907년 7월 헌병분파소를 습격하여 일본인 순사 2명과 일본여인 2명을 사로잡아 총살하는 현장에 참여하였다.

그후 의병대에서 월 8원의 여비를 지급받으면서 융희 2년(1908) 1월 28일 용인군 두미동(지금의 남리 옥현)에서 현금 60원을 징취하였다가 체포되어 반란 종속범의 죄목으로 1차 종신형을 언도받았다.

이금만은 판사 심리에서 <의병의 목적은 현 정부가 일본인을 일체 토벌하고 국권을 회복토록 하는데 있는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참고: 독립운동사 별책(1), 재판기록 참조>, 이인영

이 기(李 巖)

묘,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성종 24년(1493)~명종 2년(1547). 조선 문신. 본관은 연안, 자는 사고(士高), 호는 정현(靜軒), 대호군 수장(壽長)의 아들. 조광조의 문인으로 중종 8년(1513) 진사가 되고, 중종 14년(1519) 전순인(全舜仁)등 18명과 함께 식년문과 병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권지부정자가 되었으나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이에 연루되어 유인숙(柳仁淑)과 대죄하였다가 사면되었다. 중종 16년(1521) 기사관을 거쳐 중종 22년(1527) 사헌부 장령이 되었다.

이어 세자시강원 필선. 보덕이 되었고 중종 24년(1529) 경차관(敬差寬)을 거쳐 사간이 되었다. 그후 중종 35년(1540) 사옹원을 거쳐 중종 39년(1544) 군자 감정이 되었으나 교만하다 하여 체임되었다.

1545년 인종이 즉위하자 절충대호군(折衝大護軍)을 거쳐 예빈시정(禮賓寺正)이 되고 명종 원년(1546) 이조참의로서 진헌사(進獻使)가 되어 명나라에 종이를 바쳤다.

이때 명나라 황제는 그에게 칙서를 내리고 은량(銀兩)과 저사(紵絲)를 주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산해관(山海關)에 이르러 칙서를 담은 농(籠)을 차부(車夫)에게 도적맞아 황제의 칙서를 유실한 죄로 체직되었다.

당시 도중에서 병을 얻어 거동이 불편하였고, 또 하절사신(賀節使臣) 장세호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명나라 황제로부터 잃어버린 칙서를 보충해 옴으로써 사면되었다. 그후 첨지중추부사가 되었고 경종 2년(1547) 천수를 다하여 모현면 선영하에 묻혔다.

<참고문헌: 연려실기술, 대동야승,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노승식

이길보(李吉甫)

조선시대의 문신. 본관은 용인으로 청백리(清白吏)인 백지(伯持)의 증손이며 부사(府使) 효검(孝儉)의 아들이다. 진사(進士)에 올라 세조 3년(1457) 별시(別試)에 을과(乙科)로 급제하고 세조 12년(1466) 중시(重試)와 동년의 발영시(拔英試)에 합격할 정도로 문

명(文名)이 높았으며, 형제인 개보(介甫), 우보(祐甫)도 문과(文科)에 급제하였다. 묘는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에 있다.

〈참고 : 용인이씨 세보〉, 이응준

이길권(李吉卷)

〈출생〉 신라 효공왕 8년(904)~고려 목종 11년(1008). 고려 문신. 용인에서 선비 원(援)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본래 타고난 성품이 강직하고 도량이 넓으며, 재능이 특출하고 학문을 즐겼는데 특히 천문(天文)과 지리(地理)에 도통하였다.

당대의 유명한 도승(道僧) 도선대사(道詵大師)가 그를 처음 보고 “이 분은 왕을 도와 큰 일을 할 재량(才量)이 많은데 어찌 지방에 묻혔는가”라고 하였는데 이때부터 서로 친하게 사귀며 학문을 닦았다.

때는 신라 말엽이라 각지에서 군웅이 할거하여 국운이 쇠할 무렵으로, 고려 태조 왕건(王建)이 누차 이길권을 초빙함으로 이에 응하여 함께 국란을 수습하게 되었다. 즉당이 후백제의 견훤(甄萱), 태봉(泰封)의 궁예(弓裔)를 섬멸하고 동예(東裔), 고부이(古扶伊), 오환(梧桓)등을 통합하여 고려를 건국하게 되었다.

길권은 고려 건국에 공로가 컸기 때문에 고려 태조가 즉위(卽位)한 후 이르기를 “옛날 주(周)의 대업을 도운 여상(呂尚)이나, 한(漢)을 개국할때 도운 장자방(張子房)의 공보다 용인의 이길권의 공이 더 컸다”고 하며 고려 건국의 공로로 식읍(食邑) 5백호를 내리고 산성군(山城君)으로 봉(封)하였다.

그러나 길권은 자신의 영달을 위한 벼슬을 생각지 않고 오직 겸양의 마음으로 하사(下賜)한 녹을 받지 않고, 말하기를 “신은 뭇 나무를 하고 나물을 뜯으며 산골에서 청백(淸白)히 살지, 후한 녹은 마음의 짐이 되니 내 어찌 받으리요”하고 사양하였다.

고려 태조는 더욱 그의 덕품(德品)을 추앙(追仰)하여 구성백삼한벽상공신삼중대광승록대부대사(驛城伯三韓壁上功臣三重大匡崇祿大夫太師)로 삼고, 능선각(能善閣)을 제(題)하여 공신으로서 최고위로 정하였다.

또 길권은 고려 태조의 누님인 장공주(張公主)를 맞이하여 고려조의 부마가 되었다. 그는 벼슬을 뜯 구름과 같이 생각하고 고향인 용인에 돌아와서 청렴하게 살다가 서기 1108년 하세하니 수 106세였다.

나라에서는 생전의 공을 기려 안곡공(安穀公)이라 시호(諡號)를 내렸다. 그후 후손들이 그를 용인 이씨의 시조로 하고 세계(世系)를 이어 오고 있다. 문헌의 기록으로는 그의 묘소는 기흥읍 영덕리마을 뒷산이라 하였으나 실전되었으며 영덕리에 시조단이 있다.

(참고 : 향토문화와 전통(용인군), 용인이씨 세보), 이용준

이단상(李端相)

(묘) 인조 9년(1628)~현종 10(1669) 조선 문신. 자는 유능(幼能), 호는 정관재(靜觀齋), 서호(西浩), 본관은 연안, 대제학(大題學) 명한(明漢)의 아들. 인조 26(1648)년 진사시(進士試)에 장원한 후 이듬해 정시문과(廷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여러 관직을 거쳤고 효종 6년(1655) 사가독서(賜家讀書)하였다. 후에 대간(大諫)을 거쳐 청풍부사(淸風府使)를 지내고 1658년 응교(應教)가 되었다. 그후 인천부사가 되었으나 곧 사퇴 양주에서 학문연구에 힘썼다. 문하에서는 아들인 이희조(李喜朝)와 김창협(金昌協), 김창흡(金昌翕), 임영(林泳)등의 쟁쟁한 학자가 배출되었다.

김주항(金奏恒)이 그의 묘지명에 쓰기를 「대개 유능이 서거함으로 내가 친구가 없는 것을 슬퍼하니, 친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나를 아는 사람이 없음이라. 유능이 홀로 나를 알 뿐이요, 나도 유능을 아는 것으로 자처하니 어찌 내가 슬프지 아니하리오」 하였다.

또한 유능이 나면서부터 명망이 일세에 중하여 세상에서 유능을 아는 자가 처음에는 그 사화(詞華)를 추중(推重)하고 다음은 그 충신(忠信)을 가상(嘉尙)하고 그후에는 그 팔태(恬退)함을 높이 여기고 그 종말에는 진수(進修)하는 독학(篤學)을 숭배하나 그의 입심용력(立心用力)이 높고 원대한 것은 유능을 아는 사람이라 하여도 반드시 다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소시(少時)에 시주(詩酒)를 좋아 하였으나 구습을 통절하여 한만(閒漫)한 음영(吟咏)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과 수작하지 아니하면 역시 술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외모가 수척하고 몸이 약하였으며, 또 병이 잦아 의복을 감당치 못할 지경이라도 정신이 혁혁하여 사람에게 비치고 서로 말하면 음성이 관옥같이 명랑하였다. 평생에 검소하여 재리를 보면 몸이 더러워질까 하므로 비록 곤박하다고 하여도 변함이 없고 더욱 여색을 경계하여 암매한 자리에서도 결코 해이하지 않았다.

생전에 사례집람(四禮集覽), 사례비요(四禮備要), 성현통기(聖賢通紀), 정관재집(靜觀齋集) 등의 유고를 남겼다.

현종 10년(1669) 기유년 9월에 졸하니 득년 42세이다. 이조판서에 추증(追贈)되었고 양주의 석실서원(石室書院), 인천(仁川)의 학산서원(鶴山書院)에 배향되었고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그의 묘는 모현면 왕산리에 있고, 김수항이 찬한 신도비가 있다.

〈참고 : 한국인물사전, 연이선적고, 묘갈〉, 금병윤

이 담(李 湛)

〈출생〉 증종 5년(1510)~선조 8년(1575). 조선 문신, 학자, 서화가, 본관은 용인, 자는 중구(仲久), 호는 정존재(靜存齋), 행검(行儉)의 증손, 적(績)의 손(孫), 종유(宗莚)의 아들. 12세때 부친을 여윈 그는 편모 슬하에서 학문에 전념하였고 한훤당 김굉필 문하에 들었다. 경재(敬齋) 경세인(慶世仁)의 딸과 결혼한 뒤 장인을 사사(師事)하고 천문, 지리, 복술, 활쏘기, 서화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재능을 익히고 계발하였다.

증종 33년(1538)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한 뒤 사간원 정언(正言), 홍문관 수찬(修撰), 사헌부 지평(持平) 등을 역임하고 명종 즉위년(1545)에 서장관(書狀官)으로 중국의 연경에 다녀 왔다. 이때 중국의 학자들은 그의 인물됨에 감탄하였다. 이담은 비록 대신이라 할지라도 비행이 들어나면 날날히 상소하거나 논박하였다. 그가 정언으로 있을 때 재상으로 있던 이기(李芑)의 비행을 논박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었다.

그런데 그가 을사사화때 관직을 삭탈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난날 자신의 비행을 논박했던 이기의 보복을 받았던 때문이다. 이기는 그가 관직만 삭탈되고 귀양보내지지 않은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증종 2년(1547) 소위 양재역벽서(良才驛壁書) 사건에 연루시켜 무고한 다음 끝내는 양산으로 유배시켰다.

명종 20년(1565), 18년만에 옛 관직을 되찾은 그는 이듬해 사복시검정(寺僕寺僉正)을 거쳐 사성(司成)을 지냈으며, 선조 즉위와 함께 홍문관 부응교(副應敎)로 천거되었다. 부응교로 있으면서 그는 수시로 임금에게 나아가 유학을 장려하여 선정을 베풀어 줄 것을 간언하는가 하면 사화로 말미암아 침체된 선비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어야 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그후 선조 임금은 이담의 말을 옳게 받아들여 조광조에게 문정공(文

正公)이란 시호(諡號)를 내려주는 한편 선비들을 예우하였다.

이담은 제술관(製述官)으로 임명된 다음 명종실록(明宗實錄)의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명종 22년(1567) 홍문관 전한(典翰)으로 등용되었고 이후 사간원 사간(司諫), 승지(承旨)를 거쳐 선조 7년(1574) 병조참의(兵曹參議)에 제수되었다.

성리학자(性理學者)로 이황(李滉)을 사숙하였고 저서로 독서연주(讀書鉛朱), 정존수필(靜尊隨筆), 정존재집(靜存齋集)을 남겼으며 선조 8년(1576) 65세를 일기로 타계하니 선조는 각신(閣臣) 노수신(盧守愼), 유희춘(柳希春) 등을 보내어 조문하고 관곽과 장제를 하사하였다.

묘는 파주군 백운산에 있다.

〈참고 : 한국인명대사전, 해동명신록, 경기인물지, 최희면

이대수(李大秀)

양지현감(陽智縣監), 선조 26년(1593) 9월 양지현감에 임명되어 도입하였으나 임진왜란의 전시(戰時)중으로서 양지현은 안성군수(安城郡守)의 전시관할 겸찰(兼察)구역으로서 임무를 부여받지 못한 수령이 되었다.

〈참고 : 용인군 시사연표, 용인군지, 박상돈

이덕균(李德均)

항일만세 주동. 생몰 1879.10.17~1955.8.27.

용인군 수지면 고기리에 살았다. 당시 구장(지금의 이장)으로 안종각(安鍾珪)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를 계획하고, 이튿날인 3월 29일 오전 8시경 마을사람 1백여명을 규합하여 독립만세를 소리높여 부르며 시위행진중 다시 동천리(東川里)에서 주민 1백여명과 합류하여 동일 오후 2시경 풍덕천리 일대를 돌면서 시위를 주도하다가 피체되었다.

이로 인하여 동년 4월 2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언도받았고, 동년 5월 2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8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31운동실록(이용락),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독립유공자공훈록(국가보훈처), 이인영

이덕순(李德淳)

〈출생·묘〉 1881~1959. 본관은 안성(安城), 종선(鍾善)의 아들. 1881년 6월 4일 수여면 김량리에서 출생하였다. 한국 발상(發祥)의 천도교(天道教) 신앙에 전념하였다. 병술국치 이후 가사와 생업을 전폐하고 민족의 애국심 고취와 자주독립 쟁취에 선각자가 되어 비밀결사의 항일투쟁 운동인 황해도 사건에 가담하였다가 혹독한 고문과 옥고를 치렀다. 해방 후에 용인 고향에 살면서 생업에 종사하던중 1959년 3월 3일 78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묘는 수지면 신봉리에 있다.

〈참고 : 한국인물사〉, 이인영

이만상(李萬相)

〈묘〉 광해 14(1622)~인조 23(1654). 조선 문신, 자는 상여(相如), 인조 20년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다. 이때 그의 부친이 시험관으로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모두 만상이 1등을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당연히 장원이 될 실력을 갖추었으나 시사(試士)를 관장하던 부친 백주(白州)는 중의(衆議)를 물리치고 그의 아들인 만상을 2등에 처하였다. 불행이 약관에 요절하였으나 친품이 수미(粹美)하고 현할(軒轄)하여 어려서부터 사람이 다 대기(大器)로 기대하였다. 또한 총명이 절인(絶人)하여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한번 보면 다 기억하였고, 그가 저작한 시문(詩文)은 모두가 아려(雅麗)하고 풍도가 있었다. 그는 이미 부친의 병구환에 초심(焦心)하고 친상에 몸을 상하여 필경은 요절하게 되니 사람이 다 그의 마음을 슬퍼하였다. 묘는 모현면 능원리에 있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참고 : 연이선전고, 연안이씨 세보〉, 노승식

이만성(李晩成)

〈출생·묘〉 효종 10(1659)~경종 2(1722) 조선 문신. 자는 사추(士秋), 호는 귀락당(歸樂堂), 행호거사(杏湖居士), 본관은 우봉(牛峯), 우의정 숙의 아들로 지평(持平) 흠(翕)에게 양자되었다.

숙종 20년(1694) 진사시에 오르고 숙종 22년(1696) 청시문과(廷試文科)에 장원급제한

후 전적(典籍), 좌랑(佐郎)을 거쳐 지평(持平)으로서 지제조(知製教)를 겸하였다.

그후 교리(校理), 응교(應敎), 동부승지(同副承旨), 이조참의(史曹參議), 대사성(大司成) 등을 역임하고 숙종 32년(1706) 대사헌(大司憲)으로서 승문원(承文院) 제조(提調)를 겸임하였다.

숙종 35년(1709) 다시 대사성에 임명되어 영의정 최석정(崔錫鼎)이 지은 예기류편(禮既類編)에 주자의 글귀를 고친 것을 지적하고 그 죄를 논핵하다가 왕의 미움을 받아 삭직되었다.

이듬해 이조참판으로 복직되고 숙종 42년(1716) 경기도 관찰사를 거쳐 경종이 즉위하자 형조판서(刑曹判書)에 등용되어 노론의 대신들과 세제(世弟: 영조)의 책봉을 주청하여 실현하였으나 그해 소론이 일으킨 신임사화(辛壬士禍)로 부안(扶安)에 유배되었다가 국문을 당하여 옥사하였다.

1724년 영조가 즉위하자 복관 신원되었고 영남의 죽정서원(竹亭書院)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숙(忠肅)으로 저서에는 귀락당집(歸樂堂集)이 있다. 묘소는 이동면 천리 속칭 독서대 좌측에 있다.

〈참고: 우봉이씨 세계지(世系誌), 용인군지, 경기인물지〉, 이인영

이명재(李命宰)

〈출생〉 순국지사. 광무 9년(1905)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을사늑약을 체결하였다. 이즈음 참판으로 있다가 시국이 날로 글러져 감을 개탄하여 벼슬을 내 놓고 용인 능동(陵洞) 시골집에 낙향하여 있던 이참판은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기절하였다. 그후 몇일을 두고 식음을 전폐하였다가 울분을 참지 못하여 마침내 약을 마시고 순절하였다. 조약의 내용은 한국의 외교권을 접수, 통감부(統監府)의 설치 등인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대외교섭은 끊어지고 통감정치(統監政治)가 실시되었다. 한편 이 사실이 장지연(張志淵)에 의하여 「시일야방성대곡」이란 제목으로 황성신문에 보도되자 전국민은 의분에 불타 조약반대운동이 각처에서 일어났으며, 시종무관장 민영환(구성·마복), 주영공사 이한웅(이동·시미), 특진관 조병세, 홍만식, 이상상 등 많은 지사들이 순절하였으며, 이참판도 이때 울분을 참지 못하여 순절하였다.

〈참고문헌: 한말의 의열투쟁, 속음청사, 국사대사전〉, 금병윤

이민보(李敏輔)

〈문헌〉 숙종 46(1720)~정조 23(1799) 조선 문신. 자는 백눌(伯訥), 호는 상와(常窩), 본관은 연안, 이조참판 희조(喜朝)의 손자. 음보(蔭補)로 군수가 되고 1791년 공조판서가 되어 장악원 제조(掌樂院 提調)를 겸했다.

그후 형조판서에 전임했다가 1796년 노인직(老人職)으로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의 위계에 올라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가 되었는데 음보로 보국숭록대부에 오른 것은 황수신 이후 처음의 일이었다.

노론에 속했으며, 노론의 처지에서 논한 〈충역변〉이란 저서가 있다. 김이안의 뒤를 이어 신해(1791)년부터 기미(1799)년까지 제35대 충렬서원 원장의 직함을 남겼다.

〈참고: 충렬서원 선생안〉, 이인영

이민용(李民容)

용인현령(龍仁縣令). 고종 6년(1869) 12월 19일 종친부(宗親府)에서 도입하였다. 종친부는 종실제군(宗室諸君)의 부(府)로 역대 국왕의 계보와 초상화를 보관하고 국왕의 의복과 왕비의 의복을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종친부에서 용인현령이 임명되어 도입한 것으로는 그가 최초이다.

〈참고: 내고장용인 시사연표〉, 박상돈

이민창(李敏昌)

용인군수(龍仁郡守). 광무원년(1897) 12월 4일 도입하였다가 1899년 9월 10일 일단의 농민들에 의하여 관외로 강제 축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9월 18일 면직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1898년 11월 19일 지내면(지금의 수지면)에 거주하던 김병하(金秉夏)가 농민항세 면민회의(農民抗稅 面民會議)를 구성하고 탁지부(度支部)에 수세원총가결첨정(收稅元摠加結添徵)의 폐단을 시정해 달라는 요구를 진정하였다. 그러나 이의 청원이 거부되자 이듬해인 1899년 6월 29일 김량장에서 향의 시위를 하다가 군 청사에 난입, 수서기(首書記) 박희중(朴熙宗)을 납치하여 구타하였다. 이때 박희중의 동생 박희순이 농민들에게 납치된 형을 구하고자 시위 농민들을 습격하여 70여명을 부상시켰다. 뿐

만 아니라 용인군수는 농성 주동자 김병하를 체포하였다. 그러자 7월 2일 부상 농민가
족 1천여명이 용인군 관아를 습격하여 관속을 구타하고 공공 건물과 인근 주택을 파괴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탁지부에서는 용인 농민 항세 사태 수습을 위해 죽산군수를 파견하였고 농민들이 군
수를 강제 축출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그를 해임하므로서 그는 데모대에 의하여
면직된 최초의 군수가 되었다.

(참고: 용인군 시사연표), 노승식

이 발(李 潑)

〈묘〉 중종 39(1544)~선조 22(1589) 조선 문신. 자는 경함(景涵), 호는 동암(東菴)·북
산(北山), 본관은 광주(光州), 제학(提學) 중호(仲虎)의 아들. 김근공(金謹恭), 민순(閔
純)의 문인. 선조 1년(1568) 생원(生員)이 되고 1573년 알성문과(謁聖文科)에 장원, 이
듬해 사가독서(賜家讀書)를 하였고 이조정랑(吏曹正郎)으로 발탁되었다. 1579년 응교
(應敎), 1581년 전한(典翰), 1583년 부제학(副提學)을 역임하고 이듬해 대간(大諫)에 이
르렀다.

동인(東人)의 거두로서 정철(鄭澈)의 처벌문제에 강경파를 영도하여 북인(北人)의 수
령이 되었고 조광조(趙光祖)의 지치주의(至治主義)를 이념으로 하여 사론(士論)을 지도
하였다. 한편 경연관(經筵官)이 되어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제창하여 기강의 확립에 힘
쓰고 자파(自派)의 등용에 노력하였다. 선조 22년(1589),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이
일어나자 화가 미칠 것을 예상하고 대간을 사퇴, 대죄(待罪)하던중 체포되어 장살(杖殺)
되었다.

이발은 효성이 지극하였다. 그 어머니가 평소에 병이 많았으므로 발은 옷과 띠를 풀
지 않고 약 달이는 것도 종들에게 맡기지 않았다. 또 인물을 비판하기를 좋아하였고 이조
(吏曹)에 오래 있어 인재의 진퇴(進退)를 자기 책임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남의 원망을
많이 샀다.

기축옥사 때에는 혹독한 고문을 받아 온몸의 살이 온전한 곳이 없어서 숨이 끊어질
뻔하였으나 다시 국문을 받을 때에는 단정히 꿇어 앉아서 조금도 사색이 변하지 않았
다. 마침내 곤장을 맞아 죽으니 사람들이 모두 원통하게 여겼다. 이발이 서울에서 근친

하러 돌아가는 도중에 시를 지었는데

남쪽 길이 멀고 멀어 새 날은 저 멀리에서 나누어 졌는데
서쪽으로 장안을 가르키니 헛가에 구름일세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밤 꿈을 기억하니
반은 지친이고 반은 성군일세

南路迢迢鳥外分
長安西指日邊雲
朝來記得中宵夢
半是慈親半聖君

하였다.

이말은 중후(重厚)하고 엄정하여 젊었을 때부터 학문에 뜻을 두어 척암(楊菴) 김근공(金謹恭)과 습정(習靜) 민순(閔純)의 문하에서 배웠고 또 수우(守愚) 최영경(崔永慶)과 가장 친하였다. 학문에 힘을 써서 홍가신(洪可臣), 허당(許鎰), 박의(朴宜), 윤기신(尹起莘), 김영일(金榮一), 김우응(金宇頤) 등과 뜻이 맞는 벗이 되어 서로 원대한 포부를 기약하였다.

알성시에 장원이 되자 명성이 자자하여 곧 이조좌랑이 되어 사론(士論)을 부식(扶植)하여 조정암(趙靜菴)이 하던 옛 정치를 회복하려 하여, 경연에 출입하면서 항상 왕도(王道)를 진달(陳達)하고 기강을 진작(振作)하여 사(邪)·정(正)을 가르치는 것을 자기 소임으로 여겨 조금도 구차하게 함하려는 뜻이 없었으므로 우계(牛溪)와 울곡(栗谷) 두분과의 교분이 생겨서 서인들이 미워하므로 시사(時事)에 참여할 수 없을 것으로 알고 부제학으로 차자(筴子)를 올려 인물의 사·정을 논하고 고향으로 물러갔다.

불행히 사림중에 역변이 일어나니 발은 자기도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 조용히 교외(郊外)에서 명을 기다리고 있다가 잡혀와서 대궐 뜰에서 국문을 받으니 임금의 묻기를 “너는 어찌 벼슬을 하지 않고 시골에 갔던가?”하자 발은 “신의 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 급(汲)이 전하의 은혜로 모친 봉양에 허함을 받아 정원현감이 되었으므로 아우

길도 이미 올라왔고 신도 역시 올라왔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또 묻기를 “너는 네 죄를 아느냐?”고 묻자 대답하기를 “신은 저의 낮가죽을 벗겨버리고 싶습니다”하니 임금은 “이미 때가 늦었다”고 하였다.

이발의 학문과 명성은 실로 후배의 영수가 되었더니 계미년 이후부터는 사론(邪論)의 주인이 되어 죄상의 실정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도 역적의 옥사에 무겁게 걸렸으므로 일부의 의론은 그를 가엽게 여겨 마지 않았다.

뒤에 김우옹, 홍여순(洪汝諄) 등이 정철을 귀양보내고 관직을 삭탈하면서도 끝내 이발의 신원을 청하지 못하다가 정미년에 한호(韓浩) 등이 비로소 신원을 청하자 임금이 엄하게 책하였고 경술년에도 삼사(三司)에서 이발의 신원을 청하였으나 역시 광해군이 엄하게 물리쳤다.

인조반정후 갑자년에 정철의 신원을 청할때 영상 이원익(李元翼)이 이발과 백유양도 아울러 신원(伸冤)해 줄 것을 아뢰었더니 인조는 이발만 신원토록 하였다. 그의 묘소는 모현면 오산리에 자리잡고 있다.

〈참고 : 한국인명대사전, 연력실기술〉, 이인영

이백지(李伯持)

〈출생〉 1361년 사위(士渭)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본관이 용인으로 조선 초기의 문신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했던 그는 고려 우왕 11년인 1385년 문과에 급제하여 형조전서(刑曹典書), 좌우부대언(左右副代言)을 지냈다.

1409년(태종 9년) 성주목사로 재직하면서 백성을 동원하여 관屯田(官屯田)을 경작하도록 하였다가 경차관(敬差官)에게 적발되어 중도부처(中途付處)되었다.

1419년 전라도관찰사로 재직하던 중 병으로 사임한 뒤 그해 12월에 임종했다.

조정에서 종이 70권을 치부(致贖)하였으며 묘소가 지금의 기흥읍 영덕리 잔다리마을에 쓰여졌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박상돈

이백찬(李伯撰)

〈묘〉 고려 공민왕 8년(1359)~조선 태종 15(1415) 고려 문신. 본관은 용인(龍仁), 이 태조 개국(여말 혁명)에 즈음하여 남원 적소(謫所)에서 하세(下世)한 사영(士穎)의 아들. 구성부원군(駒城府院君) 중인(中仁)의 손. 고려조에서 중직대부(中直大夫) 영천군사(永川郡事)에 이르렀고 어사(御史), 현령(縣令)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가는 곳마다 항상 덕으로써 선정(善政)을 베풀어 그의 명성은 대내에 자자하였는데 김제현령(金堤縣令)으로 있을 때 권근(權近)이 송공시(送公詩)를 지어 덕행을 칭송하였다. 그 역시 조부 중인(中仁)의 경계를 명심하고 이조불사(李朝不仕)로 절의(節義)를 지켰다.

그후 이조(李朝)에서 중인(中仁), 사영(士穎), 백찬(伯撰) 3대에 걸친 충절(忠節)을 기려 조(祖)의 중인에게 문하시중(門下侍中)의 벼슬을 증직하였다. 묘는 수지면 풍덕천리 정평마을에 있다.

권근(權近) 송공시(送公詩)

세상이 애민하는 마음 간절하여
사려깊고 사리밝은 선비를 택한 끝에
그대가 마야호로 고을(郡)을 얻었네.
그대의 부친도 고을을 지내는 터인데
덕으로 선정을 베풀니 새벽이 밝기만 하네.
어사때의 명성이 아직도 남았는데
한결같은 그대의 노고에는 내외없이 변함없고
정사가 으뜸이니 다시 명성 떨치네.

睿想憂民切 疇咨擇士精
惟君方得郡 乃父亦專城
帶犢明新令 乘聽有舊聲
均勞無內外 政最更飄纓

〈참고: 용인이씨 세보, 비문집〉, 이응준

이범석(李範錫)

〈생거·급계〉 고종 5년(1868)~? 본관은 전주(全州), 운하(雲夏)의 아들. 고종 28년(1891) 증광별시문과(增廣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참고 : 용인군지, 고사대전〉, 박상돈

이병도(李丙燾)

〈출생·묘〉 고종 22년(1886)~(1989) 국사학자. 용인군 이동면 천리 출생, 호는 두계(斗溪), 본관은 우봉(牛峯), 충청수군절도사(忠淸水軍節度使) 봉구(鳳九)의 아들.

1912년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 법율과에 입학하여 1915년 3월 동교를 졸업하였다. 그리고 이해 4월 일본에 건너가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고등예과(高等豫科)에 입학, 1916년 7월에 졸업한 뒤 9월 와세다대학 문학부 사학급 사회학과(史學及社會學科)에 진학, 조선사(朝鮮史)를 전공하였고 1919년 7월에 졸업하였다. 귀국후 7월 중앙학교(中央學校, 중앙중·고등학교) 지리, 역사교사로 부임, 7년간 재직하는 동안 대학 은사의 소개로 조선총독부 중추원(中樞院)에 설치된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의 촉탁으로 많은 사료를 접하는 가운데 한국고대사 연구에 힘썼다. 이때 이능화(李能和), 이중화(李重華), 황의돈(黃義敦), 안곡(安廓), 문일평(文一平), 권덕규(權憲奎) 등의 학자등과 교우하였다.

한편 1920년 4월 중등야학교(中等夜學校) 영어과 강사로 1년간 근무했고 7월에는 김억(金億), 남궁벽(南宮璧), 염상섭(廉相涉), 조상순(趙相淳), 황석우(黃錫禹) 등과 문학동인지 〈폐허〉를 창간하였고 1921년 4월에는 경신학교 강사로 1년간 근무하였다. 그리고 1925년 8월 조선사편수회 촉탁에 임명되어 8.15 해방전까지 재직하고 1933년부터 1940년까지 중앙불교전문학교 강사로 조선유학사(朝鮮儒學史)를 강의하였다.

1934년 5월 이희승(李熙昇), 이병기(李秉岐), 김상기(金庠基), 이상백(李相伯), 손진태(孫晉泰), 송석하(宋錫夏) 등과 함께 진단학회(震壇學會)를 조직, 창설하여 그 대표가 되었으며, 이해 10월 우리나라 최초 학술지 〈진단학보(震壇學報)〉를 창간하였다. 1941년 4월부터 3년간 이화여자전문학교 강사를 지냈다. 1943년 9월에 일제의 탄압으로 한때 국학(國學) 연구단체인 진단학회가 해산되었다. 1945년 8.15해방후 동지들과 함께 진단

학회를 부활시켜 〈진단학보〉를 재간하는 한편 학술강좌, 국사교과서 편찬 등 한국사 연구와 교육 진흥에 힘썼고 11월에는 동지들과 서지학회(書誌學會)를 조직했으며, 12월에는 경성대학(京城大學) 법문학부(法文學部) 교수에 취임하였다. 1946년 9월 학계개편으로 서울대학 문리과대학 교수에 취임하였고 이후 5년간 동국대학교(東國大學校) 사학과 강사, 1950년 10월부터 1954년까지 국방부 정훈국(政訓局) 전사편찬위원장을 역임하여 6.25 전쟁이후의 전란사 편찬에 종사하였다. 1952년 4월에서 1956년 4월까지 고등고시위원(高等考試委員)을 지내고 이해 서울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53년에는 서울대학 박물관장, 사단법인 진단학회 이사장을 지냈다. 1954년 3월 전란사 편찬 공로로 금성충무무공훈장(金星忠武武功勳章)을 수여받았고 이해 학술원 종신회원, 서울대학원장,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회로부터 교육공로표창을 받았다. 1955년 3월에는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받는데 이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외무부 외교연구위원장, 1956년 동서문화연구회 회장, 학술원 부원장을 역임하고 학술원상을 수상하였다. 1960년 4월에서 8월까지 허정(許政) 과도정부에서 문교부장관에 임명되어 4.19혁명후 혼란한 문교행정을 수습하였고 8월에는 학술원 회장, 1962년 서울대학교수를 정년퇴임한 후 명예교수가 되었다

1965년 동구학원 이사장, 이듬해 성균관대학교 교수겸 대동문화연구원장(大東文化研究院長), 5.16 민족상 부이사장, 1967년 도서관 협회장, 1969년 통일원 고문 등을 역임하였다. 이후 정부로부터 문화훈장, 국민훈장, 무궁화장(無窮花章)을 받고 5.16 민족상, 인촌문화상(仁村文化賞), 학술원 공로상 등을 수상했으며, 미국 프린스턴대학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국민대학장(國民大學長), 브라질학술원 명예회원, 민족문화추진회 이사장, 송산학원(松山學院) 이사장, 국정자문위원등 여러 직책을 역임하였다. 1934년 진단학회를 창설하고 국사학계를 대표하는 지도적 위치의 사학자로서 또 문헌사학을 기본 바탕으로 한 실증사학(實證史學)의 학풍을 수립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가 주로 연구하고 관심을 둔 분야는 삼한(三韓), 한사군(漢四郡) 등 한국 고대사로부터 고려시대에 걸쳤으며, 한국유학사(韓國儒學史)를 비롯한 사상사(思想史) 연구에도 큰 업적을 남겼다. 처녀 논문은 1926년 조선사학지(朝鮮史學誌)에 일문(日文)으로 발표한 〈이율곡의 입산 동기에 대하여〉였으며, 1929년 〈진번군고(眞番郡考)〉, 1933년의 〈패수고(淚水考)〉, 1954년 〈고대남당고(古代南堂考)〉등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의 대

표적인 저서를 보면 〈국사대관(國史大觀)〉, 〈조선사대관(朝鮮史大觀의 개정판)〉, 〈고려시대사연구〉, 〈역주 하멜표류기〉, 〈국사와 지도이념〉, 〈두계잡필(斗溪雜筆)〉, 〈역주 삼국유사〉, 〈한국사 고대편〉, 〈한국사 중세편〉, 〈내가 본 어제와 오늘〉, 〈율곡의 생애와 사상〉, 〈두실여적(斗室餘滴)〉, 〈한국고대사와 그 문화〉, 〈역주 삼국기〉, 〈성기집(成己集)〉, 〈한국유학사략〉, 〈한국유학사〉 등이 있다.

그의 묘는 용인군 이동면 속칭 노루실에 있다.

〈참고: 경기인물지〉, 금병윤

이병묵(李丙默)

〈출생·묘〉 고종 13년(1876). 용인군 상동촌면(上東村面) 노곡(老谷: 지금의 이동면 천리)에서 출생. 초명은 규병(圭炳), 자는 성좌(聖佐), 호는 우재(又齋), 본관은 우봉(牛峯), 고종 31년(1898)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한후 광무 6년(1902) 영천군수(榮川郡守)와 오천군수(鰲川郡守)를 역임한후 비서감(秘書監)과 승지(承旨)를 거쳐 가선대부(嘉善大夫)의 관위에 올랐으나 융희 4년의 경술국치(庚戌國恥) 이후 관직을 버리고 향리인 용인에 낙향하여 조신치가(操身治家)와 식산(殖産)에 전념하여 만석농(萬石農)에 이르러 영세 빈농을 구휼하기에 힘썼다. 그후 광복 직후인 1946년 후학 양성을 위한 육영사업에 뜻을 세우고 태성학원(泰成學院)을 설립, 개교하므로써 용인 최초의 중등교육기관이 되었고 전국 초유(初有)의 사립중등학교가 되었다. 초기에는 향리의 모든 자제(子弟)에게 무상교육을 실시케 하고 그 경비는 사재로 충당하였다. 그 덕으로 많은 인재가 양성되어 사회에 배출되었고 태성학원은 근대 교육의 맹아기(萌芽期)였던 용인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참고: 이병묵선생(송덕비), 박상돈

이병욱(李丙旭)

묘, 송덕비, 이동 천리, 자(字)는 치덕(致德), 호(號) 우천(又泉), 고종 23년(1886) 이동 천리에서 출생. 본관은 우봉, 유능참봉(裕陵參奉), 천성이 온화하고 학문을 숭상하여 일찌기 관직에 나아간 바 있으나 경술국치 이후 벼슬을 버리고 낙향, 후학 양성에 전념하였다.

특히 향리인 적동간이학교 설립에 공헌하였다. 후에 이 학교가 용천심상소학교로 승격되자 학교를 건립할 부지가 없음을 보고 선생소유 전장 3,885평을 육영사업 용지로 회사, 1946년 교사를 신축케 하였다.

그후에도 계속 사재를 털어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14년간 후원회장을 맡아 향리 2세 교육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1947년 거주지였던 천리에서 충남 보령군 대천면으로 이주할 때에는 후원의 값진 나무들을 모두 학교에 기증하여 교정의 수목이 근세까지 청정하였으나 혹은 죽기도 하고 없어진 것도 있어 전하는 것이 별로 없다.

1970년 4월 5일 교정에 우천선생 송덕 기념비를 세웠다. 비 하단에 “이 밭에 곡식을 심었더니 곡식밖에 나지 않아 이번에는 사람을 심어 가꾸어 보려고 이 땅을 내놓았다.”라는 선생의 어록이 기록되어 있어 평소 향리의 육영사업에 기울인 고매한 뜻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참고문헌: 우봉이씨 족보, 송덕비〉, 박상돈

이봉조(李鳳朝)

〈출생〉인조 22년(1644)~숙종 27(1701) 조선 문신. 자는 선명(善鳴), 본관은 연안, 진사 만상(萬相)의 아들. 현종 10년(1669)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673년 정릉참봉(貞陵參奉), 1676년 광흥봉사 상서 직장(廣興奉事尙瑞直長)이 되었다가 이듬해 호조좌랑, 태인현감(泰仁縣監), 1680년 양성현령(陽城縣令)을 지내고 옥천군수(沃川郡守),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사복시주부(司僕寺主簿)를 역임하다가 숙종 27년(1701) 3월 25일 졸하여 용인의 선영 아래에 장사하였다가 양지(陽智) 주서면(朱西面) 산수동(山水洞) 자좌지원(子坐之原: 지금의 면사무소 뒷산)에 이장하였다. 비문은 그의 조카 희조(喜朝)가 썼으며 묘표는 강원도 관찰사 이정신이 지었다.

〈참고: 연안이씨 세보, 연이선적고〉, 최희면

이 빈(李 贇)

〈출생·묘〉중종 32(1537)~선조 26(1593) 조선 문신. 자는 자미(子美), 본관은 연안, 선조 6년(1573)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을곡 이이가 경연에서 천거하여 각처의 군수를 역임하였으며, 임진왜란 때에는 장수현감(長水縣監)으로 순창(淳昌)에서 응치(熊峙)를

막아서 왜장을 참하고 다시 각치(角峙)를 점거하여 다섯차례나 승첩하여 적을 격퇴시켰다. 우연히 득병하여 선조 26년(1593) 11월 23일 졸하였다. 본래 유학(儒學)으로 벼슬길에 나아가 군문의 일을 맡아 이에 익숙하지 않았으나 다만 충의지심(忠義之心)으로 인근 군민을 규합하여 고군(孤軍)으로 강적을 대항하니 호남의 방패가 되었다. 묘는 모현면 능원리에 있다.

(참고: 연안이씨 세보, 연이선적고), 이인영

이사경(李士慶)

(출생) 이사경(李士慶)은 구성백 이길권의 24세 손으로 선조 3년(1569)에 출생(出生)하여 광해군 14(1621)년까지의 인물로 자는 이선(而善), 초자(初子), 선여(善餘), 호는 쌍곡(雙谷)이다.

1600년 문과장원후 통정대부 사간원 지제교의 관위에 올랐으며 조실부모하여 외가에서 자랐다. 문과장원후 여러 벼슬을 거쳐 성천부사로 있을때 임진왜란으로 피난중에 있던 선조의 행궁에 불이 나 그 책임을 지고 사임하였다. 그후 광해군 10년 천추사(千秋使)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이듬해 대사간의 관위에 올랐으나 경상·충청감사들이 올린 진찬(進贖)에 이미 폐위된 인목대비의 존호를 묵인했다 하여 대북파의 탄핵을 받아 자진 사퇴, 논쟁을 그치게 하고 이때부터 대각에 들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그후 승지와 병조, 예조판서를 지내고 특히 인목대비의 유폐를 보고 벼슬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천성이 중후청근(重厚淸勤)하여 많은 치적을 남겼다. 당대의 세도가였던 이이첨과는 척분간인데도 조금도 아부하거나 굴하는 일이 없이 오직 소신에 따라 시비를 분명히 하고 청렴강직을 신념으로 하여 난세의 완인으로 존경을 받았다.

(참고: 한국인물사, 용인이씨 세보), 이웅준

이사영(李士穎)

(출생) 태조(太祖) 5년(1396) 고려말 조선 초기의 출절이며, 호는 평은(平隱), 본관은 용인으로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 길권(吉卷)의 14대손이며 구성부원군(駒城府院君) 중인(中仁)의 아들이다. 목은(牧隱) 이색과 동학(同學)으로 학덕(學德)이 출중하여 일찍이 문과에 급제하고 청주목사(淸州牧使) 등의 요직을 역임하였다. 공양왕 3년

(1391) 형조전서(刑曹典書)를 거쳐 동년(同年) 우부대언(右副代言)에 제수되었으나 이듬해 포은 정몽주, 목은 이색등 56인과 함께 남원(南原)으로 유배되어 배소에서 일생을 마쳤다. 묘는 용인군 수지면 상현리에 있다.

〈참고: 용인이씨 세보〉, 이응준

이사위(李士渭)

〈출생〉 충혜왕 복위 3년(1342) 고려말 조선초기의 문신. 본관은 용인으로 구성부원군(駒城府院君) 중인(中仁)의 아들이며 청백리(清白吏)인 백지(伯持)의 아버지이다. 일찍이 진사(進士)에 올라 공민왕 9년(1360)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와 함께 문과에 급제하고 고려말에 판호조사(判戶曹事), 밀직부사(密直副使), 서해도관찰사(西海道觀察使) 등을 역임하였다. 조선 개국후 조선왕조에서는 벼슬을 하지 말라는 부친 중인의 유언을 어기고 가문을 지키기 위해 개성유후(開城留後)를 지냈다. 묘는 모현면 매산리에 있다.

〈참고: 용인이씨 세보〉, 이응준

이 상(李 尙)

〈효자·유래〉 생몰미상. 상(尙)이 어린 시절이다. 아버지는 머슴살이를 나갔으며 생활이 빈천하여 그 어머니는 이웃집 허드레일을 도와 주면서 어려운 생계를 이어나갔다. 때로는 산에 나무하러 나갔으나 어린 상을 홀로 집에 둘 수 없어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날도 마침 땀감이 떨어졌기로 어머니는 어린 아들 상과 함께 인근 산으로 접어들었다. 양지바른 곳에 아들을 있게 하고 부지런히 청솔가지를 치고 솔잎을 굵어 모으고 있을때 난데없이 황소만한 호랑이가 나타나 그 어머니를 물어 죽였다. 이를 본 어린 상은 달아나지 않고 어머니의 시체를 물어가려는 호랑이의 꼬리를 붙잡고 울면서 이놈의 호랑이야 우리 엄마를 죽이고 또 어디로 끌고 가느냐고 소리치르며 호랑이의 꼬리를 붙들고 늘어졌다. 그러나 이 어린 아이의 효행에 감동하였음인지 호랑이는 그의 어머니 시체를 두고 어슬렁 어슬렁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제서야 상이 처참하게 목숨을 잃은 어머니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소리쳐 울자 지나던 사람이 이를 마을에 알려 시체를 수습하였다. 어린 아이가 효심으로 어머니의 시체를 빼앗아 낸 일이 상감께 알려지

자 그해 갑술년 효자로 정려되었다.

(참고: 읍지 효행편), 이응준

이상준(李尙儻)

〈생거급제〉 영조 23년(1747)~? 자는 치수(稚秀), 본관은 광주(廣州), 학연(學淵)의 아들. 정조 10년(1786) 병오식년과(丙午式年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으나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참고: 고사대전, 용인읍지), 금병운

이상재(李尙載)

〈전사〉 선조 40(1607)~인조 14(1636) 조선 문신. 자는 문거(文擧), 본관은 부평(富平), 군수(郡守) 덕일(德一)의 아들. 인조 8년인 1630년 진사가 되고 1633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승문원(承文院)에 등용되어 곧 저작(著作)에 승진하고 1636년 금정도찰방(金井道察訪)에 승진하였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충청도 관찰사 정세규(鄭世規)의 종사관으로 출정하여 인조가 피란한 남한산성을 향해 진격하던중 용인 풍덕천 전투에서 적의 협공을 당해 전사하였다. 문장과 글씨에도 뛰어났다.

(참고: 임진록 한국인명대사전), 이인영

이석지(李釋之)

〈묘〉 고려 충숙왕~조선 태조때 사람. 본관은 영천(永川), 호는 남곡(南谷), 판도판서(版圖判書) 흠(洽)의 아들. 남곡공파의 시조 그에 관한 기록은 동국여지승람에 전해진다. 이에 따르면 그는 일찌기 가정(稼亭) 이곡(李穀)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목은 이색과 함께 고려 충혜왕(忠惠王) 4년(1341) 진사가 되었고, 충목왕(忠穆王) 정해(1347)년에 문과관(文科官)이 되었으며, 경상도 안렴사(慶尙道 按廉使)를 거쳐 종2품 보문각 대제학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의 묘소는 내사면 주북리 임원마을 앞산에 전해지는데 그의 묘표는 승정기원후 4을유(1825)년에 세웠다. 목은 이색이 지은 기문(記文: 南谷記)에 “용구(龍駒) 동쪽에 남곡이 있는데 나와 같이 과방(科榜)에 오른 이선생(釋之)이 산다” 하였는데 남곡은 지금의 주북리이다.

내용을 보면 “남곡은 산에 나무할 만하고 물에 고기남을만 하여 세상에 요구할 것이 자족하다. 산이 명랑하고 물이 푸르러 지경이 그윽하고 사람이 고요하여 눈을 들면 심경이 유연해진다”라고 적고 “어떤 사람이 이색에게 이석지가 왜 초야에 묻혀 사는지 모르겠다며 혹시 숨어 사는게 아니냐”고 물었을 때 그는 말하기를 “숨어사는 자는 몸만 숨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이름도 숨기는데 지금 선생은 남곡에 살면서 밭도 있고 집도 있어 관혼상제에 쓰임이 족하니 세리(世利)에 무심한지 오래이다. 그러나 숨었다는 것으로 자처하지 않는다. 해마다 서울에 와서 옛 친구를 만나고 한껏 마시면서 담소 하며, 또한 왕래하는 도중에는 파리한 아이 종과 여원 말로써 채찍을 세워 울조리는데 흰 수염은 눈과 같고 붉은 뺨에는 광채가 넘치고 있어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을 시켜 그의 신색을 그리라면 삼봉연엽도(三峰蓮葉圖)에 양보하지 않으리라고 피력하고 남곡이 경치가 좋으니 선생이 여기서 즐기며 마땅하다면서 이색은 내 쇠하고 병든지 오래여서 매양 시골로 돌아가고자 하여도 실행하지 못하는데, 집이 있어 바다에 가깝고 밭이 있으나 모두 토박하므로 두가지의 완전한 것을 얻어서 나의 몸을 바치는 것이 나의 소망이나 어찌 될 것인가” 라고 자탄하면서 석지를 부러워했다.

또 이석지는 조정에 여러번 왔으나 지위는 겨우 3품에 이르렀지만 끼친 사랑은 백성의 마음에 남았고 빛난 명성은 물망에 합당하였다고 평하였다. 태조 이성계가 등극한 후 절의를 지켜 용인에 낙향하였고 그의 손자인 종검, 종검도 일찍 벼슬에서 물러나 효우당(孝友堂)을 짓고 유유자적하다가 세상을 마쳤다. 내사면 주북리에는 영천이씨 남곡공파 시조 사당인 남곡재(南谷齋)가 있다.

(참고 : 동국여지승람, 향토문화와 전통), 노승식

이성동(李成童)

조선시대 문신. 자는 차옹(次翁), 호는 줄옹(拙翁), 본관은 인천으로 증손(仲孫)의 손자이며 판관(判官) 희영(希穎)의 아들이다. 연산군 원년(1495) 생원(生員)으로 증광시(增廣試)에 병과(丙科)로 급제하고 사헌부(司憲府) 지평(持平)을 거쳐 중종 2년(1507) 사간(司諫)에 올랐다. 중종 12년(1517) 직제학(直提學)에 이어 대사간(大司諫)에 임명되고 이듬해 충청도 관찰사가 되었다. 중종 14년(1519) 형조참의(刑曹參議), 대사간(大司諫)으로 재직하였으나 기묘사화(己卯士禍)때 조광조(趙光祖) 일파로 몰려 파직되었다.

이듬해 예조참의(禮曹參議)로 복직되고 중종 16년(1521) 강원도관찰사, 예조참의를 지내다가 조광조 일파로서의 죄가 추가로 논의되어 관직을 삭탈당하였다. 묘는 용인군 남사면 봉명리에 있다.

〈참고 : 읍지, 용인군지, 한국인명대사전, 이응준

이세형(李世馨)

〈효자·묘〉 인조 5년(1627)~숙종 25(1699). 본관은 용인, 자는 형원(馨遠), 첩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축(楸)의 아들. 나면서부터 출천지효(出天之孝)로 효성이 지극하여 부친의 생존시에는 물론 사후에도 깊은 산중에서 3년동안 시묘살이를 하였다. 또한 상기를 마친 후에도 먼 발치에서도 선영을 지나갈 때에는 반드시 하마하여 지나쳤다. 벼슬은 통덕랑(通德郎)에 그쳤다. 묘는 수지면 정평에 있다.

〈참고 : 용인이씨 세보〉, 박상돈

이수장(李壽長)

〈묘〉 모현면 능원리 내곡. 자는 기옹(耆翁), 본관은 연안.

세조 8년(1462) 부친 혼(渾)과 모친 죽산 안씨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려서부터 총명다재하였다. 퇴계 선생이 지은 묘갈명에 공의 문장과 덕업이 훌륭하였으나 사화로 인하여 은둔 칩거하였고 말년에 훈음(勳蔭)으로 3품에 식록(食祿)하고 어모장군 총좌위 대호군(禦侮將軍 忠佐衛 大護軍) 정국 원종공신 1등에 참록(參錄)하여 사예(司藝)로 통정(通政) 대부에 올랐고 이조판서에 증직되었다. 그러나 한훤당 김굉필등 신진 사류들과 친숙했던 관계로 무오갑자사화에서 겨우 화를 면한 후 용광(龍廣)지대에 향장(鄉庄)을 마련하여 숨어 살았다.

후에 용인의 문수산에 나무가 울창하고 그 아래 풍덕천이 흐르는데 수석이 더욱 기이하여 말년에 이곳으로 안식처로 정하고 자손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태고의 강산에서 태평한 시대의 일민(逸民)이 된다면 어찌 즐겁지 아니하라」하고 산봉우리 우유(優遊)하고 물가에 소요(逍遙)하여 계옹(溪翁)과 야노(野老)를 벗하여 여생을 보냈다.

〈참고 : 신도비명〉, 최희면

이 숙(李 翹)

〈출생·묘〉 인조 4(1626)~숙종 14(1688) 조선 문신. 자는 중우(仲羽), 호는 일휴정(逸休亭), 본관은 우봉(牛峯), 호조참의(戶曹參議) 유겸(有謙)의 넷째 아들. 송시열의 문인. 인조 14년(1636) 11세때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포로가 되어 심양에 잡혀 갔다가 사신으로 갔던 회은군(懷恩君) 이덕인(李德仁)의 주선으로 귀국하였다.

인조 26년(1648) 진사가 되고 효종 6년(1655) 춘당대시문과(春塘台試文科)에 급제, 한림(翰林)을 거쳐 홍문관 수찬(弘文館 修撰), 응교를 역임한 후 현종 8년(1667) 사헌부(司憲府) 집의(執義)로 있을때 청나라에서 도피해 온 사람을 돌려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나라 사신의 지탄을 받은 영의정 정태화(鄭太和), 좌의정 홍명하(洪明夏), 진주사(陳奏使), 허적(許積) 등이 그 책임을 왕에게 돌리자 그들을 탄핵하였다가 귀양살이를 하였으나, 직성(直聲)이 당세에 떨쳤다.

현종 10년(1669) 광주부윤(廣州府尹)에 제수되었고 1672년 경상도 관찰사를 거쳐 이듬해 대사간(大司諫)이 되었다. 숙종 1년(1675) 서인이 몰락하자 한때 관직에서 물러났으나 다시 기용되어 이조판서를 지내고 숙종 13년(1687) 우의정이 되었다.

그는 풍의(風儀)가 당당하였고 도량이 깊었으며 항상 명위(名位)가 지나침을 염려하여 이르기를 “사대부는 경운(耕耘)치 않고 록(祿)을 받으니 일단 그 벼슬을 떠나면 백사(百事)가 모두 궁하다. 그런고로 조정에 있지 않는다면 밭갈고 전원(田園)을 다스림을 락으로 삼아야 마땅할뿐 추호도 이를 타에 구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정자를 남양(南陽)의 도정리(陶井里)에 세우고 일휴정(逸休亭)이라 하였고 금학도서(琴鶴圖書)를 사랑하였다. 1688년 타계하니 조정에서는 충헌(忠獻)으로 시호(諡號)를 내리고 대구의 상덕사(尙德祠)에 제향하였다. 묘는 용인군 이동면 천리에 있다.

〈참고 : 한국인명대사전, 도암선생집, 우봉어씨 세계지, 경기인물지, 용인군지〉, 이인영

이순장(李順長)

〈묘〉 생몰미상. 자는 화보(和甫), 본관은 연안, 혼의 아들. 일찌기 문사에 섭렵하였으나 공명을 이루는 일에 뜻을 두지 않았다. 음직으로 천거되었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특히 효계(孝悌)를 돈독(敦篤)히 하였고 자제를 법도로 교훈하고 뜰안에는 꽃나

무를 많이 심어 날마다 인척을 모아 적당히 주석을 설비하여 시문으로 즐겼다. 묘비는 그의 손 정구(延龜)가 썼다. 묘는 능원리에 있다.

〈참고: 연안이씨 세보〉, 금병운

이술원(李述源)

양지현감(陽智縣監). 정조 12년(1788) 12월 도입하였다가 정조 16년(1792)년 12월 배천군수(白川郡守)로 영전할 때까지 4년을 양지현감으로 재직하였다.

많은 업적을 남긴 가운데에도 특히 1792년 양지향교의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착수하여 3월 28일 상량을 보았고, 그해 일을 마친 다음 12월 이임하였다. 역대 현감중 구체적 인 사업실적이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감으로는 유일하다.

〈참고: 내고장의 얼, 유물유적편, 용인군 시사연표〉, 노승식

이승진(李昇鎭)

〈출생〉?~. 효자, 효행이 출중하였으므로 영조 23년 정축년(1757) 명정(名旌)되었다. 효자 정문은 전하지 않는다.

〈참고: 읍지〉, 이응준

이승헌(李升憲)

〈생거·급제〉 정조 16년(1792)~? 자는 치도(稚度), 본관은 청해(靑海), 창석(昌錫)의 아들. 순조 26년(1826) 25세때 정해정식문과(丁亥庭式文科) 병과로 급제하였으나 관직명은 밝혀진 바 없다.

〈참고: 한국고사대전, 용인군지〉, 박상돈

이승충(李升忠)

〈출생·묘〉 태조 7년(1398)~성종 12(1481) 조선 문신. 호는 은재(隱齋), 본관은 용인, 백찬(伯撰)의 아들. 23세때 처음 벼슬길에 나아가 사복시직장(寺僕寺直長), 호분위상호군(虎賁衛上護軍)등을 역임하였고 세조때 원종공신(原從功臣)이 되었다. 일시 낙향하여 유유자적하였으나 다시 세조(世祖)의 부름을 받고 70고령에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

事)로 공조참판(工曹參判)을 지냈으며 82세에 자헌대부(資憲大夫)가 되었다. 성종 12년(1481)년에 하세하니 수 84세였다. 묘는 수지면 정평리에 있다.

(참고 : 용인이씨 세보, 비문집), 이응준

이시정(李時程)

〈출생·묘〉 자는 중화(仲和), 본관은 연안, 형조정랑 빈(贇)의 아들. 선조 11년(1578) 용인에서 출생, 29세때인 선조 39년(1606) 진사시에 합격한 후 태학(太學)으로 있을 때 광해군 10년(1618) 폐모론이 일어나자 태학생 중에 흉당한 무리가 있고 또 폐모론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의론을 제기하자 시정은 이를 듣지 않고 즉시 향리인 용인으로 돌아가려 하자, 친우가 만류하면서 과거날이 멀지 않았는데 노친(老親)을 위하여서라도 잠시만 더 머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였다. 이때 시정은 나에게 노모가 계신고로 차마 머물지 못한다고 말하고 즉시 가솔을 인솔하여 서울로부터 용인의 향리에 은퇴하여 유유자약하였다.

이때부터 시정은 세상을 잊은듯 표연히 언덕에 모옥을 짓고 살았다.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다시 성균관에 나갈 것을 권유받았으나 마침 대부인의 상을 당하였고 상기를 마친 다음 비로소 태학에 추천되어 재임(齎任)하게 되었다.

이때 폐모론에 가담하였던 유생들을 치죄하려 할때 시정은 대사성 정엽(鄭曄)에게 진언하기를 당시 유적(儒籍)에 이름이 올라 있던 자라 하더라도 위협을 당하여 복종한 자들이 있으므로 이들을 유적에서 빼지 말도록 간청하면서 「폐조(광해군) 10년동안에 화기(和氣)가 소진되었으니 이제 과거 학정을 관인으로 대치(代置)하는 것이 가하다」고 말하며 정엽은 그 말을 옳게 여겼다.

인조 5년(1627)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경상도로 피난하였을 때에 명유(名儒) 정경세(鄭經世)의 거처와 멀지 않았으므로 교우, 수학하였고 이듬해 활인서별제(活人署別提)를 거쳐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를 맡았다가 후에 남별궁 감조관(南別宮監造官)을 지냈다. 이때 적신 김자점이 랑관(郎官)을 꾸짖기를 마치 노복을 다루듯 하매 시정은 즉시 관복을 버리고 편복으로 집에 돌아오자 자점이 분심을 품고 모함을 하자 향리로 낙향하였다.

그는 항상 자녀들에게 이르기를 물욕을 채우기 위하여 경쟁하지 말고, 싹 값으로 전

답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경쟁이 있을 것이니, 그러한 것에 유념치 말라고 경계하였고, 과거(科擧)란 명칭은 선비가 입신하는 길이나 이에 조금이라도 부정이 있다면 비록 얻는다 하더라도 이는 수치라고 하였다. 효종 4년인 1653년 타계하여 용인의 문수산 동록에 안장하였다.

명(銘)에 이르기를 다른 사람은 아부하되 나는 그쳤고, 타인은 영화를 누리지만 나는 곤궁하도다. 나의 지킨 뜻이 욕되지 아니하니 나의 정결함이 옥같도다 라고 하였다.

(참고 : 한국인물대사전, 연이선적고), 금병운

이시직(李時稷)

〈묘〉 선조 5(1572)~인조 15(1637) 조선 문신. 자는 성유(聖兪), 호는 죽창(竹窓), 본관은 연안, 청엄도찰방(靑嚴道察訪) 빈(賓)의 아들. 1572년 8월 18일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총명이 남달라 10세때 조부를 따라 강동(江東) 임소(任所)에 있었을때 조호익(曹好益)이 그곳에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시직은 그의 문하에 들어가 학문을 익혔다. 그를 가르치던 조호익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후생이 가외라더니(後生可畏) 바로 이 아이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면서 그를 기특하게 여겼다. 그후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을 따랐으며, 그 역시 마음을 허락하였다.

선조 9년(1606)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나갔으나 광해군의 세도(世道)가 날로 어지러워지자 고향에 내려가 은거하면서 몇칸의 집을 짓고 독서와 송죽(松竹)을 벗삼아 유유자적하던 중, 인조 1년(1623)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사서(司書) 별제(別提)에 올랐고 이듬해인 1624년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왕을 공주로 호종(扈從)하였다. 그후 종묘직장(宗廟直長)을 거쳤고 호종의 공으로 6품직에 올라 성균관 전적에 제수되고 사헌부 감찰, 병조좌랑, 사간원 정언을 역임하였다.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 강화도에 왕을 호종하여 정언을 배수하였으며 화의를 배척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도후에 병조정랑을 제수받았으나 벼슬을 버리고 일시 귀향하였다가 바로 후에 여산군수(礪山郡守)로 나아가 토호 세력들의 기세를 꺾어 선치하였으므로 고을 백성들이 비를 세워 그 덕을 칭송하였다. 뒤를 이어 장령, 필선, 장학원정(掌學院正), 사복시정(司僕寺正)등과 태상시의 장을 거쳤는데 태상시는 본래 부정의 소굴이어서 이시직은 그 부조리를 파헤치자 모함을 받아 벼슬을 내놓았으나 전조

(銓曹 : 감사기관과 같음)에서 그 억울함을 임금께 아뢰어 직위가 환원되었다. 1636년 병자호란때 강화에서 순절하였는데 이때 대신 이하가 순절하였으나 가장 명백하게 절의가 나타난 사람은 이시직을 비롯한 4명에 불과하였다. 난이 평정된 후 임금께서는 이조에 명하여 충신 정려문을 내리도록 하였고, 또 강도(강화)사람들은 그 땅에다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니 지금의 충렬사(忠烈祠)이다.

· 병자호란이 일어났다는 급보를 접한 시직은 임금이 강화도로 순행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일이 급박하여 집에 계책이 막연하여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으나 군신이 미처 뒤를 따르지 못하였다. 이때 시직은 집이 멀고 또 산길을 돌아야 하였기에 밤을 새워 먼길을 달려 왔는데 임금께서 강화도로 옮기려 한다는 말을 듣고 중간 길목인 노량진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나 상께서는 옮기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에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돌아오다가 적을 만났으나 피하지 않았는데 마침 길에서 처자를 만났다. 그의 만아들이 울면서 말하기를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잠시 남으로 내려가 의병을 일으켜 후일을 도모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나 뒤도 돌아다 보지 않고 남한산성으로 발길을 돌렸으나 이에 길이 막혀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에 시직은 방황, 통곡하다가 수원으로 향하여 동지 몇사람과 함께 양호에 격문을 띄우는 한편 조익(趙翼)과 남양부사 윤계(尹槩)와 합하여 의병을 모집하였으나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윤계는 청군에 포로가 되어 잡혀 죽었고 의병은 흩어졌다. 이에 시직은 결국 강도에 들어갈 것을 주장하고 말하기를 “기필코 강도로 돌아가겠다. 그곳은 내가 죽을 땅이다”고 말하였다. 그가 강화도에 도착하여 보니 봉림, 인평대군 일행과 비빈종실이 피난해 있던 강화도에서는 1월 중순경부터 청군이 건너올 것이라는 소문이 전해지고 있었으나 그곳 수비를 맡은 장졸들은 강물의 얼음이 두껍지 않아 청나라 군사가 건너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별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음을 보고 그가 탄식하기를 “사람이 착실히 도모하지 않으면 비록 천참(天慚 : 천험의 요충지)이라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오직 죽음이 있을 따름이다”하고 관에서 보급하는 양식도 받지 않은채 종자들의 품팔이로 하루 하루를 꾸려 나갔다. 그러던 중 1월 22일이 되자 돌연 청나라 군사 수만이 강화도로 건너와 불시에 침입하니, 검찰사 김경징(金慶徵), 방어사 이민구(李敏求), 강화유수 장신(張紳) 등은 배를 타고 다투어 도망하였고 이선원(李仙源)은 성문에 올라가 불에 타 죽었다. 이시직은 태복시주부(太僕寺主簿) 송시영(宋時榮)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

사람의 글을 읽고서 오늘 이 지경에 이르러 구차히 살기를 어찌 바라겠소” 하였다.

적들은 사방에서 포위하고 귀순하는 자는 살려준다고 하여 사람들이 모두 달려 나갔으나 그는 웃으면서 말하기를 “적을 따라 삶을 구하는 것은 마음에 부끄럽지 않은가?” 하고 글을 써서 두종에게 주어 큰 아들에게 전하도록 하여 자세히 후사를 부탁하고 <아들이 삼가 생명을 상하지 말고 돌아가서 유해를 장사하고 노모를 잘 부양할 것이며 깊숙한 골짜기에 몸을 의탁하여 영영 세상에 나오지 말아라. 구구한 유원(遺願)은 네가 잘 계승하는데에 있느니라>하고 끝을 맺었다. 이에 시(詩) 한 수를 부쳤는데 <종사는 망하고 만성은 어욕을 당하는구나 의리란 구차히 살지 않는 것, 기꺼이 자결하노라. 몸을 버려 인(仁)을 이루었으니 부앙에 부끄러울 것 없노라. -宗社淪亡萬姓魚肉 義不苟甘心自決 殺身成人俯仰無作->라고 적었다.

송시영이 먼저 자결하자 그를 부둥켜 안고 크게 울고나서 손수 염하여 놓고 구덩이들을 파서 그를 묻은 다음 하나는 비워놓고 종에게 나를 여기에 묻으라고 명한 다음 옷을 벗어 객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것으로 염하여 후일 내 아들이 장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는 평소에 활을 행랑속에 넣고 다녔는데 이것으로 목을 매었다. 종이 울면서 만류하니 가라고 손짓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의 죽음은 영광이다”라고 하였다. 객관 주인은 시적의 절의에 감동하여 상구를 갖추고 명대로 염습하니 이날이 정축년(1637) 정월 26일이요, 그의 춘추 66세였다. 난이 끝난 후에 문의현(文義縣) 형강(荊江) 동쪽 간좌지원에 장사하였다가 후에 용인 선산으로 이장하니 지금의 모현면 능원리이다. 후에 이조참판에 추증되고 충목(忠穆)이라 시호되었다.

<참고 : 연려실기술, 한국인명대사전, 묘갈, 이인영

이 씨(李氏)

<열녀정문> 본관은 연안, 이형원(李馨源)의 딸이며 을사생(1785)이다. 16세 되던 해 죽산박씨 문중의 래영(來永)과 혼인하여 시가에 들어갔으나 시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홀시아버지는 병환으로 문밖 출입도 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시시때때로 대소변을 받아 내는 등 7년동안 극진히 간병하였으나 마침내 세상을 떠났다. 그러던 중 병약하던 남편 역시 24세되던 해인 순조 기사년(1809) 10월 3일 세상을 떠났다. 이 씨는 하루 아침에 오갈데 없는 처상이 되었다. 멸성지정(滅性之情)으로 애통하더니 그

날밤 자결하여 남편의 뒤를 따랐다. 이의 열행이 일세에 드높았으므로 상계서 들으시고
순조 임진년(1832) 열녀정문이 내려졌다.

열녀비에 이렇게 적혀 있다.

빙옥같은 지조는
송백의 제행이라
만인이 다투어 칭송하매
그 이름 밝게 빛나리라
자식있어 쇠함을 극복하고
가성의 실추됨을 없이 하니
끝은 옥돌에 그 이름 새겨
그 빛 백세토록 이어가리
氷玉持操
松柏制行
萬人爭誦
赫赫其名
有子克肖
勿墮家聲
貞珉載銘
百世紹光

〈참고: 삼강행실록, 열녀비문, 내고장의 열〉, 이웅준

이 씨(李氏)

〈열절부〉 본관은 용인, 인수(仁壽)의 딸이다. 선조 정축생(1577)이며 과년하매 이씨
문중의 죽창 이시직(李時稷)에게 출가하였다.

친품이 지효하여 시부모 봉양하기에 못다함이 없었으며 자녀의 교육은 법도에 어긋
남이 없이 엄격하게 하였다. 병자호란이 일어나매 그의 부군이 강화도에서 사복시주부
송시영과 함께 자결하였다. 그의 종이 망건과 유서를 전하니 절통하기를 하루 밤낮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마침내 혼절하여 지아비를 따라 죽으니 부충부열(夫忠婦烈)의 행적은 일월처럼 밝았다. 상께서 들으시고 무인년(1638)에 부처(夫妻)를 아울러 명정(命旌)하였으므로 회덕 송천(松川)에 두 정려문을 한 자리에 세웠다.

(참고: 삼강행실록, 내고장의 열), 이웅준

이 씨(李 氏)

〈열녀〉 ~? 정인빈(鄭寅賓)의 아내. 그 남편이 질병으로 몸져 눕게 되자 지성으로 구환하였으나 백약이 무효로 소생하지 못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자 이씨는 얼굴을 가리고 눈을 감은채 한모금의 물도 마시지 않고 8일후에 역시 남편을 따라 죽었다. 이 일이 임금께 알려지자 영조 29년(1753)에 열녀로 표정(表旌)되었다.

(참고: 읍지), 이웅준

이 애(李 薹)

〈묘〉 조선 문신. 초명은 저(佇), 본관은 청주(淸州), 청허당(淸虛堂) 거이(居易)의 아들. 정종 2년(1400) 1월 태종(太宗)을 책봉하여 세자(世子)로 삼고 11월에 선위할 때 태종을 돕고, 1401년 박포(朴苞)의 난을 평정하여 정사좌명1등공신(定社佐命一等功臣)이 되었다.

이태조의 8남 5녀중 맏딸인 경신공주(慶信公主)와 결혼하여 부마가 되었고 상당부원군(上堂府院君)에 피봉되었다. 그의 묘는 신원리 상선장에 있으며 방형 쌍분으로 좌측에는 이애의 묘, 우측에는 경신공주의 묘가 자리잡고 있다.

(참고: 선원세보, 연려실기술), 박상돈

이 여(李 畬)

〈문헌〉 인조 23(1645)~숙종 44(1718) 조선 문신. 자는 치보(治甫), 호는 수곡(睡谷), 본관은 덕수, 용인현령을 지낸 신하(紳夏)의 아들, 송시열의 문인.

숙종 6(1680)년 춘당대 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1696년 대사성을 거쳐 한성부 판윤이 되고 이듬해 대사헌, 이조판서, 대제학을 지냈으며, 1701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서 무고의 옥(獄)을 엄정하게 다스려 이름을 떨쳤다. 숙종 36년 영의정에 이르른 인

물로 병자(1696)년부터 무인(1698)년까지 충렬서원 원장 직함을 갖고 있었으며 신사년(1701)부터 무술(1718)년까지 17대와 19대에 걸쳐 충렬서원 원장직을 역임하였다.

(참고: 충렬서원 선생안), 이인영

이예건(李禮堅)

〈묘〉 세종 18(1436)~중종 5년(1510) 조선 문신. 자는 불린(不隣), 본관은 한산(韓山), 성종 2(1471)년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출생한지 한달이 채 못되어 모친이 작고하여 외조모인 조씨의 손에서 자랐다. 성장한 후 힘써 배워 관직에 오른 후 장례원 사평(司評), 예조좌랑과 소격서령(昭格署令)을 거쳐 사헌부 직강(直講), 형조좌랑등을 역임하였다. 성종 6(1475)년 군주로 나아갔을 때에는 흉년이 들어 굶주린 백성들이 길에 널려 있는 것을 보고 힘써 구휼하여 많은 백성을 구제하였다. 그후 한성부 서윤(庶尹)이 되었고 사헌부 집의로 있을때 임금이 건주(建州)의 오랑캐를 치려 하자 그는 부당함을 주청하였다가 임금의 뜻을 거슬려 종친부전첩(宗親府典籤)으로 좌천되었다가 삼척부사(三陟府使)에 이어 연산군 6(1500)년에는 대사간에 올랐다. 이때 연산군의 정치가 점차 황란(荒亂)해가는 것을 보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구신(舊臣)은 벼슬에 나아가서는 직책을 다하여야 하고 임금에게 허물이 있으면 듣는대로 다 말함이 옳다〉고 여기고 간하다가 용궁(龍宮)으로 귀양보내졌다가 다시 성주(星州)로 옮겨졌다. 각지를 떠돌아 다니면서 온갖 고초를 겪었으나 죽고 사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고 어린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쳤다. 중종반정 후에 귀양에서 풀려나서 적소였던 성주목사를 제수받았다. 이 고을 백성들이 죄인의 몸으로 있을때 친절하게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도 있었으나 반면에 경멸한 자들도 있었지만 그는 일체를 불문하고 후하거나 박하게 하지 않고 선치함에 사람들은 그의 넓은 도량에 감복하였다. 그러나 중종 5년(1510) 10월에 발병하여 11월에 죽하니 향년 75세였다. 그는 효우(孝友)가 천성이어서 누님을 섬기기를 어머니같이 하였으며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았고 겸양을 지켰으며, 경사(經史)를 담론하기를 늙도록 게을리 하지 않았다. 후에 승정대부 의정부 좌찬성에 증직되고 그의 부인에게도 정경부인으로 증직하는 교지가 내려졌다.

(참고: 국조인물고, 한국인명대사전, 경기금석대관, 한산이씨 세보), 박상돈

이영선(李英善)

〈독립지사〉 대한독립단 남만 지단장. 고종 22년인 1889년 3월 9일 용인군 구성면 보정리에서 출생하였다. 호는 백농(白儂)이고 이명(異名)은 춘기(春基)이다.

그가 20세되던 해인 1908년,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만주로 망명한 후 1919년 신흥무관학교에서 군사교육을 받았다. 그후 동년 3월 박장호(朴長浩), 조맹선(趙孟善), 전덕원(全德元) 등이 중심이 되어 유하현(柳河縣)에서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을 조직하였을 때, 선생은 이에 가입하여 각 지방에 산재해 있는 일민단(日民團), 보민회(保民會), 강립단(強立團)과 같은 친일기관, 단체를 분쇄하는데 참여하였고 남만(南滿) 지단장(支團長)으로 활약하였다.

그러던 중 상해임시정부의 재무부서에서 근무하다가 1921년 임시정부의 독립공채를 판매하기 위하여 국내에 잠입, 활동하던 중 체포되어 갖은 고문을 당한 끝에 4년간의 옥고를 치루었다. 출옥 후에는 다시 만주로 건너가 1943년까지 민족교육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였으며, 남자현(南慈賢) 의사와 공모하여 일본이 세운 만주국 괴로정권 건국기념일을 기하여 주(駐)만주국 일본인 대사 무등신의(武藤信義)를 암살하려던 계획이 누설되어 남자현이 체포되어 옥고를 치루게 되었다. 이때 역시 이영선도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았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완강히 버텼으므로 오랜기간 미결수 생활을 함으로서 폐인이 되자 석방되었다. 그후에도 항일운동을 계속하다가 1955년 11월 6일 서거하였다.

〈참고: 김승학 대한독립사 하권 226, 독립유공자공훈록 5권 817, 독립유공자공적조서 2322호〉,

이인영

이 완(李 莞)

〈묘: 충신정려문〉 선조 12(1579)~인조 5(1627). 조선 무신(武臣), 자는 열보(悅甫), 본관은 덕수(德水), 충무공(忠武公) 순신(舜臣)의 조카, 증참판 희신(羲臣)의 아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숙부인 충무공 순신을 따라 군영(軍營)에 있었는데 1598년 노량해전에서 충무공이 홀연히 탄환을 맞아 절명하자 이완은 급히 유소를 받들어 뱃머리에 나아가 큰 소리로 기(旗)를 흔들면서 지휘하여 마침내 적을 크게 무찌르고 대

승하였다.

이듬해인 1599년 무과에 급제하여 바로 도총도사(都摠都事)에 제수되었으며 갑진년(1604)에는 남포현감(藍浦縣監)이 되었다가 광해군 10년에는 평양중군(平壤中軍)이 되어 절충장군(折衝將軍)에 올랐고, 인조 1년(1623)에는 충청도병마절도사(忠淸道兵馬節都使)에 이르렀다. 이듬해인 1624년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수하의 병사를 인솔, 호현(狐峴)에서 결전하여 이천(利川)으로 도망친 난군을 토평하였다. 그는 이 공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오른 후 의주부윤(義州府尹)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임기가 지났음에도 그대로 유임하라는 왕명이 있었는데 1627년 정묘호란(丁卯胡亂)이 일어나 몰래 압록강을 건너온 오랑캐들이 밤에 군진을 포위하고 야습을 감행하자 이들을 맞아 힘껏 싸웠으나 중과부적으로 패하자 병기고에 불을 지르고 뛰어들어 분사하니 정월 14일이 었다.

일찌기 만(灣)에 있을때 종형(從兄)에게 서신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미 죽기를 각오 하였는데 어찌 죽히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비록 일이 창졸간에 일어났으나 평소 품은 뜻으로 일을 대처할 것이오”라고 적었다. 이 사실을 듣고 후에 조정에서는 병조판서로 추증했으며, 숙종 갑신년(1704)에는 충신으로 정려(旌閭)하고 고향에 정려문을 세우니 지금의 수지면 고기리에 전한다. 숙종 32년(1706)년에는 충무공 사당인 아산의 현충사에 제향케 했으며 시호를 내려 강민(剛愍)이라 하였다.

〈참고: 국조인물고, 한국인명대사전, 묘갈〉, 이인영

이용신(李龍臣)

양지현감(陽智縣監). 경종 4년(1724) 7월 도입하였다가 영조 4년(1728) 4월까지 3년 10개월간 재직한 후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영전하였다. 종6품직 현감이 당상관(堂上官)인 통정대부로 승진한 기록으로는 용인에서는 그가 최초가 된다. 이는 현행 관직으로 치자면 6급 주사가 1급 관리관(管理官)으로 승진한 격이 되나 조선시대에는 행직(行職)으로 직급보다 아래의 하관(下官)인 수령을 지낸 경우가 있었으므로 가능했던 인사인 것 같다.

〈참고: 용인시사연표〉, 박상돈

이용환(李容煥)

항일만세주동, 생몰 : 1880. 12. 2~1919. 6. 5

용인군 원삼면 사람이다. 1919년 당시 맹리에 거주하였고, 황경준, 최상근 등 동지와 함께 이지역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1919년 3월 21일 일단의 주민을 이끌고 좌항리 만세시위대에 합세하여 원삼면 사무소 소재지에서 시위도중 체포되었다.

동년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루던 중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당한 고문으로 턱이 빠졌고, 그 고문의 여독으로 동년 6월 15일 옥사하였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 : 1919. 5. 9 경성지방법원 판결문, 독립운동사 2권, 독립유공자공훈록〉, 금병윤

이우중(李祐重)

초대 용인경찰서장. 1945년 10월 21일 미 군정관(軍政官) 소속 육군 소위 〈테스텐스〉로부터 용인경찰서 치안을 인수받아 해방이후 최초 용인경찰서장이 되었다.

이우중은 그로부터 한달 후인 11월 20일 이임하였으며 2대는 최진서(崔辰誓) 경부가 취임하였다.

〈참고 : 시사연표〉, 금병윤

이우중(李寓中)

〈생거급제〉 영조 35년(1759)~? 본관은 단양(丹陽), 재운(再運)의 아들. 순조 13년(1813) 40세의 나이로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급제하였으나 은거하였다.

〈참고 : 고사대사전, 용인군지〉, 이인영

이원간(李元幹)

〈출생·묘〉 성종 4(1473)~중종 21(1526) 조선 문신. 자는 쌍매당(雙梅堂), 본관은 용인, 효독(孝篤)의 아들. 연산군 원년(1495)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고 연산군 10년(1504)에는 문과에 장원, 옥당(玉堂)을 거쳐 호남어사(湖南御史), 목천현감(木川縣監), 진주목사(晉州牧使), 전랑(詮郎), 대관을 역임하였고 통훈대부(通訓大夫), 의정부사인(議政府舍人), 군기시정(軍器寺正) 겸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 등을 역임하였다. 묘는 수

지면 풍덕천리에 있다.

〈참고 : 용인이씨 세보, 비문집〉, 최희면

이원발(李元發)

〈묘·신도비〉 생몰미상. 초명(初名)은 충(寵), 호는 은봉(隱峯), 본관은 연안(延安), 고려 공민(恭愍)·공양(恭讓)왕때 벼슬하여 관위는 전공판서(典工判書)에 이르렀으나 고려의 운세가 날로 쇠퇴해지자 강개한 나머지 정치에 뜻을 잃고 고향으로 낙향, 은거하였다. 그의 지우(知友)로는 원운곡(元耘谷)이 있었는데 덕(德)과 의(義)가 투합하여 5~6일씩 함께 묵으면서 지냈으나 집안사람도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한번은 창두(蒼頭 : 종놈)에게 노자를 두둑히 주어 청석동(靑石洞) 동구(洞口)로 보내 대기하고 있던 사람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우마(牛馬)까지 모두 다 주고 오게 하였는데 이 사람은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으로 원발에게 하직하고 치악(雉岳)으로 떠나는 길이었다.

그의 둘째 아들이 관동에 재임할 때에도 봉록(俸祿)을 나누어 운곡의 거처로 보내 주었는데 이는 부친 원발의 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태조의 잠저 시절에 친교(親交)가 있어 그가 등극한 후에 누차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으며, 우의정(右議政)을 내렸으나 끝내 응하지 않아 러조에 대한 신하로서 지조를 지켰다. 그가 하세하자 고산현(高山縣) 소주치(燒酒峙)에 초장(初葬)하였다가 세종 21(1439)년 구성(駒城 : 지금의 용인)의 남쪽 구수동(九水洞 : 지금의 이동면 서리 불당골) 해좌원(亥坐原)에 천장(遷藏)하였다.

비문에 〈오호라! 사람이 불우(不遇)함은 명도(命途)요 시대가 불운한 것은 천운(天運)이다. 공은 정의와 대도(大道)로 공민왕조(恭愍王朝)에 벼슬하여 재덕(才德)이 크게 쓰일듯 하였는데 그렇지 못하고 벼슬은 열정(列卿)에서 그쳤으며, 공양왕이 즉위한지 몇 해가 안되어 시골에 숨게 되었으니 어찌 천명이 아니라! 공은 변란의 시대를 당하여서도 높다랗게 우뚝 서 금석을 꿰뚫었으며, 신명(神明)과 통하였으니 그 출처(出處) 진퇴(進退)는 뇌락(뇌落) 광명(光明)하여 지성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며, 큰 일에 다달아 대의(大義)를 결(決)함에는 지정(至正)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공은 잠덕(潛德)과 의절(懿節)을 겸하고 있었으니 이것만으로도 불후(不朽)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참고 : 신도비명〉, 노승식

이원복(李元復)

〈효자·정려문〉 본관은 전주, 덕천군(德川君)의 11세손, 효자 규현의 조카, 영조 무신(1728)년의 원종공신 기헌(基獻)의 둘째 아들이다.

부친이 노쇠하여 보행이 어려워지자 원복은 부친의 발이 되어 부친이 가고 싶다는 곳이면 10리이건 이십리이건 항상 업고 다녔다. 이처럼 특출했던 효행은 부친의 사후까지도 두드러져 시묘 3년에 하루도 빠짐없이 곡묘하였으며 이 기간중에는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의 행실이 일세에 자자하여 사람이 흠경하고 관장에게 제자를 올렸으므로 조정에 품신, 영조 12년 병진(1736) 효자로 표정(表旌)되었다.

유인군 의사면 옥산리 상산마을에 효자각이 전한다.

〈참고: 전주이씨 족보, 내고장의 일, 삼강행실록〉, 이용준

이유겸(李有謙)

〈출생·묘〉 선조 19(1586)~현종 4(1663) 조선 문신. 본관은 우봉(牛峯), 자는 수익(受益), 호는 만회(晩悔), 홍문관 부제학 지신(之信)의 손자, 좌찬성 활(劼)의 아들.

유겸은 7세때에 부친을 여의고 15세에 비로소 수학(受學)하였으며 17세에 과거에 뜻을 두고 일찌기 풍옥(風玉) 조수륜(趙守倫)을 따라 배웠는데 조수륜은 우계(牛溪) 성혼(成渾)의 문인이며, 후에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문하에서 졸업하였다. 광해군 때에 조수륜이 화를 당하여 아무도 모른채 하였으나 그가 감히 수습에 나섰으며,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위시키려 하자 홍무적(洪茂績)등 여러 사람들과 함께 광해군의 잘못을 지적, 눈물을 흘리면서 대의(大義)를 밝히려 하였으나 광해군이 인륜지도를 떨어뜨림으로서 이로부터 벼슬을 버리고 시골에 묻혀 은둔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시골에 있는 선비들을 천거토록 하였는데 이때 유겸은 포의(布衣: 벼슬이 없는 선비)로 천거되어 신녕현감(新寧縣監)을 제수받자 친구들이 벼슬에 나가기를 만류하였다.

이에 유겸은 “분수에 따라 녹사(祿仕)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하물며 노모(老母)가 계심에 있어서 어찌하겠는가”라고 하면서 현감으로 나아가 선치하여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들었으나 이를 시기한 소인배들의 모함을 받아 고을 백성들이 스스로 포(布)를 바쳐 무죄를 탄원할 정도로 신망을 받았다. 후에 익위사(翊衛司) 위술(衛率), 공조, 형조

의 낭관(郎官), 사복시판관(司僕寺判官), 첨정(僉正)등 내직을 거쳐 함흥판관, 순창군수를 거쳐 대구부사(大邱府使)에 특수(特授)됨으로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라 장예원판결사가 되었는데 주변에서 강명(剛明)하고 청렴하다는 평을 들었다.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의병을 일으켰으나 도착도 하기 전에 남한산성이 함락되었고 말년에는 왕실의 타락을 보고 관직을 떠나기도 하였으며 산직(散職)을 두루 거치면서 명사대부(名士大夫)와 함께 기사회(耆社會)를 만들어 교유하였다.

유점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준수(俊秀)하였고 천성이 탁월하였다. 일찍 부친을 여의고 외롭게 자랐지만 능히 스스로 성립하여 선(善)을 이루는데 독실하였고 의리를 따르는 데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비록 벼슬길에 나아가서 지냈어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이고자 하지 않았으며, 학문은 자기를 수양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외양으로 절제하는 법도가 엄밀하고 빛이 나므로 이로써 대인 군자임을 알만하다고 후학들이 그의 인물을 평하였다.

가정에 있어서는 충효와 절의가 일세에 빛나 세상을 교화함이 족히 있었으나 겸허하고 온화하여 스스로 나타남을 바라지 않았고 지위가 높을수록 마음을 낮추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욱 공손하였으니 이는 주역에 〈겸손함은 지위가 높아져도 빛이 난다〉는 말씀 실천하여 도리를 밝힌 것이다. 1663년 12월 20일 졸하니 수는 78세였으며, 용인현 한천동(寒泉洞)에 장례지내고 부인 파평윤씨와 합장하여 지금에 이른다.

〈참고 : 우봉이씨 세보, 민족문화대백과, 묘갈〉, 이인영

이윤빈(李允賓)

항일의병. 용인군 모현면 갈월리에 거주하였다. 당년 30세의 나이로 농업에 종사하던 중 이익삼(李益三) 의병장 휘하에 들어가 정기인 등과 함께 광주군 상동막리 1통2호 이장 허성습(許性習)의 집에 들어가 군자금을 징취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검거되어 경성지방재판소에서 3년형을 복역하였다.

〈참고 : 경성지방재판소 재판기록〉, 금병윤

이은표(李殷杓)

3.1만세 주동. 생몰 1897. 7. 20~1974. 4. 5

용인군 원삼면 사람이다. 1919년 3월 21일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면사무소 앞에서 많은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여 시위행진을 주동하다가 체포되어 동년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고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1990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 판결문 1919.7.1. 독립유공자공훈록), 노승식

이의병(李宜炳)

(출생) 숙종 9(1683)~? 조선 서예가, 자는 문중(文仲), 호는 오정(梧亭)·설천(雪川), 우의정(右議政) 세백(世伯)의 종질(從侄)이다. 숙종 41년(1702) 진사가 되었다. <서화징>에 행서(行書), 해서(楷書), 초서(草書), 예서(藝書) 등의 서체에 능하였다고 전한다.

(참고: 한국서화인명사서), 최희면

이의현(李宜顯)

자는 덕재(德哉), 호는 도곡(陶谷),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본관은 용인으로 1669(현종 10)년 좌의정 세백(世伯)의 아들로 태어나 1745(영조 21)년에 세상을 떠났다. 어려서부터 충기가 좋았으며, 김창협(金昌協) 문하에서 수학하여 자기를 충실히 하는 학문에만 힘쓰고 벼슬에는 뜻이 없었다. 뒤에 아버지의 명으로 과거를 보아 1694(숙종 20)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1720년 동지사(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와서 이듬해 형조판서에 이어 이조판서가 되었다. 신임사화때 유배되었다가 영조 즉위 후에 풀려나왔고, 1727년 우의정에 올랐으나 정미환국(丁未換局)으로 추방되었다가 1732년 사은사(謝恩使)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영의정이 되었다.

(참고: 용구문화, 용인이씨 세보), 이응준

이이담(李以澹)

〈생거급제〉 영조 29년(1753)~? 자는 화진(和軫), 본관은 단양(丹陽), 세흠(世翕)의 아들. 정조 18년(1794) 갑인정시(甲寅庭試)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으나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참고: 고사대전, 용인군지〉, 박상돈

이 익(李 翊)

〈출생·묘〉 인조 7(1629)~숙종 16(1690) 조선 문신. 자는 계우(季羽), 호는 농재(農齋), 본관은 우봉(牛峯). 호조참의(戶曹參議) 유겸(有謙)의 다섯째 아들이며, 우의정(右議政) 숙(翊)의 아우.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으로 현종 3년(1652) 진사가 되었고 효종 8년(1657) 알성시(調聖試)에 병과로 급제한 후 설서(說書), 사서(司書)를 거쳐 효종 10년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이 되었다.

현종 원년(1660) 사간(司諫)이 되었을 때 송시열을 무고(誣告)하는 유세철(柳世哲) 등을 격렬히 탄핵(彈劾)하였다. 그후 동부승지(同副承旨), 대사간(大司諫), 이조참의(吏曹參議), 원양도관찰사(原襄道觀察使)등을 거쳐 숙종 즉위년(1674) 다시 대사간에 제수되었다. 이듬해 송시열이 유배될 때 같은 서인(西人)으로서 계속 탄핵을 받다가 숙종 5년(1679) 양덕(陽德)으로 유배되었다가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서인이 기용되자 동부승지(同副承旨)로 복직되고 대사헌, 부제학,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를 거쳐 숙종 14(1682) 형조판서(刑曹判書),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올랐다. 이때, 서인이 노론(老論)과 소론(少論)으로 분열하여 노론의 영수(領首)인 송시열이 사직하자 함께 벼슬을 버리고 용인으로 낙향하였다.

그후 강화부유수(江華府留守), 경기도 관찰사를 거쳐 숙종 14년 다시 이조판서가 되었으나 이듬해 장희빈의 아들로 세자를 책봉하려는 숙종의 계획에 반대하다가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자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장흥부(長興府)에 귀양갔다가 거기서 일생을 마쳤다.

그는 평소 곧은 성격에다가 높은 절개(節概)가 있어 맡은 일에는 공명정대(公明正大)함과 순리(順理)에 따라 처결하는데 있어 추호의 사심이나 흐트러짐이 없었다. 이조판서로 전형(銓衡)을 4년간이나 맡았으나 이웃사람들이 그가 재상(宰相)임을 모를 정도

로 검약 겸손하였다.

당대의 문장가이자 명필로도 손꼽혔으며, 교령(敎令)을 모은 수교집록(受敎輯錄)을 편찬하였다. 그의 묘는 이동면 천리, 속칭 노루실에 전한다.

(참고: 우봉이씨 세계지, 경기인물지, 한국인명대사전), 이인영

이익삼(李益三)

항일의병. 용인군 모현면 능동에 거주하였다. 용인, 광주, 양지, 죽산, 양성 등지를 주무대로 맹렬하게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익삼(李益三)은 융희원년(1907), 봉기한 이래 융희 3년(1909) 6월 20일 체포될 때까지 신출귀몰하면서 일경을 괴롭혔고 일진회(一進會)등 친일 인사의 정치, 빈민구제, 항일유격전을 전개한 인물로써 경기찰비보(京畿察祕報) 제923호에 의하여 내부(內部)경찰부장 일본인 송정무에게 보고한 신문조서에서 그의 출생지가 모현면 능동(지금의 능원리)임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경기관내의 의병활동에 관한 동향보고서 <경비수 제531호, 융희 원년 11월 24일자>에 의하여 일시 귀순했다가 의병으로 다시 봉기했던 인물이며 수하에는 15명 가량의 부하를 두고 용인·광주를 주무대로 활동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익삼을 추종한 의병들의 숫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용인군 동북부 의병출몰은 대개 그의 수하에 있었던 의병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 독립운동사 자료집 별책), 금병윤

이인하(李寅夏)

3.1만세 주동. 생몰 1890. 4. 4~1966. 4. 6

용인군 원삼면 사람이다. 1919년 당시 맹리에 거주하였으며, 황경준, 최상근 등과 동지역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일단의 시위대를 이끌고 면사무소 앞에서 이은표와 함께 합세하고 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도중 일경에 체포되었다. 동년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고 1년간 옥고를 치렀다. 1990년 건축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 1919.9.21. 고등법원 판결문, 독립유공자공훈록), 이인영

이 일(李 鎰)

〈출생·묘〉 이일은 조선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용인(龍仁), 자는 중경(重卿)이다. 관찰사 이백지(李伯持)의 7대손으로 중종 33년(1538년) 용인군 포곡면 신원리에서 태어났다. 타고난 성품이 뛰어나고 어려서부터 힘이 장사였던 이일은 1558년(명종 13)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 경성판관을 거쳐 1583년(선조 16) 전라도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가 되었다. 이당시 함경도는 북쪽의 오랑개 즉 변호(潘胡)의 침입이 빈번하였다. 변호의 니탕개(尼湯介)가 북쪽 국경을 침입하여 경원부(慶源府)를 함락시키고 종성(鍾城)까지 포위하고 있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이일로 하여금 경원부사로 임명하여 니탕개를 격퇴케 하였다. 1587년 니탕개가 2만여명의 병사를 이끌고 재차 침입을 하자 함경도북병사가 되어 뛰어난 용맹과 지략으로 니탕개의 군사를 모두 쳐부수고 그들의 부락과 소굴까지 불질러 완전히 섬멸하는 큰 공을 세웠다.

1588년 두만강을 건너 녹둔도(鹿屯島)에 침입한 여진족의 시전부락(時錢部落)을 소탕하여 가옥 200여동을 불사르고 여진족 380여명을 목베는 전과를 올렸다. 이후 이일은 김종직이 편찬한 《제승방략(制勝方略)》을 증보하여 적과 싸울때 필요한 모든 방책과 병사들을 통솔하는 분군법(分軍法), 군무금령(軍務禁令) 수십여조 등의 내용을 담은 《승전방략(勝戰方略)》을 지어 장수들로 하여금 시강(試講)의 표본으로 사용케 하였다.

1589년 전라병사로 임명되어 신립(申砮), 정언신(鄭彥信)등과 변방의 군비상황을 논의하였다. 1592년(선조 25)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신립장군을 도순변사(都巡邊使)로, 이일장군을 경상도순변사로 임명하여 방어케 하였으나, 북상하는 왜적을 경상도 상주에서 맞아 싸우다가 크게 패배하고 충주로 후퇴하였다. 충주에서 신립의 진영에 들어가 재차 왜적과 싸웠으나 수만에 조총까지 보유한 왜구에게 패하여 사잇길로 도망하여 황해도로 피신하였다. 이때 신립은 탄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우다 전사하였다. 조정에서는 패주한 죄가 크다 하여 처벌을 주장하는 신하가 있었으나 경험이 많은 무장이라 용서하였다. 이후 선조의 근위대장(近衛隊將)이 되어 임진강에서 왜군 600여명을 베어 그들의 기세를 꺾은 바 있으며, 세자 광해군을 3,000여명의 군사로 호위하다가 평양 왕성탄(王城灘) 전투에서 왜적 80여명을 사로잡기도 하였다. 이후 동변방이사(東邊防禦使)가 되어 평양을 방어하다 명나라 장수 이여송(李如松)이 수만 병력을

이끌고 원정해 오자 이일은 평안도 절도사로 이들과 합세하여 왜적을 공격한 결과 평양을 회복하였다. 이에 선조는 공을 극찬하며 백금 20냥을 내려 주었다. 그 뒤 지중추부사·비변사당상·훈원원지사를 지내면서 군사를 조련시켰으며 한양이 탈환되자 우변포도대장이 되어 수도치안유지에 힘썼으며 충청도에서 송유진(宋儒眞)의 난이 일어나자 순변사로 그 뒷수습을 맡아 처리했다. 1595년 왕의 특지로 다시 함경도 순변사, 충청·전라·경상도 삼도 순변사를 거쳐 무용대장(武勇大將)이 되었다.

1601년(선조 34년) 함경남도 병마절도사로 재직중 부하를 죽였다는 살인죄의 혐의를 받고 붙잡혀 호송되다가 정평(定平)에서 병으로 죽으니 이때 나이 64세였다. 선조는 이 일장군의 공로를 생각하고 애도의 뜻을 표하며 관직을 좌참찬으로 추증하고 시호를 장양공(壯襄公)이라 하였다. 저서로는 《증보제승방략》 2권과 《장양공 시전호 정벌도(壯襄公時錢胡征伐圖)》가 전해오고 있다. 그의 묘소는 모현면 매산리 고시능에 있다.

〈참고 : 명종실록, 선조실록, 연려실기술〉, 최희면

이인입(李仁立)

〈단·기념비〉 고려 충숙왕 2년(1333)~우왕 13년(1387) 고려문신. 자는 희성, 호는 모은(慕隱), 본관은 성주, 조년(兆年)의 손자, 표의 아들.

21세에 문과에 올라 벼슬은 밀직사사, 진현관 대제학, 서경부원수(西京府元郡)에 이르렀다. 그의 중형 인입(仁任)의 권세가 너무 선함을 보고 이를 못마땅히 여겨 매양 간하다가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또 정국이 날로 어지러워 짐으로 벼슬을 버리고 귀향하기로 결심하니 동료가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 목은 이색이 말하기를 《돌아갈 것인데 돌아가지 아니하는 한산옹이요, 안돌아 갈것인데도 돌아가는 제학공이라. 제학(提學)은 나 이도 젊고 병도 없으면서 몸을 빌어 돌아가기를 가벼운 듯대같이 한다. 그뿐이라 그릇이 넘치는 것을 예전 사람이 경계하였거니와 그칠줄을 알며 이를 짐작하는 그대의 지혜를 누구라서 따르리오》하였다.

그가 향촌에 돌아와 세상 공명을 끊은지 10년만인 1387년 2월 21일 별세하였다. 그의 묘는 본래 고흥촌에 있다고 하였으나 실전되어 그의 후손들이 용인현 울목동(지금의 모현면 오산리)에 단을 짓고 비를 세워 성주 이씨들이 향사를 받들고 있다.

〈참고 : 이인입 유희비〉, 노승식

이 자(李 紆)

〈묘, 사당, 정자〉 조선 중종때의 명현(名賢). 성종 11(1480)에서 사간원(司諫院) 예견(禮堅)의 아들로 출생, 자는 차야(次野), 호는 음애(陰崖), 시호는 문경(文敬), 본관은 한산, 목은 이색의 후예이다.

그의 조부 형증(亨增)은 참관을 역임했는데 청주목사를 지냈으나 물건 하나도 남에게 받지도 주지도 않는 강직한 선비였다. 그의 부친 예견 역시 과거에 합격하고 관직에 나간지 40여년 동안 청렴한 것으로 이름이 있었으며, 검소하게 살라는 것을 가훈으로 남겼다.

이자는 서울에서 출생하였으나 선영이 있는 용인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기곡(器谷)의 두암산 기슭(지금의 기흥읍 지곡리)에서 조광조, 조광좌, 조광보, 제현과 함께 발갈고, 나무하고, 고기잡으며, 채소를 기르면서 장수강학지소로 하였고 이들이 회동하던 곳을 4은정(四隱亭)이라 하였으니 지금도 유적이 전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14세 되던 해 부친의 임지를 따라 갔다가 두타산(頭陀山) 중대사(中台寺)에 올라가 송사(宋史)를 읽다가 개연히 분노하여 만언서(萬言書)를 지어 바치려 했으나 부친이 경계해서 중지시켰다는 일화를 남기고 있다.

또한 절에 가서는 어느 노승이 계율(戒律) 지키기를 매우 엄격히 하고 말하는 것이 조리가 있으므로 그를 좋아하여 불도에 귀의하려 했던 일도 있다. 절 앞에 깎은듯한 절벽이 있었는데 거기 쌓인 눈이 창가에 비치는 밤에 글을 읽으면서 천고(千古)의 신비에 격앙심취하기도 했었다고 그의 유년시절을 회고하는 자서전 〈음애일록〉에서 밝히고 있다.

서울에 돌아와서 신유년(1501)인 22세때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갑자년(1504)에 다시 문과에 장원하였으며, 벼슬은 우참찬에 이르렀다. 대간(大諫)이던 부친 예견이 연산군의 미움을 받아 성주목사(星州牧使)로 좌천되었을 때 이자는 이조좌랑으로서 부친을 봉양하고자 스스로 자청하여 문소(의성)의 원을 지냈는데, 백성을 잘 다스리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써, 임기를 마치고 돌아간 후에도 그의 공덕을 생각하는 백성들이 많았다.

1506년 중종이 보위에 오르자 옥당에 뽑혀서 시종(侍從)이 되었으며, 중종 12(1517)

년에 부제학으로 승진되었다가 다시 승지 자리로 옮겼다. 그 이듬해 남곤과 함께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었는데 상사(上使)였던 남곤이 북경에서 중병을 얻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을 힘써 구호하였다. 이때 함께 갔던 서장관(書狀官) 한충(韓忠)이 꺾속말로 이르기를 「저놈이 사류를 적지(赤地)로 만들 것이요」하였다. 이에 이자는 정색을 하고 말리면서 힘써 보호하였으므로 생명을 건졌다.

귀국하였을 때는 계자(階資:등급)를 뛰어 한성판윤겸 경연관으로 특진되었으며 이해가 기묘년(중종 14년:1519) 봄이었다. 이때 조광조는 훈구대신의 위훈을 삭제하는등 과격정치로 인하여 정가는 크게 동요되고 민심과 국론이 엇갈렸다. 이때 이자는 정가를 수습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대세가 기울어져서 기묘사화의 와중에 휩싸이게 된다. 결국 조광조 등과 함께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가 최후에 석방되었다. 이것은 사화의 원흉이던 남곤이 명나라에 가서 병구환 받은 것을 잊지 않았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12월에 최숙생(崔淑生)과 함께 관직을 삭탈당하고 음성 고을의 음애에 은거하면서 스스로 호를 음애라 하였다.

이때부터 그의 은둔생활이 시작되는데 오직 학문과 독서에 심취하였고 눈길을 모아 정신을 집중하므로 집안 사람도 안면을 볼 때가 드물었다. 또한 샘물을 연못에 끌어들이고 모옥의 정자를 짓고 휘파람을 불며 시조를 읊조려서 흥을 풀고, 술이 생기면 양젓 마셔서 가슴속의 음울을 달랬고, 때로는 붓가는 대로 회포를 적어 시름을 달랬다. 그러다가 기축년(1529), 인가가 드문 심산유곡을 찾아 이사를 했는데 그곳은 청추 달천 상류의 토계(兎溪)지였이었다. 이곳에 정자를 건립하고 몽암(夢庵)이라 하고 자신의 호도 <몽암> 또는 <계몽>이라 하였다. 여기서 이자는 탄수 이항(李沆)과 벗삼고 자주 왕래하였으므로 이들이 지나는 길목의 새와 물고기도 놀라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자는 이 부분을 그의 일록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맑은 바람 밝은 달을 만나면 한 듯대로 서로 오가며 돌위에 앉아 시를 읊으며 신선의 발자취를 사모하여 냇물에 고기를 낚기도 하고 한가로운 전원의 틈을 얻어 주인이 되었으니 천리간에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는 여기서 일생을 마치니 이해가 중종 28년(1533)이고 수 54세였다. 그가 하세한지 6년후에 중종이 기묘년의 일(기묘사화)을 크게 뒤우쳐서 그때 사회에 관련되었던 사람

들을 다시 기용하였다. 만력 정축(1577)년 부제학이던 유희춘(柳希春)이 주청하기를 <참판 이자는 기묘년의 명신으로 억울하게 폐출되어서 명(命)을 마쳤습니다. 그의 충직한 행실이 잊혀진다면 애석한 일이오니 명호를 내리시어 장래 사류를 장려하시옵소서>라고 청하여 “학문이 넓고 도덕이 있음을 문(文)이라 하고 일찍 일어나 경계하는 것을(敬)”이라 하여 문경공이란 시호를 내렸다.

그의 행장록에는 다음과 같이 피력되었다.

<공은 천분이 매우 높았으며 외모도 아름다웠고 마음이 넓고 컸다. 또 심주(心柱)가 넓고 두터웠으며 도량 또한 넓고 밝았다. 사람을 대할 때에는 온화하면서도 엄하고 일 처리는 간략하고 근실하게 하였다. 조상을 받드는 일이나 제향은 정성을 다하였으며 벼슬에 임해서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규문 안에서는 질서가 엄하였다. 또 평소에는 당연히 세상일을 잊은듯 하다가도 조정의 정사가 잘못된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날 탄식하였다. 제자를 가르치다가 진동(陳東)을 죽인 대목(송나라 태학생인 진동이 당시 간신인 왕(汪)과 황(黃)을 물리치고자 소를 올렸다가 죽음을 당했다는 고사)에 이르러서는 두어 줄 읽지 못하고 목이 메어 소리를 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슬픈 빛이 얼굴에 가득하고 눈물이 눈썹에 가득하니 배우던 자들이 면구히 여겨 물러가기도 하였다. 또 그의 학문은 쇄소(灑掃), 응대(應對)를 계계(階梯)로 삼았다고 하였으며 신을 궁구하고 자연의 이치와 섭리론에 귀의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수양하는데에는 도(道)가 있고 체(體)와 용(用)을 구비한 인물이라 했으며,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또 경솔하게 남과 더불어 말하지 않았다. 또 빈말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오직 실천하는데 힘썼다. 만년에는 진실이 쌓이고 학력이 오래됨에 인의(仁義)가 정숙(精熟)하여서 동(動), 정(靜), 어(語), 묵(默) 어느 것이나 예에 어그러짐이 없었다>고 하였는데 당시 대사간을 지낸바 있는 심언광(深彦光)이 이자(李紆)를 두고 지은 만사(挽詞)에 이렇게 되어 있다.

<영묘(英妙 : 어린)한 시절의 높은 심회가 노성(老成)에 견주었는데
한세상 경장(更張)할 때는 놀랍기도 하였다.
애오라지 시례(詩禮)로서 초복(初服)을 이루었으나
경윤(經綸)한 것이 반생을 그르칠 줄이야.

쓰임과 버려짐은 천륜과 같은 것이니
 기뻐하거나 성낼 것 없고
 슬픔과 편함은 처지에 따를 것인데
 쇠고(衰枯)와 영화가 상사(常事)이려니
 궁(窮), 통(通), 달(達), 절(節) 모든 것이 심상한 일인 듯
 10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그 이름이 전하는구나)

라고 썼다.

후세 사람들은 이 시를 보고 형용이 미흡하다고 하였으나 도자(道者)의 개성이 있다고 하여 널리 알려졌다고 하였다.

그의 저서 <음애일기(陰崖日記)> 마지막 장(章)에 이렇게 적고 있다.

(사람이 천지간에 나서 임금과 부모가 있음으로 버리(綱)을 삼는 것인데 부모는 이미 돌아가셨으나 제사도 예를 갖추지 못하고, 북쪽 하늘을 쳐다보면 눈물이 난간을 적신다. 또 신하가 되어 잘한 일이 없어 죄가 되며, 이를 헐뜯고 욕하는 것이 만가지나 되건만 오히려 입을 벌려 먹을 것을 기다리고 사람을 향하여 말하고 웃으니 어찌 완고하고 독한 물건이 아니라...

말년에는 병이 얹혀 항상 추위와 더위의 절기가 바뀔 때마다 해소가 위로 치밀어 숨이 끊어지려 하니 대개 4~5년이 지나지 못해서 이 몸이 없어질 것 같구나.

픈 세상에 사랑하고 그리워 할 것이 없지만 두세명 어린 딸이 아직도 출가하지 않았으니 세상을 버리고자 하여도 버리지 못한다.

어찌 전생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아서 이 괴로움을 겪는 것인가?

대개 사람이 70세를 누리는 자가 극히 적고 5~60이 되는 자도 요사(夭死)라 일컫지 않는데 나는 이제 나이 51세라. 과거에 겪은 일을 돌이켜 보건대 잠시도 용납할 수 없구나. 이 세월이 급한 것을 깨닫노니 60~70을 더 산다면 몇해 이겠는가?

주점을 참고 글을 읊고 술을 마시고 미미해서 세월을 보낼 뿐이니 무슨 일로 마음을 잡아 몸을 유지하리오.

나의 시는 족하고 화창하지 못하여 감히 시 짓는 사람의 문간과 담 옆에도 가지 못하지만 다만 스스로 즐길 뿐이다.

내 자손을 위한 글을 광주리 속에 간수해 두었으니 때때로 꺼내보고 오늘날 내 정경을 생각해 봄이 옳을 것이나 웃음을 살까 두려운 일이다. 경인 설달 그믐날 붓기는대로 적노라)

음애일기는 중종 4년(1509) 기사 윤9월부터 시작하여 중종 11년 병자(1516) 12월에 끝을 맺었다. 그러나 음애연보에는 중종 6, 7년과 10, 11년은 상중에 있었음으로 기록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본 일기는 음애가 그당시 직접 보고 들은 정부 요인과 야인의 행적, 일사(逸事)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왜구와 교섭한 일을 비롯해서 농사에 관한 옛 풍속들을 적고, 권말에 소릉(昭陵)의 복명(復命)과 유자광의 공훈삭제 전말을 비롯, 여말의 유종(儒宗) 목은의 아들 이종학(李鍾學)의 행적기를 부록으로 엮어 사료(史料)로서 많은 가치를 남기고 있다.

그의 묘소는 부친 예견의 묘하에 전해오고 있는데 그의 묘표는 1936년 4월에 세웠고 그 후손들이 누대를 이어오고 있다.

〈참고: 연려실기술, 한국인명대사전, 국사대사전, 음애일록, 이인영

이자견(李自堅)

〈묘〉 단종 2(1454)~중종 24(1529) 조선 문신. 자는 자고(子固), 본관은 성주(星州), 주(湊)의 아들. 24세에 생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33세때 대과에 올라 승문원에 등용된후 전적, 정언, 지평을 거쳐 형조좌랑으로 옮기고 한성부 서운(庶尹) 종친부 전첨(典籤)을 거쳐 상의원정(尙依院正)과 집의, 홍문관 전한(典翰)겸 지제교(知製教)를 지냈으며 이어 부제학, 대사간을 거쳐 강원감사로 나아갔다.

그러다가 연산군 10년(1504)에는 갑자사화(甲子士禍)때 함창(咸昌)으로 유배되었다가 중종반정 후 풀려나와 부제학(副提學)에 올랐다. 다시 대사간(大司諫)에 제수되었고 판결사(判決事)를 거쳐 승정원에 들어가 좌부승지가 되었다.

이때 임금이 내자시(內資寺)에서 좋은 음식을 정원(政院)에 내렸는데, 정원의 관원중에 자견만이 80의 노모가 있어, 그가 맨 먼저 사은하고 좋은 음식을 모친에게 가져가기를 청하니 임금이 감동하여 특별히 경기감사에 제수하였다. 중종 14(1519)년에는 부인

의 상을 당하였는데 그때 그의 나이 70여세였다. 그후 몸이 쇠하여지자 임금은 어의로 하여금 약을 쓰게 하여 회생되자 다시 호조참판을 내렸다. 중종 18년(1523) 그의 나이 고희(古稀)에 이르자 궁궐에 나아가 치사(致仕)하고자 하였으나 임금은 이를 윤택치 않고 옛 벼슬자리에 그대로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절을 당하면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였다. 그는 글씨를 잘 썼으므로 글씨를 써 달라는 관원이 많았으며 용재(容齋) 이행(李荇)은 칠로계회도(七老契會圖) 한편을 지어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 해에 자헌대부(資憲大夫)의 품계에 올라 호조판서에 제수되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옮겨다가 중종 24년(1529) 9월 하세하니 향년 76세였다.

부인 용인 이씨는 말손(末孫)의 딸로 중종 19년(1524)에 먼저 별세하여 용인현 서면(西面) 지내리(枝內里) 어은동(於隱洞) 묘좌원(卯坐原)에 장례하였다가 그가 하세하자 그 우측에 합필하니 그의 묘소는 지금의 수지면 성북리에 전한다.

(참고: 조선왕조실록, 한국인명대사전, 성주이씨 세보), 금병운

이재화(李齋華)

(출생) 숙종 17년(1691)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백종(伯宗), 본관은 전주(全州)로 익금(翼峯)의 아들이다. 용인출신으로 영조 16년(1340) 증광시(增廣試)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참판(參判)에 이르렀다.

(참고: 용인이씨 세보), 이용준

이정구(李廷龜)

(치적) 자는 성징(聖徵)이며 본관은 연안이고, 호는 월사이다. 이석형의 현손이다.

포은 정몽주의 신위를 배향한 충렬사가 임진왜란에 불탔는데 선조 38년(1605) 이정구가 기백(畿伯: 경기감사)이 되었을때 포은 후손인 종선(從善)과 충전(忠傳) 그리고 사인 이시윤(李時尹)등과 함께 의논하여 충렬서원을 중건하고 포은 신위 봉안문과 강당기를 지었으며 충렬서원 초대원장이 되었다.

선조 18년(1585) 진사가 되고 1590년 증광문과에 병과에 급제한 후 임진왜란때에는 행재소에 가서 설서(說書)가 되었고 후에 대제학을 거쳐 정승이 되었다. 그는 말을 배우자 곧 글을 알고 6세에 능히 글을 만들었고 글 한편이 나올 때마다 사람을 놀라게 하

니 사람들은 신동이라 일컬었다. 어머니 김씨가 그를 잉태하였을 때 범이 와서 대문밖에 었드려 있어 사람들이 감히 쫓아내지 못했는데 해산하자 곧 갓음으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문장에 뛰어날 징조라고 말하였다.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왕을 공주로 호종하였고, 정묘호란 때에도 병조판서로서 왕을 호종, 강화로 갔으며 화의를 반대하였다.

한문학의 대가로 글씨에 뛰어났으며 신유, 이식, 장유와 함께 조선 중기의 4대 문장가로 일컬어진다. 그의 문인인 최유해(崔有海)가 월사집을 편간하였다.

〈참고 : 충렬서원 증건기〉, 이응준

이정보(李鼎輔)

〈문헌〉 숙종 19(1693)~영조 42(1766) 조선 문신. 자는 사수(士受), 호는 삼주(三州), 본관은 연안, 호조참판 우신(雨臣)의 아들. 경종 1년(1721) 진사시(進士試)에 합격, 익통참봉이 되었으나 곧 사직, 영조 8년(1732)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검열에 등용되었다가 1736년 지평(持平)으로서 탕평책을 반대하는 시무십일조(時務十一條)를 올렸다가 파직되었다.

그후 부수찬으로 다시 기용되었고, 우빈객을 거쳐 이조판서에 올랐고, 기로소에 들었으며 글씨와 한시에 능하고 시조의 대가로서 78수의 작품을 남긴 인물이다. 기묘(1759)년부터 몰년인 병술년(1766)까지 충렬서원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참고 : 충렬서원 원장록〉, 박상돈

이정민(李貞敏)

〈묘〉 호는 옥계(玉溪), 홍산현감(鴻山縣監) 향성(享成)의 아들. 향성은 환중(患中)의 모친에게 손을 베어 피를 바친 효자이고 위선(爲先)의 예와 손에게 대할 때 정성이 지극한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박사암(朴事庵), 정송강(鄭松江), 성우계(成牛溪) 등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고 송강이 유배되었을 때에는 공(公) 혼자만이 자주 찾아 문안하였다고 한다.

자손되는 공도 천성(天性)이 수미(秀美)하고 효우(孝友)하였다. 박지화(朴枝華), 울곡(栗谷) 등에게 사사(師事)했고, 한때 사우(士友)들의 많은 칭찬도 받았다. 35세에 사마

시(司馬試)에 급제하여 이몽학(李蒙鶴)의 난(亂)이 나자 창의병(倡義兵)을 모집, 홍주 목사(洪州牧使) 홍가신(洪可臣)을 도와 이를 평정하여 정난의공(靖難攻)에 들었다. 당진현감(唐津縣監)을 끝으로 벼슬을 떠났는데 그 까닭은 공이 거처했던 세심대(洗心臺)는 경치가 장안의 갑지(甲地)로 알려졌는데 광해(光海)가 이를 뺏고 대신 벼슬을 주려 하자 공은 이를 피해 홍주의 봉수산하(鳳岫山下)에 은거하다가 만년에야 집을 짓고 옥계자(玉溪子)라 자호(自號)하였다. 그곳에서 학문을 닦으며, 한편 일기를 적었는데 주로 시사를 쓰면서 아무 두려움없이 사실대로를 솔직히 적었으므로 사람들을 보고 춘추필법(春秋筆法)이라 말했다고 하는데 바로 옥계과안록(玉溪破顔錄)이 그 저서이다.

묘는 용인군 수지면 풍덕천리 정평에 있다.

(참고: 용인이씨 세보), 이응준

이정열(李定烈)

독립지사. 빼앗긴 나라, 주권없는 백성이 재산은 두어 무엇하랴! 일제의 압정 밑에서 2천만 생명이 노예처럼 헐벗고 유리하는데 내 어찌 호의호식할 수 있으랴.

그래서 조상이 물려준 1천4백석지기 가산을 모두 팔아 상해임시정부 독립운동기금으로 기탁했던 선생은 31운동당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옥고를 치른 것이 계기가 되어 독립운동에 나설 것을 결심하였다.

그의 본관은 덕수(德水) 1900년 출생, 용인군 모현면 초부리에서 거주하였으며, 그의 장남 이재윤은 전 용인인삼조합장 정운영과 모현국민학교 같은 반에서 공부하였고 이 학교에서 함께 졸업한 동기동창간이기도 하다.

그당시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던 강태동(姜泰東), 최석천(崔錫天)과 접선되어 모현면 일대 2백석을 추수하는 땅을 팔아 이들에게 건네준 바 있으며, 1921년 5월에는 2만원(백미 270석)을 가지고 상해로 직접 건너가서 이회영(李會榮), 김규식(金奎植), 이세영(李世永) 등과 알게 되었다.

그후 1922년 4월에는 이회영의 지령으로 다시 국내에 잠입하여 자금조달을 위해 은신하던 중, 서울 봉익동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또다시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출옥 후 다시 용인땅 1백50석을 팔아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한 것을 비롯, 1924년과 25년 두 해에 걸쳐, 580석 지기의 토지를 팔아 헌납하므로써 당시 김구, 신익희, 이창숙 등으로

부터 많은 격려를 받았다.

그후에도 1929년 5월 나머지 땅 2백석지기까지 몽땅 팔아서 헌납하고 1930년 귀국, 해방이 될 때까지 평북 구성, 삭주 등지에서 광산을 위장 경영하면서 독립운동에 활약 중인 동지들의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비밀연락을 취하는 본거지로 제공하였다. 말년에는 열식구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려웠고 초가삼간도 빛에 잡혀 오갈데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가솔들은 그 많던 재산을 광산업으로 탕진한 것으로만 알고 적지않게 원망도 하였다.

해방후 이시영(李始榮)이 부통령이 되자 선생을 수소문하여 벼슬에 나오도록 권고하였으나 선생은 자손들에게 그의 재산을 어떻게 소비했는지의 사실을 밝혀주는 〈인증서〉 한통만을 받아들고 돌아왔다.

〈인증서(認證書)〉

본적: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146번지

주소: 대전시 은행동 3번지

이 정 열(李定烈)

단기 4233년 6월 24일생

위인은 거금 28년전 대한독립을 위하여 전 가산을 경도(傾倒)하여 상해임시정부와 서간도 군사훈련 등 경비를 조달하며, 천진, 북경, 상해에서 활약하다가 동지와 회합, 연락 또는 은닉할 장소의 불편을 느끼고 이북 구성, 삭주, 자성, 벽동 등지에서 표면으로는 광산을 경영하면서 내면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코자 해방직전까지 광산을 계속 경영하며 활동한 애국동지임을 인증함.

단기 4285년 월 일

이시영, 김병노, 신익희, 이갑성

이와같이 막중한 재산을 모두 털어 독립기금으로 바치고 〈인증서〉 한통을 유산으로 남긴 이정열 지사는 1963년 3월 1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박정희로부터 건국공로훈장을 수여받았다.

〈참고: 동아일보 1962.10.12자, 독립유공자공훈록, 인증서 사본〉, 이인영

이정수(李廷綬)

양지현감(陽智縣監). 광해군 원년(1609) 1월 양지현감에 부임하였다가 이듬해 2월 삼화현령으로 승진 전출하였다. 용인, 양지, 두 현의 현감중 최초의 승진 전출된 인물로 기록을 남겼다.

(참고: 용인군 시사연표), 박상돈

이종두(李鍾斗)

〈출생·묘〉 1902.10.16~? 본관은 연안, 호는 호산(湖山), 용인군 남사면 완장리에서 출생 16세 되던 해에 부모 슬하를 떠났다. 25세때 관직에 나아갔고 구 한말에는 기울어져가는 이왕가(李王家)의 기술원(技術員)으로서 일제 치하를 겪다가 30세되던 해인 1931년 관직을 물러난 후 한성신보(漢城新報) 특파기자(特派記者)로서 5년간 언론계의 몸담았다.

그후 전국 방방곡곡의 명승과 고적을 답사하였고 1936년에는 소만국경(蘇滿國境)을 여행한 후 망명하여 중국의 각 성(省)과 각 현(縣) 그리고 내몽고(內蒙古)까지 주유(周遊)하면서 자연과 순진(純眞)을 벗삼아 47년을 시인 묵객(墨客)으로서 강호(江湖)를 떠돌았다. 그후 일시 만주지방에 거주하면서 서(書), 화(畫)에 심취했던 때도 있었다. 호산의 성격은 매우 활달하였으며, 박식다재(博識多才)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詩), 가(歌)에 모두 능통하였다.

평소 강인하고 분방한 성격으로 하여 이재(利財)에 연연치 않았고, 또 명성이나 일신의 영달을 위해 굴종한 일이 없었던 인물로 평가된다. 해방후 귀국하여 다시 언론계에 종사하였고, 일시 교편을 잡기도 하였으나 이를 그만두고 인왕산 아래에서 호산시가서화연구소(湖山詩歌書畫研究所)를 개설하고 후학 양성에 전념했던 일도 있었다. 저서로는 〈아국답사행적기문집(我國踏查行蹟記文集)〉등이 있다.

그의 작품은 대륙견식(大陸見識)의 영향을 받아 활달, 강건한 특색을 지니고 있다 하겠고 사군자(四君子)로부터 영모화(翎毛畫)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무난하였으나 조선후기 민화풍의 잔영이 풍기고 있다. 그의 묘는 남사면 완장리에 있다.

(참고: 호산문집), 이인영

이종무(李從茂)

〈묘〉 고려 공민왕 9(1360)~세종 7(1425) 조선 무신. 본관은 장수(長水). 그는 어려서부터 활쏘기, 말타기에 능하여 고려 우왕 7년(1381), 14세의 나이로 아버지를 따라 강원도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한 공으로 정용호군(精勇護軍)이 되었다.

장군의 일생은 출발부터 왜구와의 싸움으로 점철되었다. 왜구는 고려말부터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매우 번성하여 해안지방에 무단히 출몰하여 약탈과 방화를 일삼았고 때로는 내륙 깊숙이까지 출몰하여 조정에서는 큰 문제거리가 되었다.

장군은 조선초 태조 6년(1397) 용진만호(壘津萬戶)로 재직중 왜구의 침입으로 성이 포위되자 끝까지 용전분투하여 격퇴한 공으로 첨절제사(僉節制使)가 되었다. 정종 2년(1400)에는 상장군(上將軍)으로 제2차 왕자의 난에 방간(芳幹)의 군사를 무찔러 좌명공신(佐命功臣) 4등으로 통원군(通原君)에 봉해졌다. 그후 좌군총제(佐軍總制)를 거쳐 1408년 남양수원등처 조전절제사(南陽水原等處助戰節制使), 중군도총제(中軍都總制) 등을 역임하였으며, 태종 4년에는 장천군(長川君)에 개봉(改封)되었다. 태종 17년(1417) 좌참찬을 거쳐 판우군도총제(判右軍都總制) 의용위절제사(義勇衛節制使) 등을 역임하던 이종무는 세종 즉위년 삼군도체찰사(三軍都體察使)의 위치에 올랐다.

고려말부터 조선초기에 이르기까지 빈번히 침범해 왔던 왜구는 세종조에 들어와 그 횡수가 늘어나고 1418년 대마도주 종정무(宗貞茂)가 죽고 그의 아들 종정성(宗廷盛)이 뒤를 계승하면서 대마도에 흉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하자 이듬해인 1419년 왜구가 충청도 비인(庇仁)을 침범하고 해주 연평곶(延平串)에서 절제사를 포위하는 등 노략질과 살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세종대왕은 유정현(柳廷顯), 박은(朴崧), 조말생(趙末生), 이명덕(李明德), 허조(許稠) 등을 불러 왜의 허를 찌러 대마도를 정벌하고 적이 돌아오는 것을 격멸하자는 의론이 대두되었을 때 모두가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이때 조말생만이 가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세종은 결국 대마도를 정벌기로 하고 이종무로 하여금 삼도도체찰사(三道都體察使)로 삼아 전라, 충청, 경상 3도의 전함 2백척을 거느리고 나가 삼도도통사(三道都統使) 유정현과 함께 대마도를 정벌케 하였다.

이들이 대마도의 정벌에 나설때 세종은 한강까지 나와 전송하였다. 대마도 정벌에 나선 이종무 장군은 3도에 소속된 9명의 절제사, 전함 227척, 군사 1만7천여명과 함께 거

제도의 마산포를 떠나 대마도로 진격하였다. 이때 일본은 규슈의 제후를 동원하여 대마도의 방어에 참여케 하였으나 이종무는 대마도에 상륙하여 적선 1백여척을 빼앗는 등 타격을 가하여 왜구의 침입은 뜸하게 되었다. 대마도 정벌을 끝내고 이해 7월 이종무 장군이 돌아오자 세종은 오익생에게 명하여 어사주를 내렸으며, 제장들을 위로하였다. 이 공로로 이종무는 찬성사(贊成事)를 제수받았으나 대마도 정벌때 불충한 자들을 정벌군에 편입시켰다는 대간들의 탄핵을 받고 삭직되었다가 무고임이 밝혀져 복직되고 세종 3년(1421)에는 장천부원군(長川府院君)으로 봉해졌다. 세종 7년(1425) 66세를 일기로 타계하자 그에게 양후공(襄厚公)이란 시호가 내려졌고 수지면 고기리에 장사하여 지금에 전한다.

〈참고: 양후공 행장, 향토문화사 전통, 한국인명대사전〉, 박상돈

이종열(李宗烈)

〈생거급제〉 영조 32(1756)~? 자는 량좌(良佐), 본관은 단양(丹陽), 정조 7년(1783) 27세때 계묘정시(癸卯庭試)에 급제하였으나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향리에 은거하였다.

〈참고: 고사대전, 용인군지〉, 박상돈

이종칠(李鍾七)

〈생거급제〉 철종 7년(1856)~? 본관은 여주(驪州), 용우(容佑)의 아들. 30세 때인 고종 23년(1886) 병술전시문과(丙戌庭試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참고: 한국고사대전〉, 박상돈

이주국(李柱國)

〈출생·묘·생가〉 숙종 46(1720)~정조 22(1798) 조선 무신(武臣). 자는 군언(君言), 호는 오백(梧栢), 본관은 전주, 정종대왕 열째 아들인 덕천군(德泉君) 이후생(李厚生)의 11대손. 부친은 함(涵)이며 모친은 능성구씨(綾城具氏)이다.

그는 숙종 경자(1720) 3월 22일 죽산(지금의 원삼면) 문촌장사(文村庄舍)에서 출생하였다. 그가 태어나는 날, 부친 함의 꿈에 검은 용이 대들보 위에 버티고 앉았다가 준마로 변하여 난간속에 서 있었으므로 그의 자를 준(駿)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가 두살되

던 해 부친을 여의고 편모 슬하에서 자나라면서 기상이 준수하고 위엄이 있어 사람들이 장차 큰 그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모친에 대한 정성이 지극하였으나 열네살이 되던 해에 모친상을 당하여 너무 슬퍼하는 모양에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모두 감격하였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무예를 연마하여 영조 16(1740)년에는 증광과(增廣科)에 급제하고 이듬해 선전관에 등용되었다가 후에 훈련원 주부로 자리를 옮겼다. 1745년에 훈련판관에 임명되어 부정(副正)의 관위에 올랐다가 영조 23년(1748) 한양부사에 임용되었으나 부임하기도 전에 조명채(曹命采)의 계청(啓請)으로 금위영낭청(禁衛營浪廳)으로 일본 통신사를 수행하였다. 주국은 “내 일개의 낭관으로서 어찌 만리의 역을 피할 수 있겠으며, 더구나 바다에 떠서 오래도록 항해하는 것이 남아의 할일이 아니겠는가?”하고 마침내 일본에 들어가니 일본내 칠치(漆齒)의 무리들이 그의 위엄스런 모습을 보고 찬탄하면서 열복하였다. 그후 기사년(영조 25, 1749)에 호조좌랑이 되었다가 율진현감에 임명되었고 이 기간중 매우 선치하여 훈련원정에 발탁되었고 숙종 27(1751)에는 만포첨사와 내금장을 지낸 후 선천부사를 제수받았다. 이 기간중 동림산성(東林山城)을 쌓아서 국방을 튼튼히 하는 치적을 남겼다. 그후에 충청도수사(忠淸道水使)가 되어 병기를 수리하고 함대를 훈련하였고 교동(喬洞)에 부임하였으나 임기중에 아들이 죽어 가솔을 이끌고 하향하여 문춘장사에 돌아왔다. 숙종 35(1759)년에 북병사에 임명되었으나 비장(裨將)이 기마병을 남발하였다는 무고로 인하여 용인에 위리 안치되었다가 죽산(지금의 문춘리)에 돌아가 매일 촌 늙은이들과 함께 장기나 두며 술을 마시고 전원을 벗삼아 스스로를 즐길 따름이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여러번 어영, 중군, 금군별장으로 불렀으나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정조 7년(1783) 정조대왕의 명으로 춘당대에서 활쏘기를 할때 주국은 아홉번이나 우승을 하거늘 정조는 그의 뛰어난 무예를 칭찬하면서 당시의 늙은한 모습을 비유하여 오백당(梧栢堂)이란 당호를 내렸다. 정조 20년인 1796년 화성의 영능과 장능에 행차할 적에 임금은 주국의 늙음을 염려하여 다른 사람에게 호종토록 하였으나 주국은 “신이 한결같이 여가를 따르지 못하여 늘 마음속으로 송구함이 맺혔더니 마땅히 호종하여 성은에 보답코자 한다”고 간청하였으므로 특별히 윤택하고 주사대장을 제수하였다. 그후 주국은 군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상소하기를 <군제를 살펴보면 주나라 병농(兵農)

의 제도와 분번(分番)법을 병용하고 있으나 당나라 장정의 예를 채택하여 임진 이후에 오위(五衛)가 변하여 모든 령이 되었으나 경성은 팔도의 근본으로서 군대의 수효가 만 명이 채 되지 못하므로 신이 항상 군제의 소홀함을 염려하였습니다. 일찌기 울곡 이이의 10만 양병설을 생각하여 일찌기 세번씩이나 상소한 적이 있으나 비답을 얻지 못하여 좋은 계책이 무산되었습니다. 옳되려 바라옵건대 금(禁), 어(禦) 양 영에 향군상번(鄉軍上番)의 법으로 하나는 수어(守禦)의 도를 삼으시고, 하나는 조련(操練)의 방법을 삼으셔서 사람을 따라 지휘호령토록 하며, 군대의 재물과 군사가 없으면 명을 따를 수 없다 하니 재물을 저축하고 수용하는 것이 실로 군대가 부강해지는 술책입니다. 또 수영소(水營所)로서 수군을 관장하는 곳이 산읍(山邑)에 많아 심지어 수영과의 거리가 3~4백리나 되는 곳이 있으니 배에 능숙하다 할지라도 전연 배를 다루지 못한 즉 급한 때를 당하여 쓸모가 없으니 무엇에 쓰겠습니까? 신이 생각하건대 수군이 산읍에 있는 것과 육군이 연해에 있는 것은 서로 바꾸어 정한다면 편리한 것이 이보다 더 큼이 없을 것입니다)하고 군대 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코자 하였다. 이에 정조는 비답을 내려 말하기를 “이 계책을 성취토록 해서 경이 이른 상번(上番)의 폐단을 제거하고 군포의 설치등 방략을 시행토록 하라”고 하였다.

1797년 우상 윤기동(尹耆東)이 주국의 병이 매우 깊었음을 아뢰니 임금께서는 용병(戎柄)을 풀어 줄 것을 윤허하고 한가한 틈을 타서 고향에 다녀오도록 하였다. 1798년 감기가 심하여 지더니 3월 23일 수교(水橋)의 집에서 죽으며 명에 따라 죽산 문춘(지금의 원삼 문춘) 원봉(圓峰)아래 장사지내니 수 78세였다.

(참고: 묘갈, 향토문화와 전통), 금병윤

이 준(李 僑)

〈생거·급제〉 순조 8년(1808)~? 본관은 연안(延安), 조목(祖默)의 아들로 양지에서 출생. 경인기로유생과(庚寅耆老儒生科) 병과에 응시하여 82세의 나이로 장원하였다. 그러나 이준에게 배운 과거는 조선시대에 노인에게 특별히 주던 품계(品階)로서 이전(吏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나이 80세가 되면 양민(良民)이나 천민(賤民)을 가리지 않고 한 품계를 제수하였으며 원래 품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1품씩을 더 올리고 당상관(堂上官)이면 어명에 따라 가자(加資)하였다. 또한 동서반(東西班)의 관리로서 4품 이상의 실직

(失職)에 있던 사람중에 80세 이상이 되면 가자(加資)하였고 사대부가(士大夫家)의 부녀자중 90세가 된 사람은 해당 조(曹)에서 추천하여 노인직(老人職)을 주었으며, 일반 서민은 1백세가 된 사람에게는 은전으로 가자하는 등 노인을 예우하였다. 이를 동칭 수직(壽職)이라 하는데 이준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며, 수직 기로과(耆老科)에 급제한 인물로서는 고금을 통틀어 용인에서는 이준 한사람 뿐이다.

〈참고: 고사대사전, 용인군지, 족보편람〉, 최희면

이중인(李仲仁)

〈묘〉 고려 충숙왕 2년(1315)~? 고려 말기의 문신. 두문동(杜門洞) 72현중의 1인. 태사삼한벽상공신(太師三韓壁上功臣) 이길권(李吉卷)의 후손.

충숙왕 2년 개성의 일청재(一淸齋)에서 부친 광시(光時)와 부부인(府夫人) 기씨(奇氏)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당시 명망이 높았던 이백겸(李伯謙)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중인(仲仁)의 흉중에는 진초(秦楚)의 위엄이 숨어있다”라고 하였으므로 그의 호를 “진초”라 하였다.

일찌기 큰 포부를 안고 학문에 정진하는 한편 덕량(德量)을 길러 일대종장(一代宗匠: 경서에 능하고 글을 잘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 되어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목은(牧隱) 이색(李穡)이 어려서부터 그의 문하(門下)에서 글을 배웠으며 당시에 팔현(八賢)이라 일컫던 이조년(李兆年), 이승인(李崇仁), 김주(金澍), 이양중(李養中) 등과 더불어 스승이 되고 벗이 되는 등 교분이 두터웠다.

관위는 통덕랑흥부도감판관(通德郎弘副都監判官)에 이르렀을 때 여말에 정치가 혼란한 것을 보고 개탄한 나머지 관직을 떠나 은거하였다. 이때 이태조(李太祖)가 조선을 건국하고 그의 충절을 흠모한 나머지 추성병의동덕찬화보리공신 벽상삼한삼중대광구성부원군(推誠秉同德贊化輔理功臣 壁上三韓三重大匡駒城府院君)을 봉하고 나라를 위하는 정성과 두 마음을 먹지않는 의리(義理)를 겸하였음을 중히 여겨 “나를 도와 서신(庶臣)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였으나 “나는 전조(前朝)의 사람인지라 받아 들일 수 없다”하고 말하기를 “고요하고 소박한 결심(自靖素志)이 어찌 변하리요”하고 드디어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가 종신토록 나오지 않았다. 그때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여 이르기를

적절한 두문동에 외로운 충의는
해와 별보다 더 빛나리라.
봉군(封君)을 사양함은 도리어 작은 일이며
세상에 떨친 명성은 천추에 빛나리라

寂寂杜門洞
孤忠煥日星
讓封猶草介
千載樹風聲

라고 하였다.

그가 하세하자 묘는 기흥읍 영덕리 자은교(慈恩橋)에 자리잡고 있으며, 그의 향사를
맡드는 구성재(駒城齋)가 있다.

〈참고 : 향토문화와 전통, 용인이씨 세보〉, 노승식

이 재(李 緯)

〈출생·묘〉 숙종 6년(1680). 용인현 천곡, 지금의 이동면 천리에서 진사 만창(晩昌)의
아들로 출생하였는데 자는 희경(熙卿), 호는 도암(陶菴), 본관은 우봉(牛峯)이다.

일부의 문헌에는 그가 김창협(金昌協)의 문인(門人)이라 하였으나, 어려서부터 중부
(仲父) 만성(晩成)에게서 수학하였을뿐 김창협의 문하생이 된 일이 없었다. 8세때에 시
(詩)를 지었는데

물속에 헤엄치는 물고기는 푸른 바다를 생각하고
나무위에 줄고있는 학은 푸른 섬을 꿈꾸고 있네

游魚事碧海
睡鶴夢蒼州

라고 하여 어려서부터 글재주가 뛰어나 주위의 칭송을 들었다.

학문과 재능이 뛰어났던 그는 24세때인 숙종 28년(1702)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

여 찬집청기사관(纂輯廳記事官)을 겸하여 〈단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고, 숙종 33(1707)년 봉교(奉敎)로서 문과중시에 을과로 급제하여 이듬해 홍문관에 등용 옥당에 들었고 1709년(숙종 35) 헌납, 북평사(北評事)를 지내다가 사가독서하였다.

숙종 37(1711)년에는 이조정랑이 되었으며 문학(文學)을 겸직하여 학문 연구에 몰두하였다. 숙종 42년(1716)에는 승지(承旨)로 승진하여 노론(老論)의 한사람으로서 가례원류(家啓源流)에 대한 시비가 일어나자 소론을 통박하였다.

가례원류 시비는 가례원류의 발문에서 일어난 노론, 소론간의 당파싸움으로서 현종 때의 부제학 유계가 금산에서 귀양살이를 하면서 가례원류를 썼는데 귀양살이가 풀리자 그의 제자 윤증에게 주어 글을 가다듬게 하였던 것, 후에 유계의 손자 상기(相基)가 윤증에게 가례원류 원본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므로 상기는 그 초본으로 가례원류를 간행하면서 윤증의 소행을 권상하, 정호로 하여금 발문에 넣게 하였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소론은 윤증의 편이 들었고 노론은 윤상기를 옹호하였는데 이제는 노론의 입장에서 이를 통박하여 결국 문제의 발문을 삭제하였다.

숙종 45년인 1719년 그는 다시 부제학을 거쳐 형조참판, 한성부윤을 지냈고 이어 균전사로 영남에 내려가 전제의 문란을 들어 시급한 대책을 진술하였다가 그를 시기하는 대신들의 무고로 관직을 삭탈당했다. 1720년 경종이 즉위하자 그는 예조참판으로 기용되어 도승지, 대사헌, 이조참판을 거쳐 공조판서 의정부 좌·우참판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경종 2년인 1721년 소론의 득세로 관직이 삭탈되었고 이듬해 노론이 몰락하는 신임사화가 일어나므로서 중부(仲夫) 만성(晩成)이 노론 4대신으로 몰려 죽음을 당하자 그의 노모를 모시고 인제의 설악에 들어가 성리학을 연구하는데 오로지 전념하였고, 조선조 후기의 학계에 중추적 인물로 등장하게 된다.

1725년, 영조가 즉위하자 노론이 재집권하였고 여러번 소명을 받은 끝에 대제학에 올랐으며 조정에 나아가 신임사화를 일으킨 조정의 간흉을 몰아낼 것을 요청하였으나 영조가 탕평책을 들어 그의 주장을 수용치 않았으며, 정미환국으로 재차 문외출송(門外黜送)되자 용인 고향으로 낙향 은거하였다.

여기서 그는 찾아오는 제자들과 저술생활에 몰두하면서 전후 두차례에 걸친 은거시절에 50권에 이르는 문집과 주자어류초절(朱子語類抄節), 근사심원(近思尋源), 오선생회언(五先生徽言), 검신록(檢身錄), 주형(宙衡), 서사윤강(書社輪講), 사례편람(四禮便覽)

등의 저서를 남겼다.

그는 관직을 받거나 물러날 때마다 난진역퇴의 절조를 보였으며 전형적 주자학의 유자로서 성리학과 예설에 심오한 조예가 있었던 실천적 학자였다. 특히 사례편람은 관혼상제등 예의범절에 관한 저술로 그 이론적 근거가 명철하고 편찬 규모가 치밀한 것이다.

이 사례편람은 기호지방을 중심으로한 사대부등 상층가정에 거의 집집마다 배포되어 예전(禮典)으로 되었다. 이 책의 내용이나 거기 삽입된 도해(圖解)등은 우리나라 중세의 민족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나아가 이 책은 복제와 관련된 친족관계의 법학 내지 봉건제도하의 사회학적 연구자료로서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와같은 저술은 성리학에 대한 그의 해박한 지식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학문적으로는 정암 조광조와 율곡 이이를 사숙하였고 이율곡의 학문적 주장을 따르고 있었다. 또 이 당시부터 일기 시작한 호락논쟁(浩洛論爭), 즉 사람과 사물의 성(性)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하는 상호대립에 있어서(人物性同異論) 그는 낙론을 지지하였다.

낙론은 금수도 인류와 마찬가지로 오상, 즉 인·의·예·지·신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데에서 그 성(性)이 동일하다고 보는 것을 말한다.

「일찌기 천지간에 이(理)와 기(氣)가 있어서 서로 분리하지도 아니하고, 서로 혼잡하지도 아니하나 기가 이(理)보다 승하면 난하고 이가 기보다 승하면 치(治)하다.

요컨대 성현의 말씀은 모두가 이위기주(理爲氣主)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맹자의 공은 도성선(道性善)이라는 말이요 이것은 범인과 요·순 사이에 이성(異性)이 없는 것을 간파한 말이다.

만약 다르다고 하면 그것은 맹자가 간신히 도득(道得)한 성(性)을 지금에 와서 다시 버리는 것이다.」

이와같이 한원진, 윤휴 등 의 호론(湖論)에 대하여 낙론(洛論)의 입장에 섰던 그의 논변은 유학사상에 있어서 유명한 논쟁가운데 하나이다.

그는 성리학뿐만 아니라 서화(書畵)에도 뛰어나 일찌기 홍우전(洪禹傳)과 오이주의 표, 김인후의 비문 외에도 구성면 상하리에 있는 풍창부부인 묘표, 유복립 정려기, 사은

정 제영, 심곡서원 학규 및 재향수시 등에 유필을 남겼으며 을사(1737)년부터 몰년인 병인(1746)년까지 민진원의 뒤를 이어 제24대 충렬서원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참고 : 용인군지, 향토문화와 전통, 우봉이씨 감찰공과 계보, 도암집, 화천집), 이인영

이 재(李 緯)의 문인(門人)

- 박성원(博聖源). 자는 사수(士洙), 호는 겸재(謙齋)·광암(廣岩), 문과급제 봉조하(奉朝賀)에 이르고 시호는 문헌(文獻)
- 민익수(閔翼洙). 자는 사위(士衛) 열야재(於夜齋), 진후(鎭厚)의 아들. 일침으로 장령(掌令) 시호는 문충(文忠) 이재의 외손
- 민우수(閔遇洙). 자는 사원(士元) 호는 정암(貞菴), 익수(翼洙)의 아우, 일천으로 대사헌에 이르고 시호는 문간(文簡)
- 김용겸(金用謙). 연문(淵門)에 보임.
- 이유(李維). 자는 대심(大心), 호는 지암(知菴)으로 이선생의 종제(從弟)
- 민형수(閔亨洙). 선생의 외제(外弟)
- 송명흠(宋明欽). 자는 회가(晦可), 호는 역천(櫟泉), 일천으로 찬성(贊成)이며 시호는 문원(文元)
- 송문흠(宋文欽). 자는 사행(士行), 호는 한정당(閑靜堂), 현감(縣監)을 지냄.
- 김원행(金元行)
- 임성주(任聖周). 자는 중사(仲思), 호는 룩문(鹿門). 음사로 채주(祭酒)에 증직되고 시호는 문경(文敬)임.
- 이규신(李奎臣). 호는 매헌(梅軒), 직장(直長)에 이름
- 신이구(愼爾口). 호는 수촌(수村), 시직(侍直)
- 신수이(愼守彝). 자는 군서(君舒), 호는 황고(黃阜), 교관(敎官)으로 안의(安義)에 거(居)
- 이의철(李宜哲). 자는 원명(原明), 호는 문암(文菴), 문과급제 참판(參判)
- 유언집(兪彦鑠). 자는 사청(士淸), 호는 대재(大齋)로 일천임.
- 유언호(兪彦鎬). 상신(相臣)에 이름. 언집의 아우
- 신경민(申景閔). 자는 중효(仲孝), 부사(府使)를 지냄.

- 김문행(金文行). 삼연(三淵)의 손으로 연문에 기록됨.
- 정실(鄭實). 문형(文衡)에 이름.
- 오원(吳瑗). 문형에 이름. 선생의 처질(妻姪)
- 황경원(黃景源). 문형에 이름
- 윤급(尹汲). 자는 경유(景儒), 호는 근암(近菴), 이조판서에 이름. 시호는 문정(文貞)
- 남유용(南有容). 자는 덕재(德哉), 문형에 이름
- 이존중(李存中). 자는 경이(敬而), 호는 적암(惕菴), 문과급제 대사헌(大司憲)에 이름.
- 김민재(金敏材). 자는 사수(士修), 호는 보가재(寶稼齋), 현감(縣監)을 지냄.
- 김간재(金簡材). 자는 재심(在心), 민재의 아우
- 김종후(金鍾厚). 자는 백고(伯高), 호는 본암(本菴), 일첨으로 제의(諸議)임.
- 정재겸(鄭在謙). 상신(相臣)에 이름
- 조중희(趙重晦). 자는 익장(益章), 영복(榮福)의 아들. 이조판서에 이르고 봉조하(奉朝賀)가 됨. 시호는 충헌(忠憲)
- 민백순(閔百順). 자는 순지(順之), 음관으로 참의(參議)에 이름
- 이민곤(李敏坤). 자는 후이(厚而), 호는 임은(林隱), 문과급제 대간(大諫)의 이름
- 한억중(韓億增). 자는 대숙(大叔), 청원위(靑原尉)의 후(后)로 문과급제 승지(承旨)에 이름
- 이서(李淑). 자는 계호(季浩), 호는 인계(麟溪)로 목사(牧使)에 이름. 판서 주진(周鎭)의 아들이며 민단암(閔丹岩)의 외손
- 조종부(趙宗傅)
- 이위재(李渭載)
- 유여호(劉汝豪). 자는 도열(道悅), 북청(北靑)에 살았으며 일찍 죽으니 선생이 심히 애석함.
- 심중주(沈重周). 자는 계문(季文), 현감에 이름
- 이윤영(李胤永). 자는 윤지(胤之), 단능(丹陵)부사에 이름.
- 이인상(李麟祥). 자는 원운(元雲), 호는 능대(凌臺)로 백강(白江)의 현손이며 현감을 지냄
- 이채(李采). 자는 화천(華泉), 선생의 손(孫)임.

- 홍계능(洪啓能). 호는 행촌(荇村), 일침으로 지평(持平)을 지냄.
- 남궁령. 자는 도유(道由)
- 이직(李直). 자는 생지(生之)
- 정사수(鄭師洙). 자는 노원(魯源)
- 김면행(金勉行). 자는 경부(敬夫), 문과급제 우윤(右尹)을 지냄. 시민(時敏)의 아들
- 한계증(韓啓增). 자는 계용(季用), 호는 풍계(楓溪)로 파평산(坡平山)에 은거(隱居)하다가 기해년에 송성담(宋性潭)과 더불어 유선(儒選)에 피선됨. 감역(監役)을 지냄.
- 이인석(李仁錫). 자는 원보(元甫)
- 강육(姜逵). 자는 중홍(仲鴻), 호는 정전(井田)으로 평양에 살며 참봉으로 불사(不仕)
- 송집중(宋集仲). 자는 백강(伯剛), 여성위(礪城尉) 인(寅)의 후손
- 조정세(趙靖世). 자는 정이(正而), 충간공(忠簡公) 성복(聖復)의 아들로 군수를 지냄.
- 박종진(朴宗晉). 자는 계소(季昭)임.
- 이행상(李行祥). 자는 공리(公履), 정헌(靜軒) 기(夔)의 후손, 또 겸재(謙齋)에게 배우고 송단(宋湍)과 성덕명(成德明)과 더불어 삼처사(三處士)로 칭함.
- 송정악(宋廷岳). 자는 군거(君舉), 호는 만회, 여산인(礪山人)임.
- 서종화(徐宗華). 별제(別提)를 지냄.
- 유의양(柳義養). 자는 후송(後松), 문과급제 참판(參判)을 지냄.
- 안종무(安宗茂). 자는 여송(如松)임.
- 윤유성(尹有成). 남산 아래에서 은거함.
- 홍창한(洪昌漢). 자는 대기(大紀), 문과급제 감사(監司)를 지냄.
- 나형규(羅炯奎). 자는 운기(雲紀)로 창한의 아우임.
- 이명직(李命直). 자는 중호(仲浩)
- 양응수(楊應秀). 자는 계달(季達), 호는 백수(白水), 순창(淳昌)에 살
- 이규채(李奎采). 자는 여량(汝亮), 문과급제 대사헌(大司憲)에 이름.
- 이경장(李慶章). 자는 래숙(來叔)
- 조영극(趙榮克). 서윤(庶尹)을 지냄. 충익공(忠翼公) 태채(泰采)의 손(孫)

- 서명장(徐命長). 자는 선백(善伯), 종급(宗級)의 종자(從子), 천으로 감역을 지냄.
- 정관재(鄭觀齋). 자는 사빈(士賓)
- 송단(宋端). 자는 숙하(叔夏), 호는 현암(玄岩), 지평(持平)에 증직됨.
- 유언흠(兪彦欽). 척기(拓基)의 아들로 자는 백익(伯翼)임.
- 이규복(李奎復). 강원도 정선(旌善)에 거주함.
- 성덕명(成德明). 삼처사(三處士)중의 한 사람임.
- 이순보(李醇甫). 자는 태화(太和), 호는 유심재(有心齋)로 참봉을 지냄.
- 이사병(李師炳). 자는 도삼(道三)으로 참봉을 지냄.
- 이기경(李基敬). 자는 백심(伯心), 호는 대산(大山) 문과급제 참판을 지냄. 전주에 거주함.
- 최호(崔祐). 자는 숙고(叔固)임.
- 서향수(徐尙修). 자는 사의(士毅), 호는 직재(直齋), 문과급제로 감사를 지냄.
- 한경양(韓敬養). 선생(도암)의 복을 3년간 입었음.
- 이엽(李暉). 양양에 살면서 선생의 복을 삼년간 입었음.
- 이지석(李智錫). 인석(仁錫)의 아우임.
- 한사직(韓師直)
- 유득량(柳得養). 의양의 종제(從弟)로 현감을 지냄.
- 안극효(安克孝). 자는 사측(士則), 호는 백강(柏岡)으로 남원에 살며 문과급제로 사간(司諫)을 지냈음. 아우 극권과 극관 3형제 모두가 선생의 문하에서 배움.
- 신응삼(辛應三). 문과급제로 정언(正言)에 이름.
- 윤재세(尹齋世). 호는 취암(就菴)으로 영변에 살았으며 참봉을 지냄.
- 이하술(李河述). 자는 효백(孝伯),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의 후손으로 문과에 급제 참판을 지냄.
- 임지수(林芝秀). 북관(北關)에 거주함.

(참고 : 한국고사대전), 이인영

이재관(李在寬)

〈출생〉 정조 7(1783)~헌종 3(1837) 자는 원강(元綱), 호는 소당(小塘), 본관은 용인(龍仁), 조선 후기 화원(畫員)으로 벼슬은 감목관(監牧官)을 지냈다.

1836년 영흥부(永興府) 선원전(璿源殿)에 봉안되었던 태조(太祖)의 어진(御眞)이 도적에게 훼손되었으므로 이듬해인 1837년 경희궁(慶熙宮)에서 모사 복원한 공으로 등산첨사(登山僉使)가 되었다.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집안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그림을 팔아 모친을 봉양하였다.

우봉(又峯) 조희룡(趙熙龍)이 쓴 호산외기(壺山外記)에 의하면 일찌기 선생으로부터 그림을 배운바는 없으나 스스로 고법(古法)을 터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 산수나 인물 등 모든 사상(思像)의 표현이 묘미를 다했으며, 초상의 숨씨는 전후 백년동안에는 다 시는 없을 것이라고 평하였다. 또한 그의 영모(翎毛)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여 동래관(東萊館)으로부터 해마다 구해 갔다고 한다.

이재관은 비록 그림을 팔아 생활한 직업 화가였으나 그가 추구한 것은 문인화의 세계였다. 그의 그림들을 보면 소재의 선정이나 그 소재를 처리하는 기법에서 문인화의 세계를 향한 의중이 들어난다고 평가되고 있다.

유재건(柳在建)의 이향견문록(里鄉見聞錄)에 이재관이 문인 화풍의 화가 이유신(李維新)의 조카라고 되어 있으며 그의 작품중에 김정희(金正喜)의 제발이 들어 있고 실제 화풍상으로도 이인상(李麟祥)·윤제홍(尹濟弘)등의 화풍과 유관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 문인화가를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송하처사도(松下妻士圖)는 큰 바위 하나를 배경으로 하고 그앞에 흐르는 계류의 둔덕에 낙락장송을 배치하였는데 의연하게 솟은 소나무의 풍모와 주인공의 청정한 모습이 서로 대칭하여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소재 자체와 춤추는 듯 굽어진 소나무가지의 모습 등이 18세기 문인화가 능호관 이인상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음을 말해준다. 다만 이재관의 필법이 이인상의 깔끔한 그것에 비하여 훨씬 투박하고 문기(文氣)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차이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재관이 담청을 애용하였다는 점 등은 당시대 화원 윤제홍(尹濟弘) 일파와도 어느 정도 유관 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필법은 주로 조선후기 풍미 하였던

남종화풍의 일종이며 문인화가들이 즐겨 구사했던 풍조와 일맥을 이루고 있어 문인 화가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그는 병으로 고생하면서도 벼슬을 마다하고 집에 돌아와 1837년에 타계하였다. 이때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던 조희룡은 “선비가 때를 만나기란 천년에 한번 있을 정도로 어려운 것인데 어진(태조)을 그려 봉안한지 4백여년 뒤에 다시 고치게 되었으니 이는 그가 이에 부응하여 태어난 것으로 결코 헛되이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참고 : 한국회화사(안휘준), 한국미술사, 인물대사전, 서화인명사서, 용인군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금병윤

이재화(李齋華)

〈생거급제〉 숙종 26(1700)~? 조선 문신. 자는 백종(伯從). 본관은 전주(全州), 익령(翼嶺)의 아들. 영조 16년(1740) 경신증광문과(庚申增廣文科)에 병과(丙科)에 급제하였다. 관(官)은 승지(承旨)를 거쳐 참판에 올랐다.

〈참고 : 고사대사전, 용인군지, 이용준

이재협(李在協)

자는 여고(汝皐), 본관은 용인, 1731년(영조 7)에 인양군(仁陽君) 경호(景祐)의 아들로 태어나 1790년(정조 17)에 세상을 떠났다.

1757(영조 33)년 문과에 장원하고 지평(持平) 교리(校理)를 거쳐 1760년 암행어사로 호서지방을 순찰하였다. 이어 교리로서 필선(弼善), 문학(文學)을 겸하고 헌납(獻納), 수찬(修撰), 대사간(大司諫) 승지등을 역임하였다. 1776년 정조가 즉위하자 대사헌(大司憲)이 되고, 병조판서를 거쳐 아버지가 별세하자 인릉군(仁陵君)을 습봉(襲封)하였다.

1781년 우의정에 이어 좌의정이 되고 1789년 영의정에 이르렀다.

〈참고 : 용구문화, 용인이씨 세보), 이용준

이 지(李 祉)

양지현감(陽智縣監). 선조 33년(1600) 2월 양지현감으로 도임하였으나 향당에서 여론이 좋지 않았으므로 사직하였다. 뒤이어 부임한 유희원(柳好元) 현감도 그해 9월 역시

향당의 여론에 의하여 사임하였다.

〈참고: 용인군 시사연표〉, 박상돈

이지렴(李之廉)

〈묘〉 인조 6(1628)~숙종 17(1691) 조선 문신. 자는 양이(養而), 호는 치암(恥庵), 본관은 함풍(咸豐), 부위(副尉) 초옥(楚玉)의 아들. 신독재(慎獨齋) 김집(金集)의 문인으로 학문에 뛰어났다.

송준길(宋浚吉), 민진원(閔鎭遠)등의 천거로 동몽교관(童蒙教官)에 제수되었으나 사퇴하였다. 후에 부술(副率)을 거쳐 광릉참봉(光陵參奉)이 되었으나 이 역시 사임하고 숙종 8년(1682) 청산현감(靑山縣監)으로 부임하여 기민의 구제에 힘썼으며 숙종 13년(1687) 흙곡현령(歙谷縣令)이 되어 교육과 풍속의 순화에 노력하였다.

시와 글씨에 뛰어났다. 그의 묘는 이동면 서리 불당골에 있다.

〈참고: 용인군지, 경기인물지, 용인대관(강창희)〉, 박상돈

이지시(李之詩)

〈전사〉?~선조 25(1592) 조선 무장. 자는 영이(詠而), 호는 송암(松菴), 본관은 단양(丹陽), 우의정 무(茂)의 후손. 선조 즉위년(1567) 무과(武科)에 장원, 훈련원정(訓練院正)이 되었다가 문한(文翰)에 능하므로 동반직(東班職)에 전임, 주서(注書)가 되었다. 선조 16년(1583) 이성현감(利城縣監)으로 여진족(女眞族)의 침입을 격퇴하였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나주목사(羅州牧使) 이경록(李慶祿)의 조방장(助防將)이 되어 6월 5일 용인의 문소산 싸움에서 백광언 등과 함께 전사하였다. 후에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추증(追贈)되었고 시호(諡號)는 경의(景毅)이다.

〈참고: 한국사대사전, 한국인명대사전〉, 금병윤

이지원(李祉源)

용인현령(龍仁縣令) 정조 13년(1789) 1월 12일 용인현령으로 도임하였다가 같은해 10월 순천도호부(順天都護府) 부사(府使)로 영전하였다.

대도호부(大都護府)는 정3품, 도호부는 종2품이었으므로 면장이 수원시장으로 영전한

것과 같은 인사이다. 역대 현령중 현령이 부사가 된 것은 이지원이 그 최초가 된다.

(참고 : 용인군 시사년표), 노승식

이 징(李 澄)

〈묘〉 우왕 원년(1375)~세종 17(1435) 조선 문신. 태조의 이복 형제인 의안대군(義安大君) 화(和)의 아들. 우왕 13년(1387) 13세의 나이로 산원(散員)이 되었고 낭장(郎將), 장군(將軍)등을 거쳐 태종초에 원윤(元尹)이 되었다.

태종 12년(1412) 우군도총제(右軍都摠制)로서 우일번절제사(右一番節制使)와 별사금제조(別司禁提調)를 겸하였으며 이듬해 전성진병마사(筭城鎭兵馬使)가 되었다. 태종 14년(1414) 도총제로 진하사(進賀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 왔으며, 태종 17년(1417)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를 역임한 뒤 이듬해 좌군도총제(左軍都摠制)로서 삼번절제사(三番節制使)가 되었다.

세종 5년(1423) 경상좌도(慶尙左道) 도절제사(都節制使)가 되고 세종 8년(1426) 중군도총제(中軍都摠制)가 되었다. 세종 11년(1429) 판좌군부사(判左軍府事)가 되어 사은정조사(謝恩正朝使)로 또다시 명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돌아올 때 사냥한 사실이 드러나 이산(尼山)에 유배되었다. 뒤에 소환되어 판우군부사(判右軍府使) 지돈녕부사(知敦寧府使)를 역임하였다. 시호는 양정(良靖)으로 모현면 양촌리에 묘가 있다.

(참고 : 태종·세종실록, 용인군지, 용인향토대관), 박상돈

이찬조(李 纘 祖)

〈출생·사묘〉 본관은 전주, 선조 17(1584) 4월 22일 용인에서 출생하였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별천선전관(別薦宣傳官)이 되어 왕을 남한산성에 호종하였고, 이어 충청도에 내려가서 감사 정세규에게 근왕토록 하라는 왕의 밀지를 전하였다. 인조 14(1636)년 11월 의병을 이끌고 지금의 성남시 세곡동에 이르렀을 때 적군에게 포위되었다.

이찬조는 민진익(閔震益)과 함께 힘을 다하여 싸우면서 수적(數賊)을 격살하였으나 결국 생포되고 말았다. 청태종 앞에 끌려간 그는 행복하면 살려 주겠다는 등 온갖 희유와 협박을 당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을 꾸짖어 하루속히 이 땅에서 물러가라고 하였다. 청태종은 그의 인물됨을 아까와 하면서 모조로 행복하여 신하가 되어달라고 타일렀으

나 이찬조는 오히려 장부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꾸짖었다. 그러자 분을 참지 못한 청태종은 전신을 묶어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은 다음 기름을 붓고 아직 늦지 않았으니 마음을 고쳐보라고 하였으나 그는 오히려 “장부 죽을 자리를 얻었은 즉 마땅히 죽을 것이며 절의를 지키는 군자의 행할 바라”고 일갈하고 마침내 화형을 당하여 순절하니 이해 11월 18일의 일이다.

그후 병자(1696) 10월 가선대부 병조판서에 증직되고 충신 정려문이 내려지니 고향인 구서면 보정리 정문동에 전해오고 있다. 정려각에는 권철(權徹)이 지은 행장기 1좌가 있다.

〈참고: 전주이씨 세보, 행장기〉, 이응준

이 채(李 采)

〈출생·문헌〉 영조 21(1745)~순조 20(1820) 조선 문신. 자는 계량(季良), 호는 화천(華泉), 본관은 우봉, 도암 이재(李穡)의 손자.

영조 50(1774)년 사마시에 합격, 이듬해 휘령전(徽寧殿) 참봉이 되고 이어 사헌부와 호조, 형조의 여러 벼슬을 거쳐 돈녕부(敦寧府) 주부, 음측현감을 지내다가 무고로 파직되었다. 정조 14(1790)년 홍릉령(弘陵令)에 기용, 지례현감으로 나가 독을 쌓아 농사에 도움을 주어 고을 사람들이 그 독을 이공제(李公堤)라 했다.

그후 선산부사(善山府使), 상주(尙州), 충주(忠州)의 목사를 지내고 순조 즉위(1800)년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위솔(衛率)이 되었고 이에 호조참판, 한성부 좌윤을 역임하고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부총관을 겸했다.

무진(1808)년부터 경진(1820)년까지 제38대 충렬서원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참고: 충렬서원 선생안〉, 노승식

이천기(李天基)

〈묘〉 선조 40(1607)~현종 11(1670) 조선 문신. 자는 재원(載元), 호는 묵암(默菴), 본관은 연안, 시정(時程)의 아들. 풍의(風儀)가 수려하고 미목(眉目)이 그림같았다. 12세에 모든 경서(經書)에 통하였다. 인조 11년(1633)에 진사에 합격하고 인조 13년(1635) 알성문과(調聖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 봉교,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설서(說書)를 거쳐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을 역임하고 부안현감(扶安縣監)을 지냈다. 그후 여러 관직을 거쳐 호조참의(戶曹參議), 여주목사(驪州牧使), 충청감사(忠淸監司)를 지내던중 그의 모친이 연로(年老)하므로 사직을 청하며, 특별히 충주목사(忠州牧使)를 내려 양친(養親)하는데 편리하게 배려되었고, 다시 인천부사(仁川府使)가 되었다.

효행이 지극하였으며 살림이 가난하여 몸소 나무하고 뉘시질하여 모친을 섬겼으며, 벼슬에 처(處)하여서는 한가지 물건도 사사로이 갖거나 사용하지 않았다. 모친이 연로하여 앞을 보지 못하자 몸소 수저를 들어 올리고, 눕고 서며 앉는 일에 반드시 부축하여 모친을 받드는 효성이 지극하니 보는 사람이 다 감동하였다. 평생에 재물을 멀리하였으므로 서울에 집 한채가 없으며 묘(畝)의 전토도 더하지 않았다. 거처를 돌아보면 풍우를 가리지 못하니 오직 후손에게 전한 것으로 청백(淸白) 뿐이었다. 현종 11년(1670) 7월 11일 하세하니 수 64세였다. 묘는 내사면 산매동에 있다.

〈참고: 연안이씨 세보, 연이선적고〉, 금병운

이충운(李仲雲)

양지현감(陽智縣監). 효종 4년(1653) 6월에 도입하여 이듬해인 1653년 파직, 체포되었다. 이충운 현감은 목을 쳐서 효수해야 할 흉악범의 감시를 소홀히 하여 탈옥케 한 과실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조정에서는 직무를 태만히 한 책임을 물어 파직후 투옥하였다. 이로써 중죄인 관리소홀죄로 파직, 투옥된 현감으로 기록을 남겼다.

〈참고: 용인군 시사연표〉, 박상돈

이취영(李취榮)

〈생거급제〉 현종 2년(1836)~? 자는 성여(誠如), 본관은 안성(安城), 종구(鍾久)의 아들. 52세때 경진증광문과(庚辰增廣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였으나 벼슬 길에는 나아가지 않았다.

〈참고: 고사대사전, 용인군지〉, 박상돈

이치교(李致教)

항일의병. 용인군 현내면 아곡(지금의 남사면 아곡리)에 거주하였다.

경경비수 제1273호(경찰청보)에 의하면 용희 3년(1909) 8월 7일 현내면(縣內面) 완장동에 출동하여 현내면장을 납치했던 주모자로서 지목되고 있다.

그외의 상세한 기록은 없으나 이의 사실은 납치되었던 면장과 그에게 숙식을 제공했던 같은 마을 이성울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참고 : 의병항쟁사 3권, 노승식

이치상(李致祥)

〈묘〉 선조 22년(1589)~인조 2년(1624) 조선 문신. 자는 사화(士和), 호는 어은(漁隱), 본관은 용인, 정민(貞敏)의 아들.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의병을 이끌고 공주로 달려가 피난간 인조임금을 호위하였다. 이때 그의 부친은 면계시(勉戒詩)를 남기니 이르기를 〈집안이 대대로 벼슬을 하고 충성으로 보답하였는데 이제 나라위해 영광되게 죽을 날은 왔고, 역적들은 서울에 쳐들어 왔도다. 임금은 옥되게 피난길에 올랐으니 왕통을 어찌 보존하리, 이 세상에는 원차산(元次山) 같은 이도 없으니 누가 피를 드릴고, 임금을 위하여 너를 보내니 밤낮으로 충성을 다하여라. 너의 명예에 욕됨이 없다면 다소 나의 뜻은 위로되리라〉고 하였다. 묘는 수지면 풍덕천리 산8번지에 있다.

〈참고 : 용인이씨 세보, 비문집〉, 박상돈

이치옥(李致玉)

항일의병. 용인군 상동면 천곡(지금의 이동면 천리)에 거주하였다.

당시 나이 30세였던 이치옥은 용희 2년(1908) 음력 3월, 통진군 학당골(學堂谷)에서 의병장 정용대(鄭用大)의 휘하에 투신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그후 의병모집과 군자금 조달활동을 수행하다가 교하군(강화군) 신촌에 이르러 동장과 만나 의병부장 알선을 당부하는 한편 같은 마을 이내시(李內侍) 집에 체류하였다.

그때 의병임을 자처하는 도덕 남궁모(南宮某)가 이웃집 여종을 데려간다는 말을 듣

고 이를 붙잡아 그의 부하로 하여금 의병행세를 하는 그를 처단하였다. 그후 각처를 다니며 의병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내란죄, 강도살인죄 등의 죄명으로 융희 2년(1908) 9월 25일 경성지방법원재판에서 1차 사형언도를 받고 이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융희 2년(1908) 10월 13일 대심원 형사부 재판에서 기각되어 교수형을 받았다.

〈참고: 융희 2년 형상 제14호, 재판기록〉, 금병윤

이치원(李致元)

용인군 하동면 금현(지금의 이동면 시미리)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다. 당년 41세의 나이로 용인을 거점으로 하여 활약하던 의병장 이덕경(李德京)의 휘하에 투신하여 의병이 되었다. 그러던 중 융희 3년(1909) 10월 이덕경과 함께 하동면 어비동 김하경(金夏卿)의 집에 들어가 군자금 3원을 기탁받았고 이웃군인 수원군 줄평면 죽전리에 들어가 동민 김순현(金舜鉉)에게서 12점의 의류를 제공받았다.

후에 체포되었을 때 1909년 3월 4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강도죄를 적용받아 경성지방 재판소에서 3년형을 언도받고 복역하였다.

〈참고: 경성지방재판소 형사부 재판기록〉, 노승식

이 탁(李 倬)

〈생거급제〉 철종 14(1863)~? 본관은 연안(延安), 조연(祖淵)의 아들. 24세 때인 고종 24년(1887) 정해정시문과(丁亥庭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참고: 용인군지 고사대전〉, 박상돈

이필구(李弼求)

용인군수(龍仁郡守). 1910. 8. 29일 병술국치일 이후 1910년 12월 1일 일제치하에서 최초로 용인군수에 임명되었다.

〈참고: 읍지〉, 박상돈

이하경(李夏敬)

항일의병. 용인군 모현면 부계리(지금의 모현면 초부리)에 거주하였다.

농업에 종사하던 양민으로서 당년 43세의 중년이였다. 그러던중 용희 2년 2월 당시 용인을 거점으로 활약하던 이익삼(李益三)의 휘하에 들어가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소정기간 훈련을 이수한 후 동지 6~7명과 함께 군수물자를 조달할 목적으로 용인관내 신원리(新院里), 자미리(自味里), 모현면 능동(稜洞) 등에 출몰하여 의병활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용희 3년(1909) 경성지방재판소에서 3년형을 언도받고 복역하였다.

〈참고: 명치 42년 형 제3호, 재판기록〉, 이인영

이하윤

〈시가비〉

끝없이 돌아가는 물레방아 바퀴에
한 잎씩 한 잎씩 이 내 추억을 걸면
물 속에 잠겼다 나왔다 돌 때
한없는 못 기억이 잎잎이 나불네

바퀴는 돌고 돌며 소리치는데
마음 속은 지나간 옛날을 찾아가
눈물과 한숨만을 자아내 주노니

.....

나이 많은 방아지기 하얀 머리에
힘없는 시선은 무엇을 찾는지-
확 속이다! 공깃소리, 찹을 적마다
강물은 쉬지 않고 흘러 내리네.

이 글은 연포(蓮圃) 이하윤(異河潤)의 시로 1930년 3월에 발행된 시문학에 수록되어 있으며 용인에 소재한 한국민속촌에 그 시비(詩碑)가 세워져 있다.

추상적인 표현 기법을 사용하여 물레방아를 통해 세월의 무상감을 노래한 그의 대표적 시이다.

이하윤은 1906년 강원도 이천(伊川)에서 아버지 종석(宗錫)과 어머니 이정순(李貞順) 사이에서 태어났다. 시인이며 영문학자로서 아명은 대벽(大闢)이었으나 후에 항열을 따라 고친 이름이 하윤(河潤)이다.

1918년 이천공립보통학교를, 1923년 경성제1고등보통학교를 마치고 일본으로 건너가 1926년 동경 호세이대학(法政大學) 예과, 1929년 법문학부 문학과를 수료하였다. 전공이 영문학이었음에도 대학 재학중에 프랑스어·이탈리아어·독일어를 배웠으며 귀국한 뒤에는 경성여자미술학교, 동구여자상업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다.

10년간의 기자생활을 하기도 했던 그는 광복직후 좌익의 프로문학에 대항하여 중앙문화협회를 창설하여 상무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해화전문학교, 동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의 교수로 재직하다 1973년 정년퇴직하였다. 동경에서 개최된 바 있는 유네스코 아시아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 문화계 및 문학계를 대표하여 10여 차례나 각종 국제회의를 두루 섭렵한 석학이다.

민주일보, 서울신문의 논설위원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 전국문화단체 총연합회 최고위원, 문인협회 이사, 한국비교문학회 회장, 방송용어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다 1974년 타계했다.

문학활동은 1926년 시대일보(時代日報)에 시 「잃어버린 무덤」을 처음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해외문학> 동인 및 <시문학> 동인으로 참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그의 시는 대체로 애조를 띤 민요조의 서정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39년에는 첫 시집 「물레방아」를 발간하였으나 사상과 리듬의 단조로움으로 인해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지 못한 채 같은 서정시 계열의 김소월(金素月)이나 김영랑(金永郎)의 그늘에 묻혀버린 느낌을 준다. 따라서 그의 문학사적 공헌은 창작시보다 외국시의 번역 소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니 역시집 「실향(失香)의 화원(花園)」은 이 방면에서 1930년대 문학활동을 대표하는 업적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도 「불란서시선」등 역시집과 「현대서정시선」, 「현대국문학정수」, 「현대한국시집」 등을 편저하였다.

(참고 : 한국인물백과사전), 박상돈

이한응(李漢應)

열사는 용인군 이동면 시미리에서 출생하였다.

고종 11년(1874) 9월 21일 곤양군수 경호(瓊鎬)의 아들이며, 한말의 우국열사로서 자는 경천(敬天), 호는 국은(菊隱)이며 본관은 전의(全義)이다. 16세때 관립영어학교를 졸업하고 21세 되던 고종31년(1891)에는 성균관 진사 시험에도 합격한 재원이었다. 그의 나이 28세되는 광무 5년(1901) 3월 주한영국, 벨지움 양국 공사관의 참사관(參審官)으로 부임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소위 “고문정치”, “고문외교”를 강제하는 협정이 있기 3년전의 일이다. 우리나라의 형편으로서는 이미 영, 미, 노, 일 등 열강의 세력들이 밀리고 서로 경쟁 각축(角逐)하는 마당에서 헤어날 줄을 모르는 시기였지만 그러한 열강중의 한 나라인 영국에 주재하는 공사 관원의 한사람으로 나가 있는 청년 외교관 이한응은 현지 외국의 발전상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한국을 둘러싼 열강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공사 민영돈(閔泳敦)과 함께 조국을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하게 되었으며 그의 성실, 근면한 자기수양과 공무상의 노력을 진작부터 내외 인사의 칭찬을 받아왔다.

그리고 이듬해 즉 광무 6년에는 공사 민영돈의 귀국과 함께 특명 서리(署理) 공사로써 복잡하고 중요한 대영 외교의 전 책임을 받게 되었으며 다음해에는 다시 종래의 종3품 통훈대부(通訓大夫)에서 정3품의 통정대부(通政大夫)로 관계(官階)의 특별승진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기울어져만 가는 대세를 일개 청년 외교관의 노력만으로 돌이키기엔 어찌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가 서리 공사로 승진되던 해 즉 1902년에는 일찍부터 아시아 강점의 야망을 갖고 있던 영국과 일본이 서로 자기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국은 청국(淸國)에서 일본(日本)은 한국에서의 특수 권익을 인정하고 두나라중 어느 한 나라가 다른 한나라와 교전하는 경우에는 중립을 취하고, 두나라 이상과 교전하게 되면 참전한다는 영·일공수동맹(攻守同盟)의 조약을 보게 되었으며, 이 영·일동맹은 후에 다시 수정되어 일본이 한국에서의 정치, 경제, 군사상의 지도감독 및 보호등 조치를 취하는 권리를 영국이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또 국내에서는 광무 8년에 노·일 개전과 함께 한국에서의 일본의 내정간섭 및 군사활동의 자유를 인정하는 한·일 의정서가 성립될만큼 국세가 나날이 기울어져 갔다. 주영서리 공사 이한응은 이러한 내외 정세를 밤낮으로 근심하고 또 거기에 관한 외신(外

信)보도에 신경을 날카롭게 하면서 국제 주요사건을 일지로 수록하고 유의 검토하던 것도 이 무렵의 일이었다. 그는 정세가 불리해져 갈수록 한가닥의 혈로를 찾으려 피눈물나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조국을 대표해 나가있는 공사의 신분을 명심하면서 학문을 닦아 자신의 수양을 쌓고 다른 나라 외교사절들과도 우호적인 교제를 하여 외교적 진출을 도모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뒷날 그의 순절한 소식을 본국 정부에 알리는 명예 총영사 영국인 마켄론의 아래와 같은 보고문의 일절도 그의 외교관으로서의 성실한 생활을 여실히 말해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공(李公)은 한국의 가장 공정한 대표자입니다.

그의 일상생활은 학문에 충실 근면한 모범적인 인물로서 영국에 주재하는 동안에는 그의 지위를 잘 보전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영국의 외무부나 일반 사회에서 그를 다른 여러나라 대표들과 조금도 차이없이 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제의 침략횡포는 나날이 더해가서 광무 8년 8월에는 이 나라에 외교가 일 본인이 추천한 외교고문에 의하여 운영하게 되고 모든 외국과 외교관계 일체를 일본정부측과 상의하여야 한다는 협정서가 조인되고 뒤이어 9년 2월에는 다시 재외공사를 소환한다는 맹랑한 조치까지 취하여지는등 한국의 국제적 지위와 함께 재외 외교관들의 면목을 꺾어내리는 일들이 연거푸 일어나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여기서 이서리 공사는 다른 재외공사들과도 연락을 취해가며 그 대책을 강구하여 보려고 애썼지만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여기서 다시 침략국 일제의 횡포하에서 그해 3월에는 제1차로 주청(駐淸) 공사관이 참서관(參署官) 1명 서기생(書記生) 1명만을 남기고 철수하게 되었으며 뒤이어서는 이러한 외교관 소환 요구를 거부하던 참정대신 민영환(閔泳煥)이 의원면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미국 하와이에 있는 우리 이주 동포들을 보호 감독한다 하여 주한일본 공사관이 추천한 주 하와이 일본총영사 재등간(齋藤幹)을 한국명예 총영사로 임명한 것도 이무렵에 일이었다. 외교의 중임을 띠고 수만리 이역에서 분투 노력하는 이공사에게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모두 원통하고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서도 저만 잘살려고 날뛰는 정부 당리들에게 사실을 호소해 본댔자 소귀에 경읽기요, 일제에게 그 부당성을 항의한댔자 도둑에게 예의 염치를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일이었다. 여기에 다시 침략자 일제는 간사·교활한 외교선적으로 한국은 자주능력이 없으니 일본의 보호하에 넣어야 한다는

니 한국의 외교권은 일본이 위임받아 처리한다느니 하며 떠들어대고 외교권 공약을 벌이니 우리의 재외 외교활동이 열국 외교에 인정이 될 수 없는 일이었다. 여기서 이공사는 비장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한몸을 조국의 제단에 깨끗이 바치는 것만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단정하였다.

광무 9년 을사 5월 12일(음 4월 9일) 이공사는 「아아! 나라는 주인이 없고 사람은 평등을 잃었구나! 모든 교섭하는 일에 치욕이 이룰데 없으니 혈기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어찌 참을 것인가? 아아! 종묘사직은 멀지않아 빈터가 되고 겨레 모두가 노예가 되고 말겠구나! 구차스럽게 살아본댔자 치욕만 더욱 심해질 것이니 한번 죽어 버리는 것이 낫겠다」라는 유서를 써놓고 조용히 독약을 마시고 순절(殉節)하였다. 수다스런 말보다도 자기 한몸의 희생으로써 한국의 입장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고국 동포들의 경각심을 촉구하였던 것이다.

이공사는 고귀한 순절이야말로 당시에 있어서 민족의 정기를 불러일으키는 첫 봉화(烽火)일 뿐만 아니라 길이 이 겨레의 나아가는 길에 보배로운 거울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그해 7월에 이공사의 유해는 고향인 용인에 안장되고 뒤이어 정부에서는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 내부협판(內部協辦)의 관직을 추증하였으며 장춘단에 배양하였다.

(참고: 향토문화와 전통, 인명대사전), 이용준

이 핵(李 翮)

〈출생·묘·효자〉 본관은 우봉, 용인군 이동면 천동(지금의 이동면 천리)에서 참의 유겸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모친과 가솔을 이끌고 강화도에 피난하였으나 이듬해 정축년(1637)에 강화성이 함락되어 적군이 쳐들어 오자 모든 사람이 살기를 피하여 아비규환을 이루었다. 이때 그의 모친 윤씨는 길에서 적을 만나자 스스로 불에 뛰어들어 전신에 화상을 입어 살가죽이 모두 부르트고 벗겨졌다.

이를 본 적이 활을 쏘았는데 아들 핵과 아우 령(翎)이 어머니를 가로막아 무사하게 하였으며, 또 하늘의 보살핌이 있었는지 아들 둘도 기절하였다가 다시 소생하여 어머니를 구하였으므로 난이 평정되자 핵에게 효자 정문이 내려지고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에 발탁되었다.

죽은 뒤에 이조참판으로 추증되었다. 그의 묘소는 이동면 천리 속칭 독서대 좌측 부친 묘소아래 있는데 묘자 정문은 강화에 있다.

〈참고: 삼강행실록, 우봉이씨 세보, 내고장의 일〉, 이용준

이현보(李玄輔)

〈출생·묘〉 숙종 5(1679)~영조 21(1745) 조선 문신. 자는 덕승(德升), 정신(正臣)의 아들.

경종 3년(1723) 별시문과(別試文科)에 급제한 후 영조 6년(1730) 통정대부(通政大夫)의 위계(位階)에 올랐고, 승지(承旨), 호조(戶曹), 병조참의(兵曹參議)를 거쳐 대사간(大司諫), 정주목사(定州牧使), 강원감사(江原監司)를 역임하였다. 영조 21년 9월 9일, 67세를 일기로 하세하여 양지현 동쪽 공서동(貢瑞洞) 정수산(定水山) 좌록(左麓) 자좌원(子坐原)에 장사하였다.

〈참고: 연안이씨 세보, 연이선적고〉, 박상돈

이 혼(李 渾)

〈묘〉 세종 21(1439)~성종 14(1483) 조선 문신. 자는 이호(而灝), 본관은 연안(延安), 연성부원군(延城府院君) 석형(石亨)의 아들이며 모친은 정보(鄭保)의 딸로 포은의 증손녀이다. 성종 6년(1475)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성종 원년(1470) 문과에 급제하여 감찰(監察), 정언(正言), 사예(司藝)를 역임하였다. 후에 이조판서에 증직(贈職)되었다. 묘는 모현면 능원리 문수산에 있다.

〈참고: 연안이씨 세보, 연이선적고〉, 최희면

이홍간(李弘幹)

〈출생〉 조선 중기의 문신인 이홍간은 1486년(성종 17년) 아버지 사간 효篤(孝篤)과 어머니 최명근(崔命根)의 딸 사이에 태어났다. 본관은 용인(龍仁)이고 자는 대립(大立), 호는 쌍괴(雙槐)이다.

어려서부터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선비로서 고른 자질을 가진 이홍간은 1507년(중종 2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1513년(중종 8년) 식년문과에서 병과로 급제한 후 권지승문원

정자에 처음 제수되었고 곧이어 예문관에 들어가 1517년 11월 평안도평사로 파견될 때까지 검열, 대교, 봉교등을 역임하였으며, 조광조(趙光祖), 김정(金淨) 등과 교유하면서 김정 등의 편협하고 과격함을 경계하였다. 절개가 있고 성격이 굳은 그는 권세와 타협하지 못하여 15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났을 때에도 남곤(南袞)이 고변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나무랐으며, 1520년 2월 사간원정언에 발탁되고, 그후 홍문관 교리, 세자시강원 사서, 호조, 예조, 병조의 좌랑, 정랑, 세자시강원필선, 수원, 곤양, 옥천군수를 역임하였다.

1527년 5월 사헌부 장령으로 11월 경연(經筵)에 참여하여 1513년 박영문(朴永文), 신윤무(辛允武)의 옥사에 연루되어 죄인으로 귀양을 간 영산군 전(寧山君 佺 : 성종의 13남)을 세종이 양녕대군을 방면한 고사에 비유하여 사면할 것을 청하여 방면하게 하였으나, 강직한 언론을 꺼려한 대신들의 배척으로 파직되었다. 곧 복직되어 사옹원(司饔院), 군기시(軍器寺), 종부시(宗簿寺)의 정(正)과 공주, 청주, 광주 의 목사를 역임하였다.

1543년경 봉상시정(奉常寺正), 1545년(명종 원년) 11월 인종의 빈전도감사(殯殿都監事)에 참여한 공로로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에 승진되고, 다음해 12월 동지부사로 서 명나라에 갔다가 귀국도중 사류하(沙流河)에서 풍운질(豐潤疾)로 죽어 구성(駒城)에 상장(喪葬)하였다.

그는 효행과 강직한 언사로 명망이 있었으나 크게 이루지는 못하고 20여년간 외관으로 재직하면서 선치를 행하였다. 부인 고성이씨(固城李氏)와의 사이에 4남 2녀를 두었다.

(참고 : 중종실록, 명종실록, 국조인물고), 최희면

이홍광(李紅光)

독립지사. 1910년 용인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홍광은 고향에서 소학교 1학년을 마치고 극심한 가난과 일제의 폭압을 피해 16세인 26년에 가족과 함께 중국 길림성으로 이주했다.

그는 만 20세가 되는 30년에 중국 공산당과 조선독립군에 가입해 본격적인 항일투쟁을 시작하게 된다. 당시 동북지역에서 전설적인 항일무장투쟁의 영웅이라 불리던 중국인 양정우(楊靖宇)를 만나게 된 것은 그로부터 2년 뒤인 32년의 일.

이홍광은 동북 항일연합군의 전신인 항일의용군과 반일산림대, 남만주의 대표적인 항

일무장 투쟁 세력인 「동북인민혁명군」 창설의 산파역할을 했다. 그는 또 혁명군의 제1군 1사장(師長)이란 중책을 맡아 집안, 연변, 백두산등 동북지역의 일본군과 경찰을 습격, 일본 관동군에 막대한 타격을 줬을 뿐 아니라 압록강을 건너 평북 동흥성(현 후창군 동흥면)까지 진격해 일본인 상점과 경찰서를 습격하고 친일본자들을 응징, 일본군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그러나 그는 35년 5월 남만주 홍경현 죽창동 전투에서 일본 수비대와 교전중 중상을 입고 후송도중, 2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동북 항일연합군은 31년 만주사변 뒤 일본의 괴뢰정권인 만주국이 들어서자 위기의식을 느낀 남만주 지역의 조선족과 한족, 일부 만주족의 항일 유격대들이 양정우를 중심으로 규합해 무장투쟁세력을 이뤘다.

구성원의 70%이상이 조선인으로 구성된 동북항일연합군은 35년 이후에 최대의 전성기를 맞아 전체 11개 군으로 남·동·북만주에서 요하지역까지 세력을 넓히고 44년 중·일전쟁 발발때까지 대일무장투쟁을 계속했다.

이같은 사실은 92년 7월 10일부터 8월 3일까지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초청으로 고구려, 발해 및 민족독립운동 유적조사를 위해 백두산과 중국 동북지역을 답사하고 돌아온 京畿大 崔洪奎교수(53. 한국사)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최교수가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입수한 자료는 중국내 조선민족 발자취 총서인 “결전”과 “불멸의 투사”(이상 민족출판사刊)등 다수.

“결전”, “남만인민항일 투쟁사”는 동북지방에서 중국과 조선족 출신이 이끈 단체의 항일무장투쟁 활동상을 각 부대별로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또 “불멸의 투사”는 동북지역에서 항일유격대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1930~1940년까지 무장투쟁들의 일대기를 전기형식으로 간결하게 소개한 책자다. 최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항일유격대장 이홍광(李紅光)의 출생지는 용인군 이동면이다.

한편 국내 항일무장투쟁사 연구는 동북(東北) 항일연합군(抗日聯合軍)에 대한 자료가 부족했고 북한의 정권수립과 밀접하게 관련된 관계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다. 최교수는 “동북 항일연합군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함경, 평안도 출신인데 비해 양정우(楊靖宇), 주보중(周保仲)과 더불어 연합군 3거두로 꼽히는 경기·용인 출신 이홍광의 등장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참고: 1992.8.16 중부일보(최영준), 금병운

이홍운(李鴻運)

양지현감(陽智縣監). 영조 29년(1753) 5월 도입하였다가 동년 10월 양인(良人)을 억압하여 천민으로 만든 죄로 관직을 삭탈당하고 철원으로 부처(귀양)되었다. 양민을 부당하게 억압하고 직권을 남용한 죄로 귀양살이를 가게 된 현감으로 기록을 남겼다.

(참고: 시사년표), 노승식

이효독(李孝篤)

〈출생·묘〉 문종원년(1451)~연산 6(1500) 조선 문신. 자는 순경(舜卿), 본관은 용인, 성종 14년(1483) 문과에 급제 승문원주서(承文院注書), 시강원사서(侍講院司書), 병조좌랑(兵曹佐郎),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보성군수(寶城郡守),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역임하였다. 그는 천성이 활달하고 위험을 삼가며 대인관계도 지극히 성실하였으며 관직에 있을때도 근검, 신중하고 사리가 밝았다고 전한다. 특히 효행과 우애로 이름이 있었다. 묘는 수지면 풍덕천 신촌마을에 있다.

(참고: 용인이씨 세보, 비문집), 최희면

이효륜(李孝倫)

양지현감(陽智縣監). 영조 49년(1773) 6월 도입하였다가 동년 9월 금천현감 최창걸(崔昌傑)과 교체되었다. 역대 현감중 서로 자리를 맞바꾼 경우는 이들이 최초가 된다.

(참고: 용인군 시사년표), 박상돈

이희동(李喜東)

〈효자·정문〉 본관은 덕수. 자는 필만(必萬)이며 어무장군(御侮將軍) 이치(李穉)의 아들이며 현종 계묘(1663)년에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칭송을 들으며 자랐다. 모친이 위독하매 백방으로 약을 구하여 간병하였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밤마다 목욕재개하고 산천에 기도하여 백일이 되던 날 밤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묘방을 일러 주었으니 하늘의 보살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모친 간병에 쓸 약초는 여름에나 나는 산야초였기로 엄동 중에는 구할 방도

가 없었다. 희동은 설중에 이산 저산 약초를 찾아 헤매던 중 마침내 지쳐 혼절하였다가 깨어났을 때 그가 쓰러졌던 자리에 산야초가 무성히 자라 있었다. 이를 구하여 모친의 환우를 치유케 되니 사람들은 천우신조라 말하였다. 그러나 몇년이 지난 후 그의 모친이 천수를 다하며 희동은 슬퍼함이 극에 달하였다.

부친의 묘에 합장한 후 3년동안 하루도 집에 돌아오지 않고 묘하에 꿇어 엎드려 시묘살이를 하였으며, 3년 탈상후 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양쪽 무릅이 빠져 있었다. 이와 같은 효행이 이웃과 마을에 전파되어 마침내 상께서 들으시고 명하여 효자 정문을 내렸으며, 참봉으로 표절하였으나 무릅이 빠져 거동할 수 없었으므로 이를 사양하였다. 기흥읍 영덕리에 정려문이 있다.

〈참고: 덕수이씨 세보, 삼강행실록, 내고장의 얼〉, 이웅준

이희조(李喜朝)

〈문헌〉 효종 6(1655)~경종 4(1724). 조선 문신, 유학자, 자는 동보(同甫), 호는 지촌(之村), 본관은 연안, 부제학 단상의 아들이며 송시열의 문인이다.

1694년(숙종 20)이후 인천현감, 평안군수를 역임하였고 1717년 대사헌이 되고 이듬해 이조참판을 지냈다. 신임사화(辛壬士禍)로 김창집(金昌集)등 노론 4대신이 유배당할 때 영암에 유배되었다가 철산으로 옮기던 중 정주에서 죽었다. 후진교육에 힘쓰는 한편 많은 저서를 남겼다.

1718(무술)년부터 1722(임인)년까지 제21대 충청서원 원장으로 재직되었다.

〈참고: 충청서원 원장록〉, 금병윤

임갑성(任甲成)

항일의병. 양지군 박곡면(朴谷面) 기안리(機安里)에 거주하였다. 의병에 가담하였다가 지병으로 융희 2년(1908) 2월 백암헌병분견소에 자수하였다.

〈참고: 융희 2년 3월 3일 경관발(京觀發) 제27호, 경기관찰사 이규항(李圭恒) 보고〉, 이인영

임 관(任 權)

〈생거급제〉 숙종 38(1712)~? 자는 영중(榮中), 본관은 풍천(豐川), 수륜(守綸)의 아들. 53세 때인 영조 41년(1765) 을유식년문과(乙酉式年文科) 을과(乙科)에 급제한 후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여생을 마쳤다.

(참고 : 고사대사전, 용인군지), 이인영

임옥여(任玉汝)

항일의병. 양지군 주동면 평촌동(지금의 내사면 평창리)에 거주하였다. 본명은 경재(景宰), 누대로 무관장(武官將)을 지낸 풍천임씨의 후예이다.

융희 원년(1907) 위미해가는 정국을 개탄하고 동년 7월, 이천군 신면(新面), 남정동(南井洞), 이근풍(李根豐)의 집에서 주창용(朱昌龍), 신규희(申奎熙), 조상현(趙常顯)등과 봉기할 것을 결의하고 포군 32명을 모집, 의병대를 편제할 때 도총대장(都摠大將)에 이근풍, 군사(軍師)는 주창용이 되고, 임옥여는 좌익장(左翼將)이 되고 신규희는 우익장(右翼將), 김봉기는 진찰장(陳察將)이 되었으며, 조상현은 향관(餉官)이 되었다.

대오를 정비한 이들은 일약 출병하여 광주군 되고개에 이르렀을때 도총대장 이근풍이 다른 참모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 피살당할까를 염려하여 피신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김봉기를 대장으로 하여 장두지(獐頭地 : 또는 노루목)에서 아침을 먹은후 일본 기병대와 접전을 벌여 격퇴하였다. 그후 이천, 광주, 용인, 죽산 등지를 전전하면서 크게 위세를 떨쳤던 바, 봉기한 이후 동년 5월 22일 이천읍 우편소와 현병분견소를 습격하였고, 용인의 굴암사(지금의 목리 용덕사)에서 일본 토벌대와 교전하였다.

그외에도 죽산 백암시장(현, 용인)에서의 교전, 일진회원, 일본 순검 교상등 혁혁한 의병활동을 전개하던 중 1907년 11월 10일 수원 수비대에 체포되어 당년 36세 나이로 총살형에 처해졌다.(평리원 재판기록)

일본군이 작성한 폭도사 편집자료의 기록을 보면 그에 관한 활동내역이 적혀 있다.

— 임옥여 : 전 농상공부(農商工部) 주사. 년 36세. 경기도 양지군 주동면(朱東面) 평촌. 경력 불명

융희원년 8월 중순 경성소요(京城騷擾) 후의 국운(國運)을 분개하고 동지를 규합하

여 이천 창의소(倡義所) 좌장(左將)으로서 횡포를 극하던 바 8월 21일 이천읍에서 일본 기병(숫자 미상)과 교전하여 이를 격퇴하고 그 여세를 몰아 각처에 웅비(雄飛)하기에 이르렀다.

또 광주(廣州), 양근(楊根)등을 배회하고 이천읍에 들러 융희원년 8월 30일 다시 일본군과 접전, 부하 2명의 전사(戰死)를 내고 패주한 바 있다. 그후 포군 12명을 인솔하고 광주군 실촌면(實村面)에 이르러 원주 의병대장(原州義兵隊長)의 군략(軍略)을 사용하여 다시 포군 70여명을 모집하고 굴암(지금의 이동면 묵리 용덕사)에서 일군과 접전, 사망자 수명을 내고 둔주(遁走)하였다.

또한 융희원년 9월 14일 포군 1800명을 인솔하고 안성을 습격하였으나 일본군에 의하여 격퇴당하였다. 그로부터 포군 39명을 인솔하고 양근군(楊根軍)에 들러 수일동안 체제, 죽산군 원일면(지금의 원삼면)으로 행진중 고초곡(枯草谷)에서 일본군 병사 및 순사대(巡查隊)와 교전후 패전하였다. 이때 패병 33명을 용인의 두두마고개 산위에 집합시켜 무운(武運)이 비색함을 타이르고 한때 해산하였다.

이상의 폭거중 광주 상림(尙林) 도중에서 일진회원(一進會員) 4명, 백암시장에서 1명, 또 죽산군 백암에서 순사 1명, 순검 1명을 총살하였고, 또 죽산군에서 순검 1명을 생매장한 일이 있었으며 한때 정주원(鄭周源)과 함께 횡포를 극한바 융희원년 11월 자택에서 수비대에 의하여 체포되어 죄상을 자백받고 드디어 총살됨.

(참고: 의병항쟁사 3권, 노승식

임 정(林 整)

〈출생〉 고려말부터 조선초기까지의 문신으로 자는 운봉(雲峰), 호는 보덕(輔德)이다. 본관은 평택으로 태순(台順)의 아들이다. 향리로 입신하였고 녹사·도염서영(都染署令)·도관좌랑을 거쳐 1385년(우왕 11년)에 사헌부 지평이 되었다. 그뒤 판도정랑·이조정랑·의주목사를 거쳐 1393년(태조 2년) 공조판서가 되었다가 서북면도순문찰리사·경상도도관찰출척사 등을 역임하였다.

1401년(태종 1년) 총제(摠制)로서 충청·경상·전라도의 조운체찰사가 되어 콩과 쌀을 전후 10만 2천여석을 운송한 공으로 왕으로부터 말 한필을 하사받았다. 같은해 경상·전라·충청도 체찰사겸 수군도절제사·조운염철사가 되어 3도의 주민을 동원하여 조선(漕

船)을 건조하였는데 경상도에서 111척, 전라도에서 80척, 충청도에서 60척을 각각 만들었다. 1403년 동북면도순문사겸 병마도절제사가 되었고, 이듬해 중군도총제로 명나라에 가서 백성을 본국에 환속시켜준데 대하여 사례를 하였다.

1407년 형조판서를 거쳐 동북면도순문찰리사겸 영흥부윤이 되었다가, 1410년 다시 형조판서가 되어 명나라에 하정사(賀正使)로 다녀왔다. 다음해 서북면순문사가 되었으나 평양부에서 종기가 나 4일만에 죽었다. 사람됨됨이가 근실하고 중후하였으며, 가는 곳마다 치적이 뛰어나 백성들이 순종하였다는 사관의 평을 받았다. 성종조에 청백리에 뽑혔으며 1482년(성종 13년) 사패(賜牌)로 산 40리를 받았다. 시호는 공혜(恭惠)이며 용인군 이동면 묘봉리에 묘가 있다.

〈참고: 정종실록, 태종실록, 공혜공력사록〉, 최희면

임창수(林昌洙)

양지군수(陽智郡守). 건양원년(1896) 2월 도임하였다. 1896년 지방관제의 개편에 따라 양지현이 양지군으로 개칭 되었는데 현이 군으로 승격된 후, 최초로 부임한 군수가 되었다.

〈참고: 읍지, 선생안〉, 박상돈

임허옥(任許玉)

항일의병. 용인군 광기리(지금의 이동면)에 거주하였다.

당년 30세인 임허옥은 농업에 고용된 신분으로 융희원년(1907) 8월 의병 윤관문(尹官文)의 휘하에 가담하였다. 그후 용인군 묘봉면(지금의 묘봉리)에서 동 의병대와 함께 일시 은신하여 주변 광기동(郭基洞: 광터) 업이동(業已洞→魚肥里)등에 출몰하여 일인이 수탈한 군수전(軍需錢) 4백냥을 탈취, 의병활동자금으로 확보하였으며 안성지방으로 이동중 일본 병사와 전전하다가 산개되어 은신후 다시 돌아왔다. 그러던중 융희 2년(1908) 4월 다시 의병에 합세하였다가 체포된 후 내란죄로 기소되어 10년형을 언도받고 복역하였다.

그가 소지했던 화승총 2점이 증거물로 확보되었고 또 당시의 연령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의병활동에 가담하여 활약하였다.

〈참고: 독립운동사 별책(1), 재판기록〉, 이인영

임희원(任希遠)

〈생거급제〉 영조 24년(1748)~? 자는 경중(景仲), 본관은 풍천(豐川), 관(權)의 아들. 영조 44년(1768) 무자식년시(戊子式年試)에 병과(丙科)로 급제한 후 관은 공조참의(工曹參議)에 이르렀다.

(참고: 고사대전), 박상돈

자 초(自 超)

〈유래〉 고려 충숙왕 14(1327)~조선 태종 5(1405). 조선 초기의 고승. 속성은 박씨(朴氏), 호는 무학(無學), 당호는 계월헌(溪月軒), 인일(仁一)의 아들로 경남 함천에서 출생. 충혜왕 5년(1344)에 출가하여 해명국사(慧明國師)로부터 불법(佛法)을 배우며 부도암(浮屠庵)에 머물렀다. 1353년 원나라 연도(燕都)로 가서 지공(志空)을 만나 도를 인정받았다. 후에 이태조가 등극하자 그를 왕사(王師)로 삼고 “대조계종사 선교도총섭 전불심인 변지무에 부종수교 홍리보제 도대선사 묘엄존자(大曹溪宗師 禪教都摠攝 傳佛心印 辯智無碍 扶宗樹教 弘利普濟 都大禪師 妙嚴尊者)”라는 호를 내렸다. 이때 태조에게 유교는 인(仁)을 말하고 불교는 자비를 가르치지만 그 작용이 하나라는 것과 백성을 자식처럼 보살필때 백성의 아버지가 되고 나라는 저절로 잘될 수 있음을 설법하였다. 태종 4년(1404) 4월 15일 포곡면 가실리 향수산 백련암(白蓮庵)에서 18나한상(十八羅漢像)을 조성하고 이 절을 중수(重修)하였는데 당시에 조성했다고 전하는 18의 나한상중 16위의 나한상이 현존한다. 1405년 이 절을 떠난 무학대사는 금강산 진불암(眞佛庵)으로 옮겨 78세를 일기로 입적하였다.

(참고: 백련암 략사,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인영

장만영(張萬榮)

〈묘〉 장만영은 신석정과 닮은 데가 많은 서정시인이자 전원시인이다. 그런가 하면 모더니즘 계열의 김광균과도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러나 김광균이 도시적이며 문명적인 반면 장만영은 그 소재를 농촌과 전원에서 택했다. 목가적이며 전원적이라는 면에서 신석정보다 이미지의 조형에 더 뛰어난 솜씨를 보였다는 평을 받을 정도였다. 또 동양화적

이며 객관적, 관조적 시풍으로 사물에 대한 감각미와 회화적 요소를 신선하게 살려내는 특이성을 지녔다.

그는 1914년 황해도 연백에서 아버지 완식(完植)과 어머니 김숙자(金淑子) 사이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호는 초애(草涯)이다.

백천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단신으로 상경하여 지금의 경북고등학교 전신인 경성제2고등보통학교를 마쳤다. 1934년 약관의 나이로 동경에 건너가 삼기영어학교 고등과에 입학하였으나 2년을 넘기지 못한채 부모의 강권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귀국하였다. 1936년 신석정의 소개로 알게 된 전라북도 김제출신의 박영규(朴榮奎)와 혼인하게 되었다.

비교적 많은 교우, 문우와 친교를 맺으며 고보시절에는 후일 「삼사문학」을 창간한 정현용, 이시우, 한노단등과 더불어 습작활동을 하였고, 고보졸업 후에는 서면으로만 알아왔던 김억과 두터운 사제의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또한 박영희, 최재서, 오장환, 김기림, 정지용, 서정주 등과도 친교를 맺었다. 1948년 서울에서 출판사 산호장(珊瑚莊)을 경영하면서 김기림등 문우들의 시집을 발행해 주기도 하였고, 6.25때에는 중군작가단에 형성된 문인들과 어울려 「전선문학(戰線文學)」을 간행하였다.

그의 시작활동은 1931년 「동광(東光)」지 독자투고란에 습작품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나 이듬해 같은 잡지 5월호에 시 「봄노래」가 김억의 추천을 받아 정식으로 등단한 후 본격화되었다.

그후 조선일보에 「물장난」, 「동무여」, 동광지에 「마을의 여름밤」, 「정처없이 떠나고 싶지 않나?」, 「자아는 와서」, 신동아에 「나비여!」, 「알밤」, 「비 걷은 아침」등을 계속 발표하였다.

전기(前記)한 바와 같이 그의 시는 전반적으로 도시적, 문명적 감각의 회화가 아니라 전원적, 서정적 제재를 현대적 감성으로 노래한 이미지스트의 경향을 지녔다. 농촌의 감수성을 바탕으로 하고 동심과 감상적 서정을 지닌 점에서는 신석정과 통하고, 대상을 이미지화한 점에서는 김광균의 모더니스트와 맥을 같이 한다. 그는 특히 이미지 조형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최재서는 이 점에 대하여 “이미지와 운동이 합쳐진 세련된 위트의 시”라고 평했다.

첫 시집 「양(洋)」에는 시작활동 초기에 해당하는 작품집으로서 「아직도 거문고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가을 아침 풍경」, 「봄들기전」, 「해안에서」, 「달·포도·앞사귀」등 신선한 감각을 풍기는 작품들 30편이 수록되어 있다.

제2시집 「축제」와 제3시집 「유년송」은 중기의 작품집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각박한 현실 체험에 따른 지적 고뇌와 표박의식(漂泊意識)이 드러나 있으며, 그 뒤의 「밤의 서정」, 「저녁중 소리」, 「장만영선시집」, 「등불따라 놀따라」, 「저녁놀 스러지듯이」들은 후기의 작품집들로서 자연 및 현실에 대한 관조, 율화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시인협회 부회장을 거쳐 회장에 선임되었으며 1975년 10월에 별세했다. 1983년 장지인 용인공원묘지에 시비가 세워졌다.

위에서 언급한 8권의 시집외에 자작시 해설집 「이정표」, 수필집 「그리운 날에」, 번역시집 「남구의 시집」, 「바이론 시집」, 「하이네 시집」등이 있으며 기타 저서로 「고등문에 독본」, 「현대시의 이해와 감상」, 「소월시 감상」, 「현대시 감상」등이 있다.

그의 시 두편을 감상해 본다.

달·포도·앞사귀

순이 벌레 우는 고풍(古風)한 뜰에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 왔구나.

달은 나의 뜰에 고요히 앉아있다.
달은 과일보다 향기롭다.

동해바다 물처럼
푸른
가을
밤

포도는 달빛이 스며 곱다.
포도는 달빛을 머금고 익는다.

순이 포도덩굴 밑에 어린 잎새들이
달빛에 젖어 호젓하구나

비

순이 뒷산에 두견이 노래하는 사월이면
비는 새파아란 잔디를 밟으며 온다.
비는 눈이 수정처럼 맑다.
비는 하이얀 진주 목걸이를 자랑한다.

비는 대낮에도 나를 키스한다.
비는 입술이 함씬 딸기물에 젖었다.

비는 고요한 노래를 불러
벚꽃 향기 풍기는 황혼을 데려온다.

비는 어디서 자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순이 우리가 촛불을 밝히고 마주 앉을 때

비는 밤 깊도록 창 밖에서 종알거리다가
이윽고 아침이면 어디론지 가고 보이지 않는다.

〈참고: 한국인물백과사전〉, 박상돈

장우한(張遇漢)

· 용인현령(龍仁縣令). 인조 6년(1628) 11월 과만으로 사임 귀향하였다. 이로서 과만(瓜滿)이 되어 사임한 최초의 용인현령이 되었다. 과만이란 수령 방백의 임기(任期)를 말하는 것으로 수령의 임기는 60개월이었으나 대개는 임기를 채우는 예는 매우 드물었다.

〈참고: 용인군 시사년표〉, 박상돈

장욱진(張旭鎭)

(우거) 화가. 1918년 1월 8일 충남 연기군 동면 송릉리 105번지에서 부친 기용(基鏞)과 모친 이기재(李基在)와의 사이에서 2남으로 출생, 본관은 결성(結城)이다.

“나는 죽음에 대해 두려운게 없다. 오래 사는게 장한 것은 아니나 생명을 줄일 수는 없는 것이고 기능이 없으면 죽어 버리는게 좋다. 내 기능은 그림그리는 거니까 죽는 날까지 그려야 한다”고 한 화가 장욱진. 그러면서도 그림을 직업으로 그리지 않았던 그는 “나는 심플하다”는 것을 생활과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키면서 평생에 그가 지냈던 자부심은 온갖 궁벽속에서 “한번도 붓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죄가 있다면 한평생 그림그린 죄밖에 없다고 말한 그는 미술은 취미도 열정도 아니고 그의 삶의 전부였고 그에게서 붓만 빼았으면 그 자리에 앉은 채 뻣뻣하게 굶어죽을 사람이라는 평을 들었던 화가 장욱진. 그가 1986년 용인군 구성면 마북리 244번지에 있는 한옥 한채를 사서 보수하고 7월초에 입주해 살기 시작하였으며 말년을 그곳에서 보냈다. 그러나 이웃 사람들은 당대에 이름있는 중량급 화가가 곁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명성을 알지 못했으며, 그 지역 주민들도 매한가지였다. 1922년 고향에서 서울 당주동으로 이사하였고 1924년 경성사범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보통학교 3학년 때인 1926년 미술교사가 그림을 뽑아 일본 히로시마 고등사범학교가 주최한 전국 소학교 미전에 보냈을때 그 그림이 일등상을 차지하였다. 1914년 4월 1일 사학자 이병도의 맏딸 순경(舜卿)과 결혼한 후 일본에 유학하였고 1943년 국제미술학교를 졸업후 귀국하여 일제 징용에 끌려 갔다가 9개월만에 해방을 맞이하였다.

1954년 서울대학 미술대학 미술대우교수로 일을 시작하였으나 1960년 본 대학을 사직하였고 경기도 덕소에서 조그마한 양옥을 짓고 생활, 1977년 여름 양산 통도사에 들어가 삼소굴에서 첩거중이던 경봉(鏡峰)스님을 만날 수 있었다. 거기서 “나도 없고 남도 없으면 모든 진리를 자유롭게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며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데서 부처의 모습을 본다”는 선시를 짓고 경봉은 그에게 비공(非空)이라는 법명을 지어 주었다. 그후 수안보에 화실을 마련하여 전원에서 창작활동을 하다가 1986년 수안보의 화실을 정리하고 구성면 마북리에 있는 한옥을 사서 보수한 다음 7월초에 입주하였고 말년의 작품생활을 하다가 1990년 12월 27일, 73세를 일기로 일생을 마쳤다.

일을 하기 위하여 몸뚱아리는 소모해야 한다고 말하던 장옥진은 5백여점의 유작을 남기고 한줌의 재가 되었다. 아직도 구성면 마북리에는 그가 살던 오래된 한옥 한채가 덩그러니 전해지며, 미망인 이순경여사가 지키고 있다.

(참고: 장옥진 그사람, 김형국, 장옥진 그림산문집), 이인영

전 씨(延安府夫人 田氏)

〈묘·사당·비각〉 연안부부인 전씨의 묘는 구성면 마북리에 있다. 마북리는 조선시대 용인현 관아가 있던 곳이며 현령이 도입하면 먼저 부부인 전씨 묘에 참배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연안부부인 전씨는 바로 성종의 장모이자 중종의 외할머니되는 사람이며, 영원부원군 윤호(尹壕)의 아내이다. 세조 8년(1462) 6월 26일 그의 부군 윤호가 신창현감으로 있을 때 거기서 낳은 딸이 후에 성종의 계비가 되었으니 곧 정현왕후(貞顯王后)이다. 본래 성종비는 칠삭둥이 한명희의 딸이었으나 19세로 요절하였고 뒤를 이어 연산의 어머니인 윤숙의가 계비가 되었으나 “음험하고 폐악하다”는 이유로 폐출, 사사된 후 숙의 윤씨가 계비가 되었는데 곧 윤호와 전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그의 묘는 1972년 도굴되었으며, 그의 사당(현조사)와 묘비가 구성면 마북리에 전한다.

(참고: 내고장의 일), 이용준

전월순(全月順)

애국지사. 이명(異名)은 월선(月善), 1923년 2월 6일 경상북도 상주에서 석출(石出)의 2녀로 출생하였다. 16세때인 1939년 9월 중국 귀주성(貴州省) 계림(桂林)에서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에 입대하여 일본군에 대한 정보 수집과 병사초모 등의 공작활동을 하다가 1942년 4월 20일 개최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제28차 국무회의의 의결에 따라 광복군(光復軍)으로 편입되었다.

그는 1942년 4월 20일부터 1945년 8월 14일에 이르는 기간동안 광복군 제1지대(光復軍第一支隊) 대원으로 활동하였다. 20세 되던 해 낙양지구 선전공작총책으로 있던 김근수(金根洙) 지사를 만나 결혼하였고 중국 각처를 떠돌면서 활동하였다. 8.15 광복을 맞아 부군과 함께 배를 타고 부산에 도착한후 서울 마포에 자리잡고 생계를 위해 갖가지

행상을 하면서 살았고 10. 26사태 후에 부군 김근수와 함께 용인군 구성면 보정리 87번지로 이사하였으며 1991년경 남편 김근수옹과 사별한 후 중풍으로 기동이 불편한 노구를 이끌고 외로운 독신생활을 하고 있다.

올해로 73세인 전월순할머니는 기억상실증세를 보이면서도 중국시절 광복군으로 독립운동을 한 것과 경북 상주에서 차녀로 출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으나 나이가 몇 살인지를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가재도구와 살림살이가 깨끗히 정돈되어 있었고 1993년 6월 1일 김영삼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국가유공자증(증 제13-41호)은 깨끗한 보자기에 곱게 싸서 본인의 사진 액자 뒤에 보관하고 있었다. 증서 내용을 보니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1993년 6월 1일 대통령 김영삼》이라는 기록이 적혀 있었지만, 병든 노구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이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우국지사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원호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참고 : 독립운동사 6권, 독립유공자공훈록), 이인영

전 임(田 霖)

〈출생〉?~중종 4(1509) 조선 무신(武臣). 본관은 남양, 무과에 급제, 성종 13년(1428) 전주판관이 되고 훈련원판관(訓練院判官),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전라우도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를 지냈고, 청백(清白)한 무장으로 독서를 좋아했으며 중종 2년(1507) 한성부판윤이 되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죽었다.

이기(李璽)가 지은 〈송와잡화(松窩雜話)〉를 보면 전임은 성격이 과감하여 지나치게 군세였으나 조출한 절조는 세상에 첫째였고 경서와 사기(史記)에도 넓게 통했던 인물로 나타난다. 그가 소시적에 친구 두세사람과 함께 절에 올라가서 송사를 읽었는데 진회(秦會)라는 사람이 거짓 조서를 꾸며 군사(軍師)를 소환했다는 대목에 이르자 분함을 참지 못하여 활과 화살을 가지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행자승에게 자기가 쓰고 있던 전(巾)을 벗어주며 절 문간에 매달게 한 다음 활을 힘껏 당겨서 화살 두개를 연달아 쏘아 꿰뚫어 놓고 들어 오면서 “지금 역적 진회의 대갈통을 깨고 나니 조금 후련해지는군”하고 말하였다. 이러한 행동으로 미루어 볼때 전임이라는 사람은 의협심이 강하고 악을 미워

하였던 기재(奇才)였음을 알 수 있다. 그가 포도대장으로 있을때 도적을 잡으려고 재인암(才人岩)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던중 어느 정승집 사람들임을 자처하는 무뢰한 대역섯 명이 한꺼번에 덤벼 들었다. 전임은 혼자서 이놈 저놈을 때려 눕히고 「정승께서 어찌 너희놈들을 내놓아 국법을 문란케 하느냐?」면서 모두 오랏줄로 묶어 체포해 버렸다. 그런데 이들은 요즘말로 특수기관원?임을 사칭하면서 마구 욕지거리를 하면서 공갈을 쳤다. 그러나 전임은 들은척도 하지않고 더욱 심하게 결박을 하자 그때서야 비명을 지르면서 조금 늦춰달라고 애걸을 했으나 끝내 용서를 해주지 않다가 날이 밝자 이들을 모두 정승집으로 끌고 가서 「이놈들이 영상의 세력을 믿고 경거망동했어운데 도둑질한 것은 아니오니 바라옵건대 이후로는 잘 단속하여 주십시오. 혹 영상대감께 누가 미칠까 두렵습니다.」라고 하였다. 정승은 크게 놀라 뜰에까지 나와서 손을 잡음 「이런 좋은 사람을 내어 일찍 알지를 못했는고?」라면서 좌석을 권했다. 정승은 그 체구를 보고 「술은 얼마나 마시며 밥은 얼마나 먹는가?」하니 「대감께서 명하시는 대로 먹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정승은 곧 반비간(부엌)에 연락하여 합지박에 생선과 채소를 섞은 요즈음의 비빔밥과 같은 것을 차려오도록 하고 양푼에다가 서너병이나 뒤집한 술을 담아오도록 했다.

전임은 두어 손갈에 그 많은 밥을 게눈 감추듯 다 먹어 치우고 양푼에 가득한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이것을 보고 있던 정승은 혀를 내두르면서 「자네 무슨 벼슬을 하고 있는가?」하고 물었다. 「벼슬한 지는 오래지 않사오나 내금위(內禁衛)에 보직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일이 있던 후에 정승은 임금께 아뢰어 선전관(宣傳官)으로 발탁시켜 주었고 이때부터 정승집을 거리낌없이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날 전임이 정승집에 불일이 있어 갔더니 정승이 호상(胡床: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걸터앉아 어린 계집종을 뜰아래의 나무에 거꾸로 묶어 놓고 활을 당겨서 막 쏘려고 했다. 전임이 놀라면서 「대감 어찌된 일이옵니까?」하고 물으니 정승은 「한번 불러서 대답을 하지 않기에 쏘아 죽이려고 하는 참이네.」했다. 전임은 손을 들어 말리면서 「대감 죽이는 것보다는 소인에게 주시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하였더니 정승이 웃으면서 허락하였다. 그래서 전임은 한 생명을 구했고 계집종은 한평생 그를 은인으로 섬겼다.

또 이런 일화도 남기고 있다. 전임이 어느날 달밤에 무료하게 앉아 있다가 이웃사람이 말재주가 있어 익살을 잘 부린다는 말을 듣고서 그 자리에 불러 앉혔다. 전임은 「자네도 알다시피 달을 밝고 바람은 고요한데 안석도 서늘한 탓에 잠을 자려해도 잠이 오

지 않는데 자네가 무슨 말을 가지고 내 무료함을 풀어주고 나를 즐겁게 하여 주겠는가?」하고 물었으나 그 사람은 굳이 사양하면서 「소인이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하면서 자꾸 꿈무늬를 뺐다. 이에 전임은 「이 사람아! 내가 담밖에 있는 집 한채를 자네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못한단 말인가?」하니 말 잘한다는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절을 하며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소인이 지어낸 것인데 영감님께서 들을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면서 서두를 꺼냈다.

「못가의 수양버들이 2·3월이 되자 긴 가지가 휘휘 늘어져 초록의 장막을 두른 것 같고 4~5월에는 붉고 흰 연꽃들이 난만하게 피고 6~7월에는 수백개의 수박이 조롱박같이 주렁주렁 매달렸는데 조개면 빛같은 주홍같고, 물은 찬샘같으며 맛은 꿀같도다. 이러면 어떻습니까?」하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임은 손을 저으며 「말하지 말게 말아. 입에서 침이 질질 나와 못견디겠다.」면서 급하게 아이를 불러 집문서를 가져오게 하여 그에게 주었다. 그 사람이 집에가서 펴 보니 장획(臧은 남중, 獲은 여중)과 집문서를 비롯한 재산이 그득하였다고 한다. 박동량이 지은 기재잡기(奇齋雜記)에 〈전임의 천성이 엄하고 혹독하나 가끔 하는 일의 기발함이 이와 같다〉고 하였으며 이숙권의 〈패관잡기〉에는 〈전임이 늘 타고 다니던 말이 등창이 난 것을 보고는 마부의 등을 칼로 찌면서 “네가 말을 잘 돌보지 않아서 등창이 나게 하였으니 네 등의 아픈 것으로 말의 아픈 것을 생각하여 보라”고 하였다.〉고 적고 있는데 그의 성품이 기발하고 험한 일면이 있는가 하면 또한 무자비하고 혹독하여 호랑이와도 같은 일면도 있었다.

그가 6진(六鎭)의 부사로 있을 때인테 관아의 객관을 수리하고 이웃 진관들을 초청하여 낙성연회를 베풀었다. 전임이 객관에 나가 연회를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심하게 복통이 일어나 즉시 관아로 돌아왔으므로 초청되었던 손님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그런데 갑자기 정청(正廳) 대들보가 부러지면서 지붕이 내려앉는 사고가 일어났으나 다친 사람이 없었다. 만일에 전임에게 복통이 발병되지 않았더라면 여러 손님들과 함께 깔려 죽을 뻔 하였다. 후에 그가 중병에 걸려 위독한데 힘을 주어 벌떡 일어나서 눈을 부릅뜨고 활을 당기며 〈어떤놈의 귀신이 감히 와서 나를 침범하느냐?〉면서 발을 굴렀다. 이와 같이 병이 위독할 때 친구인 김진(金詮)이 찾아오자 큰 바리에 이별주를 나누고 김진이 대문을 나서기 전에 숨을 거뒀다. 후에 조정에서는 위절(威節)이란 시호를 내렸다.

〈참고 : 신증동국여지승람, 연려실기술, 한국인명대사전, 이용준

전필순(全弼淳)

우국지사. 1894년 출생하였고 용인군 장로파(長老派) 대표로서 27세때인 1920년 최익환(崔益煥)등이 조직한 독립운동 단체인 대동단 35인의 한 사람으로 활약하였다.

이 단체는 귀족, 관료, 유림, 학생, 의병, 종교인, 여자, 보부상(褸負商) 등 각층에서 수많은 단원을 포섭하고 인채기를 구입, 영업을 하면서 대동신문을 비밀히 발간하였다. 뿐만 아니라 의친왕(義親王) 비(妃)의 동생 김춘기(金春基)는 일찌기 미국에 건너가 공부하다가 돌아와 의친왕과 몇몇 귀족중 중망(重望)있는 이들이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를 옹호하며 독립운동 세력을 확장하자는 전협(全協)의 계획을 말하자 의친왕은 이에 찬성하고 대동단 고문 김가진(金嘉鎭)으로 하여금 의친왕의 의지를 임시정부 국무총리 안창호(安昌浩)에게 전달토록 하였다.

그리고 의친왕과 김가진등 35인이 대동단을 대표하여 선언서를 인쇄하고 의친왕이 상해에 도착했을 때 이들 발표하려고 하였다. 전필순은 이 선언문에 서명하여 출판법, 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된 후 옥고를 치루었다. 물론 상복차림으로 안동까지 내려갔던 의친왕은 거기서 일본 경찰에게 발각되어 상해로 가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의친왕의 선언서 발표안〉

1. 일본이 아국의 기개(畿個) 간신과 야합하여 나의 부왕과 모후를 시살하였으니 이 원한을 열국에 호소하려 한다.
2. 3월 1일 이후 거국 인민이 빈손으로 만세를 부르거늘 저 왜적은 개준치 않고 학살만 자행하거나와 우리민족은 백절불굴하는 기백으로 독립을 요구하는 열혈(熱血)은 갈수록 비등하여 우리 국민의 정신은 결코 일본에 동화(同化)되지 아니할 것을 천하게 선포한다.
3. 일본이 우리 한국에 대하여 10여년 전후에 제종조약(諸種條約)으로 국토까지 합병한 것은 간신들을 이용하여 협박으로 누चे된 것이요, 아(我) 부왕의 윤희하시지 아니한 것은 내가 확지(確知)하는 것이니 이 실정을 세계에 공표함.
4. 나도 한국의 일민(一民)이라. 차라리 독립된 한국의 일서민(一庶民)이 될지언정 우리나라를 삼킨 일본의 황족됨은 원치 않는 바이며, 반드시 임시정부가 설립된 땅에 나

아가 정부 제공(諸公)과 악수동심하여 생사간에 광복에 힘을 다하여 여러 동포의 고심하는 만의 일은 자가(自家)의 복수를 위한 것이며 하나는 조국의 독립과 세계의 평화를 위함이다.

이 사건의 특성은 친일단체에 가담했던 인물들과 귀족, 또는 요인들이 주동이 되었고 의친왕 이강의 상해탈출기도였다는 점에서 황족으로부터 서민대중에 이르기까지의 자주독립을 이룩하고자 했던 국민의 열망은 한결같았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다.

(참고 : 한국독립사, 31운동비사, 국사대사전, 김홍일), 금병윤

전혜린(田惠麟)

〈묘〉 노녀의 스승으로부터 「한국에서 1세기에 한번쯤 나올까 말까한 천재」라는 격찬을 받았던 전혜린(田惠麟)은 아깝게도 31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재인(才人)은 단명(短命)하고, 미인(美人)은 박명(薄命)하다던가? 순수와 진실을 추구하고, 정신적 자유를 갈망했던, 당대에 보기드문 지성적佳人(佳人)은 그 꿈을 다 피워보지도 못한채 애석하게 저버렸다.

그녀가 평안남도 순천에서 전봉덕(田鳳德)씨의 1남 7녀중 장녀로 태어난 것이 1934년. 법률가였던 아버지 역시 29세에 일본고등문관시험 사법, 행정 양과에 합격한 천재였다. 유복한 어린시절의 혜린은 일찌기 아버지로부터 한글과 일어를 배워 5세무렵에 벌써 책을 읽기 시작했다.

1953년 경기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엄격한 아버지의 권유에 못이겨 같은해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였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 3학년 재학중 독문학으로 전공을 바꾸었다. 고교시절 높은 학구열로 함께 공부하며 작가를 지망했던 친구의 알선에 따라 독일로 유학한 그녀는 자유와 낭만의 예술생활에 젊음을 보냈다.

1959년 독일 뮌헨대학 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모교의 조교로 근무하던 중 집안간에 결혼할 것을 합의한 법학도 김철수(金哲洙)를 남편으로 맞아 딸을 낳았다. 그해 5월 귀국하여 경기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이화여자대학교의 강사를 거쳐 1964년에는 성균관대학교 조교수가 되었으며 펜클럽 한국본부 번역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일하기도 했다.

혜린은 종종 직업에 대한 혐오감을 일기에 적을만큼 현실에 만족하지 못했으나 연륜이 쌓일수록 직업의식이 강해져 강의준비와 청탁원고 집필에 정열을 기울이는 면모를 보였다. 그러면서 독일 유학시절부터 시작한 작품 번역에 틈나는대로 노력을 기울였다.

번역작품은 10여권에 이르는데 사강의 〈어떤 미소〉, 슈나벨의 〈안네프랑크—한 소녀가 걸어온 길〉, 이미륵의 〈압록강은 흐른다〉, 게스트어의 〈화비안〉, 런저의 〈생의 한 가운데〉, 빌의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등이며 정확하고 분명한 문장력과 유려한 문체의 흐름으로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외에도 〈이 모든 괴로움을 또 다시〉라는 제명으로 1976년 대문출판사에서 일기가 유작집으로 출간되었는가 하면 에세이집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와 〈미래 완료의 시간속에〉가 발간되었다.

그녀가 번역을 시작한 동기는 남편 김철수의 권고때문이지만 번역이란 별 대단한 일이 못된다는 생각에 그리 즐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국에서 출판이 결정, 소개되면서 모교 경기여고에서는 유학중에 원작 못지않은 훌륭한 작품을 번역한 공로를 높이 사 「영매상(英梅賞)」을 주었다. 이 상은 경기여고 출신들 중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주는 권위있는 상이다. 좋은 작품을 쓰고 싶어하는 그녀의 욕망이 남달랐음에도 마음에 드는 글이 써지지 않는 자괴심에 몸부림치기도 했다.

「일생에 한번, 단 하나라도 좋은 작품을 쓰고 싶다.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 모래를 씹는 것 같은…… 그러나 때로는 은빛 안개에 잠긴, 낙엽이 깔린 아침길과 같은, 또는 파란 하늘에 둥둥 분홍 구름이 떠 있는 황혼과도 같은……. 이런 여러개의 수많은 순간들로 구성되어 있는 나의 삶은 결코 쉽지만도 또는 즐겁지만도 않다」라는 58년 10월의 일기 한 부분이 그녀의 참담했던 심정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작은 키에 검은 머리결을 치렁치렁하게 기르고 검은 머플러를 즐겨 사용했던 검은 눈동자의 전혜린. 그녀는 한때 검은색의 옷차림을 유행시키기도 했던 비운의 여인이었다. 31세의 아까운 나이로 밤사이에 심장마비로 일생을 마감한 그녀는 시흥군 수암면 조남리에 묻혔다가 84년 4월 22일 용인군 모현면 오산리 천주교 공원묘지에 옮겨졌다.

〈참고 : 인물백과사전, 월간경기 3월호〉, 박상돈

전홍교(全洪敎)

〈생거급제〉 현종 원년(1835)~? 자는 인오(仁五), 본관은 용궁(龍宮), 지련(智鍊)의 아들. 고종 7년(1870) 35세때 경오식년문과(庚午式年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으며, 벼슬은 밝혀지지 않는다.

〈참고 : 고사대전, 군지〉, 박상돈

정계주(鄭啓周)

〈생거급제〉 숙종 32년(1746)~? 자는 희중(熙仲), 본관은 초계(草溪), 래봉(來鳳)의 아들. 영조 16년(1740) 경신정시문과(庚申庭試文科) 갑과(甲科)에 장원급제하였으나 관위는 첨지(僉知)에 그쳤다.

〈참고 : 고사대전, 용인군지〉, 박상돈

정규동(鄭奎東)

우국지사. 그는 용인의 유력한 인사로서 당시 용인군민을 대표할만한 덕망과 인품을 지니고 있었다.

1921년 11월 11일부터 1922년 2월 6일까지 미국에서 속개된 태평양 회의에 발표 제출할 〈한국독립열망서〉는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을 호소하려던 임시정부의 노력이 무산된 이후 우리나라 독립의 문제가 반드시 세계적인 관심의 초점이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의 모든 외교 노력을 집중하는 한편, 전국민적 차원에서 태평양회의에 대비,

〈오족(吾族)은 우리 세업을 광복하고 아(我) 지위를 확장하고자 하면 내(內)로 충실된 민기(民氣)를 부흥하여 맹렬히 운동을 격진(激進)시키고 외(外)로 원만한 국교에 결탁하여 공정한 판단을 수행케 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그 효과를 수(收)하기 난하다.〉하여 국내로는 민중의 의사를 결집하고 밖으로는 이승만·서재필·정한경과 외국인 고문 돌프와 토마스를 태평양 회의에 참석시킬 대표로 선임하는 한편,

1. 미국 정부에 임시정부 대표의 참가를 요구할 것
2. 열국에 우리 정부를 승인케 할 것

3.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것
4. 중화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보장케 할 것
5. 시베리아의 일본군은 즉각 철군할 것

등의 임무를 주어 미국대표단을 설득, 우리 대표가 본 회의장에 참석하여 우리의 정당한 의사를 발표케 하려는 것이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 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1921년 9월 한국독립열망서를 작성하여 상해를 경유, 워싱턴에 머물고 있는 우리 대표단으로 하여금 이 회의에 제출케 하였다.

〈태평양안의 한 중요한 국가인 한국이 이렇게도 일본에 유린된 것은 한일 그 자체가 위험할 뿐아니라 실로 세계의 일대 결점이다. 즉, 한국은 세계 평화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한인의 민족적 본능과 한인이 일본인의 통치 밑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것과 한국이 세계에 대한 관계의 개요를 서술하고, 최후로 오인(吾人)은 일본의 한국합병을 부인한다. 일본이 한국을 합병한 것은 한국민족의 의사가 아님과 동시에 일본과 합병을 약속한 대리제(代理帝)는 실로 광무황제의 대리가 될뿐, 한국 주권자는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대리제는 국가의 주권자가 되지 못한다. 원래 국가의 주권은 국가를 조직할 민중에게 있으며 동시에 이 주권의 대표자인 군주는 광무황제이다. 주권대표자가 아닌 대리제와의 합병약속은 우리 민족이 절대로 부인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오인은 일본의 한국 합병을 부인함과 동시에 재상해한국정부를 완전한 한국정부로 성명하였다.

이에 의하여 열국을 향해 파견된 우리 한국 위원의 출석권을 요구하고, 동시에 열국이 일본의 무력정책을 방지하고 세계의 평화와 한국의 독립, 자유를 위하여 노력할 것 등을 요구하는 문서이다.

〈한국 인민은 글월을 태평양 회의에 드림〉이라고 시작되는 이 진정서는 국내 13도 260군과 각 사회단체 대표 372명이 서명한 공식적인 문서이며, 정규동은 경기도 대표 3인 이하, 각 군(郡)단위로 양주, 광주, 여주, 이천, 수원, 시흥 다음에 용인군 대표로 서명하였다.

〈참고 : 이현희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성, 독립운동사 자료집 9권〉, 노승식

정규복(丁奎復)

항일만세 주동. 생몰 1886. 10. 3~1961. 12. 22.

용인군 포곡면 둔전리에 살았다. 1919년 당시 3.1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이 곳 포곡면 일대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1919년 3월 28일 아침에 주민 수백명을 규합하여 포곡면과 수여면(水余面)을 돌면서 독립만세 운동을 앞장서 고창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그후 5월 1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고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 독립운동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독립유공자공훈록〉, 이인영

정기인(鄭基仁)

항일의병.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쇠래(劄來)에 거주하였다.

농업에 종사하던 그는 당시 연령 23세의 나이로 일찍이 이익삼의 휘하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주로 광주, 용인 등지에서 활약하며 군사금, 군수물자 조달등의 의병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명치(明治) 43년(1910) 1월 24일 7년형을 언도받고 복역하였다.

〈참고: 경기지방법판소 재판기록〉, 금병윤

정도징(鄭道徵)

〈묘〉 효종원년(1654)~영조 6년(1730) 조선시대의 무신. 자는 성여(聖餘), 본관은 오천(吳川). 승지 간(侃)의 손자. 현감 주한(周翰)의 아들. 숙종 2년(1676) 무과에 급제하고 선전관을 거쳐 숙종 15년(1689) 도총부도사(都摠府道事)가 되었다. 그후 훈련원첨정(訓練院 僉正), 중추부사(中樞府事), 도총부사(都摠府事) 등을 역임하고 숙종 23년(1677) 희천군수(熙川郡守)가 되었는데 선정을 베풀어 고을 백성들이 선정비(善政碑)를 세웠다.

영조 2년(1726) 경기수군방어사(京畿水軍防禦使)를 역임하고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아들이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책봉되어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묘는 모현면 능원리에 있다.

〈참고: 신도비명, 용인군지〉, 박상돈

정덕징(鄭德徵)

〈묘〉 효종 8년(1657)~영조 15(1739) 조선시대 무관. 자는 성유(聖由), 본관은 영일포은의 10세손이며 현감 주한(周翰)의 아들. 숙종 6년(1680)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에 제수되었고, 훈련원(訓練院) 주부(主簿), 판관(判官), 서생진첩사(西生鎭僉使)등을 거쳐 숙종 24년(1698) 진안현감(鎭安縣監)이 되었다.

그후 경종원년(1721)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겸 우림위장(羽林衛將)을 거쳐 이듬해 정주목사(定州牧使)에 파직되었으나 경종 3년(1723) 다시 여주목사(驪州牧使)로 제수되었다. 영조 원년(1725) 함경도 절도사가 되어 군율과 군비를 정비하고 훈국별장(訓局別將), 부총관(副總管) 등을 역임하였으나 이삼(李森)이 주장이 되자 병을 구실로 사직하고 향리에 은거하였다. 영조 4년(1728)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책훈되고 다시 부총관을 거쳐 경상우도병마절도사에 올랐으며, 영조 12년(1736) 80세의 나이로 가의대부(嘉義大夫)에 이르렀다. 묘는 모현면 능원리에 있다.

〈참고 : 산도비명, 용인군지〉, 박상돈

정도채(鄭度采)

〈생거급제〉 영조 52년(1776)~? 자는 자장(子長). 본관은 연일(延日). 만제(萬濟)의 아들. 정조 24년(1800) 24세때 경신정시문과(庚申庭試文科)에 을과로 급제하였으나 관직에 나아갔는지의 기록은 없다.

〈참고 : 한국고사대전, 용인군지〉, 박상돈

정리옥(鄭履玉)

〈생거급제〉 영조 11년(1735)~? 자는 덕수(德粹), 본관은 경주(慶州), 관유(關由)의 아들. 영조 35년(1759) 24세때 기묘식년문과(己卯式年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한 후 관위는 마전군수(麻田郡守)에 그쳤다.

〈참고 : 고사대사전, 용인군지〉, 박상돈

정몽주(鄭夢周)

〈묘·사당·서원〉 고려의 문신이자 학자인 정몽주(鄭夢周)는 우리나라 성리학의 시조로 1327년(고려 충숙왕 6년) 경북 영천군 동우항리(東愚巷里)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영일(迎日)이며 부친은 운관(云瓘)이고 모친은 영천이씨(永川李氏)다. 초명은 몽란(夢蘭) 또는 몽룡(夢龍)이고, 자는 달가(達可)이며 호는 포은(圃隱)이다. 어머니 이씨가 임신하였을 때 난초화분을 품에 안고 있다가 땅에 떨어뜨리는 꿈을 꾸고 놀라 깨어나 낳았기 때문에 초명을 몽란이라 지었고, 그뒤 정몽주가 9세가 되었을 때 어머니 이씨가 낮잠을 자다가 흑룡이 뜰가운데 있는 배나무에 기어오르는 꿈을 꾸고 놀라 깨어나서 밖에 나와보니 정몽주가 배나무를 기어오르며 놀고 있었다 하여 이름을 다시 몽룡(夢龍)이라 고쳤다. 몽주는 뒤에 성인의 관례를 행하고 나서 지은 이름이다.

어려서부터 글읽기를 좋아하고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정몽주는 효성도 지극하였는데 19세되던 해에 부친의 상을 당하자 당시 상례가 확립되지 않은 현실에서도 부친의 묘소 옆에 여막(慮幕)을 짓고 시묘(侍墓)를 하며 정성스럽게 보살폈으며, 이를 안 조정에서는 그 동리에 효자 정문의 은전을 내려주었다. 1357년(공민왕 6년) 감시(監試)에 3등으로 합격하고 3년뒤인 1360년 문과(文科)에 응시하여 세번이나 잇달아 장원을 하는 명성을 떨쳤다. 그후 1362년(공민왕 11년) 3월 예문관 검열(檢閱), 수찬이 되었다.

이당시 김득배(金得培)가 홍건적을 격파하여 서울을 수복하고도 김용(金鏞)의 모해로 상주에서 효수되자 그의 문생으로서 왕에게 청하여 그 시체를 거두어 장사를 지냈다. 이듬해 낭장겸합문지후(郎將兼閣門祇候)와 위위시승(衛尉寺丞)을 거쳐 동북면도지휘사(東北面都指揮使) 한방신(韓邦信)의 종사관으로 종군하며 서북면에서 달려온 병마사 이성계(李成桂)와 함께 여진토벌에 참가하고 돌아와 전보도감판관(典寶都監判官), 전농시승(典農寺丞)을 역임하였다. 1367년(공민왕 16년)에는 성균박사(成均博士)로 임명되고 예조정랑을 겸임하였다. 성균관에서 강론을 맡았던 정몽주는 자신이 연구한 독자적인 학설로 여러 학사들을 가르쳤는데 그의 학설은 특이하여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한다. 훗날 중국의 학자 호병문(胡炳文)이 지은 《사서통(四書通)》이 들어와 정몽주가 강론한 학설과 비교해 보니 서로 잘 들어맞아 모두들 탄복하였으며, 이색(李穡)은 “포은의 이(理)를 논함은 횡설수설한 것 같으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없다”고 격찬하

며 정몽주를 높여 ‘동방이학(東方理學)의 시조’라 칭하였다. 그후 태상소경(太常少卿)과 성균관 사예·직강·사성을 역임하였다.

1372년(공민왕 12년) 홍사범(洪師範)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명나라에 하례사(賀禮使)로 다녀온 바 있는데 돌아오던 중 풍랑으로 파선을 당하고 홍사범등 일행 12명이 익사하고 정몽주는 13일간 사경을 헤매다가 구사일생으로 명나라 구조선에 구출되어 이듬해 귀국하게 되었다. 귀국후 경상도안렴사(按廉使), 우사의대부(右司議大夫)를 거쳐 1376년(우왕 2년) 성균관 대사성이 되었다. 이 당시는 김의(金義)가 명나라에서 온 사신 채빈(蔡濱)을 암살하고, 이인임(李仁任)등의 일파가 배명친원정책을 주장하였으나 정몽주는 박상충, 김구용등 10여명과 함께 우왕에게 글로써 친원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통렬히 반대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세력을 잡고 있던 이인임 일파는 반대의 주장을 편 학자들을 모두 귀양가게 했으며, 정몽주도 언양(彦陽)으로 유배되었으나 그 다음해 풀려났다. 1377년 3월 정몽주는 일본과 화친을 교섭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당시 나흥유(羅興儒)는 일본에 건너가 화친을 도모하다 죽을 고생만 하다가 성과없이 돌아온 바가 있으므로 모두들 위험한 사행(使行)이라고 만류하였으나 정몽주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없이 일본으로 건너가 구주(九州)의 탐제를 만나 그간에 있었던 교린(交隣)의 이해를 들어 간곡히 말하니 구주 탐제는 정몽주의 당당한 태도와 인격에 경복(敬服)하여 후대하며 왜구의 노략질을 금하게 할 것을 다짐하였다. 정몽주가 일본에 머무는동안 일본인 지식층인 승려들이 그의 시를 구하기 위해 몰려들었는데 선 자리에서 그들의 주문을 척척 받아 넘기므로 그들을 더욱 탄복시켰으며 날마다 견여(肩輿)에 정몽주를 태우고 명승지를 안내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다음해 7월 정몽주가 고려로 귀국할 때 구주 탐제에게 그동안 왜구에게 붙잡혀 왔던 윤명(尹明), 안우세(安遇世)등 수백명의 고려백성을 데리고 귀국코자 청하였는데 탐제는 기꺼이 허락한 바 있었다.

이어서 우산기상시(右產騎常侍), 전공사(典工司), 예의사(禮儀司), 전법사(典法司), 판도사(判圖司)의 관서를 역임하고, 1380년 조전원수로 이성계를 떠나 운봉에서 왜구를 토벌하고 돌아와 이듬해 성근익찬공신(誠勤翊贊功臣)에 녹훈되어, 밀직부사상의회의도감사보문제학동지춘추관사상호군(密直副使商議會議都監事實文閣提學同知春秋館事上護軍)이 되었다.

1382년 진공사(進貢使), 청지사(請諡使)로 두차례나 명나라에 봉사하였으나 모두 입

국을 거부당하여 요동(遼東)에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다시 동북면조절원수로서 이성계를 따라 함경도에 다녀왔으나 그당시 우왕이 즉위하면서 사신 체빈이 살해되고, 이인임 일파가 친원정책을 들고 나서자 명나라는 고려에 대해 매우 강경한 태도로 나왔다. 사신을 죽인 것에 대하여는 집행대신(執政大臣)이 친히 내조(來朝)하여 해명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세공(歲貢)의 액수를 더욱 증가시키는등 고려로서는 감당기 어려운 요구를 하여 왔다. 그리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전함과 정예병사 수십만을 보내어 정벌하겠다는 위협을 계속하였다. 난처한 입장에 빠진 고려는 점차 친원의 방향으로 정책을 돌리고자 하였으나, 명나라의 위협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사신을 파견하면 명나라에서는 사신을 붙잡아 구금하거나 유배보내기 일췌였다.

따라서 고려의 신하들은 누구나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기를 회피하는 실정이었다. 정몽주가 정당문학(政黨文學)에 오른 1384년(우왕 10년) 조정에서는 명나라 황제의 생일을 앞두고 하성절사(賀聖節使)로서 진평중(陳平中)을 보내려 하였는데, 그는 권신(權臣)인 임견미(林堅味)에게 뇌물을 주어 피하였다. 이때 우왕이 정몽주에게 의향을 묻자 ‘군부의 명이라면 물불이라도 피치못한 일이온데 하물며 사신으로 가는 일임에야 어찌 받들지 않겠습니까’하여 수락하여 그날로 길을 떠나 밤낮으로 항해한 끝에 명황제의 생일전에 도착하여 축하의 글을 올릴 수 있었다. 아울러 고려의 정세를 자세히 설명한 바 다시 국교가 열리는 등 사명을 다하여 긴장상태의 외교관계를 회복하는데 큰 공을 세우고 돌아왔다.

1385년 동지공거(同知貢舉)가 되어 우홍명(禹洪命)등 33인을 뽑고, 이듬해 사신으로 명나라에 건너가 고려군신의 조복(朝服)과 편복(便服)을 청하고 아울러 세공도 감해줄 것을 청하였다. 이에 황제는 미납분 5년치를 면제하고 이미 결정한 세공도 삭감하여 주었다. 외교에 성공하고 귀국하자 우왕은 기뻐하며 의대(衣帶)와 안마(鞍馬)를 하사하고 문하평리(門下評理)의 벼슬을 내렸다. 아울러 영원군(永原君)에 봉군되었고 또 다시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으나 국교가 악화되어 요동에서 되돌아와 삼사좌사(三司左使), 문하찬성사, 예문관대제학을 역임하였다.

1389년 이성계와 함께 공양왕을 옹립하며, 다음해 문하찬성사동판도평의사사호조상서시사진현판대제학지경연춘관사경성군대사성영서운관사(門下贊成事同判都評議使司戶曹尙瑞寺事進賢館大提學知經筵春館事兼成均大司成領書雲觀事)로 익양군충의군(益陽君忠

義君)에 봉군되고, 순충논도동덕좌명공신(純忠論道同德佐命功臣)의 호를 받았다. 이때 이초(彝初)의 옥사가 일어나, 당시 조정에서 물려난 구과정객들에 대한 대간의 논죄가 끊임없이 계속됨을 보고 이를 부당하다고 말해, 탄핵을 받고 사직하려 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으며, 이어 벽상삼한삼중대광수문하시중판도평의사사병조상서시사영경령전사우문관대제학감춘추관사경연사익양군충의백(壁上三韓三重大匡守門下侍中判都評議使司兵曹尙瑞寺事領景靈殿事右文館大提學監春秋館事經筵事益陽郡忠義伯)이 되었다. 다사다난했던 고려말 정몽주는 당시 불교의식에 따르던 관혼상제를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실시토록 힘썼고, 문란한 정치풍토와 제도 관습을 바로잡고자 여러 방면에 걸쳐 혁신적인 사업을 단행했다. 사서(士庶)로 하여금 <가례>에 의하여 사당을 세우고 신주를 만들어 제사를 받들게 하도록 요청하여 예속이 다시 일어났다.

또 지방수령을 청렴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뽑아 임명하고, 감사를 보내어 출척(黜陟)을 엄격하게 하였으며,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에 경력과 도사를 두어 금전과 곡식의 출납을 기록하게 하였다. 서울에는 오부학당(五部學堂)을 세우고, 지방에는 향교를 두어 교육의 진흥을 꾀하는 한편, 기강을 정비하여 국체를 확립하고, 무능한 관원을 도태하여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여, 의창(義倉)을 세워 궁핍한 사람을 구제하고, 수참(水站)을 설치하여 조운(漕運)을 편리하게 하는등 기울어져가는 국운을 바로잡고자 노력하였다.

1391년 인물추변도감제조관(人物推辨都監提調官)이 되고 안사공신(安社功臣)의 호를 더하였으며, 1392년(공양왕 4년) 2월에는 그동안의 법령에 《대명률(大明律)》, 《지정조격(至正條格)》을 참작해서 《신율(新律)》을 만들어 문란해진 법질서를 바로잡고자 노력했다.

당시 우왕, 창왕, 공양왕을 추대하는 데까지 뜻을 같이 했던 이성계 일파가 위화도 회군 이후, 고려왕조를 뒤엎고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려고 조준(趙浚), 남은(南閔), 정도전(鄭道傳) 등이 이성계를 추대하려는 책모가 있자, 정몽주는 이승인(李崇仁), 이종학(李鍾學)등 여러 충신과 함께 그들을 제거할 것을 도모하였다. 이러던 중 명나라에서 돌아오는 세자 석(奭)을 마중나갔던 이성계가 황주에서 사냥하다가 낙마하여 벽란도(碧瀾渡)에 드러눕게 되자 그 기회에 먼저 이성계의 오른팔인 조준 등을 제거하려 하였다. 이를 안 이방원(李芳遠)이 아버지 이성계에서 고하여 그날밤으로 개성으로 돌아오게 하고, 정몽주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정몽주도 이를 알고 정세를 엿보려고 이성계를

문병하고 귀가하던중 개성 선죽교(善竹橋)에서 이방원이 보낸 자객 조영규(趙英珪) 등에게 피살되었다. 이때 그의 나이 56세였다.

정몽주는 우리나라 성리학의 시조로 추앙되었던만큼 학문적 업적도 지대하며 그의 학통(學統)은 길재(吉再)를 거쳐 조선조에 와서는 김숙자(金叔滋), 김종직(金宗直), 김굉필(金宏弼), 조광조(趙光祖) 등에게 계승되었다. 그의 시문은 호방, 준결하며 그의 시조 《단심가(丹心歌)》는 그의 총결하는 작품이다. 그의 업적은 그가 죽은지 9년후에야 비로소 인정되었는데 조선조 태종이 즉위하던 1401년에는 그에게 문충공(文忠公)이라는 시호와 익양부원군(益陽府院君)이라는 훈작이 내려졌다.

1405년(태종 5년) 권근(權近)의 요청에 의하여 대광보국승록대부영의정부사수문전대제학감예문춘추관사익양부원군(大匡輔國崇祿大夫領議政府事修文殿大提學監藝文春秋館事益陽府院君)을 추증하였고, 1517년(중종 13년) 태학생(太學生) 등의 상서(上書)에 의하여 문묘에 배향되고, 묘에 비석을 세웠는데 고려의 벼슬만 쓰고 시호를 적지 않아 그가 두 왕조를 섬기지 않은 뜻을 분명히 하였다. 개성의 승양서원(崇陽書院)등 13개 서원에 제향되었고, 유고집으로는 《포은집》이 전해오고 있다.

묘소는 개성의 풍덕(豐德)에 초장(初葬)하였던 것을 1406년(태종 6년)에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문수산 기슭으로 옮겨 부인 이씨와 합장하였다. 현재 전해지는 유물·유적으로는 영모당(永慕堂)과 충렬서원(忠烈書院)이 있고 영정 2점, 친필등이 있고 숙종의 어제어필(御製御筆)로 된 현액(懸額)이 용인에 있다.

(참고 : 고려사 태조실록, 포은집), 최희면

정 보(鄭 保)

〈묘〉 생물미상. 조선 문신. 호는 설곡(雪谷), 본관은 연일(延日), 포은 정몽주의 손자. 종성(宗城)의 아들. 학문이 뛰어나 세종(世宗)의 총애를 받았다. 젊어서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이 되어 사육신(死六臣)과 더불어 함께 벗으로 사귀었다. 이때 사육신(死六臣)의 옥사가 일어나자 그는 분개하여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의 서매(庶妹)가 한명회(韓明澮)의 첩으로 있었는데 하루는 누이를 찾아보고 “명회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누이가 “대궐에서 죄인들을 국문하고 있다”고 대답하자, “내가 하는 말을 그에게 전하라. 명회는 만세의 죄인이라 해야 마땅하다”고 하였다. 한명

회가 이 말을 전해 듣고 왕에게 아뢰니 왕이 친히 그를 국문하였다. 이에 대답하기를 “나는 항상 성삼문, 박팽년을 정인군자(正人君子)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말을 하였다”고 하였다. 왕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수레에 깔려 죽게하는 형벌(刑罰)에 처하도록 명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저 자가 누구냐?”고 물었을때 “정몽주의 손자”라고 대답하니 왕은 급히 명령을 내려 이를 중지시키면서 이르기를 “충신의 후예는 차마 죽일 수 없다”고 하고는 마침내 영일(迎日)로 유배하였다. 그러나 유사(有司)가 영일은 그의 관향지이니 그곳으로 귀양보내는 것은 불가하다고 건의하여 다시 단성(丹城)으로 옮기니 그곳에서 일생을 마쳤다.

숙종 기미년(1679)에 단종(端宗)을 복위하고 사육신등 여러 사람들을 정표할때 그역시 이조참의(吏曹參議)로 증직되었다. 그의 시신은 포은 정몽주 묘소의 우측에 장례하니 부인의 묘소와 위 아래로 나란히 더불어 있다. 그러나 봉작이 처음과 나중에 서로 달라 처음에는 묘표를 6대손 주(周)가 세웠으나 그후 66년 후인 신해년에 8대손인 병사(兵使) 덕징(德徵)이 비석을 다시 세우고 삼주(三州)선생인 이재(李穡)가 음기를 짓고 명(銘)하였다.

삼주 이재는 보(保)의 외손이 되기도 한데 명(銘)하여 이르기를 <포은의 손자며 6신의 벗이었다. 내 그의 비석에 글을 하니 백세토록 그 이름 영원하리>라 하였다.

(참고: 한국인명대사전, 묘갈), 금병윤

정 상(鄭 相)

<묘> 광해군 10(1618)~숙종 7(1681). 자는 성우(聖佑), 본관은 해주, 분사승지(分司承旨) 승(勝)의 아들. 1618년 6월 12일에 출생, 15세때 부친상을 당하였는데 그 행동이 단아한 것을 보고 김류(金澮)가 집에 왔다가 그를 보고 칭찬하여 말하기를 “그대의 선친께서는 간신배들의 눈에 거슬려 조정에 들어서는 승지로 분사하는데 그쳤고, 나아가서는 가도(槎島)에서 사신을 접대하는데 그쳤다. 조정이 바뀐 후에 등용하려 하였으나 하늘이 이를 허락지 않고 이 세상에서 불려갔으니 나라로서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그대는 능히 게을리 하지말고 집안의 명예를 높이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그는 이미 훈척(勳戚)으로 이름이 나있었고 또 선대의 가문도 있어 조정에 등용될 수도 있었으나 세상의 명리를 담담하게 보아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오직 용안 선영의 묘소가 있는

아랫마을 송정리에 돌아와 살면서 오로지 선대를 봉사(奉祀)하는데 지극한 정성과 효성으로 하였다. 그의 첫 부인은 병자호란때의 병사 김준용(金俊龍)의 따님으로, 그와의 사이에 2남1녀를 두었다.

〈참고: 묘갈〉, 박상돈

정세규(鄭世規)

〈전사〉 선조 16(1583)~현종 2(1661) 조선 문신. 자는 군칙(君則), 호는 동리(東里), 본관은 동래(東萊), 율(栗)의 아들. 광해군 5년(1613) 사마시(司馬試)에 합격, 음보(蔭補)로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에 등용, 인조 6년(1628) 화순현감(和順縣監)으로 선정을 베풀어 표리(表裏)를 하사받고 안산군수(安山郡守)를 거쳐 1636년 공충도 관찰사(公忠道觀察使)에 특진하였다.

이해 겨울에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군사를 이끌고 남한산성(南漢山城)을 향해 진격하였으나 용인의 험천싸움에서 패전하였다. 시호는 경헌(景憲)이다.

〈참고: 현종실록, 한국인명대사전〉, 이인영

정승빈(鄭升賓)

〈생거급제〉 숙종 30(1744)~? 자는 대유(大猷). 본관은 경주(慶州), 세기의 아들. 영조 11년(1735) 34세때 을묘식년과(乙卯式年科) 병과(丙科)에 급제하였고 관위는 사예(司藝)에 이르렀다.

〈참고: 고사대전, 용인읍지〉, 박상돈

정 씨(鄭 氏)

〈정열녀(貞烈女)〉 본관은 온양이며 정돈지(鄭敦之)의 딸로 선조조에 출생하였다. 따라서 서흥 김씨 문중의 통덕랑 김배(金培)에게 출가하였다. 정씨는 인조 13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어린 두딸을 데리고 이천의 거마산으로 피난하였으나 호적이 추격하여 오므로 종래는 옥을 면키 어렵고 그 몸이 더럽혀질까 두려워 두딸과 함께 연못으로 투신하여 정절을 지켰다. 지금도 이천 자래동에 3층이 있어 당시의 사실을 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탁이한 절개와 높은 지조의 행함은 가히 세인의 귀감이 되었다. 영조 16년

(1740)에 손 김대영과 5대손 김동현의 상소로 상감으로부터 열부로 정려되었다. 이로써 증조는 충신 김충수이고 시할아버지는 효자로, 손부는 열녀로 일문에 삼강의 명정이 중복되어 양지현 월로동에 서게 되니 참으로 드문 일이라 하였다.

〈참고: 삼강행실록, 내고장의 일〉, 이용준

정 염(鄭 廉)

〈야화유래〉 연산군 12(1506)~명종 4(1549) 조선 학자. 자는 사결(士潔), 호는 북창(北窓), 본관은 온양, 어려서부터 성품이 맑고 그윽하여 재주가 뛰어났으며 세상일에 꺼리낌이 없었다. 유교, 불교, 도교에 통하지 않음이 없었고 천문, 지리, 의학, 복서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것이 없었다. 그는 언어에도 뛰어나 명나라에 갔을 때는 외국인들을 경탄케 했고 특히 천문지리에 달통하여 관리들을 가르쳤다. 입산하여 절에 있으면서 새소리를 듣고 해독할만큼 이인이란 소리를 들었다. 일찌기 세상을 떠나(44세) 후학이 없으나 정신은 자연과 합치하였다. 그가 용인의 절에 기거할 때에 백리안의 인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뻔히 들여다 보듯 알아 맞추었다고 한다.

〈참고: 정북창비결〉, 노승식

정 우(鄭 瑀)

〈묘〉 기흥읍 보라리 상미마을 뒷산에 있다. 사육신(死六臣)중의 한 사람인 정인지의 증손으로 본관은 하동이다.

조선 중종 31년(1536) 출생하였고 선조 기해년(1599)에 졸했다. 관위는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승정원(承政院), 좌승지(左承旨)겸 경연관 참찬관(參贊官)에 이르렀다. 아들 5형제를 두었는데 큰아들 응기(應箕)는 임진왜란 때에 공을 세워 충의위(忠義衛)의 작위를 받았는데 부친 우(瑀)의 묘 아래에 있다.

〈참고: 묘비〉, 최희면

정원경(鄭元景)

항일의병. 용인군 모현면 고밀동(古密洞)에서 출생하였고 농업에 종사하였다. 당년 37세의 나이로 의병장 이익삼(李益三), 김장옥(金長玉)등 20여명과 같이 무기를 휴대하

고 용인군 수어면 김량시에 들어가 등장 정한기(鄭漢基)를 설득하여 광목 4필과 짚신 20족을 지원받은 것을 비롯하여 하동면(이동면) 삼배울 목경운 가옥에서 군자금의 조달 활동등에 참여하였다.

〈참고: 경성지방재판소 재판기록〉, 이인영

정유성(鄭維城)

〈묘헌〉 선조 29(1596)~현종 5(1664) 조선 문신. 자는 덕기, 호는 도촌, 본관은 연일포은의 후손, 강화에서 출생. 10세때부터 외조부 황치경의 문하에서 수학 인조 5년(1627)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후 황해도, 전라도, 관찰사를 거쳤고 대사성, 도승지, 호조, 예조판서등을 역임하였다.

현종 3년(1662)에 우의정이 되었고 이듬해 사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말년에 심지원에 이어 제7대 총렬서원 원장직을 맡아 후학 양성에 힘썼다.

〈참고: 총렬서원 선생안〉, 박상돈

정윤복(丁胤福)

〈묘〉 중종 39(1544)~선조 25(1592) 조선 문신. 자는 개석(介錫), 본관은 나주(羅州), 응두(應斗)의 아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힘을 들이지 않고 학예를 성취하여 명종 22(1567)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같은해에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부정자(副正字), 예조 낭관(郎官)으로 올랐다. 이로부터 등용(登用)과 발탁(拔擢)이 날로 더하여져서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 헌납, 홍문관 수찬, 교리 응교, 사헌부 지평, 장령, 집의를 역임하고 갑신년(1584)에는 승정원(承政院)의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승진후 국자감(國子監)과 사간원의 장을 역임하고 이조, 병조참의를 거쳐 병조참판이 되었다. 선조 22년(1589) 겨울, 호남에서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이 일어나자 모함하는 말이 진신(摠紳)에까지 퍼지고 한때 사류가 다 배척을 당하는 가운데 그는 여립과 친했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

그러나 곧 그의 억울함을 알게된 임금은 그를 다시 서용(叙用)하려 했으나 그를 배척하는 무리들이 계속 모함하므로 첩거, 은둔한 것이 수년이었다. 선조 25(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동서로호소사(東西路號召使)로 기용되었는데 왕은 의주로 서순중이었

다. 그때 그는 미끄러져 부상한 것이 병이 되어 점점 악화되었으므로 임금을 호종(扈從)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병든 몸을 수레에 실려 여러 낮 밤을 가다가 서흥에 이르렀을 때 적의 군세(軍勢)가 뒤를 추격하였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국은을 입어 교목세신(喬木世臣)이 되었는데 하루 아침에 군부(君父)의 피난하심을 보고도 어전을 모시지 못했음을 황망이 여기고 통곡하였다. 그의 병세는 이미 깊어져서 스스로 힘을 쓸 수 없게 되었고, 가산군(嘉山郡)에 이르러서 드디어 별세하니 그해 10월 10일이었으며, 향년 49세였다.

임시로 그곳 군에 매장하였다가 적이 조금 물러간 후에 백천(白川)땅에 이장하였다. 난이 평정된 뒤에 포곡 묘향(卯向)에 이장하였으니 지금의 포곡면 전대리 가마실마을이다.

그의 자품(資稟)은 순수하고 뜻과 행실이 독실하였다.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수행하였으며 벼슬에 나아가서는 더욱 정진하였으며, 모든 성의를 다하여 부모를 섬겼다. 그가 더불어 벗으로 하는 이는 모두 한때의 바른 사람들이었다. 평소 글읽기를 좋아하여 퇴근하면 책을 대하고 선현의 격언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특히 논어를 좋아하였으며 경연에 나아가서는 강설(講說)을 정확히 하여 지론이 공평하다는 평을 들었다.

그가 죽은지 13년이 지난후 조정에서는 호성원종공신의 훈호를 추록(追錄)하였다.

〈참고: 국조인물로, 한국인명대사전, 신도비명〉, 박상돈

정응규(鄭應虬)

〈효자: 정려문〉 본관은 초계(草溪), 조선 선조조에 출생하였고 관(官)은 전력부위에 올랐다.

부친의 환우중에 생대추가 먹고 싶다고 했으나 동짓달이어서 구할 길이 없었다. 응규는 부친이 원하는 생대추를 구할 길 없어 오로지 대추나무 밑에서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여 눈물을 흘리니 그 이튿날 막 붉기 시작한 생대추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그런 일이 있은후 며칠 후에는 날뽕고기를 먹고 싶다고 말하므로 이를 구하고자 산중에 들었더니 꿩의 무리중의 하나가 높이 올랐다가 그앞에 떨어졌다. 응규는 이를 얻어 부친의 원하는 바를 행하였다. 그런데도 노환중인 부친은 이번에는 노루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하였다. 응규는 탄식하며 이산 저산을 헤매던중 홀연히 노루 한마리가 칠푼쿨

에 영켜 있으니 이는 필시 지극한 효성에 하늘이 감응하여 도와준 것이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이한 행적이 조정에 알려지자 상께서 들으시고 정문을 내리니 영조때의 일이다. 그의 효자각은 이동면 묘봉리에 전한다.

〈참고 : 삼강행실록, 내고장의 열〉, 이응준

정의현(丁義顯)

〈효자·정려문〉자는 경모(敬模). 조선 정조 갑인(1794)년 8월 24일 효자 재위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평소 부친의 효행을 본받아 사친지도(事親之道)를 알았으므로 유년시절부터 효행이 뛰어나 주위로부터 칭송을 들었다. 그의 부인 해주오씨와 더불어 삼대봉사(三代奉祀)는 물론 극진 효성함이 당대에서 절륜하다고 하였다. 부친이 별세하자 20여리나 떨어진 산소에 매일 성묘하기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그친 일이 없었다. 하루는 큰 물이져 내를 건널 수 없었더니 큰 나무가 내를 막아 내 바닥이 낮아졌으므로 무사히 성묘할 수 있었다. 이를 두고 그의 효행은 하늘에 닿았다고 하였다.

그의 아내인 해주오씨는 언강(彦綱)의 딸로서 정조 임자(1792)년에 태어났으며 남편인 의현보다 세살이 더 많았다. 이들 부부와 그의 부친 재위의 효행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모두 흠경하여 조정에 천거하였으므로 고종8년 신미 10월에 이들 모두에게 정려문이 내려지고 동몽교관과 영인(令人)으로 각각 표절되었다. 포곡면 전대리 가마실 입구에 정려각이 함께 전해오고 있는데 퇴락하였다.

〈참고 : 삼강행실록, 내고장의 열〉, 이응준

정일영(鄭駟永)

우국지사. 1873년 6월 28일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에서 출생하였다. 일찌기 고종의 신임을 받아 궁내부(宮內部) 전화과 기수(技手) 및 기사(技師)에 임명되었다가 정3품의 관위에 올랐다. 1915년 성낙형, 용인출신 김주원 등이 신한혁명단을 결성 〈중한의방조약〉 체결을 위한 조직원의 한사람으로 활약하였다.

김주원으로부터 변석봉·박봉래·심인택, 정일영 순으로 점조직이 이루어져 선생은 전부터 숙원하던 남자 김사준의 종제 김사홍을 동지로 끌어들이고 후 김사홍의 형인 김사

준에게 용이하게 접근, 중·한 비밀조약 체결을 위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강공(李綱公)에게 접촉하여 본 취지를 설명, 이강공의 동의를 얻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선생은 동 계획을 백방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태왕(高宗)이 거처하고 있는 덕수궁에 연고가 있는 김승현에게 다시 접근, 본 계획을 임명하여 상당한 수단을 강구토록 설득하였고, 김승현은 다시 덕수궁 고종의 측근 승지 염덕신과 접촉토록 하는데 성공하고 본 거사계획을 요약한 <경각서>를 고종에게 전달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는 이태왕의 신임을 받은바 있으나 왜경의 감시가 날카롭고 왕가의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 내사하였으므로 가장 은밀하면서도 치밀하게 임무를 완성하려던 계획이 결국 탄로되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8월 형을 언도받고 복역하였다.

(참고 : 사비제273호 재판기록, 명치백년총서 제2권), 이인영

정재위(丁載渭)

<효자·정려문> 자는 우문(遇文). 영조 을축년(1769) 11월 17일, 지대(志大)의 아들로 출생하였다.

효성이 지극하여 평소에도 칭송이 자자하였다. 부친 간병에는 얼음을 깨고 맨살로 고기를 잡으며 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는 등 자신의 일신과 구차함을 돌보지 않았다. 자손을 엄격히 훈도하여 사친지도로써 가통을 세웠다. 부친이 별세할때 3년간 시묘하고 조석 곡묘를 하므로서 생전에 부모를 곁에서 모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현종 을사년(1845) 11월 2일 별세하여 수 77세를 누렸다. 그후 고종 8년 신미 10월 그가 죽은지 17년 후에 동몽교관(童夢敎官)으로 표절되었는데 그의 아들과 며느리 해주오씨와 더불어 같은날 정려문이 내려졌다. 그의 묘소는 양지현 주북면 승방동(僧房洞) 임좌에 있다.

현재 포곡면 전대리 가마실 입구에 있는 정려각은 본래 그의 묘아래 주북리에 있던 것을 신원리 담동으로 옮겼다가 지금의 위치로 이설하였다.

(참고 : 삼강행실록, 내고장의 일), 이용준

정주원(鄭周源)

항일의병. 경기도 죽산군 원삼면 하사리(현재의 용인군 원삼면 하사리)에 거주하였다. 농사를 업으로 하여 살던 양민이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정책에 대하여 울분을 참지 못하고 융희 원년(1907) 9월에 죽산(지금의 원삼)에서 봉기한 후 융희2년(1908) 5월까지 부하 수백명을 이끌고 죽산, 양지, 수원, 안성, 당진, 해미, 먼천 등지를 누비면서 일본 수비대와 수회에 걸쳐 격전을 벌였다.

정주원은 당초 창의군(倡義軍)을 모집하여 활동하던 의병장 서용범(徐用凡)으로부터 현 정세의 흐름을 듣고 더욱 분개하여 그는 기울어져가는 정세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즉시 청장년들을 모집, 그 휘하에 150~200명의 의병이 가담하였다. 정주원은 이들을 이끌고 각종 활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1908년 9월 29일 경기도지방법 재판소에서 교수형을 선고받고 같은해 11월 24일 경성공소에 항소하여 종신형을 언도받고 복역하였다.

그에 관한 의병활동 경력에 관한 내용은 일본 경찰이 작성한 소위 폭도사 편집자료에 기술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융희원년(隆熙元年) 8월(일자미상), 자진(自進)하여 의병에 투신하고, 당시 용인군 굴암(지금의 용덕사)에 있는 지방 무리의 도배를 이끌고 양지(陽智), 양성(陽城)군을 배회하여 도당(徒堂)의 모집에 힘써 150여명의 당여(堂與)를 얻고 총기, 탄약의 준비 또한 갖추어짐으로서 스스로 의병대장(義兵隊長)이 되어 부서를 정하고 거병(擧兵)하기에 이르렀다.

또 8월 25일 안성에서 있었던 의병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부하를 거느리고 안성시(安城市)에 이르렀다. 이때 수괴(首魁) 7명, 부하 1만명이 모였다 한다. 그리하여 목적인 회의는 각자 의견이 불일치한 결과 마침내 아무런 의결을 얻지 못하고 해산하기에 이르렀다. 집회(集會)의 다음날인 29일 새벽 일본군 40여명의 습격을 받고 교전(交戰)하였으나 잠시 후에 궤란패주(潰亂敗走)하였다.

9일 이후 죽산(竹山), 양지(陽智) 양군을 배회, 어리석은 인민을 선동하자 부하로 투신하여 오는 자가 날로 더하여, 한때 9백여명에 달하였고 이를 3대로 나누어 그중 1대는 정주원 자신이 인솔하고 수원군(水原郡) 수하(水下)방면에 출동하여 집탈을 함부로

하였으며, 나머지 2대(二隊)는 그 부하에게 인솔케 하여 양지(陽智), 죽산(竹山)의 경계에 배치하여 도량(跳梁)이 극단에 달하였다. 11월(일자미상)에는 한진(漢津)에서 배를 타고 고온포(古溫浦)에 건너가 충청도의 당진(唐津), 풍도(豐島), 먼천(沔川), 서산(瑞山)의 각 군을 배회하였다.

또한 융희 2년(1908) 2월, 재차 안성, 양지, 죽산 등지에 출몰하고 죽산군 능촌(陵村)에서 일본군 16명과 교전하는데 매우 힘을 기울였고, 융희 2년 4월 양지군의 사동(寺洞)에서 수효미상의 일본군과 접전한 바 있다. 그리고 4월(일자미상)에는 용인군 요봉골(料鳳谷)에서 수효미상의 일본군과 교전하던중 부상자 1명을 냈다.

그후 융희 2년 4월 25일에는 다시 충청도 당진군(唐津郡)에 건너가 2달 회시(晦時)의 불가불길(不可不吉)함을 알고 한때 부하를 해산하였다.

그후 융희 2년 7월 19일 오전 8시경, 충청도 해미군(海美郡) 적서촌(赤鼠村)에서 2척의 선박이 입항할 때에 신호를 잘못하여 일본군에게 육박되어 달아날 길을 잃고 궁지에 몰림으로써 스스로 의병장 정주원임을 밝히고 포박당하였다.

〈참고: 독립운동사별책(1), 재판기록, 의병항쟁사(3), 독립유공자공훈록(국가보훈처), 금병윤

정 준(鄭 儁)

용인 출생. 묘 모현면 능원리 포은묘소 우장록(右長麓) 축좌(丑坐) 지원에 있다.

본관은 영일. 자는 사수(士守), 포은 정몽주의 후손, 선조 6년(1573) 7월 2일 응선(膺善)의 아들로 태어남.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와서별제(瓦署別提)로 인조를 따라 남한산성에 들어갔더니 이듬해인 정축년(1637) 인조가 청에 항복하고 청나라 오랑캐의 승전을 기념하는 삼전도 비의 비각 건립에 사용할 기와 굽는 일을 시키려 하자 강개하여 말하기를 「내 어찌 명나라를 저버리고 오랑캐의 비각 기와 굽는 일을 하겠는가」하고 그 날로 관직을 버리고 동해로 돌아갔다. 비명(碑銘)에 〈원수들에게 부림을 당함을 치욕으로 여겨 산에 들어가고 바다에 뛰어들어 세상일을 거들떠 보지않고 자기 뜻에 따라 살며 벼슬에 나가지 않으시다〉가 갑신(1644) 10월 19일 천수를 다하였다고 적었다.

후에 도암 이재(李穡)가 명문(銘文)을 짓기를 직위는 낮으나 몸은 대의를 지켰네/늑늑하다 바다로 뛰어드는 기품은/오직 고향 산천에 돌아와 묻었으니/포은 용에게 부끄러움이 없게 함이라(位微祿而身大義兮 凜乎其蹈海之風 惟歸骨於山足兮 庶無愧於圃隱

翁)하였다. 후에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참고: 묘비 영일정씨 세보), 노승식

정철화(鄭哲和)

항일의병. 용인군 모현면 능동에 살았다. 당시 연령 27세의 어엿한 양반 문벌태생이며 도학(道學: 儒學)에 능통하고 높은 학문적 수준을 지니고 있어 일본 경찰도 그 인물됨을 인정했을만큼 장래가 촉망되는 장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군대 해산 등 날로 쇠망해가는 국운을 개탄하던차 율곡원년(1907) 7월 충주 주현의 친척집으로 가던중 마침 이천 장호원에 이르렀을때 의병대와 일본군 사이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정철화는 길을 피하여 여주군 청안동(靑安洞)의 사잇길로 들어섰다가 일본 군대의 밀정으로 오인되어 의병 포군에게 잡혔다. 그가 의병진에 이르렀을때 의병장 방인관(方仁寬)을 만났고, 그로부터 일본군을 격퇴하고 우리의 국권을 회복하자는 권유를 받자, 의기투합하여 의병으로 나서는 계기가 됐다. 그후 의병장 정병규(金炳奎) 휘하에서 의병 30여명을 거느린 두령이 되어 안성군에 들어가 일본군과 교전하였고 일병의 군수자금 1천5백냥을 탈취하여 군자금으로 사용하는등 눈부신 활동을 전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험벗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는등 구휼활동에도 힘썼다.

그의 활동무대는 경기지역 뿐만이 아니라 경상도 지방까지 뻗쳐 신출귀몰하였다. 또한 남한산성을 점령하고 일본의 통감부를 격파하려던 의병 군사장 허위(許蔭)의 부하로써 활약하였음이 여러 기록에 나타난다.

그후 일본군의 대대적인 의병 토벌작전으로 말미암아 의병대가 흩어지게 되자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을 인솔, 상경하여 남대문안 사직동에 은거하던중 체포되어 율곡2년 5월 29일 15년의 형을 언도받고 복역하다가 출옥한 후에도 독립의군부(獨立義軍部) 사건에 가담, 활동하던중 검거되었다.

일본 경찰의 극비문서인 고등경찰요사 영인본인 일명 폭도사 편집자료에 독립의군부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독립의군부 사건

본건 범죄는 대정2년(1913) 9월 박인순(朴寅淳), 전용규(全容圭)등의 제의에 따라 경성에 독립의군부 중앙군부총장이라는 것을 설치하고 각 도에는 도순무총장(都巡撫總將)을, 각 군에는 군수(郡守), 면에는 향장(鄕長)을 배치하고 내각총리대신 총독이하 조선내 대소 관원에 대하여 상시 국권을 반환하는 서면(글)을 보내어 일본 관원이 조선통치가 곤란하다는 것을 주지시키며 일본에 열복하는 것을 막게 하거나, 조선 또는 조선인으로 하여금 국권회복의 여론을 일으키게 하는 관견(管見)이라는 글을 휴대하고 대정 3년(1914) 4월부터 동년 5월에 걸쳐 동지(同志)를 모집하던 중, 발견되어 검거하였다.

당시 한국 제일의 활동가(의병)임을 자칭하던 유자(儒子), 허위(許蔭)의 일족, 부하 또는 교류자등 다수와 또 상당히 저명한 유자 이기상, 이기영, 정재영, 정철화(경기도 용인군 능동출신, 폭도 허위의 부하) 등이 관련된 결사조직은 심각한 국권회복의 사명을 품고 있는 것으로 인지되며, 이에 관련된 자는 54명에 이른다」

위의 기록 등으로 보아 의병 정철화는 명망있는 유자 출신으로, 소규모적인 의병활동 뿐 아니라 총독부의 정세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참고: 의병항쟁사(3), 고등경찰요사, 평리원 재판기록), 금병윤

정충전(鄭忠傳)

〈묘〉 자는 선술(善述), 본관은 영일, 명종 정묘년(1567) 10월 13일 출생하였다. 40세 때인 선조 39년 병오(1606) 진사시에 합격한 후 갑자년(인조 2, 1624) 이괄의 난 때 임금이 공주로 파천하자 그는 종묘직장으로서 종묘(宗廟)의 호종을 따랐다. 그러나 일행이 진위현(현 평택) 희동현(戲童峴)에 이르자 수레꾼들이 모두 홀어짐으로 그는 친히 수레를 끌어 행재소(공주)에 이르렀다. 왕은 이 공으로 그에게 통훈대부로 승품하고 광흥주부를 특별히 제수하였다.(陪護宗廟到 振威戲童峴 舉軍盡散公親舉到 行在 特除廣興主簿 通訓大夫)

묘는 모현면 능원리 설곡 정보 묘 왼쪽 용미(龍尾) 갑자지원이며 배위 숙인 남양홍씨와 계배 숙인 전주이씨와의 합묘이다. 표석이 있다.

(참고: 영일정씨 세보), 최희면

정 탁(鄭 倬)

〈출생〉 생물미상. 충신, 병자호란때 왕을 호종하여 남한산성에 이르렀으나 적이 이미 북문까지 다다랐으므로 사태가 위급하게 되었다. 이때 정탁은 자원하여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싸우다 죽을 것을 아뢰자 임금은 그의 뜻을 가상히 여겨 도총수(都總帥)에 제수하였는데, 그는 보졸(步卒)들을 이끌고 사력을 다해 싸웠으나 패퇴하여 그곳에서 죽었다. 후에 병조참의에 추증되고 정려의 은전이 내려졌다.

〈참고 : 읍지, 용인군지〉, 박상돈

정한영(鄭漢永)

〈출생, 효자정문〉 본관은 연안, 포은 정몽주의 19대손, 정구현(鄭九鉉)의 아들. 자는 윤칠(允七), 호는 모은(慕隱), 절종 임술년(1862) 12월 12일 출생하였다. 관은 종사랑(從仕郎) 감리서 주사(監理署主事)를 지냈다. 성품이 바르고 총명하였으며 평소 부모를 섬김에 성의(誠意)를 다하였다.

부친의 상을 당하여서는 삼년간 묘아래의 여막에서 지냈으며, 시묘 3년동안 머리는 물론 손, 발톱도 깎지 않으니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라 했던 유가의 법도를 따라 행함이였다. 특출한 효행이 널리 알려져 향당히 효자비를 건립하였다. 86세를 일기로 세상을 마치니 정해 7월 27일이였다.

효자비 지명(誌銘)은 김세기가 썼고 김학렬(金學悅)이 지은 행장기가 있다. 효자각은 모현면 능원리 포은묘소 입구에 전한다.

〈참고 : 행장기, 내고장의 일〉, 이웅준

정 호(鄭 濤)

〈문헌〉 인조 26(1648)~영조 12(1736) 조선 문신. 학자. 자는 중순(仲淳), 호는 장암, 본관은 영일, 감찰 경연(慶演)의 아들. 송시열의 문인이다.

1648년 정시문과 병과로 급제한 후 이조판서등의 관직을 거쳐 경종 1(1721)년 실록청 총재관(實錄廳總裁官)으로서 숙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신임사화로 파직되어 강진에 유배되었다가 영조 1(1725)년 노론의 재집권으로 풀려나 우의정에 올랐다가 후에 좌

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다. 송시열 문하의 뛰어난 학자로 일생을 노론의 선봉으로 활약하였고 시문과 글씨에도 모두 뛰어났다. 을사(1725)년에 제22대 총렬서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참고: 총렬서원 선생안), 이인영

정호선(鄭好善)

〈묘, 신도비〉 선조 4(1571)~인조 10(1632) 조선 문신. 자는 사우(士優), 호은 동원(東園), 본관은 나주(羅州), 대사헌 윤복(胤福)의 아들. 선조 34(1601)년 진사가 되고 이해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후 지평(持平), 정언(正言), 수찬(修撰), 응교(應教)등을 역임하였다. 이때 광해군이 여악(女樂)을 불러 자전(慈殿)의 수(壽)를 빌려고 하자 그는 진언하기를 “아버이에 대한 효성의 도리는 가무로 융숭히 하는 것에 있지 않으니 이를 중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청하여 이의 사실을 알게 된 여러 사람들이 그를 큰 인물로 여겼다. 1613년 가을에 종부시정(宗簿寺正)에 이르렀고 이듬해 보덕(輔德) 사인(舍人)을 역임하였는데 대북과의 음모로 폐모론이 일어나자 병을 칭하고 벼슬을 떠나 고향에 은거하였다.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안변부사에 이어 풍기군수를 역임하였고 정묘년인 1627에 호변(胡變)이 일어나자 그는 파수대장(把守大將)으로 2천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죽령의 길을 막아 끊고 술과 고기로 군사들을 위로, 격려하니 군졸들이 모두 감동하여 대오를 이탈하는 자가 한사람도 없었다. 이듬해인 1627년 병으로 사직하고 양주로 돌아와 있었다가 1628년 겨울 청풍군수(淸風郡守)를 제수받았는데 이때 이미 병이 고질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은 백성을 다스리는데 열중하여 스스로 한가함을 알지 못하였다. 1632년 체직하고 충주로 돌아가 있을때 그해 6월 26일 인목대비가 돌아가자 7월초 고향에 나아가 곡을 하였고, 이듬해 봄 이미 병이 깊어져 어찌할 도리가 없는데도 서쪽 변방의 일을 근심하여 베개를 편히 하지 못하다가 3월 12일 운명하니 수 63세였다. 그가 죽자 조정에서는 선조조 호성청난원종공신(扈聖淸難原從功臣)으로 록선하고 예관을 보내어 조문을 내렸고 용인군 포곡면 부곡(釜谷) 선영아래에 선부인(先夫人) 강씨의 묘와 합폄하였다.

그는 풍골(風骨)이 옥과 같이 아름답고 말에 능하였으며 글을 읽을 때에는 처음 한번

읽으면 곧 암송하였다. 13세때에는 경사(經史)에 통달하였고 대의(大義)를 깨우쳐 일찌기 말하기를 “학문의 근원은 생각하는데 있고 무릇 성현의 말은 반드시 그 자취와 뜻을 힘써 탐구하고 그 배운 것은 날마다 사용하여 보아야 한다. 항상 봉양함이 어버이에게 미치지 못함을 지극히 마음아파하고 어려서 사모하는 마음이 종신토록 쇠하여지지 않아 형제간에 화목하게 되고 벗과의 교의는 믿음으로서 돈독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평소 성품은 검약하여 거처와 의복과 애완물은 관계치 않고 한 마음으로 누가 생기는 일은 경영하지 않았다. 또한 의로운 물건이 아니면 취하지 않았는데 일찌기 이조에 있을때 명관(名官)이 서로 돕는다는 명분으로 쌀을 운반하여 보냈는데 이를 사양하여 받지 않았으므로 그 사람됨이 야박하다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덕량(德量)이 순후하여 덕은 갓아도 원망은 갖지 않았고, 천한 노복에 이르기까지 성내거나 꾸짖은 일이 없었을뿐 아니라 벌레와 같은 미물이라도 함부로 살생하지 않았으며, 자제들이 노복을 매질하면 즉시 훈계하기를 노복들이 복종하고 나를 힘써 섬기는데 이들에게 각박하게 하여 집안의 법도를 어지러히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가 청풍에 있을때 정월 초하루날 아들에게 명하여 책력의 상단에 쓰게 하기를 <기쁨과 노여움을 절제하고 언어는 삼가하며 사려는 길게 하고 음식은 담백하게 하라>고 한 후 “이 다섯가지는 양생(養生)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라”하였으며, 또 공평(公平), 명분(明分), 검약(儉約), 관민(寬民), 신의(信義), 이 다섯가지는 벼슬에 있는 자가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이라 하였다. 병중에도 늘 옷깃을 여미고 앉아서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소시에 있던 바가 이제 날날히 기억되어 눈에 있으니 이로써 병으로 아픈 괴로움을 잊는다”고 하였다. 후에 상주의 선비들이 그의 곧은 절개와 이름을 흠모하여 소재 노수신 신위가 배향된 서원에 제향하였다.

그의 신도비는 포곡면 전대리 부곡마을 입구에 부친 윤복의 신도비와 함께 비각안에 보존되어 오고 있으며, 묘 또한 이 마을 뒷산에 전한다.

(참고 : 한국인물대사전, 경기금석대관, 금병윤

조광보(趙光輔)

<출생> 생몰미상. 조선 지사(志士), 호는 방은(方隱), 일명 광보(廣輔), 식견(識見)이 고명(高明)하였으나 미친척하여 이를 감추었다. 연산군때 임사홍(任士洪)이 권력을 장

악하여 조정이 어지러워지자 송당(松堂) 박영(朴英)으로 하여금 배어 죽일 것을 권하였으나 역적하나만을 죽여 국가의 근심을 풀지는 못한다 하여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1507년 유생(儒生)으로 조광조(趙光祖) 등과 함께 박경(朴耕)의 옥사에 연루되어 대궐 마당에서 국문을 받을때 큰 소리로 옛 글을 외우다가 입회한 유자광(柳子光)을 보고 무오년에 현량(賢良)을 모함하여 죽인 소인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르느냐?고 소리치고 박원종(朴元宗)에게는 폐주 연산군의 나인(內人)을 첩으로 삼은 죄를 추궁하였고 또 성희안(成姬顔)에게도 전에 한훈(韓訓)이 명유라 하더니 어찌 유자광과 같이 일을 하려느냐?고 비난하고 사관인 강홍(姜洪), 이말(李抹)에게 그 말을 똑똑히 기록하라고 하였다. 계속 매를 맞으면서도 큰 소리를 내어 웃기를 그치지 않자 박원종으로부터 광인(狂人)으로 인정되어 풀려났다. 기흥읍 보라리에 사당이 있다.

(참고: 경기인물지, 한국인명대백과), 최희면

조 연(趙涓)

(사당) 공민왕 23(1374)~세종 11(1429) 조선 문신. 자는 여정(汝靜), 초명은 경(卿), 본관은 한양(漢陽), 감문위대호군(監門衛大護軍) 양기(良琪)의 증손, 용원부원군(龍源府院君) 인벽(仁璧)의 아들. 이성계 부친 환조(桓祖)의 외손. 우왕 12년(1386) 진사시에 합격, 1388년 고공사좌랑(考工司佐郎)이 되고 이듬해 통례문부사(通禮門副使)를 거쳐 1392년 공조총랑(工曹總郎)이 되었다. 이해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자 천우위대장군에 임명되어 왕을 호위하는 운검(雲劍)의 직책을 맡아 그 좌우를 떠나지 않았다. 건국 초기에 인심이 안정되지 않아 왕이 친자를 3번으로 나누어 대내에 입직토록 하였는데 여기에 참여하여 왕의 처소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었다. 왕의 시종을 잘하여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책명되었으며, 1396년 과의상장군(果毅上將軍)에 제수되었다. 1398년 중추원 우승지가 되었다가 이듬해 좌승지가 되고 1400년 삼군부동지총제(三軍府同知總制)로 승진되었다. 태종이 잠저에 있을때 매우 두텁게 사랑하였는데 세자로 책봉되자 도둑 부를 두고 절제로 삼아 항상 궐내에 있게 하였다. 이해에 제2차 왕자의 난을 도운 공으로 좌명공신(佐命功臣)이 되고 1402년 한평군(漢平君)에 봉해졌다. 이때 갑사 3백명을 선발하여 내갑사(內甲士)로 일컫고 이를 반으로 나누어 좌·우위를 각각 영솔하게 하였는데 이를 맡아 궐내의 별침(別寢)을 시위케 하였다. 1409년 야인이 북방을 침입하게

하자 길주도도안무찰리사(吉州道都按撫察理使)가 되어 나갔는데 이듬해 올적함·금문내 등이 경원(慶源)으로 침입하여 절제사 한흥부(韓興富)를 살해하자 군사들을 거느리고 올량함, 파아손 등 지휘자들을 살해하고 아울러 부족 수백명을 섬멸하였다. 1413년 공조판서로 전직되고 1416년 판좌군부사가 되었으며 1420년 의정부 찬성사를 역임하였다. 1422년 태종이 승하하여 시릉의 복제를 마친뒤 부원군에 피봉되고 1426년 영의정이 되었다.

재화를 탐하지 아니하고 국정에 힘써 벼슬에 나아간지 좌천된 일이 없었고 4대조에 걸쳐 모든 임금의 총애를 받았다. 묘는 파주군 월능면 덕은리에 있고 그의 사당은 용인군 기흥읍 보라리에 있다.

〈참고 : 한국인명대사전, 용인군지, 경기인물지〉, 박상돈

조광조(趙光祖)

〈묘·우거〉 조광조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효직(孝直), 호는 정암(靜庵)이다. 서울에서 개국공신인 온(溫)의 5대손으로 사헌부 감찰을 지낸 원강(元綱)의 둘째 아들로 1482년(성종 13년)에 태어났다. 17세가 되어 부친이 어천찰방(魚川察防)으로 부임해 가자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유배되어 희천(熙川)에 있던 김굉필(金宏弼)에게 찾아가 수학하였다.

학문으로는 《소학》, 《근사록》등을 토대로 경전을 연구하였으며, 이때부터 성리학에 힘써 사림파(士林派)의 영수가 되었다. 그는 평소 의관을 단정히 하고 언행도 성현의 가르침에 따라 절제하였다.

1499년(연산군 5년) 18세로 첨사(僉使) 한윤형(韓允澗)의 딸과 결혼하였으나 그 이듬해 부친상을 당해 부친의 시신을 선영이 있는 용인군 수지면 상현리에 모시고 상례(喪禮)를 주자가례의 절차에 따라 한치의 착오도 없이 치렀다.

1510년(중종 5년) 29세때 사마시인 진사회시(進士會試)에 장원으로 급제, 개성의 천마산(天磨山), 성거산(聖居山) 등지에서 공부하였으며, 그후 1515년(중종 10년) 성균관 유생들의 천거와 이조판서 안당(安堂)의 추천으로 조지서사지(造紙署司紙)라는 관직에 임명되었다. 같은해 가을 알성시(謁聖試)인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典籍), 사헌부 감찰, 예조좌랑을 역임하고 사간원 정언(正言)이 되었다. 그는 유교의

이념으로써 정치와 교화의 근본을 삼아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 해 장경왕후(章敬王后)가 죽자 중종의 계비 책봉문제가 논의되었는데 바 순창군수 김정(金淨), 담양부사 박상(朴祥) 등은 중종의 정비(正妃)인 신씨(愼氏)를 복위시킬 것과 신씨의 폐위를 주장했던 박원종(朴元宗)을 처벌할 것을 상소하였는데 이때문에 대사간 이행(李荇)의 탄핵을 받아 귀향을 가게 되었다. 이에 조광조는 대사간으로서 상소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언로(言路)를 막는 결과가 되어 국가의 존망에 관계된다고 주장하여 오히려 이행을 파직하게 하였다. 그뒤 수찬(修撰), 호조를 역임한뒤 예조의 정랑을 거쳐 1517년(중종 12년)에는 교리로 있으면서 경연시독관(經筵侍讀官), 춘추관기주관(春秋館記注官)을 겸임하였으며, 자신의 이상정치인 여씨향약(呂氏鄉約)을 전국 8도에 보급하여 실시케 하였다.

1518년(중종 13년) 부제학(副提學)이 되어서는 미신타파를 내세워 소격서(昭格署)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당시 상황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으나 여러차례의 논쟁을 거듭한 끝에 중종의 허락을 얻어 폐지시켰다. 그의 도학정치에 대한 주장은 대단한 것이었고 그의 주창으로 당시의 학풍은 변화되어 갔다. 그의 도학정치는 조선시대의 풍습과 사상을 유교적으로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고 이 시대에는 일반 서민들 까지도 주자의 가례(家禮)를 지키게 되었다. 중종의 신임이 두터워지자 조광조는 혁신정치를 실시코자 현량과(賢良科)를 설치할 것을 간청하였다.

현량과는 당시의 과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으로 신진 관리의 발탁을 위해 중국 한(漢)나라의 현량방정과(賢良方正科)를 본받아 제정하는 것으로 1519년에 실시되었다. 천거시취제(薦舉試取制)인 현량과에서 김식(金湜), 안처겸(安處謙), 박훈(朴薰)등 전국에서 28인이 선발되었으며 소장 학자들을 뽑아 조정 각부문 요직에 배치하였다. 이로 인해 훈구세력들은 기성관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라 하여 반격의 음모를 시작하였다.

1519년(중종 14) 대사헌이 되고 세자부빈객(世子副賓客)까지 겸임하게 되었다. 훈구세력들은 더욱 그를 질시하게 되었으나 신진세력들의 힘을 입어 국정을 도맡아 처리하게 되고 왕도정치의 표방아래 보수세력인 훈구재상들과 그의 혁신적인 시책에 반대하던 기성관료들은 거의 모두가 탄핵되어 파직되거나 좌천되었다. 조광조는 중종 반정시 공신으로 추대된 인물중 부당하게 책정된 유자광(柳子光), 성희안(成希顔)등 정국공신(靖國功臣)들의 공을 삭제하자는 위훈삭제(爲勳削除)를 강력히 주청하였다. 처음에는

허락치 않던 중종도 거센 주청이 계속되자 11월 9일 103명의 공사중 78명을 삭훈하였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훈구파의 대신들은 홍경주, 남곤, 심정을 중심으로 경빈박씨등 후궁들을 움직여 왕에게 신진사류를 무고토록 하고 대궐안의 나뭇잎에 과일즙으로 주 초위왕(走肖爲王)이란 글씨를 써 벌레가 파먹게 한다음에 이를 따서 왕에게 바쳐 의심을 조장시키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홍경주와 공조판서 김전(金詮), 예조판서 남곤, 우찬성 이장곤(李長坤), 호조판서 고흥산(高荊山), 심정등이 밀의하여 밤에 신무문을 통하여 비밀리에 왕과 만나 조광조 일파가 장파를 조직하여 조정을 문란케 한다고 무고하였다. 이 결과 평소 조광조의 도학정치와 과격한 언행에 염증을 느껴오던 중종은 훈구대신들의 탄핵을 받아들여 조광조, 김정, 김구, 김식, 윤자임, 박세희, 박훈 등을 투옥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1519년(중종 14) 12월 16일에 일어난 기묘사화(己卯士禍)이다. 결국 정치경력이 짧고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신진세력들은 급진적인 개혁을 너무 과격하게 이루려다 훈구세력들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었다.

조광조가 전라도 화순의 능주(陵州)로 유배되고 한달쯤 뒤 홍경주 등의 강경한 주장으로 사약을 받고 세상을 하직하니 그때 나이 38세였다. 그뒤 선조초 신원되어 영의정에 추증되고 문묘에 배향되었다. 1570년 능주에 죽수서원(竹樹書院), 1576년 희천에 양현사(兩賢司)에 봉안되었으며, 1605년에는 그의 묘소아래인 용인군 수지면 상현리 심곡서원(深谷書院)에 봉안되었다.

그는 유교적 이념을 진작시키고 미신을 타파하였으며, 향약의 보급등으로 풍속을 바로잡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후에 이이(李珥)는 김굉필, 정여창, 이언직 등과 함께 동방사현(東方四賢)이라 불렸으며, 조광조의 저서로는 《정암집》이 있다. 시호는 문정공(文正公)이다. 용인군 기흥읍 지곡리의 사은정(四隱亭)은 그가 조광좌, 이자 등과 함께 학문을 강론하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참고 : 중종실록, 석표일기, 정암집, 내고장의 얼), 최희면

조광조(趙光祖) 문인

- 성수침(成守琛). 자는 중옥(仲玉), 호는 덕송(德松)
- 종남수(終南守). 종실(宗室)로 호는 치재(耻齋)

- 기준(奇遵). 자는 자경(子敬), 호는 복재(服齋)
- 김광원(金光遠). 자는 언명(彦明), 호는 월봉(月峯)
- 조옥(趙昱). 호는 용문(龍門), 문하생으로 기묘사화때 연루 투옥되었으나 연소(年少)하여 사면되었고 후에 현감을 지냄.
- 백인걸(白仁傑). 자는 사위(士偉), 호는 휴암(休菴), 시호는 문숙(文肅), 독학을 늙도록 게을리하지 않았음.
- 양언진(梁彦鎭). 자는 산보(山甫), 호는 숙서원(숙西園), 기묘·기사사화에 화를 입음.
- 정환(丁煥). 자는 용희(用晦), 회산도사(檜山都事)를 지냄.
- 정황(丁煥). 자는 계희(季晦), 호는 유현(游軒), 사인(舍人)을 지냄.
- 나식(羅湜). 자는 정원(正源), 호는 장금정(長金亭), 을사사화로 병오년에 죽음.
- 이정경(李廷慶). 한훤당 문에도 보임.
- 허백기(許伯琦). 자는 여진(汝珍), 호는 삼송(三松)
- 홍섬(洪暹). 상신(相臣)에 이름.
- 홍봉세(洪奉世). 자는 흠중(欽仲)으로 판결사를 지냄.
- 정원(鄭源). 자는 중원(仲遠), 정미년의 벽서변으로 가산 적몰됨.
- 윤관(尹寬). 자는 울옹(栗翁), 호는 삼휴당(三休堂)
- 이희민(李希閔). 초계사람, 자는 효옹(孝翁), 정랑을 지냈으나 기묘사화때 삭관됨.
- 이충건(李忠健). 성주인으로 자는 자안(子安), 호는 놀재(訥齋)로 기묘사화때 적사(謫死)됨.
- 박세조(朴世照). 자는 중온(仲溫), 호는 인재(忍齋)임.
- 이문건(李文健). 자는 자발(子發), 호는 묵재(默齋)
- 이기(李堧). 평생에 정암으로서 표준을 삼고 호는 정현(靜軒)임.
- 이령(李翎). 자는 여익(汝翼), 호는 성재(惺齋)
- 김대유(金大有). 호는 삼족당(三足堂)으로 응교(應教)를 지냄.
- 조변(趙忭). 자는 구부(懼夫), 호는 족암(足菴)
- 심광언(沈光彦). 호는 순암(純菴)
- 성수중(成守琮). 자는 숙옥(叔玉), 시호(諡號)는 절효(節孝), 청송(廳松)의 아우
- 장잠(張潛). 자는 호원(浩源), 호는 죽정(竹亭)

- 박소(朴紹). 자는 언주(彦胄), 호는 이천(怡川)
- 조희윤(趙希尹). 자는 경임(景任), 정암의 조카
- 안담(安曇). 호는 송예(松崖), 일천으로 이조참의를 지냄.
- 최여주(崔汝舟). 호는 삼서당(三舒堂), 군수를 지냄.
- 문선(文璿). 호는 한고(寒臯), 관은 수찬(修撰), 신사년에 구성으로 유배됨.
- 민의(閔義). 호학(好學)과 독행(篤行)으로 당세에 추존(推尊)하는 인물이 됨.
- 정의손(鄭義孫). 호는 추파(秋波)
- 홍순복(洪順福). 호는 고암(顧菴)

〈참고: 한국고사대전, 이인영〉

조광좌(趙光佐)

(우거) ?~중종 16년(1521) 조선 문신. 자는 계량(季良), 호는 회곡(晦谷), 본관은 한양(漢陽), 중종 2년(1507) 성균관(成均館)의 유생(儒生)으로서 박경(朴耕), 김공저(金公著)의 옥사에 연루, 투옥되었다. 1518년 좌랑(佐郎)이 되고 이듬해 지평(持平)으로서 기묘사화(己卯士禍)때에 조광조(趙光祖) 일파로 몰려 삭직(削職)되었다가 1521년 신사무옥(辛巳誣獄)에 연루, 장살(杖殺)을 당하였다.

〈참고: 기묘록, 한국인명대사전, 박상돈〉

조구행(趙球行)

용인읍 역북리 조구행원장은 1950년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교수 Fleod Schmoeb박사가 1950년 6월 25일 동란으로 인한 피해자(被害者) 구호사업(救護事業)으로 한국정부와 Unkra봉사단체 후원으로 House of Korea를 창설(創設)하였다.

당시 지방민(地方民) 7명으로 자문위원회(諮問委員會)를 조직하여 각종사업(各種事業)에 대한 협의체(協議體)를 조구행氏를 중심으로 구성(構成)하고 구호주택건설사업(救護住宅建設事業), 피해복구사업(被害復舊事業), 무료진료사업(無料診療事業), 보건위생사업(保健衛生事業), 극빈자(極貧者) 급식보급사업(給食補給事業)등 주민봉사사업을 하였으며 1955년 9월에는 미공보원(美公報院)의 지원으로 도서(圖書) “自由의 벗”외 200여권으로 도서실(圖書室)을 개설(開設)하고 군민의 이용과 전군민에게 “自由의 벗”

홍보(弘報)책자를 배부하기도 하였다.

농촌계몽용 영사기(映寫機) 2대 지원(支援)받아 시청각 교육과 지방순회(地方巡廻) 영화상영(映畫上映)으로 정부계몽 및 농촌문화보급사업을 실시(實施)하였다.

1955년 10월 미국인 Schmoeb박사가 귀국(歸國)함에 그간 운영(運營)한 모든 사업을 지방민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諮問委員會)에 인계(引繼)하고 귀국하였다.

그후 자문위원 조구행씨는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용인문화원을 설립하기로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고 1957년 4월 13일자 주무부장관(主務部長官)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용인문화원을 최초로 설립하게 되었다. 그간 봉사단체가 공인단체로 발족하고 초대문화원장으로 선임, 17년간 용인문화원장으로 봉사하였다.

1970년 8월 15일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의 대업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사회복지 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한 공을 높이 찬양하여 국민훈장 “목련상”을 받았다.

이용준

조규승(趙奎昇)

〈생거급제〉 영조 45년(1769)~? 자는 윤초(允初). 본관은 한양, 환(煥)의 아들. 순조 4년(1804) 35세때에 갑자식년문과(甲子式年文科) 병과(丙科)에 응시, 급제하였으나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참고: 한국고사대전, 용인군지〉, 최희면

조덕공(趙德恭)

양지현감(陽智縣監). 선조 27년(1594) 3월 양지현감에 도임하였으나 관아를 침입한 도적을 제압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붙잡힌 일로 하여 파직되었다.

〈참고: 용인군 시사년표〉, 최희면

조복양(趙復陽)

〈문헌〉 광해군 1(1609)~현종 12(1671) 조선 문신. 자는 중초(仲初), 호는 송곡(松谷), 본관은 풍양, 좌의정 익(翼)의 아들. 인조 16(1638)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정언, 헌납등을 지냈고 효종즉위(1649)년에 부교리로서 봉당의 작폐를 통탄하여 사직하려 하

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효종 8(1657) 시강관(侍講官)으로 궁중음악의 타락을 지적, 고악(古樂)을 본받아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악장옥책고문(樂章玉冊考文)을 찬하였다. 말년에 홍명하에 이어 제10대 충렬서원 원장을 역임하였는데 그의 부친 조익이 제3대 원장직을 맡았음으로 부자가 충렬서원 선생안에 이름을 남겼다.

〈참고: 충렬서원 선생안〉, 노승식

조 사(趙 師)

〈묘·사당〉? 호는 가천재(嘉川齋), 본관은 한양, 조선 태조의 생질이나 예에 의하여 중추부사를 제수하였으나 조선조에서 벼슬을 마다하고 양양(襄陽)에 낙향하여 은거하다가 일생을 마쳤다. 또 원운곡(元耘谷)과 원천석(元天錫)과 더불어 공양왕을 호위하고 있었던 관계로 교분이 두터워 함께 산수간에 글을 읊으며 기거하던 곳을 와선대(臥仙台)라 일컫고 매일 가치천(嘉致川)가에서 노닐던 연고로 가천(嘉川)이란 호를 갖게 되었다.

그의 지조는 포은(圃隱), 목은(牧隱), 야은(冶隱)에 비하여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가 임종할 때 유언하기를 “내가 죽거든 반드시 포은 정몽주 묘소 있는 근처에 묻어서 지하에서라도 함께 노닐게 하라”고 하였으므로 후손들이 이 유언에 따라 모현면 능원리에 장사하였고 그의 신위를 봉안한 사당도 능원리에 건립하였다.

〈참고: 용인대관(강창희)〉, 이인영

조 씨(趙 氏)

〈효부, 정려문〉 본관은 양주, 진사 조두경(趙斗慶)의 딸로 영조 정사(1737)년에 태어났다.

효자 김치복의 손자인 동몽교관 달명(達命)의 처이다. 지아비와 더불어 부모섬기기를 극진히 하였다. 전후 거상에는 소식 3년하며 향기로운 음식은 일체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부모 생전에 진미를 만들어 드리지 못함을 예석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의 소문이 날로 커짐에 마침내는 상께서 들으시고 정려문을 내렸으며 영인(令人)으로 증직하는 은전이 베풀어졌다. 철종 임자(1852)년의 일이다. 남사면 완장리에 효부

로 명정된 정려각이 있다.

(참고: 삼강행실록, 내고장의 일), 이용준

조 씨(趙 氏)

〈묘〉 풍창부부인 조씨는 숙종의 장모이자 인현왕후(仁顯王后)의 친정 어머니로 효종 원년(孝宗元年: 1659) 2월 성균관 생원 조귀중의 딸로 출생하여 17세의 나이로 숙종 2년(1676) 여양부원군 민유중에게 출가하였고 그가 낳은 딸이 숙종의 계비가 되므로 외명부 정1품의 부부인이 되었다.

그러나 숙종 15년(1689) 희빈 장씨가 낳은 군, 즉 경종의 세자 책봉문제로 기사환국이 일어나자 희빈 장씨의 무고를 당하여 삭탈관직되어 폐비 운씨와 유폐생활을 겪었다. 그러던 중 숙종 20년 갑술옥사로 장희빈이 몰락함으로써 인현왕후의 복위와 함께 다시 관직이 회복되었다. 출가한 후 60여년을 영욕이 엇갈리는 한평생을 살다가 수 83세로 하세하자 용인현 수원동(지금의 구성면 상하리)에 예장(禮葬)되었다. 그후 이 마을을 민재궁(閔粹宮)이라 하였다.

(참고: 내고장의 일), 이용준

조영복(趙榮福)

〈출생〉 현종 13(1672)~영조 4(1728)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함안(咸安), 자는 석오(錫五), 호는 이지당(二知堂), 군수 해(楷)의 아들. 어려서부터 영오(穎悟)하여 백부(伯父)가 항상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 애는 커서 우리 집안을 키울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또 신정(申鼎)이 그의 할아버지인 조봉원(趙逢源)을 만나러 왔다가 어린 영복을 보고 기특히 여겨 수레에 싣고 돌아가기도 하였다.

15세 때에 초시(初試)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유학하였고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의 문하에서 수업하였다.

을유년(숙종 31, 11705)에 생원에 합격하였고 무자년(1708)에 전설사(典設司) 별검(別檢)에 제수된 후 의금부도사로 옮겼으며 관례에 따라 전생서(典牲署) 주부로 올라 호조좌랑으로 옮겼다가 김천군수(金川郡守)를 역임하였다. 그러나 이때 그를 꺼리는 자들이 그가 너무 빠른 승진을 한다고 논란하여 사복시(司僕寺) 판관으로 체직되었고 일

마 후에는 신천(信川) 현감을 내렸으나 나가지 않았다.

갑오년인 숙종 40(1714)년 예천군수(禮川郡守)로 있으면서 증광시(增廣試)에 급제하였고 이듬해에는 사헌부 지평(持平)으로 제수되어 민막(民瘼) 시폐(時弊)에 관하여 소(疏)를 올려 시정을 개선케 하였다. 그해 가을 다시 지평을 제수받았는데 이때 왕자 연령군(延齡君)이 합문(閤文)을 나와 집을 짓는데 극히 사치롭게 하여 한문제(漢文帝)의 노대(露台)에 관한 고사를 인용하여 진계(陳桂)하니 임금의 처음에는 가납하였으나 후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자 벼슬자리를 물러났다. 그러나 곧 필선(弼善)을 제수받아 영해부사(寧海府使)로 나아간 후 문무의 과정을 힘써 가르치고 창고를 풀어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며 부역을 덜어주니 온 고을이 크게 즐거워하고 칭송하였다. 그후 장령(掌令)으로 소환되었는데 윤선거(尹宣擧) 문집중에 효종을 기무(譏誣)한 말이 있어서 조정에서는 판본(板本)을 때려 부술 것을 명하였으나 소론에서는 이를 사화라고 지목하면서 정신(廷臣)을 위협하였다. 이때 영복이 상소하여 이들의 주장을 통척(通斥)하고 이이서 윤선거에게 선정(先正) 칭호를 내리는 것은 외람된 일이니 엄하게 금해야 한다고 주장하니 상(上)께서도 명쾌한 의론이라 하여 비답을 내리고 정언(正言)을 제수하였다.

정유년(1717)에는 헌납으로 호남지방의 어사로 나갔으며 사복시정(司僕寺正)으로 돌아와 얼마 되지 않아 동래부사로 탁용되었다. 동래부에서는 교활한 왜인들을 접대하는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근신으로 일관하였고 조약을 맺음에는 국가의 체면을 높이는 데 힘썼다. 왜인들이 세계(조약문서)를 요구해 왔을때 영복은 장계를 올려 그 불가함을 극언하니 임금도 이를 옳게 여겼다.

이듬해 승지가 되었는데 그가 입대할 일이 가장 많았고 일에따라 자세히 아뢰면 경종은 서슴없이 재가하여 주었다. 이를 보고 중신 중에서 “동궁께서 공의 말이라면 다 들어준다는데 참말인가?”라고 묻자 영복은 탄식하면서 “간신이 끼어들면 앞으로 말할 걱정이 있게될 것이네”라고 하였는데 뒤에 과연 그렇게 되었다. 1720년 경종 즉위후 충청감사를 지내고 승지가 되었으나 신임사화때 소론에 배척을 받고 파직되어 선산(善山)으로 귀양갔다가 바로 영춘(永春)의 절협(絶峽)으로 옮겨져 살 길이 막혔으나 소영자적(嘯咏自適)하였다.

영조 을사년(1725) 귀양에서 풀려나 다시 승지와 병조참의에 제수되었을때 영남에 큰 흉년이 들고 도백도 결원이 되었는데 영복의 탁월한 기량이 인정되어 영남도백을

제수받고 도입, 백성들의 질고(疾苦)를 위문하고 마음을 다하여 구원하니 백성중에 목숨을 잃거나 굶주린 사람이 없었다.

연일포(延日浦)의 백성들이 죽은 고래 세마리를 얻었는데 창의궁의 차인(差人)이 그 이익을 빼앗고자, 내수사(內需司)에 고자질하여 김세관을 엄히 문초하고 정배(定配)시키라는 명이 내려졌을때 영복은 소를 올려 임금에게 간하기를 “옛 사람은 주(珠)를 골짜기에 던지고 벽(璧)을 산에 버리기도 하였는데 신은 먼 지방백성들이 전하께서 고래는 한알 때문에 이런 처분을 내렸다고 원망할까보아 걱정입니다.”라고 아뢰니 상께서는 고래 눈알을 깨버리라고 하였고 그후 경연에서도 여러번 미안하다는 뜻을 그에게 표하였다.

그가 송도유수(松都留守)를 배수받았는데 송도 백성들이 연경의 청인(淸人)들에게 부채(負債)가 많아 다름이 심하다는 작폐를 듣고 이를 시정하려 하였으나 가명이 많아 조사가 어려웠는데 영복은 부임도 하기 전에 전부 조사하여 실명인(實名人)을 알아내니 사람들이 모두 놀라와하였다. 그가 외직으로 나가 있을때 조정에는 김일경(金一鏡), 목호룡(睦虎龍)등이 실세를 장악하고 이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짝 들어왔다.

이에 영조는 대신들의 반복과 당파가 치열해 가는 것을 보고 교서를 내려 탕평(蕩平)이라 이름을 붙이니 영복은 상소하여 극론하기를 <임금이 된 사람이 사람을 쓰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邪)와 정(正)을 분별하고 의리를 살피 인신의 편사(偏私)를 버리고 지공(至公)을 유기하면 민심은 바로 서고 봉당도 스스로 없어지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여 잠깐 사이에 위진(威震)을 떨쳐 거조(擧措)가 전도되고 충사(忠邪)가 일조에 변하여 부역(扶抑: 일으키고 누르는 일)이 너무나도 편벽되니 성인이 이른바 탕탕평평(蕩蕩平平)하여 왕도가 정직하다 하는 것은 이렇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하였고 이른바 정미환국이 일어나자 세번이나 소를 올려 전일의 죄인들을 등용시켜서는 아니되며 그들과 함께 정치를 할 수 없다고 극언을 서슴지 않았으니 <삼조(三朝)를 섬겨 온 노신들은 모두 척파(斥罷)를 당하고 옛날의 당적(堂籍)에 있던 사람들은 빠짐없이 불러들였으니 신의 진퇴와 영욕은 의리상 혼자만 누릴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자, 이를 두고 왕의 처분을 현란시킨 행위라 하여 소장을 되돌려 보낸후 드디어 파직 삭출하였다. 송도 백성들이 노유(老幼)를 막론하고 수레에 매달려 떠나는 길을 막아서자 “나는 왕의 꾸지람을 받고 떠나는 판이니 너희들이 만류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1728년 이인좌 난이 크게 일어나 중외(中外)가 진탕(震盪)하니 영복은 원임유수(原任留守)로 충주의 연원(連源)에 물러나 있다가 즉일로 셋길로 올라와 분문(奔問)하였고 한성부 우윤으로 서배(叙拜)되었으며, 난이 평정되자 표를 올리고 연원으로 돌아가려 하였으나 마침 병을 얻어 1728년 4월 23일 타계하자 양지(陽智) 봉림산(鳳林山) 묘향(卯向)의 언덕에 여부인(呂夫人)과 합장하였으니 지금의 안성군 고삼면이다.

그의 신도비는 큰 아들 중회(重晦)가 세웠는데 비문은 그의 스승은 도암 이재가 썼다.

〈참고 : 한국인명대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용인군지, 경기인물지, 경기금석대관, 이인영

조영석(趙榮祐)

〈출생〉 숙종 12(1686)~영조 37(1761) 조선 후기의 사대부(士大夫) 화가. 자는 종보(宗甫), 호는 관아재(觀我齋), 석계산인(石溪山人), 본관은 함안, 이희조(李喜朝)의 문인, 겸재(謙齋) 정선(鄭선), 현재(玄齋) 심사정(沈師正)과 함께 3재(三齋)로 불리워진다.

숙종 12년 2월 14일 순창군수(淳昌郡守)를 지낸 해(楷)의 아들중(榮福, 榮祿, 榮禔, 榮祐) 막내아들로 출생, 영조 37년인 1761년 3월 27일 76세를 일기로 타계한 인물이다.

28세 때인 1713년 진사가 되었고 37세때 상서원직장(尙書院直長)으로 있을때 그의 백형 이지당(二知堂) 영석이 임인사화(壬寅士禍)에 연루되어 유배당하는 것을 보고 관직을 사퇴하였다. 그후 40세때인 1725년 공릉직장(恭陵直長)으로 시작하여 연기, 적성, 의령현감등 외관직을 두루 거쳤고 후에 정4품인 광흥창수에 이미 통정대부(通政大夫)로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에 이르렀다. 그는 성격이 매우 강직하고 기가 밝으며 뜻은 높고 행동은 잘 가다듬어져 있으며 크고 작은 일에 척도가 근엄하고 관청이나 집에 거처함에 있어 스스로 부응할 규모(規模)를 가지고 임하였다고 한다. 일찌기 부모를 여윈 그는 형과 누님을 부모처럼 섬겼으며 아들과 조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는 매우 엄하였다. 그는 일찌기 말하기를 사람이 네가지 큰 욕심이 있으니 그것은 〈생(生), 색(色), 관(官), 재(財)로 누구나 이것을 경계해야 하지만 벼슬하는 사람은 더욱 명심해야 한다〉고 말해 그의 묘지명(墓地銘)을 쓴 유척기(兪拓基)가 관직생활 30년동안 늘 이것을 되새겼다고 한다. 그의 모습은 고죽(孤竹)과 같았고 절조(節操)는 돌처럼 단단했으며 아

의(雅意)를 임천(林泉)에 두어 영리에 급급하지 않았으며 매일 날이 밝기전에 일어나 티끌하나 없이 청소를 하고 책상위의 책들은 언제나 가지런히 정리했던 깔끔한 성격을 가졌다. 그가 50세 때인 영조 11년(1735)에 광해군과 세조어용을 중모(重摹)할때 그가 화법을 이해하므로 왕이 그를 불렀으나 당시 의령현감으로 있던 그는 「이와 같은 일을 한다면 화사(畫師)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런 부름에 가지 않는 것은 옛부터 의(義)이다」라면서 일개의 현령이 조정의 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로부터 13년 뒤인 영조 24년 숙종의 어진(御眞)을 중모(重摹)할때 입참감동(入參監董)의 명을 받고 응하였으나 처음의 소명(召命)과는 달리 또다시 집필(執筆)을 강요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때에도 “오늘의 일이 을묘년 때와 다를 바가 없다”고 죽기를 무릅쓰고 사양하면서 “예경(禮經)에도 선비가 더불어 할 일이 아니라 되어 있으며 신(臣)이 비록 미천한 신분이오나 스스로 여러 화사(畫師)들과 자리를 같이하여 의관을 욕되게 하겠느냐?”고 주장하면서 절대로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고집은 왕의 노여움과 조정 중신들의 비난을 받았지만 중국에는 영조의 이해를 얻게 되었다.

그는 인물, 산수, 화조, 영모(翎毛), 풍속 등 다양한 소재를 그렸으며, 인물에 뛰어나 왕의 어진을 그리라는 명을 받았고 또 한사코 이를 거절했으나 스승 이희조와 형 조영복의 초상을 그렸던 것으로 전해오는데 안성군 고삼면 가유리 증손집에 이지당 초상 1점이 전해지고 있으며 이것이 그가 남긴 현존하는 유일한 인물화인 것으로 전해진다.

홍의영(洪儀泳)의 관아재화첩 발문에 “본래 인물에 뛰어났으며 겸하여 산수도 잘하였고 금강산을 다녀온뒤 화경(畫境)이 더욱 진보되어 명작을 많이 냈으며 또한 고화(古畫)에 대한 논평을 좋아하였으나 간혹 지나친 점이 있어 비난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며 “백악산(白岳山) 아래에 살면서 정선, 시인인 이병연(李秉淵)과 이웃이 되어 교우하면서 시화(詩畫)를 논하였다”고 하였다.

그의 그림은 대체로 윤두서(尹斗緒)의 경우처럼 조선 중기의 전통화법을 계승하면서 남종화법(南宗畫法)을 약간 가미한 화풍을 특징으로 한다(민족문화백과사전)고 하였다. 이러한 회화 세계는 이인상(李麟祥)등에게 얼마간 영향을 미치는 등 조선후기 문인화의 전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가 생전에 인왕산록에 거주하였으나 용인의 인물로 지목되는 것은 그의 형 이지당 조영복이 용인(옛 양지: 지금의 안성군 고삼면 가유리로 편입) 사람인 것으로 용인군지

등에 밝혀져 있고, 경기인물지(경기도)에 안성사람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안성으로 편입된 고삼면은 1965년 안성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가 출생 당시인 숙종 연간에는 이 지역에 양지에 속했으며, 본 인물지 수록대상은 고금을 통털은 역사적 인물을 정리하는 것이므로 용인사람으로 기술코자 한다. 현재 그의 묘소는 파주군 조리면 장곡리 속칭 놀미에 전하고 있다.

〈참고: 한국서화인명사서, 한국인물대사전, 관아재원고서문,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인영

조윤봉(趙允奉)

항일의병. 용인군 덕미(德味: 지금의 이동면 덕성리)에 살았다.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당년 30세였다.

융희2년(1908) 음력 2월경 의병장 이익삼 휘하에 투신하여 22명의 의병대와 함께 광주군 돌마면 수반리(樹盤里) 거주 마춘화(馬春化)로부터 군량미 3섬, 용인군 포곡면 유운리 소운동 이재봉(李在鳳)의 집에서 백미 1섬을 제공받는 등 군량미를 조달해 오다가 체포되어 강도죄목으로 기소된 후 1909년 3월 9일 경성지방법재판소에서 3년형을 언도받고 복역하였다.

〈참고: 경성지방법재판소 재판기록〉, 금병윤

조 익(趙翼)

〈문헌〉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풍양. 자는 비경(飛卿), 호는 포저(浦渚), 임진왜란 중 음보로 정포만호(井浦萬戶)가 되어 선조31(1598) 군량미 23만석을 운반하는 공을 세웠다.

왜란이 끝난뒤 다시 수학하여 1602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삼사의 벼슬을 두루 거쳤고, 김평필, 이언적, 조광조, 정여창등을 문묘에 배향할 것을 주장하다가 고산도 찰방으로 좌천되고 인목대비 유폐사태가 일어나자 벼슬을 버리고 광주(廣州)로 은거하였다가 충청도 신창으로 옮겨 살았다.

인조 즉위후 다시 관직에 나가 한성부 판윤등을 두루 역임하고 이원익을 도와 대동법(大同法)을 확대하고 관리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였다.

1655년 3월 중추영부사로 죽기까지 우의정, 좌의정을 역임하였고, 학문에 정진하였으

며 77세때 광주 고향에서 일생을 마쳤다. 성리학의 대가로 예학에 밝았으며 경학, 병법, 복술에도 뛰어났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변함없이 우정을 지켜온 그와 장유(張維), 최명길(崔鳴吉), 이시백(李時白)을 가르켜 사우정(四友情)이라 불렀다.

만년에 오윤겸의 뒤를 이어 제3대 총렬서원 원장으로 재직하여 용인에 연고를 남겼다.

(참고: 인물록, 총렬서원 선생안), 노승식

조인영(趙寅永)

〈문헌〉 정조 6(1782)~철종 1(1850) 조선 문신. 자는 회경, 호는 운석(雲石), 본관은 풍양, 순조 19(1819)년 식년문과에 장원, 이듬해 응교가 되고 1822년 대사헌에 특진, 1826년 경상도 관찰사를 거쳐 이조참의, 대사성을 역임, 헌종 1년(1835) 이조판서에 승진, 이때 순원왕후(純元王后) 김씨가 수렴청정하게 되면서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가 시작되자 이에 대결, 풍양조씨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1839년 우의정에 올라 척사윤음(斥邪綸音)을 찬진하여 천주교도를 박해하였으며 죽을 때까지 4차례에 걸쳐 영의정을 역임하였다.

1816년 성절사로 청나라에 갔을 때 청나라의 금석학의 대가인 유연정(劉燕庭)에게 우리나라 금석학 자료를 주어 연구케 하였고, 귀국한 후에도 계속 김정희가 발견한 북한산의 진흥왕 순수비(巡狩碑)의 탁본을 보내주었다. 문장, 글씨, 그림에 모두 능했던 인물로 무술(1838)년부터 경술(1850)년까지 제41대 총렬서원 원장으로 직함을 남겼다.

(참고: 총렬서원 선생안), 이인영

조정익(趙正誼)

용인현령(龍仁縣令). 숙종 26년(1700) 8월 도입하였으나 동월(同月) 배를 타다가 중상을 당하여 사임하였다. 공상(公傷)인지 또는 뱀놀이를 하다가 전복되어 부상을 당하였는지는 밝혀진 바 없으나 수상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임한 최초의 현령으로 기록을 남겼다.

(참고: 용인군 사사연표), 이웅준

조종우(趙鍾宇)

〈생거급제〉 순조 32(1832)~? 자는 대성(大聲), 본관은 한양(漢陽) 진동(進東)의 아들. 고종 10년(1873) 계유식년문과(癸酉式年文科) 갑과(甲科)에 응시, 급제자 5인중 차하로, 갑·을·병 과별 45인중 3위로 급제하였으나 관위는 밝혀지지 않는다.

〈참고 : 고사대전, 용인군지〉, 박상돈

조중회(趙重晦)

〈출생, 묘, 문헌〉 숙종 37년(1711)~정조 6(1782)년 조선 문신. 자는 익장(益章), 본관은 함안, 생육신(生六臣)의 한 사람인 려(旅)의 후손, 개성유수(開城留守) 영복(榮福)의 아들로 양지현에서 출생, 이재(李穡)의 문인이다.

영조 12(1736)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1739년 설서(說書), 검열을 지내고 1743년 정언(正言)으로서 왕의 빈번한 사묘(私廟)의 참배를 간하다가 파직당했다. 1748년에 부수찬(副修撰)으로 복직, 이어 부교리(副校里), 수찬 등을 지내고 이듬해 윤급을 변호하다가 파직당했다.

그뒤 곧 기용되어 1751년 사은사겸 동지사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와 부수찬겸 필선을 여러차례 지내고 1753년 승지를 거쳐 대사성, 영변부사, 양주목사 등을 역임했다.

1762년 다시 승지로서 왕세자(장헌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을때 이를 극간하다가 무장(茂長)에 유배되었으나 곧 풀려났다. 1772년 예조참판이 되고 다음해 대사헌을 거쳐 예조판서가 되었다. 이듬해 정조가 즉위하자 함경도관찰사로 전직, 이듬해에 홍계희를 그의 스승인 이재(李穡) 사당에 배향하자는 의론이 일어나자 그 부당성을 지적하여 중지케 했다.

1779년 공조판서가 되고 다음해 치사(致仕), 기로소에 들어갔으며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그의 사위 홍낙빈이 세도가 홍국영의 숙부이므로 그에게 아부하려는 사람이 많았으나 성품이 고결하여 이를 모두 배척, 지조를 지켰다.

그이 묘소는 학일리 산 49-1번지 서북방에 자리잡고 있으며, 김원행의 뒤를 이어 신축(1781)년부터 임인(1782)년까지 제32대 충렬서원 원장으로 재직중 별세하였다.

〈참고 : 한국인물대사전, 충렬서원 원장록〉, 금병운

조지정(趙之正)

양지현감(陽智縣監). 숙종 6년(1680년) 1월 도입하였으나 동년 8월 양지읍(陽智邑)을 혁읍(革邑)하여 이천부에 합속시키므로서 사임하고 귀향하였다. 이로써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하여 사임된 용인 최초의 현령이 되었다.

(참고: 읍지, 내고장 용인시사년표), 박상돈

조진관(趙鎭寬)

〈문헌〉 영조 15(1739)~순조 8(1808) 조선 문신. 자는 유숙(裕叔), 호는 가정(柯汀), 본관은 풍양, 이조판서 엄의 아들. 영조 38(1762) 사마시에 합격한 후 1762년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에 임명되었으나 사퇴, 1775년 세자익위사시직(世子翊衛司侍直)이 되어 구현시(求賢試)에 장원하고 동부승지에 올랐으며, 광주부윤을 지냈다.

1776년 정조가 즉위하자 부친이 홍국영의 세도정치를 배척하다가 무고를 받아 투옥되자 신문고를 쳐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용납되지 않자 칼로 몸을 찢어 자살을 기도했다가 실패하였고, 홍국영이 실각하자 요직을 두루 거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가 되어 기로소에 들어간 인물로 계해(1803)년부터 무진(1707)년까지 제37대 총렬서원 원장의 직함을 남겼다.

(참고: 총렬서원 선생안), 노승식

주석환(朱錫煥)

1892년 1월 11일 평남 강동에서 출생하였다. 1919년 만주로 건너가 안동현에서 김승만(金承萬), 오순근(吳淳根), 김두만(金斗萬), 오능조(吳能祚), 이영식(李英植) 등과 함께 안동현 임시의사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동년에는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의 지령에 따라 평남 일대에 교통국을 설치하는 한편 대한청년단연합회에 가입 활동하였고, 유성삼(劉成三), 명덕상(明德相) 등과 함께 대한독립단에 가입하기도 하였다.

1920년에는 정의단(正義團)을 조직, 군자금 모집활동을 전개한 결과 17만 원을 모금하여 임시정부에 전달하였다. 동년 6월에는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하던 김석환(金錫璜)을 비롯하여 여행열(呂行烈), 김송혁(金松赫) 등과 평안, 황해도 및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독립의용단을 조직하여 독립군의 모집 양성과 일제기관의 습격과 피활동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광복군총영(光復軍總營)이 창설되자 이에 가입하여 모험부장(冒險部長)으로 국내활동을 계속하였는데 11922년 1월에는 동원된 일경의 추격을 받고 교전중 일경 식월(植月)에게 중상을 입히고 도피하였다. 동년 1월에는 강동군 만달면 대성리에서 일경 100여명과 교전중 부상을 당하여 동지들과 함께 일경에 체포되었다.

1922년 4월 5일 평양지방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구형받고 동년 4월 19일에 징역 13년형으로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후에는 다시 만주로 건너가 항일투쟁을 계속하였다. 1955년 7월 서거하였고 1968년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고, 그의 장남 주성수는 기흥읍 신갈리 46-10번지에 거주하고 있다.

〈참고: 독립운동공훈록 제4권〉, 금병윤

주영환(朱榮煥)

용인군수(龍仁郡守). 1914년 4월 1일 부(府), 군(郡), 면(面)의 통폐합에 따라 양지군과 용인군이 합쳐진 후 최초로 임명된 용인군수가 되었다.

〈참고: 읍지, 용인군 시사년표〉, 박상돈

주항도(朱恒道)

〈생거급제〉 효종원년(1650)~? 자는 여구(汝久), 본관은 능성(綾城), 득일(得一)의 아들로 양지에서 출생, 숙종 8년(1682) 임술증광문과(壬戌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고, 관위(官位)는 현감(縣監)에 이르렀다.

〈참고: 용인군지 고사대전〉, 박상돈

지인중(智仁仲)

이명(異名)은 지찬식(智燦植). 1922년 12월 21일 평북 의주에서 출생하였다.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하여 항일활동을 하였다. 1963년 대통령표창 애족장을 받았다. 수지면 풍덕천리 700-1 현대아파트 아동 101-311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참고: 독립유공자공훈록 제5권〉, 이인영

진 화(陳 晔)

생몰년 미상. 묘, 남사면 원암리, 고려 신종. 희종때의 문신. 본관은 여양(驪陽: 지금의 홍성), 호는 매호(梅湖), 고려 인종조. 이자겸의 난을 토벌한 공로로 대장군을 지낸 여양군 총후(寵厚)의 증손이며, 정중부(鄭仲夫)의 난때 문신을 보호해 주었던 참지정사(參知政事). 판병부사(判兵部事) 준(俊)의 손자이고 병부상서 광수(光修)의 아들이며, 식(湜), 온(溫)의 아우로서 훈벌(勳閥)가문의 명망있는 집안에서 출생했다.

출생년도는 기록에 없으나 그의 문집에 있는 매호공 소전(梅湖公小傳)에 의하면 1200(신종 3)에 아직 혼인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대략 명종 9,10년(1179~1180)경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어려서부터 글재주가 있었고 명종이 신하들에게 소장팔경(瀟湘八景)에 관한 시를 짓도록 하였을때 어린 나이로 장편을 지어 이인로(李仁老)와 더불어 절창이라는 평을 받았다.

1198년(고려 신종 원년) 사마시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1200년(신종 3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다음해 내시(內侍)에 보직되고 1209년(희종 5) 학정(學正)으로 전직하였으며 1212년(강종 1)에 제과시험(制科試驗)에 참여하여 조서(詔書)를 짓는 일을 맡아 보았다. 1213년(강종 2년)에는 설화(舌禍)로 벼슬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내직인 한림원(翰林苑)에 들어갔다. 1215년(고종 2년)에 관각제공(館閣諸公)에게 부시(賦詩) 40여 운(韻)을 시험하였는데 이규보(李圭報)가 수석을 차지하고 선생은 차석이었으나, 선생은 이규보보다는 10여년이 더 어렸고, 관위도 그에 미치지 못했던 때였다.

서장관(書狀官)으로 금나라에 다녀온 뒤에 옥당으로 옮겨져 지제고(知制誥)를 겸하였고 정언(正言)에서 보궐(補闕)을 거쳐 우사간이 되었다가 부도덕한 현실을 추종하는 무리들과 대립하여 고종 2년(1215)이후 외직인 지공주사(知公州事)에 보직되었다가 재직중에 별세하였는바 이때의 세수(歲壽)는 40대 또는 50대 초반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동야승의 해동잡록편에 이르기를 「진화의 7언장구(七言長句)」는 호방하고 깨끗하고 건장하고 우뚝하며 기이한 체를 얻었으니 모두 고금의 절창으로 후일의 작가는 쉬 따를 수 없다」고 평하였고, 견한잡록에는 「이규보와 진화는 문장이 한때에 떨쳤다. 한림 별곡(翰林別曲)에 이른바 이정언(李正言)과 진한림(陳翰林)의 쌍운(雙韻)에 주필(走筆)하는 것이라 함은 곧 이규보와 진화를 말함이니 두 사람이 빨리 짓는 것으로 명성을 날

렸다. 이규보는 벼슬이 태보평장사(太保平章事) 진화는 우사간(右司諫)에 이르렀으나 연세의 많고 적음은 알 수 없다」고 하여 당대에 이 두사람이 쌍벽을 이루었던 문사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중 진화선생은 낙운성시와 주필로 이규보와 대등한 위치에서 이름을 같이한 시인이었다.

선생의 시는 현재 59수가 전하고 있는데 그중 무신의 난 이후의 피폐한 농촌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도원가(桃源歌)가 특히 유명하며 금나라에 사신으로 가면서 지은 사금통주구일(使金通州九日), 봉사입금(奉使入金) 등의 시도 절창이라고 한다.

그의 시는 관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시와 자연을 소재로 한 정감을 표현하는 시로 나뉘는데 대개 산수, 전원을 청담(淸談)하게 표출하였다는 평을 얻고 있다.

조선시대의 허균(許筠)은 그의 시를 《맑고 굳세어 율을만 하다》고 평하였고, 백운 이규보는 《그의 시는 옥처럼 맑아 세속의 눈을 얼음보다 더 시원하게 풀어주며, 죽은이를 살려내어 서로 비교한다면 그대와 이백(李白), 두보(杜甫)중 누가 더 훌륭하겠는가》라고 하여 선생의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음을 극찬하고 있다. 선생 스스로도 청나라를 위주로 시를 쓴다고 한바 있는데 그의 시에 대한 평가는 “청신(淸新)·청려(淸麗)”하다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

한마디로 매호(梅湖)라는 인물은 고려 무신집정기에 생존했던 문인으로서 한평생을 현실세계의 관인(官人)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전형적인 유인(儒人)이라 할 수 있는데, 당대 문호 이규보는 동국이상국집을 통해 「진군(陳君)은 나이젊고 기운 더욱 웅장하여 번개를 지휘하고 우뢰를 채찍질하며, 강호의 물을 들이마실 수 있을만큼 담이 크니 만리하늘 걸터타고 바닷물 마시는 무지개같은」 인물로 비유하고 「높은 누대 비록 백층이나 되지만 바로 진군이 올라앉음에 합당하지만 나같은 사람이야 땅에 눕기도 오히려 황송하다」고 평하여 선생의 인물됨을 매우 아꼈음을 느끼게 한다.

1784년(정조 8) 그의 후손 후(厚)가 《동문선》, 《동인시화》, 《기아》 등에서 시 작품을 찾아내어 매호유고(梅湖遺稿)를 간행하였으며, 이 책은 1973년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고려명현집(高麗明賢集) 2권에 영인되어 있다.

또 문교부 저작 고등학교 현행국사(국사편찬위원회 1중도서 연구개발위원회 발행) 교과서에 수록된 “고려후기 사회와 문화편(p.108)”의 《문학의 새경향》이란 단원속에도 이규보와 함께 공이 소개되고 있다.

또 매호집 서문에는 「송은 이미 쇠퇴하고 북방 오랑캐(여진)는 미개하니 앉아서 기다려라 문명의 아침은 동쪽(고려국)의 하늘을 빛내고자 한다.(西華已蕭索北寨尙昏蒙座待文明朝天東日欲紅)」하였고, 이 구절을 인용하여 교과서에서는 「문화적 자신감에 넘치는 시를 짓기도 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시에 능하고 사어(詞語)가 청려하여 묘경에 이르렀다고 후세의 석학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선생의 묘는 이곳 남사면 원암리에 전하고 있으나 아직 세간에 밝혀지지 않았다가 1992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알려져 용인군 향토유적 제31호로 지정 보호받게 되었다.

선생의 유택은 한때 실전되었던 것을 조선조 말엽 철종 연간에 후손 만산 동오(東五)가 여러가지 문헌고증을 통해 다시 찾은 후 고려한림진공지묘(高麗翰林陳公之墓)라 새기고 “상원 신유년”에 표석을 세웠다고 기록한 바, 이의 연대는 1861년 철종 12년에 해당된다.

〈참고 :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동야승, 인물대사전, 매호집, 고등학교 국사(上), 이성호《매호진화연구》, 이인영

채민석(採民錫)

용인군수. 1954년 3월 16일 제7대 용인군수로 부임하여 다음 달인 4월 15일 이임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현재까지 임명직 군수중 최단명 군수로 기록을 남겼다.

〈참고 : 용인군 시사년표〉, 박상돈

채유천(蔡有天)

〈출생〉? 효자. 효행이 남달리 뛰어나 향당의 품신으로 영조 19년 계해(1743)년에 효자로 명정(命旌)되었으나 현재 정문은 전하지 않는다.

〈참고 : 읍지〉, 이응준

채제공(蔡濟恭)

〈묘〉 숙종 46(1720)~정조 23(1799) 조선 문신. 정치가. 자는 백규(白規), 호는 변암(樊巖), 본관은 평강(平康), 지중추부사(知中樞府使), 응일(應一)의 아들로 1920년 4월

6일 태어났으며 1799년 정월 18일 70세의 수를 누리면서 많은 치적을 남긴 인물이다.

24세 되던 해인 1743년(영조 19)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여 수찬(修撰)과 교리(校理)등을 거쳤고, 영조 29년(1753)인 34세때에는 호서지방의 암행어사가 되어 조선초 때의 병역세법인 균역법(均役法)과 염세(鹽稅)의 실시에 따른 백성들의 여론을 조사해 올렸다. 그후에 동지사(冬至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와서 평안도 관찰사, 예조판서 등을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황룡이 지붕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는 태몽을 꾸고 그를 낳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하였으며 지혜가 뛰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고 자랐다. 체제공이 세살되던 해에 젓을 먹다가 젓꼭지를 깨물어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놀라 울면서 그후부터는 젓을 먹지 않았다고 하는 일화가 있으며, 18세 되던 해에는 앞마당의 노송(老松)을 보고 시를 지었는데

「옆으로 굽어 위로 자라지 못한 노송인들
어찌 위로 곧게 뻗을 마음이 없었겠는가?」

하였다.

사람들은 이 시를 보고 그가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사물을 대할 때 예지로 이해하였고, 속된 것과 사악한 것을 제일 싫어하므로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엄격하였으므로 김상로와 홍계희 등의 모함을 받기도 하였다. 그는 글시에도 뛰어나 수원 용주사에 있는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판을 썼고, 목판, 첩판, 석판으로 제조하여 봉안되고 있다.

영조 13년(1789)에 왕의 생부(生父)인 사도세자의 묘를 양주의 배봉산에서 화산능으로 천묘함에 따라 수원의 읍치(邑治)를 화성으로 개칭하고 유수부(留守府)로 승격되었을 때, 체제공은 초대 화성유수가 되었고 수원성역(水原城役)의 총리대신으로서 1794년 2월 28일 공사를 착공하여 2년반이 지난 1796년 9월 10일에 완공되었다. 그가 축성한 수원성의 방화수류정, 공심돈을 비롯한 성문, 누대 등의 미려함과 축성기술의 절묘함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의 용모는 단아하고 품위가 있어 “숙용정좌(肅容整坐)하여 담소하면 춘화지기(春和之氣)가 만좌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영조 38년(1762) 체제공이 마침 모친의 상을 당하여 휴가하고 있

었는데 이해 5월 13일 임금인 영조는 창덕궁에서 동궁 사도세자를 폐위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채제공은 상복을 입은채로 입궐하여 열흘동안이나 부복하여 동궁 폐위명을 철회해 줄 것을 상소하였다.

1776년 영조가 승하한 후 정조가 즉위하자 영조 부자를 이간하여 동궁(사도세자)을 죽게 했다는 죄로 이미 죽은 김상로 등의 죄를 바로잡은 다음 정조는 채제공을 입시게 하여 <선왕께서는 일찌기 과인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기를 “나와 네 아버 부자의 사이를 온전케 한 사람은 채제공 뿐이었느니라. 이는 진실로 나의 순신(純臣)이며 너의 충신이 나라”고 하셨다>는 영조의 유음(遺音)을 전해 주었다. 이후 채제공에 대한 정조의 신임은 날로 두터워졌으며, 채제공은 왕을 충실히 보필하였다.

이즈음 정조는 억울하게 죽은 부친 장헌세자의 죽음을 슬퍼한 나머지 시파(사도세자를 동정하는 파)와 자연히 가까워지고 반대파인 벽파를 멀리하게 되자 벽파 홍상범(洪相範)이 호위군관(護衛軍官)과 공모하여 정조를 시해하려고 한 사건이 있자 채제공은 창경궁 수궁대장(守宮大將)으로서 수차에 걸쳐 벽파의 음모를 적발하여 왕의 신변을 보호하였고, 1780년 홍국영의 세도정치가 무너진 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분야 등에 걸쳐 왕을 충실히 보필하여 안정을 기하는 한편, 그 이듬해 규장각 제작으로 서명공과 함께 국조보감(國朝寶鑑)을 편찬했다. 이에 예조판서, 평안도 병마절도사, 지중추부사 등을 역임하고 1788년 우의정을 거쳐 이듬해 좌의정에 오른 후 10여년 동안 재상을 지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전후하여 서양의 천주학이 등장하므로써 새로운 정치문제가 대두되었고, 시파와 벽파, 신서파(新西派)와 공서파(攻西派)가 대립하였다.

정조 8년(1784) 겨울 경성 남쪽의 명례동(明禮洞)에 있던 통사(通事) 김범우(金範禹)의 집에서는 주일예배를 갖고 이른바 조선 천주교회가 창설된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정조 즉위 이후로 선왕(英祖)의 유지를 받들어 탕평책을 승계하기 위하여 남인의 채제공을 중용하였기 때문에 그 여세로 남인들 사이에서 서학(서양 천주교)이 뿌리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남인(南人) 중에서도 일찌기 천주학(天主學)을 연구한 바 있는 안정복같은 사람은 그 교리(教理) 및 신앙생활이 봉건 조선시대에 있어서 통속적인 유교의 도덕적 기준과 그 관념에서 볼때 너무나도 차이가 있었고 또 그것이 당쟁에 있어서는 남인이 탄압받을 구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채제공 역시 이러한 입장에서 현실적으로는 천주학에 대해 반대입장에 서면서도 서학의 중심이 되는 인물들이 같은 계열(남인)의 쟁쟁한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난처한 입장이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천주교를 이해하려고 하였고 정조와 더불어 천주학의 교리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서 국민적 수준의 향상 또는 학문적인 선도를 꾀게 되면 사학(邪學)인 천주학은 자연히 없어질 것이라는 온건책을 폈다. 그러나 1788년 이경명(李景溟)이 천주학의 엄금을 주장하면서 “근래에 와서 백성들 사이에 유행되고 있는 천주학은 변괴요사하옵고 도하(都下)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전파되고 있는 실정이오니 그 피해가 클 것이옵니다”라고 아뢰었다. 이에 정조는 당시 우의정이던 채제공을 불러 의견을 물었다.

채제공은 “천당 지옥의 설은 촌민을 우혹(愚惑)하기 쉬우나 이를 금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며, 정조는 “이러한 사설(邪說)은 스스로 일어났다가 사라질 것(自起自滅)이다”라면서 문제는 유생들이 학문을 소홀히 하는 탓이라고 나무라고 각 지방 도신(道臣)들이 단속토록 하라고 조치하였다.

그런데 1791년에 이른바 <진산사건>이 일어났다. 그해 10월 16일 사헌부의 보고서를 보면 《천주학은 패리(悖理)로서 혹세 무민이 가장 심한 가운데 호남의 진산(지금의 금산)에 사는 진사 윤지충과 그의 외종형인 권상연 등은 조상의 제사를 행하지 않고 신주를 태워 없애는 등 윤리를 상하게 하고 패의(悖義)하여 읍졸이 가두었다》라고 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른바 신해사옥이 일어나 이들이 잡혀 죽었고 진산군(珍山郡)은 5년간 현(縣)으로 강등되었다. 채제공은 이때 공서파(攻西派)의 배격을 받아 파직되었다가 1793년 다시 영의정에 올랐다.

이로부터 채제공이 재상으로 있던 10여년간에는 정조의 관용과 채제공의 온건정책으로 더이상 천주교에 대한 박해는 확대되지 않았으며, 그의 집권중에는 비교적 당쟁이 완화되고 조선시대문화의 향상과 정치에 안정을 유지하였다.

한편 채제공은 경제문제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 바, 이는 호서지방의 암행어사로서 직접 체험한 정부의 조세부과 등에 대한 실정(實情)을 보았음으로 “일용물종(日用物種)의 물가가 예전의 5배가 되었으니 육의전 외에는 난전을 허하지 말라”는 등 경제정책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 보였다.

그는 80여세의 수를 누리다가 타계한 후 용인(지금의 용인읍 역북리 산 5번지)에 장

사지냈으며, 묘소는 경기도 문화재 기념물 제17호로 지정되었고, 그의 묘 하단에는 정조 대왕의 친필이라고 전해지는 퇴문비(誅文碑) 1좌가 전한다.

(참고: 한국인명대사전, 국조보감, 연려실기술), 노승식

천정근(千貞根)

용인군수. 1961년 7월 20일 제14대 용인군수로 부임하였다. 천정근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혁명정부에서 임명한 육군 전역 영관장교 출신으로 1962년 8월 2일 이임하였다.

이보다 앞서 1961년 4월 23일 제13대 용인군수로 부임했던 정운창(鄭運昌)은 동년 7월 20일까지 87일간 재임하다가 혁명 군사정부에서 전역장교를 군수로 임명함에 따라 퇴임하였다.

(참고: 군지), 박상돈

추 적(秋 適)

(문헌) 추계(秋溪) 추씨(일명 양지(陽智)추씨) 시조. 생몰년 미상. 고려 충렬왕때의 문신, 호는 노당(露堂), 충렬왕 초 과거에 급제하여 안동서기(安東書記), 직사관(直史館)을 거쳐 좌사간(左司諫)에 올랐다.

1298년(충렬왕 24) 환관 황석량(黃石良)이 권세를 이용, 자신의 고향인 합덕부곡(合德部曲: 지금의 충청남도 당진의 합덕읍)을 현(縣)으로 승격시키려고 할때 그 서명을 거부하자 황석량의 참소로 순마소(巡馬所)에 투옥되었다. 뒤에 풀려나와 시랑으로서 북제 용주(龍州)의 수령을 역임하였다.

충렬왕 말년 안향(安珦)에 의하여 발탁되어 이성(李晟), 최원충(崔元冲)과 함께 7품 이하의 관리. 혹은 생원들에 대한 유학교육을 담당하였으며, 민부상서(民部尙書), 예문관 제학에 이르러 치사(致仕)한 후 양지 추계로 낙향, 은거하면서 추계 추씨의 시조가 되었다. 이때 그는 유생이나 관원에 대한 유학교육을 실시한 교육자적 경험을 바탕으로 양서인 명심보감(明心寶鑑)의 저술에 힘썼으며, 19편의 명심보감초(抄)를 완성하였다.

이 책은 고려시대 때 어린이들의 학습을 위하여 중국 고전서에서 선현들의 금언(金言), 명구(名句)를 편집하여 만든 책으로 목판본과 석판본등 10여종이 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래 이 책은 명나라 범립본(范立本)이 편찬한 것이라고 하나, 범립본의

명심보감은 고려시대 어린 학생들에게 읽히고 이해시키기에 어려운 점이 많고 당시대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점 등이 있어 추적은 주로 한문 초학자가 천자문을 배운 다음 동몽선습(童蒙先習)과 함께 기초과정에서의 교양과 수련을 위한 내용으로 저술하였으므로 중국 범입본과는 내용 구성이 다른 독립적인 것이라는 것이 추계추씨 후손들의 주장이다.

이 책에서의 “명심”이란 명륜(明倫), 명도(明道)와 같이 마음을 밝게 한다는 뜻이며, “보감”은 보물과 같은 교본(거울)이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추적 이후에 내용을 증보한 여러 이본이 생겼으나 고려말 조선초 이후 가정과 서당에서 기본 교재로 널리 쓰였음을 물론이려니와 현대에 이르러서도 교양서적중 빼놓을 수 없는 필독서로 손꼽히고 있다.

용인(양지, 추계)을 관향으로 한 성씨중 추계 추씨의 시조인 추적과 함께 불후의 명저인 명심보감이 저술된 작품의 산실이 우리 고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직까지도 잊고 살아온 것 같다.

(참고: 추계추씨 문중 증언, 한국민족대백과, 한국인명대사전), 금병윤

최국만(崔國萬)

항일의병장 정주원의 부하로 양지군 남면 사동(지금의 내사면 남곡리)에 거주하였다. 당년51세의 나이로 의병활동을 수행하던중 1908년 12월 23일 평택군 남면 월정리 양석환의 집에서 군자금을 징취하였다가 탐지되어 둔포 순사와 헌병대 합동수색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참고: 충남경수 제1159호), 이인영

최규서(崔奎瑞)

(출생)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해주(海州)이다. 자는 문숙(文叔)이며 호는 간재(艮齋), 소릉(少陵), 파릉(巴陵)이다. 삼당시인으로 손꼽히는 경창(慶昌)의 현손이며, 현감 석유(碩儒)의 아들이다.

1669년(현종 10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1680년(숙종 6)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출사하였다. 뛰어난 재주로 시명(時名)을 얻어 언관이 되었다. 정언으로 있을때 “서복인을

통청(通淸)하라”는 왕의 하교에 맞서 “인문(人文)이 황폐하고 가합자(可合者)가 없다”는 논지로 상소를 올려 논객의 면모를 보였다. 또한 서인이 노소로 갈렸을 때 나양좌(羅良佐)를 옹호하는 등 소론에 가담하였다. 1685년 지평(持平)에 올랐고 이어서 이조좌랑, 수찬, 교리 등을 역임하였다. 이때도 최석정(崔錫鼎)의 파직을 변호하는 등 소론의 소장으로서 활약하였다. 1689년 대사간이 되었는데 이듬해 남인에 맞서 회반 장씨의 왕비 책봉을 반대하기도 하였다. 그뒤 1694년 외직으로 전라도관찰사로 나갔으며 이어 강화유수를 역임하고 주청부사(奏請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오기도 하면서 부제학, 형조, 예조판서, 대제학 등 현직(顯職)을 누렸다. 1711년 소론의 최석정 등이 삭탈관직되고 1716년 병신처분(丙申處分)으로 소론이 실세를 거듭하자 지중추부사 등의 관직을 사퇴하고 어머니의 병을 이유로 고향인 광주로 내려갔다. 이때 그는 많은 상소를 올린 것으로 유명하다.

1721년(경종 1) 소론이 득세하자 소론의 영수로서 우의정에 올랐고 1723년에는 영의정이 되었다. 이때 노론들이 연잉군(延昞君)의 대리청정을 추진할 때 이에 맞서 소론정권의 주역을 맡았으나, 김일경(金一鏡) 등이 신임사화를 일으킬 때 완소(緩少)로 온건하게 대처하였고, 이어 치사(致仕)를 빌어 봉조하(奉朝賀)를 받고 일선에서 물러나 성묘를 핑계대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하여 1724(영조즉위년) 노론이 집권하였을 때에도 무사하였다.

1728년(영조 4) 이인좌(李麟佐) 등이 밀풍군(密風君) 탄(坦)을 추대한 무신난이 일어날 때 용인에 있으면서 이 정보를 입수하고는 80세의 노구를 이끌고 맨먼저 조정으로 달려와 이를 알린 다음 ‘역정보고의(逆情布告議)’라는 토난책(討難策)을 건의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원옥(冤獄)이 없을 것을 당부하여 완소계열을 보호하려고 하였다. 난이 평정된 뒤 ‘일사부정(一絲扶鼎)’이라는 영조의 어필이 내려졌고 이어 공신에 녹훈하려고 하자 이를 거절하였다. 그는 당인(黨人)의 중심이었으나 온건하게 대처하였고, 지방관으로 나갔을 때에는 많은 선정을 베풀었다. 특히 전라도 감사로 있을 때 선정으로 이름이나 사람들이 부서한(簿書閑: 관청 문서가 한가하다), 공방한(工房閑: 아전들이 한가하다), 기악한(妓樂閑: 기생과 풍악이 한가하다)의 삼한(三閑)이라 불렸다고 한다.

영조의 묘정에 배향되었고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그의 시문집으로 남겨진 것은 《간재집(艮齋集)》이 있으며, 묘소는 현재 용인군 이동면 어머리에 위치해 있다.

(참고: 숙종실록, 경종실록, 영조실록, 국조방자, 남정일록), 최희면

최노침(崔魯瞻)

용인현령(龍仁縣令). 인조 11년(1633) 7월에 용인현령으로 도입하였으나 같은해 친상을 당하여 사임하였다. 조선시대의 모든 관원은 상중에는 원칙적으로 벼슬을 못하게 하였으며, 상고(喪故)로 벼슬에서 물러났던 사람을 탈상(脫喪)후에 다시 불러 임명하는 것을 결복서용(闕服叙用)이라 하였다.

최노침은 용인·양지 두 현의 수령중 상중 사임한 최초의 현령으로 기록을 남겼다. 그의 묘는 기흥읍 공서리에 있다.

〈참고: 용인군 시사년표〉, 박상돈

최내길(崔來吉)

〈묘〉 선조 18년(1583)~인조 27년(1694) 조선 문신. 자는 자대(子大), 호는 이재(頤齋), 본관은 전주 유경(有慶)의 8대손. 영흥부사(永興府使) 기남(起南)의 아들. 선조 39년(1606),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광해군 3년(1611)에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을과로 급제한 후 승문원(承文院)에 등용되었다.

이어 전적(典籍), 직강(直講), 사예(司藝)를 역임하였다. 광해군 14년(1623),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분충찬모정사공신(奮忠贊謨靖社功臣) 3등이 되었다. 이어 장약원정(掌藥院正)을 거쳐 예조참의(禮曹參議)에 올랐으며, 인조 2년(1624) 이괄(李适)의 난 때 공주로 왕을 호종(扈從)한 후 완천군(完川君)으로 피봉되었다.

그후 한성부 좌·우윤(左·右尹)을 거쳐 형조와 공조참판을 거쳤다. 천성이 착하고 어지러워 장흥부사로 있을때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이 그의 덕을 기려 송덕비(頌德碑)를 세웠다. 이어 청주(淸州)와 능주(綾州) 목사(牧使)를 지냈다. 인조 14년(1636)에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이때 다시 왕을 남한산성에 호종하였으며 도총관(都摠官)을 거쳐 인조 26년 경기관찰사를 지낸후 공조판서(工曹判書)가 되었다. 인조 27년(1649), 향년 67세를 일기로 수를 마치니 영의정에 추증되고 완천부원군(完川府院君)에 추봉(追封)되었다. 그의 묘는 기흥읍 고매리 산38번지에 있다.

〈참고: 전주최씨 세보, 행장기〉, 이인영

최덕린(崔德麟)

〈효자. 묘〉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준경(峻卿), 한성부윤(漢城府尹) 사위(士威)의 6세손, 배천군수(白川郡守) 사립의 아들. 벼슬은 전함사별좌를 지냈으며 지효(至孝)의 가

문에서 출생. 어려서부터 봉공의 예를 다하였다. 그의 묘는 남사면 완장리에 있다.

〈참고 : 전주최씨 족보〉, 박상돈

최덕순(崔德詢)

〈묘·효자〉 조선 인조때 사람.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탁경(卓卿), 한성부윤 사위의 6세손. 배천군수 사립의 아들. 효행을 대로 이어 온 가문에서 출생, 백형(白兄) 덕린(德麟)과 함께 부모 봉양에 정성을 다하였다. 조정에서는 효행을 가상히 여겨 누차 등용하려 하였으나 부모를 섬기는 일에 소홀할 것을 염려하여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왕의 특지로 6품직을 보임받은 후 양천군수를 제배하였으며 후에 충주판관, 가평군수를 역임하였다. 그는 임지에 부임할 때마다 필마로 부임하여 백성을 구휼하고 송사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병기를 수리하여 유사시에 대비하였다. 이에 병자호란등 8년간의 병란에도 그가 부임하는 지역은 적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효종때 효행을 기려 효자정문을 내렸다. 묘는 남사면 완장리에 있다.

〈참고 : 전주최씨 족보, 시흥군지〉, 금병윤

최만상(崔萬尙)

양지현감(陽智縣監). 숙종 38년(1713) 2월에 도입하였으나 동년 5월 재임중 관아에서 병사하였다. 관아에서 재임중 병사한 현감으로 최초의 기록을 남겼다. 격무로 순직한 것인지 아니면 기타 신병으로 병사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관내 영감중 현직에서 병사한 것은 그가 최초의 인물이다.

〈참고 : 용인군 시사년표〉, 노승식

최사강(崔士康)

〈묘〉 고려 우왕 11(1385)~조선 세종 25(1443) 조선 문신. 자는 안국(安國), 시호는 경절(敬節), 본관은 전주, 의정부사(議政府事) 유경(有慶)의 아들이다. 그의 부친이 공주목사로 있을때 관사에서 출생하였으며, 1393년 계유에 입학하여 중백부(仲伯夫)에게서 배웠는데 날마다 수십자를 외우니 그의 총명이 지나치므로 과정을 정해 놓고 그 이상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였다. 15세때 관례를 올렸고, 17세에 전주강씨와 결혼하였으며 1406년 춘정 변계량(卞季良)과 청계산(淸溪山) 막계에서 장수강학하였다. 1410년 조정

에서 관직을 내렸으나 나아가지 않았다가 이듬해 음보로서 교서관(敎書官)에 서용된 후 여러 관직을 거쳐 1416년에는 통훈대부로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가 되었다가 승정원 우부대언(右副代言)과 좌부대언을 거쳐 세종2년인 1420년에는 경기관찰사와 개성, 강화유수를 지냈으며 병마수군절도사(兵馬水軍節度使)등을 거쳐 병조참판이 되었다.

그는 출입과 영송(迎送)과 진퇴와 음배(揖拜)의 절차를 확정하여 조정의 기강을 바로 잡았고, 주청하여 말하기를 아들이 어머니를 신하로 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세종의 외할머니가 몰리어 관비(官婢)가 되었음을 지적하는 한편, 상소를 올려 말하기를 “미연에서 방지하는 것은 나라의 좋은 방책이요, 권선징악하는 것은 정치의 수단입니다. 양영대군에게 벼슬을 주고 땅을 주는 것은 비록 우애의 지극한 정이라고 하였으나 종사를 위해서는 불편한 곳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홍문관 제학이 되었을 때에는 도(都), 부(府), 읍(邑)을 통솔하는 제도와 유학을 숭상하고 5례(五禮)의 절차를 진언하여 시행케 하였으며, 정현대부겸 호위청제조가 되어 용진과 풍천 두곳에 성을 쌓도록 하였다. 또 곤장치는 법도를 없이 하고자 하였으며, 뇌물을 엄하게 금하였는데 유중(柳仲)의 옥사를 판결하고 진언하여 수령들의 비양심적인 폐단을 단속토록 하고 평양성을 보수하는 한편 생원과 진사의 좌석과 학규의 제정, 조흔 금지등 사회적 폐단과 부조리를 바로 잡으려는데 많은 착상과 공헌을 했던 인물로서 평가된다.

딸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성령군(誠寧君)에게, 하나는 금성군(錦城君)에게 출가시켰으며, 세종 25년(1443) 세상을 뜨자 용인현 자봉산 선산아래에 장례를 지냈으니 지금의 기흥읍 공세리이다.

〈참고 : 한국인물대사전, 경절공행장기〉, 이인영

최사립(崔斯立)

〈묘, 효자〉 연산군 11(1505)~? 본관은 전주 한성부윤 사위의 5세손. 첩지중추부사 결(潔)의 아들. 가세가 곤궁하였으나 송진으로 불을 밝히며 경서를 탐독하였고 향시 독서로 소일하여 사림의 존경을 받았다. 특히 소학(小學)을 행의의 근본으로 삼아 부모 공경에 힘썼다. 부친이 와석하자 한겨울에 갈화탕(葛花湯)이 먹고 싶다고 하며 사립이 수십일을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감동하였음인지 집안에 갈화가 만개하여 마침내 부친의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 모친상을 당해서는 조석으로 호곡 성묘하기를 삼년상을 마칠 때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중종 30년(1535) 경기도 관찰사 윤은필(尹殷弼)이 장계하

여 표정(表旌)할 것을 청하였고, 선조 7년(1574) 유신들의 건백(建白)에 따라 이조참의에 추증되고 정려(旌閭)의 은전이 내렸다. 벼슬은 음직으로 배천군수(白川郡守)를 역임하였으며 시에 능하였다.

대인(待人)이란 유시가 전한다.

천수문(天壽門) 앞의 버들은
하늘로 나는 듯 흐드러지는데
행어나 고인 돌아올까
슬병차고 기다리네.
장정(長亭)에서 해지도록
눈 빠지게 기다려도
지나치는 길손만이
오고 갈 뿐이로다.

이 시는 생전에 술을 유난히 즐기던 부친을 그리며 지은 시라고 하는데 이에서 성효(誠孝)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다. 그의 묘는 남사면 완장리에 있다.

(참고: 경기읍지, 전주췌씨 족보), 이인영

최사용(崔士庸)

〈묘〉?~단종원년(1453). 조선 문신. 자는 관중, 본관은 전주, 유경(有慶)의 다섯째 아들. 어려서 친분이 단아하고 기상이 맑았으며 검소하고 부지런하였다. 입학하여 학력이 일진하매 널리보고 오래 기억하였으며 물건을 가려서 상대하였다. 태종 13년(1413) 부친의 상을 당하매 삭망으로 성묘하되 풍우에도 변함이 없었다. 세종원년(1419)에 상의원 직장(直長)이 되고 경자년(1420)에는 실록청 당랑(堂郎)으로 뽑히어 시장원으로 들어간 후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를 거쳐 송화현감으로 나아감에 먼저 교육에 힘썼으며, 신천고을과 익산에서 선치(善治)하여 록피(鹿皮)를 은사(恩賜)받았다.

그후 사헌부 감찰, 사복시정 병조와 형조 좌랑, 사헌부 집의(執義)를 역임하였는데 이때 조원(曹元)이라는 사람이 토지에 관한 송사를 자기 고을의 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여러 달이 지나도록 판결하여 주지 않자 그는 “임금이 어두어 이러한 무리로 수령을 삼았다”고 한 말이 나라에 알려져 그 죄를 다스리려고 하니, 이때 사용이 간하기를 “비록

말이 불손하기는 하나 관원이 송사를 지체함을 분해한 것이지 임금을 원망한 뜻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임금도 최사용의 말이 옳다고 하였다. 또 임금의 총애를 받는 궁녀가 정치에 간섭함으로 이를 임금에게 직언하여 바람직하지 못함을 지적하자 임금은 “나이가 어려서 그러하니 장성하면 그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곧 그를 멀리 하였다. 사용은 또 ”관리가 요행히 승진하기만을 바라는 것은 국가의 기강을 해치는 것이 되기 쉬우며, 재능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등용하는 것은 나라에서 사직을 중히 여기는 도리가 아니라” 주장하였다. 그후 다시 청송부사(淸松府使)와 밀양부사를 거쳐 경술년(1430)에는 첨지중추부사로 1432년에는 상주목사가 되었다가 과만으로 돌아오는 날에 백성들이 길을 막고 머물러 달라고 하니 경상감사 이맹장이 나라에 보고하기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성에서 우리나라지 앓았다면 사람이 감동함이 이같으랴〉고 하였다. 1453년 하세하니 용인현 자봉산 선영아래 장례하니 지금의 기흥읍 공세리이다.

(참고: 행장기, 전주최씨 세보), 이인영

최사위(崔士威)

〈묘〉 고려 공민왕 11(1362)~세종 32(1450) 러말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 대사헌 유경(有慶)의 장남으로 출생. 러말에 입사(入仕)하여 중랑장(中郎將)에 이르렀으나 1389년 부친 유경이 낙향함에 따라 관직을 버리고 함께 낙향하였다가 태조 2년(393) 다시 벼슬길에 나가 도관좌랑(都官佐郎), 사헌부 지평(持平), 사간원(司諫院) 좌윤(左尹), 병조참의(參議)를 역임하였다. 1404년 안변부사 조사의(趙事義)가 난을 일으키자 김우(金宇), 이순(李淳) 등과 함께 출동하여 평정하였다. 1404년 2월 풍해도(豊海道: 黃海道) 관찰사로 있을때 태종이 친관(親觀)하는 군사조련에 군무를 정연(整然)이 하여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하자 태종은 관대 일령(一領)을 하사하였다.

태종 5년 을유(1405) 5월에는 우군동지총제자(右軍同知總制使)가 되어 천추사(千秋使)로 북경을 다녀왔다. 또 세종 6년(1424)에는 오랑개가 북경을 침범하자 김계지(金繼之)와 함께 출정(出征)하여 이를 대파하였고 이에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승차하여 1434년과 1437년 2회에 걸쳐 한성판윤(漢城判尹)을 역임하였고 1441년에는 판한성부사(判漢城府使)로 치사(致仕)한 후 과천 막계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1449년 졸(卒)하니 수 88세였다.

묘는 선영인 용인현 자봉산(지금의 기흥읍 공세리) 사패지에 묻혔다.

〈참고: 판윤공 약사, 조선왕조실록〉, 이인영

최상근(崔相根)

3.1만세 주동. 생몰 1891.4.28~1943.11.17 용인군 원삼면 좌항리(佐恒里) 사람이다. 3.1 운동이 일어나자 황경준, 안명옥, 김은수 등과 이 지역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기미년 3월 21일 주민 2백여명을 구합, 원삼면 사무소 앞에 모여 독립만세를 주도한 죄로 3월 25일 왜경에 체포되었다.

그후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았고 7월 1일 지방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되어 다시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어 1년여의 옥로를 치렀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독립유공자공훈록(국가보훈처)〉, 노승식

최석두(崔錫斗)

용인현령. 불망비. 구성면 마북리. 현령 최석두는 1885년(고종 22) 12월 20일 용인현령으로 도입. 다음해인 1886년 10월 15일까지 재임하면서 선정을 베풀어 고을백성들이 불망비를 세웠다. 마북리 용화전에 위치한 비명(碑銘)에 懸命 崔公錫斗永世 不忘碑라 쓰고 〈청강한 마음가짐으로/송사는 강직하고 군세게 결정하고/봉록을 털어내며 장부를 검색하여/운영비를 갚아서 민폐를 막았네(持心靑簡決訟剛毅 捐凜簿劍 報營防幣)라 적었다. 비는 무자년(1888) 4월에 세웠다.

〈참고: 용인군시사년표, 불망비〉, 이용준

최선민(崔善敏)

〈묘〉 조선 문종때 문신. 본관은 전주, 판서 조(肇)의 아들.

문종 2년(1452) 형조도관좌랑(刑曹都干佐郎)을 거쳐 工曹佐郎, 이조참의(吏曹參議), 함경관찰사겸 순찰사 등을 지냈다. 그의 묘는 남사면 완장리에 있다.

〈참고: 전주최씨 세보〉, 박상돈

최 씨(崔氏)

〈열부, 비〉 본관은 강화. 이선량(李善養)의 처이다. 그의 남편이 역질로 샷자리에 누어 위독하였다. 갖가지 약과 비방으로 간병하였으나 차도가 없었다. 산신에 기도하고 피접도 해 보았지만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운명 직전에 이르렀다.

이때 최씨는 단지하여 수혈하였음에도 마침내 운명하였다. 친척과 이웃이 모여 시신을 거둘때 최씨는 남편이 사용하던 허리끈을 몸에 간직한 후 장례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절차를 끝마쳤다. 마침내 장삿날이 다가왔을때 최씨는 미리 간직했던 남편의 허리끈으로 목을 매어 남편의 뒤를 따랐다. 그의 손녀가 진주 유씨의 문중으로 출가하여 반정공신 유순정의 9대손 유수(柳綏)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때에 와서야 그 열행을 조정에 품신하여 열녀로 명정되었다. 최씨 묘하에 있는 정려비는 인조신사년(1641)에 그의 외종손인 유수가 세운 것이다.

〈참고: 내고장의 일〉, 이용준

최언영(崔彦英)

〈묘〉 생몰미상. 조선 무신. 본관은 전주. 목사 항(沆)의 아들. 중종 39(1544)년 경상우도수군절도사(慶尙右道水軍節度使)가 되었으나 곧 교체되었다.

명종 9년(1544) 함경도병마우후(咸鏡道兵馬虞侯)를 거쳐 명종 13년(1563) 인산첨사(麟山僉使)에 이르렀다. 그의 묘는 남사면 완장리에 있다.

〈참고: 전주최씨 세보, 묘비〉, 박상돈

최영철(崔英喆)

항일독립군. 1924년 1월 4일 용인에서 출생했으며 이명(異名)은 영철(永喆)이다. 학병으로 일본군에 강제 징집되었던 선생은 1944년 중국 호남성(湖南省) 장사(長砂)부근 전선에서 탈출하여 중국 중앙군 제99군 산하로 들어가 유격대에 가담, 대일항전을 수행했으며 박효근(朴孝根)등 3명의 동지와 함께 대적(對敵) 선전공작(宣傳工作)을 담당하였다.

그후 한국 광복군(光復軍) 제1지구대 제2지대에 편입하여 계속 전방 공작임무를 수

행하였다. 1944년말을 전후하여 일본군 소속 각 전선에서는 백여명의 청년들이 탈출하여 왔는데 그는 이 당시 일본군 탈출병의 일원으로 사선을 넘었다.

당시 현지의 중국군 지휘관은 재량에 따라 한국적의 사병을 역이용(逆利用), 그들 나름대로 대일본 공작 임무를 수행시키고 있었는 바 특히 이들이 제공하는 지형, 지물, 군사배치상황등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중국군은 일본군의 수개(數個)소 부대를 섬멸하거나 다수의 포로를 잡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광복군 사령부의 이병곤(李炳坤)은 중국군 9전구(九戰區) 사령관인 설악(薛岳)에게 이들을 후방지역에 집결시켜 교육을 실시하게 할 것과 제9전지구를 단위로 한 광복군 편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자 설악 사령관은 이를 쾌히 수락하여 지금까지 탈출해 온 백여명의 인원과 향후 탈출해 올 한국 국적 장병 전원을 중국군 사령부 소재지인 계동(桂東)과 전방 지휘소 소재지인 강서성의 의춘(宜春)에 각각 집결토록 전 예하 부대에 지휘하는 한편 광복군 편성에 따르는 절차에 대하여 군사위원회에서 주선할 것을 승락하였다.

한편 현지 중국 각 부대에서 활동하던 인원의 후방집결은 대체적으로 완료되었으나 유양(劉陽) 주둔 양한명(梁漢明), 중장 지휘하에 제99군에서 활동하던 20여명의 한국적 탈출장병중 공작 기반을 구축한 이찬영(李燦英), 최영철(崔英喆)과 이경훈(李慶勳), 심응창(沈應昌) 및 왕릉기(王陵基)장군 휘하 신편 제15사에서 이준경(李駿卿), 한장석(韓長錫), 노재섭(盧在燮)의 6명은 소속 부대장의 진지한 요청에 의하여 현지 부대에 계속 잔류하면서 이들은 광복군 편성에 있어서도 지구대요원으로 활약하였다.

앞서 설악 사령관과 협의한 한국군 편성문제에 대하여 중국 군사위원회는 1945년 2월과 다음과 같은 요지를 광복군 총사령부로 통고해 왔다.

1. 제9전구(第九戰區)에 있는 한국인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광복군 제1지대 예하에 제3구대를 편성하라.
2. 구대 조직은 분대(分隊), 반(班)으로 편성하라.
3. 보급 지원은 중국 정부와 한국 임시정부간의 협약에 따라 전구장관사령부가 이를 전담한다.
4. 상당한 실력을 갖춘 중국 장교와 기술자 등을 파견하여 광복군의 작전 활동을 지원한다.

5. 파견 근무중인 이병곤 소교를 구대장 겸 지구책임자로 임명한다.

6. 동지 초모 및 우군의 작전 지원을 임무로 한다.

이상과 같은 지침에 따라 1945년 2월 15일을 기하여(제3지구대)가 창설되었으며, 이 때 지원체제는 다음과 같다.

구대장(區隊長) 이병곤(李炳坤)

제1지구대: 정운성, 나진근, 안용순, 최희룡, 이남진, 고창중 등 9명

제2지구대: 박효근, 이찬영, 최영철, 이경훈, 심용창 등 6명

제3지구대: 노재섭, 한장석 등 10명

이상의 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최영철은 9전구 광복군에서 크게 활약하였으며, 8.15해방과 더불어 전선에 파견되었던 대원들은 각기 현지에서 일본군의 무장해체를 위해 중국군에 협조하였고, 1945년 9월 강서성 풍성(豐城)에 집결, 1946년 3월 총사령부 명(命)에 의하여 한구(漢口)로 이동. 채원개 제1지대장 휘하에 들어가 5월 6일 한구를 출발, 선편으로 남경에 도착하고 이범석 장군 인솔하에 5월말 상해에서 승선, 6월초 인천에 도착하여 꿈에도 그리던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된다.

그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전선에 뛰어들어 묘향산 전투에서 중공군 포로 이지(李志)를 생포한 후 송석하(宋錫夏) 사단장에게 인계하였고, 미8군 정보처에 송치하므로써 한국전쟁에 중공군이 개입되었음을 입증하기도 한 최초의 인물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중공군 포로 이지는 유엔총회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중공군이 의용군만 뽑아서 한국전에 개입시킨게 아니고 강제모병으로 파병했다>는 사실을 증언케 하였다.

또한 2연대장으로써 북진을 계속하다가 개천(介川) 못미처 신흥동(新興洞)에서 김일성 전용 승용차를 노획, 평양승실전문학교에 전시했다가 이승만대통령에게 선사하였으며, 이박사는 후일 위커사령관의 미망인에게 준 바 있다.

생전에 용인에서 반공연맹 용인군 지부장,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등을 역임하였고, 광복회 경기·강원지부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참고: 독립운동사 6권, 김승학 독립운동사 하권, 독립유공자공훈록 5권, 장성규 용인라이프 1987-1호), 이인영

최옥명(崔玉明)

〈묘〉 생몰미상. 조선시대의 문신, 본관은 전주, 함종현령(含從縣令), 길주목사(吉宙牧使) 등을 거쳐 성종 24년(1493) 이산군수(理山郡守)를 지냈다.

묘는 남사면 완장리에 있다.

〈참고: 묘비, 전주최씨 세보〉, 박상돈

최옥순(崔玉筍)

〈묘〉 ?~미상. 조선시대 문신. 자는 청반(淸班). 본관은 전주. 관찰사 선민(善敏)의 아들. 성종 4년(1473) 충청도사(忠淸都事)를 거쳐 성종 12년(1481) 경차관(敬差官)으로 평안, 황해도를 순시하였다.

성종 14년(1483) 사복시판관(司僕侍判官)을 역임하고 예빈시첨정(禮賓寺僉正)으로 영안도(永安道)를 순시하였다. 이듬해 안성군수(安城郡守)를 거쳐 나주목사에 이르렀다. 그의 묘소는 남사면 완장리에 있다.

〈참고: 전주최씨 세보〉, 노승식

최옥호(崔玉浩)

〈묘〉 생몰미상. 조선시대 무신. 본관은 전주(全州), 관찰사 선민의 아들, 절충장군(折衝將軍)으로 첨지중추부사겸오위장(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에 이르렀다.

묘는 남사면 완장리 부친 선민의 묘소 아래에 있다.

〈참고: 묘비, 전주이씨 세보〉, 이인영

최유경(崔有慶)

〈묘, 사당〉 고려 충혜왕 복위 4년(1343)~조선 태종13(1413), 고려, 조선 문신. 자는 경지(慶之), 호는 죽정(竹亭), 본관은 전주(全州), 부친 감찰대부(監察大夫) 재(宰)와 모친 무안박씨 사이에서 출생. 어려서부터 총명이 뛰어나 부친으로부터 특히 사랑을 받았으며 가족 모두가 귀히 여겼다. 18세 되던 해인 공민왕10년(1360), 밀직사사 일선(一善) 김달상(金達祥)의 딸과 결혼하였고 이해 9월에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선인관직(宣

仁館直)이 되었고 공부산랑(工部散郎)을 거쳐 공민왕 21년(1371)에 민부산랑(民部散郎)에 이어 판도좌랑(判圖佐郎)을 지냈다. 이때 각 도에 염창을 두었으나 그 염분을 모두 세력있는 자들이 차지하였기 때문에 그는 곧 왕에게 글을 올려 폐단을 시정하여 본래의 염창에 귀속시켰다. 유경이 처음 대각(臺閣)에 들어갔을 때 내시 윤충좌(尹忠佐)가 임금의 사랑을 믿고 교만방자하여 불법을 많이 저질렀으나 헌부(憲府)에서도 어찌지 못하였으나 그가 부임하면서 왕에게 보고하여 내시의 작폐를 벌하니 내시 환관의 무리가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1376년에 군부총량이 되고 정사(1377)년에 삼도부원수(三道副元帥)가 되었는데 이때 이성계가 3남도원수(三南都元帥)로 있을때에 유경의 충의와 강직함을 알고 부원수로 천거하였다. 우왕 14년(1388) 5월에 왕명으로 군사를 일으켜 요동을 칠때 유경은 서북도안렴사(西北道按廉使)로서 운량사(運量使)가 되어 참전하였는데 우군도통사(右軍都統使) 이성계가 위화도(威化島)에서 회군(回軍)할때 온 조정이 이성계에게 붙었지만 오직 유경만이 이들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천(成川)으로 달려가서 왕에게 회군 사실을 고하고 왕을 따라 개경으로 돌아왔다. 공양왕 원년(1389)에 동지밀직사경 전법판서(典法判書)로 불렸으나 그는 세상을 바로잡지 못할 것을 짐작하고 물러가 청주(淸州)에 살며 탄식하기를 “큰 집이 쓰러지는데 하나의 받침대가 지탱하기 어렵다는 말이 어찌 금일의 왕조가 아니라, 나라의 일을 돌아보건대 답답할 뿐이다”고 하였다. 1392년 배극렴(裵克廉)등이 이태조(李太祖)를 추대하여 조선왕조를 세우고 이듬해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기로 하고 유경을 불러 상정도감(詳正都監)과 도성영축도감(都城營築都監)의 책임을 맡기려 하였으나 유경은 위화도에서 왕에게 고해바친 일로 응하지 않았으나 이태조는 친서를 내고 <사역충(死亦忠)이요 생역충(生亦忠)이라 하였고 진역충(進亦忠)이요 퇴역충(退亦忠)이라 하였으니 경은 충의지신(忠義之臣)임을 자부하거든 천의(天意)의 향배를 좇아 과인을 도와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받자 그는 마지못하여 성지(聖旨)를 받고 목은 이색에게 편지하기를 <천지가 뒤바뀌니 이것이 어느 세계인가 우리가 죽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지만 불행히도 고려조에 죽지 못하고 금일을 보게 되니 살아도 죽음만 같지 못하다. 정포은과 야은(冶隱)에게 죄인이 되었으니 살아 무슨 낯으로 대하리요>하며 <오열하면서 사양하지 못하고 관직에 나아간 후 한양성을 축성하였고 명나라 사은사, 중추원사, 경기관찰사, 한상판윤 등의 요직을 거쳤고 태종때 청백리로 록선되고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책록되었다.

태종13년 계사(1413) 6월 24일 71세를 일기로 졸하였고 8월 13일 용인현 구동(駒洞) 사패지 자봉산(紫鳳山) 을좌(乙坐)에 장사하니 곧 지금의 기흥읍 공세리이다.

부모에게 극진히 효하며 6년을 시묘하였고 조정에 선지 20여년에 사람들이 청(淸)하고 직(直)하다고 일컫는 것이 당세의 정평이었으니 이는 천품으로 얻은 것이다. 사후에 “기강을 펴고 버리를 다스리는 것을 평(平)이라 하고 마음이 능히 의(義)를 제(制)함을 도(度)”라 하는 뜻으로 시호를 내리기를 평도(平度)라 하였다.

〈참고 : 한국인명대사전, 평도공행장기, 묘갈〉, 이인영

최 조(崔 肇)

〈묘, 비〉 조선 문신. 본관은 전주. 한성판윤 사위(斯威)의 아들. 과천에서 우거. 형조판서를 지내고 이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관직에 나가지 않고 처사(處士)로 일컬어졌다. 아들 선민(善敏)은 이조참의, 함경관찰사를 지냈다. 묘는 남사면 완장리에 있다.

〈참고 : 전주최씨 세보, 경기인물지〉, 박상돈

최진립(崔震立)

〈문헌〉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경주. 자는 사건, 호는 잠와, 신보의 아들로 선조 1년(1568)년에 출생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아우 계종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1594년 무과에 올라 부장을 제수받았으나 병으로 사직하였고 1597년 정유재란때 결사대 수백명을 인솔하고 서생포의 적을 격멸한데 이어 권율과 함께 도산에서 대승하였다. 1636년 공주 영장이 되었는데 병자호란이 일어나 두어달만에 남한산성이 포위되자 감사 정세규가 군사를 거느리고 근왕(勤王)하면서 그가 나이많은 것을 보고 황백(黃柏)으로 대신하게 하니 강개하여 말하기를 「내가 늙어서 장수의 길을 감당할 수는 없지만 능히 갈 수는 있소」하고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따라가니 좌우에서 감동하였다.

용인의 협천에서 패전하였는데 그는 꼴꼴하게 서서 움직이지 않고 활을 쏘니 빛나는 것이 없었다. 화살이 다 되자 따르는 사람들을 돌아다보며 말하기를 「너희들은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 없다. 나는 여기서 한치도 떠나지 않고 죽을 것이니 너희들은 이 자리를 표시해 두라」하였는데 싸움이 끝난뒤에 여러 아들이 그곳에서 공의 시체를 찾았

는데 화살이 온몸에 맞아 고슴도치와 같았으나 얼굴은 살아있는 것 같았다.

1637년 병조판서에 추증되고 1647년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용인향토사료관 병자호란 기록화의 협천 전투도에 묘사되어 있다.

〈참고: 인물대사전, 잠와선생실기, 연려실기술〉, 이웅준

최창부(崔昌溥)

〈생거급제〉 고종 8년(1871)~? 본관은 해주(海州), 정석(定錫)의 아들. 고종 25년(1888) 무자별시문과(戊子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참고: 한국고사대전〉, 박상돈

최춘봉(崔春逢)

〈출생. 비〉 본관은 전주이며, 자는 영근(永根)이며 고종 병신생(1896)이다.

부모를 봉양함에 있어서는 지효극진하였다. 몸과 마음을 갖추어 부모 봉양하기를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일용물종과 부모의 입에 맞는 음식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그 장소의 멀고 가까움에 구애받는 일이 없었다.

모친이 노환으로 자리에 눕게 되자 약을 끊이는 일은 반드시 궁행하였으며 시탕하기에 진충갈력하였다. 그러나 효험이 없이 날로 병세가 위중해 감으로 오매불망 근심중에 신령이 선몽하여 귀한 약재를 얻도록 가르쳐주니 효험을 얻었다.

마침내 모친이 천수를 다하여 세상을 떠나니 춘봉은 멸성지정(滅性之情)으로 애통하였으며, 집으로부터 1리 떨어진 곳에 장례를 지낸후 조석으로 곡배(哭拜)하기를 삼년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이와같이 지극한 효행을 보고 향당이 칭송하여 비를 세우니 용인을 삼가리 궁촌에 전한다.

〈참고: 삼강행실록, 내교장의 열〉, 이웅준

최 항(崔 沆)

〈묘〉 생물미상. 본관은 전주, 관찰사 선민(善敏)의 손자, 관은 광주목사(廣州牧使)를 지냈다. 묘는 남사면 완장리에 있다.

〈참고: 묘비, 전주최씨 세보〉, 이인영

최 호(崔 灝)

〈출생〉 본관은 화순(和順). 충신 사재감주부(司宰鑑主簿) 최잠(崔潛)의 후손이며 자는 백인(伯仁), 호는 소암(素菴)이다. 영조 기사년(1749)에 용인에서 출생하였다. 유년시 절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부친이 위독할 때에는 변을 맛보아 가며 병세를 알아보고 구환하기를 성심으로 하였다. 그러나 천수를 다하여 운명하러 하자 단지수혈하여 수일간 수명을 연장시켰다.

또 모친의 병환에는 꿈중에 신인(神人)이 나타나서 영약의 처방으로 효험을 얻었으니 지극한 효성의 소치였다. 전후 거상에는 조석으로 곡묘하고 예와 법도에 따라 극진하게 봉사(奉祀)하니 사림이 모두 흠경하여 상소하였으므로 순조 임진(1820)년에 정려문이 내려졌다.

이 정려문은 후에 그의 선영인 안성군 원곡면 가천리로 옮겨져 충신 최잠의 정려문과 함께 전해지고 있다.

〈참고: 삼강행실록, 내고장의 열〉, 이웅준

한 구(韓 逵)

〈효자, 정려문〉 호는 학도당(學道堂), 홍무 병진년(1376)에 광주에서 출생하였다. 그가 5세 되던 해에 부친의 상을 당하여 편모 슬하에서 자랐으나 철이 들자마자 또 모친의 상을 당하여 부친의 묘와 합장한 후 6년 동안을 상복을 입은채 시묘살이를 하였다.

또 나물 밥에 몰마시며 향기로운 음식과 과일을 먹지 아니하고 몸소 제찬을 만들어 지성으로 봉사하였다. 그리고 사람과 더불어 말을 할 때에도 이가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상기를 마칠 때까지 한번도 집에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 지극한 효성은 일세의 귀감이 되었고 사림(士林)이 흠경하여 조정에 상소하였으므로 세종 28(1446)년 나라에서 정려문을 내리고 선군진사로 특선하였다. 또한 그의 행적이 삼강행실록과 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다. 정묘년(1447)에 하세하니 수 72세이며 광주군 상촌면에 신도비와 묘소가 있었으나 실전되었다. 원삼면 독성리 중대 마을에 정려문과 정려각이 함께 전하고 있다.

〈참고: 삼강행실록, 내고장의 열〉, 이웅준

한명윤(韓明胤)

〈출생, 묘〉 조선 중기(中期)인 1542년 부호군 이(頤)의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청주(淸州)이며 자는 회숙(晦叔)이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고 총명하여 1568년(선조 1) 사마시에 합격한 후 추천을 받아 연은전(延恩殿) 참봉(參奉)이 되었다. 1590년 영동현감으로 부임하여 치적을 쌓았으며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아 용전하므로 조정에서는 그 충성(忠誠)된 마음과 용기를 높이 사 품계를 상신 조방장(助防將)을 겸하게 하였다. 1593년 상주목사로 근무하며 방어사(防禦使)를 겸임하고 같은해 10월 왜적과의 싸움에서 전사하였다.

후에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2등에 오르고,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그의 고향 마을에 충신문(忠臣門)이 세워졌으며 구성면 보정리에 묘소가 있다.

〈참고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박상돈

한 씨(韓 氏)

〈열부〉 본관은 청주, 면제(綿齊) 김함의 5대손인 통덕랑 김익성(金益聖)의 처이다. 영조 신해(1731)에 부군이 득병하여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온갖 정성을 다하여 간병하였으나 끝내 운명의 시간을 맞이하매 한씨는 손가락을 잘라 피를 흘려 남편의 입에 흘려넣어 회생시켰다. 그러나 수일후 결국은 임종하고 말았다. 한씨 부인은 이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여인이 수태하지 못함은 부도(婦道)를 다하지 못함이다”라고 스스로 질책하고 부군의 뒤를 따라 순절(殉節)하니 정열을 칭송하는 소리가 일세에 드높았다. 6년 후인 영조 13년(1737)에 후손 김동현의 상소로 명정이 내려 열부로 표절되었다.

〈참고 : 삼강행실록, 내고장의 열〉, 이응준

홍 씨(洪 氏)

〈열부〉 본관은 남양, 조선 정종때 홍낙원(洪洛源)의 딸로 출생하였다.

과년하여 김집(金鑣)의 손자 상동(相東)에게 출가하였다. 불행히도 남편이 득병하여 자리에 누운지 3년여동안 일심초작(一心焦灼) 하루도 근심하고 애태우지 않은 날이 없었다. 지성이린 간병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상부하였으나 이 슬픔을 조금도 내색치 않고 늙은 시부모를 위안하고 진정시켰다. 망부를 장례함에 만에 하나도 소홀함이 없도록 시

신의 수의를 손수 마르고 꿰매어 입관을 마친후 장사 전날 약을 먹고 자진하여 같은날 부군과 함께 같은 혈(穴)에 묻혔다.

일부종사의 결의는 마음에 있다 하여 누구나 다 행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탁월한 열부의 행함을 도백이 전문하고 조정에 품신하여 현종원년 경자(1660)에 정려문이 내려지고 정려각이 세워지니 만고에 드문 일이라 하였다. 포곡면 전대리에 정려문이 전한다.

(참고: 삼강행실록, 내고장의 열), 이응준

황 씨(黃氏)

(열부) 본관은 상주(尙州), 부사(府使) 황택(黃鐸)의 딸이며 김치복의 아들인 통덕랑 김수로(金洙老)의 처이다.

황씨는 사주단자로 혼약을 맺었는데 김수로가 불행히도 요절하였다. 이의 부음을 들은 황씨는 생전에 한번도 본일이 없는 약혼자의 초상을 치르기 위하여 소복으로 샫가마를 타고 시택을 찾았다. 거상 3년동안 삼시에 상식을 올리고 3년 마지막 탈상 파제사를 지낸후 상다리에 목을 매어 자진하였다. 만고에 출중한 황씨의 열행이 자자하여 마침내 상께서 들으시고 명정하여 열부로 표절하니 순조 신묘년(1831)의 일이었다.

남사면 완장리 매능동에 정려각이 전해지고 있다.

(참고: 내고장의 열, 삼강행실록), 이응준

한영규(韓榮圭)

항일만세 주동. 생몰 1882. 9. 7~1954. 1. 10

용인군 내사면 남곡리에 살았다.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남곡리 밤나무골에서 김운식과 함께 주동이 되어 독립만세 시위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는 태극기를 앞세우고 남곡리에서 양지리(陽智里)까지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를 벌이다가 왜경에 체포되었다. 같은해 5월 1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언도 받고 경성복심법원과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각각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 고등법원판결문, 독립운동사 공훈록(국가보훈처)), 이인영

한용구(韓用龜)

〈묘〉 영조 23(1747)~순조 28(1828) 조선 문신. 초명은 용구(用九), 자는 계형(季亨), 호는 만오, 본관은 청주(淸州),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후유(後裕)의 아들. 영조 49(1773)년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1776년 주서(注書)가 되고 예조좌랑(禮曹佐郎), 응교(應敎)를 역임, 1796년 이조참의(吏曹參議)로 있다가 임금을 모독했다는 죄로 삭주(削州)에 유배되었으나 곧 풀려나왔다. 그후 대사간, 평안도관찰사를 지내고 1799년 진하겸 사은부사(進賀兼謝恩府使)로 청나라에 다녀와 1800년(순조 즉위) 예조판서에 승진, 이어 예조판서가 되었다. 1802년 전라도관찰사, 1805년 우의정에 승진하고 1876년 죄인 김달순(金達淳)을 탄핵하는 대신(臺臣)의 용어숙에 그와 영의정 서매수(徐邁修)를 공박하는 귀절이 있어 사직하고 낙향하였다. 1809년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진하겸 사은사(進賀兼謝恩府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와서 1811년 약원도제조(藥院都提調)를 겸했으며, 1812년 왕세자(王世子)가 책립되자 좌의정겸 세자부(世子傅)가 되었다. 1816년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고 1821년 영의정에 승진하여 효의왕후(孝懿王后)의 장례를 마친뒤 사직,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가 되었다. 시호는 익정(翼貞)이다. 그의 묘는 남사면 월곡마을 뒷산 입자좌에 있다.

〈참고 : 용인군지, 한국인물대백과〉, 금병윤

한진계(韓鎭槩)

〈생거급제〉 순조 14(1792)~? 자는 대림(大臨), 본관은 서원(西原), 치준(致駿)의 아들. 35세때인 현종 15년(1849) 기유식년문과(己酉式年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으나 향리에서 은둔,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참고 : 한국고사대사전, 용인군지〉, 박상돈

한진교(韓震敎)

〈생거급제〉 영조 4년(1728)~? 자는 사형(士亨), 본관은 청주(淸州), 시대(始大)의 아들. 31세때인 영조 35년(1759) 기묘알성시(己卯謁聖試) 병과(丙科)에 차하(次下)로 급제하였으나 은거하였다.

〈참고 : 용인군지, 한국고사대전〉, 박상돈

허 균(許筠)

〈묘〉 선조 2(1569)~광해군 10(1618)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양천, 자는 단보(端甫), 호는 교산(蛟山), 학산(鶴山), 성소(惺所), 백월거사(白月居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염(曄)의 아들. 난설현의 오빠가 된다. 5세때부터 글을 읽기 시작하여 9세때 시를 지을줄 알았다. 12세때 부친을 잃었으나 더욱 공부에 전념했으며 유성룡의 문하생이 되어 학문을 닦았다.

26세 때인 선조 27(1594)년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고 설서(說書)를 지냈고 1597년 에 문과중시(文科重試)에 장원하였다. 이듬해 황해도 도사(都事)가 되었는데 서울의 기생들을 끌어들이어 가까이 하였다는 무고를 받고 파직되었다가 춘추관기주관(春秋館記注官)과 형조좌랑을 지내고 1602년 사예(司藝)와 사복시정(司僕寺正)을 역임하였으며 이 해에 원접사 이정구(李廷龜)의 종사관이 되어 활약하였다.

1604년 수안군수(遂安郡守)로 부임하였다가 불교를 믿는다고 탄핵을 받아 또다시 벼슬을 물러났다. 1606년 명나라 사신 주지번(朱之蕃)을 영접하는 종사관이 되어 글재주와 넓은 학식으로 이름을 떨치고, 누이 난설현의 시를 주지번에게 보여 이를 중국에서 출판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공로로 삼척부사가 되었으나 여기서도 석달이 못되어 불상을 모시고 염불과 참선을 한다는 탄핵을 받아 물러났다.

1613년 계축옥사때 평소 친교가 있던 서류 출신의 서양갑(徐羊甲), 심우영(沈友英)이 처형당하자 한때 안전을 도모하여 대북과에 들었다. 1614년 천추사(千秋使)가 되어 중국에 다녀왔는데 그 이듬해에는 동지겸진주부사(冬至兼陳奏副使)로 중국에 다녀왔다. 이 두차례의 사행에서 많은 명나라 학자들과 사귀었으며 귀국할때 태평광기(太平廣記)를 비롯하여 많은 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중에는 천주교 기도문과 지도가 섞여 있었다고 한다.

1617년 좌참찬이 되었으며 폐모론을 주장하다가 폐모를 반대하던 영의정 기자현(奇自獻)과 사이가 벌어지고 기자현이 길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그 아들 기준격(奇俊格)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하여 허균의 죄상을 폭로하는 상소를 올렸으며 허균도 상소를 올려 변명하였다. 1618년 8월 남대문에 격문을 붙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허균의 심복 현응민(玄應旻)이 붙였다는 것이 탄로났으며 허균과 기준격을 대질 심문시킨 끝에 역적모의를 하였다 하여 허균은 그 동료와 함께 처형되었다.

그는 국문학사에서 우리나라 최초 소설인 <홍길동전>을 지은 작가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외에도 많은 저서를 남겼으나 대개는 전하지 않는다. 그의 묘소는 원삼면 맹리 능안마을에 있다.

(참고: 한국민족대백과, 용인군지), 노승식

허 봉(許 葑)

〈묘〉 명종 6(1551)~선조 21(1588) 조선 중기의 문신 자는 미숙(美叔), 호는 하곡(荷谷), 본관은 양천, 엽의 아들. 난설현의 오빠이자 균의 형. 유희춘(柳希春)의 문인. 선조 1년(1568) 친시문과(親試文科)에 병과로 급제, 이듬해 사가독서(賜暇讀書)하였으며 1574년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가서 기행문 하곡조천기(荷谷朝天記)를 썼다.

이듬해 이조좌랑이 되고 1577년 교리가 되었으며 1583년 창원부사를 역임하였다. 그는 김효원(金孝元)등과 동인의 선봉이 되어 서인들과 대립하였다. 1684년 이이(李珣)의 업무상 과실을 탄핵하였다가 종성에 유배되었고 이듬해 풀려났으나 정치에 뜻을 버리고 방랑하다가 38세의 나이로 금강산에서 죽었다.

조천기(朝天記)에서 그의 사상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바 뚜렷한 도통사상(道統思想)을 지니고 있었으며 특히 성학집요(聖學輯要)에 큰 관심을 두었고 양명학으로 무장된 중국학자들의 담론에서 주체적 인식으로 그들의 논리를 배척하고 있다.

특히 시인으로 유명하였는데, 그의 시는 청신완려(清新婉麗)하다는 평을 들었다. 저서로는 하곡집, 하곡수어(荷谷粹語) 등이 있다.

(참고: 연려실기술,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인명대사전), 이용준

허 성(許 箴)

〈묘〉 명종 3년(1548)~광해군 4(1612) 조선중기의 문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공언(攻彦), 호는 악록(岳麓), 산전(山前), 초당(草堂), 엽(曄)의 아들, 봉(葑), 균(筠)의 형이고 난설현(蘭雪軒)의 오빠.

유희춘(柳希春)의 문인이며 당시 이름난 문장가로 선조 1년(1568) 생원이 되고 1583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부제학, 이조판서를 역임한 사람이며 성리학(性理學)으로도 일가견을 가졌던 석학이었다. 그는 서장관으로 정사 황윤길과 함께 일본에 다녀

와서 왜의 동정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돌아왔다.

그당시 왜의 「풍신수길」은 자국(自國) 66주를 통합하고 정병 백만을 훈련해서 대륙 침공의 야심을 품고 기회만을 엿보고 있던 때이다. 이들은 여러번 중국 강절지방을 침공했으나 실패한 후 먼저 조선을 점령하고 육로로 진격해서 요동과 연경을 엿보려는 전략을 마련하고 조선에게는 중국을 쳐들어갈 것이니 길을 좀 비켜 달라는 구실을 내세워 1589년 5월 대마도주 〈현소(玄蘇)〉와 〈평조신〉등의 첩자를 사신으로 보내어 조선을 낚낱히 정탐하고 돌아갔다. 다음해인 경인 4월에 조선에서도 황윤길을 서장관 정사로 하고 김성일, 허성등을 부정사로 임명하여 〈풍신수길〉의 동정을 살피고 돌아오도록 파견하였다. 그런데 동인(東人)인 김성일은 일본이 군사를 움직일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고 정사 황윤길은 왜적이 반드시 침범하리라는 엇갈린 복명을 하였다.

이 두사람의 상반된 주장에 난색을 감추지 못한 임금은 〈풍신수길〉의 생김새가 어찌 하더냐고 하문하였다. 이에 황윤길은 대답하기를 「수길의 눈이 광채가 있으니 필시 담력과 지력이 있으며 야심이 있는 사람같았습니다」라고 했으나 김성일은 「수길의 눈이 쥐새끼같으니 크게 두려워할 인물이 아니더이다」라고 하였다.

이 두가지 견해를 놓고 동인(東人)은 〈별 일이 없을 것이다〉하였고 서인(西人)은 〈우려할 사항이다〉하면서 당론을 위한 주장으로 맞섰다. 그러나 허성은 동인이면서도 〈왜병은 반드시 침공할 것〉이라고 피력하고 비교적 분석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는 「일본은 가보니 곳곳마다 성을 지키는 군졸이 파리하고 병약하며 힘없는 늙은이들 뿐이었는데 이것은 단지 우리 일행을 기만키 위한 것이었다」고 복명하면서 한나라 고제의 예지 들어가면서 설명하였다.

즉, 한나라 고제가 평성에서 흉노와 대치했는데 고제는 흉노의 진중에 사자를 보내어 정탐했더니 적은 이미 정예부대와 정병을 숨기고 나약한 병졸만을 진중에 배치하여 이들을 기만했다. 고제는 이들의 간계를 모르고 사자의 복명만 믿고 전진하였다가 대패하였다는 고사와 같은 것이라고 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정사(正使)나 부정사(副正使)보다도 더 정확하게 복명하였다. 그러나 김성일만을 계속해서 쳐들어 올 징조가 없다고 우겨 결국 대비없이 임진왜란을 당하고 말았다.

왜적의 소식이 날로 심상치 않음을 알게 된 조정에서는 늦게나마 변방의 사정을 아는 재상을 골라 삼도를 순찰케 하고 김수를 경상감사, 이광을 전라감사로 하여 병기를

점검케 하고 성을 수축케 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오던 백성들은 부역을 기피하고 불만이나 늘어 놓았다가 그해 4월 왜적의 침공을 당하여 전 국토가 유린되는 참화를 겪는다. 반복될 수 없는 역사의 시말을 통해서 볼때, 파당과 불화와 불신이 빛은 국론분열의 결과는 이렇듯 엄청난 것이었다.

그후 허성은 왜란중에 이조좌랑을 자청하고 강원도 지방의 초모사가 되어 군병의 모집에 힘썼으며, 내치에 힘써 선조의 신임을 받았으며 후에 선조와 대비로부터 교서(敎書)를 받은 교서7신(敎書七臣)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

그의 묘소는 원삼면 맹리에 이장되었으며 부친 허초당의 묘표에 그의 유필이 전한다.

(참고 : 연려실기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향토문화와 전통(용인군)), 이인영

허엽(許曄)

〈묘〉 중종 12(1517)~선조 13(1580)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태휘(太輝), 호는 초당(草堂), 군자감 부봉사 한(澣)의 아들이며 봉(葑), 균(筠), 난설헌(蘭雪軒)의 부친. 진사시를 거쳐 신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다. 1551년 부교리를 거쳐 1553년 사가독서한 뒤 장령으로 있을때 재물을 탐한 죄로 파직되었다.

1559년 필선으로 서용되고 이듬해 대사성에 이르렀다. 1562년 지제교를 겸하였을때 박계현(朴啓賢)과 함께 왕의 소명을 받고 옥취정(玉翠亭)에 들어가 율시(律詩)로 화답하였다. 이해 동부승지로 참찬관이 되어 경연에 참석하여 조광조(趙光祖)의 신원을 청하고 허자(許磁), 구수담(具壽聃)의 무죄를 논한 사건으로 파직되었다.

1563년 삼척부사로 서용되었으나 과격한 언론때문에 파직되었으나 1568년(선조 1) 진하사(進賀使)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향약의 설치 시행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이 말을 듣고 〈오활한 것이어서 세속에 해괴할 뿐이라〉고 듣지 않으니 선조 6년(1573) 3사가 번갈아 소를 올려 허엽의 의견을 동조하고 향약의 시행을 주청하니 비로서 임금이 허락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갑술(1574)년에 율곡 이이가 향약 시행이 시기상조라고 주청하여 이를 중지토록 하자 그는 세상이 잘되고 못되는 것은 모두 운명이니 어찌한단 말인가? 라면서 탄식하였다.

1575년 부제학을 거쳐 경상도 관찰사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사퇴하고 동지중추부사의 한직으로 전임되었다가 상주의 객관에서 일생을 마쳤다.

어려서 나식(羅湜)에게 소학, 근사록을 배웠고 서경덕(徐敬德)의 문인으로 학문을 익혔으며, 노수성(盧守成)과 벗하였다. 동·서인(東西人)이 대립할때 김효원(金孝元)과 함께 동인의 영수가 되어 당시 사류의 지도급 인물이 되었다. 벼슬을 30년간이나 지냈으면서 생활이 검소하였다. 박순(朴淳)과는 동문이었으나 당파가 서로 달라 사이가 멀어졌고 말년에 경상도관찰사로 있을때 김정국(金正國)이 찬수한 경민편(警民編)을 보충반포하고 삼강이륜행실(三綱二倫行實)의 편찬에 참여하였고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그의 묘는 원삼면 맹리 능안마을에 있으며 한석봉이 쓴 신도비가 입구에 전한다.

(참고 : 연려실기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인명대사전), 금병윤

허 적(許 楫)

(출생, 사당, 초상) 명종 18(1563)~인조 19(1641) 자는 자하(子賀), 호는 수색(水色), 상고재(尙古齋), 본관은 양천 증찬성(贈贊成) 방(昉)의 아들. 가정(嘉靖) 계해(명종 18) 용인에서 출생. 24세 되던 해인 선조 21년 무자(1588)년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정유(1597)년에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을과로 급제한후 1599년 북청관으로 있다가 형장(刑杖)을 남용한 죄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체직되고 1605년 경기좌도 경차관(京畿左道敬差官)을 지냈으나 답험(答驗)의 부정으로 다시 체직되었다가 곧 영천군수를 제수받고 1607년 형조좌랑이 되었다. 광해군 6년(1614) 호조좌랑을 지내다가 벼슬을 하지 않고 용인에 낙향하였으나 인조반정 이후에 복직되었다. 이때 광해군(光海君)의 외척으로서 한때 득세하여 권세를 부리던 유효립(柳孝立)이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몰락한 후 제천에 유배되었는데 유효립은 폐주 광해군의 복위를 꾀하여 정심(鄭沁), 윤계륜(尹繼倫)등과 내통하면서 자기 아들과 추종자들을 은밀히 도성으로 잠입시키고 무진년(1628) 1월 4일밤 대궐을 점거키로 하는 역모를 꾀했다.

거사 하루 전날인 1월 3일 이들의 역모를 알게 된 허적은 허계(許契)와 상의하여 허계의 아들인 선(選)으로 하여금 밤을 달려 조정에 고변(告變)하였으므로 비변사(備邊司)에서는 군사를 동원하고 고변한 허선 등과 함께 동대문과 남대문에 잠복하였다가 그날 저녁 길을 나누어 도성으로 들어오던 역도들을 모조리 체포하므로써 정변의 위기를 막았다. 이 공으로 허적은 영사원훈공신(寧社元勳功臣)에 책봉되고 논근행상의 전권을 위임받게 되었으나 허적은 소를 올려 “불행히도 역적 중에는 신의 가까운 친척(許訖)이

있었으므로 진한(秦漢)의 법으로 따진다면 마땅히 3족을 멸하여야 할 것이운데 거룩한 조정의 법이 너그러워 죄는 면할 수 있을지라도 어찌 족할만한 공로가 있겠느냐”고 사양하였으나 이해 3월 11일 영사공신 가운데 원훈으로 녹공되고 양릉부원군(陽陵府元君)에 피봉되었다. 원삼면 맹리에 사당이 전한다.

(참고 : 단서철권, 양천허씨 세보, 민족문화백과사전, 내고장의 일), 이인영

허 형(許 炯)

평남 안주 태생으로 1894년 2월 20일 출생. 1963년 12월 1일 기흥읍 보라리 394번지에서 타계하였다.

평양 대성학교(大成學校)에 재학중 1910년 3월 대성학교가 폐교되자 학업을 중단한 그는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만세시위에 참가하여 본격적인 대일투쟁에 나섰다. 이어 한국대(韓國泰), 함병승(艦秉昇)등과 함께 조선독립청년단이라는 단체에 가입하여 주로 학생층을 상대하는 지하투쟁을 전개하였다.

그후 원산에서 최자남(崔子男)을 만나 최자남으로부터 강우규(姜宇奎)를 소개받아 강우규와 며칠동안 같이 지내면서 재등실(齋藤實) 총독을 독살시키려는 강우규의 계획에 자신도 참여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강우규는 서울 남대문역에서, 그는 서울 용산역에서 대기하여 재등총독이 하차하면 폭탄을 투척하기로 하였다.

그는 그후 한흥근(韓興根)에게 폭탄 입수를 부탁하였으나 서로 연락이 맞지를 않아 결국은 폭탄을 입수치 못하고 강우규의 거사 성공만을 고대하고 있었다. 1919년 9월 2일 재등실 총독을 향해 폭탄을 투척하고 다음날 찾아온 강우규를 만나 재거사를 의논하였다. 그러나 강우규가 9월 17일 서울 사직동 박승화(朴承華)의 집에서 체포됨에 따라 그도 최자남과 함께 연루되어 체포되고 말았다. 1921년 8월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 6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출옥한 후 일주일도 안되어 한흥근의 폭탄 은닉 혐의로 평양감옥에 투옥되었다. 예심 6개월 후 면소 석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1922년 5월 동아일보 안주지국 기자로 활동하면서 안주청년회를 조직하여 항일정신을 고취하는 한편 야학교를 설립하여 부녀자들의 계몽에 힘썼다.

1926년 10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허위로 꾸민 강중건(姜重建 : 강우규의 아들)사건에 관계하였다는 혐의로 그는 평북 정주경찰서에 체포되어 의주감옥에서 6개월간 옥고를

당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27년에는 신간회의 안주지회부 회장겸 정치부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그는 안주인민정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가 1947년 2월 21일 월남하였다.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참고: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 이인영

현인복(玄仁福)

양지현감(陽智縣監). 현종 9년 1월 도입하였으나 전직(前職)의 비리로 인하여 파직된 후 잡혀갔다. 전직 비리가 적발되어 현직 현감이 체포 압송된 예로서는 역대현감중 그가 처음이 된다.

〈참고: 내고장 용인 시사년표〉, 박상돈

홍계희(洪啓禧)

〈묘〉 숙종 29(1703)~영조 47(1771) 조선 문신. 자는 순보(純甫), 호는 담와(淡窩), 본관은 남양(南陽), 참판 우전(禹傳)의 아들. 영조 13년(1737)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장원, 정언(正言), 수찬(修撰)을 거쳐 1742년 북도감진어사(北道監賑御史)로 나가 공을 세우고 이듬해 북도별견어사(北道別遣御史)가 되어 북로(北路)의 지형을 자세히 살피고 복명(復命)하였다. 그 공으로 공조참의(工曹參議)에 특진, 부제학(副提學)등을 지내고 영조23년(1747) 대사성에 재직중 서울의 유생들을 거재(居齋)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파직되었다. 이듬해 통신사(通信使)로 일본에 다녀온 후, 1749년 충청도 관찰사가 되고 이듬해 병조판서로 균역법 실시에 노력하였다. 그후 이조판서, 한성부 판윤을 역임, 1757년 편집당상(編輯堂上)으로 열성지(列聖誌)를 증보하고 왕명으로 해동악(海東樂)을 지었으며, 영조 38년(1762) 경기도 관찰사 김한구, 윤급 등과 공모하여 나경언(羅景彦)의 상변(上變) 사건을 일으켜 영조로 하여금 사도세자(思悼世子)를 죽이게 하는데 가담하였다. 그후 판증추부사로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글씨를 잘 썼다. 죽산부사로 있을때 용인군 와서면 석천리 소재 반계 유흥원의 비문을 썼다. 정조 1년(1777) 그의 아들 술해(述海)와 손자 상간(相簡)이 대역(大逆) 혐의를 받고 사형되자 그의 관직도 모두 추탈되었다. 시호는 문간(文簡), 묘는 모현면 일산리에 있다.

〈참고: 한국인물대사전〉, 노승식

홍금만(洪今萬)

항일의병. 용인군(이하 불명), 당년 30세의 청년으로 당초 용인출신 의병장 정철화(鄭哲和)가 30여명의 의병을 인솔하고 홍금만이 사는 동리에 들어와 의병물자를 징발하고 이동할때 이에 투신하여 죽산, 청주, 충주지방에서 활동하다가 충주 방면에서 일본군과 조우, 격전이 벌어지자 피신하여 돌아왔다.

그후 율희 2년 2월 9일 의병 박춘식의 일대에 다시 가담하여 용인 성산리 존위, 마가실 존위 등을 습격하여 의병 활동자금 4백냥을 징취하고 광주군 전지리(前枝里), 서낭청의 벼슬아치의 집에 들어갔다가 대기중이던 일경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홍금만은 의병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적당을 제거하고 의거하여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1908년 6월 11일 경기도재판소 판서서리 수원군수 서병숙(徐丙肅)으로부터 10년형을 언도받고 복역하였다.

<참고: 독립운동사 별책(1), 재판기록, 금병운

홍 돈(洪 墩)

<출생>~? 효자. 효행이 뛰어나 주민의 칭송이 자자하였으므로 향당이 품신하여 정조 4년, 경자년(1780) 조세와 부역을 면제받았다.

<참고: 읍지, 이응준

홍명운(洪明云)

항일의병. 율희 3년(1909) 4월 20일 출생. 죽산군 원삼면 능촌(지금의 원삼면 죽능리)에 거주하였다.

의병 홍명운은 의병장 정주원 휘하에서 활약하였다. 정주원이 체포되어 1,2심에서 사형, 3심에서 종신형을 언도받았을 때에도 투항치 않고 전국 각처에 다니며 활동하였으므로 지명수배중 1909년 4월 20일 양지군 도동면 향림동에서 체포되었다. 그러나 압송 도중 저항하면서 도주를 기도하였다는 이유로 일본군이 총살하였다.

<참고: 경기경찰부장 경시 飯田章, 경경비수(京警秘收) 제1730호, 노승식

홍명하(洪命夏)

〈문헌〉 선조 41(1608)~현종 9(1668) 조선 문신. 자는 대이(大而), 호는 기천(沂川), 본관은 남양, 서익의 아들. 1644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 검열을 거쳐 1646년 문과중시(文科重試)에 급제한뒤 정인, 교리를 역임하였고 암행어사로서 부정한 관리를 적발하는데 당대에 이름을 떨쳤으며, 예조·병조판서를 거쳐 현종 4년 우의정이 되었다.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효종의 신임이 두터워 왕을 도와 북벌계획을 적극 추진하였고 박세채, 윤증등 명신을 천거하였다. 생전에 홍중보에 이어 제9대 총렬서원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참고 : 총렬서원 선생안〉, 이인영

홍백진(洪百震)

〈생거급제〉 영조 38년(1762)~? 자는 공서(公序), 본관은 남양(南陽), 완(完)이 아들. 정조 16년(1792) 30세때 임자식년문과(壬子式年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참고 : 고사대전 용인군지〉, 박상돈

홍사용(洪思容)

〈출생〉 본관이 남양(南陽)인 홍사용의 호는 노작(露雀), 소아(笑啞), 백우(白牛) 등이 있지만 대부분 ‘노작’으로 작품활동을 하였다.

용인군 기흥읍 농서리 용수골에서 대한제국 통정대부 육군헌병부위를 지낸 아버지 철유(哲裕)와 어머니 이한식(李韓植-韓山李氏)의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 태어난 지 100일만에 서울 재동(齋洞)으로 옮겨 자라다 9세되던 해에 아버지와 함께 화성군 동탄면 덕우리로 내려와 휘문의숙(徽文義塾)에 입학하기 전까지 그곳의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하였다.

13세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두살 위인 원씨(元氏)와 결혼하여 1916년 휘문의숙에 입학, 하숙생활을 시작했다. 문학활동을 시작한 것이 휘문의숙 시절 부터이며 3학년 재학중에 박종화(朴鍾和), 정지현(鄭志鉉)등과 함께 시집 《피는 꽃》을 등사하여 발간하

었다. 1919년 휘문의숙 졸업과 기미독립운동에 가담하였다 체포된 적도 있었으나 얼마 후 풀려났다.

귀향하여 정백(鄭栢)과 함께 수필 〈청산백운(靑山白雲)〉과 시 〈푸른 언덕가으로〉를 썼는데 이 두 작품은 유고로 전해지다 후일 공개되었다.

1922년 재종형 사중(思中)을 설득하여 문화사(文化社)를 설립, 우리나라 낭만주의의 기틀이라 할 수 있는 문예지 백조(白潮)와 사상지 흑조(黑潮)를 기획하였으나 여의치 못해 《백조》만 3호까지 간행하였다.

이상화(李相和), 박영희(朴英熙), 박종화(朴鍾和)등과 함께 《백조》지를 발행하며 그의 시작활동은 본격화되었다. 《백조》지 창간호의 권두시 〈백조는 흐르는데 별하나 나하나〉를 비롯하여 〈나는 왕(王)이로소이다〉, 〈묘장(墓場)〉, 〈그것은 모두 꿈이었지마는〉등 20여편과 민요시 〈각시풀〉, 〈붉은 시름〉등 수편 및 소설 〈저승길〉, 〈뽕덕이네〉, 〈봉화가 퍼질 때〉, 희곡 〈할미꽃〉, 〈출가(出家)〉, 〈제석(除夕)〉외에도 수필과 평문이 실려 있다.

그외에도 《개벽》, 《동명(東明)》, 《여시(如是)》, 《불교》, 《삼천리》, 《매일신보(每日申報)》등에도 많은 시와 소설, 희곡등 작품을 발표하는 한편, 《백조》 폐간이후에는 연극에도 몰두하는등 폭넓은 활동을 보여주었다.

1923년 토월회(土月會)에 가담하여 문예부장직을 맡았는가 하면 1927년 박진(朴珍), 이소연(李素然)과 함께 산유화회(山有花會)를 조직하였으며 1930년 홍해성(洪海星), 최승일(崔承一)과 함께 신흥극장을 조직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낌없는 투자와 불같은 그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거듭하여 마침내는 가산을 모두 탕진해버리는 불운을 겪었다.

집안이 기울자 불교쪽으로 관심을 돌려 불교잡지 《여시(如是)》를 간행하게 되었으며 1928년 4월 불교사(佛敎社) 석가탄신 경축공연에서 그 자신이 희곡 〈태자의 출가〉를 직접 쓰고 출연하기도 했다. 1929년경부터 친구 박진(朴珍)의 집에서 기거하는등 한동안 방랑생활을 하다 돌아와 자하문밖 세검정 근처에서 한약방을 차려 생계를 이어 나갔다.

해방전 일제의 강요에 못이겨 희곡 〈김옥균(金玉均)전〉을 쓰다 절필한 연유로 주거래한을 받는 수난을 겪었으며 이후 교편을 잡기도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그뒤 8.15광복을 맞아 근국청년단(權國靑年團)운동에 가담하였으나 뜻을 펴지 못한채 지병인 폐질환으로 1947년 눈을 감았다.

그의 시세계는 감정의 과잉으로 표출되는 비애의 눈물과 허망감을 형상화한 초기의 사실적 장시와 민요의 율조를 바탕으로 민족관념을 노래한 민요시로 구분된다. 대표작 〈나는 왕이로소이다〉와 〈그것은 모두 꿈이었지마는〉등 일현의 작품들은 장시를, 그리고 〈봄은 가더이다〉, 〈해저문 나라에서〉등은 민요적 시라 할 수 있다.

시문학사적 위치로 볼때 1920년대초 낭만주의운동의 선봉에 섰던 그의 공적은 매우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나는 왕이로소이다〉에서 보인 어머니와 동심적 비애, 향토적 서정, 자전적 전기등의 감상적 색채는 그의 시적 특징이며, 그는 이러한 비애의식을 민족적 차원으로 끌어올린 시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48세의 많지않은 일생동안 예술활동을 위해 아낌없이 전재산을 투자했던 홍사용.

두주를 불사하면서도 남에게 취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만큼 끈은 성격과 꺾임없는 모습을 간직했던 그는 함께 문학활동의 길을 걸었던 조지훈(趙芝薰), 박종화(朴鍾和)등에게 흰 모자, 흰 옷, 흰 신을 늘 착용한 깨끗한 멋쟁이로 회고되었다.

용인군 기흥읍 능서리에 그의 생가중 안채가 아직 남아 있으며, 묘소는 화성군 동탄면 석우리에 있다.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코 자기 작품을 활자화하지 않으려는 까다로운 성격 탓에 생존시에는 작품집이 나오지 않았고, 1976년 유족들이 시와 산문을 모아 《나는 왕이로소이다》를 간행하였다.

〈참고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박상돈

홍순복(洪順福)

〈관향〉 생몰미상. 호는 고암(顧菴), 자는 자수(子綬), 본관은 용인(龍仁), 관위(官位)는 지평(持平)에 이르렀다. 용인이 관적(貫籍)으로 밝혀져 용인이 본관인 성씨는 용인이씨(龍仁李氏), 추계추씨(秋溪秋氏 또는 양지추씨라고도 함)와 용인홍씨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 : 한국고사대전〉, 금병윤

홍 씨(洪 氏)

〈묘〉 ~? 열녀. 공중노(孔重魯)의 처이다. 시부모 모시기에 온갖 정성을 기울였으나 시아버가 질병으로 죽음에 이르러 운명하려 하자 단시수혈로 생명을 건지려 하였다. 홍씨는 이 일로 마침내 파상풍을 얻어 죽고 말았다. 이 일이 임금에게 알려져 영조 17년 신유년(1741) 열녀로 명정(命旌)되었으나 그 정려문은 전하지 않는다.

〈참고: 읍지〉, 이응준

홍종엽(洪鍾焄)

31만세주동. 생몰 1899. 9. 11~1983. 6. 28. 용인국 포곡면 금어리 사람이다.

1919년 3월 28일 권종목(權鍾穆) 등과 함께 마을사람 2백여명을 규합, 친형인 종욱(鍾煜)과 함께 삼계리 마을까지 진출, 만세시위를 주도하면서 태극기를 앞세우고 시위 행진을 계속, 김량장까지 이끌어 갔다.

이로 말미암아 5월 1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고 항고하였으나 6월 2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독립운동사 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독립유공공훈록(국가보훈처), 노승식

홍종욱(洪鍾煜)

생몰 1892. 5. 19~1968. 9. 6.

용인을 고립리에 거주하였다. 동생 종엽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1919년 3월 28일 권종목과 함께 마을사람 2백여명을 규합, 시위를 벌이면서 이장 권종목으로부터 태극기를 받아들고 시위대의 선두에서 김량장까지 진출했다가 형제가 함께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이해 5월 1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고 항고하였으나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독립운동사 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독립유공공훈록(국가보훈처), 금병윤

홍중보(洪重普)

〈문헌〉 광해군 4년(1612)~현종 12(1671) 조선 문신. 자는 원백(遠伯), 호는 이천(梨川), 본관은 남양. 평안도 관찰사 명구의 아들. 인조 13(1635)년에 진사시에 자원, 1641년 영릉참봉을 거쳐 시직(侍直)이 되었다. 1645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성산현감을 지내고 수찬, 기사관으로 인조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후 수원부사를 거쳐 대사헌, 호조참판, 병조판서, 우참찬 판의금부사 등을 거쳐 1669년 우의정이 되었다. 말년에 정유성의 뒤를 이어 제8대 총렬서원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참고 : 총렬서원 선생안〉, 이인영

홍직필(洪直弼)

〈문헌〉 영조 52(1776)~철종 2(1852) 조선 문신. 자는 백응(伯應), 호는 매산(梅山), 본관은 남양,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이간(李簡)의 아들. 박윤원의 문인. 사마시에 실패한 후 학업에 정진하여 대학자가 되었다.

1814년 학행으로 천거받아 세자익위사 세마가 된후 장흥고 봉사를 지내고 사퇴하였으나, 1838년 다시 천거되어 지평(持平), 부사직(副司直)을 거쳐 철종 2년 대사헌이 되고 형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했다.

유학자로 문장에 뛰어났으며, 신해(1851)년부터 다음 해인 임자(1852)년까지 제42대 총렬서원 원장으로 직함을 남겼다.

〈참고 : 총렬서원 선생안〉, 이응준

황경준(黃敬俊)

항일의병. 생몰 1883. 6. 5~1940. 6. 23. 용인군 원삼면 사람이다. 1919년 3월 21일 용인군 원삼면에서 이봉현(李峰鉉), 김영달(金永達), 김성남(金性男), 이은표(李殷杓), 이용환(李容煥), 최상근(崔相根), 안명옥(安明玉), 김은수(金殷秀)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이들은 마을을 누비면서 주민들을 규합하고 산봉우리마다 봉화를 올리는 등 준비를

갖춘후 이날 새벽 햇불을 들고 주민 2백여명과 함께 독립만세를 크게 외치면서 원삼면 사무소를 향해 시위행진을 하였다. 이어 면장을 앞세우고 다시 장터로 향해 시위 행진을 벌이던 중 출동한 일군 헌병과 경찰의 무차별 발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때 그는 주동자의 한사람으로 체포되어 이해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형을 언도받고 항고하였으나, 7월 11일 경성복심법원과 9월 22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92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1919. 9. 22. 고등법원,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독립유공자공훈록(국가보훈처)),
이인영

황 림(黃 琳)

묘(墓) 광국공신(光國功臣). 수지면 고기리 광고산 하단 유좌지원(西坐之原).

자(字)는 여은(汝溫), 호는 겸재(謙齋), 시호는 평장(平莊), 본관은 창원이다.

조선 중종 정축(1517) 출생. 27세때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한 후 관직에 나아가 인종 원년 을사(1545)에 춘추관 기사관을 거쳐 돈령부 주부가 되었다. 그후 명종 5년(1550) 경술에 병조 정랑에 올랐다가 명종 8년(1553) 함안군수. 11년(1556)에 보은군수, 무오년(1558)에 울산도호부사 등을 역임하던 중 명종 갑자(1564)에 부친상을 당하여 3년간 시묘하였다. 선조 4년 신미(1571)에 다시 이조참의에 제수되었으나 그해 9월에 모친상을 당하여 사직. 3년 상을 마친 후 여주목사로 있을 때, 임금이 이조(吏曹)에 묻기를 「현재 고을을 다스리는데 있어 가장 뛰어난 인물이 누구냐」고 하였다. 이조에서는 네 명을 들어 아뢰이니 특지로 황림을 대사헌에 임명하였다.

선조 11년 무인(1578)에 중계변무 주청사로서 서장관 황윤길과 함께 명나라에 다녀온 후 이조판서 겸 세자 시강원 좌부빈객이 되었다. 이즈음 조정에서는 국초에 반적 윤이, 이초가 중국에 들어와 이씨왕조의 조상이 「고려 배신(陪臣) 이인임(李仁任)의 사자(嗣子)」라고 무고하여 조정에서는 누차 명나라에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태조실록을 고칠 수 없다」고 변변히 거절하였다. 이 문제가 선조 때 인 을축년(1589)에 와서야 매듭 짓게 됨으로서 경인(1590) 8월 선조는 전후. 주청한 주청사 19명을 (수충공성익모수기 광국공신(輪忠翼謨修紀光國功臣))으로 책록하였다. 이때 황림은 광국3등공신으로 의창

군(義昌君)에 피봉되었다. 선조 24년(1591) 기로소에 들었고, 선조30년 정유(1597) 10월 24일 81세를 일기로 하세하였다. 배위(配位) 순흥안씨, 계배 파평윤씨와 합폄되었다. 후에 영의정에 추증되고 평장공의 시호가 내려졌다. 묘는 조선 초기 묘제양식인 방형분으로 봉분하단에 지대석이 놓여있고 묘전에는 묘비석, 상석, 문관석, 망주석 등이 있으며 묘하에는 12·13대 후손들이 세운 신도비가있다.

〈참고문헌: 연려실기술, 국사대사전, 한국고사대전, 신도비명〉, 노승식

황효원(黃孝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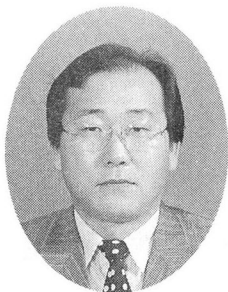
〈출생〉 태종 14년(1414)~성종 12년(1481).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자영(子永), 호는 소원(少原), 본관은 상주(尙州)로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된 사간(士幹)의 아들이다. 용인출신으로 세종 26년(1444) 식년시(式年試)에 장원급제하여 예빈시 주부가 되고 예조 좌랑, 사간원, 좌헌납, 의정부의 검상과 사인등을 역임하였다.

세조 원년(1455) 사복시윤(司僕寺尹)으로서 세조의 즉위를 도운 공으로 우익공신(右翼功臣) 3등에 채록되고 이조참의(吏曹參議)로 특진하였다. 세조 3년(1457) 공조참판으로서 성절겸천추사(聖節兼千秋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온 뒤 상산군(商山君)에 봉해지고 이듬해 대사헌을 거쳐 이조참판, 충청도 관찰사등을 역임하였다. 세조 5년(1459) 경기도 관찰사를 거쳐 이듬해 한성부윤(漢城府尹)이 되고 성종 2년(1471) 좌리공신(佐理功臣) 4등에 채록되었으며 우참찬(右參贊)에 이르렀다. 관찰사를 두번 지내면서 유능하다는 평이 있었으나 처첩을 자주갈아 종신토록 소송이 그치지 않았으며 재화를 탐하여 화가옹(貨家翁)이라고 불리었다. 시호는 양평(襄平)이다.

〈참고: 한국인명대사전〉, 이응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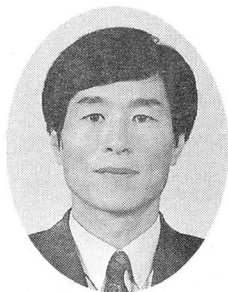
집필자 경력 및 약력

금병윤(琴秉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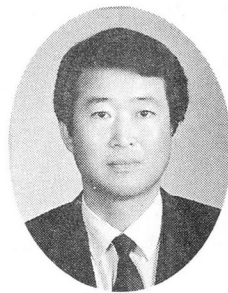
- 1955년 출생.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졸
- 당진·송악·용인태성고 교사 • (현) 백암중고 교사
- 용인군지 집필위원 • 용인향토사학회 회원
- 용구문화편집주간 • 용인군 지명위원
-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 〈연구·논문〉 • 내고장 수수께끼 • 용인군 지명연구
- 용인시비순례 • 용인민속
- 기타 민속·문화자료 발굴 업적다수.

노승식(盧承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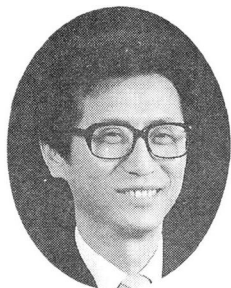
- 1955년 출생. 한양대학교졸. 수원대학행정대학원졸.
- 태성중고 교사 • (현) 백암중고 교사
- 용인전통문화발전위원회 회장 •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 제8회 경기도 민속경연대회 출연지도(종합우수상)
- 제9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지도(종합우수)
- 민속놀이발굴(동해놀이)상 수상. 용인문화상 수상.
- 경기도민상(민속부문)수상
- 〈연구·논문〉 • 용인 동해놀이 연구 • 농악정간보 연구
- 전승놀이 연구 • 용인시비순례 기타 세시풍속연구 업적다수

박상돈(朴商敦)



- 1953년 출생. 태성고 졸 • (현) 공무원
- 용인문화원 이사 •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 용인향토사학회 회원 • 용구문화편집위원
- 용인문예진흥회위원 • 공무원문화회 회원
- 〈저서: 연구〉 • 동인시집 “웃을 벗는 슬픔”, “김량천에 솟는날”, “가을숲에 들면”등 출간
- 기타 시·수필, 옹기 요업지조사 연구등 향토유적 답사 발굴 업적다수

이인영(李仁寧)



- 1943년 출생. 태성고 졸. • 기전문화연구위원
- 시흥·용인군지 집필위원 • 경기도사료관 연구사
- 월간 경기 편집위원 • 용인향토사학회 회장
- 정신문화연구원(민족문화대백과 편찬) 명예향토문화 연구위원
- 용인향토문화 연구소 부소장. (현) 문화원 이사
- 경기도문화상(학술부문)수상 • 용인에향상 수상
- 전국 향토문화연구 논문 공모 우수상(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수상

〈저서〉 • 내고장 용인의 12권

〈연구·논문〉 • 초기백제와 용인 소고 • 석비고 • 호산인장고

• 몽고침입과 처인성 대첩 소고

• 충렬서원 원장록 및 중수기 소고

• 진화 선생 소고. 기타 남은 왕지. 유수 초상, 오명항 교서 발견 보물 지정등 향토문화유산 발굴 업적다수.

이응준(李應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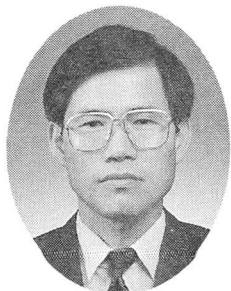
- 1932년 출생. 서울농대 졸. • 남사중 교사. 용인농협근무
-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 용인향토문화연구소 소장
- 용구문화 편집장 • 용인군지 편찬위원 겸 집필위원
- 경기도민상(문화·예술부문)수상 • 농민교육우수상 수상

〈연구·논문〉 • 용인이씨의 원류 • 향토문화 활성화 방안 소고

• 전통문화와 효사상 연구 • 용인문화유적총람 조사연구

• 용인민속지(집필중). 기타 유운리 지석 발견등 향토유적발굴 업적다수.

최희면(崔熙冕)



- 1957년 출생. 태성고 졸. 한국방송대 중국어과 졸
- (현) 공무원 • 향토문제진흥위원 • 용인향토사학회 회원
-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연구·논문〉 • 변암 체제공 선생 약전 및 뇌문비 해제

• 척약재 김약항 선생 소고 • 심청현 김세필 선생 소고

• 독립지사 남정각 선생 약전

• 지방자치와 바람직한 발전방향 연구논문.

기타 향토문화 조사연구자료 발표 다수.

龍仁文化院 郷土文化資料叢書

- 1983. 내고장 民謠(李仁寧·洪順錫)
- 1984. 내고장 龍仁(李仁寧)
- 1984. 내고장의 얼·人物編(洪順錫)
- 1985. 내고장 옛이야기(李仁寧·洪順錫)
- 1986. 내고장의 얼·遺物遺蹟編(李仁寧)
- 1987. 내고장 民俗(河周成)
- 1989. 내고장 龍仁·義兵抗爭 및 獨立運動史(李仁寧)
- 1991. 내고장 龍仁 地誌總覽(李仁寧)
- 1994. 龍仁郡 時事年表(李仁寧)
- 1995. 내고장 龍仁·人物總覽(共編)

文藝誌叢書

- 1990. 옷을 벗는 슬픔(동인시집)
- 1991. 김량천에 솟는 달(동인시집)
- 1992. 가을숲에 들면(동인시집)
- 1995. 이야기 하나(주부 시·수필 문학집)

향토문화자료 10

내고장 龍仁人物總覽

1995년 11월 30일 인쇄

1995년 12월 5일 발행

엮은곳 : 용인문화원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인 : 송 재 권

발행처 : 용 인 문 화 원

인쇄처 : (주)이 문 기 업
TEL. 504-1600

(비매품)



용인군립도서관



RE01727